

정책보고서 2009-16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최미영 손창균 오혜경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 문 위 원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완호	국립재활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박성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안과 교수
박철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서동우	한별정신병원 진료원장
송동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
오승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유규형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이준성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태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장학과 교수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지난 해 8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표명하였듯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2008년에 일곱 번째 장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올해는 기존의 가구표본조사 방식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7,000명의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난 2003년 2단계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장애인등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210여 만명의 등록장애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장애특성, 일상생활지원,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 결혼생활·여성장애인, 폭력·차별,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조사되지 않았던 장애인의 주거 부분이 추가되었고, 보건·의료,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내용도 수정·보완되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의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성희 부연구위원, 윤상

용 부연구위원, 강민희 부연구위원, 손창균 부연구위원, 최미영 연구원, 그리고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준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과장, 최병훈 사무관, 손장혁 주무관 및 박은영 주무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조사항목을 검토 및 자문해 주신 분야별 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시설내 장애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한센병시설 및 결핵시설 등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응답자와 3개월 동안 실제 현지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68명의 지도원 및 조사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 원의 이삼식 연구위원과 장영식 통계개발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오류점검 등의 자료처리를 도와주신 통계개발팀의 김나연 선임전문원과 보고서 편집에 수고를 해 준 손숙자 3급관리원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도와준 김유진 자료정리요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조사의 배경	25
제2절 조사의 목적	27
제3절 조사의 설계	27
제4절 보고서의 구성	40
제2장 표본설계 개요	42
제1절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	42
제2절 표본 설계	43
제3절 오차의 관리	81
제3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84
제1절 조사표 개발	84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85
제3절 조사의 실제	92
제4절 현지조사	97
제4장 장애의 범위 및 정의	104
제1절 장애의 범위	104
제2절 장애의 정의 및 분류	106
제3절 장애원인 분류	116

제5장 조사결과	118
제1절 장애인의 일반특성	118
제 2절 장애특성	128
제 3절 보건·의료	191
제 4절 일상생활 지원	207
제 5절 장애인보조기구	217
제 6절 보육·교육(장애 아동·청소년)	235
제 7절 취업 및 직업재활	248
제 8절 사회 및 여가활동	257
제 9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265
제10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289
제11절 주거	320
제12절 복지서비스	329
제13절 경제상태	340
제6장 정책건의 및 시사점	347
참고문헌	353
부 록	355

표 목 차

〈표 2-2- 1〉	지역별 등록장애인 분포	43
〈표 2-2- 2〉	지역별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	44
〈표 2-2- 3〉	지역 및 장애유형별 분포	45
〈표 2-2- 4〉	지역 및 장애유형별 분포	47
〈표 2-2- 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	48
〈표 2-2- 6〉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서울)	49
〈표 2-2- 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부산)	50
〈표 2-2- 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대구)	51
〈표 2-2- 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인천)	52
〈표 2-2-1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광주)	53
〈표 2-2-1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대전)	54
〈표 2-2-12〉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울산)	55
〈표 2-2-13〉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경기)	56
〈표 2-2-14〉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강원)	57
〈표 2-2-1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충북)	58
〈표 2-2-16〉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충남)	59
〈표 2-2-1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전북)	60
〈표 2-2-1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전남)	61
〈표 2-2-1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경북)	62
〈표 2-2-2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경남)	63
〈표 2-2-2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제주)	64
〈표 2-2-22〉	전국 읍면동 분포 및 표본 읍면동수	65
〈표 2-2-23〉	장애유형별 비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66
〈표 2-2-24〉	장애등급별 비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66

〈표 2-2-2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분포	67
〈표 2-2-26〉	지역 및 장애유형별 표본수	68
〈표 2-2-2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서울)	69
〈표 2-2-2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부산)	69
〈표 2-2-2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대구)	70
〈표 2-2-3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인천)	70
〈표 2-2-3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광주)	71
〈표 2-2-32〉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대전)	71
〈표 2-2-33〉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울산)	72
〈표 2-2-34〉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경기)	72
〈표 2-2-3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강원)	73
〈표 2-2-36〉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충북)	73
〈표 2-2-3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충남)	74
〈표 2-2-3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전북)	74
〈표 2-2-3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전남)	75
〈표 2-2-4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경북)	75
〈표 2-2-4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경남)	76
〈표 2-2-42〉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제주)	76
〈표 2-2-43〉	지역별 표본 읍면동의 가중치	77
〈표 3-2- 1〉	장애유형별 특성 조사항목의 구성	87
〈표 3-2- 2〉	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90
〈표 3-2- 3〉	시설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92
〈표 3-3- 1〉	장애특성 관련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 명단	97
〈표 3-4- 1〉	장애인심층조사 완료율	101
〈표 3-4- 2〉	시설장애인 조사 완료율	102
〈표 3-4- 3〉	시설내 등록장애인 현황	102
〈표 4-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105
〈표 5-1- 1〉	성별 분포	118

〈표 5- 1- 2〉	연령	119
〈표 5- 1- 3〉	교육정도	119
〈표 5- 1- 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120
〈표 5- 1- 5〉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121
〈표 5- 1- 6〉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122
〈표 5- 1- 7〉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1순위)	122
〈표 5- 1- 8〉	결혼상태	123
〈표 5- 1- 9〉	경제활동분야(직종)	123
〈표 5-1- 10〉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124
〈표 5-1- 1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124
〈표 5-1- 12〉	장애등록년도	125
〈표 5-1- 13〉	장애등급	126
〈표 5-1- 14〉	장애인가구의 총 가구원수	126
〈표 5-1- 15〉	장애인가구의 총 장애인수	127
〈표 5-1- 16〉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127
〈표 5-1- 17〉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128
〈표 5-2-1-1〉	지체장애의 장애부위	129
〈표 5-2-1-2〉	지체장애의 장애형태(1)	130
〈표 5-2-1-3〉	지체장애의 장애형태(2): 손상부위별	130
〈표 5-2-1-4〉	지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31
〈표 5-2-1-5〉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32
〈표 5-2-1-6〉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33
〈표 5-2-1-7〉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34
〈표 5-2-1-8〉	지체장애의 주된 진단명	135
〈표 5-2-2-1〉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136
〈표 5-2-2-2〉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136
〈표 5-2-2-3〉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137
〈표 5-2-2-4〉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37

〈표 5-2-2-5〉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38
〈표 5-2-2-6〉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39
〈표 5-2-2-7〉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40
〈표 5-2-2-8〉	뇌병변장애의 주된 진단명: 연령별	141
〈표 5-2-2-9〉	뇌성마비장애의 출생장소	141
〈표 5-2-2-10〉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	142
〈표 5-2-3-1〉	시각장애 형태	142
〈표 5-2-3-2〉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143
〈표 5-2-3-3〉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	144
〈표 5-2-3-4〉	시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44
〈표 5-2-3-5〉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45
〈표 5-2-3-6〉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45
〈표 5-2-3-7〉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46
〈표 5-2-4-1〉	청각장애 형태	147
〈표 5-2-4-2〉	보청기 사용 여부	147
〈표 5-2-4-3〉	청각장애의 의사소통방법	148
〈표 5-2-4-4〉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148
〈표 5-2-4-5〉	청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49
〈표 5-2-4-6〉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49
〈표 5-2-4-7〉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50
〈표 5-2-4-8〉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51
〈표 5-2-5-1〉	언어장애의 장애형태	152
〈표 5-2-5-2〉	언어장애의 의사소통방법	152
〈표 5-2-5-3〉	언어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153
〈표 5-2-5-4〉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53
〈표 5-2-5-5〉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54
〈표 5-2-5-6〉	언어장애의 원인	155
〈표 5-2-5-7〉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55

〈표 5-2-6- 1〉 지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56
〈표 5-2-6- 2〉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57
〈표 5-2-6- 3〉 지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57
〈표 5-2-6- 4〉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58
〈표 5-2-7- 1〉 자폐성장애의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159
〈표 5-2-7- 2〉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59
〈표 5-2-7- 3〉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60
〈표 5-2-7- 4〉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60
〈표 5-2-7- 5〉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61
〈표 5-2-8- 1〉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61
〈표 5-2-8- 2〉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62
〈표 5-2-8- 3〉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62
〈표 5-2-8- 4〉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63
〈표 5-2-8- 5〉 정신장애의 주된 진단명	164
〈표 5-2-9- 1〉 신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65
〈표 5-2-9- 2〉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65
〈표 5-2-9- 3〉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166
〈표 5-2-9- 4〉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시기	166
〈표 5-2-9- 5〉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여부	167
〈표 5-2-9- 6〉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시기	167
〈표 5-2-9- 7〉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68
〈표 5-2-9- 8〉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68
〈표 5-2-10-1〉 심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70
〈표 5-2-10-2〉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70
〈표 5-2-10-3〉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여부	171
〈표 5-2-10-4〉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시기	171
〈표 5-2-10-5〉 심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72
〈표 5-2-10-6〉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72

〈표 5-2-11-1〉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73
〈표 5-2-11-2〉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74
〈표 5-2-11-3〉	산소치료 처방 사용 여부	174
〈표 5-2-11-4〉	하루 평균 산소치료 사용시간	175
〈표 5-2-11-5〉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175
〈표 5-2-11-6〉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전과 후 삶의 질 변화정도	176
〈표 5-2-11-7〉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시 가장 어려운 점	176
〈표 5-2-11-8〉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중 중단 이유	177
〈표 5-2-11-9〉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77
〈표 5-2-11-10〉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78
〈표 5-2-12-1〉	간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79
〈표 5-2-12-2〉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79
〈표 5-2-12-3〉	간장애의 간이식 여부	180
〈표 5-2-12-4〉	간장애의 간이식 시기	180
〈표 5-2-12-5〉	간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81
〈표 5-2-12-6〉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81
〈표 5-2-13-1〉	안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83
〈표 5-2-13-2〉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83
〈표 5-2-13-3〉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84
〈표 5-2-13-4〉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85
〈표 5-2-14-1〉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부위	185
〈표 5-2-14-2〉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86
〈표 5-2-14-3〉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86
〈표 5-2-14-4〉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87
〈표 5-2-14-5〉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88
〈표 5-2-15-1〉	간질장애의 장애발생시기	188
〈표 5-2-15-2〉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189
〈표 5-2-15-3〉	간질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189
〈표 5-2-15-4〉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190

〈표 5-3- 1〉	장애 원인	192
〈표 5-3- 2〉	장애발생시기	192
〈표 5-3- 3〉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돌 이후(연령별)	194
〈표 5-3- 4〉	현재 주된 장애 치료여부	195
〈표 5-3- 5〉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장소	195
〈표 5-3- 6〉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196
〈표 5-3- 7〉	평소 건강상태	197
〈표 5-3- 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197
〈표 5-3- 9〉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198
〈표 5-3-10〉	최근 2주간 외래치료 경험 여부	198
〈표 5-3-11〉	최근 2주간 외래치료 횟수	199
〈표 5-3-12〉	외래치료 이용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199
〈표 5-3-13〉	외래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200
〈표 5-3-14〉	외래진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00
〈표 5-3-15〉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201
〈표 5-3-16〉	최근 1년간 입원 횟수	201
〈표 5-3-17〉	최근 1년간 입원일수	202
〈표 5-3-18〉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액	202
〈표 5-3-19〉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203
〈표 5-3-20〉	입원진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03
〈표 5-3-21〉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204
〈표 5-3-22〉	주된 만성질환명(1순위)	204
〈표 5-3-23〉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206
〈표 5-3-24〉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206
〈표 5-3-25〉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207
〈표 5-4-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208
〈표 5-4-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210
〈표 5-4- 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11

〈표 5-4- 4〉 도와주는 사람 여부	212
〈표 5-4- 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213
〈표 5-4- 6〉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213
〈표 5-4- 7〉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214
〈표 5-4- 8〉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214
〈표 5-4- 9〉 현재 도움 받는 대가로 비용 지불 여부	215
〈표 5-4-10〉 월 평균 도움 일수	215
〈표 5-4-11〉 1일 평균 도움 시간	216
〈표 5-4-12〉 월 평균 지불액	216
〈표 5-4-13〉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217
〈표 5-5- 1〉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218
〈표 5-5- 2〉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220
〈표 5-5- 3〉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221
〈표 5-5- 4〉 사용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223
〈표 5-5- 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224
〈표 5-5- 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224
〈표 5-5- 7〉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225
〈표 5-5- 8〉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226
〈표 5-5- 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226
〈표 5-5-10〉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227
〈표 5-5-11〉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27
〈표 5-5-1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받은 경험 여부	228
〈표 5-5-1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228
〈표 5-5-14〉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229
〈표 5-5-15〉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230
〈표 5-5-16〉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230
〈표 5-5-17〉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232
〈표 5-5-18〉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233

〈표 5-5-19〉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234
〈표 5-6- 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235
〈표 5-6- 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235
〈표 5-6- 3〉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236
〈표 5-6- 4〉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236
〈표 5-6- 5〉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237
〈표 5-6- 6〉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237
〈표 5-6- 7〉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238
〈표 5-6- 8〉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	238
〈표 5-6- 9〉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239
〈표 5-6-10〉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239
〈표 5-6-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	240
〈표 5-6-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241
〈표 5-6-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241
〈표 5-6-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242
〈표 5-6-15〉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244
〈표 5-6-1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	244
〈표 5-6-17〉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의 문제점(1순위)	245
〈표 5-6-18〉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246
〈표 5-6-19〉	낮 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246
〈표 5-6-20〉	향후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 여부	247
〈표 5-6-21〉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247
〈표 5-6-22〉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248
〈표 5-7- 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248
〈표 5-7- 2〉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249
〈표 5-7- 3〉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249
〈표 5-7- 4〉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250
〈표 5-7- 5〉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250

〈표 5-7- 6〉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251
〈표 5-7- 7〉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251
〈표 5-7- 8〉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1순위)	252
〈표 5-7- 9〉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252
〈표 5-7-10〉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253
〈표 5-7-11〉	직업훈련 경험 여부	254
〈표 5-7-12〉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255
〈표 5-7-13〉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255
〈표 5-7-1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256
〈표 5-8- 1〉	혼자 외출 여부	257
〈표 5-8- 2〉	외출 빈도	257
〈표 5-8- 3〉	외출의 주된 목적	258
〈표 5-8- 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258
〈표 5-8- 5〉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259
〈표 5-8- 6〉	집밖 활동시 불편이유	260
〈표 5-8- 7〉	주요 교통수단	260
〈표 5-8- 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261
〈표 5-8- 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261
〈표 5-8-10〉	현재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262
〈표 5-8-11〉	향후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263
〈표 5-8-12〉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263
〈표 5-8-13〉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264
〈표 5-8-14〉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여부	265
〈표 5-8-15〉	투표하지 않은 이유	265
〈표 5-9- 1〉	결혼 여부	267
〈표 5-9- 2〉	결혼시 연령	267
〈표 5-9- 3〉	결혼시 본인의 장애 여부	268
〈표 5-9- 4〉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268

〈표 5-9- 5〉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269
〈표 5-9- 6〉	배우자의 장애등급	270
〈표 5-9- 7〉	결혼하지 않은 이유	270
〈표 5-9- 8〉	자녀 여부	271
〈표 5-9- 9〉	자녀의 수	271
〈표 5-9-10〉	장애자녀의 여부	272
〈표 5-9-11〉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273
〈표 5-9-12〉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273
〈표 5-9-13〉	제1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274
〈표 5-9-14〉	제1 장애자녀의 연령	274
〈표 5-9-15〉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275
〈표 5-9-16〉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275
〈표 5-9-17〉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276
〈표 5-9-18〉	제2 장애자녀의 연령	276
〈표 5-9-19〉	자녀가 없는 이유	277
〈표 5-9-2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277
〈표 5-9-21〉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278
〈표 5-9-22〉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279
〈표 5-9-23〉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279
〈표 5-9-24〉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인지의 여부	280
〈표 5-9-25〉	이혼경험시 이혼 사유	280
〈표 5-9-26〉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	281
〈표 5-9-27〉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 여부	281
〈표 5-9-28〉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282
〈표 5-9-29〉	유산 경험 여부	283
〈표 5-9-30〉	유산 이유	283
〈표 5-9-31〉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284
〈표 5-9-32〉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284

〈표 5- 9-33〉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	285
〈표 5- 9-34〉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285
〈표 5- 9-35〉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286
〈표 5- 9-36〉	출산 전·후 산후조리 도우미	286
〈표 5- 9-37〉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287
〈표 5- 9-38〉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288
〈표 5- 9-39〉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289
〈표 5-10- 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290
〈표 5-10- 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290
〈표 5-10- 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291
〈표 5-10- 4〉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291
〈표 5-10- 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292
〈표 5-10- 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292
〈표 5-10- 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293
〈표 5-10- 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293
〈표 5-10- 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294
〈표 5-10-10〉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295
〈표 5-10-11〉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295
〈표 5-10-12〉	가족내 차별·폭력의 유형	296
〈표 5-10-13〉	가족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296
〈표 5-10-14〉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297
〈표 5-10-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297
〈표 5-10-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298
〈표 5-10-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298
〈표 5-10-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299
〈표 5-10-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300
〈표 5-10-20〉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300
〈표 5-10-21〉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	301

〈표 5-10-2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302
〈표 5-10-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302
〈표 5-10-2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초등학교	303
〈표 5-10-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303
〈표 5-10-2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중학교	304
〈표 5-10-27〉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304
〈표 5-10-2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고등학교	305
〈표 5-10-29〉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305
〈표 5-10-3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대학교	306
〈표 5-10-31〉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306
〈표 5-10-3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307
〈표 5-10-33〉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307
〈표 5-10-3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308
〈표 5-10-35〉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308
〈표 5-10-3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309
〈표 5-10-37〉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309
〈표 5-10-3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310
〈표 5-10-39〉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	310
〈표 5-10-4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	311
〈표 5-10-41〉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311
〈표 5-10-4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소득(임금)	312
〈표 5-10-4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312
〈표 5-10-4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313
〈표 5-10-45〉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313
〈표 5-10-4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314
〈표 5-10-4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314
〈표 5-10-4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315
〈표 5-10-49〉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315

〈표 5-10-5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316
〈표 5-10-51〉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이용시	316
〈표 5-10-5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 이용시	317
〈표 5-10-53〉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317
〈표 5-10-5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318
〈표 5-10-55〉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318
〈표 5-10-5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319
〈표 5-10-57〉 장애인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319
〈표 5-10-58〉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320
〈표 5-11- 1〉 주택 형태	321
〈표 5-11- 2〉 주거 위치	321
〈표 5-11- 3〉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322
〈표 5-11- 4〉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322
〈표 5-11- 5〉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323
〈표 5-11- 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323
〈표 5-11- 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323
〈표 5-11- 8〉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324
〈표 5-11- 9〉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325
〈표 5-11-10〉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327
〈표 5-11-11〉 주택 개조 의사	327
〈표 5-11-12〉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328
〈표 5-11-13〉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328
〈표 5-11-14〉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329
〈표 5-12-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330
〈표 5-12- 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331
〈표 5-12- 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333
〈표 5-12- 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334
〈표 5-12- 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335

〈표 5-12- 6〉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337
〈표 5-12- 7〉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 희망	339
〈표 5-12- 8〉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340
〈표 5-13- 1〉	주관적 소속 계층	341
〈표 5-13- 2〉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341
〈표 5-13- 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342
〈표 5-13- 4〉	지난 1개월간 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342
〈표 5-13- 5〉	지난 1개월간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343
〈표 5-13- 6〉	가입한 연금 종류(1순위)	343
〈표 5-13- 7〉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344
〈표 5-13- 8〉	차량 소유: 제1차량	344
〈표 5-13- 9〉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345
〈표 5-13-10〉	박탈 경험 여부	346
〈표 5-13-1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346

부표 목차

〈부표 2-1- 1〉	교육정도	361
〈부표 2-1- 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361
〈부표 2-1- 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362
〈부표 2-1- 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362
〈부표 2-1- 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1순위)	363
〈부표 2-1- 6〉	결혼상태	363
〈부표 2-1- 7〉	경제활동분야(직종)	364
〈부표 2-1- 8〉	종사상 지위	364
〈부표 2-1- 9〉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365
〈부표 2-1-10〉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365
〈부표 2-1-11〉	장애등록년도	365
〈부표 2-1-12〉	장애등급	366
〈부표 2-1-13〉	장애인가구의 총 가구원수	366
〈부표 2-1-14〉	장애인가구의 총 장애인수	366
〈부표 2-1-15〉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367
〈부표 2-1-16〉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367
〈부표 2-3- 1〉	주된 장애	368
〈부표 2-3- 2〉	현재 주된 장애 치료여부	368
〈부표 2-3- 3〉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장소	369
〈부표 2-3- 4〉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	369
〈부표 2-3- 5〉	평소 건강상태	370
〈부표 2-3- 6〉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370
〈부표 2-3- 7〉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370
〈부표 2-3- 8〉	최근 2주간 외래치료 경험 여부	371

〈부표 2-3- 9〉	최근 2주간 외래치료 횟수	371
〈부표 2-3-10〉	외래치료 이용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371
〈부표 2-3-11〉	외래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372
〈부표 2-3-12〉	외래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72
〈부표 2-3-13〉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372
〈부표 2-3-14〉	최근 1년간 입원 횟수	373
〈부표 2-3-15〉	최근 1년간 입원 일수	373
〈부표 2-3-16〉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액	374
〈부표 2-3-17〉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374
〈부표 2-3-18〉	입원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75
〈부표 2-3-19〉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375
〈부표 2-3-20〉	주된 만성질환명(1순위)	376
〈부표 2-3-21〉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377
〈부표 2-3-22〉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377
〈부표 2-3-23〉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378
〈부표 2-4-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379
〈부표 2-4-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381
〈부표 2-4- 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382
〈부표 2-4- 4〉	도와주는 사람 여부	382
〈부표 2-4- 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383
〈부표 2-4- 6〉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383
〈부표 2-4- 7〉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383
〈부표 2-4- 8〉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384
〈부표 2-4- 9〉	현재 도움 받는 대가로 비용 지불 여부	384
〈부표 2-4-10〉	월 평균 도움 일수	384
〈부표 2-4-11〉	1일 평균 도움 시간	385
〈부표 2-4-12〉	월 평균 지불액	385
〈부표 2-4-13〉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385

〈부표 2-5- 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386
〈부표 2-5- 2〉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시각장애	387
〈부표 2-5- 3〉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청각장애	387
〈부표 2-5- 4〉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언어장애	387
〈부표 2-5- 5〉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지적장애	388
〈부표 2-5- 6〉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신장장애	388
〈부표 2-5- 7〉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호흡기장애	388
〈부표 2-5- 8〉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안면장애	388
〈부표 2-5- 9〉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장루·요루장애	389
〈부표 2-5-10〉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기타	389
〈부표 2-5-11〉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390
〈부표 2-5-1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시각장애	390
〈부표 2-5-13〉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청각장애	391
〈부표 2-5-14〉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언어장애	391
〈부표 2-5-15〉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지적장애	391
〈부표 2-5-16〉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신장장애	391
〈부표 2-5-17〉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호흡기장애	392
〈부표 2-5-18〉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안면장애	392
〈부표 2-5-19〉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장루·요루장애	392
〈부표 2-5-20〉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기타	392
〈부표 2-5-2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393
〈부표 2-5-22〉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시각장애	393
〈부표 2-5-2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청각장애	394
〈부표 2-5-24〉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언어장애	394
〈부표 2-5-2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지적장애	394
〈부표 2-5-26〉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신장장애	394
〈부표 2-5-27〉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호흡기장애	395
〈부표 2-5-28〉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안면장애	395

〈부표 2-5-29〉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장루·요루장애	395
〈부표 2-5-30〉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기타	395
〈부표 2-5-31〉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396
〈부표 2-5-32〉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396
〈부표 2-5-3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396
〈부표 2-5-3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397
〈부표 2-5-3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397
〈부표 2-5-3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398
〈부표 2-5-37〉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398
〈부표 2-5-38〉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398
〈부표 2-5-3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험 여부	399
〈부표 2-5-40〉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399
〈부표 2-5-4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399
〈부표 2-5-42〉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휴대폰	400
〈부표 2-5-43〉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휴대폰	400
〈부표 2-5-44〉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휴대폰	400
〈부표 2-5-45〉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컴퓨터	401
〈부표 2-5-46〉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컴퓨터	401
〈부표 2-5-47〉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컴퓨터	401
〈부표 2-5-48〉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402
〈부표 2-5-49〉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인터넷	402
〈부표 2-5-50〉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인터넷	402
〈부표 2-5-51〉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휴대폰	403
〈부표 2-5-52〉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휴대폰	403
〈부표 2-5-53〉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휴대폰	403
〈부표 2-5-54〉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컴퓨터	404
〈부표 2-5-55〉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컴퓨터	404
〈부표 2-5-56〉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컴퓨터	404

〈부표 2-5-57〉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인터넷	405
〈부표 2-5-58〉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인터넷	405
〈부표 2-5-59〉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인터넷	405
〈부표 2-6- 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406
〈부표 2-6- 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406
〈부표 2-6- 3〉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406
〈부표 2-6- 4〉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407
〈부표 2-6- 5〉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407
〈부표 2-6- 6〉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407
〈부표 2-6- 7〉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408
〈부표 2-6- 8〉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	408
〈부표 2-6- 9〉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408
〈부표 2-6-10〉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409
〈부표 2-6-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409
〈부표 2-6-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410
〈부표 2-6-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410
〈부표 2-6-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음악치료	410
〈부표 2-6-1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미술치료	411
〈부표 2-6-1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언어치료	411
〈부표 2-6-1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물리치료	411
〈부표 2-6-1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작업치료	412
〈부표 2-6-1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놀이치료	412
〈부표 2-6-2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심리·행동 치료	412
〈부표 2-6-2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기타 재활치료	413
〈부표 2-6-22〉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413
〈부표 2-6-23〉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의 적응 정도	413
〈부표 2-6-24〉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의 문제점(1순위)	414
〈부표 2-6-25〉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414

〈부표 2-6-26〉	낮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415
〈부표 2-6-27〉	향후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 여부	415
〈부표 2-6-28〉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416
〈부표 2-6-29〉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	416
〈부표 2-7- 1〉	지난 1주일간의 활동	417
〈부표 2-7- 2〉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의 근로 또는 무급 근로	417
〈부표 2-7- 3〉	지난 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의 존재 여부	418
〈부표 2-7- 4〉	지난 주 구직 여부	418
〈부표 2-7- 5〉	지난 4주내 구직 여부	418
〈부표 2-7- 6〉	취업자의 지난 주 근무시간	418
〈부표 2-7- 7〉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419
〈부표 2-7- 8〉	취업장애인의 현 직장 근무 기간, 일수,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	419
〈부표 2-7- 9〉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419
〈부표 2-7-10〉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1순위)	420
〈부표 2-7-11〉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420
〈부표 2-7-12〉	실업자의 경우 지난주에 일이 있었을 시 근무 가능여부	420
〈부표 2-7-13〉	실업자의 구직방법	421
〈부표 2-7-14〉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경우 형태	421
〈부표 2-7-15〉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비경제활동인구)	422
〈부표 2-7-16〉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422
〈부표 2-7-17〉	직업훈련 경험 여부	423
〈부표 2-7-18〉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423
〈부표 2-7-19〉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424
〈부표 2-7-20〉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424
〈부표 2-8- 1〉	혼자 외출 여부	425
〈부표 2-8- 2〉	외출 빈도	425
〈부표 2-8- 3〉	외출의 주된 목적	425
〈부표 2-8- 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426

〈부표 2-8- 5〉	집박 활동시 불편여부	426
〈부표 2-8- 6〉	집박 활동시 불편이유	427
〈부표 2-8- 7〉	주요 교통수단	427
〈부표 2-8- 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의 정도	428
〈부표 2-8- 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428
〈부표 2-8-10〉	현재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429
〈부표 2-8-11〉	향후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430
〈부표 2-8-12〉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430
〈부표 2-8-13〉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431
〈부표 2-8-14〉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431
〈부표 2-8-15〉	투표하지 않은 이유	432
〈부표 2-9- 1〉	결혼 여부	433
〈부표 2-9- 2〉	결혼시 연령	433
〈부표 2-9- 3〉	결혼시 본인의 장애 여부	433
〈부표 2-9- 4〉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434
〈부표 2-9- 5〉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434
〈부표 2-9- 6〉	배우자의 장애등급	434
〈부표 2-9- 7〉	결혼하지 않은 이유	435
〈부표 2-9- 8〉	자녀 여부	435
〈부표 2-9- 9〉	자녀의 수	435
〈부표 2-9-10〉	장애자녀의 여부	436
〈부표 2-9-11〉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436
〈부표 2-9-12〉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436
〈부표 2-9-13〉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437
〈부표 2-9-14〉	제1 장애자녀의 연령	437
〈부표 2-9-15〉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437
〈부표 2-9-16〉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438
〈부표 2-9-17〉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438

〈부표 2-9-18〉	제2 장애자녀의 연령	438
〈부표 2-9-19〉	자녀가 없는 이유	439
〈부표 2-9-2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439
〈부표 2-9-21〉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439
〈부표 2-9-22〉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440
〈부표 2-9-23〉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440
〈부표 2-9-24〉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인지의 여부	440
〈부표 2-9-25〉	이혼경험시 이혼 사유	441
〈부표 2-9-26〉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	441
〈부표 2-9-27〉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 여부	441
〈부표 2-9-28〉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442
〈부표 2-9-29〉	유산 경험 여부	442
〈부표 2-9-30〉	유산 이유	442
〈부표 2-9-31〉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443
〈부표 2-9-32〉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443
〈부표 2-9-33〉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	443
〈부표 2-9-34〉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443
〈부표 2-9-35〉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444
〈부표 2-9-36〉	출산 전·후 산후조리 도우미	444
〈부표 2-9-37〉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444
〈부표 2-9-38〉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445
〈부표 2-9-39〉	여성장애인으로서는 특히 어려웠던 점	445
〈부표 2-10-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446
〈부표 2-10-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446
〈부표 2-10-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446
〈부표 2-10-4〉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447
〈부표 2-10-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447
〈부표 2-10-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447

〈부표 2-10- 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448
〈부표 2-10- 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448
〈부표 2-10- 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448
〈부표 2-10-10〉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449
〈부표 2-10-11〉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449
〈부표 2-10-12〉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449
〈부표 2-10-13〉	가족내 차별·폭력의 유형	450
〈부표 2-10-14〉	가족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450
〈부표 2-10-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450
〈부표 2-10-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451
〈부표 2-10-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451
〈부표 2-10-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451
〈부표 2-10-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452
〈부표 2-10-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452
〈부표 2-10-2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453
〈부표 2-10-22〉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유치원	453
〈부표 2-10-2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453
〈부표 2-10-24〉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초등학교	453
〈부표 2-10-2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초등학교	454
〈부표 2-10-26〉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중학교	454
〈부표 2-10-2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중학교	454
〈부표 2-10-28〉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고등학교	454
〈부표 2-10-29〉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고등학교	455
〈부표 2-10-30〉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대학교	455
〈부표 2-10-31〉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대학교	455
〈부표 2-10-32〉	사회적 차별 경험: 학교생활-교사로부터	455
〈부표 2-10-3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456
〈부표 2-10-34〉	사회적 차별 경험: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456

〈부표 2-10-3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456
〈부표 2-10-36〉	사회적 차별 경험: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456
〈부표 2-10-3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457
〈부표 2-10-38〉	사회적 차별 경험: 결혼	457
〈부표 2-10-39〉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457
〈부표 2-10-40〉	사회적 차별 경험: 취업	457
〈부표 2-10-41〉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	458
〈부표 2-10-42〉	사회적 차별 경험: 직장생활-소득(임금)	458
〈부표 2-10-4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소득(임금)	458
〈부표 2-10-44〉	사회적 차별 경험: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458
〈부표 2-10-4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459
〈부표 2-10-46〉	사회적 차별 경험: 직장생활-승진	459
〈부표 2-10-4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459
〈부표 2-10-48〉	사회적 차별 경험: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459
〈부표 2-10-49〉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460
〈부표 2-10-50〉	사회적 차별 경험: 보험제도상(계약시)	460
〈부표 2-10-51〉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460
〈부표 2-10-52〉	사회적 차별 경험: 의료기관이용시	460
〈부표 2-10-5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이용시	461
〈부표 2-10-54〉	사회적 차별 경험: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461
〈부표 2-10-5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461
〈부표 2-10-56〉	사회적 차별 경험: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	461
〈부표 2-10-5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	462
〈부표 2-10-58〉	장애란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462
〈부표 2-10-59〉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462
〈부표 2-11- 1〉	주택 형태	463
〈부표 2-11- 2〉	주거 위치	463
〈부표 2-11- 3〉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463

〈부표 2-11- 4〉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464
〈부표 2-11- 5〉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464
〈부표 2-11- 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464
〈부표 2-11- 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465
〈부표 2-11- 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영구임대주택	465
〈부표 2-11- 9〉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영구임대주택	465
〈부표 2-11-10〉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공공(국민)임대주택	465
〈부표 2-11-11〉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공공(국민)임대주택	466
〈부표 2-11-12〉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전세자금(융자)지원	466
〈부표 2-11-13〉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전세자금(융자)지원	466
〈부표 2-11-14〉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저소득층 월세지원	467
〈부표 2-11-15〉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저소득층 월세지원	467
〈부표 2-11-16〉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467
〈부표 2-11-17〉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468
〈부표 2-11-1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기타	468
〈부표 2-11-19〉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타	468
〈부표 2-11-20〉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469
〈부표 2-11-21〉	주택 개조 의사	469
〈부표 2-11-22〉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469
〈부표 2-11-24〉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470
〈부표 2-11-25〉	일반주택에서 원하는 삶의 형태	470
〈부표 2-12-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471
〈부표 2-12- 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471
〈부표 2-12- 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472
〈부표 2-12- 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직업재활시설	472
〈부표 2-12- 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직업재활시설	473
〈부표 2-12- 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직업재활시설	473
〈부표 2-12- 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직업재활시설	473

〈부표 2-12- 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복지관	473
〈부표 2-12- 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복지관	474
〈부표 2-12-1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복지관 ...	474
〈부표 2-12-1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복지관	474
〈부표 2-12-1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 재활병·의원	474
〈부표 2-12-1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 재활병·의원	475
〈부표 2-12-1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 재활병·의원 ..	475
〈부표 2-12-1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 재활병·의원	475
〈부표 2-12-1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주간·단기보호시설	475
〈부표 2-12- 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주간·단기보호시설	476
〈부표 2-12- 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주간·단기보호시설 ·	476
〈부표 2-12- 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주간·단기보호시설 ·	476
〈부표 2-12-2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체육관	476
〈부표 2-12-2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체육관	477
〈부표 2-12-2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체육관 ...	477
〈부표 2-12-2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체육관	477
〈부표 2-12-2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심부름센터	477
〈부표 2-12-2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심부름센터	478
〈부표 2-12-2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심부름센터 ...	478
〈부표 2-12-2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심부름센터 ...	478
〈부표 2-12-2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수화통역센터	478
〈부표 2-12-2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수화통역센터	479
〈부표 2-12-3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수화통역센터 ...	479
〈부표 2-12-3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수화통역센터	479
〈부표 2-12-3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정신의료기관	479
〈부표 2-12-3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정신의료기관	480
〈부표 2-12-3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정신의료기관 ...	480
〈부표 2-12-3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정신의료기관	480

〈부표 2-12-3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480
〈부표 2-12-3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481
〈부표 2-12-3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481
〈부표 2-12-3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481
〈부표 2-12-4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81
〈부표 2-12-4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82
〈부표 2-12-4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82
〈부표 2-12-4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82
〈부표 2-12-4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82
〈부표 2-12-4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83
〈부표 2-12-4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83
〈부표 2-12-4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83
〈부표 2-12-4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83
〈부표 2-12-4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84
〈부표 2-12-5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84
〈부표 2-12-5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84
〈부표 2-12-5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점자도서관	484
〈부표 2-12-5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점자도서관	485
〈부표 2-12-5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점자도서관	485
〈부표 2-12-5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점자도서관	485
〈부표 2-12-5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정신보건센터	485
〈부표 2-12-5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정신보건센터	486
〈부표 2-12-5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정신보건센터	486
〈부표 2-12-5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정신보건센터	486
〈부표 2-12-6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86
〈부표 2-12-6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87
〈부표 2-12-6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87
〈부표 2-12-6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87

〈부표 2-12-6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특수교육지원센터	487
〈부표 2-12-6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특수교육지원센터	488
〈부표 2-12-6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특수교육지원센터 ..	488
〈부표 2-12-6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특수교육지원센터 ...	488
〈부표 2-12-6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488
〈부표 2-12-6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489
〈부표 2-12-7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	489
〈부표 2-12-7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489
〈부표 2-12-7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아동보육시설	489
〈부표 2-12-7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아동보육시설	490
〈부표 2-12-7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아동보육시설 ·	490
〈부표 2-12-7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아동보육시설 ...	490
〈부표 2-12-76〉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491
〈부표 2-13- 1〉	주관적 소속 계층	492
〈부표 2-13- 2〉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492
〈부표 2-13- 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493
〈부표 2-13- 4〉	가구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금액	493
〈부표 2-13- 5〉	개인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금액	493
〈부표 2-13- 6〉	가입한 연금 종류(1순위)	494
〈부표 2-13- 7〉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미납경험	494
〈부표 2-13- 8〉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494
〈부표 2-13- 9〉	차량 소유 : 제1차량	495
〈부표 2-13-10〉	차량 소유 : 제2차량	496
〈부표 2-13-11〉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497
〈부표 2-13-12〉	박탈경험: 집세	497
〈부표 2-13-13〉	박탈경험: 공과금	497
〈부표 2-13-14〉	박탈경험: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498
〈부표 2-13-15〉	박탈경험: 공교육비	498

〈부표 2-13-16〉	박탈경험: 난방	498
〈부표 2-13-17〉	박탈경험: 병원	498
〈부표 2-13-18〉	박탈경험: 신용불량자	499
〈부표 2-13-19〉	박탈경험: 보험 급여자격 정지	499
〈부표 2-13-20〉	추가 비용 여부	499
〈부표 2-13-2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500
〈부표 2-13-22〉	향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500

요 약

I . 조사개요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일곱 번째에 해당됨.

2. 조사내용

1) 장애인 개별조사: 장애인 심층조사표

- ☐ 일반특성: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등
- ☐ 장애특성: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질환명 등
- ☐ 보건·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의 치료·진료 여부 및 장소, 자신의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및 만성질환명,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등
- ☐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유료 보호자 고용의향 등
- ☐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소지·사용여부,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 등
- ☐ 보육·교육: 재학 중인 보육시설·유치원·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시간, 비용, 학교생활 적응정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 등
- ☐ 취업 및 직업생활: 취업상태, 미취업 원인, 직업훈련,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에 대한 요

구사항 등

- ☐ 사회 및 여가활동: 외출정도,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이동수단, 주말·휴일의 주된 여가활동방법,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선거투표 여부 등
-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장애자녀 여부,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여성장애인대상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등
- ☐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현재생활 만족도, 가족폭력·성폭력 경험,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우리나라의 장애차별 정도 등
- ☐ 주거: 주거형태 및 위치, 소유형태,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집구조의 편리정도, 집구조의 개조의향, 향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등
- ☐ 복지서비스: 등록 이후 지원정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도·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인지도·이용경험여부·이용경험자 만족도·향후이용희망,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등
-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총가구소득, 총가구지출액, 연금가입유형, 차량 소유, 추가 비용 여부 및 지출액 등

2)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장애인 생활시설조사표

- ☐ 시설 일반사항: 시설명, 대표자 성명, 법인구분, 시설종류, 시설 설치년도, 시설 소재지, 시설 거주자(전체 거주자수, 전체 등록장애인수)
- ☐ 시설장애인 특성: 성, 연령, 시설 입소연도, 장애등록년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사회내 공동생활가정 전이여부

3. 조사방법 및 조사현황

1) 장애인 개별조사: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 ☐ 조사모집단: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
- ☐ 표본의 크기: 208개 표본 읍면동에서 14,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12,342명의 등록장애인
 - 조사기간 2008년 9월 6일~11월 30일(약 80일) 중에 총 7,000명 현지 조사 완료

- 표본추출방법: 표본 읍면동에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층화 이중추출(stratified two-phase sampling) 방법을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우편설문조사

- 조사대상: 총 1,068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사 결과 총 872개 시설(81.6%) 거주자 67,11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전체 거주자의 51.4%인 34,4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II. 주요 조사 결과

1. 일반특성

가.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및 2008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으로 3년 사이에 등록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1〉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 장애	전체
2005년 (2/4분기)	923,183	154,614	180,526	151,184	13,874	123,868	8,754	59,223	40,288	12,226	10,815	4,583	1,311	8,848	6,032	1,699,329
2008년 (1/4분기)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증가수	208,933	64,542	39,535	56,199	1,229	16,211	3,575	25,557	7,996	2,380	3,578	1,931	874	2,508	2,849	437,897
증가율	22.6	41.7	21.9	37.2	8.9	13.1	40.8	43.2	19.8	19.5	33.1	42.1	66.7	28.3	47.2	25.8

나. 성비 및 연령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6%, 여자 41.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남.

〈표 2〉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정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자	58.5	59.5	57.1	55.8	72.3	61.8	80.7	51.8	57.4	59.3	82.0	75.4	64.9	63.2	51.3	58.6
여자	41.5	40.5	42.9	44.2	27.7	38.2	19.3	48.2	42.6	40.7	18.0	24.6	35.1	36.8	48.7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 조사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만 50~64세(32.0%)로 만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장애인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연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정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0~17세	0.9	3.8	1.8	2.1	7.7	30.4	78.5	0.3	0.3	6.9	0.0	4.4	6.6	1.4	4.3	3.9
만 18~29세	2.1	1.9	1.6	1.7	5.8	26.6	18.5	6.0	4.6	3.5	0.8	1.8	8.6	0.6	11.3	4.0
만 30~39세	6.8	3.8	5.4	4.0	11.5	16.2	2.2	21.7	10.8	3.9	2.3	5.6	23.3	3.2	22.2	7.4
만 40~49세	19.4	8.0	11.9	9.6	17.8	15.5	0.1	35.2	21.7	9.1	7.0	26.5	22.2	6.9	36.2	16.7
만 50~64세	35.3	36.6	31.3	27.3	24.3	8.7	0.7	29.4	38.9	28.9	38.9	52.6	31.1	28.4	23.2	32.0
만 65세 이상	35.5	45.9	48.0	55.3	32.8	2.5	0.0	7.4	23.8	47.7	51.1	9.2	8.2	59.6	2.9	3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다. 장애정도

□ 조사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1~2급의 중증장애인이 25.9%, 3~6급의 경증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1/4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정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중증(1~2급)	11.0	55.0	18.1	25.0	10.1	68.3	82.5	62.9	83.5	35.9	45.6	32.0	20.8	2.2	13.5	25.9
경증(3~6급)	89.0	45.0	81.9	75.0	89.9	31.7	17.5	37.1	16.5	64.1	54.4	68.0	79.2	97.8	86.5	7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2. 신체적 특성

가. 장애원인과 치료

- 장애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6%)이 사고(34.4%)보다 21.2% 포인트 높게 나타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장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사고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표 5〉 장애 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원인	2.5	2.4	3.0	7.4	21.4	28.9	22.3	1.7	0.4	11.4	0.0	3.3	18.8	1.1	3.9	4.9
출산시원인	0.1	1.8	0.3	0.0	1.3	2.5	4.2	0.0	0.0	0.0	0.0	0.0	0.0	0.0	0.9	0.5
후천적 질환	45.6	86.9	58.6	73.7	53.3	18.5	9.1	80.9	98.5	87.5	98.6	96.4	21.4	94.3	58.1	55.6
원인 사고	51.3	8.3	35.1	13.4	8.0	9.2	1.0	13.9	1.1	1.0	1.4	0.3	57.9	4.5	19.7	34.4
원인불명	0.5	0.5	3.1	5.6	16.0	40.9	63.4	3.5	0.0	0.1	0.0	0.0	1.9	0.0	17.4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8,561	220,061	207,383	15,102	139,138	12,150	84,781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2	213,512

-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50.5%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9.5%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5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33.5%),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7.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8	15.8	1.0	1.4	7.2	4.9	25.0	0.0	14.4	36.9	10.7	0.0	21.7	6.3	21.7	4.9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나을 것 같아서	10.7	8.6	0.4	1.1	5.6	4.6	6.3	12.6	85.6	11.9	30.0	47.8	4.1	48.1	22.4	7.4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36.4	34.9	23.3	29.9	35.5	36.4	28.7	29.6	0.0	16.7	4.9	0.0	28.3	14.7	0.0	33.5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44.5	30.9	74.0	65.7	48.1	44.9	32.3	23.4	0.0	16.4	34.5	14.5	38.1	23.0	21.7	50.8
치료받기 싫어서	1.1	2.7	0.2	0.7	2.0	3.5	2.1	16.2	0.0	0.0	4.9	0.0	0.0	2.2	18.9	1.3
주위의 시선때문에	0.0	0.0	0.0	0.0	0.0	0.0	0.0	0.0	0.0	9.3	6.4	0.0	0.0	0.0	0.0	0.0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0.3	0.1	0.0	0.0	0.4	0.5	0.9	0.0	0.0	0.0	0.0	0.0	1.5	0.0	0.0	0.2
시간이 없어서	0.5	1.5	0.9	0.4	0.2	0.0	3.3	0.0	0.0	0.0	0.0	0.0	2.4	0.0	0.0	0.5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	0.1	0.5	0.2	0.4	0.7	4.0	0.0	5.1	0.0	0.0	0.0	0.0	0.0	1.4	15.4	0.6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0.3	5.0	0.0	0.0	0.3	1.0	1.5	8.5	0.0	8.8	0.0	0.0	1.6	2.5	0.0	0.5
기타	0.3	0.0	0.1	0.3	0.0	0.3	0.0	4.6	0.0	0.0	8.7	37.7	2.4	1.8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4,363	39,424	131,400	166,102	11,001	90,963	3,040	5,257	118	396	656	69	1,805	2,461	143	1,057,198

나.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능력(ADL)은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의 응답률이 80% 이상의 수준에서 높았음.

- 항목별로 ‘목욕하기’, ‘머리감기’, ‘옷 입고 벗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

〈표 7〉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단위: %)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옷벗고입기	87.3	9.7	3.0	100.0	욕거 앉기	95.2	2.4	2.4	100.0
세수하기	92.7	4.7	2.6	100.0	방밖으로 나가기	94.3	3.2	2.5	100.0
양치질하기	92.4	5.0	2.6	100.0	화장실 사용하기	92.5	4.7	2.8	100.0
목욕하기	80.3	13.6	6.1	100.0	대변 조절하기	92.8	4.1	3.1	100.0
식사하기	94.0	4.2	1.8	100.0	소변 조절하기	92.4	4.7	2.9	100.0
체위변경하기	96.2	2.1	1.7	100.0	머리감기	85.2	9.2	5.6	100.0
일어나 앉기	95.1	2.9	2.0	100.0	휠체어 타기	90.4	5.8	3.8	100.0

□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았는데,

- 항목별로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와 같은 가사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

〈표 8〉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단위: %)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집안일하기	62.1	27.5	10.4	100.0	전화사용하기	79.8	12.6	7.5	100.0
식사준비하기	57.5	21.6	10.9	100.0	교통수단 이용하기	73.2	17.5	9.4	100.0
빨래하기	66.0	22.6	11.3	100.0	근거리 외출하기	83.4	9.8	6.9	100.0
금전관리	74.0	14.2	11.8	100.0	몸단장하기	79.8	15.3	4.9	100.0
물건사기	76.7	14.0	9.3	100.0	역 챙겨먹기	85.9	10.1	4.1	100.0

□ 장애인의 66.2%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3.8%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자폐성장애(93.6%), 지적장애(83.5%), 뇌병변장애(73.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1.8	15.4	62.0	52.1	39.6	5.3	1.1	24.9	56.9	54.0	43.0	68.0	81.0	12.3	62.8	49.9
대부분 혼자서	16.8	11.0	11.4	24.8	24.3	11.2	5.3	17.3	13.3	16.1	19.9	10.3	10.9	67.4	15.1	16.3
일부도움 필요	14.9	30.6	14.8	18.5	23.1	35.1	22.7	35.4	18.5	19.5	27.5	15.9	5.5	15.0	13.6	19.3
대부분 필요	3.8	20.5	9.5	3.4	10.9	35.0	49.8	18.2	7.1	6.8	8.0	3.3	1.6	2.7	7.0	9.1
거의 남의도움 필요	2.7	22.4	2.4	1.2	2.2	13.4	21.1	4.2	4.1	3.5	1.6	2.5	1.0	2.6	1.4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
인은 전체의 93.4%이며, 없는 경우는 6.6%로 나타남.

〈표 10〉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92.9	96.6	89.4	87.2	92.4	98.8	99.7	98.1	91.6	93.7	95.3	96.9	91.1	42.9	91.9	93.4
없다	7.1	3.4	10.6	12.8	7.6	1.2	0.3	1.9	8.4	6.3	4.7	3.1	8.9	57.1	8.1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2,254	185,322	83,641	99,417	9,120	132,688	12,191	63,669	20,829	6,712	8,208	2,082	417	9,960	3,301	1,069,811

□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47.6%, 부모 19.2%, 자녀(며느리, 사위) 16.2%,
형제·자매 2.8%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61.6	56.7	49.2	46.9	54.8	5.9	0.8	14.2	71.0	61.1	71.5	66.0	23.4	72.3	29.5	47.6
부모	8.2	10.5	7.2	8.1	23.8	66.0	86.3	38.5	9.2	15.0	3.7	15.4	37.1	1.8	49.9	19.2
자녀(며느리, 사위)	17.6	18.4	29.3	29.1	10.0	2.3	0.0	2.7	13.2	15.5	13.3	14.9	24.7	17.9	4.2	16.2
형제·자매	2.2	1.1	2.5	3.0	4.5	4.7	1.0	9.2	0.8	1.3	1.6	0.0	0.0	0.9	2.4	2.8
조부모	0.2	0.2	0.0	0.9	0.2	3.4	5.2	0.2	0.0	0.8	0.0	0.9	5.3	0.0	1.4	0.7
손자녀	0.3	0.1	1.9	2.4	0.0	0.0	0.0	0.3	0.0	0.8	0.6	0.0	0.0	0.0	0.0	0.5
기타 가족	0.3	0.0	0.2	0.1	0.0	1.3	0.7	0.7	0.0	0.0	0.7	0.0	0.0	0.0	1.1	0.4
친척	0.4	0.3	0.7	0.5	1.0	0.8	0.5	1.4	1.0	0.0	1.5	0.5	0.0	1.3	1.0	0.6
친구	0.5	0.4	0.4	0.6	0.4	0.0	0.0	0.5	0.0	0.0	1.1	0.0	0.0	1.2	0.0	0.4
이웃	1.9	1.8	2.1	1.5	3.0	1.6	0.0	1.4	1.2	1.2	1.5	0.0	4.5	0.9	3.1	1.8
활동보조인	0.8	0.6	1.7	0.0	0.0	0.4	0.8	0.2	0.4	0.0	0.3	1.7	5.0	0.0	0.0	0.6
가정봉사원	2.5	2.4	1.3	2.7	0.8	0.6	0.0	0.6	1.8	3.2	1.7	0.0	0.0	3.7	0.9	2.0
간병인	0.2	1.7	0.1	0.3	0.2	0.0	0.0	0.0	1.4	0.3	0.6	0.0	0.0	0.0	0.0	0.4
기타	3.4	5.8	3.4	4.0	1.3	13.0	4.7	30.1	0.0	0.8	2.0	0.5	0.0	0.0	6.7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1,478	179,005	74,770	86,735	8,423	131,120	12,155	62,487	19,087	6,286	7,827	2,018	380	4,268	3,033	999,072

다. 장애인보조기구

-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필요 및 소지율은 각각 7.7%, 6.4%, 3.2%, 3.0%로서 2005년 조사와 비교시 타 품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필요 및 소지율을 보이는데 반해 이들 품목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표 12〉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8년
필요	전동휠체어	3.2(31,010)	7.7(103,711)
	전동스쿠터	2.7(26,165)	6.4(85,897)
소지	전동휠체어	0.9(11,831)	3.2(43,772)
	전동스쿠터	0.8(10,686)	2.8(37,597)

-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의 51.6%는 ‘구입비용 때문에’라고 응답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표 13〉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없어서	8.5	16.9	17.0	19.6	17.8	36.0	33.3	0.0	4.1	12.7	4.4	21.8	0.0	6.0	11.8	12.9
별 효과가 없어서	0.4	5.6	6.1	5.2	6.8	1.5	15.6	5.3	0.0	6.1	1.3	0.0	0.0	9.5	0.0	2.7
사용이 불편	5.5	4.9	0.3	8.1	8.5	0.0	0.0	0.0	2.8	0.0	5.0	0.0	0.0	5.8	0.0	4.9
미관상 흠해서	6.6	3.5	2.8	2.1	4.9	5.0	0.0	16.9	15.8	0.0	2.5	0.0	39.1	2.4	0.0	5.0
구입비용 때문에	57.0	45.4	45.8	49.7	45.8	6.4	51.1	31.7	58.8	52.8	77.4	64.9	45.7	70.5	67.6	51.6
구입처를 몰라서	3.5	10.2	14.0	8.5	12.5	12.0	0.0	0.0	8.6	6.1	2.1	3.7	0.0	2.7	0.0	6.8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2.1	2.9	4.8	1.1	0.0	0.0	0.0	0.0	0.0	3.1	0.0	0.0	15.2	0.0	0.0	2.4
기타	16.5	10.6	9.2	5.7	3.8	39.2	0.0	46.1	9.9	19.1	7.4	9.6	0.0	3.2	20.6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3,268	67,209	45,263	46,169	1,413	8,263	90	1,761	3,066	1,693	3,733	271	46	1,554	204	374,003

라.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및 사용률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은 휴대폰 67.1%, 컴퓨터 53.0%, 인터넷 5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용률은 휴대폰 66.7%, 컴퓨터 26.7%, 인터넷 25.7%의 순으로 나타나, 컴퓨터와 인터넷은 보유율에 비해 사용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함.

〈표 14〉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보유율	77.4	50.0	74.4	59.5	58.0	27.1	13.8	31.9	83.2	76.5	82.9	88.6	88.3	76.4	68.8	67.1
	사용률	77.0	49.2	74.4	59.3	55.8	27.2	13.4	31.1	82.9	76.4	82.6	87.8	88.3	75.8	68.7	66.7
컴퓨터(PC)	보유율	55.3	52.2	48.8	48.5	57.0	55.7	87.8	31.4	60.3	56.6	47.0	78.2	68.4	47.2	56.9	53.0
	사용률	30.2	13.8	21.4	20.1	29.9	35.4	56.7	14.5	37.0	30.2	21.6	54.7	53.1	25.2	34.1	26.7
인터넷	보유율	53.8	50.6	48.1	45.6	55.2	53.7	87.2	28.7	59.7	54.2	46.1	76.8	67.5	44.9	53.9	51.4
	사용률	29.7	13.7	21.2	19.3	27.4	28.9	43.4	13.9	36.8	28.5	21.1	54.6	53.1	23.1	32.5	25.7

3. 사회적 특성

가. 결혼생활·여성장애인(만 18세이상~ 만 49세 미만)

□ 만 18세~만 49세 미만 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배우가 51.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사별 1.5%, 미혼 39.2%의 순이었음.

〈표 15〉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미혼	45.5	27.8	39.2
유배우	48.4	56.3	51.2
사별	0.3	3.6	1.5
이혼	5.1	11.7	7.4
별거	0.7	0.6	0.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5,320	195,403	550,723

□ 장애인의 결혼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38.3%)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29.9%), 언어장애(24.2%), 정신장애(23.0%) 순으로 나타남.

〈표 16〉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7.0	10.5	4.2	29.9	24.2	38.3	-	23.0	5.3	2.2	-	1.2	-	7.2	11.7	10.8
아니오	93.0	89.5	95.8	70.1	75.8	61.7	-	77.0	94.7	97.8	100.0	98.8	100.0	92.8	88.3	8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2,297	14,408	30,008	20,692	2,575	16,466	-	19,511	10,382	1,606	914	1,570	562	937	2,838	334,766

- 결혼한 장애인의 88.3%가 슬하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장애자녀가 3.4%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15.9%로 가장 높았음.

〈표 17〉 장애자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2.7	1.4	1.6	5.0	6.9	15.9	-	7.8	0.8	-	-	-	-	1.9	4.1	3.4
아니오	97.3	98.6	98.4	95.0	93.1	84.1	-	92.2	99.2	100.0	100.0	100.0	100.0	98.1	95.9	9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2,835	11,858	29,116	19,174	2,277	12,945	-	13,215	9,086	1,516	683	1,382	512	864	2,413	297,875

-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23.7%),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2.8%), ‘본인의 건강악화’(10.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7.8%),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7.5%)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9.3%나 되고 있음.

〈표 18〉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18세~28세	29세~38세	39세~48세	전체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0.0	3.2	16.0	12.8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0.0	2.3	0.6	1.0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워서	0.0	1.7	6.8	5.5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63.7	23.9	23.0	23.7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32.7	3.9	8.3	7.5
본인의 건강악화	0.0	4.8	12.5	10.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3.5	11.4	6.7	7.8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0.0	2.6	0.6	1.1
주위의 시선때문에	0.0	0.1	0.1	0.1
임신·출산 관련 정보 부족	0.0	0.0	1.2	0.9
어려움 없음	0.0	46.2	24.2	29.3
기타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39	17,321	53,465	71,525

-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충분하다’가 44.5%, ‘보통이다’ 16.1%, ‘부족하다’ 39.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 이상에서 출산 전·후 산후조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9〉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18세~28세	29세~38세	39세~48세	전체
매우 충분하다	73.9	7.1	9.1	9.3
충분하다	0.0	39.2	34.3	35.2
보통이다	0.0	15.1	16.7	16.1
부족하다	26.1	36.6	22.5	26.0
매우 부족하다	0.0	2.0	17.4	13.4
계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16	16,437	48,844	65,997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산후조리서비스’(8.5%),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 순으로 나타남. 특히, 18세~28세 사이의 여성장애인은 활동보조도우미(21.0%), 심리·정서 상담서비스(15.4%)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20〉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18세~28세	29세~38세	39세~48세	전체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8.5	7.9	6.3	6.8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0.5	0.4	2.3	1.8
출산비용 지원	5.1	8.2	18.0	14.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13.2	15.3	5.2	8.1
산후조리 서비스	0.0	17.2	6.8	8.5
육아용품 대여	0.0	0.1	0.0	0.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9.5	14.1	14.0	13.6
자녀교육도우미	3.2	7.1	9.9	8.7
가사도우미	5.5	12.6	20.6	17.6
활동보조도우미	21.0	3.8	4.5	5.8
건강관리 프로그램	2.6	6.5	8.2	7.3
상담서비스(심리정서)	15.4	5.1	2.9	4.5
자조집단(멘토)	12.1	1.8	1.3	2.3
기타	3.4	0.0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444	38,196	123,640	177,280

나. 사회 및 여가활동

- 장애인의 36.2%가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폐성장애(72.9%)와 뇌병변장애(68.0%)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집박 활동시 불편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하다	10.8	35.4	10.9	7.0	8.3	19.2	36.7	13.6	11.5	12.4	22.0	6.4	13.0	11.5	15.1	13.3
약간 불편하다	21.8	32.6	24.6	13.3	25.7	30.0	36.2	24.9	21.4	25.0	25.9	19.6	34.1	24.9	16.8	22.9
보통이다	25.2	18.6	22.4	26.4	23.6	17.0	7.7	17.4	26.5	26.9	29.2	22.3	8.9	24.2	16.7	23.6
거의 불편하지 않다	27.2	10.8	27.6	35.0	25.1	25.0	12.5	26.7	27.4	24.4	18.0	28.5	21.3	30.4	40.3	26.4
전혀 불편하지 않다	15.0	2.6	14.5	18.2	17.3	8.7	7.0	17.4	13.2	11.3	4.9	23.2	22.7	9.0	11.1	1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845	164,398	217,006	203,563	18,562	130,854	12,874	67,483	48,682	14,591	13,983	6,409	2,096	10,993	10,790	2,027,129

□ 장애인의 집박 활동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4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3.7%)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지체장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65.7%), 자폐성장애는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71.7%), 안면장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93.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집박 활동시 불편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65.7	39.4	35.8	36.4	49.4	2.7	1.8	4.6	52.2	52.4	64.5	44.5	1.9	65.1	22.9	47.5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0.2	51.8	53.9	47.0	33.7	75.3	71.7	64.8	45.8	43.0	29.1	52.2	2.1	14.0	47.8	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3.7	8.4	10.2	14.0	16.3	21.4	26.0	30.7	0.4	4.4	5.2	2.2	93.7	20.3	28.7	13.7
기타	0.5	0.4	0.1	2.7	0.6	0.6	0.5	0.0	1.6	0.3	1.2	1.1	2.2	0.6	0.6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0,146	111,689	77,116	41,507	6,319	64,419	9,373	25,979	16,024	5,461	6,691	1,664	987	3,997	3,445	734,817

□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19.2%, ‘보통이다’ 39.3%, ‘불만족한다’ 42.1%로 2005년의 조사결과(‘만족한다’ 12.0%, ‘보통이다’ 30.6%, ‘불만족한다’ 57.4%)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줄고, 만족과 보통의 비율이 증가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표 23〉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3.7	3.9	6.3	5.7	3.8	7.2	7.7	2.4	3.2	4.4	1.5	5.8	10.0	5.8	4.6	4.4
약간 만족한다	14.1	11.5	14.5	17.1	13.9	21.3	18.3	19.3	8.8	17.4	12.1	19.6	22.8	17.4	12.3	14.8
보통이다	40.5	32.6	37.7	42.5	39.1	38.7	34.3	40.7	39.5	37.0	33.2	37.1	35.2	37.7	33.0	39.3
약간 불만족한다	27.7	26.6	30.0	24.1	30.6	20.6	28.7	21.3	29.7	29.4	33.4	23.2	20.9	25.7	30.9	26.9
매우 불만족한다	14.0	25.3	11.5	10.5	12.5	12.2	11.1	16.3	18.9	11.8	19.8	14.3	11.1	13.4	19.3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경수	1,142,188	195,697	221,885	210,000	20,011	140,641	12,908	84,174	48,903	15,088	14,782	6,495	2,106	11,373	10,974	2,137,225

다. 사회적 차별 경험

□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중에서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시’가 5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8.9%), ‘취업시 차별’(35.0%)의 순이었음.

— 신장장애는 보험제도상(계약시) 차별 경험이 90.6%로 가장 높았고, 안면장애는 학교생활시 또래학생으로부터 그리고 취업시 차별 경험이 각각 62.1%, 66.5%로 가장 높았음.

〈표 24〉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입학·전학																
유치원(보육시설)	18.8	33.6	0.0	31.5	20.7	29.9	44.3	0.0	0.0	8.3	-	25.6	23.5	0.0	27.2	26.9
초등학교	25.5	31.2	10.6	25.7	30.7	28.5	36.7	14.5	0.0	12.2	0.0	4.2	25.5	0.0	16.6	26.1
중학교	19.0	18.8	6.3	29.5	33.8	19.9	24.0	30.2	0.0	17.8	0.0	0.0	22.5	0.0	20.6	19.4
고등학교	13.0	20.2	22.6	25.6	27.7	15.6	17.7	47.5	0.0	16.3	0.0	0.0	22.6	0.0	19.4	16.8
대학교	6.7	2.6	1.7	6.3	8.0	2.8	0.0	56.9	0.0	9.1	0.0	0.0	5.2	0.0	3.5	6.9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14.5	25.3	16.7	20.8	24.3	21.8	31.6	22.6	16.9	12.2	5.6	15.2	18.6	0.0	19.1	18.9
또래학생으로부터	46.3	50.3	34.7	45.8	61.5	56.0	54.6	59.4	0.0	29.8	29.0	28.8	62.1	35.3	54.8	48.9
학부모로부터	5.1	9.9	2.6	5.5	10.3	14.2	18.6	5.9	0.0	3.6	5.6	9.1	17.9	0.0	11.2	8.4
결혼	13.0	17.4	11.0	15.0	25.1	56.8	100.0	65.3	15.2	8.8	9.3	7.7	44.1	5.7	53.6	16.1
취업	31.9	47.7	26.9	37.5	52.1	53.7	52.9	62.4	47.8	32.6	41.5	33.3	66.5	20.1	61.2	35.0
직장생활																
소속	18.7	33.1	19.5	18.1	30.4	44.0	57.0	31.0	29.6	20.0	23.6	21.1	26.6	16.4	25.3	20.8
동료와의관계	9.2	16.3	12.5	23.0	31.9	30.9	8.4	34.7	14.4	5.2	5.1	5.5	25.5	4.9	27.9	13.1
승진	8.0	9.7	8.3	10.3	23.5	17.4	8.2	14.2	11.7	5.6	7.8	10.4	13.8	6.1	14.8	9.1
운전면허제취득시	7.4	14.3	37.9	15.0	2.1	19.7	0.0	38.6	0.2	4.2	0.0	0.0	1.5	0.0	46.2	11.8
보험제도계약시	51.7	77.4	42.5	46.7	45.1	73.8	72.9	62.9	90.6	86.6	73.9	87.9	36.5	69.2	71.5	55.6
의료기관이용시	2.4	2.7	2.8	4.9	3.8	6.1	12.4	7.1	5.4	3.1	2.5	4.0	4.8	1.3	6.4	3.3
정보통신이용시	0.2	0.2	0.7	1.8	0.3	0.9	0.7	0.1	0.4	0.3	0.9	0.0	0.0	0.4	0.6	0.4
지역사회생활	16.8	26.3	16.2	20.9	28.8	42.8	53.9	39.9	6.1	8.9	9.2	5.6	49.8	8.6	28.2	20.6

4. 경제적 특성

가. 경제상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0% 수준으로써 2005년의 53.8%보다 0.2% 포인트 증가함.
-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 53만 9천원, 2인 가구 111만 8천원, 3인 가구 201만 4천원, 4인 가구 269만 5천원, 5인 가구 313만 5천원, 6인 가구 323만원, 7인 가구 이상 339만 8천원임.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55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08년 기준 2,290천원)의 67.9% 수준으로써 2005년의 66.1%보다 1.8% 포인트 증가함.
-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 49만 1천원, 2인 가구 99만 5천원, 3인 가구 174만 1천원, 4인 가구 221만 7천원, 5인 가구 264만 6천원, 6인 가구 278만원, 7인 가구 이상 279만원임.

〈표 25〉 월 평균 총 가구 소득 및 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가구소득액	183.0	194.0	182.2	173.7	177.1	189.2	311.2	112.5	207.1	188.5	155.3	275.3	212.3	172.5	141.8	181.9
가구지출액	156.3	160.6	158.7	146.7	147.8	166.8	263.8	95.4	179.1	168.4	137.2	248.6	189.0	151.1	125.8	155.5

-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함.
-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72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음.

〈표 26〉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53.5	47.8	44.1	45.7	43.4	42.2	76.7	24.6	57.1	54.1	46.0	68.2	52.9	45.1	30.8	49.3
없다	46.5	52.2	55.9	54.3	56.6	57.8	23.3	75.4	42.9	45.9	54.0	31.8	47.1	54.9	69.2	5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5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1	2,137,226

-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소폭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35만 4천원), 신장장애(33만 4천원), 안면장애(31만원), 청각장애(24만 3천원)의 순이었음.
 - 지출비목별로 의료비가 5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로서 3만 7천원임.

〈표 27〉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정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총 추가비용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158.7
교통비	18.9	19.0	12.0	3.6	14.5	29.2	49.7	8.9	42.5	19.8	24.4	33.7	24.6	11.4	11.4	17.8
의료비	49.2	91.0	20.0	6.2	50.0	29.1	43.2	34.6	258.2	161.4	103.0	807.1	242.2	42.9	57.1	57.3
교육비	0.4	4.1	1.9	5.8	20.9	61.5	129.5	0.0	0.0	0.5	0.1	0.0	1.1	0.2	3.1	6.2
보호·간병인	5.2	33.2	3.3	2.1	12.0	25.0	14.6	9.4	11.7	1.6	3.3	2.1	4.8	0.8	1.7	9.9
재활기관이용료	0.1	2.6	0.0	0.0	4.9	19.2	56.2	0.0	0.0	0.0	0.0	0.0	0.0	0.0	0.2	2.0
통신비	0.2	0.4	5.3	5.6	2.0	0.8	1.1	0.1	0.3	0.2	0.5	0.1	0.8	0.4	0.4	1.4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6.4	28.9	11.1	213.2	17.5	0.0	1.7	0.0	11.6	2.9	50.4	12.5	2.3	61.9	0.0	36.8
부모사후대비비	3.2	7.9	0.9	5.0	12.9	34.6	46.5	6.8	5.5	1.1	0.7	8.8	26.8	2.5	7.7	6.2
기타	33.9	25.7	2.3	1.8	5.0	7.4	11.7	4.7	4.2	1.9	10.2	6.3	3.5	6.1	5.9	21.2

나. 취업상태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기준)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임.
- 실업률은 8.3%로 2005년의 10.6%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임.

〈표 28〉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26,778	380	104	276	26,398	1.42	27.37	72.63	0.39
20~29세	75,207	28,640	17,345	11,295	46,567	38.08	60.56	39.44	23.06
30~39세	158,266	83,666	72,340	11,326	74,600	52.86	86.46	13.54	45.71
40~49세	356,232	215,163	196,366	18,797	141,069	60.40	91.26	8.74	55.12
50~64세	684,182	357,560	334,495	23,065	326,622	52.26	93.55	6.45	48.89
65세이상	770,935	165,431	159,405	6,026	605,504	21.46	96.36	3.64	20.68
계	2,071,600	850,840	780,055	70,785	1,220,760	41.07	91.68	8.32	37.65
전국 ¹⁾	39,804,000	24,032,000	23,245,000	787,000	15,772	60.4	96.7	3.3	58.40

주1)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08년 12월 기준)』, 2009.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약 7만명이며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7.6%이고, 여성장애인은 23.7%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임.

〈표 29〉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09,706	631,195	575,580	55,615	578,511	52.18	91.19	8.81	47.58
여자	861,890	219,642	204,474	15,168	642,248	25.48	93.09	6.91	23.72
계	2,071,596	850,837	780,054	70,783	1,220,759	41.07	91.68	8.32	37.65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나이가 많아서’가 전체의 2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서’(22.9%),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20.0%), ‘가사·육아문제 때문에’(10.5%)의 순이었음.

〈표 30〉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4.2	1.0	2.6
임금이 너무 낮아서	1.3	0.2	0.8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6.3	13.9	20.0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1.2	0.3	0.7
출퇴근이 힘들어서	0.3	0.5	0.4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서	25.8	20.0	22.9
다른 질병 때문에	7.1	6.6	6.8
나이가 많아서	19.9	27.0	23.5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0.9	19.6	10.5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0.8	0.7	0.8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2.2	1.3	1.8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6.5	6.5	6.5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	0.1	0.0	0.0
재학중이기 때문에	2.4	1.3	1.8
기타	1.0	1.1	1.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3,548	657,377	1,290,925

- 학생·재수생, 주부, 무직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2005년의 조사결과(단순노무직 27.6%, 농·어업 19.0%,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12.3%)와 마찬가지로 주로 단순노무직(29.4%), 농·어업(23.5%), 판매종사자(11.8%), 서비스종사자(9.8%),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8.1%)에 편중되어 나타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에서 일반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사무종사자 14.3%, 서비스 종사자 12.5%, 단순노무직 11.7%, 판매종사자 11.3%의 비율이 높았음.

〈표 31〉 경제활동분야(직종)

(단위: %)

구분	의회의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장차·기계 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
2008년	1.1	2.0	2.9	4.2	9.8	11.8	23.5	8.1	7.2	29.4	100.0
2005년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0
전국 비율 ¹⁾	2.3	8.8	11.2	14.3	12.5	11.3	6.7	10.2	11.0	11.7	100.0

자료: 1) 통계청, 『2007년 경제활동인구연보(4/4분기)』, 2008. 5.

-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2005년 114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간장애의 월 평균 소득이 235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자폐성 장애의 월 평균 소득은 23만 2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2〉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2008년	121.4	104.5	136.8	88.5	92.7	41.0	23.2	23.7	147.5	97.8	86.5	235.2	124.2	84.5	66.4	115.6
2005년	125.5	99.9	115.5	83.8	81.4	47.5	70.0	54.8	153.8	74.1	81.6	176.6	112.2	124.1	43.5	114.9

5. 복지서비스

가. 장애등록

- 장애인등록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1992년은 전체의 4.8%만이 등록을 하였으며, 1993~1997년은 전체의 5.5%, 1998~2002년은 전체의 31.1%, 2003~2008년은 전체의 58.6%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향상, 장애법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33〉 장애등록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988년~1992년	5.9	1.1	4.4	5.0	7.9	8.9	0.4	0.0	0.0	0.0	0.0	0.0	0.0	0.0	0.0	4.8
1993년~1997년	6.9	2.7	3.1	4.2	5.4	11.2	2.4	0.0	0.0	0.0	0.0	0.0	0.0	0.0	0.0	5.5
1998년~2002년	31.9	28.6	36.6	28.0	34.9	33.5	23.4	28.6	39.5	30.3	0.0	0.0	0.0	0.0	0.0	31.1
2003년~2008년	55.3	67.7	55.9	62.7	51.8	46.4	73.9	71.4	60.5	69.7	100.0	100.0	100.0	100.0	100.0	5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받고 있다’가 전체의 36.9%, ‘받지 못하고 있다’가 54.0%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음.

- 2005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2% 포인트 늘어나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표 34〉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이 받고 있다	2.5	2.5	1.3	2.3	4.9	6.4	3.4	10.2	9.0	4.0	3.4	4.4	4.3	2.7	4.6	3.1
약간 받고 있다	32.3	37.2	32.9	30.6	31.1	39.5	41.4	37.3	45.1	41.8	42.8	36.8	42.2	27.1	35.9	33.8
보통이다	8.2	10.3	8.3	8.7	10.0	13.2	13.2	10.1	9.6	10.4	11.3	15.8	7.5	8.6	10.0	9.0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51.1	44.2	47.8	52.4	49.1	35.8	38.0	40.4	33.3	39.7	38.8	41.2	43.0	52.3	43.5	48.0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6.0	5.8	9.8	6.1	4.9	5.1	4.0	2.0	3.0	4.1	3.7	1.8	3.0	9.2	6.0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5	220,062	207,384	151,104	140,078	12,328	84,780	48,284	14,605	14,393	6,514	2,185	11,356	8,880	2,137,224

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율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92.7%),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90.2%),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82.8%), ‘LPG 연료 사용허용’(81.2%)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

로써 장애인의 82.1%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장애인의 70.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장애인복지사업 인지율 및 이용경험률

(단위: %)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률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률
장애수당지급	67.9	22.9	LPG 세급인상분 지원	69.9	21.6
장애아동수당지급	25.6	1.1	승용자동차관련 세급 면제	73.3	26.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6.1	2.2	세금공제 및 면제	48.4	22.8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5.0	0.6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90.2	70.3
장애인의료비지원	39.3	7.9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92.7	82.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8.9	8.2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67.4	35.3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39.7	3.4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20.3	3.3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41.4	10.6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18.5	4.3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2.8	39.9	활동보조서비스	27.4	1.9
LPG 연료 사용 허용	81.2	28.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1.8	0.9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장애인복지관이 7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69.6%), ‘이동지원서비스센터’(50.0%)의 순으로 나타남.

-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2.9%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것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 한편, 이용희망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역시 장애인복지관(36.3%)이었고, 그 외 장애인 재활병·의원(28.9%), 이동지원서비스센터(27.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16.7%)도 높게 나타남.

〈표 3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율·이용경험율·이용희망율

(단위: %)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율	이용희망율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율	이용희망율
직업재활시설	35.5	2.4	10.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50.0	3.5	27.4
장애인복지관	74.3	12.9	36.3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9.5	1.6	16.7
장애인 재활병·의원	30.3	1.6	28.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7.1	0.3	9.1
주간·단기보호시설	14.2	0.6	8.4	점자도서관	22.2	0.2	0.8
장애인체육관	22.7	1.2	14.8	정신보건센터	9.9	0.5	2.6
장애인심부름센터	20.2	0.6	14.6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9.6	4.4	2.7
수화통역센터	24.4	0.5	0.8	특수교육지원센터	16.9	0.4	2.7
정신의료기관	46.9	2.7	3.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8	0.1	7.8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14.3	0.3	1.5	장애아동보육시설	34.2	1.0	0.7

다. 복지서비스 욕구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의 순이었음.

- 기존 2000년 및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료보장이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보다 더 높아 특기할만한 사항임.

〈표 37〉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보장	15.4	6.6	12.4
장애예방	3.6	4.3	5.1
보육·교육보장	3.5	4.1	5.0
의료보장	30.1	28.9	15.6
이동권보장	3.1	3.5	6.2
고용보장	8.6	12.5	9.8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4	3.8	6.1
소득보장	21.9	25.5	21.4
장애인 인권보장	5.7	6.5	9.3
장애인 인식개선	4.3	4.0	8.5
없음	1.8	0.0	0.2
기타	0.7	0.3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37,226	2,074,880	1,970,848

III. 정책건의 및 시사점

1. 일반특성

- ☐ 이번 2008년도 실태조사는 이전의 조사와는 달리 표본가구 접근이 아니라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임.
 - 그 결과 과거의 가구접근법에 의한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시계열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한 관계로 법정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음.
- ☐ 조사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만 50~64세(32.0%)로 만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의 고령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점차 장애인과 노인의 경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장애인복지대책과 노인복지대책 사이에 대상자의 구분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전망

2. 신체적 특성

- ☐ 장애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높았음.
 - 이러한 사실은 비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장애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임.
- ☐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50.5%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와 환자의 구분 역시 점차 힘들어 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 이는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하여 내부 장애도 장애로 인정되고 난 이후 나타난 현상
 - 또한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 장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ADL)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은 높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에 대해 완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이러한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았는데,
 -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수단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 장애인의 66.2%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3.8%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고장시 수리문제 등이 아직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고가품은 현재와 같은 일괄 지급방식보다는 임대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수리비도 급여에 산정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구의 유지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복급여나 부정수급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은 최근 많이 향상되었음.

- 휴대폰의 경우 보유율과 사용률이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 보유율에 비해 사용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3. 사회적 특성

□ 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가 51.2%로 가장 높았고, 미혼 39.2%의 순으로 유배우의 비율이 높으나, 장애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장애인의 결혼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나 부부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자녀 중 장애가 있는 비율이 3.4%로 나타나 장애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1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23.7%) 등 의료 및 심리적 문제,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2.8%) 등 경제적 문제 등임.

-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가사도우미’, ‘출산비용 지원’,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산후조리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등의 서비스가 집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함.

□ 장애인의 36.2%가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의 확충과 외출시 동반해 줄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확충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외출시 주위사람의 시선이 아직도 장애인의 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함.

-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입학·전학, 학교 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므로,
 - 차별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4. 경제적 특성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최근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임.
 -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장애연금 도입시 이러한 추가비용의 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은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은 장애연금제도도 장애유형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실업률은 8.3%로 2005년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한 수준임.
 - 다만,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2005년 114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에 거쳐 장애인의 고용률은 양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복지서비스

- 장애인등록제도 도입 초창기보다 최근 등록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향상,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200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다만, 등록 후 혜택의 정도에 불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어서 수급자 중심의 복지대책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율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LPG 연료 사용허용’ 등 보편적인 제도의 인지율이 높은 실정임.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이용희망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역시 장애인복지관(36.3%)이었고, 그 외 장애인 재활병·의원(28.9%), 이동지원서비스센터(27.4%),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16.7%)도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1개 자치구당 1개소 이상의 복지관이 설립될 필요
 - 다만, 재활병·의원에서의 이용희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이용료의 감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함.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의 순이었음.
 - 이는 내부장애인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노인 장애인의 증가 등 의료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결과
 -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도입, 재활병·의원의 지속적인 신축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과거 주로 가족이나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던 장애인 보호와 지원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도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 및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의 혜택이 증가되어 왔다.

인구의 노령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약물남용, 공해, 치료가 곤란한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당시의 보건사회부 재합과)를 설치한 이래,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즉,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88),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90),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9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년)의 수립 및 시행('97.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범주의 확대('99.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9. 1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03. 2), 제2차 장애범주 확대('03.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08. 4),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08. 8) 등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 해 8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표명하였듯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주기로 6차례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31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한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모든 내용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제2절 조사의 목적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방법

장애인 통계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통계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OECD등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장애인 관련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수집 및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통계의 수집방법으로는 크게 인구센서스에 의한 것과 가구표본조사에 의한 것이 있고, 이외에 제3의 방법으로 장애인등록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하여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인구센서스와 가구표본조사는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센서스는 장애인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과소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가구표본을 추출하여 이들 가구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표본조사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구의 출현율, 장애인구의 특성,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난 2007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선정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표본조사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록이 불완전하고 비연속적이며 아직까지는 등록률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통계로서의 의의가 적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장애범주확대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장애인 등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조사규모

2008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¹⁾, 1995년, 2000년, 2005년에 이은 제7차 조사이다. 1980년의 경우 조사대상지역은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1985년에는 1984년도 상주인구조사를 사용하였다. 1990년에는 198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였고, 1995년에는 1990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 2000년에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2005년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등록장애인 DB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본조사는 등록장애인 2,137,226명(2008년 3월말 기준)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한 208개 읍면동의 등록장애인 12,342명 중에서 약 7,0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등록장애인 중에 시설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시설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80년 당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1985년에는 보건사회부의 기존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6종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1) 실제 조사는 1991년에 실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에 수록되어 있음.

노인, 부녀, 부랑인수용시설 및 정신요양원) 677개소를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부랑인수용시설 및 정신요양원) 748개소를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총수만을 파악하였다. 2000년 조사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883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정신의료 시설) 거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75개소(99.1%)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5년 조사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1,063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시설) 거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52개소(99.0%)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8년 조사에서는 총 1,068개의 생활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72개소(81.6%)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8년 또한 기존 2000년 및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 파악 외에 장애인 개인의 성 및 연령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장애인에 대하여 성·연령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조사하였다.

3. 조사내용

1980년, 1985년, 1990, 1995년, 2000년, 2005년에 실시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8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주거형태, 가구주 직업,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 여부 및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인 거주 여부

2) 장애공통조사

직업, 월 수입, 현 활동상태,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의료보호대상자 여부, 의료보험 가입

여부, 국가지원 수혜 여부 및 종류, 교육 수혜 여부, 무학 이유,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 유무 및 장애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장애유형, 상담 또는 검사여부, 치료 여부, 주요 치료처, 미치료 이유, 치료효과, 장애인의 가정경제에의 영향정도, 요망사항, 취업노력여부 및 미취업 이유, 직업훈련 또는 취업희망분야, 자립가능정도, 보장구 사용 여부 및 종류, 보장구 미사용 이유, 지체장애부위, 장애정도

나. 198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종류, 결혼상태, 가구주 직업,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여부 및 직업, 생활비 마련방법,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인 거주 여부

2) 장애공통조사

치료여부, 첫 치료처, 첫 치료시기, 첫 치료 이후의 치료여부 및 치료처, 전문치료기관(의사)에서의 치료시기, 가장 오래 이용한 치료기관, 치료 종류, 시각장애인의 훈련 종류, 청각장애인의 청력훈련 여부 및 수화·구화 여부, 재활치료·상담훈련기관 종류, 지체장애·정신지체·시각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여부 및 사용종류, 보장구 미사용시 필요성 여부, 보장구 필요시 미사용 이유, 의사의 진단명, 남의 도움 필요정도, 의사치료를 못 받은 이유, 활동상태, 직업, 취업시기, 무직 이유, 직업훈련 또는 취업희망 여부, 희망직업 종류, 개인적 희망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3) 장애유형별 조사

- ① 지체장애: 장애부위, 지체장애 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 ②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희망하는 호청
- ③ 청각장애: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장애정도, 보청기 사용여부,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첫 착용시기, 보청기 미사용 이유

- ④ 언어장애: 언어장애 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 ⑤ 정신지체: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다. 199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종류, 결혼상태, 직업, 종사상 위치(고용 형태), 장애인 거주 여부, 주거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지출

2) 장애공통조사²⁾

남의 도움 필요정도, 건강상태, 첫 치료처, 첫 치료시기, 즉시 의사치료를 안받은 이유, 의사방문전 처치방법, 의사의 충분한 치료여부,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향후 치료 시 호전가능성 여부, 보장구 소지 또는 사용 여부, 사용보장구 종류, 보장구 소지시 미사용 이유, 필요 보장구여부 및 종류, 필요보장구 미사용 이유, 미취학아동의 치료·교육기관 이용 여부, 미취학아동의 치료·교육기관 불이용 이유, 재학생 이용 학교 종류, 학교생활시 불편사항, 유직자의 직업, 현 직업 취업시기, 장애로 인한 현 직업에서의 지장정도 및 어려움 종류, 월 평균 수입, 수입의 주요 지출처, 현 보수의 적정 여부,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및 수혜기관과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 종류, 직업소개 여부 및 소개직장 취업 여부, 소개직업에의 만족 여부, 복지서비스 희망 여부 및 희망서비스 종류, 희망직업훈련 종류³⁾, 무직이유, 취업 희망 여부 및 희망 직업 종류, 희망 고용형태, 직업훈련 희망 여부 및 희망 직업훈련 종류⁴⁾, 등록제도 인지 여부, 등록 희망 여부, 등록제도 인지경로, 등록 여부, 미등록 이유, 장애인 본인의 필요사항, 수용시설 입소희망 이유, 가족의 필요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여가활용 방법

2) 정신지체는 정신지체인용 조사표에 의해 조사함.

3) '유직자의 직업~희망직업훈련 종류'까지는 14~60세 이하의 유직자 대상 설문임.

4) '무직 이유~희망직업훈련 종류'까지는 14~60세 이하의 무직자 대상 설문임.

3) 장애유형별 조사

- ① 지체장애: 장애부위,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 ②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본인 또는 식구 중 눈 수술 여부 및 수술종류, 인공수정체 삽입 여부
- ③ 청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언어소통방법
- ④ 언어장애: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언어소통방법, 언청이 수술여부
- ⑤ 정신지체: 장애발생시기, 장애 인지시기, 장애인지 경로,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남의 도움정도, 첫 치료처, 의사 치료시기, 즉시 의사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의사 치료전 조치종류, 의사의 충분한 치료 여부,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추후 치료시 호전 가능성, 보장구 소지 또는 사용 여부, 사용보장구 종류, 보장구 사용 여부, 보장구 미사용 이유, 필요 보장구 여부 및 종류, 필요시 미사용 이유, 장애인 본인의 필요사항, 수용시설 입소희망 이유, 가족의 필요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여가활용방법

라. 199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 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총가구원 수, 세대수, 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가구의 주된 수입원, 주택형태, 주택소유 유형, 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 나) 장애인 유무: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장애인 조사

가) 장애종류별 특성

- 지체장애: 장애유무, 장애부위, 장애증상,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dified Barthel Index)
- 시각장애: 장애증상, 시력인지 유무, 시력, 점자해독 능력,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청각장애: 장애증상, 보청기 사용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언어장애: 장애유무,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정신지체: 정신지체 유무,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사회성숙도검사 점수), 주된 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장애진단 유무, 치료유무, 진단시기, 진단처, 치료시기, 치료처, 치료받지 않은 이유, 치료의 충분도
- 건강 및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의료기관 이용 여부, 이용빈도, 급성질환 유무
- 일상생활 및 보장구: 생활불편 정도, 일상생활 자립정도, 보호자 유무, 주보호자, 보호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보호자 고용의향, 보장구 소지 여부 및 종류, 보장구 활용정도, 보장구 필요 여부 및 종류
-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활동 종류, 사회활동 참여정도, 월 평균 외출빈도, 외부활동시 불편정도, 주요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 경제상태: 연금수혜 여부, 경제적 어려움 정도, 주관적 월 생활비, 추가생활비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생활만족도, 주된 의논 상대, 사회적 차별의 경험,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담정도, 일반인에 대한 인식, 본인의 장애인 자각 여부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 여부, 인지경로, 등록 여부, 장애등급,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 인지도, 복지기관 이용 여부, 희망하는 서비스,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주택개조 필요성
- 교육: 재학중인 학교,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 고용 및 직업재활: 취업상태, 취업시기, 직업훈련 이수경험, 직업훈련 종류, 직업훈련처, 직업훈련 희망 여부, 현직업 취업경로, 월 평균 수입, 장애로 인한 어려움, 미취업 이유, 취업희망 여부, 취업희망 직종, 취업희망 형태

마. 200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표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총가구원 수, 가구 월 평균 소득액 및 지출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2000년 실태조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 생활비목별 지출액 등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1995년도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었던 세대수 항목은 2000년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자폐증),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인 이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호흡기장애,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 만성통증, 간질 등 경련장애, 암, 기타의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개별조사표

가) 장애유형별 특성

-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dified Barthel Index)

-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 (Modified Barthel Index)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⑥ 정신지체: 정신지체 여부,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정도), 주된 장애원인
- ⑦ 발달장애(자폐증): 발달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발달상의 특성, 정신지체 및 경련성 질환 동반여부
-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장애정도,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 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장애진단 여부, 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도, 현재 장애치료 여부, 치료기관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 보호여부: 일상생활원조 필요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의 소득활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의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 보장구: 보장구 소지 여부, 보장구 종류별 소지 여부, 보장구 활용도, 보장구 미활용

- 의 주된 이유, 필요보장구 유무, 필요보장구의 종류, 필요보장구 미구입 이유
-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외출 능력, 지난 1년간 외출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융자받을 경우 개조의향 여부, 종교형태, 문화·여가활동 종류 별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유무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연금(일시금)수혜 여부, 차량소유 여부, 장애인 가구의 필수품목 보유 또는 이용실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유무, 추가소요비용의 주된 용도, 월 추가소요비용 총액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 생활만족도, 주된 상담자,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본인의 장애인 자가 여부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 여부, 등록 희망 여부, 인지경로, 등록여부, 장애종류 및 등급, 등록시기,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희망 여부,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미보유(사용) 이유 및 향후 보유(사용)계획
- 교육: 다녔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 취학시기,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통학방법, 통학시간
- 취업 및 직업재활: 취업여부, 취업형태, 현 직장 취업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액,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현재 취업만족도, 지난 1개월간 구직경험 여부, 미취업 또는 구직하지 못한 주된 이유, 취업희망 여부, 취업희망 근무형태 및 직종, 취업희망 기관, 희망취업형태, 직업훈련 경험 여부,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희망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 요구사항

바. 200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표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여부 및 형태, 총가구원 수, 가구유형, 가구 월 평균 소득액 및 지출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한 달 동안의 최소한의 생활비,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0년 실태조사에서 가구조사표에 있던 연금가입과 생활비목별지출액은 개별조사표의 경제상태로,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는 개별조사표의 재활보조기구로 이동하였다.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자폐증),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인 이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의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개별조사표

가) 장애유형별 특성

-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⑥ 정신지체: 정신지체 여부,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⑦ 발달장애(자폐증): 발달장애 여부, 발달상의 특성, 정신지체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주된 장애원인
-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⑮ 간질장애: 간질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공동 사항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장애진단 여부, 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현재 장애치료 여부, 치료기관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일상생활원조 필요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유형,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주보호자의 건강 상태, 주보호자의 소득활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의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 의향
-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소지 여부, 재활보조기구 종류별 소지 및 필요 여부, 재활보조기구 사용정도, 재활보조기구 미활용의 주된 이유,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미구입 이유, 정보통신기기별 보유 및 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 보육·교육: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형태(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다니는 유치원 형태(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초·중·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학교생활적응정도, 학교생활시 문제점, 학교까지 통학방법, 집↔학교 통학시간, 낮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 활용 방법, 가정방문학습 도우미 활용의향
-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 경우) 지난 4주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 관련)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개인소득의 수입원, 연금가입 여부, 국민연금가입기간, 국민연금 미납경험 여부, 연금(일시금)수혜 여부, 차량소유 여부(차종, 배기량, 연료, 명의, 주차표지, 용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유무, 추가소요비용의 주된 용도, 월 추가소요비용 총액, 노후생활대책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 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가사일 참여정도 및 가사일 하지 않는 이유,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 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 가장 필요 서비스
-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외출 능력, 지난 1년간 외출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집밖 활

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개조하고 싶은 곳, 종교형태, 문화·여가활동 종류별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유무,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여부, 국내여행형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여부, 투표하지 않은 이유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 생활만족도, 주된 상담자, 장애로 인한 무시나 폭력 경험 여부, 무시·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가족구성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주된 상담자, 상담을 하지 못한 이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해결 기관 필요정도, 영역별 사회적 차별경험정도 및 대처방법, 본인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 여부, 등록시 장애유형 및 등급, 등록시기,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희망 여부, 향후 살기원하는 형태,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이상에서 보듯이 이들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며, 1985년부터 가구조사와 장애공동조사 이외에 각 장애유형별로 개별조사표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올해는 가구조사가 없어져서 기존의 개별조사표를 활용하여 장애인심층조사표(기존 개별조사표)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의 작성과 장애인복지 지표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기본조사이며, 조사의 내용이 과거 조사와 비교하여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 공통적인 조사항목이 포함될 때, 이를 이용한 지속적인 장애인 관련 지표의 작성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 변화 등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종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제4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배경을 장애인복지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의 목적, 방

법, 규모,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제2장 표본설계 개요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 절차와 조사지역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방식, 표본오차 등을 다루었다.

제3장의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에서는 조사표를 개발한 과정과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조사지침, 사전조사, 조사원 선발 및 구성, 현지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조사결과와 회수 및 자료입력, 검토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의 장애의 범위 및 정의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장애의 범위와 각 장애유형별 정의 및 분류를 다루었다.

제5장의 조사결과에서는 장애인심층조사표⁵⁾의 장과 동일하게 총 13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제1절에서는 장애인의 일반특성, 제2절은 15가지 장애유형의 장애특성, 제3절은 보건·의료, 제4절은 일상생활지원, 제5절은 장애인보조기구, 제6절은 보육·교육, 제7절은 취업 및 직업생활, 제8절은 사회 및 여가활동, 제9절은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제10절은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제11절은 주거, 제12절은 복지서비스, 제13절은 경제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향후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건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는 과거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사결과와 제시로 독자의 관심영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세부적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표,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와 관련해서 조사방법에 관해 명확한 사실을 밝혀두고 있다.

5) [부록 3]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표 참고

제2장 표본설계 개요

제1절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개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가구를 조사하여 해당 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1단계의 판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5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와는 조사대상 선정 방식이 다르며, 또한 1단계 추출단위가 조사구에서 지역의 읍면동으로 바뀌었고, 추정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한다는 점이 기존의 조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규모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규모는 등록장애인 DB로부터 2단계 확률비례추출된 1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표본규모를 산정한 이유는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장애출현율과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 분포를 지역별로 감안하기 위함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2배수의 여유 표본수를 배정하여 조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표본으로 추출된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 DB 매치 결과 최종적인 표본대상 장애인은 12,342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7,000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추출된 표본수와 완료된 표본수가 지역별,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상이함으로 추정과정에서 이를 보정하였다.

3. 현지조사팀의 업무량

본 조사에서는 조사지도원 1인과 조사원 3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총 17개팀, 총 68명의 조사원이 팀별로 평균적으로 할당된 장애인수 726명 중 약 412명을 조사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총 조사일수는 약 80일로 팀별로 가능한 한 균일하게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가능한 모집단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표본장애인이 출현하도록 조사원 교육시 주지토록 하였고, 간장애와 안면장애 등 장애출현 빈도가 낮은 특정 장애유형은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파악되도록 하였다.

제2절 표본 설계

1. 모집단 분석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07년 11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장애인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⁶⁾. 따라서 추정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엄밀히 분석하여 이로부터 추출되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2-2-1〉 지역별 등록장애인 분포

(단위: 명, %)

지역	장애인수	백분율	지역	장애인수	백분율
전국	2,283,815	100.00	강원	91,324	4.00
서울	380,307	16.65	충북	85,507	3.74
부산	159,244	6.97	충남	116,560	5.10
대구	106,969	4.68	전북	123,655	5.41
인천	121,269	5.31	전남	135,837	5.95
광주	62,514	2.74	경북	152,368	6.67
대전	64,886	2.84	경남	163,019	7.14
울산	45,182	1.98	제주	27,626	1.21
경기	447,540	19.60			

6) 등록장애인 DB상의 장애인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록장애인수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2,137,226명(2008년 3월말 기준)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음.

다음으로 지역별 장애인의 성 및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2>의 지역별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여성(39.6%)에 비해 남성의 비율(61.4%)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10세 이하가 1.4%, 10~19세가 2.9%, 20~29세가 4.8%, 30~39세가 9.9%, 40~49세가 17.8%, 50~59세가 20.3%, 60~69세가 22.2%, 그 이상은 20.8%로 전체 장애인의 81.1%정도가 4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로 갈수록 장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⁷⁾

〈표 2-2-2〉 지역별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남	19,688	42,818	76,600	162,347	286,830	297,063	282,030	212,808	1,380,184
	여	11,094	22,646	33,441	63,321	120,056	165,494	225,599	261,969	903,620
서울	남	3,499	7,770	13,451	26,875	45,143	51,432	50,403	32,008	230,581
	여	1,914	4,037	5,770	10,672	19,016	29,571	38,515	40,231	149,726
부산	남	1,179	2,620	4,984	10,396	19,694	25,024	22,233	12,478	98,608
	여	696	1,407	2,244	4,192	8,318	12,835	15,645	15,297	60,634
대구	남	1,027	2,392	3,790	7,757	14,738	15,111	12,387	8,294	65,496
	여	569	1,116	1,748	3,213	6,146	8,231	9,788	10,662	41,473
인천	남	1,114	2,376	4,059	9,130	18,426	17,607	14,246	9,360	76,318
	여	651	1,262	1,739	3,316	7,031	8,887	10,760	11,305	44,951
광주	남	629	1,396	2,329	4,903	7,803	7,080	6,771	5,105	36,016
	여	360	749	1,126	2,080	3,618	4,338	6,060	8,167	26,498
대전	남	708	1,468	2,320	5,023	8,464	8,527	7,095	5,489	39,094
	여	396	782	1,127	1,927	3,635	4,702	5,803	7,420	25,792
울산	남	463	1,023	1,596	3,247	6,568	6,645	5,528	3,206	28,276
	여	239	541	663	1,288	2,571	3,418	3,851	4,335	16,906
경기	남	4,995	9,893	16,099	35,704	63,716	57,279	51,178	38,151	277,015
	여	2,763	5,242	6,679	13,154	24,453	30,916	41,889	45,429	170,525
강원	남	551	1,276	2,690	5,725	10,507	11,466	13,321	10,071	55,607
	여	352	742	1,205	2,339	4,568	6,377	9,337	10,797	35,717
충북	남	683	1,721	3,104	5,890	10,325	10,416	10,335	8,752	51,226
	여	396	958	1,449	2,389	4,513	5,791	8,412	10,373	34,281
충남	남	841	1,783	3,919	8,166	13,233	14,057	14,445	14,006	70,450
	여	461	998	1,671	3,135	5,728	8,201	11,573	14,343	46,110

7) 단, <표 2-2-2>의 성별, 연령별 장애인 수는 장애인의 성별이나 연령자료에 결측이 있어 <표 2-2-1>의 지역별 장애인 수 및 총계와 일부 차이가 있음.

〈표 2-2-2〉 계속

지역	성별	연 령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북	남	725	1,702	3,655	7,636	13,181	14,278	14,859	14,140	70,176
	여	440	960	1,672	3,247	6,286	8,594	13,483	18,797	53,479
전남	남	733	1,733	3,548	7,668	13,855	14,690	17,565	16,698	76,490
	여	385	921	1,668	3,125	6,471	9,031	16,191	21,555	59,347
경북	남	999	2,441	4,859	10,130	16,896	18,825	19,306	17,291	90,747
	여	532	1,204	2,070	3,931	7,519	10,946	15,698	19,721	61,621
경남	남	1,252	2,609	5,258	12,018	21,012	21,787	19,274	15,356	98,566
	여	790	1,381	2,149	4,328	8,481	11,899	16,006	19,418	64,452
제주	남	290	615	939	2,079	3,269	2,839	3,084	2,403	15,518
	여	150	346	461	985	1,702	1,757	2,588	4,119	12,108

다음으로 <표 2-2-3>의 지역 및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장애유형의 출현빈도가 유난히 높은 지역은 없으나, 경기도와 서울 지역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2-3〉 지역 및 장애유형별 분포

(단위: 명)

지역 \ 유형	간	간질	뇌병변	자폐성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장루·요루	정신	지적	지체 (변형)	지체 (상지관절)
서울	1,546	1,625	41,899	3,056	40,594	11,645	3,003	376	2,573	2,528	13,876	21,732	2,059	8,856
부산	496	819	18,678	914	17,276	4,221	1,963	236	1,000	857	7,278	8,412	882	3,775
대구	322	370	12,404	634	11,524	2,590	520	117	834	555	5,246	6,986	576	2,608
인천	304	494	11,347	801	12,271	2,965	560	128	856	625	3,808	6,947	566	3,224
광주	156	316	6,311	436	6,846	1,331	373	57	455	302	2,594	4,228	304	1,531
대전	211	281	7,329	483	6,680	1,528	365	63	375	339	2,423	4,070	341	1,883
울산	154	164	4,384	293	4,556	932	588	59	289	166	1,116	2,938	264	1,127
경기	1,657	1,714	47,166	3,199	44,727	11,344	3,083	457	3,167	2,426	14,784	28,862	2,267	10,855
강원	277	308	9,088	293	8,646	1,631	408	69	660	475	2,924	6,239	477	2,303
충북	206	333	8,368	355	8,313	1,525	465	81	563	486	3,519	7,547	459	1,888
충남	279	448	10,606	328	11,702	1,908	637	100	878	660	5,152	9,170	605	2,633
전북	232	628	12,367	373	11,662	1,654	466	106	973	520	5,673	9,161	662	3,044
전남	305	539	11,416	437	14,450	1,937	641	88	1,089	565	5,613	9,063	721	2,771
경북	379	510	15,972	517	16,016	2,571	1,067	182	1,080	723	6,577	11,692	816	3,223
경남	408	611	15,875	823	15,507	3,089	1,093	198	1,119	744	6,584	10,929	895	3,839
제주	113	183	2,837	196	3,833	632	220	19	222	139	981	2,251	217	497
계	7,045	9,343	236,047	13,138	234,603	51,503	15,452	2,336	16,133	12,110	88,148	150,227	12,111	54,057

〈표 2-2-3〉 계속

지역\유형	지체 (상지 기능)	지체 (상지 절단)	지체 (전환 대상)	지체 (척추)	지체 (하지관 절)	지체 (하지 기능)	지체 (하지 절단)	청각 (전환 대상)	청각 (청력)	청각 (평형 기능)	호흡기	기타	계
서울	19,806	13,904	2,340	46,690	56,970	41,885	3,471	472	36,573	146	2,673	11	380,309
부산	10,196	8,441	304	16,993	23,018	17,779	1,895	49	12,474	46	1,238	4	159,244
대구	6,561	6,439	266	9,717	15,948	11,693	1,063	40	9,323	34	597	2	106,969
인천	7,790	8,185	1,187	15,303	16,379	13,516	1,333	251	11,539	48	833	9	121,269
광주	3,493	2,937	386	6,247	9,450	6,577	602	50	7,109	46	374	3	62,514
대전	3,751	2,720	363	7,934	9,540	6,934	662	55	6,096	21	439	0	64,886
울산	2,284	2,036	127	6,799	6,307	4,319	439	28	5,513	18	282	1	45,183
경기	26,653	23,390	3,073	56,463	63,850	50,089	4,700	503	40,050	158	2,883	24	447,544
강원	5,380	4,074	276	13,523	12,927	9,949	996	42	9,536	29	790	4	91,324
충북	5,105	3,549	854	10,137	12,852	8,768	915	150	8,381	38	648	2	85,507
충남	7,070	5,360	616	14,719	17,519	11,885	1,216	120	11,812	27	1,106	4	116,560
전북	7,072	4,796	1,292	15,876	20,082	13,095	1,246	307	11,746	45	577	1	123,656
전남	7,853	5,875	866	15,583	24,392	13,527	1,504	259	15,250	75	1,012	6	135,837
경북	9,204	7,104	653	17,555	21,981	16,178	1,825	128	15,449	62	896	8	152,368
경남	10,045	7,914	784	22,502	24,525	17,347	1,952	156	15,137	86	855	2	163,019
제주	1,399	899	121	2,412	3,504	3,475	239	23	3,012	10	192	0	27,626
계	133,662	107,623	13,508	278,453	339,244	247,016	24,058	2,633	219,000	889	15,395	81	2,283,815

<표 2-2-4>의 지역 및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1급은 9.4%, 2급은 16.3%, 3급은 17.5%이며, 4급 이상은 56.8%로 과반수 이상이 4급 이상으로 경증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장애등급별로 표본을 배분할 경우 4급 이상에서는 추출율을 낮추고, 1~3등급은 추출율을 높이도록 표본 규모를 조정하여 등급별 분포의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2-4〉 지역 및 장애유형별 분포⁸⁾

(단위: 명)

장애등급 지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서울	36,030	62,659	64,895	54,576	73,412	88,708	380,280
부산	14,965	26,131	28,945	22,279	29,742	37,174	159,236
대구	10,375	17,774	17,841	14,385	19,568	27,020	106,963
인천	10,957	18,626	21,090	17,632	24,050	28,905	121,260
광주	5,988	9,672	10,670	8,968	11,888	15,319	62,505
대전	6,550	10,167	10,996	8,304	12,630	16,227	64,874
울산	4,221	6,519	7,900	5,731	9,163	11,643	45,177
경기	42,918	70,802	78,652	62,503	86,446	106,155	447,476
강원	8,733	14,931	17,927	12,841	18,567	18,317	91,316
충북	8,335	14,200	15,718	11,997	16,650	18,592	85,492
충남	11,068	19,509	20,768	16,433	22,537	26,229	116,544
전북	10,727	19,898	22,150	18,510	25,282	27,073	123,640
전남	11,634	22,538	22,451	22,132	27,861	29,211	135,827
경북	14,438	26,882	27,015	21,664	29,407	32,956	152,362
경남	14,893	27,501	27,881	22,854	33,899	35,975	163,003
제주	3,479	4,168	4,985	3,994	4,884	6,115	27,625
계	215,311	371,977	399,884	324,803	445,986	525,619	2,283,580

<표 2-2-5>는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로서 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 중증 장애보다는 경증장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의 경우 중증 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빈도를 나타내는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10.3%), 시각장애(10.3%), 지체장애(척추, 하지관절, 하지기능: 37.9%), 청각장애(청력: 9.6%)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장애(변형, 상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관절, 하지기능, 하지절단, 전환대상)가 약 53.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8) 장애 등급 자료의 일부 결측으로 인해 <표 2-2-1>의 지역별 및 전체 장애인 총수와 차이가 있음.

〈표 2-2-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⁹⁾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972	1,289	1,516	55	3,209	3	7,044
간질	189	1,069	2,964	5,120	1	0	9,343
뇌병변	63,519	67,180	57,258	21,944	15,692	10,425	236,018
자폐성	5,570	5,261	2,307	0	0	0	13,138
시각	33,915	8,712	13,153	11,808	19,683	147,313	234,584
신장	2,577	40,631	20	227	8,041	3	51,499
심장	665	2,749	11,849	10	177	1	15,451
안면	85	398	825	1,025	1	2	2,336
언어	143	1,530	6,944	7,503	7	4	16,131
장루·요루	28	198	1,059	4,776	6,049	0	12,110
정신	11,684	42,954	33,489	4	0	2	88,133
지적	44,405	57,813	47,989	11	1	1	150,220
지체(변형)	353	407	790	897	1,695	7,968	12,110
지체(상지관절)	150	1,142	6,810	13,345	8,309	24,297	54,053
지체(상지기능)	4,016	15,151	34,557	21,438	24,930	33,564	133,656
지체(상지절단)	825	7,331	16,983	20,821	18,102	43,550	107,612
지체(전환대상)	1,000	1,812	2,803	2,377	2,955	2,502	13,449
지체(척추)	3,086	12,604	15,332	10,222	127,793	109,393	278,430
지체(하지관절)	990	4,217	19,731	102,333	119,484	92,470	339,225
지체(하지기능)	31,033	43,543	65,357	49,944	41,889	15,241	247,007
지체(하지절단)	1,207	2,403	8,881	6,967	1,484	3,116	24,058
청각(전환대상)	82	886	468	453	305	431	2,625
청각(청력)	5,893	48,418	40,205	43,309	45,920	35,246	218,991
청각(평형기능)	20	131	221	198	244	74	888
호흡기	2,894	4,132	8,358	3	1	3	15,391
기타	10	16	15	13	14	10	78
계	215,311	371,977	399,884	324,803	445,986	525,619	2,283,580

다음의 <표 2-2-6> ~ <표 2-2-21>은 16개 시·도별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이들 표에 제시된 지역별 전체 장애인수는 일부 장애등급의 결측으로 인해 <표 2-2-1>의 지역별 장애인수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9) 장애 등급 자료의 일부 결측으로 인해 <표 2-2-1>의 지역별 및 전체 장애인 총수와 차이가 있음.

〈표 2-2-6〉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서울)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212	240	253	14	827	0	1,546
간질	47	235	498	845	0	0	1,625
뇌병변	10,969	12,256	9,800	4,013	2,849	2,007	41,894
자폐성	1,343	1,150	563	0	0	0	30,56
시각	6,608	1,443	2,144	1,897	3,085	25,415	40,592
신장	521	9,259	4	52	1,809	0	11,645
심장	118	553	2,282	5	44	0	3,002
안면	15	71	110	180	0	0	376
언어	22	167	1,000	1,383	1	0	2,573
장루·요루	11	37	216	953	1,311	0	2,528
정신	1,685	6,104	6,085	1	0	0	13,875
지적	6,171	7,978	7,579	1	0	0	21,729
지체(변형)	56	59	107	157	281	1,399	2,059
지체(상지관절)	30	184	1,123	2,126	1,369	4,024	8,856
지체(상지기능)	611	2,159	4,993	3,123	3,745	5,174	19,805
지체(상지절단)	89	818	2,171	2,749	2,267	5,810	13,904
지체(전환대상)	188	336	483	408	499	421	2,335
지체(척추)	431	1,857	2,238	1,719	21,398	19,042	46,685
지체(하지관절)	186	719	3,424	17,509	19,300	15,829	56,967
지체(하지기능)	5,127	7,664	11,012	8,412	7,070	2,598	41,883
지체(하지절단)	149	304	1,273	1,053	209	483	3,471
청각(전환대상)	6	141	65	106	49	105	472
청각(청력)	855	8,196	6,053	7,843	7,236	6,390	36,573
청각(평형기능)	2	13	35	25	61	10	146
호흡기	575	714	1,383	0	0	0	2,672
기타	3	2	1	2	2	1	11
계	36,030	62,659	64,895	54,576	73,412	88,708	380,280

〈표 2-2-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부산)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63	113	180	3	137	0	496
간질	16	111	285	407	0	0	819
뇌병변	4,890	5,069	4,717	1,767	1,370	864	18,677
자폐성	388	351	175	0	0	0	914
시각	2,467	653	935	711	1,190	11,319	17,275
신장	232	3,173	1	26	787	1	4,220
심장	95	360	1,502	0	6	0	1,963
안면	3	38	90	105	0	0	236
언어	5	83	456	456	0	0	1,000
장루·요루	4	13	100	316	424	0	857
정신	1,047	3,646	2,583	1	0	0	7,277
지적	2,229	3,277	2,902	4	0	0	8,412
지체(변형)	16	18	57	83	119	589	882
지체(상지관절)	4	79	494	931	523	1,744	3,775
지체(상지기능)	273	982	2,718	1,727	1,938	2,557	10,195
지체(상지절단)	50	620	1,439	1,704	1,356	3,272	8,441
지체(전환대상)	20	42	65	63	66	46	302
지체(척추)	218	895	800	648	7,215	7,216	16,992
지체(하지관절)	48	244	1,192	6,555	8,761	6,218	23,018
지체(하지기능)	2,159	3,023	4,564	3,814	3,127	1,092	17,779
지체(하지절단)	79	177	672	639	94	234	1,895
청각(전환대상)	2	18	13	2	5	9	49
청각(청력)	430	2,807	2,313	2,305	2,614	2,005	12,474
청각(평형기능)	2	6	11	11	8	8	46
호흡기	225	332	680	1	0	0	1,238
기타	0	1	1	0	2	0	4
계	14,965	26,131	28,945	22,279	29,742	37,174	159,236

〈표 2-2-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대구)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47	58	71	2	144	0	322
간질	6	32	134	198	0	0	370
뇌병변	3,377	3,261	2,835	1,275	991	663	12,402
자폐성	252	278	104	0	0	0	634
시각	1,391	426	610	596	1,087	7,413	11,523
신장	124	1,981	1	18	466	0	2,590
심장	12	71	427	0	10	0	520
안면	5	17	38	57	0	0	117
언어	0	63	385	386	0	0	834
장루·요루	0	7	46	163	339	0	555
정신	690	2,506	2,048	0	0	0	5,244
지적	2,066	2,685	2,235	0	0	0	6,986
지체(변형)	5	14	29	34	85	409	576
지체(상지관절)	6	38	239	591	374	1,360	2,608
지체(상지기능)	147	613	1,467	1,132	1,316	1,886	6,561
지체(상지절단)	47	320	1,049	1,292	1,100	2,631	6,439
지체(전환대상)	18	32	52	49	54	61	266
지체(척추)	97	369	327	287	4,227	4,410	9,717
지체(하지관절)	40	175	632	3,941	5,358	5,802	15,948
지체(하지기능)	1,702	2,357	2,716	2,290	1,949	679	11,693
지체(하지절단)	49	85	397	337	61	134	1,063
청각(전환대상)	1	18	3	3	5	9	39
청각(청력)	199	2,209	1,633	1,728	1,991	1,563	9,323
청각(평형기능)	0	4	14	5	11	0	34
호흡기	94	154	349	0	0	0	597
기타	0	1	0	1	0	0	2
계	10,375	17,774	17,841	14,385	19,568	27,020	106,963

〈표 2-2-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인천)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39	59	66	1	139	0	304
간질	10	69	153	262	0	0	494
뇌병변	3,114	3,422	2,813	934	664	399	11,346
자폐성	382	277	142	0	0	0	801
시각	1,748	395	698	747	947	7,736	12,271
신장	138	2,407	2	7	411	0	2,965
심장	37	104	407	0	12	0	560
안면	6	21	43	58	0	0	128
언어	3	62	403	388	0	0	856
장루·요루	0	12	49	234	330	0	625
정신	418	1,804	1,584	0	0	1	3,807
지적	2,183	2,526	2,236	1	0	0	6,946
지체(변형)	5	13	38	59	94	357	566
지체(상지관절)	9	77	424	750	591	1,373	3,224
지체(상지기능)	180	691	1,826	1,342	1,680	2,070	7,789
지체(상지절단)	44	425	1,268	1,808	1,461	3,175	8,181
지체(전환대상)	83	155	275	204	250	220	1,187
지체(척추)	166	591	962	540	7,164	5,880	15,303
지체(하지관절)	62	201	964	4,992	5,446	4,713	16,378
지체(하지기능)	1,727	2,238	3,703	2,568	2,363	917	13,516
지체(하지절단)	58	131	491	381	93	179	1,333
청각(전환대상)	12	96	33	38	38	34	251
청각(청력)	369	2,598	2,066	2,312	2,353	1,841	11,539
청각(평형기능)	1	6	15	5	12	9	48
호흡기	161	245	426	0	0	1	833
기타	2	1	3	1	2	0	9
계	10,957	18,626	21,090	17,632	24,050	28,905	121,260

〈표 2-2-1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광주)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14	29	39	0	74	0	156
간질	5	30	74	207	0	0	316
뇌병변	1,740	1,705	1,495	583	442	346	6,311
자폐성	207	178	51	0	0	0	436
시각	867	257	445	334	511	4,429	6,843
신장	59	1,064	0	5	202	0	1,330
심장	26	62	282	0	3	0	373
안면	3	20	16	18	0	0	57
언어	30	34	169	221	1	0	455
장루·요루	0	3	34	87	178	0	302
정신	377	1,150	1,067	0	0	0	2,594
지적	1,141	1,718	1,367	0	1	0	4,227
지체(변형)	5	9	13	18	33	226	304
지체(상지관절)	4	24	179	340	234	750	1,531
지체(상지기능)	100	359	879	553	661	941	3,493
지체(상지절단)	21	165	457	538	490	1,266	2,937
지체(전환대상)	66	50	67	57	72	74	386
지체(척추)	95	238	179	196	2,575	2,963	6,246
지체(하지관절)	33	106	499	2,924	3,446	2,442	9,450
지체(하지기능)	950	1,157	1,566	1,440	1,081	383	6,577
지체(하지절단)	32	53	230	179	36	72	602
청각(전환대상)	0	10	11	9	10	10	50
청각(청력)	155	1,144	1,324	1,245	1,830	1,410	7,108
청각(평형기능)	1	5	12	14	8	6	46
호흡기	57	101	215	0	0	0	373
기타	0	1	0	0	0	1	2
계	5,988	9,672	10,670	8,968	11,888	15,319	62,505

〈표 2-2-1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대전)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39	49	45	0	77	1	211
간질	7	27	114	133	0	0	281
뇌병변	2,092	2,048	1,792	617	429	350	7,328
자폐성	172	248	63	0	0	0	483
시각	932	219	347	310	564	4,308	6,680
신장	87	1,153	0	5	283	0	1,528
심장	16	58	285	1	5	0	365
안면	3	8	33	19	0	0	63
언어	0	27	174	174	0	0	375
장루·요루	2	5	24	139	169	0	339
정신	320	1,043	1,058	0	0	0	2,421
지적	1,343	1,526	1,201	0	0	0	4,070
지체(변형)	21	17	28	16	44	215	341
지체(상지관절)	4	29	174	433	309	933	1,882
지체(상지기능)	97	356	927	556	797	1,018	3,751
지체(상지절단)	16	217	392	500	460	1,135	2,720
지체(전환대상)	33	24	73	66	90	73	359
지체(척추)	95	351	460	249	3,319	3,458	7,932
지체(하지관절)	34	127	518	2,441	3,279	3,141	9,540
지체(하지기능)	957	1,264	1,762	1,359	1,148	444	6,934
지체(하지절단)	32	59	263	183	32	93	662
청각(전환대상)	2	15	15	10	3	9	54
청각(청력)	144	1,187	1,013	1,091	1,615	1,045	6,095
청각(평형기능)	0	2	6	2	7	4	21
호흡기	102	108	229	0	0	0	439
계	6,550	10,167	10,996	8,304	12,630	16,227	64,874

〈표 2-2-12〉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울산)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9	35	41	1	68	0	154
간질	2	19	55	87	1	0	164
뇌병변	1,220	1,182	1,049	367	314	251	4,383
자폐성	123	123	47	0	0	0	293
시각	611	153	285	244	422	2,840	4,555
신장	42	704	1	2	183	0	932
심장	21	88	477	0	2	0	588
안면	2	6	26	25	0	0	59
언어	5	29	121	134	0	0	289
장루·요루	0	4	12	46	104	0	166
정신	153	526	437	0	0	0	1,116
지적	1,195	1,009	734	0	0	0	2,938
지체(변형)	15	12	18	20	43	156	264
지체(상지관절)	2	30	149	257	169	520	1,127
지체(상지기능)	63	238	574	314	433	662	2,284
지체(상지절단)	16	128	305	393	320	874	2,036
지체(전환대상)	10	20	24	19	34	19	126
지체(척추)	76	238	360	266	2,896	2,962	6,798
지체(하지관절)	25	93	405	1,549	2,096	2,137	6,305
지체(하지기능)	477	773	1,158	841	762	308	4,319
지체(하지절단)	18	53	158	119	21	70	439
청각(전환대상)	2	11	6	3	2	4	28
청각(청력)	89	955	1,297	1,041	1,292	839	5,513
청각(평형기능)	0	6	8	3	1	0	18
호흡기	45	84	153	0	0	0	282
기타	0	0	0	0	0	1	1
계	4,221	6,519	7,900	5,731	9,163	11,643	45,177

〈표 2-2-13〉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경기)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221	240	299	13	882	1	1,656
간질	32	190	526	966	0	0	1,714
뇌병변	13,267	13,420	11,457	4,190	2,902	1,920	47,156
자폐성	1,338	1,286	575	0	0	0	3,199
시각	6,214	1,429	2,405	2,048	3,688	28,941	44,725
신장	571	8,991	6	54	1,722	0	11,344
심장	138	533	2,363	2	47	0	3,083
안면	18	79	158	202	0	0	457
언어	36	241	1,357	1,529	2	0	3,165
장루·요루	6	40	222	975	1,183	0	2,426
정신	1,741	7,044	5,997	0	0	0	14,782
지적	8,684	10,609	9,567	1	0	0	28,861
지체(변형)	62	61	125	130	317	1,571	2,266
지체(상지관절)	30	187	1,362	2,604	1,656	5,014	10,853
지체(상지기능)	767	2,680	6,800	4,423	5,195	6,787	26,652
지체(상지절단)	169	1,372	3,646	4,942	4,092	9,166	23,387
지체(전환대상)	212	389	645	556	662	587	3,051
지체(척추)	558	2,377	2,543	1,902	26,174	22,904	56,458
지체(하지관절)	177	716	3,823	18,639	21,389	19,102	63,846
지체(하지기능)	6,432	8,474	13,921	10,168	8,420	2,670	50,085
지체(하지절단)	209	419	1,734	1,385	306	647	4,700
청각(전환대상)	15	182	83	76	53	89	498
청각(청력)	1,395	9,019	7,531	7,651	7,709	6,744	40,049
청각(평형기능)	2	14	49	42	41	10	158
호흡기	622	803	1,456	0	1	1	2,883
기타	2	7	2	5	5	1	22
계	42,918	70,802	78,652	62,503	86,446	106,155	447,476

〈표 2-2-14〉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강원)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48	61	59	2	107	0	277
간질	3	29	106	170	0	0	308
뇌병변	2,561	2,599	2,201	764	569	394	9,088
자폐성	129	127	37	0	0	0	293
시각	1,378	364	584	482	796	5,042	8,646
신장	91	1,336	0	3	200	1	1,631
심장	16	99	287	0	6	0	408
안면	2	16	23	27	0	1	69
언어	2	64	323	271	0	0	660
장루·요루	1	11	53	234	176	0	475
정신	355	1,491	1,076	1	0	0	2,923
지적	2,080	2,475	1,683	1	0	0	6,239
지체(변형)	20	14	44	34	69	296	477
지체(상지관절)	12	67	385	562	377	900	2,303
지체(상지기능)	193	721	1,561	821	900	1,184	5,380
지체(상지절단)	43	393	769	779	602	1,488	4,074
지체(전환대상)	14	45	83	44	62	27	275
지체(척추)	152	913	1,743	547	6,195	3,970	13,520
지체(하지관절)	41	197	968	4,115	4,628	2,978	12,927
지체(하지기능)	1,198	1,652	3,141	1,742	1,653	562	9,948
지체(하지절단)	64	109	402	264	48	109	996
청각(전환대상)	1	13	13	7	5	3	42
청각(청력)	199	1,935	1,920	1,959	2,162	1,360	9,535
청각(평형기능)	1	3	2	11	10	2	29
호흡기	129	196	463	1	0	0	789
기타	0	1	1	0	2	0	4
계	8,733	14,931	17,927	12,841	18,567	18,317	91,316

〈표 2-2-1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총복)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30	43	40	7	86	0	206
간질	2	35	84	212	0	0	333
뇌병변	2,296	2,372	2,075	792	505	327	8,367
자폐성	157	143	55	0	0	0	355
시각	1,344	341	402	394	831	4,998	8,310
신장	86	1,218	0	6	215	0	1,525
심장	16	105	341	0	3	0	465
안면	2	15	32	32	0	0	81
언어	0	50	238	274	1	0	563
장루·요루	1	7	36	176	266	0	486
정신	425	1,671	1,423	0	0	0	3,519
지적	1,984	2,922	2,640	1	0	0	7,547
지체(변형)	14	20	49	26	77	273	459
지체(상지관절)	12	40	218	459	277	882	1,888
지체(상지기능)	191	562	1,285	804	896	1,367	5,105
지체(상지절단)	33	282	615	611	577	1,429	3,547
지체(전환대상)	58	121	209	145	187	128	848
지체(척추)	150	454	720	422	4,600	3,790	10,136
지체(하지관절)	42	160	785	4,034	4,553	3,276	12,850
지체(하지기능)	1,137	1,454	2,311	1,700	1,592	574	8,768
지체(하지절단)	58	97	320	261	72	107	915
청각(전환대상)	0	61	34	25	15	15	150
청각(청력)	187	1,858	1,419	1,605	1,890	1,422	8,381
청각(평형기능)	1	11	5	11	7	3	38
호흡기	109	158	381	0	0	0	648
기타	0	0	1	0	0	1	2
계	8,335	14,200	15,718	11,997	16,650	18,592	85,492

〈표 2-2-16〉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충남)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40	59	70	2	107	1	279
간질	5	59	150	234	0	0	448
뇌병변	2,719	3,117	2,666	1,011	668	425	10,606
자폐성	158	112	58	0	0	0	328
시각	1,577	458	631	750	1,218	7,067	11,701
신장	88	1,556	0	9	255	0	1,908
심장	29	126	471	1	9	1	637
안면	4	12	44	40	0	0	100
언어	10	120	363	384	0	1	878
장루·요루	1	18	37	271	333	0	660
정신	905	2,597	1,647	0	0	0	5,149
지적	2,937	3,644	2,589	0	0	0	9,170
지체(변형)	22	20	49	49	67	398	605
지체(상지관절)	9	81	325	706	429	1,083	2,633
지체(상지기능)	213	808	1,905	1,113	1,312	1,718	7,069
지체(상지절단)	42	381	758	879	942	2,356	5,358
지체(전환대상)	46	104	110	94	145	109	608
지체(척추)	145	679	1,083	489	6,663	5,660	14,719
지체(하지관절)	67	250	1,135	5,431	6,095	4,540	17,518
지체(하지기능)	1,437	2,068	3,235	2,356	1,946	843	11,885
지체(하지절단)	64	143	470	314	68	157	1,216
청각(전환대상)	8	35	19	22	18	18	120
청각(청력)	391	2,769	2,275	2,273	2,255	1,849	11,812
청각(평형기능)	2	4	7	5	6	3	27
호흡기	148	288	670	0	0	0	1,106
기타	1	1	1	0	1	0	4
계	11,068	19,509	20,768	16,433	22,537	26,229	116,544

〈표 2-2-1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전북)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29	49	47	2	105	0	232
간질	10	41	184	393	0	0	628
뇌병변	2,936	3,313	3,282	1,312	954	568	12,365
자폐성	99	199	75	0	0	0	373
시각	1,561	465	687	607	933	7,407	11,660
신장	96	1,259	0	6	292	0	1,653
심장	18	85	355	0	8	0	466
안면	3	28	35	40	0	0	106
언어	5	104	440	422	1	1	973
장루·요루	0	10	46	262	202	0	520
정신	783	2,833	2,055	0	0	1	5,672
지적	2,570	3,734	2,857	0	0	0	9,161
지체(변형)	13	28	47	54	86	434	662
지체(상지관절)	9	69	415	751	530	1,269	3,043
지체(상지기능)	208	996	1,956	1,030	1,238	1,644	7,072
지체(상지절단)	35	420	682	845	818	1,996	4,796
지체(전환대상)	80	155	245	211	309	289	1,289
지체(척추)	150	626	916	724	7,446	6,012	15,874
지체(하지관절)	43	250	1,124	6,383	7,635	4,645	20,080
지체(하지기능)	1,616	2,509	3,567	2,591	2,030	782	13,095
지체(하지절단)	67	158	493	322	75	131	1,246
청각(전환대상)	10	105	61	61	32	38	307
청각(청력)	296	2,298	2,246	2,479	2,576	1,849	11,744
청각(평형기능)	1	5	6	14	12	7	45
호흡기	89	159	329	0	0	0	577
기타	0	0	0	1	0	0	1
계	10,727	19,898	22,150	18,510	25,282	27,073	123,640

〈표 2-2-1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전남)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38	77	88	2	100	0	305
간질	10	67	162	300	0	0	539
뇌병변	3,034	3,370	2,736	1,083	667	522	11,412
자폐성	151	202	84	0	0	0	437
시각	1,960	657	861	734	1,212	9,026	14,450
신장	99	1,583	1	10	242	1	1,936
심장	38	113	485	0	5	0	641
안면	4	9	37	37	1	0	88
언어	11	164	480	434	0	0	1,089
장루·요루	1	5	36	215	308	0	565
정신	814	3,000	1,799	0	0	0	5,613
지적	2,483	3,968	2,611	1	0	0	9,063
지체(변형)	34	45	60	57	120	405	721
지체(상지관절)	4	74	369	769	430	1,125	2,771
지체(상지기능)	332	1,249	2,049	1,231	1,236	1,756	7,853
지체(상지절단)	54	549	870	1,013	1,009	2,380	5,875
지체(전환대상)	52	130	152	164	206	161	865
지체(척추)	218	799	740	617	7,116	6,091	15,581
지체(하지관절)	62	333	1,339	8,935	9,383	4,340	24,392
지체(하지기능)	1,556	2,315	3,238	3,046	2,414	957	13,526
지체(하지절단)	87	188	497	415	127	190	1,504
청각(전환대상)	15	77	53	41	32	40	258
청각(청력)	389	3,281	3,128	3,010	3,236	2,206	15,250
청각(평형기능)	3	12	19	17	17	7	75
호흡기	185	271	555	0	0	1	1,012
기타	0	0	2	1	0	3	6
계	11,634	22,538	22,451	22,132	27,861	29,211	135,827

〈표 2-2-1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경북)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51	64	77	2	185	0	379
간질	18	48	158	286	0	0	510
뇌병변	4,027	4,748	3,897	1,578	1,088	634	15,972
자폐성	206	206	105	0	0	0	517
시각	2,430	695	967	946	1,662	9,315	16,015
신장	115	2,028	0	9	419	0	2,571
심장	39	155	862	1	10	0	1,067
안면	8	21	63	90	0	0	182
언어	1	117	481	481	0	0	1,080
장루·요루	0	8	55	238	422	0	723
정신	855	3,510	2,210	1	0	0	6,576
지적	3,291	4,590	3,809	1	0	0	11,691
지체(변형)	23	31	54	63	116	529	816
지체(상지관절)	13	83	393	901	444	1,389	3,223
지체(상지기능)	310	1,327	2,551	1,418	1,529	2,069	9,204
지체(상지절단)	87	538	1,093	1,238	1,137	3,011	7,104
지체(전환대상)	40	101	126	129	131	125	652
지체(척추)	242	882	878	627	8,240	6,686	17,555
지체(하지관절)	63	316	1,293	6,712	7,837	5,759	21,980
지체(하지기능)	2,019	2,902	4,087	3,301	2,731	1,138	16,178
지체(하지절단)	99	175	672	516	114	249	1,825
청각(전환대상)	3	48	23	17	18	19	128
청각(청력)	333	4,046	2,632	3,092	3,314	2,031	15,448
청각(평형기능)	1	16	19	15	10	1	62
호흡기	162	226	508	0	0	0	896
기타	2	1	2	2	0	1	8
계	14,438	26,882	27,015	21,664	29,407	32,956	152,362

〈표 2-2-2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경남)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60	91	115	4	138	0	408
간질	9	67	213	322	0	0	611
뇌병변	4,231	4,637	3,861	1,424	1,076	645	15,874
자폐성	382	306	135	0	0	0	823
시각	2,182	609	877	827	1,234	9,776	15,505
신장	173	2,440	4	8	464	0	3,089
심장	33	187	871	0	2	0	1,093
안면	7	36	68	86	0	1	198
언어	13	181	464	458	1	2	1,119
장루·요루	1	16	81	391	255	0	744
정신	1,025	3,666	1,893	0	0	0	6,584
지적	3,300	4,364	3,264	0	0	1	10,929
지체(변형)	36	40	59	76	119	565	895
지체(상지관절)	2	73	495	1,012	537	1,720	3,839
지체(상지기능)	285	1,244	2,692	1,611	1,818	2,394	10,044
지체(상지절단)	74	645	1,337	1,378	1,313	3,167	7,914
지체(전환대상)	67	90	172	146	169	136	780
지체(척추)	262	1,230	1,305	904	11,580	7,221	22,502
지체(하지관절)	58	272	1,427	7,091	8,886	6,788	24,522
지체(하지기능)	2,103	3,127	4,472	3,566	2,982	1,096	17,346
지체(하지절단)	131	230	722	524	115	230	1,952
청각(전환대상)	4	49	30	28	20	25	156
청각(청력)	313	3,632	2,843	2,982	3,162	2,203	15,135
청각(평형기능)	2	24	11	16	28	4	85
호흡기	140	245	469	0	0	0	854
기타	0	0	1	0	0	1	2
계	14,893	27,501	27,881	22,854	33,899	35,975	163,003

〈표 2-2-2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제주)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32	22	26	0	33	0	113
간질	7	10	68	98	0	0	183
뇌병변	1,046	661	582	234	204	110	2,837
자폐성	83	75	38	0	0	0	196
시각	645	148	275	181	303	2,281	3,833
신장	55	479	0	7	91	0	632
심장	13	50	152	0	5	0	220
안면	0	1	9	9	0	0	19
언어	0	24	90	108	0	0	222
장루·요루	0	2	12	76	49	0	139
정신	91	363	527	0	0	0	981
지적	748	788	715	0	0	0	2,251
지체(변형)	6	6	13	21	25	146	217
지체(상지관절)	0	7	66	153	60	211	497
지체(상지기능)	46	166	374	240	236	337	1,399
지체(상지절단)	5	58	132	152	158	394	899
지체(전환대상)	13	18	22	22	19	26	120
지체(척추)	31	105	78	85	985	1,128	2,412
지체(하지관절)	9	58	203	1,082	1,392	760	3,504
지체(하지기능)	436	566	904	750	621	198	3,475
지체(하지절단)	11	22	87	75	13	31	239
청각(전환대상)	1	7	6	5	0	4	23
청각(청력)	149	484	512	693	685	489	3,012
청각(평형기능)	1	0	2	2	5	0	10
호흡기	51	48	92	1	0	0	192
계	3,479	4,168	4,985	3,994	4,884	6,115	27,625

2. 총화 및 표본배분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 DB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표본 대상자들이 매우 산재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표본을 추출하기에는 조사 및 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직접적인 총화추출보다는 대규모 조사에 적합한 총화집락 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전국 16개 시·도별 읍면동을 1단계 추출단위(PSU)로 결정하여 각 지역별 읍면동수에 비례하도록 표본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전국 3,573개 읍면동 중에서 208개의 표본 읍면동을 추출할 경우 95% 신뢰도 하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0.069로서 약 7%의 허용오차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표본수를 고려한 방식은 전국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고려하여 표본집락을 단순임의 추출할 경우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표본 읍면동을 208개 추출하고 이들 표본 읍면동에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층화 이중추출(stratified two-phase sampling)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2-2-22〉 전국 읍면동 분포 및 표본 읍면동수

지역	전체 읍면동수	표본 읍면동수	추출간격
서울	522	26	20
부산	227	13	17
대구	143	7	20
인천	140	10	14
광주	91	10	9
대전	80	9	9
울산	58	9	6
경기	524	19	26
강원	188	11	17
충북	153	6	26
충남	209	12	17
전북	244	12	20
전남	299	17	18
경북	338	18	20
경남	314	23	19
제주	43	6	7
계	3,573	208	

한편 지역별 표본 읍면동에 대해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를 파악하여,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감안한 2원 층화 방법을 고려하였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층별 변동계수는 다음의 <표 2-2-23>과 같다.

〈표 2-2-23〉 장애유형별 비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장애유형	표본수(명)	CV(%)
간장애	371	0.83
간질장애	554	0.83
뇌병변장애	1,512	0.80
자폐성장애	732	0.82
시각장애	1,628	0.79
신장장애	882	0.82
심장장애	626	0.83
안면장애	167	0.84
언어장애	853	0.82
장루·요루장애	684	0.82
정신장애	833	0.82
지적장애	854	0.82
지체장애	1,835	0.79
청각장애	1,623	0.79
호흡기장애	846	0.82
계	14,000	

장애유형별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해보면 각 유형별로 0.7~0.8%로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매우 안정적인 분포를 이루며, <표 2-2-24>에서는 장애등급별로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해 보면 역시 0.7~0.8%로 표본분포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2-24〉 장애등급별 비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장애등급	표본수(명)	CV(%)
1급	2,452	0.77
2급	3,105	0.75
3급	3,333	0.74
4급	2,088	0.78
5급	1,914	0.79
6급	1,108	0.81
계	14,000	0.81

최종적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로 다음의 <표 2-2-25>와 같이 층별로 표본을 배분 하도록 하였다.

〈표 2-2-2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분포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55	82	78	2	154	0	371
간질장애	11	56	175	312	0	0	554
뇌병변장애	281	328	264	203	186	250	1,512
자폐성장애	318	279	135	0	0	0	732
시각장애	229	286	267	300	252	294	1,628
신장장애	154	343	1	11	373	0	882
심장장애	50	170	391	0	15	0	626
안면장애	6	31	59	70	0	1	167
언어장애	7	77	395	374	0	0	853
장루·요루장애	1	20	76	243	344	0	684
정신장애	302	276	255	0	0	0	833
지적장애	255	327	270	1	1	0	854
지체장애	255	307	301	313	326	333	1,835
청각장애	339	278	255	258	263	230	1,623
호흡기장애	189	245	411	1	0	0	846
계	2,452	3,105	3,333	2,088	1,914	1,108	14,000

이와 같이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층별로 배분된 표본수를 다시 지역별로 장애인 규모에 따라 할당한 결과가 다음의 <표 2-2-26>과 같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표본을 재배분한 이유는 지역별 장애인 규모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전국적인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지체장애의 경우 세분화된 유형을 결합하여 “지체장애” 층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지체장애 표본규모를 관리하였다. 지체장애의 경우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유형별로 관리할 경우 타 장애유형에 비해 많은 표본이 배분되어 과대 대표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유형을 결합하여 하나의 층으로 관리하였다.

〈표 2-2-26〉 지역 및 장애유형별 표본수

(단위: 명)

지역	장애유형															계
	간	간질	뇌병변	자폐성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장루·요루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기	
서울	84	100	245	134	211	121	83	23	112	122	96	118	215	221	115	2,000
부산	28	45	90	55	126	71	54	14	67	54	65	55	77	95	54	950
대구	17	25	75	41	93	53	32	8	51	28	35	50	82	73	37	700
인천	21	28	64	50	103	52	46	9	57	35	35	41	70	79	60	750
광주	13	20	48	54	84	31	31	4	41	27	31	33	60	77	46	600
대전	18	27	43	28	82	38	36	12	28	23	34	35	79	74	43	600
울산	20	25	46	41	44	36	30	8	22	23	24	30	61	60	30	500
경기	42	65	240	121	215	136	90	30	104	113	150	129	267	202	96	2,000
강원	21	17	92	18	51	34	26	8	31	39	30	30	62	64	43	566
충북	6	15	56	6	80	38	12	-	14	15	40	31	100	88	23	524
충남	9	27	68	28	65	20	23	4	47	29	51	34	182	112	51	750
전북	13	27	92	11	127	52	30	5	51	32	44	46	124	77	29	760
전남	21	36	67	28	66	41	45	5	64	30	35	68	120	109	65	800
경북	21	25	116	23	123	46	26	17	60	40	62	53	133	97	58	900
경남	19	40	117	60	68	73	33	20	72	56	59	65	134	122	62	1,000
제주	18	32	53	34	90	40	29	0	32	18	42	36	69	73	34	600
계	371	554	1,512	732	1,628	882	626	167	853	684	833	854	1,835	1,623	846	14,000

다음의 <표 2-2-27> ~ <표 2-2-44>는 16개 시·도별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로 배분된 표본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2-27〉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서울)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10	16	9	1	48	-	84
간질장애	-	8	27	65	-	-	100
뇌병변장애	50	70	50	25	25	25	245
자폐성장애	50	35	49	-	-	-	134
시각장애	31	20	40	30	40	50	211
신장장애	32	50	-	4	35	-	121
심장장애	5	29	45	-	4	-	83
안면장애	1	5	10	7	-	-	23
언어장애	1	8	53	50	-	-	112
장루·요루장애	-	3	9	52	58	-	122
정신장애	30	31	35	-	-	-	96
지적장애	30	46	42	-	-	-	118
지체장애	30	30	40	43	37	35	215
청각장애	40	45	36	40	30	30	221
호흡기장애	33	32	50	-	-	-	115
계	343	428	495	317	277	140	2,000

〈표 2-2-28〉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부산)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3	6	11	-	8	-	28
간질장애	1	3	13	28	-	-	45
뇌병변장애	15	20	20	15	10	10	90
자폐성장애	29	17	9	-	-	-	55
시각장애	16	20	15	20	25	30	126
신장장애	14	20	-	1	36	-	71
심장장애	11	23	20	-	-	-	54
안면장애	-	4	2	8	-	-	14
언어장애	1	4	29	33	-	-	67
장루·요루장애	-	1	8	18	27	-	54
정신장애	20	25	20	-	-	-	65
지적장애	15	20	20	-	-	-	55
지체장애	10	10	12	12	13	20	77
청각장애	24	15	16	13	16	11	95
호흡기장애	13	21	20	-	-	-	54
계	172	209	215	148	135	71	950

〈표 2-2-2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대구)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7	3	2	-	5	-	17
간질장애	-	3	8	14	-	-	25
뇌병변장애	15	15	15	10	10	10	75
자폐성장애	22	16	3	-	-	-	41
시각장애	15	23	10	15	10	20	93
신장장애	9	12	0	3	29	-	53
심장장애	1	8	23	-	-	-	32
안면장애	-	2	2	4	-	-	8
언어장애	-	3	23	25	-	-	51
장루·요루장애	-	1	3	2	22	-	28
정신장애	9	10	16	-	-	-	35
지적장애	15	20	15	-	-	-	50
지체장애	12	12	12	15	15	16	82
청각장애	19	12	10	10	12	10	73
호흡기장애	6	8	23	-	-	-	37
계	130	148	165	98	103	56	700

〈표 2-2-3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인천)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	6	6	-	9	-	21
간질장애	1	3	5	19	-	-	28
뇌병변장애	9	9	9	7	5	25	64
자폐성장애	20	24	6	-	-	-	50
시각장애	10	21	29	25	8	10	103
신장장애	7	15	-	-	30	-	52
심장장애	4	11	30	-	1	-	46
안면장애	1	2	3	3	-	-	9
언어장애	-	3	29	25	-	-	57
장루·요루장애	-	1	5	12	17	-	35
정신장애	16	12	7	-	-	-	35
지적장애	15	15	10	1	0	-	41
지체장애	10	10	12	12	13	13	70
청각장애	23	12	12	10	12	10	79
호흡기장애	19	14	27	-	-	-	60
계	135	158	190	114	95	58	750

〈표 2-2-3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광주)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1	4	2	-	6	-	13
간질장애	-	-	4	16	-	-	20
뇌병변장애	10	10	10	7	6	5	48
자폐성장애	32	16	6	-	-	-	54
시각장애	8	28	8	22	8	10	84
신장장애	4	10	-	-	17	-	31
심장장애	5	4	22	-	-	-	31
안면장애	-	2	2	-	-	-	4
언어장애	-	5	20	16	-	-	41
장루·요루장애	-	-	3	4	20	-	27
정신장애	10	11	10	-	-	-	31
지적장애	10	12	10	-	1	-	33
지체장애	10	10	10	10	10	10	60
청각장애	22	10	13	12	10	10	77
호흡기장애	9	14	23	-	-	-	46
계	121	136	143	87	78	35	600

〈표 2-2-32〉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대전)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4	4	3	-	7	-	18
간질장애	2	1	12	12	-	-	27
뇌병변장애	8	10	8	7	5	5	43
자폐성장애	9	16	3	-	-	-	28
시각장애	10	19	10	27	8	8	82
신장장애	5	12	-	-	21	-	38
심장장애	3	6	26	-	1	-	36
안면장애	-	1	4	7	-	-	12
언어장애	-	-	19	9	-	-	28
장루·요루장애	-	-	2	6	15	-	23
정신장애	14	10	10	-	-	-	34
지적장애	10	14	11	-	-	-	35
지체장애	10	12	14	13	15	15	79
청각장애	17	11	10	10	15	11	74
호흡기장애	6	10	27	-	-	-	43
계	98	126	159	91	87	39	600

〈표 2-2-33〉 장애인 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울산)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4	5	3	-	8	-	20
간질장애	1	5	8	11	-	-	25
뇌병변장애	8	8	8	8	7	7	46
자폐성장애	17	14	10	-	-	-	41
시각장애	9	5	10	5	5	10	44
신장장애	6	9	-	-	21	-	36
심장장애	5	16	8	-	1	-	30
안면장애	-	1	3	4	-	-	8
언어장애	1	4	8	9	-	-	22
장루장애	-	-	1	9	13	-	23
정신장애	10	7	7	-	-	-	24
지적장애	10	10	10	-	-	-	30
지체장애	10	10	10	10	10	11	61
청각장애	10	10	10	10	10	10	60
호흡기장애	10	10	10	-	-	-	30
계	101	114	106	66	75	38	500

〈표 2-2-34〉 장애인 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경기)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10	9	8	-	15	-	42
간질장애	1	6	20	38	-	-	65
뇌병변장애	50	60	30	50	30	20	240
자폐성장애	42	57	22	-	-	-	121
시각장애	40	40	25	40	40	30	215
신장장애	22	60	1	3	50	-	136
심장장애	7	24	55	-	4	-	90
안면장애	-	5	8	17	-	-	30
언어장애	3	10	56	35	-	-	104
장루·요루장애	1	2	13	38	59	-	113
정신장애	50	50	50	-	-	-	150
지적장애	40	45	44	-	-	-	129
지체장애	37	50	40	40	50	50	267
청각장애	36	37	32	35	32	30	202
호흡기장애	21	35	40	-	-	-	96
계	360	490	444	296	280	130	2,000

〈표 2-2-35〉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강원)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2	5	2	-	12	-	21
간질장애	-	2	7	8	-	-	17
뇌병변장애	16	19	14	7	13	23	92
자폐성장애	4	12	2	-	-	-	18
시각장애	8	5	5	10	8	15	51
신장장애	6	10	-	-	18	-	34
심장장애	-	10	16	-	-	-	26
안면장애	-	3	2	2	-	1	8
언어장애	1	5	13	12	-	-	31
장루·요루장애	-	2	7	19	11	-	39
정신장애	10	10	10	-	-	-	30
지적체장애	10	10	10	-	-	-	30
지체장애	11	10	10	10	10	11	62
청각장애	18	10	10	8	10	8	64
호흡기장애	11	16	16	-	-	-	43
계	97	129	124	76	82	58	566

〈표 2-2-36〉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충북)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2	2	1	-	1	-	6
간질장애	-	2	3	10	0	-	15
뇌병변장애	7	7	6	12	15	9	56
자폐성장애	4	1	1	-	-	-	6
시각장애	13	8	9	10	25	15	80
신장장애	2	28	-	-	8	-	38
심장장애	-	4	8	-	-	-	12
안면장애	-	-	-	-	-	-	-
언어장애	-	3	4	7	-	-	14
장루·요루장애	-	2	3	2	8	-	15
정신장애	8	20	12	-	-	-	40
지적장애	14	8	9	-	-	-	31
지체장애	20	15	15	20	15	15	100
청각장애	10	12	12	12	15	27	88
호흡기장애	5	2	16	-	-	-	23
계	85	114	99	73	87	66	524

〈표 2-2-37〉 장애인 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충남)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2	2	2	-	3	-	9
간질장애	-	5	11	11	-	-	27
뇌병변장애	10	12	12	5	10	19	68
자폐성장애	13	10	5	-	-	-	28
시각장애	8	12	13	11	10	11	65
신장장애	2	13	-	-	5	-	20
심장장애	1	2	19	-	1	-	23
안면장애	-	-	4	-	-	-	4
언어장애	-	3	18	26	-	-	47
장루·요루장애	-	2	2	10	15	-	29
정신장애	24	14	13	-	-	-	51
지적장애	9	15	10	-	-	-	34
지체장애	20	22	30	30	40	40	182
청각장애	22	20	20	20	20	10	112
호흡기장애	8	17	26	-	-	-	51
계	119	149	185	113	104	80	750

〈표 2-2-38〉 장애인 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전북)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	3	5	-	5	-	13
간질장애	1	4	9	13	-	-	27
뇌병변장애	15	15	15	10	10	27	92
자폐성장애	2	8	1	-	-	-	11
시각장애	10	25	29	33	15	15	127
신장장애	3	35	0	0	14	-	52
심장장애	1	3	25	0	1	-	30
안면장애	1	1	1	2	0	-	5
언어장애	-	6	21	24	0	-	51
장루·요루장애	-	-	4	15	13	-	32
정신장애	25	11	8	-	-	-	44
지적장애	15	17	14	-	-	-	46
지체장애	11	26	22	23	22	20	124
청각장애	16	14	11	12	13	11	77
호흡기장애	2	12	15	-	-	-	29
계	102	180	180	132	93	73	760

〈표 2-2-39〉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전남)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2	7	6	-	6	-	21
간질장애	-	5	12	19	-	-	36
뇌병변장애	10	12	15	10	10	10	67
자폐성장애	12	13	3	-	-	-	28
시각장애	10	12	7	7	10	20	66
신장장애	11	10	-	-	20	-	41
심장장애	5	8	32	-	-	-	45
안면장애	-	-	1	4	-	-	5
언어장애	-	6	32	26	-	-	64
장루·요루장애	-	1	4	10	15	-	30
정신장애	10	15	10	-	-	-	35
지적장애	18	30	20	-	-	-	68
지체장애	15	25	20	20	20	20	120
청각장애	17	18	20	20	20	14	109
호흡기장애	22	18	25	-	-	-	65
계	132	180	207	116	101	64	800

〈표 2-2-40〉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경북)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3	3	5	1	9	-	21
간질장애	2	1	11	11	-	-	25
뇌병변장애	19	22	18	15	15	27	116
자폐성장애	14	7	2	-	-	-	23
시각장애	18	20	20	20	20	25	123
신장장애	8	25	-	-	13	-	46
심장장애	-	3	22	-	1	-	26
안면장애	3	2	8	4	-	-	17
언어장애	-	2	30	28	-	-	60
장루·요루장애	-	-	3	12	25	-	40
정신장애	34	16	12	-	-	-	62
지적장애	13	25	15	-	-	-	53
지체장애	20	25	20	20	25	23	133
청각장애	23	17	13	17	17	10	97
호흡기장애	6	15	37	-	-	-	58
계	163	183	216	128	125	85	900

〈표 2-2-41〉 장애인 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경남)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	3	9	-	7	-	19
간질장애	1	6	15	18	-	-	40
뇌병변장애	29	31	25	10	10	12	117
자폐성장애	29	23	8	-	-	-	60
시각장애	13	10	10	10	10	15	68
신장장애	15	19	-	-	39	-	73
심장장애	1	17	15	-	-	-	33
안면장애	-	3	9	8	-	-	20
언어장애	-	10	31	31	-	-	72
장루·요루장애	-	4	6	26	20	-	56
정신장애	15	24	20	-	-	-	59
지적장애	18	27	20	-	-	-	65
지체장애	19	30	24	20	21	20	134
청각장애	19	25	20	19	21	18	122
호흡기장애	11	14	37	-	-	-	62
계	170	246	249	142	128	65	1,000

〈표 2-2-42〉 장애인 유형 및 장애등급별 표본수(제주)

(단위: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간장애	5	4	4	-	5	-	18
간질장애	1	2	10	19	-	-	32
뇌병변장애	10	8	9	5	5	16	53
자폐성장애	19	10	5	-	-	-	34
시각장애	10	18	27	15	10	10	90
신장장애	8	15	-	-	17	-	40
심장장애	1	2	25	-	1	-	29
안면장애	-	-	-	-	-	-	-
언어장애	-	5	9	18	-	-	32
장루·요루장애	-	1	3	8	6	-	18
정신장애	17	10	15	-	-	-	42
지적장애	13	13	10	-	-	-	36
지체장애	10	10	10	15	10	14	69
청각장애	23	10	10	10	10	10	73
호흡기장애	7	7	19	1	-	-	34
계	124	115	156	91	64	50	600

3. 층별 추정

1) 가중치 조정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14,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12,342명의 장애인중 7,000명을 조사 완료하였다. 따라서 최종 조사 완료된 7,000명은 전국 등록장애인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본 조사를 위해 3,500여개 읍면동으로부터 208개 표본읍면동을 지역별 규모에 따라 추출하였기 때문에 1단계 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의 역수를 먼저 추출가중치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43〉 지역별 표본 읍면동의 가중치

지역	1차 설계가중치($d_k^{(0)}$)	지역	1차 설계가중치($d_k^{(0)}$)
서울	23.72727273	강원	13.42857143
부산	17.46153846	충북	30.6
대구	20.42857143	충남	16.07692308
인천	14	전북	18.76923077
광주	9.1	전남	17.58823529
대전	8.88888889	경북	18.77777778
울산	6.444444444	경남	13.65217391
경기	24.95238095	제주	7.166666667

다음으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대해 지역별 2원 교차표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raking비 조정 과정을 통해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1단계) 표본 읍면동별로 부여된 1차 가중치 ($d_k^{(0)}$)를 포함한 표본 자료와 등록장애인 DB로부터 ①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② 지역별 장애등급별 장애인수, ③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수교차표를 구성한다.

2단계) 1차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 교차표를 구성하여 1단계로부터 각각 구한 모집단 교차

표의 주변총계(marginal sum: 행과 열의 장애인수)를 결합한다. 이때 모집단 교차표의 행의 합을 N_{i+} , 열의 합을 N_{+j} 라 하고, 모집단 셀의 장애인수를 N_{ij} 라 하자.

3단계) 2단계로부터 기본 가중치인 $d_k^{(0)}$ 를 이용하여 사후 층별 주변총계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sum_i d_k^{(0)} = \hat{N}_{+j}, \quad i=1,2,\dots,R$$

$$\sum_j d_k^{(0)} = \hat{N}_{i+}, \quad j=1,2,\dots,C$$

4단계) 3단계에서 구한 사후 주변총계와 모집단의 주변총계인 N_{+} 와 N_{+j}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본자료의 각 셀별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w^{(1,1)} = \left[\frac{N_{i+}}{\sum_{j=1}^C \hat{N}_{ij}^{(0)}} \right] \times d_k^{(0)},$$

$$w^{(1,2)} = \left[\frac{N_{+j}}{\sum_{i=1}^R \hat{N}_{ij}^{(1,1)}} \right] \times w^{(1,1)}$$

5단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3~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때 최종 가중치를 w_k 라 하면 다음의 수렴조건을 만족하는 가중치가 된다.

$$\left| 1 - \frac{\sum_{j=1}^C \hat{N}_{i+}}{N_{i+}} \right| \times 100 \leq \varepsilon (\%)$$

2) 추정

(1) 전국 장애인 총계 추정

복합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모수 추정에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평가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의 특성치에 대한 추정은 가중치를 이용한 통계치를 이용해야

하고, 만약 단순총계를 사용하면 추정치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의 특성치에 대한 추정은 가중치를 이용하는데, 이때 사용될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h=1,2,\dots,L$: 층을 나타내는 첨자

$i=1,2,\dots,n_h$: h 층 내의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j=1,2,\dots,m_{hi}$: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장애인을 나타내는 첨자

n_h : h 층의 1단계 표본 집락수(표본동 수)

m_{hi} : h 층의 i 번째 표본 집락의 표본 장애인수

$n = \sum_{h=1}^L n_h$: 표본 집락 총수(표본 동의 총수)

$m = \sum_{h=1}^L \sum_{i=1}^{n_h} m_{hi}$: 총 표본 장애인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의 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

f_h : h 층의 조사구 추출률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전국 장애인 총수(\hat{Y})는 다음과 같다.

$$\hat{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그리고 전국 장애인 총수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var(\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여기서, $y_{hi.} = \sum_{j=1}^{m_{hi}} w_{hij} y_{hij}$, $\bar{y}_{h..} = \left(\sum_{i=1}^{n_h} y_{hi.} \right) / n_h$ 이다.

또한, 전국 장애인수 총계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Y}) = \frac{\sqrt{var(\hat{Y})}}{\hat{Y}} \times 100 (\%)$$

(2) 각 특성별 장애인 총계 추정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각 특성별(권역별) 장애인 총계(\hat{Y}_h)는 다음과 같다.

$$\hat{Y}_h =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그리고 각 층별 장애인수 총계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var(\hat{Y}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또한, 각 층별 장애인수 총계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Y}_h) = \frac{\sqrt{var(\hat{Y}_h)}}{\hat{Y}_h} \times 100 (\%)$$

(3) 장애인 비율 추정

전국 장애인 비율(\hat{R})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hat{R}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I(hij \in k)}{\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x_{hij} I(hij \in k)}$$

여기서 $y_{hij} I(hij \in k)$ 는 h 층의 i 번째 표본 읍면동의 j 번째 장애인이 k 의 특성을 가진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이며, $x_{hij} I(hij \in k)$ 는 h 층의 i 번째 모집단 읍면동의 j 번째 장애인이 특성 k 를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가진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비율에 대한 잭나이프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var_f(\hat{R}) = \frac{1}{k(k-1)} \sum_{a=1}^k (\hat{R}_a - \hat{R})^2$$

여기서 \hat{R}_a 는 a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추정한 비 추정값이며, \hat{R} 은 k 개의 그룹에 대한 비추정량의 평균이다.

또한, 전국 장애인 비율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widehat{R}) = \frac{\sqrt{\text{var}_f(\widehat{R})}}{\widehat{R}} \times 100 (\%)$$

한편 각 층별 장애인 비율(R_h)의 추정치는 다음의 결합비 추정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widehat{R}_h = \frac{\sum_{i=1}^{n_h} \sum_{j=1}^{m_{hi}} w_{hi} y_{hij} I(hij \in k)}{\sum_{i=1}^{n_h} \sum_{j=1}^{m_{hi}} w_{hi} x_{hij} I(hij \in k)}$$

그리고 각 층별 k 특성을 가진 장애인 비율의 잭나이프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text{var}_f(\widehat{R}_h) = \frac{1}{k_h(k_h-1)} \sum_{a=1}^{k_h} (\widehat{R}_{ah} - \widehat{R}_h)^2$$

여기서 k_h 는 h 층에서 k 개의 그룹을 의미하며, \widehat{R}_{ah} 는 h 층의 a 번째 추정치를 제외한 비추정치이고, \widehat{R}_h 는 h 층에서 k 개의 그룹에 대한 비추정의 평균이다.

또한, 각 층별 장애인 비율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widehat{R}_h) = \frac{\sqrt{\text{var}_f(\widehat{R}_h)}}{\widehat{R}_h} \times 100 (\%)$$

제3절 오차의 관리

통계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크게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구분된다. 표본오차는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생기는 오차이다. 반면에 비표본오차는 표본오차 이외의 모든 오차로 발생 원인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어려워서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사 설계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유형과 발생 원인들을 꼼꼼히 살펴서 비표본오차의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1. 포함오차(coverage error)

표본추출틀은 표본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목표모집단 구성 요소들의 목록이다. 포함

오차는 표본추출틀이 목표모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포함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 첫째, 목표모집단의 일부 단위가 표본추출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이를 과소포함(undercoverage) 또는 미포함(noncoverage)이라 한다.
- － 둘째, 표본추출틀에 있는 일부 단위가 목표모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이들은 부적격 또는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표본추출 전에 확인하고 이들을 표본추출틀에서 제거한다.
- － 셋째, 표본추출틀에서 두 개 이상의 단위가 목표모집단에서 동일한 단위와 대응이 될 때, 이를 과대포함(overcoverage)이라 한다.

2.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

무응답에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 있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단위(가구 또는 가구원)가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하고, 조사에 응한 응답자가 일부 조사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라 한다. 최근 들어서 조사 환경의 변화로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단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무응답이 발생하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오차를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더불어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여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측정오차는 관측값과 참값과의 차이로 비표본오차의 발생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측정오차를 정의하는 방법은 연구자의 참값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참값이 통계조사 상황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참값이 통계조사 상황과 연관시킬 때만 의미가 있다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측정오차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은 응답자, 조사원, 그리고 조사표이다. 이들 원인들이

자료 수집 전체에서 발생하고 각 원인들이 측정과정에서 오차를 생기게 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무심코 틀린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조사원들이 자료를 왜곡 시키거나, 응답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거나, 응답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한다. 조사표가 잘못 설계되어 애매한 질문을 하게 되거나 혼동되는 지시, 오해하기 쉬운 용어들이 조사표에 있으면 측정오차가 생긴다. 측정오차는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조사계획, 기록점검, 코딩, 인지검사(cognitive testing), 랜덤실험 등과 같은 방법들이 측정오차를 계량화하는데 사용된다.

4. 처리오차(processing error)

처리오차는 조사 자료가 수집된 후에 발생하는 오차이다. 자료의 수집에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이르는 각 처리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에디팅, 자료입력, 코딩, 가중값, 조사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이들 오류들은 단순한 기록, 복사 또는 전송 오류에서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편집(edit)이나 잘못된 대체 모형에 의한 복잡한 오류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코드화될 서술형 항목에서는 코딩오차가 또 다른 종류의 처리오차이다. 응답에 코드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코드부여 체계 자체가 불명확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중값을 계산하거나 여러 종류의 결과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오류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이들도 처리오차의 범주에 들어간다.

5. 조정오차(adjustment error)

마지막 단계는 조사 결과로 얻어진 표본추정치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관계된다. 조정을 위해서는 목표모집단(또는 조사모집단)이나 응답률과 같은 정보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무응답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 표본자료가 대표성이 떨어진 경우, 즉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가중치를 더 크게 해주고 응답률이 높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낮게 해준다. 모집단 평균과 가중치를 주어 조정한 평균과의 오차는 표본들이 달라지면 변하게 된다. 즉, 조정은 일반적으로 추정치의 편향(bias)과 분산에 영향을 준다.

제3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제1절 조사표 개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년)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되었던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근간으로 전문가 회의, 장애인 단체 및 관계부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이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 내용을 수정·보완 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승인(제11732호)을 받았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시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사내용을 신규로 포함하였고, 2005년 이후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의 5년 주기 조사에서 3년 주기로 변화되어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로 조사표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조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장애판별을 위해 시행되었던 가구 및 판별조사표가 없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표인 실태조사만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1년~2005년 조사까지는 가구내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고, 또 올해는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므로 “장애인 실태조사”란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에 있어,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사회·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조사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내용의 확대와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사항목들이 추가되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개발된 실태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을 장애인 심층조

사표(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와 시설장애인조사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1. 조사표의 구성

본 조사의 조사표는 지금까지의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활동제약자 조사표(개별조사표)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장애인 심층조사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사방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존의 활동제약자조사표가 이에 해당된다. 활동제약자 조사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 특성, 장애특성 그리고 장애 공통사항(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으로 구성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 실태조사(장애인 심층조사표)

1) 일반 특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서는 장애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현재 경제활동분야 및 직종,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장애등록연도, 등록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총가구원수, 가구유형 및 가구주 등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장애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법정장애 각 장애유형별로 조사문항을 구

성하였다. 기본적으로 15개 장애유형 모두 해당 장애유무, 최초 장애발생시기, 장애의 주된 원인이 공통적인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장소, 출산방법)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및 점자해독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수화가능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심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산소치료처방 가정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주된 장애원인
-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간이식 여부, 주된 장애원인
-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⑮ 간질장애: 간질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표 3-2-1〉 장애유형별 특성 조사항목의 구성

장애유형	조사항목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장소, 출산방법)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및 점자해독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수화가능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심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산소치료처방 가정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주된 장애원인
간장애	간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간이식 여부, 주된 장애원인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간질장애	간질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3) 장애 공통사항

장애 공통사항의 조사항목은 크게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로 구성되었다.

조사항목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종단적 비교를 위하여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기존 조사 이후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항목들이 추가·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후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사항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 현재 미흡한 여성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항목, 장애인 보육·교육관련 조사항목,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욕구 관련 조사항목, 최근 장애인복지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장애인의 차별,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 장애인 주거복

지관련 서비스 파악을 위한 장애인 주거항목, 그리고 장애인 경제상태 중 박탈조사항목 등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2>와 같다.

① 보건·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의 치료·진료 여부 및 장소,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 자신의 건강상태, 최근 건강검진 여부 및 검진내용, 외래 치료 여부, 외래 치료의 주된 비용부담방법·본인부담액·서비스 만족도, 최근 1년간 입원 여부·입원회수 및 입원일수, 입원기간 본인부담액, 입원비용의 주된 부담방법, 입원진료의 만족도, 만성질환 여부 및 만성질환명,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 여부 및 진료받지 못한 이유,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보건의료기관

②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현재 도움의 충분정도, 도움 대가(비용) 지불 여부, 월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평균 지출비, 일상생활 도와줄 외부인 고용의향

③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소지·사용 여부, 필요 보조기구의 미구입·미사용의 주된 이유,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지원받은 곳·지원받은 형태, 지원수준의 만족도, 보조기구의 확보 경로, 보조기구 활용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사용설명 경험 여부, 사용 만족도, 보조기구 급여자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④ 보육·교육(장애아동·청소년):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 여부 및 시간·월비용·만족도·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어려운 점, 통학방법,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희망 여부,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

⑤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

간, 월평균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의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지난 4주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의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⑥ 사회 및 여가활동: 단독 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주된 이유, 주말·휴일의 주된 여가활동방법, 여가시간 희망활동분야,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선거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⑦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가사일 참여정도 및 가사일 하지 않는 이유, 이혼경험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이혼후 자녀의 주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유산경험 여부,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⑧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현재생활 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및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주가족원,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및 시기, 주된 성폭력자, 성폭력시 대처방법 및 주 상담자,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정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⑨ 주거: 현재 주거형태 및 위치, 소유형태,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만족도, 집구조의 편리정도, 집구조의 개조의향, 향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⑩ 복지서비스: 등록 이후 국가·사회의 지원정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인지·이용경험·이용경험자 만족도·이용희망, 국가·사회에 대

한 요구사항

⑪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지난 1년간 월 평균 총가구소득액, 월 평균 가구지출액, 가구 및 개인의 지난 1개월간 월평균 수입원 및 수입액, 연금가입유형, 차량 소유 여부(차종·배기량·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운전자),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지난 1년간 사회적 박탈경험 여부(집세, 공과금, 전기·수도·전화료 등, 공교육비, 난방비, 병원비 등),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비·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비, 기타)

〈표 3-2-2〉 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장애공통	조사항목
보건·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의 치료·진료 여부 및 장소,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 자신의 건강상태, 최근 건강검진 여부 및 검진내용, 외래 치료여부, 외래 치료의 주된 비용부담방법·본인 부담액·서비스 만족도, 최근 1년간 입원 여부·입원회수 및 입원일수, 입원기간 본인부담액, 입원비용의 주된 부담방법, 입원진료의 만족도, 만성질환 여부 및 만성질환명,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여부 및 진료받지 못한 이유,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보건의료기관
일상생활 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및 지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현재 도움의 충분정도, 도움 대가(비용) 지불여부, 월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평균 지출비, 일상생활 도와줄 외부인 고용의향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소지·사용 여부, 필요 보조기구의 미구입·미사용의 주된 이유,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여부·지원받은 곳·지원받은 형태, 지원수준의 만족도, 보조기구 확보경로, 보조기구 활용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사용설명 경험 여부, 사용 만족도, 보조기구 급여자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보육·교육 (장애아동·청소년)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 여부 및 시간·월비용·만족도·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어려운 점, 통학방법,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희망 여부,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

〈표 3-2-2〉 계속

장애공통	조사항목
취업 및 직업 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재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재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 경우) 지난 4주 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 관련)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할 일
사회 및 여가 활동	단독 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주된 이유, 주말·휴일의 주된 여가활용방법, 여가시간 희망활동분야,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선거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가사일 참여정도 및 가사일 하지 않는 이유, 이혼경험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이혼후 자녀의 주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 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유산경험 여부,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 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현재생활 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및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주가족원,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여부 및 시기, 주된 성폭력자, 성폭력시 대처방법 및 주 상담자,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정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주거	현재 주거형태 및 위치, 소유형태,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 집구조의 편리정도, 집구조의 개조의향, 향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복지서비스	등록 이후 국가·사회의 지원정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인지·이용경험·이용경험자 만족도·이용희망,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지난 1년간 월 평균 총가구소득액, 월 평균 가구지출액, 가구 및 개인의 지난 1개월간 월평균 수입원 및 수입액, 연금가입유형, 차량 소유 여부(차종·배기량·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운전자),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지난 1년간 사회적 박탈경험 여부(집세, 공과금, 전기·수도·전화료 등, 공교육비, 난방비, 병원비 등),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비·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 기타)

나. 시설장애인 조사

2008년 시설장애인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2005년 시설장애인 조사표와 동일하게 시설의 일반사항과 시설장애인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단, 시설장애인 특성에서 2005년 조사항목인 무호적자 여부와 향후 범주확대 장애 여부의 조사항목을 삭제하고, 장애등록년도, 지역사회내 공동생활가정 전이 여부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설 일반사항에서는 시설명, 대표자 성명, 법인구분, 시설종류(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한센병시설, 결핵시설), 시설 설치년도, 시설 소재지, 시설 거주자(전체 거주자수, 전체 등록장애인수)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시설장애인 특성에서는 장애인의 성, 연령, 시설 입소연도, 장애등록년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사회내 공동생활가정 전이 여부를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3-2-3〉 시설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시설장애인	조사 항목
시설 일반사항	시설명, 대표자 성명, 법인구분, 시설종류(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한센병시설, 결핵시설), 시설 설치년도, 시설소재지, 시설거주자(전체 거주자수, 등록 장애인수)
시설장애인 특성	성, 연령, 시설입소 년도, 장애등록년도, 법정 장애유형 및 등급, 지역사회내 공동생활가정 전이 여부

제3절 조사의 실제

1. 조사지침서 개발

장애인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사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조사지침서는 크게 세 부분 - 1부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 2부 장애인 실태조사표 작성지침, 3부 부록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1부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다.

제1부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는 조사개요, 표본추출, 현지 조사절차, 조사표의 작성, 조

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 조사대상 장애인 가정 방문시 유의사항이다.

I. 조사개요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조사의 배경으로 정리한 후, 장애인의 실태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복지욕구 파악’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32호)로서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으며,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내용, 조사방법(가구방문 면접조사)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II. 표본추출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활동제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12,342명의 표본장애인을 추출하고, 이 중 7,000명의 장애인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즉, ‘표본조사에서 발견된 장애인 1인은 총수 추정시 300명~400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빠짐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III. 현지조사 절차에서는 조사원이 현지조사에서 거쳐야 할 조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조사원이 현지에서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업무의 내용에는: 1) 조사대상자의 확인, 2) 사전조사, 3) 현지조사(조사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방문, 통·이장 및 반장 방문, 가구의 확인 및 조사대상자명부 작성), 4) 보완조사를 포함시켰다.

IV. 조사표의 작성에서는 조사표는 직접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각 조사문항의 번호기입란에 응답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부호로 기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시 응답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불가시(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는 가구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직접 면접조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V. 실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에서는 조사원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원이 교육받은 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조사원의 조사업무를 검토하고 항

상 독려·감독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지도원과 조사원의 기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VI. 가구방문시 유의사항에서는 조사업무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가구방문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사전조사의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문항의 개발과 실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추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주로 다음의 내용들이 점검되었다.

가. 표본

- ① 조사지역을 확인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 ② 조사대상자가 DB상 거주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나. 접근

- 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부나 반발은 없는가?
- ②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③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다. 설문

- ① 조사항목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 ② 조사표의 형태는 조사하기에 적당한가?
- ③ 조사표에서 표현방법이 잘못된 곳은 없는가?
- ④ 조사표의 문항들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 ⑤ 건너뛰는 질문의 경우 어디로 가야 할지,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에 혼란은 없는가?

- ⑥ 자세한 조사지침이 필요한 문항은 없는가?

라. 응답

- ① 조사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기의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 ②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읽기 어려운 구절은 없는가?
- ③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응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 ④ 응답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는 없는가?
- ⑤ 응답시 당황해 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낸 질문이 있는가?

마. 자료 처리

- ① 자료를 범주화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 ② 부호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바. 조사표 작성

- ①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가?
- ②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사. 조사관련 업무

- ① 장애인 1명당 면접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얼마인가?
- ② 조사원의 일일 조사업무량은 몇 건인가?
 - 장애인 실태조사표는 조사문항수(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당시 총 738개임)가 많고, 장애등급 1~3급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의 장애인은 2~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아. 자료 분석

- ① 빠진 조사항목은 없는가?
- ②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전조사는 일차적으로 완성된 조사표를 근거로 연구진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장애유형과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여 총 4명을 선정 후 2008년 8월 19일~8월 20일에 실시하였다. 이 사전조사에서 얻어진 조사문항 관련 결과는 조사표 확정시에 반영되었으며, 조사결과에서 얻어진 장애인 거주 가구당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원들의 1일 업무량을 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조사원 교육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노출 기피 등으로 일반 사회 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각 장애유형별 특성 및 원인, 주요 증상,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 폭력·차별경험, 장애인등록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사에 있어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헌신적 참여의사와 동기유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조사원과 지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목적과 조사실시에 있어 요구되는 장애에 대한 기본지식, 동기 유발, 면접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2008년 9월 2일~9월 5일에 걸쳐 4일 동안 실시하였다. 장애특성에 대한 교육은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장애유형별 전문의들은 조사표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표 3-3-1> 참조).

교육내용은 주로 조사개요, 표본,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공통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사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내 연구진과 외부의 강사들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에 참여한 장애특성 관련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는 다음과 같다.

〈표 3-3-1〉 장애특성 관련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 명단

교육 과목	교육 강사
지체장애·뇌병변장애	김완호(국립재활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시각장애	박성희(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안과 교수)
청각장애·언어장애	박철원(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송동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
정신장애·간질장애	서동우(한별정신병원 진료원장)
신장장애	이태원(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장학과 교수)
심장장애	유규형(건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호흡기장애	고윤석(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간장애	이준성(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안면장애	홍인표(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장루·요루장애	오승택(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제4절 현지조사

1. 조사기간

현지조사는 2008년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원 선정 및 조사팀 구성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팀은 지도원(supervisor) 1명과 조사원 3명, 총 4명이 1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17개의 팀 총 68명이 장애인 실태조사에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조사대상자명단 내의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한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원은 각 조사팀의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원은 조사대상자 명단 내 조사원별 업무할당 및 지정, 조사결과의 점검 및 누락사항의 발견, 재방문 지시 그리고 조사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도원과 조사원은 원내 보건사회통계실 조사기획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되었으며, 면접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었다. 지도원과 조사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30~50대의 연령으로 사회조사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의 1995년~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은 지도원으로 선발하였으며, 연구진들은 조사감독원으로 편성하여 현지조사 기간 중 각 조사팀을 담당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감독원들의 주된 임무에는 해당 조사지역내 조사협조 요청,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에 대한 어려움, 조사내용에서의 의문사항, 조사시 비협조문제 등 조사 진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 기타 지도원이나 조사원의 개인적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것도 포함시켰다.

3. 현지 조사의 절차

현지 조사는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정해진 조사 일정에 따라 1개 조사지역 내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대상자를 조사한 후 다음 조사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팀이 해당 조사구에서 조사를 완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가. 조사구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지도원은 조사원과 함께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함.
-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도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담당자와 현지 조사에 관한 협의
 - 등록장애인 명부 열람, 조사대상장애인 정보 파악
 - 조사표 및 조사용품 인수(각 조사지역에서 사용할 조사표와 각종 물품은 연구원에 서 조사 전에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우송)
 - 기타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이때, 조사원은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됨(지도원이 읍·면·동사무소에 담당자와 협의를 할 때에는 1명의 조사원을 동석시킬 수도 있음).
- 읍·면·동사무소에서 협의 후 조사구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숙소를 정함(서울의 경우 제외).
- 지도원은 읍·면·동장을 방문하여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를 부탁함.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안내포스터 부착 요청

나. 면접 및 조사표 작성

조사원은 배당된 조사대상자명단 중 할당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의 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조사표에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만약 적당한 응답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방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원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임명한 조사원 ○○○입니다. 귀하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조사대상자가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 조사는 예산과 시간 관계로 전국의 모든 등록장애인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비뽑는 식으로 12,342명의 등록장애인을 뽑았는데, 귀하께서 뽑혔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전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조사대상자명부의 작성

조사대상자명부는 조사대상자 한 명의 방문이 끝날 때마다 기입하였다. 만약 방문을 하였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등록장애인 DB번호를 조사표 상단에 기입하고 재방문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자명부에 기록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

- ① 거주지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 ② 지도원 성명
- ③ 작성일자
- ④ 조사대상 장애인수

⑤ 조사완료 장애인수

⑥ 조사미완 장애인수

(2) 조서관리 항목

① 등록장애인 DB 번호

② 조사표 일련번호

③ 장애인 성명

④ 거주유형(재가/시설)

⑤ 응답자유형

⑥ 완료/미완 장애인수(등록장애인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4. 현지 조사의 결과

현지 조사시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담당(장애인담당) 그리고 통·반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특히 읍·면·동사무소 및 통·반장, 지역유지 등을 통해 조사지역 내 장애인 유무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였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등록장애인명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부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장애유형 확인, 경제상태 파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지역내 장애인의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이장을 통해서 장애인 조사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응답은 되도록이면 장애인 본인과 직접 면접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현지 조사의 전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구 사회정책연구본부 장애인복지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진 및 각 조사팀의 지도원에 의해 통제·지도 감독되었다. 지도원은 현지에서 조사완료된 조사표를 점검하고, 감독원인 본 연구진이 조사 현지에서 각 조사팀을 직접 순회지도하였다.

이러한 조사절차를 통하여 조사완료된 장애인수는 7,000명이었고, 미완장애인수는 5,342명이었다. 따라서 조사완료율은 조사대상장애인을 기준으로 5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표 3-4-1> 참조).

〈표 3-4-1〉 장애인심층조사 완료율

구분	결과
조사대상 장애인수	12,342명
완료 장애인수	7,000명
미완 장애인수	5,342명
완료율	56.7%

장애인 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조사진행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이 있어,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응답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가구내 가구원(주로 배우자 및 부모)을 통해 응답받도록 하였다. 즉,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문자해독 능력이 있을 때는 조사표상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해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장애인과 장애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리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76.3%였고, 청각장애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23.7%였다¹⁰⁾.

5. 시설조사의 결과

시설조사는 1차 2008년 9월 16일~11월 4일까지 약 50일 동안 우편설문으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 이후 응답률이 저조하여 3차례에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2월 28일 종료하였다.

2008년 시설장애인조사는 총 1,068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중 총 872개 시설(81.6%) 거주자 67,11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전체 거주자의 51.4%인 34,4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응답자는 총 7,000명이었는데, 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5,344명(76.3%)이었고, 대리응답한 경우는 1,656명(23.7%)이었음.

〈표 3-4-2〉 시설장애인 조사 완료율

(단위: %, 명)

구분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모부자 보호	부랑인	정신 요양	한센병	결핵	계
총 시설수	291	240	391	41	38	59	6	2	1,068
회수시설수	272	225	233	41	36	58	5	2	872
회수율	93.5	93.8	59.6	100.0	94.7	98.3	83.3	100.0	81.6
총거주자수	19,811	15,897	8,376	2,422	8,195	11,858	496	55	67,110
남자거주자수	11,914	8,995	2,275	734	5,568	6,874	208	41	36,609
여자거주자수	7,897	6,902	6,101	1,688	2,627	4,984	288	14	30,501
총등록장애인수	19,533	598	1,554	46	3,760	8,503	480	25	34,499
등록장애인남자	11,801	335	561	14	2,565	4,891	206	17	20,390
등록장애인여자	7,732	263	993	32	1,195	3,612	274	8	14,109

사회복지시설내 총 등록장애인 34,499명 중 장애유형이 제대로 파악된 34,458명에 대해서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전체의 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신장애인 27.8%, 지체장애인 12.8%, 뇌병변장애인 7.8%의 순이었다.

〈표 3-4-3〉 시설내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	2,574	2,010	959	347	214	12,818	225	356	0	1	1	0	3	0	12	19,520
아동복지	78	25	17	9	14	372	11	59	1	1	0	0	1	1	1	590
노인복지	609	318	155	237	8	96	0	109	2	0	5	0	0	3	2	1,544
모부자	13	5	3	6	2	13	0	3	1	0	0	0	0	0	0	46
부랑인	535	311	83	71	33	1,142	2	1,499	13	1	5	0	0	2	63	3,760
정신요양	201	30	16	25	5	647	2	7,540	1	0	0	0	0	0	26	8,493
한센병	406	2	60	11	1	0	0	0	0	0	0	0	0	0	0	480
결핵	3	2	0	5	0	6	0	1	0	0	8	0	0	0	0	25
전체	4,419	2,703	1,293	711	277	15,094	240	9,567	18	3	19	0	4	6	104	34,458
구성비	12.8	7.8	3.8	2.1	0.8	43.8	0.7	27.8	0.1	0.0	0.1	0.0	0.0	0.0	0.3	100.0

6. 자료의 처리

가. 자료의 처리

조사가 완료된 후, 총 17명의 지도원으로 구성된 에디팅요원에 의해 장애인심층조사표

의 기재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부실 기재된 문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기입되어 있는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응답을 받아 조사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원들이 조사 실시시 장애인인 등과 관련해서 정확한 질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을 그대로 조사표에 기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연구진이 검토하여 분류하였으며, 장애정도, 범위 및 장애인인 분류에 관련해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나.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지침(coding instruction)에 따라 부호화된 후, 외부 전문 전산업체 ((주) 행정정보기술서비스)의 용역을 통해 전산입력 되었다. 그리고 원내 보건사회통계실 조사관리팀의 협조 및 지원으로 자체 개발된 오류점검(error check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를 교정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SPSS통계패키지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본 조사의 일차적 목적이 장애인 실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의 집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장애인의 사회, 경제, 복지, 장애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둘째, 각 장애유형별 세부 특성에 관한 통계치이다.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전국추정수)의 통계치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조사표 각 장의 내용(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의 실태를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중증, 경증)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사람(person)으로서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장 장애의 범위 및 정의

제 1 절 장애의 범위

본 조사에서 장애의 범위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이다. 이는 2000년도 조사에서 장애범주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종류였던 것에 비해 5종류(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장애가 더 확대된 것으로, 이는 2003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정신자폐성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대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정신자폐성장애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¹¹⁾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그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

11)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함.

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¹²⁾.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 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손상 상태에서 능력장애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참여(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범위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 2 절 장애의 정의 및 분류

1. 지체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8년 12월 31일 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2)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영역들은 ① 신체기능 및 구조와 ② 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기본 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서부터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애범주로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실태조사에서도 지체장애와는 별도로 뇌병변장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2005년 조사와 동일하다.

보행상의 장애정도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장애정도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분류된다.

3.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

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시력 0)이라 하고,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light-perception),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visual field)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도 2005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교정시력 0.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각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도 청각장애는 2005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즉,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이고, 아래의 항목들 중 ‘라’항목이 평형기능장애에 해당된다.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즉, 언어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①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한다.
- ③ 유창성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말의 흐름장애’ 또는 ‘유창성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 말더듬(stuttering)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다.
 - 속화증(cluttering)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

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④ 기타: 뇌성마비·지적장애·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언어장애인이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2008년 실태조사에서의 언어장애의 정의는 2005년 조사와 동일하다.

6. 지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 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지적장애협회(AAMR)에서는 “지적장애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 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5 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 능력, 여가, 그리고 일’(Schalock, et al., 1994:181~193)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를 지적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의 분류에 있어서도,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 지적장애로 분류해오던 미국지적장애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의 정도를 지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장기적 지원(extensive support),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정기원 외, 1995).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적장애의 발병연령은 18세 이전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 이하의 지적인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영역들(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효과, 여가, 직업기술

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발달기(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5 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한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적장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7. 자폐성장애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때부터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자폐성장애는 1943년 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Kanner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IV(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자폐성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전반적 자폐성장애)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된다.

자폐성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자폐성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르는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폐성장애의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자폐성장애 정의와 동일하다.

8. 정신장애

앞서 자폐성장애와 마찬가지로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때부터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뎠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
-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 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 ④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9. 신장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중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는 말로 정상적인 신장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지만 만일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며,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된다.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지난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2008년의 신장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0. 심장장애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만성심장질환인 심장장애는 신장장애와 더불어 지난 1999년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최근 만성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범주의 확대 요구도가 높아져 포함되게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심장장애이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기능 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수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2008년의 심장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1. 호흡기장애

지난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10개 장애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개의 장애범주가 추가되어 총 15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이중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는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고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된다.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8년)에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하며,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검사에 의한 폐 환기기능, 동맥혈 가스 검사에 의한 동맥혈산소분압 등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2008년의 호흡기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2. 간장애

지난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간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그리고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된다. 이러한 2008년의 간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3. 안면장애

지난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신체적 장애 중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안면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

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얼굴전면에 혈관종을 앓고 있거나 화상으로 인한 얼굴변형도 그 정도에 따라 안면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안면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때문이다. 이러한 2008년의 안면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4. 장루·요루장애

지난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장루·요루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루는 복부를 통해 결장부위에 수술로 만들어진 개구이다. 장루수술을 받게 되면 대변을 더 이상 항문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결장을 통해 배출되며, 배변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해야 한다. 회장루는 아랫배를 관통하여 소장(小腸)에 수술로 만든 개구인데,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 및 항문과 함께 결장을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회장루에 의한 대변수술 후 대변은 소장(小腸)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매우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착용한 주머니는 인공항문 주변에 맞는 보호용 피부벽을 가져야 한다.

요루는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기 위해 아랫배에 수술로 만든 개구이다. 요루수술을 하게 되면 소변은 더 이상 요도를 통해 배출되지 않게 되며, 요루를 통해 배출된다. 요루는 항문괄약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요루수술을 한 사람은 언제 소변을 본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없다. 대신 소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한다.

장루·요루장애에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 시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

단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2008년의 장루·요루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5. 간질장애

지난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예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마지막 장애유형인 간질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간질이란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간질의 원인은 다양하며 발작의 양상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간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의 뇌손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방출되어 재발성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2008년의 간질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제3절 장애원인 분류

장애원인에 대한 분류는 장애발생 및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골격으로 개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주로 질병의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한국표준질병분류를 바탕으로 외국의 장애원인 분류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장애원인을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선천적 원인의 경우 원인분류는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이상, 선천

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고, 각 장애유형별로 해당되는 장애원인들이 장애주된 원인에 보기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출생시 원인은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후천적 원인의 경우는 질환과 사고로 분류하였는데,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 정신 질환, 감각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종양)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고, 사고에는 폭력에 의한 사고, 가정내사고, 교통사고(탑승자), 교통사고(보행자),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화상, 약물사고, 기타사고 및 외상, 전상,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질환이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천적 원인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여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 이상, 선천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 모체의 감염, 미상, 기타 등 9개의 항목으로 더 세분화되어 제시하였다. 출생시 원인의 경우는 2005년 조사와 동일하게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 5개의 항목이다. 그리고 후천적 원인의 경우도 2005년 조사를 그대로 적용하여 질환의 경우 보기항목이 14개를 제시하였고, 사고의 경우는 11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2005년부터 보기항목이 세분화된 이유는 그동안의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원인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2000년 및 2005년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천적 장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제5장 조사결과

제1절 장애인의 일반특성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남자가 58.6%로 여자 41.4%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남자 59.9%, 여자 40.1%)와 같이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남자의 비율이 82.0%로 가장 높았고, 간질장애는 여자의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다.

〈표 5-1-1〉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자	58.5	59.5	57.1	55.8	72.3	61.8	80.7	51.8	57.4	59.3	82.0	75.4	64.9	63.2	51.3	58.6
여자	41.5	40.5	42.9	44.2	27.7	38.2	19.3	48.2	42.6	40.7	18.0	24.6	35.1	36.8	48.7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의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50~64세가 32.0%를 차지하고 있어 2005년의 조사결과(65세 이상 32.5%, 50~64세 29.9%)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점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9.6%로 가장 높았는데, 뇌병변장애나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같은 내부장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반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각각 78.5%, 30.4%로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5-1-2〉 연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정루·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0-17세	0.9	3.8	1.8	2.1	7.7	30.4	78.5	0.3	0.3	6.9	0.0	4.4	6.6	1.4	4.3	3.9
만 18-29세	2.1	1.9	1.6	1.7	5.8	26.6	18.5	6.0	4.6	3.5	0.8	1.8	8.6	0.6	11.3	4.0
만 30-39세	6.8	3.8	5.4	4.0	11.5	16.2	2.2	21.7	10.8	3.9	2.3	5.6	23.3	3.2	22.2	7.4
만 40-49세	19.4	8.0	11.9	9.6	17.8	15.5	0.1	35.2	21.7	9.1	7.0	26.5	22.2	6.9	36.2	16.7
만 50-64세	35.3	36.6	31.3	27.3	24.3	8.7	0.7	29.4	38.9	28.9	38.9	52.6	31.1	28.4	23.2	32.0
만 65세 이상	35.5	45.9	48.0	55.3	32.8	2.5	0.0	7.4	23.8	47.7	51.1	9.2	8.2	59.6	2.9	3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미취학자 97명을 제외한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3.0%, 고등학교 24.4%, 중학교 15.9%, 무학 16.5%, 대학이상 10.2%의 순으로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초등학교 30.2%, 고등학교 26.0%, 중학교 16.7%, 무학 16.5%, 대학이상 10.7%)와 유사하며,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무학의 비율이 23.6%로 가장 높았고, 간장애는 대학이상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아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5-1-3〉 교육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정루·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학	16.5	14.7	18.0	23.6	17.7	20.4	14.3	5.4	6.7	10.7	10.0	3.7	6.1	14.4	3.8	16.5
초등학교	33.9	35.8	31.9	36.5	28.6	29.8	48.0	16.2	27.0	34.0	42.2	17.7	20.4	32.3	21.1	33.0
중학교	14.3	19.9	16.5	15.3	15.4	17.9	14.8	19.9	16.6	22.5	17.0	19.2	16.8	20.6	20.0	15.9
고등학교	25.2	19.6	22.4	16.0	25.2	29.0	20.3	38.5	34.8	21.2	19.3	31.1	37.3	22.5	40.3	24.4
대학이상*	10.1	10.0	11.1	8.6	13.2	2.9	2.6	20.1	14.9	11.7	11.6	28.3	19.4	10.1	14.9	1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8,971	220,061	207,382	15,103	140,079	12,329	84,779	48,285	14,605	14,393	6,514	2,185	11,355	8,881	2,137,039

주: 대졸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전체 장애인 중에서 재학, 중퇴, 졸업을 모두 포함하여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16.1%였고, 초등학교를 다닌 장애인은 검정고시를 제외하고 83.8%로 2005년 조사 당시 84.2%보다 0.4% 포인트 약간 낮아졌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전체의 80.3%는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특수 초등학교에 다닌 장애인은 2.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폐성장애는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보다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이나 특수초등학교를 다닌 비율

이 각각 37.3%와 31.7%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로 23.6%에 달했다. 반면에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간장애로 97.0%였다.

〈표 5-1-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정루·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재학	0.3	0.5	0.9	1.3	2.8	2.7	11.0	0.0	0.0	2.5	0.0	2.9	0.9	0.5	0.8	0.7
일반학교	중퇴	9.2	8.6	8.9	11.2	6.5	9.0	0.5	3.6	7.0	8.6	9.5	2.2	6.6	6.9	8.9
졸업	74.0	74.2	71.0	60.4	72.6	35.9	13.4	89.9	86.4	79.1	80.6	91.9	86.5	78.4	88.4	70.7
일반학교내	재학	0.0	0.8	0.1	0.1	1.0	7.3	24.8	0.0	0.0	0.6	0.0	0.0	0.0	0.2	0.7
특수학급	중퇴	0.0	0.0	0.0	0.0	0.1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1	0.1	0.0	0.1	0.2	10.2	12.5	0.8	0.0	0.0	0.0	0.0	0.8	0.0	0.0	0.8
재학	0.0	0.2	0.0	0.0	0.0	2.8	14.1	0.0	0.0	0.0	0.0	0.0	0.0	0.0	0.0	0.3
특수학교	중퇴	0.0	0.4	0.0	0.3	0.2	0.7	1.0	0.1	0.0	0.0	0.0	0.0	0.0	0.0	0.1
졸업	0.1	1.2	0.9	3.1	1.3	13.4	16.6	0.2	0.0	0.0	0.0	0.0	0.0	0.0	0.0	1.6
검정고시	0.1	0.2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다니지않음	16.2	13.9	18.0	23.6	15.4	17.6	6.1	5.4	6.7	9.1	10.0	3.0	5.2	14.3	3.8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8,734	217,048	220,060	206,784	14,690	135,335	11,197	84,780	48,284	14,358	14,393	6,468	2,164	11,331	8,882	2,124,508

중학교를 다닌 장애인은 51.4%였으며,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48.3%로 조사되었다. 일반학교를 다닌 장애인은 48.9%로 초등학교 보다 입학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중학교에 다닌 장애인은 1.7%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인이 특수중학교를 다닌 비율이 4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폐성장애인 중에 28.9%는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을 다녔으며, 일반학교를 다닌 발달장애인은 19.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지적장애인은 18.3%가 특수중학교를 다녔으며, 일반학교를 다닌 지적장애인은 29.9%였다. 한편, 중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로 59.5%가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5〉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1	0.1	0.6	0.4	0.0	2.0	6.5	0.0	0.0	1.3	0.0	0.5	4.2	0.0	1.1	0.3
일반학교 중퇴	3.5	6.2	4.5	4.5	4.3	1.5	0.0	5.7	3.6	5.8	5.3	2.8	5.2	6.7	6.7	4.0
일반학교 졸업	45.8	43.2	43.8	32.7	50.0	26.4	12.7	72.7	62.4	50.9	42.2	78.2	64.8	46.5	67.6	44.6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0	0.0	0.0	0.0	0.4	5.1	13.2	0.0	0.0	0.0	0.0	0.0	0.0	0.0	0.3	0.3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중퇴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4	0.0	0.0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졸업	0.0	0.0	0.0	0.0	1.5	6.3	15.7	0.0	0.0	0.0	0.0	0.0	1.2	0.0	0.1	0.4
특수학교 재학	0.0	0.5	0.2	0.0	0.0	4.5	13.9	0.0	0.0	0.0	0.0	0.0	0.0	0.0	0.0	0.4
특수학교 중퇴	0.0	0.0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특수학교 졸업	0.1	0.8	0.8	2.8	1.6	13.1	27.4	0.0	0.0	0.0	0.0	0.0	0.0	0.0	0.3	1.3
검정고시 다리지않음	0.3	0.2	0.6	0.1	0.0	0.0	0.0	0.0	0.2	0.1	0.2	0.0	0.0	0.0	0.1	0.3
계	50.1	49.0	49.4	59.5	42.1	40.0	10.5	21.5	33.7	41.9	52.2	18.5	24.6	46.4	23.8	48.3
전국추정수	1,125,517	212,620	217,790	203,828	14,025	116,319	5,194	84,699	48,284	13,911	14,393	6,282	2,130	11,281	8,759	208,082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64.2%로 가장 많았고,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은 33.6%, 특수학교 1.4%,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0.4%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장애인의 교육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 애인은 계속해서 특수고등학교를 다닌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20.6%가 일반학교를 15.9%가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을 다니거나 다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은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가 74.9%로 조사되었다.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간장애로 61.9%를 차지하였다.

〈표 5-1-6〉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2	0.2	0.0	0.2	0.1	0.7	2.0	0.0	0.1	0.9	0.0	0.3	1.4	0.7	2.1	0.2
일반학교 중퇴	3.2	3.5	1.9	1.9	0.7	2.1	1.1	7.1	2.3	2.1	4.0	4.0	4.8	2.8	5.3	3.0
일반학교 졸업	31.5	26.0	31.2	21.0	37.6	16.5	17.5	49.8	47.2	32.0	26.7	57.6	54.6	29.4	48.3	30.4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0	0.0	0.0	0.0	0.3	3.9	10.7	0.0	0.0	0.0	0.0	0.0	0.0	0.0	0.1	0.2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중퇴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졸업	0.0	0.0	0.0	0.0	0.8	3.6	5.2	0.0	0.0	0.0	0.0	0.0	0.0	0.0	0.0	0.2
특수학교 재학	0.0	0.1	0.0	0.0	0.0	3.4	18.2	0.2	0.1	0.0	0.0	0.0	0.0	0.0	0.0	0.2
특수학교 중퇴	0.0	0.0	0.0	0.0	0.0	0.8	1.3	0.0	0.0	0.0	0.0	0.0	0.0	0.0	0.0	0.1
특수학교 졸업	0.1	0.8	0.9	1.9	1.7	12.3	25.9	0.0	0.0	0.0	0.0	0.0	0.0	0.0	0.3	1.1
검정고시 다니지않음	0.5	0.2	0.2	0.0	0.3	0.0	0.0	1.4	0.0	0.0	0.2	0.0	0.0	0.0	0.7	0.4
계	64.5	69.3	65.8	74.9	58.5	56.5	18.0	41.4	50.3	65.1	69.1	38.1	39.3	67.2	43.2	64.2
전국총정수	1,124,524	211,233	216,058	203,066	13,975	102,766	3,447	84,698	48,186	13,733	14,393	6,250	2,040	11,280	8,630	2,064,279

장애인 중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다니지 않은 이유는 전체의 75.0%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응답에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0.7%), ‘다니기 싫어서’(4.9%), ‘심한 장애로’(4.8%)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의 조사결과(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1.4%,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10.9%, 본인의 장애 때문에 8.7%, 다니기 싫어서 3.7%)와 비슷했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85.0%로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자폐성장애는 ‘심한 장애 때문에’(75.2%), 장루·요루장애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3.5%)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1-7〉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심한 장애로 인해서	2.3	3.3	1.3	5.6	10.0	39.0	75.2	12.5	3.7	2.6	0.8	0.0	5.1	1.1	22.2	4.8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11.5	10.8	8.9	11.3	5.8	7.4	0.0	7.6	9.2	8.9	5.8	9.1	2.3	13.5	4.4	10.7
다니기 싫어서	4.1	2.3	7.4	5.0	5.7	10.3	10.1	12.8	4.0	2.9	3.7	4.6	8.3	3.5	8.5	4.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9.0	79.0	77.8	70.4	70.3	31.0	6.8	56.0	81.4	79.8	85.0	83.4	67.7	78.6	49.6	75.0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0	1.6	1.0	3.5	4.7	1.5	0.0	1.9	0.1	3.1	3.1	2.8	2.2	2.0	0.0	1.4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0	0.0	0.1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0.8	0.8	0.6	0.8	1.1	6.1	0.0	3.0	0.1	0.0	0.0	0.0	10.2	0.0	9.0	1.1
기타	1.3	2.3	3.0	3.3	2.3	4.6	7.9	5.9	1.5	2.7	1.7	0.0	4.2	1.3	6.2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총정수	761,713	155,193	147,116	156,433	8,380	62,882	1,162	41,208	25,407	9,262	10,577	2,633	914	7,891	4,217	1,394,988

결혼연령 비대상자(남자 만 17세 이하, 여자 만 15세 이하)를 제외한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 64.1%, 사별 15.9%, 미혼 13.3%, 이혼 5.6%, 별거 1.1%의 순으로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유배우 61.9%, 사별 17.0%, 미혼 13.7%, 이혼 6.0%, 별거 1.4%)와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기혼율이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미혼의 비율이 97.0%로 가장 높았고, 반면, 간장애(80.9%), 장루·요루장애(74.0%), 심장장애(71.9%), 지체장애(71.0%), 호흡기장애(70.0%)는 유배우의 비율이 높았다.

〈표 5-1-8〉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미혼	8.9	9.2	4.1	5.1	20.0	72.7	97.0	54.3	13.6	5.5	5.5	5.9	34.8	2.4	40.0	13.3
유배우	71.0	66.8	62.5	65.4	60.5	17.2	1.6	19.2	67.6	71.9	70.0	80.9	46.3	74.0	37.2	64.1
사별	15.6	16.8	22.5	23.7	11.2	5.2	0.0	5.3	6.1	15.8	12.8	3.6	10.9	17.2	5.7	15.9
이혼	3.7	6.1	9.0	5.0	7.3	4.4	0.0	19.0	11.0	5.2	10.2	8.8	6.8	5.8	15.7	5.6
별거	0.9	1.0	1.9	0.8	0.9	0.6	1.3	2.3	1.8	1.5	1.5	0.8	1.2	0.5	1.4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4,249	211,917	216,092	203,040	13,987	98,684	2,767	84,552	48,131	13,644	14,392	6,229	2,041	11,242	8,579	2,059,546

학생·재수생, 주부, 무직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2005년의 조사결과(단순노무직 27.6%, 농·어업 19.0%,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12.3%)와 마찬가지로 주로 단순노무직(29.4%), 농·어업(23.5%), 판매종사자(11.8%), 서비스종사자(9.8%),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8.1%)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일반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사무종사자 14.3%, 서비스 종사자 12.5%, 단순노무직 11.7%, 판매종사자 11.3%의 비율이 높았다.

〈표 5-1-9〉 경제활동분야(직종)

(단위: %)

구분	의회의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기능원·관련기 능 근로자	장차·기계 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
비율	1.1	2.0	2.9	4.2	9.8	11.8	23.5	8.1	7.2	29.4	100.0
2005년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0
전국 비율 ¹⁾	2.3	8.8	11.2	14.3	12.5	11.3	6.7	10.2	11.0	11.7	100.0

자료: 1) 통계청, 『2007년 경제활동인구연보(4/4분기)』, 2008. 5.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는 78.2%, 의료급여대상자는 21.3%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5년의 조사결과(직장건강보험 43.1%, 지역건강보험 38.5%, 의료급여1종 12.2%, 의료급여2종 5.8%, 미가입 0.4%)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85.2%), 장루·요루장애(84.8%), 자폐성장애(84.3%), 지체장애(83.8%)가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68.9%)와 지적장애(46.0%)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10〉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장건강보험	46.2	49.7	43.6	54.2	43.5	35.4	56.1	13.6	38.7	50.4	44.2	47.6	42.4	52.8	24.3	44.9
지역건강보험	37.4	27.5	38.3	31.0	33.1	18.7	28.2	17.4	26.8	29.7	31.0	25.2	35.1	32.0	24.5	33.3
의료급여1종	10.9	15.0	13.9	11.3	15.7	35.1	9.1	59.3	25.9	14.1	17.9	14.9	16.8	11.1	36.6	15.7
의료급여2종	5.2	6.4	3.8	2.8	6.3	10.9	6.5	9.6	7.9	4.7	6.7	11.4	5.8	2.0	14.7	5.6
기타	0.3	1.4	0.4	0.6	1.3	0.0	0.1	0.1	0.7	1.1	0.2	1.0	0.0	2.1	0.0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조사대상 장애인 중 18.3%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로 2005년의 조사결과(일반수급가구 1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와 의료·교육·자활특례는 모두 0.4%로 미미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66.4%), 간질장애(48.7%), 지적장애(43.5%)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표 5-1-1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아니오	86.0	81.3	83.7	87.5	78.4	56.5	85.7	33.7	74.2	85.2	79.0	81.4	79.1	89.0	51.3	80.9
일반수급가구	13.5	17.6	15.5	11.9	20.9	42.4	13.0	64.5	22.4	13.7	19.7	15.5	20.3	10.7	44.5	18.3
조건부수급가구	0.5	0.2	0.2	0.2	0.4	0.6	0.5	0.5	0.1	0.6	0.2	1.0	0.0	0.2	1.0	0.4
의료·교육·자 활특례	0.0	0.9	0.7	0.4	0.4	0.5	0.9	1.4	3.3	0.5	1.1	2.2	0.5	0.0	3.2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2008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시기를 1988~1992년, 1993~1997년, 1998~2002년, 2003~2008 등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1992년은 전체의 4.8%만이 등록을 하였으며, 1993~1997년은 전체의 5.5%, 1998~2002년은 전체의 31.1%, 2003~2008년은 전체의 58.6%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계속해서 장애인의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제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범주 확대시기와도 연관되고 있다. 즉, 1988년의 장애등록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심으로 장애등록 정도가 높았는데, 2000년에 10개로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신규로 확대된 해당 장애범주의 장애유형의 등록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2003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장애등록 정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2003년 신규 확대된 장애유형에서의 장애등록정도가 다른 장애유형에서의 경우보다 매우 높았다.

〈표 5-1-12〉 장애등록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988년~1992년	5.9	1.1	4.4	5.0	7.9	8.9	0.4	0.0	0.0	0.0	0.0	0.0	0.0	0.0	0.0	4.8
1993년~1997년	6.9	2.7	3.1	4.2	5.4	11.2	2.4	0.0	0.0	0.0	0.0	0.0	0.0	0.0	0.0	5.5
1998년~2002년	31.9	28.6	36.6	28.0	34.9	33.5	23.4	28.6	39.5	30.3	0.0	0.0	0.0	0.0	0.0	31.1
2003년~2008년	55.3	67.7	55.9	62.7	51.8	46.4	73.9	71.4	60.5	69.7	100.0	100.0	100.0	100.0	100.0	5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등록한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9.4%, 2급이 16.5%, 3급이 17.4%, 4급이 14.2%, 5급이 19.5%, 6급이 23.0%였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1, 2급 장애인은 전체의 1/4인 수준인 25.9%로, 2005년의 26.1%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중증(1~2급) 등록장애 비율은 신장장애(83.5%)와 자폐성장애(82.5%)가, 중등(3~4급) 등록장애비율은 언어장애(89.9%), 안면장애(79.3%), 간질장애(86.5%)가, 그리고 경증(5~6급) 등록장애비율은 시각장애(71.2%)와 지체장애(55.9%)가 가장 높았다.

〈표 5-1-13〉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3.6	26.5	14.3	2.7	0.6	29.6	41.9	13.8	4.9	6.7	18.8	13.8	3.6	0.2	2.0	9.4
2급	7.4	28.5	3.8	22.3	9.5	38.7	40.6	49.2	78.6	29.2	26.8	18.3	17.2	1.9	11.5	16.5
3급	14.2	24.3	5.7	18.3	43.4	31.7	17.5	37.1	0.2	62.2	54.4	21.7	35.1	8.5	32.0	17.4
4급	18.9	9.4	5.1	19.7	46.5	0.0	0.0	0.0	0.6	0.0	0.0	0.8	44.2	39.5	54.5	14.2
5급	28.6	6.7	8.5	20.8	0.0	0.0	0.0	0.0	15.8	1.9	0.0	45.4	0.0	49.8	0.0	19.5
6급	27.3	4.6	62.7	16.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가구의 총가구원수 분포에 있어서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장애인의 약 3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4인 가구 19.8%, 3인 가구가 19.6%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3.0명으로 2005년의 3.1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4〉 장애인가구의 총 가구원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인 가구	13.5	13.4	17.9	14.8	14.9	14.2	4.1	33.2	10.7	12.6	14.5	4.7	19.2	12.8	16.5	14.8
2인 가구	32.9	33.7	31.9	36.2	25.7	13.2	3.6	19.5	35.0	37.9	44.4	22.2	23.5	46.1	26.1	31.3
3인 가구	18.9	19.7	16.5	20.9	26.3	21.8	11.4	25.9	23.2	19.3	19.0	28.1	23.1	17.4	29.5	19.6
4인 가구	20.1	17.2	19.5	15.5	22.4	31.3	59.4	14.0	16.7	17.1	10.2	31.8	21.0	12.3	18.2	19.8
5인 가구	8.9	10.9	8.6	7.5	7.1	12.2	16.8	5.4	8.2	6.6	7.8	9.9	9.6	7.1	5.9	9.0
6인 가구	4.2	4.0	5.0	4.4	2.1	5.0	4.8	1.3	3.3	4.7	3.2	2.3	2.9	2.9	2.5	4.2
7인 이상	1.4	1.3	0.5	0.6	1.5	2.2	0.0	0.8	2.9	1.9	0.9	1.1	0.8	1.4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평균 가구원수	3.0	3.0	2.9	2.8	2.9	3.4	4.0	2.5	3.0	2.9	2.7	3.3	2.9	2.7	2.8	3.0

장애인가구 중 총 장애인수 분포에 있어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장애인의 약 8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인 가구 13.7%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 평균 장애인수는 1.2명이었다.

〈표 5-1-15〉 장애인가구의 총 장애인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인	84.7	91.1	87.3	84.6	82.1	75.6	87.7	85.8	88.7	88.7	89.4	94.6	91.3	92.7	84.0	85.3
2인	14.5	8.4	12.1	14.2	15.4	20.6	11.3	12.8	10.9	10.1	9.7	5.0	8.0	7.2	14.5	13.7
3인	0.8	0.5	0.6	0.9	2.1	2.5	1.0	1.4	0.2	0.9	0.8	0.4	0.8	0.0	1.0	0.9
4인	0.0	0.0	0.0	0.2	0.4	1.0	0.0	0.0	0.2	0.2	0.0	0.0	0.0	0.1	0.5	0.1
5인	0.0	0.0	0.0	0.1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평균 장애인수	1.2	1.1	1.1	1.2	1.2	1.3	1.1	1.2	1.1	1.1	1.1	1.1	1.1	1.1	1.2	1.2

2008년 조사대상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은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31.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 24.3%, 장애인 1인 가구 14.8%의 순으로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표 5-1-16〉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8년	
	구성비	전국추정수	구성비	전국추정수
부부	11.0	214,669	24.3	518,466
기타 1세대(형제·자매 등)	22.4	434,739	0.6	13,591
부부 + 미혼자녀	1.2	22,384	31.0	662,436
부부 + 기혼자녀	33.4	649,647	0.9	18,500
편부 + 미혼자녀	0.6	11,027	1.5	32,569
편모 + 미혼자녀	2.1	39,886	5.8	124,727
부부 + 양친	6.1	118,125	0.4	8,545
부부 + 편부모	0.1	2,265	2.3	48,499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2.3	44,480	0.6	12,224
조부모 + 손자녀	0.6	10,745	1.4	29,499
기타 2세대	1.6	30,671	1.9	40,889
부부 + 자녀(미혼·기혼) + 양친	2.7	51,809	3.2	67,577
부부 + 자녀(미혼·기혼) + 편부모	2.7	52,582	5.7	122,835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7.5	146,239	5.5	117,593
1인 가구	5.5	107,522	14.8	316,099
비혈연가구	0.4	8,001	0.1	3,177
계	100.0	1,944,791	100.0	2,137,226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는 장애인 본인의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21.8%), 자녀(10.1%), 아버지(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장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신장장애는 배우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는 자녀가 가구주인 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장애는 아버지가 가구주인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다.

〈표 5-1-17〉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본인	60.7	41.2	62.0	54.9	48.7	20.3	4.2	41.7	44.0	45.3	65.4	51.3	57.4	59.4	38.7	53.9
배우자	23.8	25.6	17.8	22.0	21.2	7.0	0.4	14.3	33.2	29.8	17.0	30.5	17.1	25.6	20.7	21.8
자녀	8.0	21.2	14.7	14.8	9.3	0.7	0.2	2.5	10.8	13.9	12.6	8.0	0.9	11.1	4.7	10.1
자녀의 배우자	0.4	1.9	1.3	2.4	0.5	0.0	0.0	0.4	0.1	0.9	1.6	0.8	1.9	1.2	0.0	0.8
아버지	4.1	6.9	2.3	4.2	13.7	50.9	85.0	22.0	4.6	7.6	0.8	5.2	12.4	1.5	18.8	8.6
어머니	1.4	2.1	0.4	1.1	3.4	13.6	6.9	11.6	3.2	1.8	0.8	2.7	5.9	0.4	10.2	2.6
형제자매	0.9	0.9	0.7	0.3	2.6	5.4	0.1	6.1	2.9	0.6	0.4	1.1	2.1	0.3	5.2	1.4
조부모	0.0	0.0	0.6	0.1	0.0	1.2	2.2	0.0	0.0	0.0	0.0	0.0	0.9	0.0	0.5	0.2
손자녀	0.3	0.2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0.0	0.2
배우자의 부모	0.1	0.0	0.0	0.0	0.0	0.5	0.0	0.2	0.0	0.0	0.3	0.0	1.5	0.1	0.4	0.1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2	0.1	0.0	0.0	0.6	0.5	1.0	1.1	1.2	0.1	1.0	0.4	0.0	0.0	0.7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9,156	220,060	207,385	15,102	140,078	12,328	84,781	48,284	14,605	14,393	6,515	2,185	11,354	8,880	2,137,223

제2절 장애특성

1. 지체장애

가. 장애부위

지체장애의 장애부위는 <표 5-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지의 장애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척추 24.3%, 상지 21.0%, 상·하지 5.7%, 척추+상·하지의 장애 1.3%, 왜소증 0.4%의 순으로, 2005년의 조사에 비해 하지와 척추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하지 한쪽(36.1%)과 상지 한쪽

(26.2%)이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척추(31.5%)의 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지 장애에 있어서도 양쪽이 불편한 비율이 21.0%로 다소 높게 나타나 성별로도 지체장애의 부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1〉 지체장애의 장애부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상지	상지 한 쪽	26.2	9.6	19.3
	상지 양 쪽	1.9	1.4	1.7
하지	하지 한 쪽	36.1	28.5	32.9
	하지 양 쪽	9.6	21.0	14.3
상하지	상하지 한 쪽	3.5	3.8	3.6
	상하지 양 쪽	1.6	2.2	1.8
	상지 한 쪽+하지 양 쪽	0.2	0.2	0.2
	상지 양 쪽+하지 한 쪽	0.0	0.3	0.1
척추		19.2	31.5	24.3
척추 + 상하지	척추+상지 한 쪽	0.3	0.0	0.2
	척추+하지 한 쪽	0.3	0.3	0.3
	척추+하지 양 쪽	0.4	0.5	0.4
	척추+상하지 양 쪽	0.5	0.3	0.4
왜소증		0.3	0.5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4,452	485,016	1,169,468

지체장애의 장애형태를 절단, 마비, 관절, 변형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2-1-2>과 같다. 지체장애의 장애형태는 관절이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마비 18.8%, 절단 13.3%, 변형 7.0%의 순이었다. 2005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관절이 3.6% 포인트, 마비가 0.5% 포인트 높아진 반면, 절단과 변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성별로도 남자 및 여자 모두 관절이 각각 53.0%, 72.0%로 가장 많았다.

〈표 5-2-1-2〉 지체장애의 장애형태(1)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절단	19.5	4.7	13.3
마비	21.6	14.8	18.8
관절	53.0	72.0	60.9
변형	5.9	8.5	7.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4,453	485,017	1,169,470

지체장애의 4가지 형태를 손상부위별로 <표 5-2-1-3>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단은 손목 미만이 절단된 경우가 1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비는 하지 한쪽이나 하지 양쪽의 마비가 많아 2005년의 조사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관절은 척추(22.7%), 무릎(18.4%), 고관절(11.1%) 등에서 장애가 많았으며, 2005년에 비해 척추(디스크)와 고관절의 장애가 증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형의 경우에는 하지변형과 상지변형 등이 있었으며, 왜소증은 0.4%, 상하지 변형은 0.2%를 차지하고 있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1-3〉 지체장애의 장애형태(2): 손상부위별

(단위: %, 명)

구분	손상부위	남자	여자	전체
절단	팔꿈치 이상	0.8	0.2	0.5
	팔꿈치 미만~손목	1.5	0.1	0.9
	손목 미만(손등, 손가락)	14.5	4.0	10.1
	무릎 이상	0.5	0.0	0.3
	무릎 미만~발목	0.9	0.5	0.7
	발목 미만	0.7	0.0	0.4
	양 쪽 발가락	0.7	0.0	0.4
마비	상지한 쪽	4.2	0.5	2.7
	상지양 쪽	0.3	0.3	0.3
	하지 한 쪽	8.4	6.9	7.8
	하지 양 쪽	4.2	2.4	3.5
	상하지 한 쪽	2.7	2.8	2.7
	상하지 양 쪽	1.1	0.9	1.0
	전신(전신마비)	0.7	1.0	0.9

〈표 5-2-1-3〉 계속

(단위: %, 명)

구분	손상부위	남자	여자	전체
관절	어깨	1.4	1.6	1.5
	팔꿈치	1.5	2.0	1.7
	손목	0.7	0.7	0.7
	손가락	2.5	0.3	1.6
	고관절(엉덩이)	9.7	13.1	11.1
	무릎	15.4	22.6	18.4
	발목	4.1	1.9	3.2
	척추(디스크)	17.7	29.7	22.7
변형	척추후만증(굽추)	0.3	1.0	0.6
	척추측만증	0.9	0.9	0.9
	하지길이 단축(5cm이상)	1.1	1.3	1.2
	상지변형	1.6	1.8	1.7
	하지변형	1.6	2.8	2.1
	상하지 변형	0.1	0.3	0.2
	왜소증(난쟁이)	0.3	0.5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4,456	485,017	1,169,473

나. 장애발생시기

지체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5-2-1-4>와 같이 거의 대부분 만 1세 이후인 돌 이후에 발생되고 있어 지체장애의 특성상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돌 이후에 발생하는 지체장애의 발생시기를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2-1-5>과 같다.

〈표 5-2-1-4〉 지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3	2.0	1.6
돌 이전	0.6	1.5	1.0
돌 이후	98.1	96.5	97.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4,452	485,016	1,169,468

지체장애의 돌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는 <표 5-2-1-5>와 같이 대체로 20대 이후에 다소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성별 장애발생시기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30대~50대의 발생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비해서, 여자는 40대 이후에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에는 남자에 비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활발한 사회활동 중 장애를 갖게 되는데 비해서, 여자는 평균수명의 차이 등 고령과 관련된 지체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2-1-5>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4.7	7.3	5.8
만 5~9세	1.9	2.6	2.2
만 10~19세	9.4	2.0	6.4
만 20~29세	12.6	6.2	10.0
만 30~39세	18.2	9.1	14.5
만 40~49세	19.4	13.5	17.0
만 50~59세	16.2	20.6	18.0
만 60~69세	13.9	26.6	19.1
만 70세 이상	3.7	12.1	7.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71,437	467,898	1,139,335

다. 장애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5-2-1-6>과 같다. 전체 지체장애의 96.7%가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원인불명의 지체장애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조사들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2-1-6〉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4	2.8	2.5
출생시 원인	0.1	0.4	0.2
후천적 원인	질환	65.8	46.0
	사고	30.3	50.7
원인불명	0.4	0.7	0.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4,453	485,017	1,169,470

지체장애의 후천적 원인만을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표 5-2-1-7>와 같다. 질환이 47.5%, 사고가 52.5%로서 각종 사고가 지체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2005년의 조사(질환 39.7%, 사고 60.4%)와 비교하여 질환이 약 7.8% 포인트 늘어난 반면, 사고는 7.9% 포인트 줄어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등의 감소와 함께 만성질환이나 고령화 등에 의한 지체장애의 발생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질환에 의한 원인 중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는 1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질환이 32.8%인데 비해, 여자는 질환에 의해 지체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68.6%로 여자가 35.8% 포인트나 높아서 성별로 지체장애의 원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고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67.2%로 여자 31.4%에 비해 35.8% 포인트 높아 남자는 사고에 의해 지체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산업재해의 원인이 사고뿐만 아니라 질환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지를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비해당(63.1%)을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남자 14.1%, 여자 1.0%)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28.2%)보다 낮았다.

〈표 5-2-1-7〉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환	신경계 질환	2.0	0.8	1.5
		심혈관질환	1.3	2.8	1.9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7	0.5	0.6
		근골격계 질환	22.8	54.1	35.7
		신생물(종양)질환	0.4	1.2	0.7
		중독성질환	0.0	0.0	0.0
		감염성질환	5.2	8.6	6.6
		미상	0.4	0.6	0.5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0.1	0.2	0.2
		가정내 사고	4.6	5.6	5.0
		교통사고(탑승자)	12.6	7.7	10.6
		교통사고(보행자)	10.0	5.0	7.9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3.2	1.2	2.4
		화상	1.2	1.5	1.3
		약물 사고	0.4	0.0	0.2
		기타 사고 및 외상	35.0	10.2	24.8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4,546	466,021	1,130,567	

라. 장애의 주된 진단명

지체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주된 진단명에 따라서 분류하면, 주된 질환으로는 전체적으로 근골격질환(33.6%)이 가장 많았고, 골절(18.5%), 절단(13.5%), 관절염(12.6%) 등의 순이었다.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기타 질환으로는 사고에 의한 신경손상이나 마비, 인대손상, 변형 등의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었다. 이 결과를 200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절단, 골절, 소아마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근골격질환이나 관절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골절과 절단이 여자에 비해 많고, 여자의 경우는 근골격질환과 관절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표 5-2-1-8> 참조).

〈표 5-2-1-8〉 지체장애의 주된 진단명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소아마비	4.6	6.3	5.3
척수손상	2.0	0.9	1.6
관절염	5.6	22.4	12.6
종양(암)	0.2	1.2	0.6
절단	19.5	4.9	13.5
신경근육질환	4.9	1.3	3.4
근골격질환	28.5	40.7	33.6
골절	21.8	13.9	18.5
미상	1.2	2.1	1.6
기타	11.6	6.2	9.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4,451	485,016	1,169,467

2. 뇌병변장애

가. 장애부위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를 <표 5-2-2-1>에서 알아보면 장애의 특성상 상·하지에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어 하지의 장애가 많았던 지체장애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2.8%로 하지에 장애가 있는 비율 8.4%보다 적었으며,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하지 한쪽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뇌병변장애의 주된 진단명인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인 편마비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뇌졸중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운동장애와 함께 감각장애, 인지·언어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 5-2-2-1〉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상지	상지 한 쪽	2.9	1.0	2.2
	상지 양 쪽	0.2	1.2	0.6
하지	하지 한 쪽	4.7	3.4	4.2
	하지 양 쪽	3.6	5.1	4.2
상 하 지	상하지 한 쪽	77.4	73.5	75.8
	상하지 양 쪽	7.4	11.6	9.1
	상지 한 쪽+하지 양 쪽	0.9	1.5	1.2
	상지 양 쪽+하지 한 쪽	0.7	0.5	0.6
척추		0.5	0.7	0.6
척 추 + 상 하 지	척추+상지 한 쪽	0.0	0.1	0.1
	척추+하지 한 쪽	0.0	0.3	0.1
	척추+하지 양 쪽	0.0	0.4	0.2
	척추+상하지 한 쪽	0.0	0.2	0.1
	척추+상하지 양 쪽	1.4	0.4	1.0
왜소증		0.4	0.0	0.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4,986	90,578	225,564

나. 동반증상 및 동반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동반증상이나 동반장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5-2-2-2> 및 <표 5-2-2-3>와 같다. 뇌병변장애의 동반증상으로는 경직·불수의운동이 71.4%로 가장 많았고, 관절구축이 46.7%, 배변장애를 갖는 경우도 31.3%로 대부분 경직·불수의운동과 관절구축이 가장 많은 동반증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2-2-2〉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직·불수의운동	72.1	70.3	71.4
관절구축	46.7	46.8	46.7
배변장애	26.9	37.4	31.1
기타	34.7	38.2	36.1

뇌병변장애의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50.4%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 40.7%, 시각장애 22.9%, 청각장애 15.8%, 간질장애 15.1%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동반장애를 갖는 비율이 높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동반장애로는 식물인간이 있었다.

〈표 5-2-2-3〉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시각장애	24.1	21.1	22.9
청각장애	17.4	13.5	15.8
언어장애	52.3	47.5	50.4
지적장애	41.9	38.8	40.7
간질장애(경기)	13.7	17.4	15.1
기타	3.5	7.4	5.0

다. 장애발생시기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뇌성마비와 뇌졸중 등 세부 장애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표 5-2-2-4>에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장애발생시기가 거의 대부분 만 1세 이후인 돌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돌 이후 장애발생이 높아 거의 동일하나, 남자의 경우 뇌성마비로 인한 돌 이전 장애발생이 13.4%로 다소 높게 나와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5-2-2-4〉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3	2.9	1.4
돌 이전	13.4	0.5	1.0
돌 이후	98.3	96.6	97.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4,986	90,578	225,564

뇌병변장애의 돌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는 <표 5-2-2-5>와 같이 대체로 남녀 모두 40대 이후 장년층에서 다소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뇌병변장애 중 뇌졸중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이 두드러진 것과 관련지어 대표적인 고령에 의한 장애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 4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6%인데 여기에는 뇌성마비와 같이 주로 유아기에서 발생하는 장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는 세부 장애형태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2-2-5>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2.4	5.5	3.6
만 5~9세	2.5	2.0	2.3
만 10~19세	2.3	0.6	1.6
만 20~29세	2.7	1.3	2.1
만 30~39세	4.0	3.3	3.7
만 40~49세	15.8	19.1	17.1
만 50~59세	31.0	25.0	28.6
만 60~69세	29.5	29.9	29.7
만 70세 이상	9.8	13.2	11.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658	87,473	220,131

라. 장애원인

뇌병변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5-2-2-6>과 같다. 전체 뇌병변장애의 95.3%가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원인불명의 뇌병변장애는 매우 적었다. 후천적 원인 중에는 질환이 86.4%로 장애발생 시기와 연관을 지어 볼 수 있으며,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 후천적 원인이 0.2% 포인트 높아졌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사고가 많고 여자가 질환이 많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2-2-6〉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0.7	4.9	2.4	
출생시 원인	1.7	1.9	1.8	
후천적 원인	질환	85.6	87.5	86.4
	사고	11.1	5.7	8.9
원인불명	0.9	0.0	0.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4,988	90,577	225,565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원인만을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표 5-2-2-7>와 같다. 질환이 90.7%, 사고가 9.3%로서 압도적으로 각종 질환이 뇌병변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2005년의 조사(질환 87.0%, 사고 13.3%)와 비교하여 질환이 약 3.7% 포인트 늘어난 반면, 사고는 4.0% 포인트 줄어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질환 가운데서 심혈관질환이 76.5%로 가장 많은데, 이는 뇌병변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졸중(76.9%)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5년의 조사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비율은 약 2.5% 포인트 높아져 뇌졸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 질환이 8.5%로 뇌성마비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고 등에 의한 장애(뇌손상 등)는 교통사고가 6.0%, 기타 사고나 외상이 2.8%였으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각종 질환(후천적 원인 중 93.9%)에 의한 장애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자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산업재해의 원인이 사고뿐만 아니라 질환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지를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비 해당(75.9%)을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남자 7.5%, 여자 0.6%)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19.3%)보다 낮았다.

〈표 5-2-2-7〉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7.8	9.6	8.5
		심혈관질환	74.4	79.7	76.5
		소화기계질환	0.0	0.0	0.0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2.3	0.9	1.7
		근골격계 질환	0.3	0.0	0.2
		신생물(종양)질환	1.2	1.9	1.5
		감염성질환	1.3	1.2	1.3
		미상	1.0	0.6	0.9
		기타	0.1	0.0	0.1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0.5	0.0	0.3
		가정내 사고	0.1	0.0	0.1
		교통사고(탑승자)	3.1	1.7	2.5
		교통사고(보행자)	3.6	3.3	3.5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0	0.1	0.0
		기타 사고 및 외상	3.9	1.0	2.8
		전상	0.3	0.0	0.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0,570	84,444	215,014

라. 장애의 주된 진단명

뇌병변장애의 발생원인을 응답자의 연령별로 주된 진단명에 따라서 분류하면, <표 5-2-2-8>과 같다. 진단명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장애라 할 수 있는 뇌졸중이 76.9%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뇌병변장애로는 뇌손상이 8.0%, 뇌성마비가 5.7%로 2005년에 비해 뇌졸중은 3.9% 포인트 증가한 반면, 뇌손상과 뇌성마비는 각각 3.8%, 2.6%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과 마찬가지로 뇌병변장애의 주된 진단명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를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까지는 뇌병변장애중 뇌성마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4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뇌졸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60세~70세 이상의 경우 85% 이상이 뇌졸중으로 드러나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뇌병변장애의 질환으로는 파킨슨씨병, 소뇌실조증이나 소뇌위축증 등이 조사되었다.

〈표 5-2-2-8〉 뇌병변장애의 주된 진단명: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뇌성마비	57.8	35.5	20.6	45.6	14.8	2.3	0.0	0.4	5.7
뇌졸중	2.4	21.7	9.9	21.9	58.2	79.2	89.7	85.3	76.9
뇌손상	19.0	13.0	39.6	19.5	8.1	9.3	5.4	6.2	8.0
뇌막염	0.0	4.6	0.0	2.6	2.9	0.1	0.3	0.0	0.6
뇌종양(암)	0.0	0.0	0.0	0.0	7.9	1.9	0.2	1.2	1.5
미상	12.3	0.0	14.4	5.0	0.4	1.5	0.0	1.6	1.4
기타	8.4	25.3	15.5	5.4	7.7	5.7	4.4	5.4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59	5,666	2,968	8,407	18,470	43,819	70,960	71,313	225,562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장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생장소와 출산방법을 조사하였다. 먼저 뇌성마비장애의 출생장소를 알아본 결과 <표 5-2-2-9>와 같이 병원이 자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51.7%, 자택이 44.4%이며 조산원은 3.9%로서 2005년 조사와 비교하여 자택이 3.7% 포인트 줄고,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3.0%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임산부가 병원 등 전문 의료시설에서의 분만을 99% 이상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뇌성마비장애인의 조사대상 사례수나 연령분포(응답자가 주로 30대 45.6%, 20대 미만 44.7%, 20대 20.6%, 40대 14.8%)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인과는 출생장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2-9〉 뇌성마비장애의 출생장소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종합병원	30.8	19.6	23.8
병·의원	24.3	30.0	27.9
조산원	0.0	6.3	3.9
자택	44.9	44.1	44.4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96	7,959	12,755

다음으로는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 <표 5-2-2-10>에 나타나 있듯이 자연분만이 82.8%, 제왕절개가 17.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연분만의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출생장소로 자택이 많은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자연분만이 0.4% 약간 증가했다.

〈표 5-2-2-10〉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자연분만	86.8	80.4	82.8
제왕절개	13.2	19.6	17.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97	7,959	12,756

3. 시각장애

가. 시각장애 형태

시각장애의 장애형태를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의 96.8%가 시력장애, 3.2%가 시야결손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절대적으로 시력장애가 95% 이상으로 많았는데, 특히 여자의 시력장애 상태인 경우가 98.3%로 전체 평균인 96.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1〉 시각장애 형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시력장애	95.7	98.3	96.8
시야결손장애	4.3	1.7	3.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1,453	101,792	233,245

나. 시력 인지여부

시각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본인의 시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본인의 시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6%,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64.4%로 시각장애인들은 본인의 시력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시력을 알고 있었던 비율이 58.7%였던 것과 비교할 때 더 낮아진 것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시력을 알고 있는지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48.0%가, 여자는 20.0%가 자신의 시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에 비해 남자의 시력인지정도가 2배 이상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별로 시력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표 5-2-3-2〉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안다	48.0	20.0	35.6
모른다	52.0	80.0	64.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811	100,048	225,859

다. 점자해독 가능여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해독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의 96.6%가 불가능하였고, 2.4%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하였다. 그 외 현재 점자해독을 배우는 중인 경우는 1.0%였다. 이를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점자해독 가능여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점자해독 불가능 비율이 96.6%로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점자해독을 배우는 경우는 0.7%로 2008년이 0.3%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 가능정도가 낮은 이유는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자인 경우 목자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전맹 등의 경우에는 점자습득이 필요하나 학습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5% 이상으로 모두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여자의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97.7%로 남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2-3-3〉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가능하다	2.7	1.9	2.4
불가능하다	95.8	97.7	96.6
배우는 중이다	1.4	0.4	1.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811	100,049	225,860

라. 장애발생시기

시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출생전 또는 출생시, 돌 이전, 돌 이후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돌 이후가 98.0%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는 0.4%,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실태조사에서 돌 이후 시각장애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로 2008년에 약 3% 포인트 정도 더 증가하였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돌 이후 시각장애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남자의 발생비율이 더 높았고, 돌 이전 발생비율은 여자가 더 높았다.

〈표 5-2-3-4〉 시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1	0.7	0.4
돌 이전	1.4	2.0	1.7
돌 이후	98.5	97.3	98.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1,453	101,792	233,245

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발생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율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40세 이후 6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50% 이상 시각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50대 이전까지의 발생률이 여자에 비해 더 높았던 것에 반해, 여자는 60대 이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남자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남녀 모두 발생 감소경향을 보였다.

〈표 5-2-3-5〉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2.7	1.1	2.0
만 5~9세	2.3	6.6	4.2
만 10~19세	8.6	4.6	6.9
만 20~29세	11.3	7.9	9.8
만 30~39세	12.0	6.8	9.8
만 40~49세	15.5	15.5	15.5
만 50~59세	23.0	19.7	21.6
만 60~69세	17.1	25.6	20.8
만 70세 이상	7.4	12.2	9.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466	99,047	228,513

마. 장애원인

시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93.2%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58.0%, 사고가 35.2%였다. 그리고 원인 불명이 3.7%, 선천적 원인이 2.8%, 출생시 원인이 0.3%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특히, 후천적 원인이 86.1%에서 7.1% 포인트 더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후천적 원인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더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출생시 원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가장 많은 후천적 원인의 경우 남자는 사고가 원인이 되어, 여자는 질환이 원인이 되어 시각장애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5-2-3-6〉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1	3.8	2.8
출생시 원인	0.2	0.4	0.3
후천적 원인	51.3	66.8	58.0
질환	45.6	21.8	35.2
사고	0.9	7.3	3.7
원인불명	0.9	7.3	3.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1,454	101,792	233,246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93.2%)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 원인불명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9.0%, 질환미상 4.2%의 순으로 많았다. 사고에 의한 경우는 기타사고 및 외상이 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내 사고가 5.2%,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4.4%,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가 3.8%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질환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의 경우도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2-3-7〉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 환			
	신경계질환	0.0	0.1	0.1
	감각기질환	33.9	55.3	42.8
	심혈관질환	2.0	1.4	1.8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9.5	8.4	9.0
	신생물(종양)질환	1.5	0.9	1.2
	중독성질환	0.0	0.1	0.1
	감염성질환	3.1	3.2	3.1
	미상	2.9	6.0	4.2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1.3	1.7	1.5
	가정내 사고	3.4	7.8	5.2
	교통사고(탑승자)	3.6	1.9	2.9
	교통사고(보행자)	1.4	0.2	0.9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5.5	2.9	4.4
	화상	0.4	0.0	0.2
	약물 사고	0.3	0.5	0.4
	기타 사고 및 외상	30.8	9.1	21.8
	전상	0.5	0.0	0.3
	미상	0.0	0.0	0.0
	기타	0.0	0.4	0.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7,320	90,150	217,470

4. 청각장애

가. 청각장애 형태

청각장애의 장애형태를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청력장애인 경우가 99.4%, 평형기능장애는 0.6%인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인의 대부분은 청력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청력장애가 99% 이상으로 동일하였다.

〈표 5-2-4-1〉 청각장애 형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청력장애	99.4	99.3	99.4
평형기능장애	0.6	0.7	0.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3,648	99,225	222,873

나. 보청기 사용여부

청각장애인들의 주된 장애인보조기구인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청각장애인의 57.1%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42.9%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55.3%로 더 많았던 것과 비교할 때 보청기 사용률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보청기 사용률이 약간 더 많았다.

〈표 5-2-4-2〉 보청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58.4	55.5	57.1
아니오	41.6	44.5	42.9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945	98,535	221,480

다. 의사소통방법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말’이었다. 즉, ‘말’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85.8%였고, 다음으로 ‘수화’ 5.6%, ‘구화’ 4.1%의 순이었다. 이를 2005년 결과와 비교할 때 ‘수화’(3.9%)와 ‘구화’(3.7%)의 비율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도 모두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85%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는 ‘수화’, ‘구화’의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수화’, ‘몸짓’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표 5-2-4-3〉 청각장애의 의사소통방법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화	5.3	5.9	5.6
구화(입모양)	4.5	3.7	4.1
필담(글로쓰기)	2.0	0.1	1.1
말	85.3	86.4	85.8
몸짓	2.9	3.9	3.3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945	98,534	221,479

청각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방법이 ‘수화’가 아닌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97.9%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수화를 ‘배우는 중’ 이거나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수화가능 정도가 더 높았다.

〈표 5-2-4-4〉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0.1	2.0	1.0
아니오	98.6	97.2	97.9
배우는 중임	1.3	0.8	1.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5,734	92,046	207,780

라. 장애발생시기

청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 이후가 94.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는 3.5%,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출생전 또는 출생시, 돌 이전 장애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돌 이후 장애발생률은 남자가 더 높았다.

〈표 5-2-4-5〉 청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3	3.8	3.5
돌 이전	1.1	2.2	1.6
돌 이후	95.6	94.0	94.9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3,648	99,224	222,872

청각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청각장애발생율이 매우 높았고, 70세 이상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장애 발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50대와 70세 이상에서, 남자의 경우는 60대의 연령대에 청각장애발생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50대 이후의 청각장애발생율이 60% 이상이 되고 있어 노령층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5-2-4-6〉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6.2	5.1	5.7
만 5~9세	2.5	2.1	2.3
만 10~19세	6.9	5.4	6.2
만 20~29세	4.5	3.7	4.2
만 30~39세	6.0	7.6	6.7
만 40~49세	14.2	9.1	12.0
만 50~59세	19.6	21.2	20.3
만 60~69세	24.2	20.6	22.6
만 70세 이상	15.8	25.1	19.9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8,245	93,248	211,493

마. 장애원인

청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87.2%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73.8%, 사고가 13.4%였다. 그리고 선천적 원인이 7.1%, 원인불명이 5.6%, 출생시 원인이 0.0%의 순이었다. 성별로도 모두 후천적 원인, 선천적 원인, 원인불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7〉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5.8	8.8	7.1
출생시 원인	0.1	0.0	0.0
후천적 원인	질환	73.9	73.7
	사고	14.8	11.7
원인불명	5.5	5.7	5.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9,224	99,224	222,871

청각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87.2%)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 원인불명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청각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염성 질환(32.1%), 미상(1.1%)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사고에 의한 경우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탐승자+보행자) 3.4%, 폭력에 의한 사고 3.1%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질환의 경우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표 5-2-4-8〉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 질환	0.2	0.0	0.1
		감각기 질환	47.2	51.6	49.1
		심혈관 질환	0.7	1.6	1.1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1	0.9	0.5
		신생물(종양) 질환	0.6	0.6	0.6
		중독성 질환	0.0	0.0	0.0
		감염성 질환	33.5	30.2	32.1
		미상	1.0	1.2	1.1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3.6	2.5	3.1
		가정내 사고	0.4	2.6	1.4
		교통사고(탑승자)	1.9	1.4	1.7
		교통사고(보행자)	2.2	1.1	1.7
		약물 사고	0.0	0.1	0.0
		기타 사고 및 외상	7.3	6.0	6.7
		전상	1.2	0.0	0.7
계	100.0	100.0	100.0		

5. 언어장애

가. 언어장애 형태

언어장애인의 장애형태는 말은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조음장애가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19.7%, 말더듬이 15.4%, 언어장애·실어증이 13.2%, 음성장애가 7.3%의 순이었다.

성별 언어장애의 형태를 보면, 남자의 경우 조음장애, 말더듬, 음성장애가 더 많았고, 여자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 언어장애·실어증이 더 많아 여자의 언어장애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5-2-5-1〉 언어장애의 장애형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	15.1	30.4	19.7
조음장애	48.3	35.2	44.3
말더듬	17.7	10.2	15.4
음성장애	7.5	7.0	7.3
언어장애, 실어증	11.4	17.2	13.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278	10,565	34,843

나. 의사소통방법

언어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말’이었다. 즉, 주로 ‘말’을 사용한다고 67.4%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몸짓’ 14.7%, ‘수화’ 6.1%, ‘구화’ 5.9%, 필담 5.7%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말이나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그 이외의 방법들은 여자의 사용 정도가 더 높았다.

〈표 5-2-5-2〉 언어장애의 의사소통방법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화	4.0	10.9	6.1
구화	3.2	12.0	5.9
필담	7.1	2.4	5.7
말	75.1	49.9	67.4
몸짓	10.5	24.3	14.7
기타	0.2	0.5	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280	10,565	34,845

언어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방법이 ‘수화’가 아닌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언어장애인들은 수화를 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언어장애인의 96.5%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수화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0.9% 수준이었다. 그 외 현재 배우는 중인 경우는 2.5%였다. 이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수화를 배우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08년에는 1.8% 포인트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수화가능하거나 현재 배우는 중인 경우가 더 높았다.

〈표 5-2-5-3〉 언어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0.9	1.2	0.9
아니오	97.4	94.1	96.5
배우는 중임	1.7	4.7	2.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161	8,741	31,902

다. 장애발생시기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 이후가 91.2%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는 5.6%,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돌 이후, 출생전 또는 출생시 장애발생률이 여자에 비해 더 높았고, 돌 이전 장애발생 비율은 여자가 더 높았다.

〈표 5-2-5-4〉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6.2	4.2	5.6
돌 이전	1.1	7.9	3.2
돌 이후	92.6	87.9	91.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279	10,564	34,843

언어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50대(22.8%), 만1~4세(19.4%), 40대(14.2%)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47.2%가, 만 10세 미만에서 29.7%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다 70세 이후에는 장애발생이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만 1~4세 연령에 언어장애의 발생이 가장 많았고, 남자는 5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언어장애발생율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노령층에서는 남자가 언어장애를 가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표 5-2-5-5〉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12.2	36.7	19.4
만 5~9세	11.2	8.3	10.3
만 10~19세	5.4	2.8	4.6
만 20~29세	6.1	9.2	7.0
만 30~39세	7.1	9.6	7.8
만 40~49세	14.1	14.3	14.2
만 50~59세	28.0	10.3	22.8
만 60~69세	11.4	7.5	10.2
만 70세 이상	4.4	1.5	3.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2,486	9,286	31,772

라. 장애원인

언어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55.4%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46.9%, 사고가 8.5%였다. 그리고 선천적 원인이 23.0%, 원인불명이 18.4%, 출생시 원인이 3.3%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모두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원인불명, 선천적 원인이, 여자의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원인불명이 더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질환 의해 언어장애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5-2-5-6〉 언어장애의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9.6	30.9	23.0
출생시 원인	0.6	9.3	3.3
후천적 원인	49.9	40.0	46.9
질환	10.0	4.9	8.5
사고	19.9	15.0	18.4
원인불명	100.0	100.0	100.0
계	24,280	10,565	34,845
전국추정수			

언어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55.4%)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언어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생물(종양)질환 18.0%,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 10.9%, 감염성 질환 8.6%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사고에 의한 경우는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의 경우가 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한 경우가 4.8%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질환의 경우 여자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2-5-7〉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신경계질환	3.5	4.6	3.8
	정신질환	1.9	0.8	1.7
	감각기질환	6.4	24.5	10.9
	심혈관질환	39.3	25.7	36.0
	소화기계질환	0.3	0.0	0.3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0	1.4	0.3
	신생물(종양)질환	19.7	13.1	18.0
	중독성질환	1.1	0.0	0.8
	감염성질환	8.8	8.0	8.6
미상	2.3	11.0	4.4	

〈표 5-2-5-7〉 계속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가정내 사고	0.6	0.0	0.5
	교통사고(탑승자)	2.4	0.6	2.0
	교통사고(보행자)	8.7	4.2	7.6
	약물 사고	0.3	0.0	0.2
	기타 사고 및 외상	4.4	6.1	4.8
	전상	0.3	0.0	0.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59	4,738	19,297

6. 지적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지적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 이후(87.7%)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가 6.9%, ‘돌 이전’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 장애발생시기를 보면, ‘돌 이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6-1〉 지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7.9	5.3	6.9
돌 이전	5.5	5.1	5.3
돌 이후	86.6	89.6	87.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7,754	52,886	140,640

지적장애의 후천적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만 10~1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20~29세’가 22.5%였고, ‘만 30~39세’가 16.3, ‘만 40~49세’가 15.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만 10~19세’와 ‘만 30~3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남자가 높게 나타나고 ‘만

20~29세’, ‘만 40~49세’의 경우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 5~9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5-2-6-2〉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9	2.4	1.5
만 5~9세	9.0	3.7	7.0
만 10~19세	31.7	17.6	26.4
만 20~29세	21.3	24.4	22.5
만 30~39세	16.8	15.5	16.3
만 40~49세	11.7	20.7	15.1
만 50~59세	4.6	10.3	6.8
만 60~69세	2.7	3.8	3.1
만 70세 이상	1.2	1.7	1.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7,755	52,885	140,640

나. 장애원인

지적장애는 원인불명이 41.7%로 선천적 원인 28.7% 및 후천적 원인 26.8%(질환 17.9%, 사고 8.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원인불명 43.5%로 여자의 38.8%보다 높았고 선천적 원인은 여자가 32.4%로 남자의 26.4%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6-3〉 지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6.4	32.4	28.7
출생시 원인	3.4	1.8	2.8
후천적 원인	17.3	19.1	17.9
	9.4	7.9	8.9
원인불명	43.5	38.8	41.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7,754	52,632	140,386

후천적 원인은 질환과 사고로 나뉘는데, 먼저 질환에서는 정신질환이 22.7%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여자가 31.3%로 남자의 17.9%보다 높았다. 다음으로는 신경계질환이 22.5%로 많았으며, 감염성질환도 7.9%를 차지하였다. 사고에서는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가 1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7.5%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6-4〉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22.2	23.1	22.5
		정신질환	17.9	31.3	22.7
		심혈관질환	2.7	0.0	1.7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1.8	0.0	1.2
		중독성질환	1.9	0.0	1.2
		감염성질환	4.8	13.5	7.9
		미상	11.0	4.4	8.6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5.7	4.3	5.2
		가정내 사고	2.2	6.8	3.9
		교통사고(탑승자)	4.5	1.7	3.5
		교통사고(보행자)	14.9	10.3	13.3
		약물 사고	1.3	0.0	0.8
		기타 사고 및 외상	9.0	4.7	7.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767	15,056	41,823

7. 자폐성장애

가. 동반장애

자폐성장애인의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 질환 동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지적장애만 동반된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이 모두 동반된 경우는 1.2%로 나타났다으며 동반 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도 14.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지적장애만 동반된 경우 및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이 함께

동반된 경우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2-7-1〉 자폐성장애의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아니오	15.9	9.1	14.2
지적장애만 동반됨	73.3	63.3	70.8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 모두 동반됨	1.6	0.0	1.2
계	9.2	27.6	13.8
전국추정수	9,680	3,228	12,908

나. 장애발생시기

자폐성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돌 이후’가 92.7%, ‘돌 이전’ 4.8%,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2.5%로 돌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돌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여자가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그리고 돌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7-2〉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2.3	3.1	2.5
돌 이전	4.6	5.4	4.8
돌 이후	93.1	91.5	92.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679	3,227	12,906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만 1~4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5~9세’가 31.2%, ‘만 10~19세’가 3.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만 1~4세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 발생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 5~9세에 발생한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발생 비

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표 5-2-7-3〉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66.6	61.2	65.3
만 5~9세	29.4	37.0	31.2
만 10~19세	4.1	1.8	3.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994	2,868	11,862

다. 장애원인

자폐성장애는 원인 불명에 의한 경우가 6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선천적 원인 20.4%, 후천적 원인 13.0%(질환 12.1%, 사고 0.9%), 출생시 원인 3.7%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원인불명 및 선천적 원인, 그리고 출생시 원인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여자가 후천적 원인의 질환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7-4〉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0.8	19.5	20.4
출생시 원인	4.1	2.5	3.7
후천적 원인	질환	23.1	12.1
	사고	0.0	0.9
원인불명	65.4	54.9	62.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681	3,228	12,909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원인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다. 후천적 원인의 질환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46.2%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39.3%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신경계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월등히 높았고, 남자는 다른 질환과 비교하여 정신질환 발생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고로는 교통사고(탑승자+보

행자) 5.1%, 기타사고 및 외상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7-5〉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16.8	67.6	39.3
		정신질환	60.0	28.9	46.2
		감염성질환	5.3	0.0	3.0
		미상	4.9	3.5	4.3
	사 고	교통사고(탑승자)	6.3	0.0	3.5
		교통사고(보행자)	2.9	0.0	1.6
		기타 사고 및 외상	3.7	0.0	2.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8	747	1,685

8. 정신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정신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돌 이후 10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1〉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	-	-
돌 이전	-	-	-
돌 이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634	40,541	84,175

정신장애의 후천적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 20~2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30~39세’가 22.5%, ‘만 40~49세’가 17.5%, ‘만 10~19세’가 13.0%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만 20~29세의 발생 비율이 남자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만 10~19세와 만 30~39세의 발생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2〉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3	0.8	0.6
만 5~9세	0.4	1.0	0.7
만 10~19세	15.7	10.1	13.0
만 20~29세	34.8	38.2	36.5
만 30~39세	22.9	22.1	22.5
만 40~49세	17.8	17.1	17.5
만 50~59세	4.7	7.6	6.1
만 60~69세	1.6	2.9	2.2
만 70세 이상	1.7	0.2	1.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633	40,542	84,175

나. 장애원인

정신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94.9%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비율이 81.3%로 높았다. 그 외 원인불명과 선천적 원인 또한 각각 3.4%, 1.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큰 차이는 없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후천적 원인(질환)과 선천적 원인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후천적 원인(사고)과 원인불명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8-3〉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0	1.4	1.7
후천적 원인	82.7	79.7	81.3
원인불명	2.8	4.1	3.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634	40,542	84,176

정신장애의 후천적 원인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다. 후천적 원인의 질환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84.5%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원인미상이나 질환에 의한 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84.5%, 여자는 84.4%로 모두 정신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고에 의한 발생률로는 폭력에 의한 사고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사고 및 외상이 2.6%,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폭력에 의한 사고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가 교통사고(보행자)에 의한 발생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8-4〉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정신질환	84.5	84.4	84.5
		중독성질환	0.7	0.3	0.5
		미상	1.5	0.0	0.8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7.0	7.6	7.3
		가정내 사고	0.0	1.8	0.9
		교통사고(탑승자)	1.4	0.0	0.7
		교통사고(보행자)	2.9	1.9	2.4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0	0.6	0.3
		기타 사고 및 외상	2.0	3.3	2.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25	40,102	83,627	

다. 장애의 주된 진단명

정신장애의 구체적 질환명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정확한 질환명을 모르고 있는 경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의 증상 중 하나인 우울이나 불안증상, 의처증 등의 편집증상이 있을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편집증 등으로 알고 있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정확한 질환명을 알고 있어도 사회적 편견이 심한 정신분열증보다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한 우울증, 불안장애(비범정장애)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로 장애등록을 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오래 입원하고 있는 등 기타 자료에 의해 정신장애로 분류되었으나 구체적 질환명에 대한 응답은 비법정장애인 경우는 정신질환의 구체적 질환명을 미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정신장애는 전체적으로 정신분열증의 발생 비율이 81.9%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반복성 우울장애가 7.5%,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6.5%를 차지하였다.

남녀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남자(86.5%)이 여자(76.9%)보다 정신분열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가 반복성 우울장애(11.5%)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9.1%)에서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5〉 정신장애의 주된 진단명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정신분열증	86.5	76.9	81.9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4.1	9.1	6.5
반복성 우울장애	3.7	11.5	7.5
분열정동장애	2.0	0.8	1.4
미상	1.0	1.6	1.3
기타	2.7	0.2	1.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633	40,542	84,175

9. 신장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신장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를 보면, 남녀 관계없이 모두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 신장장애를 최초로 알게 된 시기를 보면, 40대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1.7%, 30대가 20.1%, 60대가 15.8%, 20대가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9-1〉 신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0	0.0	0.0
돌 이전	0.0	0.0	0.0
돌 이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611	21,035	49,646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40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25.0%로 가장 높고, 50대가 20.6%, 30대가 17.3%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지만, 여자는 40대, 30대, 50대에서 각각 발생한 비율이 24.3%, 24.0%, 23.2%로서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5-2-9-2〉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2	0.0	0.1
만 5~9세	0.0	0.0	0.0
만 10~19세	5.4	1.1	3.6
만 20~29세	7.4	8.7	8.0
만 30~39세	17.3	24.0	20.1
만 40~49세	25.0	24.3	24.7
만 50~59세	20.6	23.2	21.7
만 60~69세	16.6	14.6	15.8
만 70세 이상	7.4	4.3	6.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611	21,035	49,646

나. 투석 여부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인 77.2%로 나타나 신장장애인 4명 중 3명은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76.7%, 여자는 78.0%가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투석 비율이 남자보다 약간 더 높았다.

〈표 5-2-9-3〉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76.7	78.0	77.2
아니오	23.3	22.0	22.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611	21,035	49,646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50대가 26.7%로 가장 높고, 40대 22.3%, 60대 19.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이후에 투석을 시작하는 신장장애인은 전체의 2/3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50대에서 투석을 시작한 경우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21.3%, 40대 19.2%의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역시 50대가 27.0%로 가장 높았으나 40대(26.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어서 30대 19.9%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투석을 일찍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9-4〉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0	0.0	0.0
만 5~9세	0.0	0.0	0.0
만 10~19세	5.0	0.6	3.1
만 20~29세	4.5	4.3	4.4
만 30~39세	13.8	19.9	16.4
만 40~49세	19.2	26.4	22.3
만 50~59세	26.5	27.0	26.7
만 60~69세	21.3	16.4	19.2
만 70세 이상	9.7	5.5	7.9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948	16,401	38,349

다. 신장이식 여부

현재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장애인은 25.3%로 나타나 신장장애인 4명 중 1명이 신장이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7.2%, 여자는 22.8%가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신장이식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았다.

〈표 5-2-9-5〉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27.2	22.8	25.3
아니오	72.8	77.2	74.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612	21,035	49,647

신장장애인 중 신장이식을 한 장애인의 신장이식 시기를 살펴보면, 35.9%가 40대에 신장이식을 받아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서 30대 27.4%, 50대 14.2%, 20대 11.8%의 순으로 나타나 신장이식이 비교적 청·장년 시기에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40대 42.8%, 30대 19.8%, 10대 12.9%로 나타나 여자의 30대 39.8%, 40대 24.7%, 50대 20.2%에 비해 비교적 젊은 시기에 신장이식을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9-6〉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0	0.0	0.0
만 5~9세	0.0	0.0	0.0
만 10~19세	12.9	0.8	8.3
만 20~29세	11.4	12.4	11.8
만 30~39세	19.8	39.8	27.4
만 40~49세	42.8	24.7	35.9
만 50~59세	10.4	20.2	14.2
만 60~69세	2.7	2.1	2.5
만 70세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769	4,790	12,559

라. 장애원인

신장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9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선천적 원인은 0.4%, 후천적 원인 중 사고는 1.1%에 불과하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선천적 원인이 0.1%, 후천적 원인 중 사고가 1.4%로서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선천적 원인(0.8%)과 사고(0.7%)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 5-2-9-7〉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0.1	0.8	0.4
출생시 원인	0.0	0.0	0.0
후천적 원인	98.5	98.5	98.5
질환			
사고	1.4	0.7	1.1
원인불명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612	21,035	49,647

후천적 장애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장·비뇨·생식기계질환이 63.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이 21.4%, 심혈관질환이 13.4%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원인은 매우 미미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신장·비뇨·생식기계질환대사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10.0% 포인트 높았으나, 심혈관질환은 남자가 16.5%로 여자의 9.1%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그 외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의 비율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21.6%와 21.1%로서 비슷하였다.

〈표 5-2-9-8〉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0.0	0.0	0.0
정신질환	0.0	0.0	0.0
감각기질환	0.0	0.0	0.0
심혈관질환	16.5	9.1	13.4
호흡기질환	0.0	0.0	0.0
소화기계질환	0.0	0.0	0.0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21.6	21.1	21.4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58.9	68.9	63.1
근골격계 질환	0.0	0.0	0.0

〈표 5-2-9-8〉 계속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생물(종양)질환	1.5	0.0	0.9	
		중독성 질환	0.0	0.0	0.0	
		감염성 질환	0.1	0.2	0.1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0.0	0.0	0.0	
		가정내 사고	0.0	0.0	0.0	
		교통사고(탑승자)	0.2	0.0	0.1	
		교통사고(보행자)	0.1	0.7	0.4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0	0.0	0.0	
		화상	0.0	0.0	0.0	
		약물 사고	0.9	0.0	0.5	
		기타 사고 및 외상	0.1	0.0	0.1	
		전상	0.0	0.0	0.0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588	20,867	49,455

10. 심장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심장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돌 이후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가 4.1%, 돌 이전이 2.8%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돌 이후가 94.5%, 여자는 91.1%로 남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돌 이전 비율은 남자 1.6%, 여자 4.7%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10-1〉 심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9	4.3	4.1
돌 이전	1.6	4.7	2.8
돌 이후	94.5	91.1	93.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480	6,649	16,129

심장장애가 돌 이후 장애가 발생한 구체적 시기를 살펴보면, 60대가 35.6%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30.6%, 40대가 10.8%, 70대 이상이 6.7%로 나타나 대부분이 40대 이후에 심장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50대 33.4%, 60대 32.8%, 40대 1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60대 39.8%, 50대 26.3%, 40대 8.1%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일찍 심장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2-10-2〉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2.0	0.9	1.6
만 5~9세	3.8	0.6	2.5
만 10~19세	3.3	3.9	3.5
만 20~29세	2.1	6.7	3.9
만 30~39세	4.1	5.8	4.8
만 40~49세	12.7	8.1	10.8
만 50~59세	33.4	26.3	30.6
만 60~69세	32.8	39.8	35.6
만 70세 이상	5.8	7.9	6.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960	6,008	14,968

나. 심장이식 여부

현재 심장이식을 받은 심장장애인은 8.2%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5.9%, 여자는 11.6%가 심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심장이식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더 높았다.

〈표 5-2-10-3〉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5.9	11.6	8.2
아니오	94.1	88.4	91.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480	6,648	16,128

심장장애인 중 심장이식을 한 장애인의 심장이식 시기를 살펴보면, 64.7%가 60대에 신장이식을 받아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서 50대 14.7%, 40대 11.8%, 30대 5.3%의 순으로 나타나 심장이식이 비교적 중년기 이후에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60대 40.8%, 50대 28.3%, 40대 18.1%로 나타나 여자의 60대 82.1%, 40대 7.3%, 50대 4.8%에 비해 비교적 더 이른 시기에 심장이식을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10-4〉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0	0.0	0.0
만 5~9세	0.0	0.0	0.0
만 10~19세	6.6	0.0	2.8
만 20~29세	0.0	1.3	0.8
만 30~39세	6.3	4.5	5.3
만 40~49세	18.1	7.3	11.8
만 50~59세	28.3	4.8	14.7
만 60~69세	40.8	82.1	64.7
만 70세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9	770	1,329

다. 장애원인

심장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천적 원인이 10.3%로 나타났으며, 후천적 원인 중 사고가 0.9%였다. 이를 성별

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질환이 89.5%로서 여자의 동 비율 87.4%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반면에 선천적 원인의 비율은 여자가 12.6%로서 남자의 동 비율 8.7%보다 더 높았다.

〈표 5-2-10-5〉 심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8.7	12.6	10.3
출생시 원인	0.0	0.0	0.0
후천적 원인	89.5	87.4	88.6
질환	89.5	87.4	88.6
사고	1.6	0.0	0.9
원인불명	0.2	0.0	0.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481	6,648	16,129

심장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혈관질환이 9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이 1.5%, 기타 사고 및 외상 0.7%, 전상 0.3%로 나타났다. 후천적 원인에서 성별 차이는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과 기타 사고 및 외상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의 경우에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기타 사고 및 외상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2-10-6〉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 질환	0.0	0.0	0.0
		정신질환	0.0	0.0	0.0
		감각기 질환	0.0	0.0	0.0
		심혈관 질환	97.8	97.1	97.5
		호흡기 질환	0.0	0.0	0.0
		소화기계 질환	0.0	0.0	0.0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5	2.9	1.5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0.0	0.0	0.0
		근골격계 질환	0.0	0.0	0.0
		신생물(종양) 질환	0.0	0.0	0.0

〈표 5-2-10-6〉 계속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중독성질환	0.0	0.0	0.0
		감염성질환	0.0	0.0	0.0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0.0	0.0	0.0
		가정내 사고	0.0	0.0	0.0
		교통사고(탑승자)	0.0	0.0	0.0
		교통사고(보행자)	0.0	0.0	0.0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0	0.0	0.0
		화상	0.0	0.0	0.0
		약물 사고	0.0	0.0	0.0
		기타 사고 및 외상	1.2	0.0	0.7
		전상	0.6	0.0	0.3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640	5,811	14,451	

11. 호흡기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호흡기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모두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

〈표 5-2-11-1〉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0	0.0	0.0
돌 이전	0.0	0.0	0.0
돌 이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54	2,589	16,843

돌 이후에 호흡기장애가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50대가 28.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60대가 24.9%, 70대가 18.1%, 40대가 13.4%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대 미만은 1.0%에 불과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50대 28.9%, 60대 26.0%, 40대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50대 28.5%, 40대 19.8%, 60대 19.0%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장애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대 이하의 발생 비율이 남자는 0.4%에 불과하지만 여자는 4.8%에 이를 정도로 여자의 경우 아동기에 호흡기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두드러졌다.

〈표 5-2-11-2〉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0	1.3	0.2
만 5~9세	0.0	0.6	0.1
만 10~19세	0.4	2.9	0.8
만 20~29세	5.1	7.4	5.5
만 30~39세	8.0	9.9	8.3
만 40~49세	12.2	19.8	13.4
만 50~59세	28.9	28.5	28.8
만 60~69세	26.0	19.0	24.9
만 70세 이상	19.4	10.7	18.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53	2,590	16,843

나. 산소치료 처방

호흡기장애인 중 산소치료 처방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의 18.4%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25.8%로서 남자의 17.0%보다 더 높았다.

〈표 5-2-11-3〉 산소치료 처방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그렇다	17.0	25.8	18.4
아니다	83.0	74.2	81.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53	2,589	16,842

산소치료 처방을 받아 산소치를 받고 있는 호흡기장애인의 하루 평균 산소치료 시간은 평균 12.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15.6시간으로서 남자의 11.5시간보다 4시간 이상 더 많이 산소치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1-4〉 하루 평균 산소치료 사용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하루 평균 사용시간	11.5	15.6	12.4
전국 추정수	2,430	669	3,100

다. 인공호흡기

호흡기장애인 중 가정에서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7%이며, 사용하다가 중단한 장애인은 3.0%로서 인공호흡기 사용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사용하다가 중단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여자가 8.1%로서 남자의 2.0%보다 4배 가까이 더 높았다.

〈표 5-2-11-5〉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현재 사용 중	2.6	2.9	2.7
사용하다가 중단	2.0	8.1	3.0
사용한 적 없음	95.3	89.0	94.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54	2,589	16,843

가정에서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64.9%가 사용 후에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인공호흡기로 인한 긍정적인 삶의 질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1-6〉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전과 후 삶의 질 변화정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많이 높아졌다	26.5	0.0	22.1
약간 높아졌다	42.9	42.7	42.8
비슷하다	18.5	0.0	15.5
잘 모르겠다	12.2	57.3	19.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8	75	453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유지비용(35.8%), 심리적 불안(29.0%), 인공호흡기 오작동과 장비점검 문제(25.7%) 등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심리적 불안과 인공호흡기 오작동과 장비점검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꼽은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이를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그 밖에 다른 사항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5-2-11-7〉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유지비용	34.5	42.7	35.8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료와 간호	0.0	0.0	0.0
심리적 불안	34.7	0.0	29.0
인공호흡기의 오작동과 장비점검에 관련된 문제	30.8	0.0	25.7
기타	0.0	57.3	9.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7	75	452

과거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사용하기 불편해서’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경제적 이유로’ 20.1%, ‘사용하기 귀찮아서’ 14.5%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용하기 불편해서’와 ‘사용하기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한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와 기타 사유 때문에 중단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이르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5-2-11-8〉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중 중단 이유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제적 이유로	7.7	37.0	20.1
사용하기 불편해서	65.9	0.0	38.0
사용하기 귀찮아서	20.6	6.2	14.5
기타	5.9	56.9	27.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7	211	498

라. 장애원인

호흡기장애의 발생원인을 보면, 질환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1.2%)가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가운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높았다.

〈표 5-2-11-9〉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0.0	0.0	0.0
출생시 원인	0.0	0.0	0.0
후천적 원인	98.7	99.0	98.8
질환	98.7	99.0	98.8
사고	1.3	1.0	1.2
원인불명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54	2,590	16,844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질환이 72.8%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감염성질환이 16.9%로 호흡기장애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 외에 중독성 질환과 신생물(종양)질환이 각각 6.3%와 2.3%를 나타냈고 그 외 원인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호흡기질환 72.6%, 감염성질환 15.6%, 중독성질환 7.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호흡기질환이 74.0%, 감염성질환 23.9%, 중독성질환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남자의 경우에는 중독성질환 비중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감염성질환 비중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표 5-2-11-10〉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0.0	0.0	0.0
	정신질환	0.0	0.0	0.0
	감각기질환	0.0	0.0	0.0
	심혈관질환	0.0	0.0	0.0
	호흡기질환	72.6	74.0	72.8
	소화기계질환	0.0	0.0	0.0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0	0.0	0.0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0.0	0.0	0.0
	근골격계 질환	0.6	0.0	0.5
	신생물(종양)질환	2.7	0.0	2.3
	중독성질환	7.2	1.1	6.3
	감염성질환	15.6	23.9	16.9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0.0	0.0	0.0
	가정내 사고	0.0	0.0	0.0
	교통사고(탑승자)	0.1	0.1	0.1
	교통사고(보행자)	0.3	0.3	0.2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0	0.0	0.0
	화상	0.0	0.0	0.0
	약물 사고	0.6	0.0	0.5
	기타 사고 및 외상	0.3	1.0	0.4
	전상	0.0	0.0	0.0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54	2,590	16,844

12. 간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간장애는 돌 이후에 대부분(96.5%)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장애의 장애발생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자의 경우 돌 이전에 발생한 비율이 5.9%로서 남자의 2.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표 5-2-12-1〉 간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3	2.6	1.6
돌 이전	1.4	3.3	1.8
돌 이후	97.3	94.1	96.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04	1,599	6,703

연령별 장애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38.6%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50대 31.4%, 30대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시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40대와 50대에서 가장 장애발생비율이 높았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30대(17.6%)에서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60대(12.8%)에서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2-12-2〉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1.0	0.0	0.8
만 5~9세	0.0	0.0	0.0
만 10~19세	0.0	0.0	0.0
만 20~29세	2.5	5.8	3.2
만 30~39세	17.6	4.8	14.6
만 40~49세	37.8	41.4	38.6
만 50~59세	30.2	35.3	31.4
만 60~69세	9.3	12.8	10.1
만 70세 이상	1.7	0.0	1.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966	1,505	6,471

나. 간이식 여부

현재 간이식을 받은 간장애인은 55.3%로 나타나 신장 및 심장장애인에 비해 이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52.1%, 여자는 65.36%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간이식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2-12-3〉 간장애의 간이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52.1	65.3	55.3
아니오	47.9	34.8	44.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04	1,600	6,704

간이식을 한 장애인의 간이식 시기를 살펴보면, 50대와 40대가 각각 38.3%, 37.0%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60대 8.5%, 30대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40대의 비중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0대 36.6%, 30대 7.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50대가 42.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서 40대 27.8%, 60대 13.6%의 순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일찍 간이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5-2-12-4〉 간장애의 간이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3.9	5.9	4.5
만 5~9세	1.3	0.0	0.9
만 10~19세	2.0	3.1	2.3
만 20~29세	1.6	4.4	2.4
만 30~39세	7.6	2.5	6.2
만 40~49세	40.6	27.8	37.0
만 50~59세	36.6	42.7	38.3
만 60~69세	6.5	13.6	8.5
만 70세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60	1,044	3,704

다. 장애원인

간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천적 원인이 3.2%로 나타났으며, 후천적 원인 중 사고가 0.3%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질환이 97.2%로서 여자의 동 비율 94.1%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반면에 선천적 원인의 비율은 여자가 5.9%로서 남자의 동 비율 2.4%보다 더 높았다.

〈표 5-2-12-5〉 간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4	5.9	3.2
출생시 원인	0.0	0.0	0.0
후천적 원인	질환	94.1	96.5
	사고	0.0	0.3
원인불명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04	1,599	6,703

간장애의 후천적 원인이 되는 질환종류별로 살펴보면, 소화기계질환이 가장 많은 69.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신생물(종양)질환 24.8%, 중독성질환 1.7%,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소화기계질환과 신생물(종양)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질환의 비중이, 여성의 경우에는 감염성질환 비중이 높았다.

〈표 5-2-12-6〉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신경계질환	0.0	0.0
	정신질환	0.0	0.0
	감각기질환	0.0	0.0
	심혈관질환	0.0	0.0
	호흡기질환	0.0	0.0
	소화기계질환	67.6	75.0
			69.3

〈표 5-2-12-6〉 계속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2.1	0.0	1.6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0.0	0.0	0.0
		근골격계 질환	0.0	0.0	0.0
		신생물(종양)질환	25.9	21.2	24.8
		중독성질환	2.2	0.0	1.7
		감염성질환	1.8	3.8	2.3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0.0	0.0	0.0
		가정내 사고	0.0	0.0	0.0
		교통사고(탑승자)	0.0	0.0	0.0
		교통사고(보행자)	0.0	0.0	0.0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0	0.0	0.0
		화상	0.0	0.0	0.0
		약물 사고	0.0	0.0	0.0
		기타 사고 및 외상	0.0	0.0	0.0
		전상	0.4	0.0	0.3
		미상	0.0	0.0	0.0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전국추정수		4,981	1,506	6,487	

13. 안면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안면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5-2-13-1>과 같이 전체의 84.8%가 만 1세 이후인 돌 이후에 발생되어 다른 외부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돌 이후 장애발생이 높아 거의 동일하나, 출생전 또는 출생시 비율이 3년 전보다 5.9% 포인트 높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발생시기가 돌 이후인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출생전 또는 출생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2-13-1〉 안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0.5	19.4	13.6
돌 이전	2.4	0.0	1.6
돌 이후	87.1	80.6	84.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17	768	2,185

안면장애의 돌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는 <표 5-2-13-2>와 같이 주로 10대에서 40대에 걸쳐 다소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성별 장애 발생시기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10대~50대의 발생비율이 비교적 높고, 여자는 10대~40대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이는 안면장애의 원인이 주로 돌 이후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화상과 같은 사고가 많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2-13-2〉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7.3	11.3	8.6
만 5~9세	7.2	11.3	8.6
만 10~19세	21.1	12.1	18.1
만 20~29세	22.8	18.1	21.3
만 30~39세	12.9	12.9	12.9
만 40~49세	13.5	15.5	14.2
만 50~59세	10.3	9.0	9.9
만 60~69세	4.0	6.1	4.7
만 70세 이상	0.8	3.6	1.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35	619	1,854

나. 장애원인

안면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5-2-13-3>과 같다. 전체 안면장애의 79.4%가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천적 원인 18.8%, 원인불명 1.9%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으로는 질환보다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 후천적 원인 중 사고는 13.4% 포인트 낮아졌고, 질환은 14.3% 포인트 높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2-13-3〉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1.5	32.1	18.8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20.1	23.7	21.4
	65.4	44.2	58.0
원인불명	3.0	0.0	1.9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417	769	2,186

안면장애의 후천적 원인만을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표 5-2-13-4>와 같다. 사고가 73.1%, 질환이 26.9%로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등 다른 외부 장애유형에 비해 안면장애는 압도적으로 사고가 안면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2005년의 조사(질환 9.1%, 사고 91.0%)와 비교하여 질환이 약 17.8% 포인트 늘어난 반면, 사고는 17.9% 포인트 줄어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질환 가운데서 신생물(종양)질환이 12.6%로 가장 많은데, 이는 질환에 의한 안면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혈관종이나 신경섬유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는 화상이 47.7%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질환이 23.5%인데 비해, 여자는 질환에 의해 안면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34.9%로 여자가 11.4% 포인트나 높아서 성별로 안면장애의 원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고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76.5%로 여자 65.1%에 비해 11.4% 포인트 높아 남자는 화상과 같은 사고에 의해 안면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산업재해의 원인이 사고뿐만 아니라 질환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안면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지를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비해당(60.0%)을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나 되었다.

〈표 5-2-13-4〉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환	신경계질환	2.3	0.0	1.6
		심혈관질환	2.6	3.1	2.8
		근골격계 질환	1.6	0.0	1.1
		신생물(종양)질환	9.5	19.7	12.6
		감염성질환	7.5	7.3	7.4
		미상	0.0	4.8	1.4
	사고	가정내 사고	4.6	5.7	5.0
		교통사고(탑승자)	5.0	12.1	7.2
		교통사고(보행자)	5.0	1.9	4.1
		화상	51.9	37.9	47.7
		약물 사고	1.7	0.0	1.2
		기타 사고 및 외상	8.3	7.5	8.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2	522	1,734	

14. 장루·요루장애

가. 장애부위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부위는 <표 5-2-1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루가 8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요루13.1%, 장루·요루 3.5%의 순으로, 2005년의 조사에 비해 장루의 비율은 늘고, 요루 및 장루·요루는 줄었지만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요루(21.1%)가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장루(90.5%)의 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2-14-1〉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부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요루	21.1	5.2	13.1
장루	76.2	90.5	83.4
요루·장루	2.7	4.3	3.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279	7,439	14,718

나. 장애발생시기

장루·요루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5-2-14-2>와 같이 만 1세 이후인 돌 이후에 99.0% 발생되고 있어 장루·요루장애의 특성상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조사(돌 이후 100.0%)와 마찬가지로 돌 이후 장애발생이 높으며, 성별로도 남자 및 여자 모두 돌 이후 발생비율이 높았다.

<표 5-2-14-2>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5	1.2	0.9
돌 이전	0.0	0.3	0.2
돌 이후	99.5	98.5	99.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279	7,438	14,717

장루·요루장애의 돌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는 <표 5-2-14-3>과 같이 대체로 남녀 모두 40대 이후 장년층에서 다소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루·요루장애가 주로 직장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신생물(종양)질환(83.1%)에 의한 것으로 40세 이전에는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약 3%정도이며 주로 60대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일반 의료통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대가 33.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40대가 34.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2-14-3>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	-	-
만 5~9세	0.0	0.4	0.2
만 10~19세	0.0	0.7	0.3
만 20~29세	2.3	0.5	1.4
만 30~39세	7.8	4.0	5.9
만 40~49세	13.9	34.7	24.4
만 50~59세	25.2	18.4	21.8
만 60~69세	33.2	15.4	24.3
만 70세 이상	17.6	26.0	21.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240	7,324	14,564

다. 장애원인

장루·요루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5-2-14-4>와 같다. 전체 장루·요루장애의 99.1%가 각종 질환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천적 원인 중에는 질환이 95.6%로 장애발생시기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2005년 조사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2-14-4>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0.5	1.2	0.9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95.2	96.1	95.6
	사고	4.3	2.7	3.5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278	7,438	14,716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원인만을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표 5-2-14-5>와 같다. 질환이 96.4%, 사고가 3.6%로서 기타 내부장애에 비해 압도적으로 질환이 장루·요루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2005년의 조사(질환 95.0%, 사고 5.10%)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질환 가운데서 신생물(종양)질환이 83.1%로 가장 많은데, 이는 질환에 의한 장루·요루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암이나 대장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질환의 비율이 1.5% 포인트 높으나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산업재해의 원인이 사고뿐만 아니라 질환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장루·요루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지를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비해당(80.9%)을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0%나 되었다.

〈표 5-2-14-5〉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소화기계질환	4.3	1.3	2.8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4.0	16.5	10.3
		신생물(종양)질환	87.4	79.0	83.1
		감염성질환	0.0	0.4	0.2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0.3	0.0	0.2
		교통사고(탑승자)	1.5	0.5	1.0
		교통사고(보행자)	0.0	1.0	0.5
		약물 사고	0.3	0.0	0.2
		기타 사고 및 외상	1.5	1.2	1.4
		기타	0.7	0.0	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239	7,348	14,587	

15. 간질장애

가. 장애발생시기

간질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돌 이후 발생하는 비중이 99.4%로 가장 높았으며, 출생전 또는 출생시 및 돌 이전에 발생하는 비중이 0.6%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간질장애의 발생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15-1〉 간질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7	0.0	0.4
돌 이전	0.0	0.4	0.2
돌 이후	99.3	99.6	99.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410	5,564	10,974

연령별 장애발생(발견)시기를 살펴보면, ‘만 10~19’가 가장 많은 36.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만 20~29세’가 22.2%, ‘만 40~49세’가 12.2%, ‘만 30~39세’가 10.5%를 차지하였다. 장

애발생시기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만 10~19세’에서 46.9%로 남자의 25.4%보다 높게 나타나고 ‘만 30~39세’에서 또한 11.4%로 남자의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만 20~29세’와 ‘만 40~49세’에서 각각 27.7%와 16.3%로 여자의 16.9%와 8.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15-2〉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2.1	3.0	2.6
만 5~9세	6.1	9.7	7.9
만 10~19세	25.4	46.9	36.3
만 20~29세	27.7	16.9	22.2
만 30~39세	9.6	11.4	10.5
만 40~49세	16.3	8.3	12.2
만 50~59세	11.7	3.1	7.3
만 60~69세	1.1	0.7	0.9
만 70세 이상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71	5,539	10,910

나. 장애원인

간질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다.

〈표 5-2-15-3〉 간질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	-	-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	-	-
질환	-	-	-
사고	-	-	-
원인불명	100.0	-	100.0
계	100.0	-	100.0
전국추정수	171	-	171

후천적 원인에 의한 간질장애인을 질환 또는 사고의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질환에서는 신경계질환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인미상이 27.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신경계질환과 원인미상 모두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고에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폭력에 의한 사고 5.6%,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 5.6%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기타 사고 및 외상과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 모두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15-4〉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 질환	33.2	37.3	35.4
		정신질환	0.0	2.0	1.0
		심혈관질환	2.4	0.7	1.5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4	0.8	0.6
		신생물(종양)질환	8.4	1.8	4.9
		중독성질환	1.1	0.0	0.5
		감염성질환	3.8	5.5	4.7
		미상	14.3	38.4	27.0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9.2	2.5	5.6
		가정내 사고	7.2	3.2	5.1
		교통사고(탑승자)	6.9	1.1	3.8
		교통사고(보행자)	2.6	1.1	1.8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1.7	0.7	1.2
		약물 사고	0.0	0.5	0.3
		기타 사고 및 외상	8.9	4.4	6.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35	4,785	9,120	

제3절 보건·의료

1.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별 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¹³⁾, 주된 법정장애 15가지 장애유형의 장애원인을 보면 <표 5-3-1>과 같다. 전반적으로 질환 및 사고의 후천적 원인이 90.0%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원인 4.9%, 원인 불명 4.6%, 출산시 원인이 0.5%로 나타나 과거 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선천적 원인(2005년 4.0%)과 후천적 원인(2005년 89.0%)이 증가하고, 출산시 원인(2005년 0.7%)과 원인 불명(2005년 6.3%)이 약간씩 감소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3년 전과 동일하게 후천적 원인을 질환 및 사고로 분류하여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질환이 55.6%로 가장 많았고, 사고가 34.4%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원인 중에 질환과 사고가 많다는 것은 장애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후천적 원인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선천적 또는 출산시 원인보다는 질환 및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원인을 장애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는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안면장애와 지체장애와 같은 외부장애는 사고의 비율 각각 51.3%, 5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앞서 제2절 장애특성에서 보여준 결과처럼 지체장애와 안면장애의 원인은 주로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반면 호흡기장애(98.6%), 신장장애(98.5%), 간장애(96.4%), 장루·요루장애(94.3%), 심장장애(87.5%)와 같은 내부장애는 질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선천적 원인은 지적장애가 2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22.3%, 언어장애 21.4%의 순이었다. 출산시 원인은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자폐성장애가 4.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원인불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전체 자폐성장애인의 63.4%가 장애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역시 40.9%가 장애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13) 장애원인의 세 분류에 관해서는 제2절 ‘장애특성’ 참조

〈표 5-3-1〉 장애 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원인	2.5	2.4	3.0	7.4	21.4	28.9	22.3	1.7	0.4	11.4	0.0	3.3	18.8	1.1	3.9	4.9
출산시원인	0.1	1.8	0.3	0.0	1.3	2.5	4.2	0.0	0.0	0.0	0.0	0.0	0.0	0.0	0.9	0.5
후천적 원인	45.6	86.9	58.6	73.7	53.3	18.5	9.1	80.9	98.5	87.5	98.6	96.4	21.4	94.3	58.1	55.6
사고	51.3	8.3	35.1	13.4	8.0	9.2	1.0	13.9	1.1	1.0	1.4	0.3	57.9	4.5	19.7	34.4
원인불명	0.5	0.5	3.1	5.6	16.0	40.9	63.4	3.5	0.0	0.1	0.0	0.0	1.9	0.0	17.4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8,561	220,061	207,383	15,102	139,138	12,150	84,781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2	213,512

2.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장애발생시기는 <표 5-3-2>와 같이 거의 대부분 ‘돌 이후’가 96.7%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 1.9%, ‘돌 이전’ 1.4%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13.6%), 지적장애(7.0%), 언어장애(6.9%)는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고, 또한 지적장애(5.4%)는 자폐성장애(5.1%)와 함께 돌 이전에 발생하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돌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3-2〉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4	1.4	0.3	3.8	6.9	7.0	2.7	-	-	4.5	-	1.7	13.6	1.1	0.4	1.9
돌 이전	1.0	1.0	1.6	1.7	1.6	5.4	5.1	-	-	3.1	-	1.9	1.6	0.2	0.3	1.4
돌 이후	97.6	97.6	98.1	94.6	91.5	87.6	92.2	100.0	100.0	92.4	100.0	96.4	84.8	98.7	99.3	9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8,560	220,062	207,383	15,103	139,392	12,150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1	213,512

돌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표 5-3-3>과 같이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애발생시 연령은 어느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발생시기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제2절 장애특성의 결과대로 지체장애는 교통

사고 등 각종 사고에 의해 뇌병변장애는 뇌졸중과 같은 질환에 따른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는 40대 이후 발생 비율이 약 67.6%로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퇴행성 안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연령에 걸쳐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50대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의 노인인구에서 각종 귀 질환,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언어장애는 만 1~4세에 발생하는 비율이 13.4%로 높지만 청각장애와 마찬가지로 50대 이후 더 증가하고 있다.

지적장애는 대부분 만 19세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폐성장애도 전체의 93.7%가 만 9세 이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정신장애는 대부분의 장애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에 포함된 구체적 질병인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정동장애(우울증), 분열정동장애 등은 대부분 10대 이후에 발병하고, 아주 드물게 만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 10세 이전에 발병했다고 응답한 1.3%의 경우 일부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¹⁴⁾ 또는 기타 정신장애(협의의 정신장애)와 혼동하여 정신장애라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장장애는 만 10세 이후부터 발생(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에서 60대에 걸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장애의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 10세 이전의 발생은 2.0%밖에 되지 않고, 40대 이후에 현저히 장애의 발생이 증가하는 후천적인 심혈관질환이 심장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장애는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89.7%로 이는 고령 노인인구에서 폐렴이나 기타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장애는 주로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발생 비율이 현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장애의 경우 의학계에서도 보고하듯이 30~40대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 직장인들 중에 술에 의한 B형 간염바이러스, 간경변, 지방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

14)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자폐증)도 광의의 정신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로 보인다.

안면장애는 주로 10대에서 40대에 걸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화상이나 교통사고, 기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외상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장루·요루장애는 간장애와 마찬가지로 40대 이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및 삶의 환경이 서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간질장애는 주로 만 29세 이전에 발병하는 비율이 전체의 69.4%로 이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동반장애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장애유형의 장애발생시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3〉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돌 이후(연령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만 1~4세	5.7	3.7	2.1	5.7	13.4	23.8	64.5	0.6	0.1	1.7	0.2	0.8	8.6	0.0	3.2	6.1
만 5~9세	2.0	2.2	3.8	2.5	9.2	30.2	29.2	0.7	0.0	0.3	0.1	0.0	8.6	0.2	9.8	4.0
만 10~19세	6.4	1.7	6.9	6.4	6.7	21.3	4.3	13.2	3.7	3.9	0.9	0.0	18.1	0.4	28.9	7.0
만 20~29세	10.2	2.2	10.1	4.4	6.7	9.4	1.6	36.5	8.2	4.4	3.2	3.3	21.2	1.8	27.5	9.7
만 30~39세	14.6	3.7	9.7	6.3	10.3	6.9	0.0	22.4	20.7	5.3	5.7	12.1	12.9	7.7	13.0	11.9
만 40~49세	16.8	16.5	15.3	12.2	10.7	5.3	0.4	17.4	24.5	12.0	15.6	39.8	14.2	12.6	12.7	15.6
만 50~59세	17.9	29.3	21.6	20.8	17.3	1.1	0.0	6.0	20.5	33.9	33.7	32.3	9.9	27.7	3.8	18.4
만 60~69세	19.2	29.4	21.0	23.5	20.4	0.5	0.0	2.3	16.1	30.7	26.7	10.4	4.7	31.4	1.1	18.9
만 70세 이상	7.3	11.4	9.7	18.3	5.3	1.6	0.0	1.0	6.2	7.8	13.7	1.3	1.7	18.1	0.0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731	213,221	215,848	196,085	13,820	122,160	11,206	84,780	48,284	13,493	14,393	6,282	1,853	11,202	8,819	2,066,177

3. 현재 장애의 치료

현재 주된 장애에 대한 치료여부는 <표 5-3-4>와 같이 장애인의 50.5%가 자신의 장애상태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99.8%), 간장애(98.9%), 간질장애(98.4%), 심장장애(97.3%), 호흡기장애(95.4%), 정신장애(93.8%) 등의 순으로 장애에 대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신장장애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현재 치료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반면, 안면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5-3-4〉 현재 주된 장애 치료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46.6	82.0	40.3	19.9	27.2	35.1	75.3	93.8	99.8	97.3	95.4	98.9	17.3	78.3	98.4	50.5
아니오	53.4	18.0	59.7	80.1	72.8	64.9	24.7	6.2	0.2	2.7	4.6	1.1	82.7	21.7	1.6	4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현재 치료받는 장소는 <표 5-3-5>와 같이 병·의원이 5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34.0%, 한방 병·의원 3.9%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92.6%)와 심장장애 및 장루·요루장애(82.5%)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77.1%)는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병의원 이용률은 0.7%로 매우 적었다.

〈표 5-3-5〉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종합병원	23.5	54.9	38.7	21.9	58.3	27.5	18.5	22.2	55.1	82.5	67.6	92.6	70.0	82.5	55.5	34.0
재활병·의원	0.8	1.6	0.0	0.0	0.0	0.0	1.5	0.4	0.0	0.0	0.0	0.2	0.0	0.0	0.0	0.7
병·의원	66.9	35.2	58.9	75.5	22.3	35.2	14.0	77.1	44.3	17.2	31.3	7.1	18.4	16.3	41.6	56.9
보건소	2.2	2.7	0.3	0.0	0.0	0.0	0.0	0.3	0.6	0.4	0.9	0.0	4.2	1.2	0.3	1.6
한방병·의원	5.9	4.7	0.4	0.3	2.8	1.9	1.4	0.0	0.0	0.0	0.2	0.0	0.0	0.0	0.6	3.9
장애인복지관	0.1	0.6	0.0	0.0	8.4	11.1	19.2	0.0	0.0	0.0	0.0	0.0	0.0	0.0	0.3	0.8
기타	0.6	0.3	1.7	2.2	8.2	24.2	45.3	0.0	0.0	0.0	0.0	0.0	7.4	0.0	1.9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7,754	179,731	88,659	41,281	4,103	49,116	9,290	79,523	48,166	14,210	13,737	6,446	380	8,895	8,738	1,080,029

현재 자신의 장애상태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장애인의 그 이유는 <표 5-3-6>과 같이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아 치료를 받는다 해도 증상과 장애정도의 개선이 어려운 고착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33.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의 생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는 4.9%로 2005년 조사 결과(12.7%)보다 7.8% 포인트 감소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시각장애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74.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는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가 모두 36.4%로 가장 많았다. 심장장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다.

〈표 5-3-6〉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대로 두어도 괜찮 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	5.8	15.8	1.0	1.4	7.2	4.9	25.0	0.0	14.4	36.9	10.7	0.0	21.7	6.3	21.7	4.9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10.7	8.6	0.4	1.1	5.6	4.6	6.3	12.6	85.6	11.9	30.0	47.8	4.1	48.1	22.4	7.4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36.4	34.9	23.3	29.9	35.5	36.4	28.7	29.6	0.0	16.7	4.9	0.0	28.3	14.7	0.0	33.5
치료받기 싫어서	44.5	30.9	74.0	65.7	48.1	44.9	32.3	23.4	0.0	16.4	34.5	14.5	38.1	23.0	21.7	50.8
주위의 시선때문에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1.1	2.7	0.2	0.7	2.0	3.5	2.1	16.2	0.0	0.0	4.9	0.0	0.0	2.2	18.9	1.3
시간이 없어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9.3	6.4	0.0	0.0	0.0	0.0	0.0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	0.3	0.1	0.0	0.0	0.4	0.5	0.9	0.0	0.0	0.0	0.0	0.0	1.5	0.0	0.0	0.2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0.5	1.5	0.9	0.4	0.2	0.0	3.3	0.0	0.0	0.0	0.0	0.0	2.4	0.0	0.0	0.5
기타	0.1	0.5	0.2	0.4	0.7	4.0	0.0	5.1	0.0	0.0	0.0	0.0	0.0	1.4	15.4	0.6
계	0.3	5.0	0.0	0.0	0.3	1.0	1.5	8.5	0.0	8.8	0.0	0.0	1.6	2.5	0.0	0.5
전국추정수	0.3	0.0	0.1	0.3	0.0	0.3	0.0	4.6	0.0	0.0	8.7	37.7	2.4	1.8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4,363	39,424	131,400	166,102	11,001	90,963	3,040	5,257	118	396	656	69	1,805	2,461	143	1,057,198

4. 평소 건강상태

장애인들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는 <표 5-3-7>과 같이 건강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5.7%, ‘좋다’ 22.4%의 순으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62.8%)이 더 많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았는데, 특히 호흡기장애(81.5%), 심장장애(76.5%), 신장장애(75.4%), 뇌병변장애(69.7%), 간장애(64.5%)의 경우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자폐성장애가 7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적장애(50.7%), 안면장애(33.3%)의 순이었다.

〈표 5-3-7〉 평소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좋다	5.5	0.8	4.4	4.7	7.7	18.9	34.8	5.4	0.0	0.7	0.4	2.7	13.1	2.3	2.2	5.7
약간 좋다	14.8	9.1	21.9	19.5	21.3	31.8	37.2	23.6	6.5	5.6	4.9	9.1	20.2	15.8	14.5	16.7
보통이다	27.0	20.4	24.9	28.6	24.9	24.0	19.8	28.1	18.0	17.3	13.1	23.7	37.7	27.3	24.8	25.7
약간 나쁘다	36.9	35.5	37.1	34.2	34.3	20.7	6.7	30.5	38.9	41.2	39.4	30.6	22.0	35.7	39.1	35.1
매우 나쁘다	15.7	34.2	11.7	13.0	11.8	4.7	1.6	12.4	36.5	35.3	42.1	33.9	7.0	18.9	19.4	1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5. 건강검진 경험

최근 2년간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는 <표 5-3-8>와 같이 장애인의 52.7%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57.1%), 청각장애(55.9%), 시각장애(55.7%), 심장장애(53.4%), 간장애(52.3%) 등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지적장애(59.0%), 뇌병변장애(58.9%), 정신장애(57.4%) 등은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3-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57.1	41.1	55.7	55.9	43.5	41.0	49.4	42.6	36.8	53.4	50.9	52.3	44.8	46.7	32.8	52.7
아니오	42.9	58.9	44.3	44.1	56.5	59.0	50.6	57.4	63.2	46.6	49.1	47.7	55.2	53.3	67.2	4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는 <표 5-3-9>와 같이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8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11.6%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94.0%)와 자폐성장애(90.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장애(38.0%)는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9〉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11.6	15.3	9.1	9.8	16.9	8.4	7.1	6.0	32.2	17.9	13.5	38.0	12.4	18.8	16.0	11.6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0.7	0.8	0.0	0.0	0.0	0.0	0.8	0.0	0.4	0.0	0.3	0.7	1.4	1.2	2.0	0.5
건강보험 건강검진	87.2	83.9	89.2	90.0	81.4	90.0	90.7	94.0	67.1	82.1	86.2	61.3	86.1	79.2	82.0	87.3
기타	0.5	0.0	1.6	0.1	1.6	1.6	1.3	0.0	0.4	0.0	0.0	0.0	0.0	0.8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46,265	90,152	122,474	116,031	6,576	57,440	6,084	36,149	17,782	7,797	7,327	3,408	980	5,306	2,916	1,126,687

6. 외래 치료 경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장애상태 치료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를 받아본 경험여부는 <표 5-3-10>와 같이 장애인의 45.8%가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의 외래 치료가 80.9%로 가장 많았는데, 신장장애의 경우 신장이식을 받지 않은 신장장애인의 콩팥을 대신해줄 수 있는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주 3회 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래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자폐성장애는 71.9%가 외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폐성장애는 병원의 외래 치료보다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의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3-10〉 최근 2주간 외래치료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47.0	46.6	44.0	42.4	34.5	30.2	28.1	46.2	80.9	54.4	56.3	50.2	30.1	50.7	41.2	45.8
아니오	53.0	53.4	56.0	57.6	65.5	69.8	71.9	53.8	19.1	45.6	43.7	49.8	69.9	49.3	58.8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장애상태 치료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를 받은 횟수는 <표 5-3-11>과 같이 장애인의 84.5%가 5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횟수는 2.7회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의 69.1%가 6~10회로 가장 외래 치료 횟수가 많았고, 신장장애의 전체 외래 치료 평균 횟수가 5.0회로 가장 많았다. 앞서 살펴본 신장장애의 외래 치료 경험 비율과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3-11〉 최근 2주간 외래치료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회 이하	84.6	86.5	85.4	91.6	93.9	96.1	95.5	95.6	30.0	87.7	91.5	98.4	90.7	90.0	95.4	84.5
6~10회	13.3	11.7	13.9	6.5	6.1	3.2	3.0	4.2	69.1	9.8	6.7	1.6	7.5	9.2	4.3	13.7
11~15회	1.8	1.7	0.7	1.9	0.0	0.7	1.5	0.2	0.9	1.4	1.8	0.0	0.0	0.8	0.2	1.5
16회 이상	0.3	0.1	0.0	0.0	0.0	0.0	0.0	0.0	0.0	1.1	0.0	0.0	1.8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평균횟수	2.8	2.6	2.7	2.4	2.0	1.8	1.9	1.5	5.0	2.7	2.3	1.5	2.7	2.4	1.9	2.7

최근 2주간 받은 외래 치료의 주된 비용부담방법은 <표 5-3-12>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이 7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22.7%, 산재보험 1.7% 등의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장애(80.9%)와 장루·요루장애(80.6%)가 비용부담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65.1%)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12〉 외래치료 이용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국민건강보험	76.4	71.8	72.7	80.9	71.6	44.9	79.0	34.7	62.3	74.4	71.3	70.9	72.1	80.6	43.1	72.2
자동차보험	0.3	0.2	0.0	0.5	0.7	0.0	0.0	0.0	0.0	0.0	0.5	0.6	0.0	0.5	0.5	0.2
산재보험	2.3	2.0	1.6	0.1	0.0	1.2	0.0	0.0	0.0	1.5	2.9	0.8	0.0	0.6	0.0	1.7
의료급여	18.3	21.4	21.2	16.5	23.3	47.3	14.3	65.1	33.0	20.1	23.8	24.3	24.5	15.2	52.2	22.7
민간의료보험	0.0	0.0	0.0	0.0	0.0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전액자비	1.0	1.6	3.9	0.7	1.0	4.5	6.7	0.1	0.1	1.3	1.0	1.0	0.0	0.0	2.5	1.4
기타	1.7	3.0	0.7	1.4	3.5	0.7	0.0	0.0	4.6	2.7	0.4	2.4	3.4	3.1	1.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최근 2주간 받은 외래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액은 <표 5-3-13>과 같이 50만원 미만이 81.6%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본인부담금액은 4만 4천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170.9천원)와 신장장애(104.2천원)의 외래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표 5-3-13〉 외래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단위: %, 명,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84.3	71.1	84.5	82.0	75.4	82.5	78.7	94.6	61.2	67.4	69.8	43.8	91.0	76.0	83.5	81.6
50~99만원	9.6	15.3	7.0	11.4	8.0	8.7	8.8	4.0	4.1	16.2	12.9	8.8	1.8	8.7	9.7	9.7
100~149만원	2.1	6.5	1.6	2.3	5.9	5.1	6.1	0.5	2.1	5.3	8.5	7.2	5.0	4.0	1.5	2.7
150~199만원	0.8	3.7	0.2	2.1	5.1	0.4	1.0	0.0	4.6	4.6	5.0	8.8	2.1	3.3	2.1	1.4
200~249만원	1.0	0.8	1.9	1.2	1.0	2.4	0.0	0.0	12.5	2.3	1.6	3.9	0.0	2.8	0.0	1.6
250~299만원	0.9	0.0	0.0	0.0	0.6	0.0	1.3	0.0	4.7	1.3	0.4	5.5	0.0	0.7	0.8	0.7
300~349만원	0.6	0.5	2.2	0.0	0.0	0.0	1.0	0.9	4.3	0.2	0.7	6.3	0.0	1.6	0.0	0.8
350~399만원	0.0	0.2	0.0	0.0	0.0	0.0	0.0	0.0	0.8	1.1	0.4	1.3	0.0	0.5	0.0	0.1
400~499만원	0.2	1.2	0.1	0.3	1.7	0.0	1.3	0.0	2.0	0.4	0.8	4.7	0.0	0.0	0.8	0.4
500만원 이상	0.6	0.8	2.5	0.6	2.3	0.8	1.8	0.0	3.7	1.3	0.0	9.7	0.0	2.2	1.5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평균금액	31.8	50.6	97.2	40.0	64.8	29.4	50.7	12.5	104.2	70.5	49.0	170.9	19.0	61.3	33.1	44.3

최근 2주간 외래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표 5-3-14>와 같이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7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15.4%, ‘불만족한다’ 5.4%의 순으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외래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심장장애(82.1%), 간질장애(82.0%), 시각장애(81.7%), 정신장애(81.7%)가 외래진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해하고 있었다.

〈표 5-3-14〉 외래진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36.8	34.3	35.4	31.8	35.6	36.1	40.7	39.4	39.5	41.4	39.4	41.5	31.2	33.6	33.0	36.2
약간 만족한다	43.6	36.1	46.3	48.1	40.9	40.6	39.0	42.3	39.5	40.7	42.6	35.3	37.0	46.1	49.0	43.1
보통이다	15.7	20.0	11.2	14.8	19.7	15.4	17.8	13.5	13.9	12.5	13.9	17.0	29.1	15.9	13.0	15.4
약간 불만족한다	3.6	8.6	6.8	5.2	3.3	7.6	1.1	4.8	6.3	4.8	3.4	5.4	1.5	3.7	4.6	5.0
매우 불만족한다	0.3	1.0	0.2	0.0	0.6	0.4	1.4	0.0	0.8	0.7	0.7	0.9	1.2	0.7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7. 입원 경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나 건강을 위해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해 본 경험 여부는 <표 5-3-15>와 같이 장애인의 19.6%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의 입원경험이 5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47.0%, 신장장애 44.0% 등의 순이었다.

<표 5-3-15>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19.0	26.7	15.1	14.6	18.4	9.5	9.2	25.7	44.0	35.8	47.0	50.4	21.1	29.4	21.9	19.6
아니오	81.0	73.3	84.9	85.4	81.6	90.5	90.8	74.3	56.0	64.2	53.0	49.6	78.9	70.6	78.1	8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최근 1년간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한 횟수는 <표 5-3-16>과 같이 장애인의 97.8%가 5회 이하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나 건강을 위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났으며 전체 평균 횟수는 1.6회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와 안면장애는 100.0% 5회 이하의 입원 경험이 있었고, 입원 평균횟수가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간장애로 평균 2.8회였다.

<표 5-3-16> 최근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회 이하	97.9	97.8	99.2	99.0	98.9	96.1	100.0	97.9	96.8	97.7	92.3	91.7	100.0	89.2	93.6	97.8
6회~10회	1.2	2.2	0.1	0.2	1.1	3.9	0.0	1.4	2.5	1.2	5.1	4.9	0.0	8.9	4.4	1.5
11회~15회	0.1	0.0	0.0	0.8	0.0	0.0	0.0	0.7	0.0	0.6	1.0	1.4	0.0	0.0	0.0	0.2
16회~20회	0.0	0.0	0.7	0.0	0.0	0.0	0.0	0.0	0.0	0.5	0.0	1.4	0.0	0.0	0.0	0.1
21회~25회	0.7	0.0	0.0	0.0	0.0	0.0	0.0	0.0	0.7	0.0	0.2	0.6	0.0	1.9	0.0	0.4
26회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0.0	0.0	0.0	2.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평균횟수	1.5	1.6	1.7	1.4	1.4	1.5	1.4	1.6	2.0	1.9	2.4	2.8	1.3	2.4	3.3	1.6

최근 1년간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한 일수는 <표 5-3-17>과 같이 장애인의 71.7%가 30일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입원일수는 37.7일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경우 입원일수가 101일 이상이 37.8%(평균입원일수 114.8일)로 장기입원 중인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표 5-3-17〉 최근 1년간 입원일수

(단위: %, 명, 일)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30일 이하	74.1	66.7	75.6	80.4	79.4	75.2	87.7	39.5	73.9	75.5	62.3	64.2	91.8	73.5	76.2	71.7
31~60일	13.4	16.1	11.7	11.9	14.3	6.2	5.9	14.0	12.7	16.1	17.3	17.0	3.7	18.6	12.8	13.4
61~100일	6.6	4.0	11.8	4.5	2.9	10.1	6.4	8.8	9.2	4.3	5.0	9.0	4.6	1.6	8.6	6.8
101~200일	3.6	6.5	0.4	1.6	3.4	5.9	0.0	15.6	4.1	3.8	5.1	7.1	0.0	6.2	1.2	4.4
201일 이상	2.3	6.6	0.5	1.7	0.0	2.7	0.0	22.2	0.2	0.2	10.4	2.7	0.0	0.0	1.2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평균일수	31.1	47.8	27.1	26.2	25.6	40.1	16.9	114.8	28.0	26.1	65.9	42.0	14.7	26.8	30.3	37.7

최근 1년간 입원으로 지출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은 <표 5-3-18>과 같이 50만원 미만인 42.5%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본인부담금액은 175만 3천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가 외래 치료와 마찬가지로 평균 본인부담금액이 1천 15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5-3-18〉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41.9	34.7	36.9	47.3	38.4	65.8	44.2	75.5	31.3	34.9	37.9	19.3	38.9	34.6	44.2	42.5
50~99만원	18.6	15.3	12.6	16.5	19.0	14.1	27.9	7.5	14.8	18.4	22.5	10.2	12.0	15.3	15.7	16.6
100~149만원	11.9	14.0	16.3	9.6	4.8	5.8	13.6	5.6	13.0	6.3	9.9	11.1	16.7	11.3	13.4	11.7
150~199만원	6.1	5.7	5.5	10.3	11.9	11.8	4.1	1.8	2.6	6.8	5.8	9.9	4.3	1.8	2.5	6.1
200~249만원	3.1	2.0	7.6	3.3	4.5	0.0	0.0	0.0	7.5	3.9	5.0	5.7	0.0	6.6	3.9	3.4
250~299만원	1.4	2.6	3.2	0.0	2.5	0.0	0.0	1.4	3.8	2.2	1.7	4.4	0.0	2.9	4.7	1.8
300~349만원	3.3	6.9	1.2	4.2	6.2	0.0	2.3	3.0	6.7	3.8	3.9	4.9	1.7	7.5	5.2	3.8
350~399만원	1.3	2.7	4.7	1.9	0.9	0.0	5.2	0.0	2.8	2.1	1.7	2.7	0.0	0.0	0.0	1.8
400~499만원	2.3	1.5	5.9	2.3	0.7	0.0	0.0	3.7	2.9	4.7	4.2	1.7	0.0	8.8	3.9	2.6
500만원 이상	10.3	14.6	6.2	4.5	11.2	2.5	2.7	1.4	14.4	17.0	7.4	30.1	26.3	11.2	6.5	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9,927	33,306	29,839	2,757	13,339	1,135	21,757	21,249	5,176	6,717	3,263	460	3,335	1,944	417,272
평균금액	175.4	205.9	155.8	115.7	159.0	58.7	90.9	63.0	234.0	326.1	152.6	1,015.4	212.6	236.8	141.4	175.3

최근 1년간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은 <표 5-3-19>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이 6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22.3%, 자동차보험 7.8%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77.3%)가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74.5%)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19〉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국민건강보험	62.5	66.4	68.5	60.6	67.6	31.7	63.6	21.3	60.2	63.8	61.2	68.4	67.2	77.3	48.9	60.3
자동차보험	10.2	4.0	6.5	10.5	6.8	10.7	1.5	3.4	0.0	3.8	1.1	2.1	0.0	4.3	7.6	7.8
산재보험	5.2	3.5	0.5	0.0	2.9	2.9	4.1	0.0	0.0	1.6	11.5	0.8	0.0	0.4	3.7	3.6
의료급여	16.3	20.0	13.8	20.3	19.0	50.7	28.1	74.5	33.3	23.2	23.5	24.0	13.9	13.7	35.3	22.3
민간의료보험	1.3	1.0	0.8	1.6	0.0	0.0	0.0	0.0	0.0	0.7	0.0	0.0	0.0	0.0	1.6	1.0
전액자비	0.6	0.8	0.2	1.1	0.0	3.9	2.7	0.0	2.9	1.2	1.8	3.8	6.1	1.3	1.4	0.9
기타	3.9	4.2	9.7	6.0	3.7	0.0	0.0	0.8	3.6	5.6	0.9	1.0	12.8	2.9	1.5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최근 1년간 병의원에 입원하여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표 5-3-20>과 같이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7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16.4%, ‘불만족한다’ 10.3%의 순으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입원진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심장장애(81.3%), 안면장애(80.0%)가 입원진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해하고 있었다.

〈표 5-3-20〉 입원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36.2	39.6	37.2	37.7	36.1	23.0	43.2	33.9	28.3	43.3	39.2	43.6	46.5	34.5	28.0	36.1
약간 만족한다	40.2	33.9	21.6	37.5	35.3	54.8	30.7	29.9	38.8	38.0	37.0	27.8	33.5	40.0	36.9	37.2
보통이다	15.2	16.0	23.1	14.1	22.5	12.5	11.3	18.6	24.8	11.7	13.6	17.4	11.3	13.4	17.1	16.4
약간 불만족한다	5.2	6.9	13.2	10.5	4.3	9.7	11.7	11.8	5.1	3.7	8.2	7.3	8.7	7.3	13.0	7.0
매우 불만족한다	3.3	3.6	4.9	0.2	1.8	0.0	3.1	5.7	3.0	3.2	2.0	3.8	0.0	4.8	5.0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8. 만성질환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여부는 <표 5-3-21>과 같이 장애인의 75.9%가 자신

의 장애상태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가 9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신장애 97.7%, 호흡기장애 97.5%, 심장장애 96.4%, 신장장애 94.2% 등의 순이었다.

〈표 5-3-21〉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74.7	90.6	74.4	75.8	64.6	44.6	31.3	97.7	94.2	96.4	97.5	78.2	47.2	81.9	99.0	75.9
아니오	25.3	9.4	25.6	24.2	35.4	55.4	68.7	2.3	5.8	3.6	2.5	21.8	52.8	18.1	1.0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이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주된 만성질환 1순위로는 <표 5-3-22>과 같이 고혈압의 비율이 20.1%로 가장 높았고, 기타 16.7%,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11.5%, 뇌졸중 9.2%, 당뇨병 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4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앓고 있었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 적합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5-3-22〉 주된 만성질환명(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고혈압	22.6	19.4	24.4	24.4	20.4	5.9	1.0	0.2	18.9	5.1	3.6	7.7	13.1	19.6	0.7	20.1
고지혈증	1.4	0.3	0.3	0.4	0.0	0.0	1.2	0.0	0.9	0.8	0.0	0.0	0.0	0.2	0.0	0.9
뇌졸중(중풍)	1.8	61.3	1.9	3.1	21.5	2.4	0.0	0.5	0.6	0.6	0.0	0.0	3.1	0.0	0.6	9.2
심근경색증	0.9	0.5	1.7	0.7	2.1	0.0	0.0	0.0	0.6	40.8	0.4	0.0	2.1	1.2	0.4	1.1
협심증	0.7	0.3	0.6	0.8	0.4	0.0	0.0	0.0	0.1	14.5	0.5	0.6	0.0	2.3	0.0	0.7
치질(치핵)	0.2	0.0	0.1	0.0	0.0	3.0	0.9	0.0	0.0	0.0	0.2	0.0	1.6	0.0	0.0	0.3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19.0	1.0	5.6	7.5	6.5	4.4	0.0	0.0	0.3	0.5	0.6	0.2	2.8	3.3	0.9	11.5
류마티스성 관절염	3.9	0.2	0.3	1.0	2.4	0.6	0.0	0.0	0.0	0.2	0.5	0.9	0.0	0.6	0.8	2.3
골다공증	2.3	0.2	2.1	2.2	0.2	0.3	0.0	0.0	1.0	0.3	0.0	1.3	2.7	0.5	0.0	1.7
요통	9.4	0.9	1.2	3.8	0.2	1.4	0.0	0.1	0.6	0.0	0.0	1.8	1.2	1.5	0.0	5.6
폐결핵	0.1	0.0	0.3	0.3	0.0	0.0	0.0	0.0	0.1	0.0	9.9	0.0	0.0	0.5	0.0	0.2
폐외결핵	0.1	0.0	0.0	0.0	0.0	0.0	0.0	0.0	0.6	0.1	0.4	0.0	0.0	0.7	0.0	0.1
천식	0.8	0.1	2.3	2.3	1.3	1.8	2.5	0.0	0.0	0.0	25.4	0.0	1.3	0.0	0.1	1.2
만성폐쇄성 폐질환	0.0	0.0	0.2	2.1	1.9	0.0	1.0	0.0	0.0	0.7	39.8	0.0	0.0	0.8	0.4	0.6
부비동염(축농증)	0.0	0.0	0.0	0.6	0.0	1.2	1.4	0.0	0.0	0.0	0.0	0.4	0.0	0.0	0.4	0.1
기관지 확장증	0.5	0.0	0.0	0.0	0.0	0.0	0.0	0.5	0.1	0.0	5.7	0.0	0.0	0.6	0.0	0.3

〈표 5-3-22〉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알레르기성 비염	0.7	0.3	1.5	0.4	1.1	3.9	22.6	0.0	0.0	0.0	0.4	0.0	1.5	0.3	0.0	0.8
우울증	1.1	0.2	0.4	0.9	2.4	8.3	1.7	7.4	0.0	0.0	0.0	0.6	5.2	0.4	0.3	1.5
정신분열병	0.1	0.1	0.0	0.3	0.7	4.7	3.4	79.7	0.0	0.0	0.0	0.0	0.0	0.0	0.4	4.3
조울증(양극성정 동장애)	0.2	0.0	0.0	0.0	0.5	2.3	0.9	5.1	0.0	0.0	0.0	0.0	0.0	0.0	0.0	0.4
분열정동장애	0.0	0.0	0.0	0.0	0.0	0.0	0.0	2.3	0.0	0.0	0.0	0.0	0.0	0.0	0.0	0.1
빈혈	0.6	0.0	0.3	0.8	0.9	1.0	3.2	0.0	0.1	0.0	0.3	0.6	2.0	0.0	0.0	0.5
아토피 피부염	0.5	0.1	0.3	0.4	1.9	6.2	20.1	0.2	0.1	0.6	0.0	1.1	1.9	0.3	0.0	0.7
신부전	0.8	0.2	1.2	1.5	0.3	1.0	0.0	0.0	64.7	0.4	0.0	0.7	0.0	0.4	0.0	2.6
요설금	0.0	0.1	0.1	0.3	0.0	0.8	0.0	0.0	0.0	0.0	0.2	0.2	4.3	0.5	0.0	0.1
당뇨병	6.3	2.9	17.1	8.2	3.2	4.9	2.4	1.1	7.2	2.3	0.2	14.7	1.6	6.9	0.3	6.7
갑상선 장애	0.9	0.0	0.4	0.6	1.7	1.7	1.2	0.0	0.0	0.4	0.0	0.5	3.1	0.0	0.0	0.7
백내장	0.5	0.0	7.1	1.0	0.4	1.3	0.0	0.0	0.1	0.0	0.0	0.6	0.0	1.0	0.0	1.1
녹내장	0.4	0.0	8.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1.0
중이염	0.1	0.0	0.8	19.1	2.3	2.5	1.7	0.0	0.0	0.0	0.1	0.6	0.0	0.0	0.0	2.1
위암	0.5	0.0	1.3	1.1	1.4	0.0	0.0	0.0	0.2	0.0	0.0	0.0	0.0	1.4	0.0	0.5
간암	0.0	0.1	0.1	0.1	0.0	0.0	0.0	0.0	0.1	0.0	0.0	14.8	4.6	0.6	0.1	0.1
대장암	0.0	0.0	0.0	0.3	0.5	0.0	0.0	0.0	0.1	0.0	0.0	0.0	0.0	8.1	0.0	0.1
유방암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0.0	0.0	0.1	0.0
자궁경부암	0.0	0.0	0.0	0.9	0.0	0.5	0.0	0.0	0.0	0.0	0.0	0.0	0.0	0.8	0.0	0.1
폐암	0.0	0.3	0.1	0.4	0.3	0.0	0.0	0.0	0.1	0.2	1.8	0.0	0.0	0.6	0.0	0.1
기타 암	0.9	1.9	1.1	2.3	10.1	0.4	0.0	0.0	0.3	0.0	0.9	6.1	4.1	36.7	0.8	1.4
위십이지장궤양	0.8	0.2	0.6	0.9	0.5	0.6	0.0	0.0	0.0	0.4	0.0	0.0	3.2	0.4	0.0	0.6
B형 간염	1.5	0.0	0.9	0.2	0.8	1.2	0.0	0.0	0.1	0.0	0.0	2.6	0.0	0.0	0.0	1.0
C형 간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0.0	0.0	0.0	0.0
간경변증	1.0	0.0	0.9	0.7	0.5	0.0	0.0	0.0	0.0	0.0	0.2	36.5	0.0	0.3	0.0	0.8
기타	19.2	9.5	16.9	10.1	13.6	37.4	34.8	2.9	3.2	32.2	8.9	6.2	40.7	9.5	93.6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45,458	198,588	163,790	157,154	9,753	62,533	3,854	82,813	45,463	14,078	14,034	5,091	1,032	9,295	8,792	1,621,731

9. 병원진료 못한 이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장애나 건강을 위해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험여부는 <표 5-3-23>과 같이 장애인의 22.1%가 병원에 못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가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25.2%, 뇌병변장애 25.3% 등의 순이었다.

〈표 5-3-23〉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25.2	25.3	20.8	17.9	15.6	12.4	16.1	10.9	12.9	21.1	18.7	14.0	28.6	17.3	24.6	22.1
아니오	74.8	74.7	79.2	82.1	84.4	87.6	83.9	89.1	87.1	78.9	81.3	86.0	71.4	82.7	75.4	7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상태나 건강을 위해 병의원에 수술이나 치료하러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표 5-3-24>와 같이 ‘돈이 없어서’가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13.8%, ‘교통이 불편해서’ 12.8%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간장애(82.8%)와 안면장애(78.6%)가 특히 ‘돈이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 두 장애유형의 경우 간이식이나 피부이식 등 수술이나 치료시 특수 검사비 및 특수 시술비용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3-24〉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돈이 없어서	57.1	52.2	66.3	54.0	73.9	47.4	54.1	49.4	75.4	68.4	65.6	82.8	78.6	66.6	77.9	57.3
병의원 등에 예약이 힘들어서	2.5	1.4	0.0	2.3	1.7	0.0	0.0	0.0	0.4	1.1	0.0	0.0	5.6	2.1	0.0	1.9
교통이 불편해서	12.8	20.3	10.7	9.5	1.9	8.7	1.6	12.9	6.8	12.9	17.7	6.6	1.6	12.2	6.5	12.8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원이 안 열어서	16.7	4.1	9.1	19.1	6.8	8.6	4.3	9.6	14.3	8.2	4.9	3.7	5.8	4.7	1.7	13.8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0.6	2.4	3.4	3.0	4.9	3.0	7.9	3.4	1.0	3.9	2.7	0.0	0.0	2.1	1.2	1.5
증상이 가벼워서	8.8	2.8	4.0	9.0	2.4	9.5	6.1	3.2	0.8	4.6	5.9	0.0	8.5	2.5	5.8	7.3
기타	1.6	16.8	6.5	3.2	8.4	22.8	26.1	21.4	1.2	0.9	3.2	6.9	0.0	9.7	6.9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4,783	55,534	45,777	37,208	2,353	17,340	1,983	9,250	6,238	3,080	2,694	912	625	1,969	2,187	471,933

10. 향후 필요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표 5-3-25>와 같이 전체 장애인의 29.7%가 재활전문병원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3차병원 재활의학과 21.4%, 방문재활치료 13.6%, 장애특화서비스 13.2%, 요양병원 13.2%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각종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전문 병원에 대한 응답이 각각 36.5%, 30.2%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는 장기적으로 요양할 수 있는 요양병원(33.6%)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장애인 치과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화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각각 46.3%, 33.7%로 가장 많아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3-25〉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3차병원 재활의학과	21.7	20.3	25.8	21.6	19.3	13.3	8.7	13.9	28.0	30.0	31.4	32.4	20.7	27.4	25.4	21.4
재활전문병원	36.5	30.2	20.1	21.4	27.2	18.4	15.5	18.2	20.1	18.1	14.1	15.0	28.9	16.8	12.9	29.7
요양병원	8.6	15.0	14.2	19.2	11.9	12.6	3.6	33.6	11.7	14.4	16.9	10.7	5.0	13.9	16.9	12.3
낮병원 또는 외에서 의 재활치료	3.9	3.3	3.9	4.0	3.8	4.6	5.7	7.0	3.4	3.5	4.7	4.4	2.0	3.7	4.9	4.0
방문재활치료	13.4	20.8	12.3	12.0	12.7	13.5	12.8	7.7	14.0	10.5	15.4	6.2	7.6	12.8	7.2	13.6
장애인 특화서비스	9.7	5.4	18.0	16.5	19.7	33.7	46.3	16.1	14.3	13.9	9.5	18.5	25.8	14.9	25.7	13.2
기타	6.1	5.0	5.6	5.4	5.3	3.8	7.5	3.4	8.6	9.7	8.0	12.7	10.1	10.4	7.1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1,847	218,638	218,715	207,024	15,005	139,081	12,302	84,738	48,052	14,607	14,309	6,514	2,185	11,356	8,859	2,133,232

제4절 일상생활 지원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5-4-1>와 같이 총 14개 항목 중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데 있어 자립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개인위생 관련 항목인 ‘목욕하기’, ‘머리감기’, ‘옷 입고 벗기’로 나타났다. 즉 목욕하기의 경우 완전자립 80.3%, 부분도움 13.6%, 완전도움 6.1%였고, 머리감기는 완전자립 85.2%, 부분도움 9.2%, 완전도움 5.6%, 옷 입고 벗기는 완전자립 87.3%, 부분도움 9.7%, 완전도움 3.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머리감기, 휠체어타기 총 14개의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는 옷 입고 벗기와 개인위생 관련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머리감기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장루·요루장애는 대변조절하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4-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옷 입고벗기																
완전자립	91.9	57.1	91.4	97.7	91.6	70.9	52.8	90.7	92.2	92.5	95.3	95.3	99.0	97.1	96.2	87.3
부분도움	6.4	27.2	8.2	1.3	7.9	25.1	42.3	8.3	7.0	6.5	4.4	3.1	1.0	1.4	3.4	9.7
완전도움	1.7	15.8	0.4	1.0	0.5	4.0	4.9	1.1	0.8	1.1	0.3	1.6	0.0	1.6	0.5	3.0
세수하기																
완전자립	96.4	71.2	97.7	98.5	95.8	79.1	60.2	94.5	94.8	96.6	97.0	97.0	99.0	97.4	98.1	92.7
부분도움	2.2	15.4	2.1	0.6	3.0	16.4	33.8	4.3	4.6	2.4	2.7	2.3	1.0	1.3	0.9	4.7
완전도움	1.4	13.5	0.2	0.8	1.2	4.5	6.0	1.2	0.6	0.9	0.3	0.7	0.0	1.3	1.0	2.6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96.8	71.1	97.1	98.3	96.0	75.0	56.2	91.8	94.6	95.2	96.4	97.1	99.0	96.8	98.7	92.4
부분도움	1.9	15.7	2.6	0.7	3.2	19.9	35.8	6.8	4.8	4.1	3.5	2.1	1.0	1.9	0.9	5.0
완전도움	1.2	13.2	0.3	0.9	0.9	5.1	8.0	1.3	0.6	0.7	0.1	0.7	0.0	1.3	0.5	2.6
목욕하기																
완전자립	86.4	38.3	89.1	93.9	85.7	60.1	31.0	85.3	83.4	83.9	76.6	87.5	96.1	85.3	92.0	80.3
부분도움	10.5	34.3	9.5	4.6	10.2	26.4	46.3	10.8	12.6	12.1	20.4	9.8	2.3	11.7	5.0	13.6
완전도움	3.1	27.4	1.4	1.5	4.1	13.5	22.7	3.8	4.0	4.0	3.1	2.6	1.6	3.0	2.9	6.1
식사하기																
완전자립	97.6	72.7	94.1	98.8	96.6	88.0	75.1	95.9	96.9	96.8	98.9	98.2	99.0	97.5	98.6	94.0
부분도움	1.6	17.0	5.6	0.6	2.5	9.1	22.6	3.6	2.5	2.9	1.1	1.1	1.0	2.1	1.4	4.2
완전도움	0.8	10.3	0.2	0.5	0.9	2.9	2.3	0.5	0.6	0.3	0.0	0.7	0.0	0.4	0.0	1.8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7.2	81.8	99.0	99.1	99.3	98.2	97.6	99.2	97.9	97.5	99.1	98.8	100.0	98.5	99.5	96.2
부분도움	1.9	7.8	0.8	0.4	0.5	1.5	1.4	0.1	1.5	2.0	0.9	0.5	0.0	0.7	0.5	2.1
완전도움	0.9	10.4	0.2	0.5	0.2	0.3	1.0	0.7	0.6	0.6	0.0	0.7	0.0	0.8	0.0	1.7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6.4	76.9	98.7	99.1	99.3	97.6	98.5	98.1	96.4	96.8	98.6	98.1	100.0	97.4	99.5	95.1
부분도움	2.3	11.6	1.1	0.4	0.5	2.1	0.6	1.1	3.0	2.6	1.4	0.7	0.0	1.5	0.5	2.9
완전도움	1.3	11.5	0.2	0.5	0.2	0.3	0.9	0.7	0.6	0.6	0.0	1.2	0.0	1.1	0.0	2.0
술겨얹기																
완전자립	96.5	76.2	99.0	99.1	99.3	98.6	98.4	98.2	95.9	96.8	98.7	97.7	100.0	97.8	99.5	95.2
부분도움	1.8	11.0	0.7	0.4	0.5	1.1	0.7	1.1	3.4	2.6	1.3	1.6	0.0	1.4	0.5	2.4
완전도움	1.8	12.8	0.4	0.5	0.2	0.3	0.9	0.7	0.7	0.6	0.0	0.7	0.0	0.8	0.0	2.4

〈표 5-4-1〉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방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96.0	74.1	96.9	98.7	99.3	97.6	96.2	97.2	96.3	96.4	97.0	97.7	100.0	97.4	98.8	94.3
부분도움	2.3	12.4	2.7	0.5	0.5	2.1	2.9	2.1	2.3	2.9	2.6	1.0	0.0	1.5	1.2	3.2
완전도움	1.7	13.5	0.4	0.8	0.2	0.3	0.9	0.7	1.4	0.7	0.4	1.4	0.0	1.1	0.0	2.5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96.1	69.4	97.4	97.8	97.1	81.8	67.6	94.0	94.4	95.7	97.2	96.9	100.0	94.6	98.4	92.5
부분도움	2.2	16.3	2.4	1.2	2.7	14.8	29.6	4.2	4.1	3.6	2.5	2.2	0.0	2.6	1.2	4.7
완전도움	1.7	14.2	0.2	1.0	0.2	3.4	2.8	1.8	1.5	0.7	0.3	0.8	0.0	2.8	0.5	2.8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6.0	72.7	97.4	98.1	97.6	86.7	75.9	94.5	96.1	96.4	97.6	96.6	100.0	18.1	97.7	92.8
부분도움	2.2	15.4	2.3	0.9	1.5	10.0	20.6	3.7	3.1	2.9	2.1	2.5	0.0	1.7	1.4	4.1
완전도움	1.8	11.9	0.3	1.0	0.9	3.3	3.6	1.8	0.8	0.7	0.3	0.8	0.0	80.2	0.9	3.1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5.5	72.9	95.6	97.0	97.2	85.7	84.7	92.9	93.5	94.4	96.8	96.4	97.4	74.2	95.3	92.4
부분도움	2.8	14.7	3.7	1.5	1.9	11.0	12.1	5.3	2.3	4.0	3.1	2.7	1.7	4.6	3.1	4.7
완전도움	1.7	12.4	0.7	1.5	0.9	3.3	3.2	1.8	4.2	1.6	0.1	0.8	0.8	21.2	1.6	2.9
머리감기																
완전자립	90.7	50.4	94.1	95.7	89.6	65.5	34.9	87.4	87.4	90.4	84.0	95.1	97.4	94.1	94.0	85.2
부분도움	6.3	25.3	4.6	3.0	6.9	22.4	45.5	9.9	9.0	6.1	14.0	3.4	1.0	2.9	3.5	9.2
완전도움	3.1	24.3	1.2	1.4	3.5	12.1	19.5	2.7	3.6	3.5	2.0	1.6	1.6	3.0	2.5	5.6
월치어 타기																
완전자립	92.3	62.2	95.9	97.1	95.9	91.7	91.5	97.3	95.5	94.4	95.0	98.4	97.6	97.3	98.4	90.4
부분도움	5.8	17.2	2.9	1.6	2.1	5.3	6.5	0.4	3.4	3.1	4.1	0.9	1.4	1.6	0.4	5.8
완전도움	1.9	20.6	1.2	1.3	2.0	3.1	2.0	2.4	1.0	2.5	0.9	0.7	1.0	1.1	1.2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6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보다 경증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인데, 앞서 본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5-4-2>와 같이 총 10개 항목 중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데 있어 자립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가사 관련 항목인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로 나타났다. 즉 집안일하기의 경우 완전자립 62.1%, 부분도움 27.5%, 완전도움 10.4%였고, 빨래하기는 완전자립 66.0%, 부분도움 22.6%, 완전도움 11.3%, 식사준비하기는 완전자립 67.5%, 부분도움 21.6%, 완전도움 10.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 빨래하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몸단장하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는 총 10개의 영역에 걸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과 마찬가지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도 15개의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4-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집안일하기																
완전자립	68.9	22.2	72.6	82.4	71.5	31.9	9.2	50.0	64.7	59.6	49.1	71.8	84.2	73.9	81.2	62.1
부분도움	25.7	42.0	21.0	14.0	20.3	42.3	39.1	36.6	28.2	31.7	43.1	21.6	14.2	21.8	14.8	27.5
완전도움	5.4	35.8	6.5	3.5	8.2	25.7	51.7	13.5	7.1	8.7	7.8	6.6	1.6	4.3	4.1	10.4
식사준비하기																
완전자립	78.6	26.4	73.6	83.7	71.7	23.9	6.0	45.7	71.3	68.0	57.5	74.8	89.0	79.8	79.5	67.5
부분도움	16.4	37.3	19.0	12.5	19.1	44.9	34.0	40.6	21.6	23.3	35.4	18.2	9.4	16.1	16.1	21.6
완전도움	5.1	36.3	7.4	3.8	9.3	31.2	60.0	13.7	7.1	8.7	7.1	7.0	1.6	4.0	4.5	10.9
빨래하기																
완전자립	74.5	25.8	74.9	81.9	71.9	32.0	8.6	54.9	68.4	65.9	56.2	73.1	86.3	75.6	82.2	66.0
부분도움	20.3	35.4	17.2	14.1	19.2	35.2	29.8	32.1	24.7	24.3	36.2	19.6	12.1	20.4	13.1	22.6
완전도움	5.2	38.8	7.9	4.0	9.0	32.8	61.5	13.0	6.9	9.9	7.6	7.3	1.6	4.1	4.7	11.3
금전관리																
완전자립	90.2	42.2	76.6	80.9	61.4	7.2	2.8	29.2	83.2	78.9	85.3	88.1	91.9	89.2	69.2	74.0
부분도움	6.4	28.1	14.7	12.9	25.7	36.3	26.9	45.2	13.3	15.3	11.5	6.7	5.6	7.7	23.4	14.2
완전도움	3.4	29.7	8.7	6.3	12.9	56.6	70.3	25.6	3.5	5.8	3.2	5.2	2.5	3.1	7.4	11.8
물건사기(쇼핑)																
완전자립	89.7	47.6	78.2	84.7	69.4	19.7	8.7	49.9	82.4	82.8	83.4	89.8	95.7	92.3	82.7	76.7
부분도움	6.9	23.7	13.3	12.0	22.0	46.0	43.7	35.8	12.5	11.8	12.4	6.6	2.7	4.4	13.9	14.0
완전도움	3.4	28.7	8.5	3.3	8.6	34.3	47.6	14.3	5.0	5.4	4.2	3.7	1.6	3.3	3.4	9.3
전화사용하기																
완전자립	95.1	61.4	81.2	57.2	51.5	30.4	19.3	55.5	91.0	91.6	94.8	97.2	96.2	94.3	90.1	79.8
부분도움	3.2	19.9	15.1	27.1	26.7	41.5	37.5	33.4	6.8	6.5	5.0	1.2	2.2	4.1	7.7	12.6
완전도움	1.7	18.7	3.7	15.7	21.8	28.1	43.2	11.1	2.2	1.9	0.2	1.6	1.6	1.7	2.2	7.5
교통수단이용하기																
완전자립	85.1	36.3	74.0	85.8	72.4	27.9	10.7	49.4	82.0	78.5	75.2	86.9	95.7	90.4	81.6	73.2
부분도움	10.8	31.6	18.8	11.3	21.0	43.3	52.6	38.0	13.5	16.9	20.9	11.0	2.9	6.9	15.3	17.5
완전도움	4.2	32.1	7.2	2.9	6.6	28.8	36.7	12.7	4.6	4.6	3.9	2.1	1.4	2.7	3.1	9.4
근거리 외출하기																
완전자립	92.3	52.4	84.2	93.1	88.0	56.5	31.5	63.1	88.7	86.9	80.8	88.9	97.3	93.3	91.3	83.4
부분도움	4.6	20.8	10.3	5.0	8.7	26.3	43.1	29.8	8.3	8.9	15.5	9.5	1.7	4.3	6.5	9.8
완전도움	3.1	26.9	5.5	1.9	3.3	17.2	25.4	7.1	3.1	4.2	3.7	1.6	1.0	2.4	2.3	6.9

〈표 5-4-2〉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뚝단장하기																
완전자립	88.4	40.5	82.7	93.9	85.8	47.0	21.5	71.2	91.2	88.1	91.6	94.8	98.0	94.3	90.3	79.8
부분도움	9.4	39.2	15.4	4.6	10.0	39.5	53.8	25.0	6.5	9.5	8.1	3.3	0.4	4.2	7.8	15.3
완전도움	2.2	20.4	2.0	1.5	4.2	13.5	24.7	3.8	2.3	2.4	0.3	1.9	1.6	1.5	1.9	4.9
약행거먹기																
완전자립	96.2	64.0	87.2	93.7	86.2	39.5	17.9	59.5	94.0	90.9	95.3	95.4	98.0	95.3	89.7	85.9
부분도움	2.4	21.7	11.2	4.8	11.7	44.6	55.4	35.4	4.0	6.9	4.6	2.6	1.0	3.6	8.8	10.1
완전도움	1.5	14.3	1.6	1.5	2.1	15.9	26.6	5.1	2.0	2.2	0.1	1.9	1.0	1.1	1.5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3.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5-4-3>과 같이 장애인의 49.9%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대부분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16.3%로 전체의 66.2%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지체장애, 간장애, 간질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대부분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5-4-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1.8	15.4	62.0	52.1	39.6	5.3	1.1	24.9	56.9	54.0	43.0	68.0	81.0	12.3	62.8	49.9
대부분 혼자서	16.8	11.0	11.4	24.8	24.3	11.2	5.3	17.3	13.3	16.1	19.9	10.3	10.9	67.4	15.1	16.3
일부도움 필요	14.9	30.6	14.8	18.5	23.1	35.1	22.7	35.4	18.5	19.5	27.5	15.9	5.5	15.0	13.6	19.3
대부분 필요	3.8	20.5	9.5	3.4	10.9	35.0	49.8	18.2	7.1	6.8	8.0	3.3	1.6	2.7	7.0	9.1
거의 남의도움 필요	2.7	22.4	2.4	1.2	2.2	13.4	21.1	4.2	4.1	3.5	1.6	2.5	1.0	2.6	1.4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4. 주로 도와주는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4-4>와 같이 전체 장애인의 93.4%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99.7%), 지적장애(98.8%), 정신장애(98.1%), 간장애(96.9%), 뇌병변장애(96.6%)의 경우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루·요루장애(57.1%)는 다른 장애에 비해 도움 필요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5-4-4>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전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92.9	96.6	89.4	87.2	92.4	98.8	99.7	98.1	91.6	93.7	95.3	96.9	91.1	42.9	91.9	93.4
없다	7.1	3.4	10.6	12.8	7.6	1.2	0.3	1.9	8.4	6.3	4.7	3.1	8.9	57.1	8.1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경수	432,254	185,322	83,641	99,417	9,120	132,688	12,191	63,669	20,829	6,712	8,208	2,082	417	9,960	3,301	1,069,811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은 <표 5-4-5>와 같이 배우자(47.6%), 부모(19.2%), 자녀(16.2%), 형제·자매(2.8%), 조부모·손자녀·기타가족(1.6%) 등 가족이 87.4%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은 여전히 주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의 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본 조사에서의 활동보조인의 이용비율은 0.6%으로 매우 낮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장루·요루 주머니 교체 등 개인 위생처리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도움(72.3%)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한 자폐성장애의 경우 부모의 도움(86.3%)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표 5-4-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61.6	56.7	49.2	46.9	54.8	5.9	0.8	14.2	71.0	61.1	71.5	66.0	23.4	72.3	29.5	47.6
부모	8.2	10.5	7.2	8.1	23.8	66.0	86.3	38.5	9.2	15.0	3.7	15.4	37.1	1.8	49.9	19.2
자녀(며느리, 사위)	17.6	18.4	29.3	29.1	10.0	2.3	0.0	2.7	13.2	15.5	13.3	14.9	24.7	17.9	4.2	16.2
형제·자매	2.2	1.1	2.5	3.0	4.5	4.7	1.0	9.2	0.8	1.3	1.6	0.0	0.0	0.9	2.4	2.8
조부모	0.2	0.2	0.0	0.9	0.2	3.4	5.2	0.2	0.0	0.8	0.0	0.9	5.3	0.0	1.4	0.7
손자녀	0.3	0.1	1.9	2.4	0.0	0.0	0.0	0.3	0.0	0.8	0.6	0.0	0.0	0.0	0.0	0.5
기타 가족	0.3	0.0	0.2	0.1	0.0	1.3	0.7	0.7	0.0	0.0	0.7	0.0	0.0	0.0	1.1	0.4
친척	0.4	0.3	0.7	0.5	1.0	0.8	0.5	1.4	1.0	0.0	1.5	0.5	0.0	1.3	1.0	0.6
친구	0.5	0.4	0.4	0.6	0.4	0.0	0.0	0.5	0.0	0.0	1.1	0.0	0.0	1.2	0.0	0.4
이웃	1.9	1.8	2.1	1.5	3.0	1.6	0.0	1.4	1.2	1.2	1.5	0.0	4.5	0.9	3.1	1.8
활동보조인	0.8	0.6	1.7	0.0	0.0	0.4	0.8	0.2	0.4	0.0	0.3	1.7	5.0	0.0	0.0	0.6
가정봉사원	2.5	2.4	1.3	2.7	0.8	0.6	0.0	0.6	1.8	3.2	1.7	0.0	0.0	3.7	0.9	2.0
간병인	0.2	1.7	0.1	0.3	0.2	0.0	0.0	0.0	1.4	0.3	0.6	0.0	0.0	0.0	0.0	0.4
기타	3.4	5.8	3.4	4.0	1.3	13.0	4.7	30.1	0.0	0.8	2.0	0.5	0.0	0.0	6.7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1,478	179,005	74,770	86,735	8,423	131,120	12,155	62,487	19,087	6,286	7,827	2,018	380	4,268	3,033	999,072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5-4-6>와 같이 장애인의 83.5%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에서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여부에서도 동일하게 가족이 주 도움 지원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4-6〉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6.1	84.5	84.5	82.8	89.9	81.7	92.5	60.3	93.5	93.4	87.9	94.1	79.9	90.0	84.6	83.5
아니오	13.9	15.5	15.5	17.2	10.1	18.3	7.5	39.7	6.5	6.6	12.1	5.9	20.1	10.0	15.4	1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1,478	179,005	74,770	86,735	8,423	131,120	12,155	62,487	19,087	6,286	7,827	2,018	380	4,268	3,033	999,072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는 <표 5-4-7>과 같이 장애인의 98.1%가 ‘예’라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장애인과 함께 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동거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90%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표 5-4-7〉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7.1	98.5	98.4	97.6	99.5	99.7	99.7	99.7	99.4	95.8	99.8	99.6	100.0	100.0	100.0	98.1
아니오	2.9	1.5	1.6	2.4	0.5	0.3	0.3	0.6	4.2	0.2	0.4	0.4	0.0	0.0	0.0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1,478	179,005	74,770	86,735	8,423	131,120	12,155	62,487	19,087	6,286	7,827	2,018	380	4,268	3,033	999,072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현재 제공받는 도움이 충분한지에 대한 결과는 <표 5-4-8>과 같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5.4%, ‘부족하다’ 23.2%의 순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일상생활지원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32.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았다.

〈표 5-4-8〉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충분하다	10.9	10.3	7.4	8.7	15.1	9.9	16.2	7.1	12.0	17.1	8.0	6.8	17.1	16.5	11.4	10.1
충분하다	41.3	36.1	45.0	46.4	45.0	42.2	30.9	38.6	50.6	47.7	48.5	54.8	33.9	49.6	44.7	41.3
보통이다	26.0	20.8	23.4	29.5	27.3	25.1	24.6	33.3	23.4	16.1	25.2	17.6	46.3	18.7	22.4	25.4
부족하다	18.2	28.2	21.8	14.0	10.1	18.1	24.8	17.4	11.8	16.4	16.9	14.3	0.0	12.0	20.7	19.7
매우 부족하다	3.6	4.5	2.4	1.3	2.5	4.7	3.5	3.6	2.2	2.7	1.5	6.5	2.6	3.2	0.8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1,478	179,005	74,770	86,735	8,423	131,120	12,155	62,487	19,087	6,286	7,827	2,018	380	4,268	3,033	999,072

5. 유급봉사자 활용 현황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외부인이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4-9>과 같이 장애인의 5.4%만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94.6%의 대부분의 장애인이 무료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도

와주는 사람의 유형이나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의 결과를 반영하듯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도움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유급의 봉사자나 간병인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11.4%)와 자폐성장애(11.0%)가 가족이나 외부인의 도움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현재 도움 받는 대가로 비용 지불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3.7	11.4	4.4	2.7	1.7	6.7	11.0	2.3	2.4	2.7	3.5	0.0	0.0	1.1	1.7	5.4
아니오	96.3	88.6	95.6	97.3	98.3	93.3	89.0	97.7	97.6	97.3	96.5	100.0	100.0	98.9	98.3	9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1,478	179,005	74,770	86,735	8,423	131,120	12,155	62,487	19,087	6,286	7,827	2,018	380	4,268	3,033	999,072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외부인이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한 달에 평균 몇 일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4-10>과 같이 전체의 36.8%가 26일~30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월 평균 도움일수는 19.2일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경우 월 평균 도움 일수 26일~30일이 100.0%(평균 도움일수 30일)로 정신장애인은 전부 한 달 내내 도움을 받고 있었다.

〈표 5-4-10〉 월 평균 도움 일수

(단위: %, 명, 일)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일 이하	2.3	8.0	15.1	17.9	0.0	17.1	15.9	0.0	0.0	0.0	28.8	-	-	0.0	0.0	8.7
6~10일	28.5	21.7	30.9	2.1	19.9	16.4	21.4	0.0	8.7	11.2	8.1	-	-	100.0	0.0	21.6
11~15일	13.0	7.7	12.1	0.0	0.0	0.0	14.2	0.0	8.7	58.8	31.4	-	-	0.0	0.0	8.0
16~20일	17.8	15.5	23.5	13.4	0.0	5.1	25.9	0.0	14.8	11.2	0.0	-	-	0.0	0.0	14.5
21~25일	8.5	12.6	18.3	2.0	0.0	8.8	14.7	0.0	0.0	8.2	5.9	-	-	0.0	47.1	10.3
26~30일	29.9	34.5	0.0	64.5	80.1	52.6	7.8	100.0	67.7	10.6	25.8	-	-	0.0	52.9	3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966	20,364	3,260	2,343	146	8,836	1,343	1,459	459	170	272	-	-	45	51	53,714
평균일수	18.5	19.0	12.8	22.4	25.2	20.8	15.5	30.0	25.3	15.2	14.7	-	-	8.0	27.2	19.2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외부인이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일일 평균 도움받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결과는 <표 5-4-11>과 같이 전체의 55.5%가 5시간 이하로 가장 많았으며 일일 평균 시간은 8.7시간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20.5시간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표 5-4-11〉 1일 평균 도움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시간 이하	63.1	58.7	68.5	17.5	39.5	47.4	76.8	0.0	25.3	89.4	63.5	-	-	100.0	47.1	55.5
6~10시간	21.8	15.2	20.0	58.7	12.9	12.1	11.0	0.0	17.4	10.6	10.7	-	-	0.0	52.9	18.2
11~15시간	11.1	4.6	11.5	0.0	20.4	7.7	0.0	36.6	0.0	0.0	0.0	-	-	0.0	0.0	7.8
16~20시간	4.0	0.0	0.0	10.3	0.0	0.0	1.9	0.0	0.0	0.0	0.0	-	-	0.0	0.0	1.6
21~24시간	0.0	21.6	0.0	13.5	27.2	32.9	10.4	63.4	57.3	0.0	25.8	-	-	0.0	0.0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966	20,364	3,260	2,343	146	8,836	1,343	1,459	459	170	272	-	-	45	51	53,714
평균시간	6.0	8.9	5.8	10.1	12.1	11.5	6.2	20.5	16.4	3.3	8.7	-	-	1.0	6.7	8.7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외부인이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결과는 <표 5-4-12>과 같이 10만원 이하가 44.6%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금액은 30만 1천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118만 1천원)가 도움에 대한 평균 지불 금액이 가장 많았다.

〈표 5-4-12〉 월 평균 지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0만원 이하	46.5	39.5	86.3	22.1	0.0	49.6	67.1	0.0	6.1	52.4	45.2	-	-	100.0	47.1	44.6
11~30만원	31.2	31.2	2.1	23.7	0.0	9.1	17.8	45.2	8.7	28.8	18.0	-	-	0.0	52.9	25.2
31~60만원	10.3	12.1	0.0	31.5	47.3	37.2	7.8	54.8	27.9	10.6	20.2	-	-	0.0	0.0	17.1
61~100만원	11.1	2.8	11.5	22.7	39.7	4.1	3.4	0.0	0.0	0.0	16.5	-	-	0.0	0.0	6.8
101~150만원	0.0	7.3	0.0	0.0	13.0	0.0	2.6	0.0	0.0	8.2	0.0	-	-	0.0	0.0	2.9
151만원 이상	0.9	7.1	0.0	0.0	0.0	0.0	1.3	0.0	57.3	0.0	0.0	-	-	0.0	0.0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966	20,364	3,260	2,343	146	8,836	1,343	1,459	459	170	272	-	-	45	51	53,714
평균금액	23.6	37.2	15.2	40.0	72.3	23.6	17.9	38.2	118.1	21.6	24.4	-	-	5.0	17.6	30.1

6.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장애인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는 <표 5-4-13>과 같이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지만,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34.2%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에 따르는 부담이 큰 장애인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유료라도 이용하겠다’고 한 경우는 7.5%로 적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간질장애가 외부인의 도움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아 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는 유급으로라도 봉사자를 이용할 의사가 19.5%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4-13〉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31.5	43.8	30.0	20.6	20.9	39.2	44.0	49.2	22.0	28.4	24.2	23.8	26.1	15.2	41.2	34.2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5.3	14.6	5.7	3.2	5.8	11.5	19.5	3.5	2.9	1.7	5.8	2.5	5.3	1.3	6.0	7.5
필요없다	63.2	41.5	64.3	76.1	73.3	49.3	36.5	47.3	75.1	70.0	70.0	73.6	68.6	83.5	52.8	5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2,255	185,323	83,641	99,417	9,121	132,688	12,191	63,669	20,828	6,712	8,208	2,082	417	9,959	3,301	1,069,812

제5절 장애인보조기구¹⁵⁾

1.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현재 장애인보조기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5-5-1>과 같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2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수동휠체어(7.9%), 전동휠체어(7.7%), 전동스쿠터 및 목발(6.4%), 보행기(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조사에서 30.7%로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가 2005년도 조사에서 3.2%로 수요

1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까지는 ‘재활보조기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보조기구’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음.

가 급감했던 전동휠체어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였고, 전동스쿠터 역시 2005년 조사에서의 2.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과 함께 2005년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품목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포함되면서 장애인들의 인지율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8.9%)와 실명자에게 필요한 의안(8.7%)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장애인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73.3%를 보이고 있으며, 언어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인 인공후두와 의사소통보조기에 대한 수요는 각각 6.1%와 5.3%였다.

2008년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항목에 포함된 지적장애인용 보조기구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수요를 보인 가운데 터치모니터가 1.7%로서 가장 높았다.

신장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복막투석기구가 12.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산소발생기가 34.8%로서 가장 수요가 높았으며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는 8.3%였다. 또한 장루·요루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장루주머니가 97.1%, 피부보호관 86.1%의 수요를 보여 전체 조사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안면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기타(3.8%), 압력옷(2.0%)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인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욕창방지용 매트 2.1%, 목욕용 의자 1.9%, 기저귀매트 1.7% 등의 수요를 보였다.

〈표 5-5-1〉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구분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	상지의지	1.8	청각장애	보청기	73.3
및	하지의지	1.1		화상전화기	6.0
뇌병변장애	척추보조기	6.0		팔도전화기	0.8
	상지보조기	0.8		문자전화기	3.8
	하지보조기	3.7		문자송수신기	1.6
	정형외과용 구두	3.4		음성증폭기	2.9
	지팡이	20.1		인공와우	2.6
	목발	6.4		TV 자막수신기	12.0

〈표 5-5-1〉 계속

구분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구분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시각장애	보행기	6.2	언어장애	기타	1.2
	자세보조기구	1.4			(207,384)
	전동휠체어	7.7		인공후두(성대)	6.1
	수동휠체어	7.9		의사소통보조기	5.3
	전동스쿠터	6.4		기타	0.7
	특수키보드/마우스	0.2	지적장애		(15,103)
	단어예측장치	-		인텔리키	0.7
	음성인식장치	0.1		스위치	0.4
	복지차량/관련장치	0.3		터치모니터	1.7
	환경조종장치	0.5		기타	1.1
	기타	1.3	신장장애		(139,527)
		(1,351,272)		복막투석기구	12.2
	안경(콘택트렌즈)	59.3	호흡기장애	기타	2.8
	저시력보조기	6.6			(48,284)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8.9		산소발생기	34.8
	의안	8.7		인공호흡기	8.3
	스크린 리더	1.8		기타	10.8
	화면 확대기	5.5	장루·요루장애		(14,393)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7		장루주머니	97.1
	음성손목/탁상시계	7.4		피부보호관	86.1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5		기타	8.2
	점자프린터	0.4	기타		(11,356)
	기타	2.6		산소발생기	0.1
안면장애		(220,061)	기타	인공호흡기	0.1
	압력옷	2.0		욕창방지용매트	2.1
	기타	3.8		욕창방지용방석	1.3
		(2,185)		기저귀매트	1.7
				목욕용 의자	1.9
				기타	0.7
					(2,137,226)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 5-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51.6%로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 가장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기타’ 13.6%, ‘적절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없어서’ 12.9%, ‘구입처를 몰라서’ 6.8%, ‘미관상 흠해서’ 5.0%, ‘사용이 불편해서’ 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2005년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결국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고가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2〉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적합한 장애인보조 기구가 없어서	8.5	16.9	17.0	19.6	17.8	36.0	33.3	0.0	4.1	12.7	4.4	21.8	0.0	6.0	11.8	12.9
별 효과가 없어서	0.4	5.6	6.1	5.2	6.8	1.5	15.6	5.3	0.0	6.1	1.3	0.0	0.0	9.5	0.0	2.7
사용이 불편	5.5	4.9	0.3	8.1	8.5	0.0	0.0	0.0	2.8	0.0	5.0	0.0	0.0	5.8	0.0	4.9
미관상 흉해서	6.6	3.5	2.8	2.1	4.9	5.0	0.0	16.9	15.8	0.0	2.5	0.0	39.1	2.4	0.0	5.0
구입비용 때문에	57.0	45.4	45.8	49.7	45.8	6.4	51.1	31.7	58.8	52.8	77.4	64.9	45.7	70.5	67.6	51.6
구입처를 몰라서	3.5	10.2	14.0	8.5	12.5	12.0	0.0	0.0	8.6	6.1	2.1	3.7	0.0	2.7	0.0	6.8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2.1	2.9	4.8	1.1	0.0	0.0	0.0	0.0	0.0	3.1	0.0	0.0	15.2	0.0	0.0	2.4
기타	16.5	10.6	9.2	5.7	3.8	39.2	0.0	46.1	9.9	19.1	7.4	9.6	0.0	3.2	20.6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3,268	67,209	45,263	46,169	1,413	8,263	90	1,761	3,066	1,693	3,733	271	46	1,554	204	374,003

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및 사용 현황

장애유형별로 등록장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5-5-3>과 같다. 먼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19.4%)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목발(9.1%), 수동휠체어(7.2%), 척추보조기(6.3%)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이동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소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의 소지율은 각각 3.2%, 3.0%, 2.2%로서 2005년 조사와 비교할 때 타 품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지율을 보이는데 반해 이들 세 품목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시각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 중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으로서 55.7%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의안 8.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0%의 순이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65.6%로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인공후두(성대)가 5.5%로서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였다. 새롭게 조사 항목에 포함된 지적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기타가 0.2%로서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였다.

신장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2.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발생기가 21.6%, 그리고 기타의 장애인보조기구가 9.6%의 소지율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소지율이 가장 높은 장루·요루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5.9%, 피부보호관 8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면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압력옷 2.3%, 기타 3.8%의 소지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인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1.3%, 욕창방지용 매트 1.2%, 욕창방지용 방석 0.6%의 소지율을 보였다.

〈표 5-5-3〉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상지의지	1.1	청각장애	보청기	65.6
	하지의지	1.1		화상전화기	3.3
	척추보조기	6.3		골도전화기	-
	상지보조기	0.8		문자전화기	1.8
	하지보조기	2.9		문자송수신기	0.9
	정형외과용 구두	2.2		음성증폭기	0.2
	지팡이	19.4		인공와우	1.9
	목발	9.1		TV 자막수신기	5.6
	보행기	5.5		기타	1.0
	자세보조기구	0.6			(207,384)
	전동휠체어	3.2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5.5
	수동휠체어	7.2		의사소통보조기	2.8
	전동스쿠터	3.0		기타	-
	특수키보드/마우스	0.0			(15,103)
	단어예측장치	-	지적장애	인텔리키	-
	음성인식장치	-		스위치	-
	복지차량/관련장치	0.1		터치모니터	-
	환경조종장치	0.2		기타	0.2
시각장애	기타	1.5			(139,527)
		(1,351,27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2.2
	안경(콘택트렌즈)	55.7		기타	2.8
	저시력보조기	2.2			(48,284)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0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21.6
	의안	8.7		인공호흡기	5.0
	스크린 리더	0.8		기타	9.6
	화면 확대기	1.9			(14,393)
	휴대용접자정보단말기	0.9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5.9
	음성손목/탁상시계	4.0		피부보호관	81.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		기타	8.3

〈표 5-5-3〉 계속

구분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안면장애	접자프린터	-	기타		(11,356)
	기타	2.2		산소발생기	0.0
		(220,061)		인공호흡기	0.0
	압력옷	2.3		욕창방지용매트	1.2
	기타	3.8		욕창방지용방석	0.6
		(2,185)		기저귀매트	1.3
				목욕용 의자	0.5
				기타	0.5
					(2,137,226)

현재 장애인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먼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 소지자의 품목별 사용율을 살펴보면, 지팡이(15.2%)의 사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동휠체어(6.5%), 목발(5.2%), 척추보조기(3.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목발이 다른 소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율이 낮았다.

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 중 가장 사용율이 높은 품목은 안경(콘택트렌즈)으로서 54.1%의 사용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의안 7.3%, 시각장애인을 흰지팡이 5.5%의 순이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의 사용율이 55.5%로서 역시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인공후두(성대)가 4.4%로서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였다. 새롭게 조사항목에 포함된 지적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기타가 0.2%로서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였다.

신장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1.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발생기가 19.6%, 그리고 기타의 장애인보조기구가 8.5%의 소지율을 보였다. 또한 장루·요루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5.2%, 피부보호관 81.4%의 순으로서 이들 품목을 소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장애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면장애인을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압력옷과 기타 품목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이 이들 품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인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1.3%, 욕창방지용 매트 1.2%, 욕창방지용 방석 0.6%의 사용율을 보였다.

〈표 5-5-4〉 사용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사용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구분	사용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	상지의지	0.8	청각장애	보청기	55.5
및	하지의지	0.9		화상전화기	2.9
뇌병변장애	척추보조기	3.8		골도전화기	-
	상지보조기	0.6		문자전화기	1.8
	하지보조기	2.1		문자송수신기	0.9
	정형외과용 구두	1.4		음성증폭기	0.2
	지팡이	15.2		인공와우	1.5
	목발	5.2		TV 자막수신기	4.4
	보행기	3.4		기타	1.0
	자세보조기구	0.4			(207,384)
	전동휠체어	2.8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4.4
	수동휠체어	6.5		의사소통보조기	2.6
	전동스쿠터	2.7		기타	-
	특수키보드/마우스	0.0			(15,103)
	단어예측장치	-	지적장애	인텔리키	-
	음성인식장치	-		스위치	-
	복지차량/관련장치	0.2		터치모니터	-
	환경조종장치	0.2		기타	0.2
	기타	1.0			(139,527)
		(1,351,27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1.6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54.1		기타	3.3
	저시력보조기	1.7			(48,284)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5.5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19.6
	의안	7.3		인공호흡기	3.5
	스크린 리더	0.8		기타	8.5
	화면 확대기	1.8			(14,393)
	휴대용접자정보단말기	0.9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5.2
	음성손목/탁상시계	3.6		피부보호관	81.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		기타	7.4
	점자프린터	-			(11,356)
	기타	2.2	기타	산소발생기	0.0
		(220,061)		인공호흡기	0.1
안면장애	압력옷	1.4		욕창방지용매트	1.2
	기타	3.8		욕창방지용방석	0.6
		(2,185)		기저귀매트	1.3
				목욕용 의자	0.6
				기타	0.5
					(2,137,226)

장애인보조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용이 번거로워서’ 27.5%, ‘별 효과가 없

어서' 19.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장애인보조기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5-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사용이 번거로워	27.3	32.4	23.9	27.4	18.3	0.0	0.0	0.0	17.6	35.2	25.7	20.3	52.7	32.7	0.0	27.5
미관상 흠해서	5.1	4.6	6.9	1.6	0.0	28.8	0.0	0.0	10.7	0.0	1.5	0.0	0.0	8.9	100.0	4.8
별 효과가 없어	13.8	18.2	44.2	41.8	45.3	32.8	0.0	23.9	27.6	21.3	16.7	0.0	0.0	27.7	0.0	19.7
사용할 필요가 없어	51.3	41.8	16.9	11.5	27.6	0.0	100.0	34.7	23.4	38.6	43.2	79.7	47.3	22.4	0.0	42.7
고장이 나서	0.8	1.7	7.3	11.3	0.0	38.4	0.0	41.4	0.0	0.0	0.0	0.0	0.0	0.0	0.0	2.9
수리를 못해서	1.6	0.7	0.8	2.4	8.8	0.0	0.0	0.0	0.0	4.8	3.9	0.0	0.0	0.0	0.0	1.5
기타	0.2	0.7	0.0	4.1	0.0	0.0	0.0	0.0	20.7	0.0	9.1	0.0	0.0	8.3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3,941	38,018	14,013	29,218	453	1,439	31	1,075	1,340	559	1,165	182	55	505	31	252,025

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관련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의 경로, 외부 지원 경험, 지원 수준 및 사용 후 만족도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체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의 경우, 외부로부터 각종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40.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인의 외부 지원 경험이 21.1%로 가장 낮았으며, 그 밖에 심장장애(33.7%), 간장애(36.9%), 지체장애(37.1%) 등도 상대적으로 외부 지원 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5-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37.1	51.0	18.7	58.6	53.7	44.7	45.6	43.5	51.4	33.7	40.0	36.9	39.2	62.3	21.1	40.0
아니오	62.9	49.0	81.3	41.4	46.3	55.3	54.4	56.5	48.6	66.3	60.0	63.1	60.8	37.7	78.9	6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0,916	130,543	156,145	148,270	2,272	4,958	169	3,166	10,853	2,239	5,729	674	273	10,932	142	907,28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사업(기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사업으로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전체 장애인 중 65.7%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 외에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구 교부사업(10.2%)과 친인척 및 종교·친목단체 지원(7.8%)을 통해 보조기구를 구입한 장애인도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산재보험 및 보훈처 보장구 급여,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 등 공적 급여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80.3%에 이르렀다.

〈표 5-5-7〉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56.9	59.8	59.5	85.4	75.3	86.0	100.0	69.3	61.6	56.0	89.2	85.5	44.9	89.6	0.0	65.7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구 교부사업	11.2	16.4	9.2	4.7	11.5	0.0	0.0	21.0	10.9	10.1	0.6	10.4	0.0	3.9	70.0	10.2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장구지원	7.0	3.4	1.4	0.0	0.0	0.0	0.0	0.0	0.0	5.0	0.0	0.0	22.4	0.2	0.0	3.8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0.7	0.7	0.2	0.3	0.0	0.0	0.0	0.0	0.4	9.4	0.0	0.0	0.0	3.4	0.0	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기기 지원	0.2	3.6	1.2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0.0	0.0	2.0	0.5	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보급사업	6.1	6.1	18.7	5.5	10.0	0.0	0.0	6.0	0.5	14.4	2.1	0.0	0.0	0.7	0.0	6.8
보고지구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	0.2	0.5	0.0	0.0	0.0	0.0	0.0	0.0	13.2	0.0	4.7	0.0	0.0	0.0	0.0	0.4
친지, 친구, 이웃 또는 종교 및 친목단체의 지원	11.5	8.5	6.4	1.7	0.0	14.0	0.0	3.8	8.0	5.0	2.8	4.0	0.0	0.4	0.0	7.8
기타	6.2	0.8	1.4	1.1	0.0	0.0	0.0	0.0	5.3	0.0	0.5	0.0	32.7	1.8	30.0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9,765	66,536	29,147	86,954	1,221	2,216	77	1,378	5,581	755	2,294	249	107	6,806	30	363,11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7.8%로 나타났으며,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8.5%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비율은 3.7%와

0.1%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이 구입 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임대를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 임대 형태의 지원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지원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5-8〉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비용 전액 지원	49.4	46.2	41.8	14.2	17.9	31.4	0.0	26.9	37.1	50.9	15.0	20.5	55.1	18.4	100.0	38.5
비용 일부 지원	45.7	50.6	56.1	84.6	82.1	53.7	100.0	69.3	37.4	40.3	80.8	69.1	44.9	80.9	0.0	57.8
무상임대	4.9	3.2	2.1	1.2	0.0	14.9	0.0	3.8	24.3	2.5	0.0	10.4	0.0	0.6	0.0	3.7
유상임대	0.0	0.0	0.0	0.0	0.0	0.0	0.0	0.0	1.1	6.4	4.2	0.0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9,766	66,535	29,147	86,953	1,220	2,216	77	1,378	5,582	755	2,294	249	107	6,806	30	363,11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66.5%로서 외부 지원을 경험한 장애인 3명 중 2명이 현재의 지원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재의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았다. 이는 보청기와 인공후두 등 이들 장애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의 지원 수준(상한액)이 상대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5-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그렇다	39.2	42.7	34.0	16.1	16.3	36.6	59.7	31.6	61.8	47.9	24.6	49.4	42.1	24.4	30.0	33.8
약간 그렇다	32.9	32.9	37.2	31.8	35.7	30.4	0.0	30.4	14.2	33.9	35.6	26.9	29.9	33.3	70.0	32.7
보통이다	14.9	9.7	14.6	19.8	24.5	0.0	0.0	32.3	14.4	7.5	17.0	10.4	0.0	18.0	0.0	15.1
별로 그렇지 않다	9.2	10.9	14.1	25.4	18.4	32.9	40.3	5.7	9.2	10.6	20.2	13.3	7.5	19.6	0.0	14.2
전혀 그렇지 않다	3.8	3.8	0.1	6.9	5.1	0.0	0.0	0.0	0.4	0.0	2.5	0.0	20.6	4.8	0.0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9,766	66,535	29,147	86,952	1,219	2,216	77	1,378	5,582	755	2,294	249	107	6,807	30	363,114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를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매장에서 구입’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1.7%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로 구입’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2.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5-5-10〉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로 구입	38.1	22.9	24.0	30.9	53.4	20.8	81.7	38.3	44.1	16.5	52.3	33.8	47.6	61.9	28.2	32.7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매장에서 구입	41.6	48.8	22.6	57.7	33.3	35.3	18.3	34.9	37.6	58.3	34.8	33.8	34.1	33.2	38.7	41.7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	0.4	2.1	0.5	0.1	0.0	5.2	0.0	0.0	0.6	2.0	0.8	4.7	0.0	0.5	0.0	0.7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구입	6.4	8.4	6.2	6.3	6.5	7.2	0.0	5.7	4.9	12.5	1.6	3.9	0.0	1.6	0.0	6.5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	8.1	6.3	2.6	2.0	4.5	6.3	0.0	15.0	6.6	0.8	6.2	4.7	0.0	0.6	0.0	5.7
기타	5.5	11.4	44.1	3.0	2.3	25.3	0.0	6.1	6.3	10.0	4.4	19.0	18.3	2.3	33.1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0,915	130,543	156,144	148,270	2,272	4,960	169	3,167	10,853	2,239	5,729	674	273	10,933	142	907,283

장애인보조기구의 활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25.6%에 그쳐 4명 중 1명 정도만이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체계가 병원 및 보조기구업체 등 공급자 중심의 단순 공급 위주의 체계이며, 상담, 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5-11〉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22.8	23.3	19.5	40.2	33.6	20.8	66.1	16.6	34.0	28.2	41.5	18.4	37.0	38.7	6.3	25.6
없다	77.2	76.7	80.5	59.8	66.4	79.2	33.9	83.4	66.0	71.8	58.5	81.6	63.0	61.3	93.7	7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0,916	130,543	156,144	148,270	2,272	4,959	168	3,166	10,853	2,239	5,729	674	273	10,933	142	907,28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67.8%로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보다 2배 이상 많았으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공급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상담 및 평가 등의 전문서비스 수혜 경험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5-1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62.7	65.2	57.6	92.9	86.3	66.3	100.0	60.7	69.3	55.8	89.4	67.5	72.3	93.5	41.3	67.8
없다	37.3	34.8	42.4	7.1	13.7	33.7	0.0	39.3	30.7	44.2	10.6	32.5	27.7	6.5	58.7	3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0,915	130,544	156,145	148,270	2,272	4,958	169	3,166	10,853	2,239	5,730	674	274	10,933	143	907,28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1%로서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0.8%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현재 공급되는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간장애인과 더불어 청각장애인의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주로 품질 수준이 높지 않은 보청기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1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17.9	19.2	12.8	16.7	21.0	5.7	0.0	2.5	16.3	19.3	38.4	28.0	0.0	15.6	8.0	16.9
약간 만족한다	38.2	43.8	39.4	35.2	49.9	71.0	44.2	55.6	46.5	47.0	44.2	25.7	40.2	38.9	82.1	39.2
보통이다	23.4	22.2	28.4	17.9	2.6	6.3	55.8	26.9	32.2	23.0	12.5	15.7	39.7	20.9	0.0	23.1
약간 불만족한다	15.7	11.2	17.2	24.6	18.5	6.6	0.0	15.0	2.2	6.5	4.5	19.2	7.5	18.7	9.8	16.5
매우 불만족한다	4.8	3.5	2.3	5.5	7.9	10.4	0.0	0.0	2.8	4.3	0.5	11.3	12.6	5.9	0.0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6,378	119,315	150,489	135,204	2,011	4,544	138	2,091	10,374	1,901	5,243	521	239	10,905	112	799,465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힌 것은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 서비스’ (27.8%), ‘급여 비용의 인상’ (22.8%), ‘지원 품목의 확대’ (18.8%),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14.7%) 등이었다. 이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장애인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개편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5-14〉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	30.5	26.2	28.9	20.2	32.6	59.4	30.8	27.1	31.0	18.9	17.9	14.4	29.7	14.6	30.1	27.8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4.7	13.9	16.2	15.1	13.9	5.8	0.0	0.0	8.7	27.9	9.4	7.6	4.4	10.7	21.7	14.7
지원품목의 확대	20.4	19.2	15.3	14.7	18.4	20.8	27.2	21.8	26.2	20.9	31.8	14.1	28.9	37.5	14.7	18.8
신청 및 보급절차의 간소화	9.7	11.4	11.4	9.3	7.7	0.0	18.3	5.6	6.0	0.0	7.2	4.8	6.6	2.4	14.0	9.9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4.4	9.9	9.1	2.7	5.5	0.0	0.0	0.0	7.6	11.3	5.3	6.8	2.6	7.1	0.0	5.8
급여비용의 인상	19.9	19.0	18.9	37.8	21.9	14.0	23.7	45.5	20.6	18.7	28.0	52.3	27.8	27.4	19.6	22.8
기타	0.3	0.3	0.2	0.3	0.0	0.0	0.0	0.0	0.0	2.4	0.5	0.0	0.0	0.2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0,916	130,543	156,145	148,269	2,273	4,959	169	3,166	10,854	2,239	5,731	673	273	10,933	143	907,286

4. 정보통신기기 사용 현황

장애인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 계층의 한 부류이다. 휴대폰, 컴퓨터(PC) 및 인터넷 등 가장 보편적인 정보통신기기를 등록장애인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5-15>와 같다. 보유율에 있어서는 휴대폰 67.1%, 컴퓨터(PC) 53.0%, 인터넷 51.4%로 나타나 지난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 각각 12.1% 포인트, 3.0% 포인트, 2.9%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용률에 있어서는 휴대폰 66.7%, 컴퓨터(PC) 26.7%, 인터넷 25.7%로 나타나 컴퓨터(PC)와 인터넷의 경우 보유율에 비해 사용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그간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 사업이 기기 보급에만 치우쳤고 실제 사용에 대한 교육은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5-15〉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보유율	77.4	50.0	74.4	59.5	58.0	27.1	13.8	31.9	83.2	76.5	82.9	88.6	88.3	76.4	68.8	67.1
	사용률	77.0	49.2	74.4	59.3	55.8	27.2	13.4	31.1	82.9	76.4	82.6	87.8	88.3	75.8	68.7	66.7
컴퓨터(PC)	보유율	55.3	52.2	48.8	48.5	57.0	55.7	87.8	31.4	60.3	56.6	47.0	78.2	68.4	47.2	56.9	53.0
	사용률	30.2	13.8	21.4	20.1	29.9	35.4	56.7	14.5	37.0	30.2	21.6	54.7	53.1	25.2	34.1	26.7
인터넷	보유율	53.8	50.6	48.1	45.6	55.2	53.7	87.2	28.7	59.7	54.2	46.1	76.8	67.5	44.9	53.9	51.4
	사용률	29.7	13.7	21.2	19.3	27.4	28.9	43.4	13.9	36.8	28.5	21.1	54.6	53.1	23.1	32.5	25.7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휴대폰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66.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컴퓨터(PC)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63.9%,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62.3%,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0.5%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및 기술적 불편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5-16〉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 폰 ¹⁾	PC ²⁾	인 터 넷 ³⁾	휴대 폰	PC	인 터 넷	휴대 폰	PC	인 터 넷	휴대 폰	PC	인 터 넷	휴대 폰	PC	인 터 넷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10.7	14.2	5.3	4.6	10.2	3.1	7.9	9.8	3.9	4.3	8.8	4.6	2.8	15.6	4.3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9.6	2.4	11.6	14.2	1.8	8.3	22.0	3.5	9.7	8.5	1.4	5.0	8.7	1.1	11.7
복잡하고 어려워서	2.8	10.5	10.6	2.7	7.8	8.4	3.1	8.8	8.9	0.9	9.2	9.9	4.7	11.2	12.5
필요성이 없어서	56.4	60.5	58.4	77.2	71.8	71.2	66.8	71.6	70.4	85.0	74.1	72.5	82.4	61.6	60.0
배우기 싫어서	0.0	3.2	3.1	0.0	0.1	0.7	0.0	0.3	1.1	0.0	1.8	1.7	0.0	2.3	2.6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4	8.7	10.7	1.4	8.3	8.2	0.2	5.8	5.7	0.8	4.7	5.8	1.5	8.2	8.9
기타	0.1	0.4	0.4	0.0	0.1	0.1	0.1	0.3	0.3	0.5	0.0	0.4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5,885	506,480	523,269	109,542	104,836	108,285	56,358	112,690	114,122	83,898	106,700	112,840	6,349	6,494	6,770

〈표 5-5-16〉 계속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4.2	16.1	7.0	2.4	11.3	6.8	3.5	17.1	5.2	8.5	20.9	8.2	8.4	11.5	3.7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1.6	1.3	11.2	4.9	0.0	5.0	15.9	0.3	11.5	24.2	7.3	21.1	25.5	2.0	11.0
복잡하고 어려워서	9.2	10.2	11.9	12.0	24.3	23.1	3.8	7.8	8.6	6.7	5.0	4.4	0.8	11.4	8.3
필요성이 없어서	60.7	50.9	49.3	68.1	54.6	52.0	69.1	62.2	61.8	58.1	58.0	57.6	65.2	67.6	68.0
배우기 싫어서	0.0	0.0	0.0	0.0	0.0	0.0	0.2	2.9	2.8	0.0	3.3	3.2	0.0	1.8	2.2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11.6	19.8	19.0	11.1	7.5	10.9	6.5	9.0	9.5	2.6	3.8	3.7	0.0	5.7	6.1
기타	2.7	1.7	1.6	1.5	2.3	2.2	1.0	0.7	0.7	0.0	1.8	1.7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2,060	62,100	64,858	10,624	1,501	1,578	57,752	58,124	60,441	8,099	19,182	19,448	3,427	6,335	6,695

〈표 5-5-16〉 계속

구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결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4.5	12.9	3.5	1.3	22.2	1.2	8.2	30.6	13.2	11.9	14.5	5.7	12.7	30.4	11.5	7.0	13.2	5.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9.0	0.7	9.5	42.6	5.2	28.1	32.8	0.0	19.3	25.4	1.5	9.5	31.1	4.2	22.2	19.7	2.2	10.5
복잡하고 어려워서	5.0	9.9	10.0	0.0	14.4	16.1	0.0	27.1	26.3	3.1	12.4	13.3	4.3	12.1	12.7	3.8	9.7	10.0
필요성이 없어서	61.5	70.5	69.1	56.1	53.7	50.4	59.0	40.4	39.3	59.7	63.9	64.1	49.3	48.6	48.4	66.1	63.9	62.3
배우기 싫어서	0.0	2.7	3.5	0.0	2.7	2.5	0.0	0.0	0.0	0.0	1.8	1.7	0.0	1.1	1.0	0.0	2.1	2.2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0	3.0	4.1	0.0	0.0	0.0	0.0	1.9	1.8	0.0	5.4	5.2	1.5	2.7	2.5	2.9	8.4	9.5
기타	0.0	0.3	0.3	0.0	1.8	1.7	0.0	0.0	0.0	0.0	0.5	0.5	1.0	0.8	1.8	0.6	0.4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54	7,627	7,758	742	1,418	1,511	256	690	710	2,677	5,998	6,262	2,767	3,826	4,094	702,890	1,004,001	1,038,641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향후에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정보통신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구입 계획 없음’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꼭 구입하겠다’의 응답률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종류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구입계획 없음’의 경우에는 휴대폰 76.2%, 컴퓨터 84.8%, 인터넷 83.9%로 나타났으며, ‘여건이 되면 구입’의 경우에는 휴대폰 22.7%, 컴퓨터 14.8%, 인터넷 15.6%로 나타났다.

〈표 5-5-17〉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구입하겠다	0.0	0.1	0.1	3.0	0.6	1.1	0.7	0.3	0.3	0.6	0.3	0.4	2.6	0.6	0.8
여건 되면 구입	23.1	15.5	16.5	17.4	10.2	10.8	24.8	11.2	11.7	15.7	10.7	11.8	22.2	18.1	17.9
구입 계획 없음	76.9	84.4	83.4	79.6	89.2	88.0	74.5	88.5	87.9	83.7	89.0	87.8	75.2	81.3	8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5,885	506,480	523,270	109,542	104,834	108,283	56,359	112,690	114,122	83,898	106,701	112,839	6,348	6,494	6,771

〈표 5-5-17〉 계속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구입하겠다	1.7	3.6	3.4	8.0	4.6	4.4	0.8	0.2	0.9	0.0	0.0	0.0	2.2	1.1	1.0
여건 되면 구입	29.4	23.7	25.1	40.0	24.0	23.9	19.9	15.7	14.7	35.9	27.9	28.5	35.8	7.4	8.5
구입 계획 없음	68.9	72.7	71.5	52.0	71.4	71.7	79.4	84.1	84.4	64.1	72.1	71.5	62.0	91.5	9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2,060	62,100	64,858	10,622	1,503	1,579	57,752	58,124	60,440	8,099	19,182	19,448	3,427	6,336	6,694

〈표 5-5-17〉 계속

구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구입하겠다	0.0	0.0	0.0	2.6	1.7	1.6	10.9	0.0	0.0	0.0	1.0	1.0	3.8	0.0	0.0	1.1	0.4	0.5
여건 되면 구입	26.2	13.9	13.7	45.3	26.9	27.6	44.0	51.8	53.1	25.8	17.6	18.3	37.6	31.5	32.5	22.7	14.8	15.6
구입 계획 없음	73.8	86.1	86.3	52.2	71.4	70.8	45.1	48.2	46.9	74.2	81.4	80.7	58.6	68.5	67.5	76.2	84.8	8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54	7,627	7,757	742	1,419	1,512	257	691	710	2,677	6,000	6,262	2,769	3,825	4,094	702,891	1,004,006	1,038,639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휴대폰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66.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컴퓨터(PC)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56.2%, ‘복잡하고 어려워’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54.4%, ‘복잡하고 어려워’ 25.1%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및 기술적 불편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5-18〉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3.1	3.3	1.0	1.8	2.4	1.2	3.0	2.3	0.8	1.6	2.6	1.1	1.0	4.1	1.8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35.2	2.0	4.9	15.1	1.0	1.5	25.9	1.8	3.3	11.3	1.2	2.6	9.5	1.7	3.4
복잡하고 어려워서	2.9	26.5	26.2	4.0	21.1	22.3	3.9	18.7	19.5	2.7	21.2	21.4	6.9	24.3	26.6
필요성이 없어서	57.9	53.7	51.7	77.1	64.0	63.5	66.9	63.7	62.5	83.1	64.1	62.7	80.4	53.8	51.2
배우기 싫어서	0.0	5.4	5.3	0.0	3.0	2.9	0.0	4.9	5.3	0.0	4.1	4.4	0.0	4.4	4.9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6	8.0	9.9	1.9	7.6	7.6	0.1	6.2	6.2	0.8	6.1	7.2	2.2	10.8	11.4
기타	0.3	1.1	1.0	0.0	1.0	1.0	0.2	2.5	2.5	0.5	0.7	0.7	0.0	0.8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0,540	790,541	796,327	111,427	188,859	189,129	56,437	172,947	173,441	84,318	165,744	167,388	6,675	10,583	10,958

〈표 5-5-18〉 계속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12	3.3	0.4	0.3	0.8	0.6	1.9	4.2	2.3	0.5	4.9	0.7	5.7	2.9	0.5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5.0	3.0	4.9	7.2	0.0	0.7	17.9	0.9	2.8	35.4	3.2	7.5	23.8	2.3	5.5
복잡하고 어려워서	12.5	29.7	36.6	19.4	49.9	59.1	4.3	23.1	22.8	3.2	25.3	26.3	2.0	27.4	25.1
필요성이 없어서	59.6	40.2	36.6	60.4	21.0	17.3	68.5	52.7	52.9	58.4	54.1	51.3	68.5	55.9	56.6
배우기 싫어서	0.0	1.0	0.9	0.0	0.9	0.7	0.2	3.9	3.9	0.0	7.6	8.3	0.0	4.1	4.8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10.6	21.5	19.6	11.4	26.8	21.6	6.6	15.1	15.4	2.5	4.8	5.9	0.0	6.8	6.8
기타	1.0	1.4	1.1	1.3	0.5	0.0	0.5	0.0	0.0	0.0	0.0	0.0	0.0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1,967	90,527	99,569	10,675	5,334	6,981	58,435	72,476	73,031	8,247	30,412	30,533	3,445	10,195	10,445

〈표 5-5-18〉 계속

구분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0.0	3.1	0.9	0.0	6.1	0.0	0.0	10.6	1.7	2.8	4.6	1.6	2.0	7.3	2.5	2.3	3.1	1.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35.2	1.7	4.5	46.5	1.6	6.9	41.0	4.5	13.9	31.0	2.6	5.6	41.8	4.9	9.6	23.5	1.8	4.1
복잡하고 어려워서	7.0	27.2	25.3	0.0	36.6	37.6	0.0	36.9	38.2	4.2	25.1	22.1	7.6	29.0	29.5	5.0	24.6	25.1
필요성이 없어서	57.8	59.2	59.1	53.5	46.4	46.6	50.8	32.3	32.3	62.0	56.5	58.7	43.8	45.5	44.5	66.0	56.2	54.4
배우기 싫어서	0.0	3.5	3.8	0.0	8.9	7.8	0.0	3.6	3.6	0.0	6.1	6.7	0.0	7.5	7.6	0.0	4.6	4.6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0	4.3	5.3	0.0	0.0	0.8	8.2	6.0	6.0	0.0	5.2	5.4	2.7	3.2	3.1	2.9	8.6	9.7
기타	0.0	1.0	1.0	0.0	0.3	0.3	0.0	6.0	4.3	0.0	0.0	0.0	2.2	2.6	3.2	0.4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04	11,289	11,359	794	2,949	2,955	256	1,026	1,026	2,752	8,498	8,729	2,783	5,850	5,994	711,255	1,567,230	1,587,865

향후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휴대폰의 경우에는 ‘꼭 사용하겠다’는 장애인이 전체의 66.9%로 사용 욕구가 매우 높았던 반면에 컴퓨터(PC)와 인터넷의 경우에는 ‘꼭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중이 각각 26.8%와 26.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용 욕구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기술적·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사업이 한층 더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5-19〉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사용하겠다	77.0	30.2	29.9	49.0	14.9	15.0	74.4	21.4	21.2	59.5	20.2	19.5	56.8	30.1	28.8
여건 되면 사용	6.3	14.8	15.0	11.2	9.3	9.3	6.4	12.8	12.8	6.5	9.8	9.8	11.3	12.8	13.5
사용 계획 없음	16.7	55.0	55.0	39.8	75.7	75.7	19.2	65.8	66.0	34.0	70.0	70.6	31.9	57.2	5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1,132,116	1,132,116	219,155	219,156	219,156	220,061	220,060	220,061	207,384	207,383	207,384	15,103	15,103	15,102

〈표 5-5-19〉 계속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사용하겠다	28.7	36.3	31.5	21.7	56.4	47.6	31.9	13.5	13.1	83.1	36.5	36.2	76.6	30.2	28.6
여건이 되면 사용	24.4	16.7	20.9	37.3	23.2	30.7	14.0	17.0	16.7	5.9	16.6	16.3	8.8	10.3	11.0
사용 계획 없음	46.8	47.0	47.7	41.0	20.4	21.8	54.1	69.5	70.2	11.0	47.0	47.4	14.5	59.4	6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0,079	140,079	140,079	12,329	12,329	12,329	84,780	84,780	84,780	48,284	48,285	48,284	14,606	14,606	14,607

〈표 5-5-19〉 계속

구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사용하겠다	81.9	21.3	20.8	87.5	53.4	53.3	89.5	55.2	55.2	74.6	23.8	22.1	69.8	32.9	31.7	66.9	26.8	26.2
여건이 되면 사용	5.7	12.2	12.5	6.5	14.8	14.9	5.2	23.7	23.7	7.3	13.3	13.9	12.5	22.5	23.1	8.6	13.8	14.3
사용 계획 없음	12.4	66.5	66.8	5.9	31.8	31.8	5.3	21.1	21.1	18.1	62.9	64.0	17.7	44.6	45.1	24.5	59.4	5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392	14,392	14,392	6,514	6,514	6,514	2,185	2,185	2,185	11,356	11,357	11,356	8,881	8,880	8,881	2,137,226	2,137,225	2,137,226

제6절 보육·교육(장애 아동·청소년)

만 9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74.5%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9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로는 일반보육시설이 14.0%로 가장 많았고, 장애전담보육시설 9.6%, 일반보육시설 내 특수학급 1.9%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경우 일반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키아동은 장애전담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표 5-6-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보육시설	7.8	29.9	0.0	14.0	30.0	13.7	9.3	-	-	24.8	-	16.1	63.6	50.0	0.0	14.0
일반보육시설내특수학급	0.0	0.0	0.0	3.9	13.5	0.0	10.6	-	-	0.0	-	0.0	0.0	0.0	0.0	1.9
장애전담보육시설	0.0	12.0	0.0	4.8	0.0	16.9	11.8	-	-	0.0	-	0.0	0.0	0.0	0.0	9.6
다니지 않음	92.2	58.1	100.0	77.3	56.5	69.4	68.4	-	-	75.2	-	83.9	36.4	50.0	100.0	7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34	3,921	1,723	2,324	779	11,911	4,022	-	-	641	-	137	55	48	60	31,955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5.8 시간이었고, 전체의 58.3%가 6시간~10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5시간	100.0	49.2	-	46.0	52.1	23.1	66.4	-	-	0.0	-	0.0	0.0	0.0	-	41.7
6-10시간	0.0	50.8	-	54.0	47.9	76.9	33.6	-	-	100.0	-	100.0	100.0	100.0	-	58.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	100.0
전국추정수	491	1,641	-	528	340	3,644	1,272	-	-	159	-	22	35	24	-	8,156
평균 이용시간	5.0	5.3	-	6.1	5.8	6.2	5.1	-	-	6.7	-	7.0	9.0	10.0	-	5.8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월 평균 비용을 보면, 전체의 41.4%가 무료로 이용하였고, 1~5만원 37.8%, 6~10만원 18.5%, 11~15만원 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비용은 3만원이었다.

〈표 5-6-3〉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료	0.0	49.6	-	32.3	78.5	39.0	50.1	-	-	0.0	-	0.0	100.0	100.0	-	41.4
1~5만원	100.0	0.0	-	40.1	8.8	50.4	28.7	-	-	82.4	-	100.0	0.0	0.0	-	37.8
6~10만원	0.0	50.4	-	27.5	0.0	10.6	9.9	-	-	17.6	-	0.0	0.0	0.0	-	18.5
11~15만원	0.0	0.0	-	0.0	12.6	0.0	6.3	-	-	0.0	-	0.0	0.0	0.0	-	1.5
16~20만원	0.0	0.0	-	0.0	0.0	0.0	2.7	-	-	0.0	-	0.0	0.0	0.0	-	0.4
21~25만원	0.0	0.0	-	0.0	0.0	0.0	2.4	-	-	0.0	-	0.0	0.0	0.0	-	0.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	100.0
전국추정수	491	1,640	-	501	340	3,643	1,298	-	-	159	-	22	35	24	-	8,153
평균 비용	3.0	3.8	-	3.6	1.8	2.7	3.4	-	-	4.7	-	3.0	0.0	0.0	-	3.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가 각각 41.5%, 31.3%로 70% 이상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가 14.9%로 나타나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표 5-6-4〉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0.0	58.0	-	12.3	39.2	49.4	23.5	-	-	57.2	-	0.0	60.0	100.0	-	41.5
대체로 만족한다	100.0	0.0	-	54.8	52.5	26.6	43.9	-	-	25.2	-	100.0	0.0	0.0	-	31.3
보통이다	0.0	0.0	-	32.8	8.3	17.0	12.0	-	-	17.6	-	0.0	0.0	0.0	-	12.3
약간 불만족한다	0.0	42.0	-	0.0	0.0	7.0	20.5	-	-	0.0	-	0.0	40.0	0.0	-	14.9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	100.0
전국추정수	491	1,640	-	527	339	3,643	1,272	-	-	159	-	22	35	24	-	8,152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9세 이하 장애 아동이 현재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가 7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가 26.2%, ‘다른 방법이 있어서’ 1.6%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아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6-5〉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몰라서	-	-	-	-	-	-	-	-	-	-	-	-	-	-	-	-
시설이 없어서	0.0	0.0	0.0	0.0	12.0	0.0	3.6	-	-	0.0	-	0.0	0.0	0.0	0.0	0.6
믿지 못해서	0.0	0.0	0.0	2.2	0.0	0.0	0.0	-	-	0.0	-	0.0	0.0	0.0	0.0	0.2
다른 방법이 있어서	0.0	0.0	0.0	1.4	0.0	4.3	0.0	-	-	0.0	-	0.0	0.0	0.0	0.0	1.6
비용부담때문에	0.0	7.6	0.0	0.0	0.0	0.0	1.7	-	-	0.0	-	0.0	0.0	0.0	0.0	0.9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49.5	19.7	0.0	8.0	24.0	28.5	6.1	-	-	18.3	-	0.0	0.0	0.0	51.7	26.2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50.5	72.7	100.0	88.4	63.9	67.2	88.6	-	-	81.7	-	78.9	100.0	100.0	48.3	70.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	-	0.0	-	21.1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843	2,280	1,723	1,796	441	8,268	2,749	-	-	482	-	114	20	24	60	23,800

만 9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80.5%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앞서 살펴본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만 9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아동의 유치원 형태로는 일반유치원이 17.3%, 그 외 특수학교유치원 1.8%이었으며, 일반유치원내특수학급은 0.4%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 15.2%, 언어장애 13.6%, 그리고 뇌병변장애 11.5%의 순이었다. 그리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4.6%로 유일하였다.

〈표 5-6-6〉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유치원	45.7	11.5	0.0	3.3	13.6	15.2	3.3	-	-	10.8	-	0.0	0.0	0.0	0.0	17.3
일반유치원내특수학급	0.0	0.0	0.0	2.1	0.0	0.0	0.8	-	-	3.0	-	0.0	0.0	0.0	51.7	0.4
특수학교 유치원(부)	0.0	0.0	0.0	0.8	0.0	4.6	0.0	-	-	0.0	-	0.0	0.0	0.0	0.0	1.8
다니지 않음	54.3	88.5	100.0	93.8	86.4	80.2	95.8	-	-	86.3	-	100.0	100.0	100.0	48.3	8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34	3,920	1,723	2,324	780	11,912	4,021	-	-	641	-	137	55	48	60	31,955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6시간이었고, 전체의 87.6%가 6시간~10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7〉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5시간	0.0	0.0	-	46.9	62.9	21.8	44.0	-	-	21.6	-	-	-	-	100.0	12.4
6~10시간	100.0	100.0	-	53.1	37.1	78.2	56.0	-	-	78.4	-	-	-	-	0.0	87.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893	450	-	145	105	2,360	168	-	-	88	-	-	-	-	31	6,240
평균 이용시간	6.0	6.9	-	5.2	5.0	6.6	5.1	-	-	4.9	-	-	-	-	5.0	6.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월 평균 비용을 보면, 전체의 46.8%가 11만원~20만원으로 이용하였고, 33.3%는 무료로 이용하였으며, 18.2%가 1만원~10만원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비용은 8만원이었으며 특히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의 경우 11만원~20만원으로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유치원 교육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8〉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료	0.0	69.3	-	38.9	0.0	65.8	52.1	-	-	53.4	-	-	-	-	100.0	33.3
1~10만원	0.0	30.7	-	0.0	76.6	34.2	32.0	-	-	46.6	-	-	-	-	0.0	18.2
11~20만원	100.0	0.0	-	0.0	23.4	0.0	0.0	-	-	0.0	-	-	-	-	0.0	46.8
21~30만원	0.0	0.0	-	19.8	0.0	0.0	16.0	-	-	0.0	-	-	-	-	0.0	0.8
31~40만원	0.0	0.0	-	41.3	0.0	0.0	0.0	-	-	0.0	-	-	-	-	0.0	0.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893	450	-	126	124	2,360	169	-	-	88	-	-	-	-	31	6,241
평균 비용	15.0	0.6	-	21.1	5.4	1.3	6.4	-	-	2.3	-	-	-	-	0.0	8.2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가 각각 27.3%, 50.9%로 78.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가 각각 4.9%와 9.0%로 약 13.9% 정도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았다.

〈표 5-6-9〉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0.0	87.1	-	53.1	35.2	45.1	32.0	-	-	53.4	-	-	-	-	100.0	27.3
대체로 만족한다	100.0	12.9	-	46.9	27.6	0.0	52.1	-	-	46.6	-	-	-	-	0.0	50.9
보통이다	0.0	0.0	-	0.0	0.0	20.7	0.0	-	-	0.0	-	-	-	-	0.0	7.8
약간 불만족한다	0.0	0.0	-	0.0	0.0	11.9	16.0	-	-	0.0	-	-	-	-	0.0	4.9
매우 불만족한다	0.0	0.0	-	0.0	37.1	22.3	0.0	-	-	0.0	-	-	-	-	0.0	9.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893	450	-	145	105	2,359	169	-	-	88	-	-	-	-	31	6,240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9세 이하 장애 아동이 현재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보육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가 6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서’가 31.0%, ‘다른 방법이 있어서’ 1.5%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의 순으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5-6-10〉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몰라서	-	-	-	-	-	-	-	-	-	-	-	-	-	-	-	-
시설이 없어서	0.0	0.0	10.9	0.0	7.9	0.0	2.5	-	-	0.0	-	0.0	0.0	0.0	0.0	1.3
믿지 못해서	0.0	0.0	0.0	1.8	0.0	0.0	0.0	-	-	0.0	-	0.0	0.0	0.0	0.0	0.2
다른 방법이 있어서	0.0	0.0	0.0	1.1	0.0	3.7	0.0	-	-	0.0	-	0.0	0.0	0.0	0.0	1.5
비용부담때문에	0.0	5.0	0.0	0.0	0.0	0.0	1.7	-	-	0.0	-	0.0	0.0	0.0	0.0	0.9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서	14.3	47.3	0.0	24.2	50.4	38.1	28.4	-	-	28.8	-	16.2	63.6	50.0	0.0	31.0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85.7	47.8	89.1	72.9	41.8	58.1	66.2	-	-	71.2	-	66.2	36.4	50.0	100.0	64.8
기타	0.0	0.0	0.0	0.0	0.0	0.0	1.2	-	-	0.0	-	17.6	0.0	0.0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441	3,470	1,722	2,179	675	9,552	3,854	-	-	553	-	136	55	48	29	25,714

만 17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이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를 살펴보면 언어치료가 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치료 24.4%, 미술치료 22.6%, 음악치료 19.6%, 작업치료 19.2%, 그리고 놀이치료 18.1%, 심리·행동치료 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는 11.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고 시각장애는 미술치료와 심리·행동치료,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는 언어치료의 비율이 높으며 지적 장애는

언어치료의 비율이 비교적 높지만 다른 치료들의 비율 역시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6-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음악치료																
예	0.0	22.4	12.2	3.4	7.6	24.7	31.0	0.0	0.0	5.1	-	0.0	0.0	0.0	12.9	19.6
아니오	100.0	77.6	87.8	96.6	92.4	75.3	69.0	100.0	100.0	94.9	-	100.0	100.0	100.0	87.1	80.4
미술치료																
예	0.0	21.8	38.6	12.4	14.5	24.9	39.7	0.0	0.0	7.0	-	0.0	0.0	0.0	15.8	22.6
아니오	100.0	78.2	61.4	87.6	85.5	75.1	60.3	100.0	100.0	93.0	-	100.0	100.0	100.0	84.2	77.4
언어치료																
예	0.0	21.1	0.0	62.7	68.6	38.2	54.1	0.0	0.0	3.4	-	0.0	0.0	0.0	13.4	32.5
아니오	100.0	78.9	100.0	37.3	31.4	61.8	45.9	100.0	100.0	96.6	-	100.0	100.0	100.0	86.6	67.5
물리치료																
예	6.5	52.3	0.0	0.0	0.0	7.9	8.8	0.0	0.0	0.0	-	0.0	0.0	0.0	2.4	11.2
아니오	93.5	47.7	100.0	100.0	100.0	92.1	91.2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97.6	88.8
물리치료																
예	6.5	52.3	0.0	0.0	0.0	7.9	8.8	0.0	0.0	0.0	-	0.0	0.0	0.0	2.4	11.2
아니오	93.5	47.7	100.0	100.0	100.0	92.1	91.2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97.6	88.8
작업치료																
예	0.0	40.1	0.0	7.9	13.3	22.9	23.1	0.0	0.0	0.0	-	0.0	0.0	0.0	10.8	19.2
아니오	100.0	59.9	100.0	92.1	86.7	77.1	76.9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89.2	80.8
놀이치료																
예	0.0	13.6	12.2	7.9	19.2	23.5	27.9	0.0	0.0	1.9	-	0.0	0.0	0.0	18.7	18.1
아니오	100.0	86.4	87.8	92.1	80.8	76.5	72.1	100.0	100.0	98.1	-	100.0	100.0	100.0	81.3	81.9
심리·행동치료																
예	0.0	0.0	38.6	9.2	7.6	14.2	19.4	0.0	0.0	0.0	-	0.0	0.0	0.0	10.8	12.1
아니오	100.0	100.0	61.4	90.8	92.4	85.8	80.6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89.2	87.9
기타																
예	1.7	14.6	1.6	8.4	36.2	31.4	46.6	0.0	0.0	1.9	-	0.0	0.0	0.0	20.8	24.4
아니오	98.3	85.4	98.4	91.6	63.8	68.6	53.4	100.0	100.0	98.1	-	100.0	100.0	100.0	79.2	75.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물리치료가 3.0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타치료, 심리·행동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와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의 순으로 각각 2.9시간, 2.1시간 2.0시간, 1.8시간, 1.7시간, 1.6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의 장애유형 중 청각장애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기타서비스의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 지체장애의 경우 물리치료(12.1시간), 뇌병변장애 미술치료(3.3시간), 시각장애 심리·행동치료(5.0시간)등으로 나타났다. 간질장애의 경우 모든 치료시간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음악치료	-	1.7	1.0	1.6	1.8	1.6	1.7	-	-	1.0	-	-	-	-	2.2	1.6
미술치료	-	3.3	1.0	2.2	2.1	1.6	1.9	-	-	1.0	-	-	-	-	2.6	1.8
언어치료	-	2.3	-	1.6	2.4	2.0	1.9	-	-	1.6	-	-	-	-	2.2	2.0
물리치료	12.1	2.7	-	-	-	1.7	2.2	-	-	-	-	-	-	-	1.0	3.0
작업치료	-	1.6	-	1.0	2.2	1.8	2.5	-	-	-	-	-	-	-	1.0	1.8
놀이치료	-	2.2	1.0	1.0	1.6	1.6	1.8	-	-	1.0	-	-	-	-	1.8	1.7
심리·행동치료	-	-	5.0	2.0	2.0	1.4	2.1	-	-	-	-	-	-	-	1.0	2.1
기타	3.0	4.2	5.0	1.0	2.5	2.5	3.9	-	-	3.0	-	-	-	-	3.5	2.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월평균비용을 살펴보면, 기타치료가 12만 9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심리·행동치료가 11만 1천원, 물리치료 10만 8천원, 언어치료 10만 7천원, 미술치료 6만 3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물리치료에 72만 1천원, 청각장애의 경우 심리·행동치료에 70만원의 높은 비용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뇌병변장애의 경우 미술치료와 언어치료에 각각 14만 5천원과 11만 3천원, 시각장애의 경우 심리·행동치료와 미술치료에 18만원과 16만원, 언어장애의 경우 언어치료와 기타치료에 23만 1천원과 19만 1천원, 지적장애의 경우 기타치료와 언어치료에 13만 1천원과 9만 3천원, 자폐성장애의 경우 기타치료와 언어치료에 15만 5천원과 12만 5천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음악치료	-	9.1	0.0	3.8	5.5	1.1	3.2	-	-	0.0	-	-	-	-	3.2	2.4
미술치료	-	14.5	16.0	1.7	6.2	4.4	4.3	-	-	0.0	-	-	-	-	8.3	6.3
언어치료	-	11.3	-	11.7	23.1	9.3	12.5	-	-	1.7	-	-	-	-	8.0	10.7
물리치료	72.1	7.0	-	-	-	5.7	3.1	-	-	-	-	-	-	-	0.0	10.8
작업치료	-	1.3	-	0.0	5.3	1.6	2.7	-	-	-	-	-	-	-	1.6	1.7
놀이치료	-	2.1	0.0	0.0	12.6	2.8	5.6	-	-	0.0	-	-	-	-	3.6	3.2
심리·행동치료	-	-	18.0	70.0	0.0	6.5	8.6	-	-	-	-	-	-	-	6.2	11.1
기타	30.0	1.0	8.0	0.0	19.1	13.1	15.5	-	-	1.0	-	-	-	-	6.2	12.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많은 수가 받고 있는 치료에 ‘만족’하고 있거나 일부 ‘보통’이라고 답해 전체적으로 ‘불만족’보다는 ‘만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치료서비스에 ‘만족’하거나 일부 ‘보통’이라고 답했다. 반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지적장애의 경우 유의미한 수가 작업치료와 미술치료, 그리고 언어치료에 대해 ‘매우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자폐성장애 또한 유의미한 수가 모든 유형의 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하였고 심장장애의 경우 언어치료를 받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매우불만족’하다고 답했다.

〈표 5-6-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음악치료	-	-	-	-	-	0.0	54.0	46.0	0.0	-
미술치료	-	-	-	-	-	0.0	68.4	31.6	0.0	0.0
언어치료	-	-	-	-	-	0.0	23.0	48.7	28.3	0.0
물리치료	26.3	73.7	0.0	0.0	-	7.8	51.5	21.4	19.3	-
작업치료	-	-	-	-	-	0.0	64.6	10.2	25.2	0.0
놀이치료	-	-	-	-	-	41.1	29.5	29.5	0.0	-
심리·행동치료	-	-	-	-	-	-	-	-	-	-
기타	0.0	100.0	0.0	0.0	-	0.0	40.3	59.7	0.0	-

〈표 5-6-14〉 계속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음악치료	0.0	0.0	100.0	0.0	-	16.9	57.4	25.7	0.0	-
미술치료	0.0	100.0	0.0	0.0	0.0	10.6	79.7	9.7	0.0	0.0
언어치료	-	-	-	-	-	65.7	22.3	8.2	3.8	0.0
물리치료	-	-	-	-	-	-	-	-	-	-
작업치료	-	-	-	-	-	0.0	100.0	0.0	0.0	0.0
놀이치료	0.0	0.0	100.0	0.0	-	0.0	100.0	0.0	0.0	-
심리·행동치료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기타	0.0	100.0	0.0	0.0	-	94.5	5.5	0.0	0.0	-

〈표 5-6-14〉 계속

구분	언어장애					지적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음악치료	0.0	100.0	0.0	0.0	-	14.3	61.7	20.4	3.7	-
미술치료	0.0	70.4	29.6	0.0	0.0	10.9	55.7	23.2	6.5	3.7
언어치료	34.6	49.8	6.6	9.0	0.0	18.6	46.9	23.6	8.5	2.4
물리치료	-	-	-	-	-	0.0	31.0	69.0	0.0	-
작업치료	33.5	32.3	34.2	0.0	0.0	8.8	53.8	33.5	0.0	4.0
놀이치료	16.5	83.5	0.0	0.0	-	8.6	70.7	20.7	0.0	-
심리·행동치료	43.8	56.2	0.0	0.0	0.0	37.2	48.2	14.6	0.0	0.0
기타	24.9	63.2	11.9	0.0	-	16.0	59.9	24.2	0.0	-

〈표 5-6-14〉 계속

구분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음악치료	28.7	48.2	17.4	5.6	-	0.0	0.0	100.0	0.0	-
미술치료	25.7	42.6	25.5	6.3	0.0	27.1	0.0	72.9	0.0	0.0
언어치료	19.3	46.0	25.4	9.3	0.0	57.6	0.0	0.0	0.0	42.4
물리치료	27.5	55.0	10.8	6.7	-	-	-	-	-	-
작업치료	13.9	55.2	22.8	8.1	0.0	-	-	-	-	-
놀이치료	15.5	49.8	24.8	9.9	-	100.0	0.0	0.0	0.0	-
심리·행동치료	14.5	61.5	17.2	5.0	1.9	-	-	-	-	-
기타	25.9	47.9	24.1	2.1	-	100.0	0.0	0.0	0.0	-

〈표 5-6-14〉 계속

구분	간질장애					전체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음악치료	0.0	100.0	0.0	0.0	-	14.7	56.6	25.3	3.4	-
미술치료	15.0	85.0	0.0	0.0	0.0	12.0	58.6	22.4	5.0	2.1
언어치료	0.0	100.0	0.0	0.0	0.0	22.8	42.8	23.4	9.5	1.5
물리치료	100.0	0.0	0.0	0.0	-	8.2	45.9	36.2	9.7	-
작업치료	22.5	77.5	0.0	0.0	0.0	7.7	57.1	26.3	6.4	2.4
놀이치료	28.2	71.8	0.0	0.0	-	12.1	62.3	23.8	1.8	-
심리·행동치료	22.5	77.5	0.0	0.0	0.0	25.7	60.9	12.1	0.9	0.4
기타	62.5	37.5	0.0	0.0	-	18.9	55.5	25.2	0.5	-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 중 ‘다닐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8%이며, ‘시설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6%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와 지체장애, 그리고 심장장애 순으로 ‘다닐 필요가 없어서’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

며,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와 심장장애 순으로 ‘비용부담 때문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5-6-15〉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물라서	0.0	0.0	0.0	0.0	0.0	6.4	1.9	0.0	0.0	0.0	-	0.0	0.0	0.0	0.0	3.5
시설이 없어서	4.4	7.7	0.0	2.7	7.9	8.8	11.3	64.0	0.0	0.0	-	0.0	0.0	0.0	10.8	7.6
믿지 못해서	0.0	5.5	0.0	0.6	0.0	1.4	6.5	0.0	0.0	0.0	-	0.0	0.0	0.0	0.0	2.0
다른 방법이 있어서	0.0	0.0	0.0	0.0	0.0	3.1	1.5	0.0	0.0	0.0	-	0.0	0.0	0.0	0.0	1.8
비용부담 때문에	0.0	41.7	52.5	34.8	48.3	43.1	54.5	0.0	0.0	30.2	-	0.0	15.3	0.0	34.6	37.8
대기 중이어서	0.0	0.0	0.0	0.0	7.1	2.8	3.0	0.0	0.0	0.0	-	0.0	0.0	0.0	5.5	2.0
다닐 필요가 없어서	93.2	37.1	47.5	60.8	36.8	27.2	17.1	0.0	100.0	68.4	-	93.3	84.7	100.0	49.1	40.0
기타	2.4	7.9	0.0	1.1	0.0	7.2	4.1	36.0	0.0	1.4	-	6.7	0.0	0.0	0.0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46	6,095	3,969	4,388	1,146	41,735	10,293	228	153	1,347	-	283	144	154	381	81,662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8.3%와 1.4%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자의 69.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8%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유형별로는 특히 신장장애 및 지체장애, 그리고 심장장애와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순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6-1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잘 적응	0.0	0.0	0.0	0.0	0.0	2.3	1.8	-	0.0	0.0	-	0.0	0.0	0.0	0.0	1.4
잘 적응하는 편	3.2	8.2	38.6	14.6	5.4	20.9	25.9	-	0.0	9.4	-	3.8	22.2	0.0	32.9	18.3
잘 적응 못하는 편	85.8	74.7	56.6	76.8	79.0	65.5	65.3	-	100.0	80.5	-	72.3	77.8	66.2	57.4	69.5
전혀 적응 못함	10.9	17.2	4.7	8.6	15.6	11.4	6.9	-	0.0	10.2	-	23.8	0.0	33.8	9.7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80	5,705	3,969	4,324	1,094	42,876	9,739	-	55	962	-	260	144	154	401	80,763

장애아동 및 학생이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수업내용의 이해(34.6%)와 친구들의 이해부족(20.6%)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문교사의 부족(8.2%)과 선생님의 이해부족(6.8%),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3.6%) 또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모두 ‘수업내용의 이해’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지체장애의 경우,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에 대한 응답이 높아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보이며 뇌병변장애의 경우 ‘전문교사의 부족’에 대한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나 학습내 전문교사 배치가 시급해 보인다.

〈표 5-6-17〉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의 문제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친구들의 놀이	이해부족,	18.1	20.8	31.5	17.0	22.9	20.1	21.5	-	0.0	22.9	-	25.1	46.9	40.9	19.7	20.6
선생님의 편견	이해부족,	21.4	6.9	0.0	1.7	0.0	4.1	8.2	-	0.0	8.2	-	7.3	13.3	0.0	0.0	6.8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	-	-	-	-	-	-	-	-	-	-	-	-	-	-
수업내용의 이해(진 도 따라가기)	이해(진 도 따라가기)	8.0	10.2	44.1	65.5	37.8	41.4	33.6	-	0.0	10.2	-	23.9	30.1	25.3	45.0	34.6
교육도구나 사용시 불편	기자재	2.4	0.0	19.6	0.0	0.0	1.0	0.8	-	0.0	0.0	-	0.0	0.0	0.0	0.0	1.9
교육내용의 부적합		0.0	5.9	0.0	0.0	9.8	3.5	2.8	-	0.0	0.0	-	10.8	0.0	0.0	0.0	2.8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8.2	9.9	0.0	0.0	0.0	0.4	0.4	-	100.0	2.0	-	0.0	0.0	0.0	5.2	2.2
전문교사의 부족		6.1	16.6	0.0	7.2	10.9	8.5	9.2	-	0.0	0.0	-	0.0	0.0	0.0	0.0	8.2
특수교육 보조원 미 배치		0.0	10.2	0.0	2.2	3.9	3.3	7.7	-	0.0	0.0	-	0.0	0.0	0.0	2.2	3.6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0.0	5.5	0.0	0.9	0.0	1.1	1.3	-	0.0	14.8	-	0.0	0.0	0.0	0.0	1.4
등·하교 불편		2.4	2.2	0.0	0.4	0.0	2.5	4.6	-	0.0	9.5	-	0.0	0.0	0.0	2.7	2.5
문제 없음		33.5	11.9	4.7	5.0	14.8	13.9	9.0	-	0.0	29.7	-	32.8	9.8	33.8	17.4	15.2
기타		0.0	0.0	0.0	0.0	0.0	0.0	0.8	-	0.0	2.8	-	0.0	0.0	0.0	7.7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78	5,705	3,970	4,323	1,094	42,876	9,739	-	55	962	-	259	143	154	402	80,760

장애아동 및 학생들의 통학방법을 살펴보면, 도보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통학버스 30.7%, 자가용(보호자운전) 14.4%, 일반버스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안면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는 자가용(보호자 운전), 시각장애는 도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18〉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버스	10.6	1.0	0.0	1.5	10.5	8.7	7.4	-	100.0	12.5	-	3.9	6.9	43.1	30.2	7.8
일반택시	0.0	0.0	0.0	0.0	0.0	0.3	0.6	-	0.0	0.0	-	0.0	0.0	0.0	0.0	0.3
지하철·전철	21.4	0.0	0.0	0.0	0.0	0.1	0.0	-	0.0	0.0	-	0.0	0.0	0.0	0.0	3.0
통학버스	44.2	28.8	12.2	11.4	30.6	31.5	32.2	-	0.0	17.9	-	8.5	38.2	15.7	7.7	30.7
장애인 콜택시	0.0	0.0	0.0	0.0	0.0	0.0	0.3	-	0.0	0.0	-	0.0	0.0	0.0	0.0	0.0
복지관버스	-	-	-	-	-	-	-	-	-	-	-	-	-	-	-	-
자가(보호자운전)	16.3	30.9	5.4	12.3	4.8	11.1	23.0	-	0.0	12.7	-	0.0	0.0	15.7	25.2	14.4
셔틀형복지버스	0.0	0.0	0.0	0.0	0.0	0.0	0.5	-	0.0	0.0	-	0.0	0.0	0.0	0.0	0.1
전동휠체어	1.6	0.0	0.0	0.0	0.0	0.0	0.0	-	0.0	0.0	-	0.0	0.0	0.0	0.0	0.2
전동스쿠터	-	-	-	-	-	-	-	-	-	-	-	-	-	-	-	-
도보	5.9	39.3	81.4	74.4	54.0	41.3	35.1	-	0.0	54.9	-	87.6	54.9	25.5	27.2	39.7
기타	0.0	0.0	0.9	0.4	0.0	6.9	0.9	-	0.0	2.0	-	0.0	0.0	0.0	0.0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79	5,704	3,970	4,324	1,093	42,876	9,738	-	55	961	-	259	144	153	401	80,757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 및 학생들의 낮시간 또는 방과 후의 활동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64.2%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함께’로 응답하여 장애아동 및 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에서 학원 및 복지시설에 보낸다고 집에서 혼자 지낸다는 응답도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와 장루·요루장애의 100%, 그리고 언어장애의 76.8%, 간질장애의 76.1%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 5-6-19〉 낮 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집에서 혼자 지냄	3.2	0.0	0.0	6.9	0.0	11.2	3.9	-	0.0	15.8	-	0.0	26.2	0.0	14.9	7.5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장애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시설	57.4	73.7	66.9	66.4	76.8	63.4	65.6	-	100.0	58.2	-	69.1	60.0	100.0	76.1	64.2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	-	-	-	-	-	-	-	-	-	-	-	-	-	-	-
일반보육시설	0.0	0.0	0.0	0.0	0.0	0.0	2.1	-	0.0	0.0	-	0.0	0.0	0.0	0.0	0.2
가정에서 방문교사 지도	0.0	0.0	0.0	0.0	0.0	1.2	1.1	-	0.0	0.0	-	0.0	0.0	0.0	0.0	0.8
복지시설	0.0	6.0	30.6	2.6	9.6	10.6	12.1	-	0.0	0.0	-	7.3	0.0	0.0	0.0	9.3
학원	10.9	10.1	2.6	19.7	10.9	7.4	8.3	-	0.0	20.7	-	23.6	0.0	0.0	0.0	8.8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활동참여	2.4	0.0	0.0	1.3	0.0	2.5	3.5	-	0.0	5.3	-	0.0	0.0	0.0	0.0	2.2
기타	26.1	10.2	0.0	0.0	0.0	2.9	3.3	-	0.0	0.0	-	0.0	13.8	0.0	0.0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80	5,704	3,970	4,324	1,095	42,876	9,739	-	55	962	-	259	145	154	402	80,765

향후 학습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5.4%가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5.2%는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하여 학습도우미가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의 가정에 방문하여 학습을 도와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5-6-20〉 향후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유료라도 이용	45.2	25.1	8.0	20.8	43.5	22.1	26.1	-	0.0	7.2	-	28.5	0.0	15.7	7.5	25.2
무료라면 이용	2.4	60.3	87.3	67.8	46.6	63.4	59.8	-	0.0	66.1	-	31.2	86.1	41.2	65.2	55.4
이용하지 않음	52.4	14.6	4.7	11.4	9.9	14.5	14.1	-	100.0	26.7	-	40.4	13.9	43.1	27.4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79	5,705	3,969	4,324	1,094	42,876	9,739	-	55	962	-	260	144	153	402	80,762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25.1%가 ‘특수교육 무상확대’라고 답하였으며 21.6%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라 답하였다 또한 20.9%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으로, 13.8%가 ‘고등교육의 지원강화’라 답하여 장애아동 및 학생들의 필요도가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부모사후의 생계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언어장애, 그리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순으로 ‘특수교육 무상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체장애와 청각장애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5-6-21〉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의료비용 경감	0.0	31.1	30.6	4.5	16.0	2.4	1.1	-	0.0	57.9	-	42.1	32.4	59.1	10.0	6.6
장애아 전용보육시설의 확대	0.0	5.9	0.0	4.1	3.9	11.3	5.9	-	0.0	0.0	-	0.0	19.3	0.0	0.0	7.5
특수교육 무상 확대	0.0	13.3	44.1	26.1	39.1	30.0	32.5	-	0.0	1.9	-	17.0	0.0	25.3	12.7	25.1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56.7	15.7	0.0	29.5	12.0	17.0	14.2	-	0.0	8.5	-	0.0	13.8	0.0	17.7	21.6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0.0	8.6	0.0	0.6	7.5	5.1	8.0	-	0.0	9.8	-	7.3	0.0	0.0	11.7	4.6
고등교육 지원 강화	30.4	11.2	4.7	22.0	11.6	11.0	8.6	-	100.0	14.0	-	25.1	13.1	0.0	18.0	13.8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	13.0	14.2	20.6	13.2	9.9	23.2	29.7	-	0.0	7.9	-	8.5	21.4	15.6	29.9	2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80	5,705	3,969	4,323	1,094	42,876	9,739	-	55	961	-	259	145	154	401	80,761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남겨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74.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안면장애와 간질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으로 높은 가입의향을 나타냈다.

〈표 5-6-22〉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45.1	83.0	19.5	86.2	88.6	80.6	90.3	-	0.0	68.5	-	85.3	100.0	58.8	92.3	74.4
없다	54.9	17.0	80.5	13.8	11.4	19.4	9.7	-	100.0	31.5	-	14.7	0.0	41.2	7.7	2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79	5,705	3,970	4,324	1,094	42,876	9,739	-	55	962	-	259	144	153	402	80,762

제7절 취업 및 직업재활

1. 취업률 및 실업률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이며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08년의 경우 37.7%로서 2005년의 34.1%보다 3.6%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2008년 12월 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ILO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70.8천명으로 추정된다.

〈표 5-7-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26,778	380	104	276	26,398	1.42	27.37	72.63	0.39
20~29세	75,207	28,640	17,345	11,295	46,567	38.08	60.56	39.44	23.06
30~39세	158,266	83,666	72,340	11,326	74,600	52.86	86.46	13.54	45.71
40~49세	356,232	215,163	196,366	18,797	141,069	60.40	91.26	8.74	55.12
50~64세	684,182	357,560	334,495	23,065	326,622	52.26	93.55	6.45	48.89
65세이상	770,935	165,431	159,405	6,026	605,504	21.46	96.36	3.64	20.68
계	2,071,600	850,840	780,055	70,785	1,220,760	41.07	91.68	8.32	37.65
전국 ¹⁾	39,804,000	24,032,000	23,245,000	787,000	15,772	60.4	96.7	3.3	58.40

주1)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08년 12월 기준)』, 2009.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70.8천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7.6%이고, 여성장애인은 23.7%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5-7-2〉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09,706	631,195	575,580	55,615	578,511	52.18	91.19	8.81	47.58
여자	861,890	219,642	204,474	15,168	642,248	25.48	93.09	6.91	23.72
계	2,071,596	850,837	780,054	70,783	1,220,759	41.07	91.68	8.32	37.65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장루·요루장애(9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간질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정신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폐성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은 빈도가 적어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없었고, 또한 이러한 장애유형의 실업률이 낮게 나온 것은 아직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연령이거나 이러한 장애유형의 수가 적어 표본 추출된 장애인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조심해야 한다.

〈표 5-7-3〉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1,124,524	569,516	525,629	43,887	555,008	50.65	92.29	7.71	46.74
뇌병변장애	211,976	25,579	23,745	1,834	186,397	12.07	92.83	7.17	11.20
시각장애	217,306	99,478	89,384	10,094	117,828	45.78	89.85	10.15	41.13
청각장애	203,067	86,798	80,778	6,020	116,269	42.74	93.06	6.94	39.78
언어장애	14,024	4,862	4,266	596	9,162	34.67	87.74	12.26	30.42
지적장애	107,359	26,965	24,122	2,843	80,394	25.12	89.46	10.54	22.47
자폐성장애	4,044	400	354	46	3,644	9.89	88.50	11.50	8.75
정신장애	84,552	9,784	8,358	1,426	74,768	11.57	85.43	14.57	9.89
신장장애	48,283	11,284	9,331	1,953	36,999	23.37	82.69	17.31	19.33
심장장애	13,771	3,355	2,808	547	10,416	24.36	83.70	16.30	20.39
호흡기장애	14,393	2,679	2,387	292	11,714	18.61	89.10	10.90	16.58
간장애	6,249	2,109	1,871	238	4,140	33.75	88.72	11.28	29.94
안면장애	2,071	1,356	1,171	185	715	65.48	86.36	13.64	56.54
장루요루장애	11,280	3,748	3,490	258	7,532	33.23	93.12	6.88	30.94
간질장애	8,698	2,925	2,361	564	5,773	33.63	80.72	19.28	27.14
계	2,071,597	850,838	780,055	70,783	1,220,759	41.07	91.68	8.32	37.65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3.5%이고, 경증장애인은 7.7%로써,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경증장애인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5-7-4〉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중증	515,294	89,893	77,729	12,164	425,401	17.44	86.47	13.53	15.08
경증	1,556,304	760,945	702,325	58,620	795,359	48.89	92.30	7.70	45.13
계	2,071,598	850,838	780,054	70,784	1,220,760	41.07	91.68	8.32	37.65

2. 취업장애인의 특성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은 전체적으로 평균 186.9개월로 약 16년 이상 취업해 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약 5일,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 월 평균 수입은 115만 6천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평균 취업기간은 청각장애가 213.1개월로 가장 길었고, 자폐성장애는 22.7개월로 가장 짧았다. 월평균 수입은 간장애가 역시 235만 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는 23만 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5-7-5〉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단위: 개월, 일, 시간, 만원)

구분	평균 취업기간 (개월)	주당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지체장애	191.5	5.0	8.0	121.4
뇌병변장애	157.2	5.2	7.2	104.5
시각장애	193.9	4.9	8.2	136.8
청각장애	213.1	5.0	7.7	88.5
언어장애	105.4	5.2	8.3	92.7
지적장애	100.4	5.0	7.1	41.0
자폐성장애	22.7	4.8	6.3	23.2
정신장애	71.0	4.7	6.1	23.7
신장장애	135.2	4.6	7.2	147.5
심장장애	135.3	5.0	7.5	97.8
호흡기장애	193.5	4.8	6.7	86.5
간장애	143.9	5.1	8.0	235.2
안면장애	113.1	5.0	9.1	124.2
장루·요루장애	192.8	5.3	7.3	84.5
간질장애	94.0	5.3	6.9	66.4
전체	186.9	5.0	7.9	115.6

취업장애인의 직장유형에서는 자영업이 47.0%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업체는 41.0%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52.6%), 자폐성장애(39.3%), 지적장애(18.0%)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다.

〈표 5-7-6〉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영업	47.2	41.3	53.7	51.4	32.7	24.4	0.0	14.5	42.7	48.9	63.3	44.8	31.7	59.0	42.7	47.0
일반사업체	42.5	40.6	35.0	36.8	55.4	44.7	27.1	20.0	52.2	41.9	31.0	38.3	62.9	31.6	48.4	41.0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4.6	5.1	5.5	2.0	3.6	1.2	0.0	0.0	4.4	7.3	1.1	15.8	3.8	4.6	3.9	4.3
장애인 보호작업장	0.2	2.3	0.0	0.0	0.0	18.0	39.3	52.6	0.0	0.0	0.0	0.0	0.0	0.0	1.4	1.3
장애인근로사업장	0.0	0.0	0.0	0.2	0.0	6.2	0.0	8.2	0.0	0.0	0.0	0.0	0.0	0.0	0.0	0.3
장애인관련기관	1.2	4.5	0.2	1.0	0.0	0.8	23.4	4.6	0.0	0.0	1.4	0.0	1.0	0.0	0.0	1.2
기타	4.3	6.1	5.6	8.7	8.3	4.8	10.2	0.0	0.8	1.9	3.2	1.2	0.5	4.8	3.8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5,629	23,747	89,383	80,777	4,266	24,122	354	8,356	9,331	2,808	2,387	1,871	1,171	3,490	2,361	780,053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는 자영업의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상용근로자 24.7%의 순이었다.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는 호흡기장애(56.9%), 시각장애(40.1%)였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간장애(40.9%)였다.

〈표 5-7-7〉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5.6	30.8	20.8	21.5	31.0	26.6	7.6	11.2	31.1	26.2	15.0	40.9	37.5	15.4	14.4	24.7
임시근로자	7.6	11.2	7.3	7.0	9.2	13.6	23.4	6.7	7.8	12.0	6.3	10.1	8.5	9.5	23.9	7.9
일용근로자	19.7	16.7	18.2	20.1	27.1	35.4	68.9	67.7	18.4	12.9	15.4	4.3	22.3	16.1	19.1	20.4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2.8	4.8	8.7	1.7	2.5	0.0	0.0	0.0	4.3	4.5	3.1	17.1	4.0	1.1	2.7	3.3
자영자1 (노점제외)	36.0	29.9	36.3	36.5	18.2	10.2	0.0	8.1	29.2	26.7	47.7	18.8	26.4	43.0	17.1	34.5
자영자2 (노점)	2.4	1.5	3.8	1.7	6.5	5.0	0.0	3.6	0.0	4.2	9.2	5.4	0.0	4.4	7.4	2.6
무급가족 봉사자	6.0	5.0	4.9	11.6	5.5	9.1	0.0	2.8	9.2	13.6	3.3	3.5	1.4	10.5	15.5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5,630	23,746	89,384	80,777	4,266	24,122	354	8,358	9,331	2,807	2,386	1,870	1,172	3,490	2,361	780,054

취업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큰 것이 낮은 수입으로, 취업장애인의 45.5%가 문제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업무과다가 16.5%였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는 낮은 수입(53.6%)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장루·요루장애는 업무과다(18.9%)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5-7-8〉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낮은 수입	47.2	50.2	39.4	47.3	38.1	29.3	30.1	29.0	48.2	43.9	53.6	32.8	37.5	43.1	41.5	45.5
직장 내의 대인관계	0.9	2.8	1.9	6.3	9.2	7.4	13.5	2.9	1.2	3.0	0.0	5.2	9.6	0.0	7.2	1.9
승진문제	0.1	0.0	0.0	0.0	0.9	0.0	0.0	0.0	0.6	0.0	0.0	1.0	0.0	0.0	0.7	0.1
업무과다	18.3	13.8	14.2	13.5	6.5	5.7	0.0	13.7	10.9	13.3	11.8	14.3	5.8	18.9	15.2	16.5
직무관련기능 부족	1.9	1.3	1.8	1.2	2.9	19.2	0.0	3.6	0.0	1.8	1.0	1.4	0.0	0.7	2.1	2.3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0.5	0.9	0.2	1.0	1.0	0.0	9.9	3.1	0.4	1.8	0.0	1.4	2.4	0.0	4.4	0.5
장애인에 대한 차별	0.9	1.4	0.3	1.8	5.7	5.0	9.9	0.0	0.7	1.5	0.0	0.0	7.0	0.0	1.0	1.1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4.2	0.9	0.8	0.0	1.0	0.0	13.0	0.0	2.2	4.6	3.9	2.8	0.0	4.8	0.9	3.1
출퇴근 불편	1.0	6.4	3.6	1.0	2.4	2.1	0.0	0.0	3.4	3.6	0.0	0.0	0.0	1.8	4.3	1.6
성차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0.0	0.0	0.0	0.7	0.0	0.0
성희롱	-	-	-	-	-	-	-	-	-	-	-	-	-	-	-	-
어려움 없음	24.9	22.2	37.7	27.5	32.3	31.4	23.7	47.9	29.4	25.4	26.9	41.2	37.3	30.1	21.5	27.2
기타	0.1	0.0	0.1	0.4	0.0	0.0	0.0	0.0	2.9	0.0	2.8	0.0	0.4	0.0	1.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5,628	23,744	89,383	80,778	4,266	24,122	355	8,359	9,331	2,806	2,387	1,871	1,171	3,490	2,361	780,052

취업장애인들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다’로 응답한 장애인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한다’ 34.7%, ‘불만족한다’ 29.5%의 순으로 많은 취업장애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표 5-7-9〉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12.2	13.5	9.4	10.7	5.8	27.0	49.2	26.4	9.8	11.7	14.7	19.5	12.0	6.5	9.3	12.3
약간 만족한다	19.8	20.4	28.5	32.4	30.9	18.8	27.4	33.0	23.7	21.9	21.2	21.2	33.6	33.1	30.0	22.4
보통이다	36.4	31.7	36.3	32.9	35.6	42.0	13.6	19.0	39.6	32.8	27.4	31.4	28.6	28.1	26.1	35.7
약간 불만족이다	23.2	23.4	21.6	18.0	22.8	10.4	9.9	14.7	18.1	23.8	21.2	14.6	19.0	28.3	22.7	21.9
매우 불만족이다	8.5	11.0	4.2	6.0	4.8	1.9	0.0	7.0	8.8	9.8	15.5	13.3	6.8	4.0	11.9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5,629	23,745	89,384	80,778	4,266	24,120	354	8,358	9,332	2,808	2,386	1,871	1,171	3,489	2,362	780,053

3.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2.9%,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0.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에 대한 응답이 45.2%, 정신장애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이 50.5%, 간질장애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다.

〈표 5-7-10〉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2.3	1.4	4.1	1.3	6.9	4.1	0.0	4.2
임금이 너무 낮아서	0.9	0.6	1.0	0.9	0.0	0.0	0.0	0.4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2.4	12.0	19.7	18.3	21.9	22.0	7.0	23.4
작업환경(편의시설 등)이 열악해서	1.3	0.0	0.0	0.3	0.0	0.0	0.0	0.5
출퇴근이 힘들어서	0.4	0.6	0.1	0.0	0.0	0.2	1.2	0.3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4.0	47.8	11.9	6.2	10.1	37.7	25.5	50.5
다른 질병 때문에	8.0	3.5	8.9	9.9	13.4	1.1	0.0	2.1
나이가 많아서	25.3	20.7	31.0	45.2	21.8	1.7	0.0	2.6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14.9	3.7	10.5	8.7	11.1	3.1	1.2	6.0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0.9	0.7	0.5	0.0	0.5	0.9	2.2	0.6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1.1	0.9	0.9	1.0	5.5	8.1	2.7	4.4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6.9	6.7	9.9	5.8	4.6	3.5	3.5	2.9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등)	0.0	0.0	0.1	0.0	0.5	0.0	0.9	0.3
재학 중이기 때문에	0.6	0.7	1.1	0.5	1.0	16.5	54.3	0.2
기타	1.1	0.6	0.4	2.1	2.6	0.9	1.4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총정수	598,894	188,231	127,921	122,287	9,760	82,657	3,690	76,196

〈표 5-7-10〉 계속

구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3.1	1.1	2.9	2.6	20.7	0.7	10.1	2.6
임금이 너무 낮아서	0.9	0.5	0.7	0.0	4.7	0.4	0.7	0.8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7.5	21.3	15.5	21.4	13.9	15.6	31.2	20.0
작업환경(편의시설 등)이 열악해서	0.4	1.0	2.1	0.0	0.0	1.4	0.1	0.7
출퇴근이 힘들어서	1.4	1.4	0.7	1.4	0.0	0.0	1.2	0.4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0.0	22.0	37.5	45.0	10.8	8.2	25.1	22.9
다른 질병 때문에	8.5	9.2	5.3	6.9	8.3	11.5	2.7	6.8
나이가 많아서	9.5	22.6	24.6	2.4	5.7	41.5	2.0	23.5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8.3	10.9	2.7	10.0	14.1	7.5	12.3	10.5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2.6	0.0	0.2	0.0	0.0	1.4	1.4	0.8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1.9	0.7	0.2	0.6	2.8	1.7	2.7	1.8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5.2	6.7	6.8	7.2	8.7	9.2	3.7	6.5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등)	0.3	0.0	0.0	0.0	0.0	0.0	0.4	0.0
재학 중이기 때문에	0.3	2.1	0.0	0.4	7.6	1.0	4.1	1.8
기타	0.2	0.3	0.6	2.1	2.9	0.0	2.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953	10,964	12,005	4,378	900	7,750	6,338	1,290,924

4. 직업훈련

장애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받았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 16.7%, 지적장애 11.5%로 두 장애유형은 비교적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5-7-11〉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예	4.0	1.3	3.8	1.7	5.7	11.5	16.7	5.8	3.0	0.7	1.2	0.6	8.4	0.5	6.3	3.9
훈련 중	0.1	0.4	0.0	0.1	0.2	2.7	3.1	0.9	0.0	0.0	0.2	1.5	0.0	0.0	0.4	0.3
아니오	95.9	98.4	96.1	98.3	94.1	85.8	80.1	93.3	97.0	99.3	98.6	97.9	91.6	99.5	93.3	9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4,524	211,976	217,306	203,066	14,023	107,359	4,043	84,552	48,284	13,771	14,392	6,250	2,070	11,280	8,699	2,071,595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52.2%)’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26.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은 청각장애(58.9%)가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에 대한 응답은 간질장애(37.0%)가 가장 많았다.

〈표 5-7-12〉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7.3	23.4	26.2	30.2	35.1	29.3	11.7	24.2	24.7	25.6	22.8	17.7	33.6	21.1	37.0	26.9
등록절차를 몰라서	2.3	0.9	3.3	0.9	3.0	1.5	0.0	1.1	0.6	0.7	0.6	1.4	1.5	2.2	3.0	1.9
실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4.6	20.0	4.5	3.4	6.3	36.2	22.7	36.4	17.0	9.1	15.9	18.5	3.1	4.3	15.4	9.3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0.7	0.3	0.0	0.2	0.3	0.5	0.0	0.6	1.2	1.1	0.0	1.2	0.0	0.3	1.0	0.5
직업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1.3	0.4	2.6	0.5	1.3	3.2	1.1	1.9	1.2	0.7	0.3	1.2	2.4	1.4	1.1	1.4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5.9	3.2	4.0	4.0	5.4	4.2	1.1	3.7	5.6	5.3	5.9	2.9	13.2	4.3	8.0	5.0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55.1	49.9	57.3	58.9	44.0	22.9	58.7	29.0	45.6	55.8	52.0	55.3	41.7	64.2	29.5	52.2
집 근처에 훈련기관이 없어서	2.7	1.7	1.3	1.5	4.1	2.2	4.8	3.0	3.5	1.4	2.0	1.7	3.4	1.9	3.9	2.3
기타	0.2	0.4	0.8	0.3	0.6	0.0	0.0	0.0	0.7	0.4	0.5	0.0	1.1	0.3	1.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총정수	1,078,150	208,516	208,893	199,514	13,194	92,116	3,240	78,898	46,832	13,680	14,191	6,116	1,896	11,224	8,120	1,984,580

향후 직업훈련 희망 훈련분야에서는 전체의 26.8%가 컴퓨터·정보처리 분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서비스분야(9.8%), 토목·건축분야(8.3%), 기계분야(8.2%), 사무분야(7.2%), 제과·제빵분야(6.6%)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많이 응답한 컴퓨터·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신장장애가 39.8%로 가장 많았다.

〈표 5-7-13〉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기계분야	10.2	4.9	2.5	10.9	15.0	4.1	4.4	1.1	1.3	7.6	10.5	6.6	11.0	7.9	7.4	8.2
금속분야	0.0	0.0	0.3	0.0	4.4	4.9	0.0	0.0	2.5	0.7	0.0	2.0	0.0	7.5	0.8	0.5
화학·요업분야	0.0	1.9	4.2	0.0	0.0	0.6	0.0	0.0	0.0	0.0	0.0	0.0	2.0	0.0	0.7	0.5
전기·전자분야	3.3	5.2	0.5	10.2	4.1	8.1	9.8	4.6	6.2	8.1	4.3	3.6	7.0	5.2	6.2	4.2
통신분야	1.2	0.0	0.2	0.1	2.2	0.0	3.2	3.6	2.3	0.0	0.0	0.0	0.0	2.8	3.7	1.1
조선·항공분야	0.8	0.0	0.0	0.0	0.0	1.1	0.0	1.1	3.5	0.0	0.0	1.2	2.7	2.2	2.1	0.8
토목·건축분야	9.9	7.6	0.3	13.0	3.6	4.4	0.0	4.0	6.2	8.6	8.6	3.1	5.8	12.0	7.2	8.3
섬유분야	4.1	5.8	0.0	3.7	3.7	0.0	2.4	5.2	0.0	1.0	0.0	5.6	0.0	3.0	1.7	3.4

〈표 5-7-13〉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광업분야	-	-	-	-	-	-	-	-	-	-	-	-	-	-	-	-
컴퓨터·정보처리분야	29.2	30.3	19.1	19.4	22.8	16.8	23.9	24.6	39.8	24.6	31.4	25.1	23.6	13.5	22.7	26.8
공예분야	4.0	0.2	11.0	12.8	10.2	16.1	6.6	5.8	5.7	8.8	4.8	3.6	11.0	5.4	8.6	6.0
산업응용분야	0.0	0.1	4.5	0.4	1.4	0.0	0.0	1.1	0.0	0.0	0.0	2.0	0.0	0.0	0.0	0.5
철술·안마분야	5.2	3.4	7.4	0.7	0.0	0.0	0.0	0.0	0.4	4.6	5.7	1.9	0.0	0.0	3.4	4.2
사무분야	7.6	8.9	3.7	9.9	0.0	0.0	4.3	12.8	11.0	16.2	7.4	5.7	9.2	1.7	7.7	7.2
이·미용분야	4.7	3.7	4.0	2.7	2.0	0.5	2.9	4.0	5.4	6.9	2.5	7.1	5.7	5.5	7.6	4.2
제과·제빵분야	5.2	3.4	5.2	5.7	9.1	21.8	26.6	9.7	4.2	4.5	3.3	7.9	12.9	9.8	9.7	6.6
기타 서비스분야	8.7	17.3	15.1	6.5	17.1	12.9	2.4	5.9	7.0	2.9	21.6	15.7	6.5	12.7	5.5	9.8
기타	6.0	7.3	22.1	4.1	4.3	8.8	13.5	16.7	4.8	5.6	0.0	9.0	2.6	10.7	5.1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3,721	24,501	36,878	26,579	2,869	28,037	1,989	15,248	10,842	1,831	1,531	1,629	703	1,394	3,054	420,806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취업상담·평가·알선(19.1%)였고, 그 다음으로 임금보조(19.0%), 직업능력개발(16.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많이 응답한 취업상담·평가·알선의 경우 장루·요루장애가 22.7%로 가장 많았고, 임금보조의 경우 안면장애가 22.7%로 가장 많았다.

〈표 5-7-1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14.1	16.7	14.2	13.4	16.2	23.4	22.2	23.2	14.7	11.6	14.0	16.3	24.7	13.8	22.7	15.2
취업정보 제공	15.3	14.2	14.4	16.2	17.2	7.2	12.6	10.2	15.3	18.8	14.6	12.2	12.7	13.8	12.3	14.5
직업능력 개발 (직업적응 훈련)	13.4	14.9	16.8	16.8	15.0	33.0	33.5	25.2	18.4	18.1	18.2	16.9	13.2	15.7	18.4	16.0
취업상담·평가·알선	21.2	18.4	19.0	16.6	15.5	11.7	11.3	13.7	14.8	18.9	15.6	18.7	9.9	22.7	16.0	19.1
사후지도	1.5	2.9	1.1	2.5	4.0	5.0	6.7	5.2	2.1	1.8	4.7	2.2	1.0	3.0	2.7	2.1
임금보조	20.1	16.9	20.6	21.8	18.7	12.0	3.2	10.6	21.3	16.1	17.0	15.3	22.7	14.7	14.2	19.0
직장내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3.1	3.8	4.0	2.7	2.9	1.4	0.0	2.9	3.6	3.4	2.7	5.6	1.8	3.9	1.8	3.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9.9	10.4	8.1	9.1	8.2	5.1	6.6	7.5	8.3	10.0	11.6	11.6	12.3	9.2	10.2	9.3
업무보조서비스·근로지 원서비스	1.5	1.8	1.6	1.0	2.3	1.4	3.8	0.9	1.4	1.2	1.2	1.1	1.6	2.9	1.6	1.5
기타	0.0	0.0	0.1	0.0	0.0	0.0	0.0	0.5	0.0	0.1	0.5	0.0	0.0	0.3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18,865	211,294	216,979	201,948	13,951	107,072	4,045	83,557	48,285	13,675	14,324	6,249	2,071	11,280	8,700	2,062,295

제 8 절 사회 및 여가활동

장애인들의 사회 및 여가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서 외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다. 혼자서 집밖으로의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3.6%였고,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6.4%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호의 필요도와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5-8-1〉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1.6	54.0	85.3	91.9	84.3	58.3	32.8	63.6	86.9	85.2	81.3	91.4	97.9	93.7	85.7	83.6
아니오	8.4	46.0	14.7	8.1	15.7	41.7	67.2	36.4	13.1	14.8	18.7	8.6	2.1	6.3	14.3	1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의 지난 1년간 평균 몇 번 정도 외출하는지 그 빈도를 알아본 결과, 외출을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1~3회가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1~3회가 7.1%, 년 10회 이내 3.9%, 전혀 외출하지 않음 1.2%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8-2〉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거의 매일	71.1	45.6	69.5	71.1	65.7	69.9	90.7	37.6	52.7	64.9	49.0	68.1	82.3	71.6	67.7	66.6
주 1~3회	19.7	26.8	22.0	20.3	20.6	15.7	6.7	24.0	43.1	22.3	29.3	22.6	15.9	20.4	21.6	21.1
월 1~3회	6.0	11.7	6.3	5.5	6.5	7.5	2.3	18.5	3.8	9.5	16.3	7.9	1.4	4.7	9.0	7.1
년 10회 이내	2.3	11.3	2.0	2.6	7.0	5.9	0.3	16.9	0.5	2.5	4.9	1.3	0.0	2.6	1.4	3.9
전혀 외출 않음	0.9	4.7	0.2	0.5	0.3	1.0	0.0	2.9	0.0	0.8	0.5	0.0	0.5	0.8	0.3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의 외출의 주된 목적을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통근·통학을 위한 외출이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산책 23.2%, 병원진료 11.1%, 친구나 이웃 방문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외출 활동 분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8-3〉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통근·통학	45.0	15.8	39.9	35.9	40.9	51.9	83.1	6.0	14.2	25.3	13.3	33.6	56.8	28.7	38.0	39.3
병원 진료	10.1	21.7	6.7	6.1	7.1	3.4	1.6	15.9	53.9	10.6	25.7	10.7	4.2	9.9	9.4	11.1
쇼핑(물건사기)	3.9	3.5	5.1	6.6	4.2	4.9	0.9	11.0	3.4	5.5	3.5	4.5	4.5	5.3	7.5	4.6
산책	19.6	39.2	22.8	27.6	28.6	17.4	3.5	39.3	20.1	33.9	39.7	37.2	11.4	36.0	21.8	23.2
친척, 친구, 이웃방문	10.5	4.6	13.3	15.0	7.8	4.7	1.2	7.9	5.6	11.1	9.9	9.4	7.7	9.1	10.4	10.1
여행	0.0	0.0	0.0	0.0	0.0	0.0	0.3	0.5	0.0	0.2	0.0	0.0	0.9	0.0	0.0	0.0
지역시설 이용/ 행사참여	8.9	13.0	11.1	7.7	10.5	15.1	8.8	18.7	2.5	12.3	6.5	3.6	4.5	8.9	11.1	9.9
일자리 구하기	0.6	0.5	0.7	0.7	0.6	1.4	0.0	0.0	0.1	0.3	0.2	0.9	7.5	0.8	1.1	0.7
기타	1.4	1.7	0.4	0.5	0.3	1.3	0.6	0.7	0.1	0.7	1.2	0.2	2.6	1.4	0.7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845	164,396	217,007	203,562	18,561	130,855	12,873	67,484	48,682	14,593	13,982	6,408	2,096	10,993	10,791	2,027,128

장애인들의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로 전체의 63.8%가 심한 장애를 이유로 들었으며 ‘외출도우미가 없어서’는 21.5%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와 간장애의 100%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고 답했고 안면장애의 100%가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표 5-8-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주된 이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교통이 불편해서	1.4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이 부족해서	0.0	0.0	0.0	0.0	67.6	0.0	0.0	0.0	0.0	0.0	5.4	0.0	0.0	0.0	0.0	0.9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 해서	77.9	78.2	63.0	6.4	6.6	33.4	0.0	49.1	100.0	79.4	74.7	100.0	0.0	58.4	50.3	63.8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	13.6	17.5	32.5	36.3	4.1	40.1	0.0	28.9	0.0	20.6	12.8	0.0	100.0	29.7	24.0	21.5
시간이 없어서	0.0	1.5	0.0	0.0	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4.5	1.5	2.9	46.7	15.2	26.5	100.0	18.4	0.0	0.0	7.1	0.0	0.0	11.8	0.0	10.3
주위의 시선 때문에	2.6	0.6	0.0	0.0	0.0	0.0	0.0	0.9	0.0	0.0	0.0	0.0	0.0	0.0	25.7	1.2
기타	0.0	0.0	1.6	10.6	2.8	0.0	0.0	2.7	0.0	0.0	0.0	0.0	0.0	0.0	0.0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344	31,300	4,880	6,437	1,449	9,785	35	16,690	221	496	799	86	10	380	183	110,095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인보다도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불편하다’ 13.3%, ‘약간 불편하다’가 22.9%로 약 1/3 정도의 장애인은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주로 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외출시 가장 불편하였고, 청각장애와 간장애 등은 비교적 외출시 덜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8-5〉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불편하다	10.8	35.4	10.9	7.0	8.3	19.2	36.7	13.6	11.5	12.4	22.0	6.4	13.0	11.5	15.1	13.3
약간 불편하다	21.8	32.6	24.6	13.3	25.7	30.0	36.2	24.9	21.4	25.0	25.9	19.6	34.1	24.9	16.8	22.9
보통이다	25.2	18.6	22.4	26.4	23.6	17.0	7.7	17.4	26.5	26.9	29.2	22.3	8.9	24.2	16.7	23.6
거의 불편하지 않다	27.2	10.8	27.6	35.0	25.1	25.0	12.5	26.7	27.4	24.4	18.0	28.5	21.3	30.4	40.3	26.4
전혀 불편하지 않다	15.0	2.6	14.5	18.2	17.3	8.7	7.0	17.4	13.2	11.3	4.9	23.2	22.7	9.0	11.1	1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845	164,398	217,006	203,563	18,562	130,854	12,874	67,483	48,682	14,591	13,983	6,409	2,096	10,993	10,790	2,027,129

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를 알아보면,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47.5%로 가장 많아 장애인의 집밖 활동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3.7%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체장애와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란 응답이 65.7%와 65.1%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75.3%), 자폐성장애(71.7%), 정신장애(64.8%)의 경우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안면장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93.7%) 집밖 활동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8-6〉 집밖 활동시 불편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65.7	39.4	35.8	36.4	49.4	2.7	1.8	4.6	52.2	52.4	64.5	44.5	1.9	65.1	22.9	47.5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0.2	51.8	53.9	47.0	33.7	75.3	71.7	64.8	45.8	43.0	29.1	52.2	2.1	14.0	47.8	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3.7	8.4	10.2	14.0	16.3	21.4	26.0	30.7	0.4	4.4	5.2	2.2	93.7	20.3	28.7	13.7
기타	0.5	0.4	0.1	2.7	0.6	0.6	0.5	0.0	1.6	0.3	1.2	1.1	2.2	0.6	0.6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0,146	111,689	77,116	41,507	6,319	64,419	9,373	25,979	16,024	5,461	6,691	1,664	987	3,997	3,445	734,817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일반버스가 3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32.2%, 지하철·전철 10.4%, 일반택시 6.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 자가용의 이용이 줄고 일반버스와 지하철·전철 등의 이용이 다소 증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통수단 외에 장애인콜택시, 복지관버스, 셔틀형복지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와 언어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일반버스 이용율이 높았고, 간장애,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순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신장애의 경우 자가용보다 지하철·전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8-7〉 주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버스	35.9	22.7	38.0	41.2	51.2	33.9	23.0	47.4	30.7	34.1	31.8	20.9	28.8	40.0	52.2	35.8
일반택시	7.0	13.3	6.8	5.3	5.2	2.6	2.7	3.1	10.8	7.4	11.4	6.0	2.5	6.3	4.4	6.9
지하철·전철	8.0	9.2	15.8	15.3	14.4	7.9	6.2	16.4	14.4	14.7	11.3	18.3	11.8	20.6	16.8	10.4
장애인 콜택시	0.2	1.8	0.4	0.0	0.0	0.0	0.2	0.0	0.7	2.8	0.0	0.4	0.0	0.0	0.0	0.3
복지관버스	0.2	1.3	0.7	0.0	0.3	1.4	1.3	0.3	0.1	0.0	0.0	0.0	0.0	0.0	0.3	0.4
자가용	37.1	34.3	26.7	24.3	16.6	22.6	43.2	9.1	33.9	30.1	35.7	43.8	42.9	24.2	14.9	32.2
셔틀형 복지버스	0.0	0.7	0.2	0.0	0.2	3.0	2.5	0.0	0.9	0.1	0.0	0.0	0.0	0.2	0.0	0.3
전동휠체어	1.0	3.5	0.0	0.2	0.0	0.0	0.0	0.0	0.0	0.3	0.5	0.5	0.0	0.0	0.0	0.9
전동스쿠터	0.9	2.9	0.8	0.2	0.0	0.0	0.0	0.0	0.1	0.9	0.2	0.6	0.0	0.0	0.0	0.8
도보	3.7	3.3	5.3	5.0	6.6	10.2	6.0	9.7	2.3	4.7	2.4	6.1	5.3	4.0	5.7	4.6
기타	6.0	6.9	5.4	8.4	5.5	18.3	14.8	14.0	6.3	5.0	6.8	3.4	8.8	4.6	5.6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844	164,398	217,006	203,563	18,562	130,856	12,872	67,484	48,682	14,592	13,983	6,409	2,097	10,994	10,790	2,027,132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에 대해서는, 50.9%의 장애인이 어렵지 않다고 답하였고 29.4%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에 따라서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자폐성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 청각장애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다.

〈표 5-8-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어렵다	11.7	28.2	8.9	5.3	5.1	7.9	12.2	4.6	9.3	6.8	14.9	6.2	6.1	5.1	9.7	11.4
약간 어렵다	18.9	29.5	21.9	11.7	21.7	8.3	11.3	7.2	15.0	22.8	22.0	13.9	4.2	11.5	6.0	18.0
보통이다	18.9	17.8	16.8	19.3	18.1	27.9	21.4	26.2	22.5	19.3	24.4	16.6	9.1	21.8	29.3	19.6
거의 어렵지 않다	27.9	17.8	36.2	37.5	30.1	35.4	26.7	37.5	32.5	33.7	26.7	33.2	29.4	37.9	34.6	30.0
전혀 어렵지 않다	22.6	6.7	16.1	26.2	25.0	20.5	28.3	24.5	20.8	17.4	12.0	30.0	51.2	23.7	20.4	2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844	164,396	217,006	203,563	18,562	130,855	12,872	67,485	48,682	14,592	13,983	6,409	2,096	10,994	10,791	2,027,130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64.9%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와 지체장애의 경우 버스나 택시 이용시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19.3%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와 호흡기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71.7	59.2	52.8	58.0	72.7	56.0	52.9	43.5	57.6	49.0	48.7	46.0	61.6	60.5	30.8	64.9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19.3	19.5	18.8	25.9	19.7	6.7	6.3	16.0	20.5	26.6	30.8	29.2	38.4	27.6	30.1	19.3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	6.5	16.7	16.8	3.0	3.9	19.7	25.1	12.5	18.3	22.2	10.0	19.8	0.0	6.8	35.0	10.1
장애인가가용보급· 면허증 확보어려워	1.2	2.1	0.1	2.8	0.5	0.0	0.0	0.0	0.0	0.0	0.6	2.7	0.0	0.8	0.0	1.2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0.4	1.3	0.0	0.0	0.0	0.0	0.0	0.0	2.0	0.0	9.6	0.0	0.0	1.9	2.4	0.5
기타	1.1	1.2	11.5	10.4	3.2	17.7	15.7	27.9	1.5	2.1	0.3	2.2	0.0	2.4	1.7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8,164	94,822	66,836	34,555	4,973	21,195	3,034	7,980	11,793	4,317	5,157	1,290	216	1,825	1,693	597,850

현재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및 비디오시청’(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19.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TV 시청 및 비디오시청’, 그리고 ‘휴식’ 두 가지 모두에서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8-10〉 현재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	35.6	44.5	29.9	35.0	36.2	40.4	26.8	39.0	30.9	34.0	45.9	21.9	32.1	36.7	35.2	36.1
여행	2.0	0.6	1.2	2.4	0.8	1.7	6.0	1.0	1.5	0.7	0.3	1.2	1.8	2.4	0.4	1.7
문화예술 관람	1.1	0.1	0.0	0.0	0.5	1.3	1.8	0.7	0.0	0.5	0.4	1.2	0.9	0.0	0.8	0.7
스포츠 관람	0.0	0.5	0.0	0.0	0.4	0.0	0.0	0.0	0.0	0.0	0.1	0.0	1.0	0.0	0.0	0.0
스포츠 활동	3.0	2.4	7.4	4.0	3.7	3.8	10.3	1.8	4.2	2.8	0.4	6.8	3.3	7.5	1.1	3.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3.9	1.1	2.9	2.0	14.8	11.0	21.4	1.5	4.0	6.7	2.5	6.3	9.9	2.2	4.5	3.9
창작적 취미	2.0	1.8	1.4	2.8	2.0	2.1	3.5	6.6	2.9	2.7	3.6	2.8	2.5	2.7	3.6	2.2
자기계발	0.2	0.2	0.6	0.5	0.3	0.3	1.3	0.5	0.2	0.3	0.0	0.5	0.0	0.3	0.6	0.3
봉사활동	0.4	0.0	0.7	0.5	0.0	0.0	0.0	1.7	0.3	0.7	0.2	0.0	1.3	0.2	0.0	0.4
종교활동	11.6	10.8	13.3	12.3	9.0	15.8	10.1	10.7	10.0	10.4	6.0	11.7	13.2	10.2	30.7	12.0
가사	9.1	2.9	8.9	10.9	4.2	1.6	0.3	6.8	6.0	4.3	3.9	3.2	9.1	6.9	5.1	7.8
휴식	18.6	24.8	22.7	18.6	19.9	13.7	12.0	22.6	29.2	25.1	25.5	35.9	17.6	18.5	12.4	19.8
사교관련일	8.6	5.0	6.3	6.7	4.3	2.7	1.7	1.4	4.2	5.7	7.2	3.0	5.4	7.1	3.2	6.9
기타	3.9	5.3	4.6	4.3	3.9	5.7	4.8	5.5	6.3	6.0	4.0	5.4	1.7	5.3	2.4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향후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여행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TV 시청 및 비디오시청’이 9.3%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이 8.4%로 세 번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순으로 ‘여행’에 대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각장애, 지체장애, 장루·요루장애 순으로 사교관련일에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신장애, 심장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휴식’에 대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8-11〉 향후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	7.4	15.8	8.2	11.3	10.1	11.9	7.8	14.7	7.4	7.2	15.5	2.8	4.8	8.7	11.1	9.3
여행	42.5	30.3	39.5	39.5	36.4	22.9	26.0	22.4	39.3	36.7	31.0	36.7	40.3	40.3	38.8	38.3
문화예술 관람	3.0	2.0	1.2	3.1	3.5	10.1	10.2	3.8	3.2	4.5	1.9	3.6	5.9	2.0	3.8	3.3
스포츠 관람	1.0	1.1	0.6	0.5	0.9	0.2	1.0	0.2	0.8	0.6	0.9	1.4	2.5	1.1	3.4	0.9
스포츠 활동	7.7	5.3	8.2	4.7	5.2	12.7	18.7	9.2	6.5	6.2	3.3	8.4	6.3	6.2	4.8	7.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0	0.9	1.3	1.2	0.8	3.8	4.6	0.9	1.6	2.2	0.9	0.9	5.5	2.2	1.8	1.8
창작적 취미	3.1	1.5	3.8	2.5	2.3	6.7	10.2	9.3	4.9	4.9	4.3	4.9	4.9	5.3	5.2	3.6
자기계발	4.1	1.9	5.4	3.0	11.1	5.4	13.6	3.9	3.4	7.4	2.8	10.1	12.4	2.4	7.1	4.2
봉사활동	6.1	4.6	6.5	4.6	2.5	1.0	0.5	2.1	2.6	5.0	3.6	7.2	3.7	5.1	3.4	5.2
종교활동	6.9	9.1	5.7	5.8	6.8	8.1	2.2	7.9	7.6	6.5	5.6	6.0	4.3	5.8	10.7	7.0
가사	0.8	1.6	0.6	3.4	1.3	1.3	0.4	2.9	0.9	0.2	0.8	0.0	0.0	0.9	0.6	1.2
휴식	6.1	14.8	9.0	8.5	13.1	10.5	3.3	13.8	12.9	10.8	16.8	12.9	4.7	11.3	4.9	8.4
사회관련일	8.4	8.6	9.1	9.1	4.6	3.0	0.2	4.9	7.0	5.6	11.0	4.9	4.5	7.4	3.6	7.9
기타	0.8	2.6	0.9	2.8	1.3	2.4	1.1	4.0	1.9	2.2	1.7	0.1	0.0	1.4	0.8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의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26.9%가 약간불만이라고 답하였고 14.5%가 매우불만이라고 답한 반면 19.2%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 뇌병변장애, 간질장애 순으로 불만족하다고 답하였다.

〈표 5-8-12〉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한다	3.7	3.9	6.3	5.7	3.8	7.2	7.7	2.4	3.2	4.4	1.5	5.8	10.0	5.8	4.6	4.4
약간 만족한다	14.1	11.5	14.5	17.1	13.9	21.3	18.3	19.3	8.8	17.4	12.1	19.6	22.8	17.4	12.3	14.8
보통이다	40.5	32.6	37.7	42.5	39.1	38.7	34.3	40.7	39.5	37.0	33.2	37.1	35.2	37.7	33.0	39.3
약간 불만족한다	27.7	26.6	30.0	24.1	30.6	20.6	28.7	21.3	29.7	29.4	33.4	23.2	20.9	25.7	30.9	26.9
매우 불만족한다	14.0	25.3	11.5	10.5	12.5	12.2	11.1	16.3	18.9	11.8	19.8	14.3	11.1	13.4	19.3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문화 및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때문’이라는 응답이 35.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순으로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한

이유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간질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표 5-8-13〉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 부담	40.8	16.7	38.8	37.8	43.9	32.9	25.0	24.1	29.0	26.6	22.1	32.3	61.3	30.9	48.0	35.9
시간의 부족	13.6	0.8	10.5	7.5	3.3	1.9	2.5	2.1	2.2	1.4	0.3	3.4	11.4	6.0	0.9	9.5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의 불편	0.8	0.5	0.7	0.9	0.0	0.0	0.9	0.0	0.6	0.9	0.9	1.0	0.0	0.8	1.3	0.7
도우미가 없어서	1.6	2.7	5.8	1.5	3.2	13.3	21.8	10.5	1.2	0.0	1.4	0.0	0.0	0.0	1.9	3.2
여가시설의 부족	1.4	0.9	0.8	2.6	0.9	3.2	7.3	1.4	0.7	2.2	0.4	1.8	0.0	1.0	0.0	1.5
여가시설내 편의시설의 부족	2.9	0.6	0.5	2.5	0.6	2.8	14.8	2.9	0.4	0.6	0.4	0.0	4.6	3.1	0.0	2.3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의 부족	1.9	3.0	0.5	1.8	2.9	8.9	7.2	6.5	0.7	1.8	0.5	0.4	2.2	3.1	2.6	2.4
적당한 취미의 부재	7.1	5.6	7.6	12.7	11.8	14.5	11.9	13.8	0.9	6.9	12.1	1.8	5.9	9.3	10.6	8.0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29.5	69.3	34.7	32.7	33.4	22.4	8.6	38.8	64.3	59.5	62.0	59.2	11.3	45.9	34.5	36.4
기타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6,872	101,684	91,984	72,694	8,633	46,175	5,129	31,624	23,761	6,224	7,869	2,436	674	4,451	5,511	885,721

지난 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시 장애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4.0%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했던 장애유형을 보면, 장루·요루장애가 8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82.6%, 지체장애 80.9%, 호흡기장애 78.5%의 순이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4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가 38.1%, 안면장애 34.0%의 순이었다.

〈표 5-8-14〉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0.9	58.4	76.4	82.6	72.7	38.6	5.0	58.3	73.0	76.3	78.5	75.0	59.2	87.3	66.8	74.0
아니오	18.1	38.1	21.8	15.4	21.5	28.1	9.3	41.3	26.5	14.2	21.5	20.2	34.0	11.3	28.3	21.8
비해당(투표권 없었음)	1.0	3.5	1.9	2.1	5.8	33.3	85.7	0.4	0.6	9.5	0.0	4.8	6.8	1.4	4.9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지난 해 4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때,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44.1%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8.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8-15〉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교통불편	4.8	3.9	0.7	2.6	3.0	1.5	0.0	1.5	1.5	0.0	1.4	2.1	0.0	2.4	0.0	3.3
편의시설 부족	0.2	0.7	0.0	0.0	0.0	1.0	0.0	0.0	0.0	0.0	1.8	0.0	0.0	0.0	0.0	0.3
몸이 불편	39.3	71.4	37.1	37.5	38.3	35.9	34.0	38.2	50.5	54.7	66.8	59.8	3.1	38.6	18.9	44.1
도우미가 없어서	1.5	1.2	4.8	1.7	0.0	10.1	3.7	2.0	2.7	2.1	1.0	0.0	0.0	0.0	3.7	2.6
정보 부족	3.5	1.6	0.6	0.2	8.1	3.0	6.8	2.6	5.9	0.0	2.7	2.7	5.2	0.0	2.1	2.7
시간이 없어서	9.7	2.0	6.0	9.1	11.2	2.2	0.0	2.4	0.4	3.1	2.4	5.3	9.5	6.3	4.6	6.5
본인이 원치 않음	40.7	17.7	48.3	46.8	38.6	33.1	34.4	49.6	39.0	37.1	22.8	30.2	68.2	49.2	52.2	38.2
주위의 시선	0.0	0.9	0.0	0.0	0.9	9.4	15.6	2.7	0.0	0.0	0.0	0.0	14.1	0.0	17.5	1.3
기타	0.2	0.7	2.5	1.9	0.0	3.6	5.5	1.0	0.0	3.1	1.0	0.0	0.0	3.5	1.1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6,308	74,608	48,267	32,243	4,310	39,557	1,202	34,763	12,948	2,145	3,184	1,312	716	1,289	3,108	465,960

제9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제9절에서는 크게 결혼과 장애, 자녀와 장애자녀, 자녀의 양육,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서비스 욕구에 대해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항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항목의 내용에 따라 부가적인 조건이 추가되어 전체 집단의 크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녀 유무를 묻는 조사항

목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자녀수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녀 유무에 대한 질문은 결혼한 장애인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응답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유자녀율은 결혼한 장애인을 전체 집단으로 산출하게 된다.

해당 항목에서 전체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밝히겠지만, 전반적인 전체집단은 다음과 같다. 결혼 연령이나 결혼 당시의 장애여부나 결혼 당시의 배우자의 장애 관련 항목은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이 중 결혼한 장애인에게는 자녀 관련 조사 항목을,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자녀가 없는 이유를 질의하게 된다. 자녀의 양육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였으며, 이혼 경험에 대해서는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욕구는 여성장애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래 2번째로 실시된 조사이다. 질문 항목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분석 대상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이후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 집단이 차이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평균 결혼율은 52.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내부장애 중 장루·요루 장애(88.6%), 간장애(85.4%)가 특히 결혼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72.5%), 신장장애(70.3%), 청각장애(69.9%), 심장장애(69.2%), 호흡기장애(67.4%), 지체장애(63.4%), 언어장애(52.2%), 간질장애(50.8%), 안면장애(50.0%), 정신장애(37.0%), 지적장애(20.3%), 자폐성장애(0.0%) 순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의 성인 자폐성장애인이 77명 조사되었으나, 조사대상자 중 단 한명도 결혼한 사례가 포착되지 않았다. 자녀 수, 양육의 어려움 등과 같은 결혼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기술은 제외되고, 해당 항목에 한하여 기술하였다.

〈표 5-9-1〉 결혼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63.4	57.7	72.5	69.9	52.2	20.3	-	37.0	70.3	69.2	67.4	85.4	50.0	88.6	50.8	52.8
아니오	36.1	42.3	27.5	30.1	46.3	79.3	100.0	62.6	29.7	30.8	30.2	14.6	48.5	11.4	48.1	46.7
기타 (미혼모/부)	0.4	-	-	-	1.5	0.4	-	0.5	-	-	2.3	-	1.5	-	1.1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8,587	27,889	37,601	28,192	4,960	81,218	2,572	50,199	15,826	2,278	1,408	1,892	1,169	1,053	5,878	550,723

결혼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 평균 연령은 27.4세로 나타났으며, 여성 장애인 25.4세, 남성 장애인 29.3세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은 20대(69.9%)와 30대(25.2%)에 주로 결혼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3.2%)와 10대(1.7%)에 초혼이 이루어졌다. 만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2009)의 ‘2008년 혼인통계 결과’와 비교할 때, 비장애인의 초혼 연령인 여성 28.3세, 남성 31.4세에 비해 여성은 2.9세, 남성은 2.1세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은 장애유형은 언어장애(28.8세), 안면장애(28.6세), 지체장애(28.3세) 순이었으며, 신장장애(26.4세), 지적장애(26.2세), 심장장애(26.0세)는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표 5-9-2〉 결혼시 연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10~19세	0.3	3.9	1.4	4.0	2.3	12.3	-	0.5	7.8	3.5	-	-	3.2	3.6	2.8	1.7
만 20~29세	69.3	74.8	83.6	60.4	65.3	57.1	-	72.6	70.9	84.5	56.1	67.3	63.4	75.4	71.0	69.9
만 30~39세	27.0	18.0	14.7	30.4	27.1	28.2	-	22.6	18.1	12.0	43.9	32.7	28.7	18.1	25.8	25.2
만 40~49세	3.4	3.3	0.3	5.2	5.2	2.4	-	4.3	3.2	-	-	-	4.7	2.8	0.3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2,297	14,408	30,008	20,692	2,575	16,466	-	19,511	10,382	1,606	914	1,570	562	937	2,838	334,766
평균 연령	28.3	27.4	26.6	28.0	28.8	26.2	-	27.1	26.4	26.0	27.5	28.0	28.6	28.0	26.6	27.4

결혼시 본인의 장애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약 절반(49.4%)이 결혼 시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76.9%)의 결혼시 장애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질장애(65.7%), 시각장애(6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3〉 결혼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47.6	26.2	65.2	63.7	63.4	76.9	-	45.9	13.6	37.2	12.7	7.1	63.0	14.9	65.7	49.4
아니오	52.4	73.8	34.8	36.3	36.6	23.1	-	54.1	86.4	62.8	87.3	92.9	37.0	85.1	34.3	5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2,297	14,408	30,008	20,692	2,575	16,466	-	19,511	10,382	1,606	914	1,570	562	937	2,838	334,766

결혼시 배우자에 장애에 대한 질문으로 배우자의 장애 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경우, 결혼한 장애인을 전체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 조사항목들은 장애인 가구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즉, 부부가 장애인 경우에는 한명만 장애를 가진 경우 보다 활동보조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본 조사항목은 이러한 가구들의 규모 추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10.8%로 나타났다. 참고로 여성장애인(15.2%)이 남성장애인(7.6%)에 비해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가 2배 가량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배우자의 장애 여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38.3%)인의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29.9%), 언어장애(24.2%), 정신장애(2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4〉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7.0	10.5	4.2	29.9	24.2	38.3	-	23.0	5.3	2.2	-	1.2	-	7.2	11.7	10.8
아니오	93.0	89.5	95.8	70.1	75.8	61.7	-	77.0	94.7	97.8	100.0	98.8	100.0	92.8	88.3	8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2,297	14,408	30,008	20,692	2,575	16,466	-	19,511	10,382	1,606	914	1,570	562	937	2,838	334,766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유형은 결혼한 장애인(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40.6%), 청각장애(22.5%), 지적장애(1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부부가 모두 장애를 가진 경우, 동일한 장애유형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이러한 경향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다. 청각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보다 청각장애 부부의 비율(91.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부부(76.6%), 지체장애 부부(74.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13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해석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9-5〉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체장애	74.2	23.4	11.3	5.4	35.6	18.1	-	25.5	28.1	100.0	-	100.0	-	65.9	28.5	40.6
뇌병변장애	2.5	76.6	-	-	6.0	-	-	10.1	-	-	-	-	-	34.1	8.5	5.7
시각장애	-	-	42.1	2.6	13.1	6.1	-	8.6	-	-	-	-	-	-	14.2	4.4
청각장애	7.7	-	5.6	91.4	18.7	10.9	-	10.6	-	-	-	-	-	-	-	22.5
언어장애	-	-	-	0.6	-	16.0	-	-	47.6	-	-	-	-	-	-	3.6
지적장애	15.6	-	18.5	-	26.6	37.9	-	6.4	-	-	-	-	-	-	27.7	15.1
자폐성장애	-	-	-	-	-	-	-	-	-	-	-	-	-	-	-	-
정신장애	-	-	11.3	-	-	4.8	-	38.9	-	-	-	-	-	-	5.8	6.1
신장장애	-	-	-	-	-	-	-	-	24.4	-	-	-	-	-	6.8	0.4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간질장애	-	-	11.3	-	-	6.1	-	-	-	-	-	-	-	-	8.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54	1,515	1,246	6,182	622	6,310	-	4,492	552	35	-	18	-	68	332	36,228

배우자의 장애등급도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배우자의 장애수준은 1급, 2급을 의미하는 중증장애인이 53.6%를 차지하였으며, 5급, 6급인 경우가 11.9% 정도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중증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배우자의 중증장애의 비율을 살펴보면, 뇌병변장애(82.1%), 정신장애(73.4%), 청각장애(7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6〉 배우자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15.0	76.6	44.1	16.8	32.0	31.7	-	30.8	-	-	-	-	-	-	12.3	23.6
2급	20.6	5.5	-	60.3	12.4	25.1	-	42.6	57.6	-	-	-	-	34.1	24.1	30.0
3급	35.7	17.9	29.8	11.7	27.1	32.4	-	7.8	-	-	-	-	-	-	37.2	25.8
4급	8.4	-	26.1	8.6	9.2	6.3	-	12.0	-	-	-	-	-	-	19.2	8.7
5급	20.3	-	-	-	5.1	4.5	-	-	42.4	100.0	-	-	-	-	-	10.1
6급	-	-	-	2.6	14.2	-	-	6.8	-	-	-	100.0	-	65.9	7.2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54	1,515	1,246	6,182	572	5,663	-	4,354	552	35	-	18	-	68	288	35,348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항목은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남녀 장애인 중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과반수의 장애인이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다’(51.2%)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이른 나이여서’(17.3%)라는 응답률을 고려할 때, 다수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결혼에 대해 유보 또는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결혼생각이 없어서’(9.9%),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9.2%), ‘경제적 어려움’(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7〉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9.7	6.6	29.5	15.4	14.2	9.5	2.3	3.8	3.5	5.6	-	8.1	13.7	-	8.3	9.2
결혼생각이 없어서	15.9	8.6	10.0	7.8	8.7	2.9	8.0	11.6	7.3	18.0	-	28.2	19.1	23.4	7.2	9.9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	-	-	2.7	3.2	3.1	-	4.9	-	-	-	-	-	-	-	1.8
건강·장애문제	42.3	59.6	22.9	31.9	41.2	57.5	33.4	69.8	50.2	37.7	40.9	51.8	22.9	52.0	68.1	51.2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	12.7	3.3	14.0	9.8	12.8	0.5	-	3.2	10.3	8.2	12.1	8.1	27.0	24.6	5.7	6.7
결혼생활과 직장일 등 시수행 어려움	-	-	-	-	-	-	-	0.5	-	-	-	-	-	-	-	0.1
결혼시기를 놓쳐서	7.7	-	14.9	-	-	-	-	-	9.6	-	32.7	-	2.9	-	-	3.6
아직 이른 나이여서	11.6	21.9	8.8	32.5	19.8	25.8	56.3	6.2	19.0	30.6	14.4	3.8	14.4	-	10.6	17.3
기타	-	-	-	-	-	0.8	-	-	-	-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4,735	13,481	7,593	7,500	2,348	64,398	2,572	30,390	5,443	672	450	321	579	117	2,968	213,568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혼한 장애인의 88.3%가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율이 90% 이상인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97.0%), 심장장애(94.4%), 청각장애(92.7%), 장루·요루장애(92.2%), 지체장애(9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없는 장애유형에는 정신장애(33.3%), 호흡기장애(28.7%), 지적장애(23.0%) 순이었다.

〈표 5-9-8〉 자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0.2	82.3	97.0	92.7	87.2	77.0	-	66.7	87.5	94.4	71.3	88.0	86.8	92.2	82.9	88.3
아니오	9.8	17.7	3.0	7.3	12.8	23.0	-	33.3	12.5	5.6	28.7	12.0	13.2	7.8	17.1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3,853	14,408	30,008	20,692	2,612	16,821	-	19,809	10,382	1,606	958	1,570	589	937	2,910	337,155

자녀의 수는 자녀가 있는 장애인을 전체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890명을 대상으로한 평균 자녀 수는 1.83명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명(55.3%)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명(28.6%), 3명(15.1%)이 그 뒤를 이었다.

〈표 5-9-9〉 자녀의 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명	25.5	12.7	24.1	31.8	35.8	55.0	-	57.3	40.5	23.0	25.2	22.0	34.1	25.2	42.9	28.6
2명	54.8	75.4	67.1	58.8	48.7	37.9	-	35.9	47.6	64.8	69.3	61.4	60.7	58.9	44.6	55.3
3명	19.2	9.9	8.1	6.6	11.6	7.1	-	1.7	11.9	7.7	5.5	16.5	5.3	15.9	9.3	15.1
4명	0.5	2.0	0.2	2.8	-	-	-	5.2	-	1.9	-	-	-	-	3.1	0.9
5-9명	-	-	0.5	-	3.9	-	-	-	-	2.5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2,835	11,858	29,116	19,174	2,277	12,945	-	13,215	9,086	1,516	683	1,382	512	864	2,413	297,875

장애자녀의 여부는 자녀가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자녀 중 3.4%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15.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장애(6.9%), 청각장애(5.0%) 순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9-10〉 장애인 자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2.7	1.4	1.6	5.0	6.9	15.9	-	7.8	0.8	-	-	-	-	1.9	4.1	3.4
아니오	97.3	98.6	98.4	95.0	93.1	84.1	-	92.2	99.2	100.0	100.0	100.0	100.0	98.1	95.9	9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2,835	11,858	29,116	19,174	2,277	12,945	-	13,215	9,086	1,516	683	1,382	512	864	2,413	297,875

다음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은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를 전체 집단으로 하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나이순으로 제1 장애자녀, 제2 장애자녀로 명명하였는데, 각 자녀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성별, 연령을 살펴보았다. 제1 장애자녀는 41명, 제2 장애자녀는 9명으로 집계되었고, 총 50명에 대한 장애자녀를 순위별로 살펴보았다. 참고로 본 조사에는 3명의 자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는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장애자녀가 있는 만 18세이상~만 48세 이하의 성인장애인에 대해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을 살펴보았다. 제1 장애자녀는 지적장애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애(12.1%), 청각장애(10.2%), 지체장애(9.0%)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모의 장애유형별로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체장애 부모는 지적장애(47.8%)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각장애는 지체장애(55.3%), 지적장애는 지적장애(35.6%), 신장장애는 뇌병변장애(53.1%) 등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표 5-9-11〉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체장애	12.8	-	55.3	-	-	-	-	-	-	-	-	-	-	-	-	9.0
뇌병변장애	-	-	-	-	-	-	-	-	53.1	-	-	-	-	-	-	0.4
시각장애	-	-	30.9	-	-	-	-	-	-	-	-	-	-	-	-	1.4
청각장애	-	100.0	-	58.1	-	14.7	-	-	-	-	-	-	-	-	21.4	10.2
언어장애	-	-	-	-	-	24.2	-	-	-	-	-	-	-	-	23.1	5.1
지적장애	47.8	-	-	41.9	60.0	35.6	-	37.1	25.5	-	-	-	-	-	34.1	40.6
자폐성장애	-	-	-	-	40.0	25.5	-	-	-	-	-	-	-	100.0	-	5.9
정신장애	-	-	-	-	-	-	-	62.9	21.4	-	-	-	-	-	21.3	6.7
신장장애	-	-	-	-	-	-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23.8	-	-	-	-	-	-	-	-	-	-	-	-	-	-	12.1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간질장애	15.7	-	13.8	-	-	-	-	-	-	-	-	-	-	-	-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34	161	456	967	158	2,056	-	1,034	68	-	-	-	-	16	98	10,249

제1 장애자녀에 대한 장애등급의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41명 대해 52.8%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2급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3급(33.5%), 5급(12.8%), 1급(11.3%), 6급(1.0%)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모의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 부모의 장애자녀의 중증도(100%)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장애(90.4%), 지적장애(83.2%), 간질장애(78.7%), 신장장애(7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12〉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	-	19.0	8.8	27.2	25.5	-	32.4	78.6	-	-	-	-	-	30.9	11.3
2급	28.5	100.0	30.9	43.9	63.2	57.7	-	67.6	-	-	-	-	-	-	47.8	41.5
3급	47.8	-	13.8	47.3	9.6	16.8	-	-	21.4	-	-	-	-	100.0	21.3	33.5
4급	-	-	-	-	-	-	-	-	-	-	-	-	-	-	-	-
5급	23.8	-	14.1	-	-	-	-	-	-	-	-	-	-	-	-	12.8
6급	-	-	22.2	-	-	-	-	-	-	-	-	-	-	-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34	161	456	967	158	2,056	-	1,034	68	-	-	-	-	16	98	10,249

제1 장애자녀의 성별 구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자녀수의 사례가 적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각장애 부모는 남자 장애자녀가 많은 반면, 신장장애, 정신장애는 여자 장애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른 유형들은 비슷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5-9-13〉 제1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자	47.8	100.0	81.0	52.7	100.0	42.3	-	37.1	21.4	-	-	-	-	100.0	52.2	49.1
여자	52.2	-	19.0	47.3	-	57.7	-	62.9	78.6	-	-	-	-	-	47.8	5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34	161	456	967	158	2,056	-	1,034	68	-	-	-	-	16	98	10,249

제1 장애자녀의 연령은 평균 15.4세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로는 10대인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으며, 9세 이하 29.0%, 20세 이상 26.8%로 나타났다. 부모의 장애유형별로 살펴 보면, 시각장애(20.8세)의 부모의 자녀의 연령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장장애(18.7세), 정신장애(18.5세)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14〉 제1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0-9세	29.0	-	-	8.8	32.8	59.9	-	-	53.1	-	-	-	-	-	44.6	29.0
10-19세	52.2	100.0	19.0	-	67.2	21.3	-	90.9	25.5	-	-	-	-	100.0	34.1	44.2
20세 이상	18.7	-	81.0	91.2	-	18.8	-	9.1	21.4	-	-	-	-	-	21.3	2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34	161	456	967	158	2,056	-	1,034	68	-	-	-	-	16	98	10,249
평균 연령	17.6	13.0	20.8	17.6	11.6	12.0	-	18.5	18.7	-	-	-	-	10.0	11.6	15.4

제2 장애자녀에 대해서도 제1 장애자녀와 같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로 살펴 보았다. 제2 장애자녀는 총 9명이 보고되었는데,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36.7%), 언어장애(34.9%), 정신장애(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15〉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체장애	-	-	-	-	-	-	-	-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	-	-
청각장애	-	-	-	4.7	-	-	-	-	-	-	-	-	-	-	-	1.8
언어장애	-	-	-	-	-	100.0	-	-	-	-	-	-	-	-	48.4	34.9
지적장애	-	-	-	-	30.9	-	-	-	-	-	-	-	-	-	51.6	3.6
자폐성장애	-	-	-	-	69.1	-	-	-	-	-	-	-	-	-	-	3.1
정신장애	-	-	-	-	-	-	-	100.0	-	-	-	-	-	-	-	20.0
신장장애	-	-	-	-	-	-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간질장애	-	-	-	95.3	-	-	-	-	-	-	-	-	-	-	-	36.7
계	-	-	-	100.0	100.0	100.0	-	100.0	-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	-	-	659	70	449	-	288	-	-	-	-	-	-	40	1,505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3급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급이 43.8%로 나타났다. 제2 장애자녀에 둔 부모의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장애는 2급 장애자녀를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3급 장애자녀가 있었으며, 언어장애 부모는 2급과 3급 장애자녀가 각각 1명씩 조사되었다.

〈표 5-9-16〉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	-	-	-	-	-	-	-	-	-	-	-	-	-	-	-
2급	-	-	-	100.0	69.1	-	-	-	-	-	-	-	-	-	51.6	43.8
3급	-	-	-	-	30.9	100.0	-	100.0	-	-	-	-	-	-	48.4	56.2
4급	-	-	-	-	-	-	-	-	-	-	-	-	-	-	-	-
5급	-	-	-	-	-	-	-	-	-	-	-	-	-	-	-	-
6급	-	-	-	-	-	-	-	-	-	-	-	-	-	-	-	-
계	-	-	-	100.0	100.0	100.0	-	100.0	-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	-	-	425	49	362	-	221	-	-	-	-	-	-	47	1,103

제2 장애자녀의 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청각장애와 정신장애 부모는 여자 자녀가,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는 남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질장애는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가 각각 1명씩 있었다.

〈표 5-9-17〉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자	-	-	-	-	100.0	100.0	-	-	-	-	-	-	-	-	48.4	39.3
여자	-	-	-	100.0	-	-	-	100.0	-	-	-	-	-	-	51.6	60.7
계	-	-	-	100.0	100.0	100.0	-	100.0	-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	-	-	425	49	362	-	221	-	-	-	-	-	-	47	1,103

제2 장애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15.0세, 청각장애 14.7세, 언어장애 9.5세, 지적장애 8.0%, 간질장애 7.5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18〉 제2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0-9세	-	-	-	4.7	30.9	100.0	-	-	-	-	-	-	-	-	100.0	40.2
10-19세	-	-	-	95.3	69.1	-	-	100.0	-	-	-	-	-	-	-	59.8
계	-	-	-	100.0	100.0	100.0	-	100.0	-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	-	-	425	49	362	-	221	-	-	-	-	-	-	47	1,103
평균 연령	-	-	-	14.7	9.5	8.0	-	15.0	-	-	-	-	-	-	7.5	11.2

결혼한 장애인 중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장애문제 때문에’가 21.4%, ‘기타’가 13.2%, ‘학업·직장·경제적 이유로’가 10.1%의 순이었다. 그 외 ‘친정·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0.5%,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가 9.4%로 본인의 의지 보다는 주위 사람들 즉,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가 약 9.9% 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7.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안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심장장애의 경우는 ‘건강문제와 장애 때문에(100.0%)’, 시각장애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52.0%)’로 가장 많았다.

〈표 5-9-19〉 자녀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46.1	29.5	30.6	25.7	30.1	36.2	-	17.3	2.9	0.0	9.1	73.9	25.6	16.4	18.7	35.8
학업 직장 경제적 이유로	13.1	0.0	4.7	66.5	0.0	0.0	-	0.0	7.8	0.0	25.5	0.0	0.0	0.0	0.0	10.1
건강문제와 장애 때문에	15.9	22.7	0.0	0.0	23.5	19.9	-	40.2	44.1	100.0	65.5	20.2	0.0	28.8	14.3	21.4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서	6.4	0.0	0.0	0.0	11.0	17.8	-	9.1	2.9	0.0	0.0	0.0	0.0	0.0	23.5	7.2
자녀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0.0	10.6	0.0	0.0	0.0	0.0	-	5.8	21.3	0.0	0.0	0.0	0.0	0.0	0.0	2.4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13.0	7.7	52.0	4.3	8.6	0.0	-	2.4	0.0	0.0	0.0	0.0	19.2	0.0	8.5	9.4
친정 시댁식구들이 원 하지 않아서	0.0	0.0	0.0	0.0	11.9	0.0	-	1.7	0.0	0.0	0.0	0.0	0.0	0.0	5.4	0.5
기타	5.5	29.5	12.7	3.4	14.9	26.1	-	23.4	21.1	0.0	0.0	5.9	55.1	54.8	29.6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019	2,550	891	1,519	336	3,876	-	6,595	1,297	90	275	188	78	73	497	39,284

본인의 장애로 인해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부모들은 ‘전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별로 없다’ 24.5%, ‘약간 많다’ 21.8%, ‘보통이다’ 9.7%, ‘매우 많다’ 8.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43.6%), 간장애(43.0%), 지체장애(40.9%)가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인식한 반면, 지적장애(35.4%), 뇌병변장애(20.4%), 언어장애(18.0%)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부모로서 걱정이 많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9-2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전혀 없다	40.9	29.9	32.1	26.3	17.9	3.2	-	17.9	30.8	25.6	28.0	43.0	29.5	43.6	16.0	35.2
별로 없다	23.1	16.6	39.3	29.6	15.1	14.3	-	22.4	25.9	28.4	15.3	24.9	23.0	14.1	19.7	24.5
보통이다	9.2	12.1	14.1	14.5	4.6	5.0	-	0.9	9.8	9.9	16.1	10.6	12.9	23.5	10.2	9.7
약간 많다	22.0	21.0	10.0	16.5	44.3	42.1	-	25.7	23.7	28.1	26.7	15.0	21.1	13.6	37.9	21.8
매우 많다	4.7	20.4	4.5	13.1	18.0	35.4	-	33.2	9.9	8.0	13.8	6.5	13.5	5.2	16.2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3,088	10,840	28,939	18,936	2,277	12,201	-	12,727	8,759	1,412	649	1,283	512	809	2,404	284,835

17세 이하 자녀양육시 애로사항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장애 때문에’ 겪는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없다’는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양육비 또는 교육비가

34.9%로 그 다음을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위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5.6%),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5.1%),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부족’(4.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언어장애(50.7%)와 지적장애(37.2%), 청각장애(35.7%)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안면장애(40.2%)는 ‘주위의 편견 및 시선’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적은 집단은 지체장애(43.8%), 간장애(35.3%), 신장장애(37.7%) 순이었다.

〈표 5-9-21〉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음	43.8	23.5	61.8	23.1	8.7	12.0	-	33.9	37.7	26.1	46.4	35.3	28.1	18.0	13.5	41.0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8.7	47.4	19.9	28.7	18.4	13.8	-	22.8	48.0	58.0	38.1	48.3	27.1	54.9	44.1	34.9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3.1	-	3.6	2.6	4.5	-	-	0.8	1.0	-	-	8.2	-	1.9	4.5	2.8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부족	6.0	2.2	-	2.6	2.7	1.8	-	11.3	2.7	10.0	7.7	-	-	17.5	5.9	4.9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0.7	-	0.5	-	-	-	-	-	4.3	3.1	-	3.4	-	-	2.3	0.7
양육과 관련된 정보부족	0.9	-	1.4	2.5	1.5	18.3	-	4.9	5.5	-	-	-	4.6	-	11.8	2.2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3.6	1.9	0.7	0.2	4.0	-	-	-	0.3	2.8	7.9	1.7	-	4.4	3.6	2.6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3.1	18.7	12.0	4.6	9.4	17.0	-	10.6	-	-	-	-	40.2	3.3	10.3	5.6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	6.2	-	35.7	50.7	37.2	-	13.1	0.5	-	-	-	-	-	4.1	5.1
기타	-	-	-	-	-	-	-	2.7	-	-	-	3.1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0,020	8,283	26,215	16,160	1,928	10,425	-	9,677	7,618	981	567	1,110	461	704	1,799	245,948

초·중·고 학생 자녀교육시 애로사항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초·중·고 학생이 있는 자녀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42.6%)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39.6%이었다. 다음으로 ‘학습지도’(4.6%), ‘주위의 편견 및 시선’(3.9%), ‘자녀와의 의사소통’(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의미한다.

부모의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42.9%), 언어장애(29.1%), 청각장애(27.9%)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17세 이하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세 장애유형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5-9-22〉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음	43.0	22.5	57.0	17.2	11.8	4.6	-	34.6	31.3	24.0	36.4	31.3	20.9	30.8	13.0	39.6
학습지도	1.7	10.6	7.0	9.0	5.0	25.0	-	13.2	4.9	-	-	2.8	8.0	-	9.3	4.6
학교 갈 때 동행지도	-	0.7	-	-	-	-	-	-	-	-	-	2.4	5.1	-	2.0	0.1
학교 선생님과 관계	0.6	-	0.3	9.0	10.1	-	-	-	-	-	-	-	-	-	-	1.1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48.3	53.2	27.6	26.8	27.0	13.3	-	23.0	55.8	70.5	51.6	59.3	28.1	63.0	43.8	42.6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2.2	-	27.9	29.1	42.9	-	2.3	-	-	-	-	-	-	2.0	3.7
자녀의 부모차별	-	-	-	-	-	4.6	-	-	1.2	-	-	-	11.3	-	7.3	0.3
학부형 모임에 어울 리지 못함	3.8	4.6	1.6	6.7	14.2	2.4	-	12.6	2.6	5.5	-	3.0	12.0	6.2	16.5	4.2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 문에	2.5	6.2	6.6	3.4	2.7	7.1	-	14.3	4.1	-	4.3	1.1	14.6	-	6.2	3.9
기타	-	-	-	-	-	-	-	-	-	-	7.7	-	-	-	-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438	7,923	26,305	14,175	1,628	7,739	-	8,824	6,744	919	567	1,079	381	638	1,619	220,980

집안에서의 가사일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집안에서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가사일을 ‘가끔 도와주는 경우’가 44.1%였으며, ‘주로 본인이 하는 경우’도 38.7%로 나타났으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는 17.3%였다. 대체적으로 가사일 참여율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심장장애(97.8%), 간질장애(97.7%), 청각장애(92.0%)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사일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61.7%), 정신장애(71.2%), 간장애(73.6%) 순이었다.

〈표 5-9-23〉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주로 본인이 함	34.8	34.1	51.6	46.8	53.8	50.9	-	36.6	42.6	44.0	36.0	39.0	49.1	42.9	66.5	38.7
가끔 도와줌	49.9	27.6	29.5	45.2	33.4	28.0	-	34.6	37.4	53.8	45.6	34.6	37.5	46.3	31.2	44.1
전혀 하지 않음	15.4	38.3	18.9	8.1	12.8	21.1	-	28.8	20.0	2.2	18.4	26.4	13.4	10.8	2.3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3,853	14,408	30,008	20,692	2,612	16,821	-	19,809	10,382	1,606	958	1,570	589	937	2,910	337,155

다음으로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로 인한 이유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43.3%는 장애때문에 가사일의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84.2%), 정신장애(83.0%), 호흡기장애(7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24〉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인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34.2	84.2	15.8	27.5	-	57.7	-	83.0	41.3	-	76.2	43.0	-	-	34.9	43.3
아니오	65.8	15.8	84.2	72.5	100.0	42.3	-	17.0	58.7	100.0	23.8	57.0	100.0	100.0	65.1	5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835	5,512	5,666	1,666	335	3,545	-	5,708	2,072	35	176	415	79	102	67	58,214

이혼 사유는 이혼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혼 사유로는 ‘경제적 문제’(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상 이유’(21.2%), ‘학대 또는 폭력’(16.5%), ‘성격 차이’(12.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72.3%), 간장애(41.6%), 청각장애(34.3%), 장루·요루장애(32.6%), 언어장애(25.8%)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이혼 사유였다. 또한, 정신장애(57.7%)와 간질장애(43.3%)는 ‘건강상 이유’로, 신장장애(31.7%)는 ‘학대 또는 폭력’을 이유로 이혼하였다.

〈표 5-9-25〉 이혼경험시 이혼 사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의 외도	6.4	13.4	19.3	2.0	22.9	17.3	-	7.3	4.1	40.7	8.0	22.9	-	11.3	6.5	9.7
학대 또는 폭력	19.1	-	26.7	23.4	5.7	15.7	-	5.5	31.7	19.3	13.4	-	-	-	6.4	16.5
성격차이	9.6	4.8	22.0	34.3	25.8	-	-	9.1	8.9	-	12.6	41.6	72.3	32.6	21.0	12.5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4.0	15.0	-	1.1	12.4	10.3	-	2.7	-	-	-	-	-	-	3.4	4.0
가족간 불화	13.8	5.2	0.8	7.9	5.7	21.4	-	6.5	8.5	-	12.1	-	-	29.4	14.2	9.7
경제적 문제	36.8	32.5	29.9	18.7	15.6	-	-	6.3	28.0	25.6	35.0	28.8	-	26.7	5.2	25.3
건강상 이유	10.3	29.2	0.6	12.6	12.0	35.4	-	57.7	18.9	14.3	18.8	6.7	27.7	-	43.3	21.2
기타	-	-	0.7	-	-	-	-	4.8	-	-	-	-	-	-	-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657	3,619	7,419	3,411	657	3,489	-	9,208	2,236	247	316	312	85	144	605	52,405

이혼한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대해서도 이혼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양육자로 자녀의 부인 경우가 53.7%인 반면 자녀의 모인 경

우는 39.2%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조부모인 경우도 6.3%, 기타는 0.7% 나타났다.

주양육자로서 자녀의 모의 경우가 더 많은 장애유형은 간장애(84.2%), 시각장애(67.6%), 지적장애(63.4%), 간질장애(60.1%), 장루·요루장애(58.4%), 청각장애(57.1%), 호흡기장애(42.8%)로 나타났다.

〈표 5-9-26〉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녀의 부(남편)	62.7	74.3	32.4	42.9	63.8	36.6	-	59.3	67.2	53.9	42.7	15.8	54.5	41.6	39.9	53.7
자녀의 모(부인)	24.5	25.7	67.6	57.1	22.9	63.4	-	28.9	32.8	46.1	42.8	84.2	45.5	58.4	60.1	39.2
자녀의 조부모	12.8	-	-	-	13.3	-	-	4.9	-	-	14.6	-	-	-	-	6.3
기타	-	-	-	-	-	-	-	6.9	-	-	-	-	-	-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29	1,728	6,793	1,641	277	1,923	-	3,532	1,681	247	229	121	34	71	331	32,837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임신할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임신시에 장애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의 57.8%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장애 상태에서의 임신 경험률을 살펴보면, 지적장애(77.9%), 안면장애(75.5%), 간질장애(75.1%), 청각장애(68.8%), 시각장애(68.5%), 지체장애(60.6%), 언어장애(6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이하의 경험률이 낮은 장애유형으로는 호흡기장애(3.8%), 간장애(10.1%), 신장장애(15.5%), 뇌병변장애(20.4%) 등 이었다.

〈표 5-9-27〉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60.6	20.4	68.5	68.8	61.0	77.9	-	46.2	15.5	43.0	3.8	10.1	75.5	24.9	75.1	57.8
아니오	39.4	79.6	31.5	31.2	39.0	22.1	-	53.8	84.5	57.0	96.2	89.9	24.5	75.1	24.9	4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689	7,130	13,046	8,632	1,067	9,843	-	12,342	4,226	723	341	407	220	336	1,743	123,744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은 장애 상태에서 임신 경험한 여성장애인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경우도 29.3%로 나타났다.

임신 기간 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2.8%), ‘본인의 건강악화’(10.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7.8%),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7.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15.9%)는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뇌병변장애(39.9%)는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정신장애(24.9%)와 신장장애(61.3%), 장루·요루장애(59.8%)는 ‘본인의 건강악화’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표 5-9-28〉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15.9	29.3	1.0	10.4	7.7	13.4	-	9.4	10.3	15.4	-	74.0	-	-	8.4	12.8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0.8	-	-	-	2.8	-	-	6.7	-	-	-	-	-	-	1.7	1.0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 워서	3.7	-	12.6	-	8.1	10.8	-	4.1	-	11.3	-	-	16.7	40.2	9.6	5.5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 봐 두려워서	10.5	5.8	44.4	58.1	37.4	37.8	-	21.4	23.8	43.9	-	-	32.5	-	51.0	23.7
자녀양육 잘 할 수 있 을지 두려워서	1.5	39.9	10.7	10.8	20.4	17.8	-	17.2	-	-	-	-	-	-	8.1	7.5
본인의 건강악화	13.1	-	-	-	6.6	5.1	-	24.9	61.3	20.8	-	26.0	-	59.8	6.0	10.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11.4	25.0	-	6.6	-	-	-	5.5	4.6	-	-	-	10.0	-	2.0	7.8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	-	-	7.4	-	-	-	5.0	-	-	-	-	-	-	2.1	1.1
주위의 시선때문에	-	-	-	-	-	-	-	-	-	-	-	-	19.9	-	2.2	0.1
임신·출산 관련 정보 부족	-	-	-	0.3	4.5	5.1	-	3.9	-	-	-	-	-	-	-	0.9
어려움 없음	43.1	-	31.3	6.3	12.5	10.1	-	1.9	-	-	100.0	-	20.9	-	8.9	29.3
기타	-	-	-	-	-	-	-	-	-	8.7	-	-	-	-	-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589	1,454	8,934	5,942	650	7,672	-	5,705	654	311	13	41	166	83	1,309	71,525

유산한 경험 여부는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조사 대상이다.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을 포함한 유산 경험율은 48.7%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100.0%), 신장장애(74.4%), 안면장애(74.2%), 신장장애(73.3%)로 나타났다. 반면, 호흡기장애(0.0%)와 장루·요루장애(0.0%), 지적장애(25.6%)는 낮은 유산율을 보였다.

〈표 5-9-29〉 유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51.1	43.9	59.1	41.2	35.1	25.6	-	55.1	74.4	73.3	-	100.0	74.2	-	46.6	48.7
아니오	48.9	56.1	40.9	58.8	64.9	74.4	-	44.9	25.6	26.7	100.0	-	25.8	100.0	53.4	5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589	1,454	8,934	6,488	669	7,672	-	5,705	654	311	13	41	166	83	1,309	72,090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산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자궁외 임신(17.7%)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11.6%), 태아 이상(10.8%), 자녀를 원치 않음(10.7%)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외 임신’과 ‘기타’ 사유가 가장 높은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장애유형에서 가장 높은 유산 이유를 살펴보면, 뇌병변장애(100.0%), 청각장애(32.5%), 정신장애(37.3%)는 ‘자녀를 원치 않음’, 지적장애(39.4%)는 ‘태아 이상’, 심장장애(38.9%)와 간질장애(22.7%)는 ‘본인의 장애’가 가장 큰 유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30〉 유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녀 원치 않음	-	100.0	17.1	32.5	24.8	-	-	37.3	-	12.8	-	-	-	-	13.0	10.7
남편가족의 반대로	8.5	-	-	16.5	-	-	-	14.6	-	-	-	-	-	-	16.0	7.6
터울조절	13.1	-	-	30.5	-	-	-	3.6	-	-	-	-	-	-	5.3	10.1
자궁외 임신	25.5	-	21.4	-	21.3	-	-	-	-	-	-	26.0	-	-	1.8	17.7
태아 이상	14.0	-	-	4.7	-	39.4	-	-	-	21.0	-	-	22.5	-	8.6	10.8
혼전 임신	-	-	-	-	-	14.7	-	3.5	14.9	-	-	-	-	-	7.4	1.5
본인의 장애때문에	-	-	-	-	-	-	-	20.0	9.7	38.9	-	-	-	-	22.7	2.6
경제적 어려움	15.8	-	4.4	-	15.7	18.4	-	7.5	-	-	-	-	17.0	-	11.4	11.6
기타	23.2	-	57.1	15.7	38.2	27.5	-	13.5	75.4	27.3	-	74.0	60.5	-	14.0	2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05	638	5,285	2,674	235	1,962	-	3,145	487	228	-	41	123	-	610	35,133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 중 91.3%가 출산을 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100.0%), 장루·요루장애(100.0%), 언어장애(95.7%),

지적장애(95.0%), 지체장애(95.1%), 청각장애(91.4%), 심장장애(90.2%)의 경우 높은 출산율을 나타낸 반면, 뇌병변장애(60.1%), 신장장애(68.0%), 정신장애(71.4%), 간장애(74.0%), 간질장애(75.7%)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었다.

〈표 5-9-31〉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6.1	60.1	89.9	91.4	95.7	95.0	-	71.4	68.0	90.2	100.0	74.0	87.4	100.0	75.7	91.3
아니오	3.9	39.9	10.1	8.6	4.3	5.0	-	28.6	32.0	9.8	-	26.0	12.6	-	24.3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589	1,454	8,934	6,488	669	7,672	-	5,705	862	276	13	41	166	83	1,309	72,262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을 출산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9.2세이었다. 5세별 구간별로 살펴볼 때, 26~30세에 가장 많은 장애인인 출산하였으며, 20대 초반은 20.1%였으며, 30대 초반에는 17.8%였다. 또한, 15~20세에 출산한 경우도 0.9%, 41세 이상 출산자도 4.1%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볼 때, 신장장애(32.1세), 간장애(31.0세), 안면장애(30.7세), 심장장애(30.6세), 뇌병변장애(30.3세)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 반면, 호흡기장애(25.0세), 지적장애(26.5세), 간질장애(28.5세), 청각장애(29.0세), 지체장애(29.4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최종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출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여성이 전 생애동안의 최종출산의 평균 연령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9-32〉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5-20세	-	-	-	-	-	7.2	-	-	-	-	-	-	-	-	6.1	0.9
21-25세	14.0	42.2	6.0	48.2	12.1	44.0	-	13.9	47.0	-	100.0	-	8.3	-	20.7	20.1
26-30세	52.1	41.7	57.2	32.2	47.5	22.1	-	27.2	6.2	61.8	-	-	54.5	59.8	40.5	45.3
31-35세	16.8	16.2	4.9	13.8	29.3	19.6	-	48.8	25.6	26.4	-	100.0	19.1	40.2	21.1	17.8
36-40세	11.1	-	31.9	5.2	11.1	7.2	-	17.1	11.7	-	-	-	-	-	11.6	11.8
41세 이상	6.0	-	-	0.6	-	-	-	10.0	4.2	-	-	-	18.1	-	-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069	874	8,029	5,928	641	7,285	-	4,073	586	249	13	30	145	83	991	65,997
평균 연령	29.4	30.3	29.7	29.0	29.7	26.5	-	30.3	32.1	30.6	25.0	31.0	30.7	30.0	28.5	29.2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에 대한 조사는 출산 경험을 한 여성장애인 20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출산방법으로는 자연분만이 56.2%였으며, 제왕절개는 43.8%로 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의 ‘200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제왕절개 분만율이 36.0%인 것을 고려할 때, 본 조사의 조사대상 집단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간장애(100.0%), 뇌병변장애(93.4%), 언어장애(79.3%), 청각장애(79.0%), 지적장애(70.4%) 순으로 자연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호흡기장애(0.0%), 안면장애(19.8%), 신장장애(22.8%), 장루·요루장애(40.2%), 지체장애(48.8%)는 상대적으로 자연분만율이 낮았다.

〈표 5-9-33〉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연분만	48.8	93.4	56.5	79.0	79.3	70.4	-	57.2	22.8	66.5	-	100.0	19.8	40.2	57.5	56.2
제왕절개	51.2	6.6	43.5	21.0	20.7	29.6	-	42.8	77.2	33.5	100.0	-	80.2	59.8	42.5	4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069	874	8,029	5,928	641	7,285	-	4,073	586	249	13	30	145	83	991	65,997

마지막 임신시 출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신을 하였으나 출산하지 않은 여성장애인 28명이 대상이다. 이유로는 인공 유산이 85.0%였으며, 자연 유산은 14.6%, 현재 임신 중인 경우가 0.4%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자연 유산율이 높은 집단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었다.

〈표 5-9-34〉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현재 임신 중	-	-	-	-	-	-	-	-	-	-	-	-	-	-	7.1	0.4
자연 유산	-	-	-	-	-	-	-	33.5	100.0	100.0	-	100.0	-	-	17.9	14.6
인공 유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6.5	-	-	-	-	100.0	-	75.0	8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0	580	905	559	29	386	-	1,632	276	27	-	11	21	-	318	6,265

임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는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로 인공 유산인 21명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로써, 대부분(77.1%)이 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2.9%는 주위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35〉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본인의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	44.0	77.1
주위의 권유	-	-	-	-	-	-	-	100.0	-	-	-	-	-	-	56.0	2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0	580	905	559	29	386	-	1,086	-	-	-	-	21	-	238	5,326

출산 전·후 산후조리 도우미에 대해서는 출산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을 전후로 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으로는 친정식구(56.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댁식구(16.9%)이었다. 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1.8%나 차지하였다.

〈표 5-9-36〉 출산 전·후 산후조리 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편	2.2	-	20.1	11.7	16.4	6.8	-	-	6.2	19.2	-	-	-	-	4.1	5.8
친정식구	65.8	48.2	42.8	46.8	37.4	38.5	-	53.0	60.1	66.6	100.0	100.0	54.5	59.8	64.3	56.9
시댁식구	4.5	9.6	34.3	32.4	20.1	43.3	-	28.6	6.2	14.1	-	-	8.3	40.2	15.2	16.9
복지기관	6.4	-	-	-	-	-	-	2.5	-	-	-	-	-	-	-	3.7
산후 조리원	-	-	-	-	8.2	4.2	-	-	10.9	-	-	-	18.1	-	-	0.7
산후 도우미	4.7	-	-	-	-	7.2	-	-	-	-	-	-	19.1	-	6.1	3.6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 (혼자 했음)	16.5	42.2	2.8	9.2	12.2	-	-	5.8	16.6	-	-	-	-	-	10.3	11.8
기타	-	-	-	-	5.8	-	-	10.1	-	-	-	-	-	-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069	874	8,029	5,928	641	7,285	-	4,073	586	249	13	30	145	83	991	65,997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출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가 44.5%였으며,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는 39.4%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로 응답한 장애인의 비

율의 합으로 살펴보았다. 호흡기장애(100.0%)가 충분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70.0%), 장루·요루장애(59.8%), 시각장애(58.4%), 청각장애(5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후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83.9%), 신장장애(64.6%), 심장장애(59.4%), 지체장애(47.4%), 간질장애(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37〉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충분하다	4.9	-	19.3	14.6	26.4	9.7	-	21.0	-	-	-	-	8.3	59.8	12.1	9.3
충분하다	31.8	16.2	39.1	35.8	3.0	60.3	-	24.4	35.5	26.4	100.0	-	-	-	33.7	35.2
보통이다	16.0	-	7.0	19.5	30.1	19.7	-	26.8	-	14.1	-	100.0	57.9	-	11.7	16.1
부족하다	30.9	41.7	18.8	30.1	29.4	5.3	-	22.5	23.6	59.4	-	-	33.8	-	25.8	26.0
매우 부족하다	16.5	42.2	15.8	-	11.1	5.0	-	5.3	41.0	-	-	-	-	40.2	16.6	1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069	874	8,029	5,928	641	7,285	-	4,073	586	249	13	30	145	83	991	65,997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산후조리서비스’(8.5%),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장루·요루장애(32.1%), 간질장애(19.5%), 간장애(19.3), 지적장애(16.1)에서 가장 높은 욕구로 나타났다. 신장장애(29.1%), 심장장애(25.1%), 호흡기장애(24.9%), 정신장애(19.7%)는 ‘가사도우미’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청각장애(30.9%)와 언어장애(22.4%)는 ‘자녀교육도우미’, 시각장애(37.2%)은 출산비용 지원을, 자폐성장애(29.8%)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을, 안면장애(21.3%)는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9-38〉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2.2	6.0	18.2	7.4	8.7	10.9	10.7	8.2	14.5	-	9.5	6.0	17.3	16.7	9.9	6.8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2.6	1.9	-	2.2	-	1.1	7.5	0.5	-	10.8	-	2.7	-	-	3.7	1.8
출산비용 지원	15.9	10.5	37.2	11.8	12.4	12.2	-	7.0	5.0	11.3	10.7	11.1	14.5	13.8	7.8	14.8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 산후조리 서비스	8.3	5.1	4.1	18.4	5.7	9.6	29.8	4.8	3.9	17.9	17.1	7.0	8.2	-	4.5	8.1
육아용품 대여	13.1	12.4	9.0	8.4	3.4	-	-	3.0	1.9	3.2	-	4.7	21.3	-	7.0	8.5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	-	-	1.3	-	-	-	-	-	-	-	-	-	0.8	0.0
자녀교육도우미	11.6	4.9	15.3	12.0	17.4	16.1	-	18.9	18.2	16.4	14.3	19.3	14.7	32.1	19.5	13.6
가사도우미	8.2	-	5.4	30.9	22.4	7.8	-	8.1	4.0	7.3	-	10.6	6.2	13.7	7.3	8.7
활동보조도우미	23.9	32.3	0.7	0.2	13.1	6.9	10.8	19.7	29.1	25.1	24.9	16.7	4.9	9.3	6.7	17.6
건강관리 프로그램	4.2	8.7	4.4	-	3.5	15.7	10.7	1.9	3.8	-	5.2	-	6.2	-	6.6	5.8
상담서비스(심리 정서)	8.6	8.2	2.3	5.1	6.1	6.2	14.1	4.7	17.5	4.1	11.4	12.8	-	9.2	13.7	7.3
자조집단(벤토)	-	4.3	3.4	3.7	6.0	5.7	16.3	19.6	2.2	3.9	7.0	9.3	6.6	5.2	9.9	4.5
기타	1.3	4.0	-	-	-	6.6	-	3.6	-	-	-	-	-	-	2.5	2.3
계	-	1.7	-	-	-	1.3	-	-	-	-	-	-	-	-	-	0.3
전국추정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060	10,596	14,373	10,571	1,407	28,216	448	22,025	5,333	904	477	469	338	363	2,699	177,279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성장애인들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34.4%)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으며,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12.1%), ‘교육기회 부족’(10.7%),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10.3%),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7.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나, 안면장애(35.1%), 자폐성 장애(33.7%), 지적장애(24.7%)는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표 5-9-39〉 여성장애인으로서는 특히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성장과정 중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	1.7	-	-	0.6	9.9	6.1	-	4.9	-	-	-	-	3.1	-	5.6	2.5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	8.0	9.9	-	6.5	9.9	1.3	-	14.4	7.5	9.2	5.2	6.5	-	-	10.7	7.1
교육기회 부족	9.6	6.8	8.4	12.4	14.1	22.7	10.7	5.0	2.9	5.9	2.7	-	-	-	8.2	10.7
사회화 기회의 부족	5.8	8.1	5.4	2.9	9.4	6.2	5.6	7.5	13.2	10.8	14.7	13.2	3.6	14.4	7.4	6.4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	1.2	8.2	13.5	7.4	11.3	4.7	10.7	15.9	2.7	3.3	4.5	18.0	-	16.8	7.5	5.7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10.4	16.5	7.4	2.2	14.4	24.7	33.7	8.5	5.0	9.5	13.2	-	35.1	9.3	15.3	12.1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41.0	34.3	30.0	46.0	16.0	15.8	17.7	28.9	54.2	39.6	36.7	39.5	28.1	43.4	29.9	34.4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	-	-	2.2	0.5	-	5.2	10.8	7.5	-	-	-	-	8.2	-	-	2.0
임신출산의 어려움	3.7	0.4	1.1	9.4	3.4	5.8	-	2.6	3.0	5.0	16.1	-	8.9	7.5	7.1	3.9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	12.5	13.0	17.2	11.8	2.4	5.7	10.8	3.1	9.2	5.3	6.8	6.9	13.1	8.6	5.5	10.3
기타	5.9	2.9	14.8	0.2	9.2	1.9	-	1.7	2.2	11.4	-	15.9	-	-	2.7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060	10,596	14,373	10,571	1,407	28,216	448	22,025	5,333	904	477	469	338	363	2,699	177,279

제10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장애인들은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가족관계, 친구들의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 월수입, 여가활동, 하는 일, 결혼생활, 그리고 현재의 삶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67.2%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20.3%, ‘불만족한다’가 12.5%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은 가족관계에서의 만족정도가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장애(75.5%), 신장장애(71.7%), 안면장애(71.0%)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정신장애(34.1%), 간질장애(21.8%), 언어장애(15.2%)였다.

〈표 5-10-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35.8	28.8	34.4	32.8	33.9	25.4	38.0	15.7	34.6	36.6	30.3	50.7	39.1	37.2	28.4	33.1
약간 만족	34.3	33.2	32.8	36.6	32.7	37.2	32.6	25.8	37.1	32.8	36.1	24.8	31.9	32.4	28.6	34.1
보통이다	18.9	23.8	23.5	19.1	18.2	22.8	20.7	24.4	17.4	17.9	20.1	14.7	16.9	19.1	21.2	20.3
약간 불만족	8.6	9.9	7.2	7.2	9.3	9.7	6.9	16.4	7.5	8.3	8.6	7.1	10.5	7.7	15.1	8.8
매우 불만족	2.5	4.3	2.0	4.2	5.9	4.9	1.8	17.7	3.3	4.3	4.9	2.8	1.7	3.6	6.7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은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47.6%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9.5%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22.9%였다. 전체적으로 친구 수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정도가 불만족정도보다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사귀는 친구수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안면장애·지체장애(56.8%), 간장애(53.3%), 장루·요루장애(52.1%)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정신장애(59.1%)와 자폐성장애(54.8%)였다.

〈표 5-10-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4.3	12.2	18.5	17.1	10.2	8.4	5.0	6.7	17.9	22.8	15.7	28.1	25.3	25.0	12.2	19.6
약간 만족	32.5	18.5	33.0	25.9	26.0	16.7	11.6	10.5	23.9	24.4	24.7	25.2	31.5	27.1	20.4	28.0
보통이다	21.0	24.5	24.3	30.1	19.0	22.6	28.5	23.8	22.6	22.7	24.7	20.8	24.3	24.6	20.9	22.9
약간 불만족	14.6	25.3	17.4	18.8	22.6	21.8	22.8	24.4	23.2	19.8	24.4	16.5	6.8	17.6	25.2	17.7
매우 불만족	7.6	19.6	6.8	8.1	22.3	30.5	32.0	34.7	12.4	10.3	10.4	9.4	12.1	5.7	21.3	1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이 거주지역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54.3%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6.3%의 장애인은 ‘보통이다’, 그리고 19.4%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정도가 불만족정도보다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장루·요루장애(60.9%), 자폐성장애(60.1%), 청각장애(58.6%)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

한 장애유형은 안면장애(29.1%), 간질장애(28.6%), 정신장애(25.1%)였다.

〈표 5-10-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0.9	17.1	19.1	20.4	18.3	21.8	24.8	13.2	19.3	21.3	19.6	26.8	16.3	26.5	16.0	20.0
약간 만족	34.1	31.6	33.9	38.2	36.2	35.3	35.3	32.7	35.4	33.1	35.4	31.2	24.0	34.4	32.3	34.3
보통이다	25.1	27.4	30.3	26.1	26.0	29.0	24.3	29.0	25.0	24.3	21.5	21.5	30.6	23.2	23.2	26.3
약간 불만족	15.7	18.1	13.2	11.9	13.2	11.3	11.1	21.1	13.5	15.8	17.7	15.0	18.2	12.9	21.3	15.2
매우 불만족	4.2	5.7	3.5	3.4	6.3	2.6	4.4	4.0	6.8	5.4	5.8	5.5	10.9	2.9	7.3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은 요즘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52.9%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5.3%의 장애인은 ‘보통이다’, 그리고 21.9%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에 있어 불만족 정도가 2배 이상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72.1%), 지적장애(50.2%), 안면장애(37.0%)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81.9%), 심장장애(76.6%), 신장장애(74.8%)였다.

〈표 5-10-4〉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5.5	1.2	5.9	4.9	8.5	18.9	32.6	4.5	0.4	0.5	0.6	3.7	12.3	2.1	2.9	5.8
약간 만족	14.8	8.6	18.2	17.9	20.8	31.3	39.5	21.7	6.8	6.0	5.0	11.9	24.7	14.4	15.2	16.1
보통이다	26.3	17.7	26.1	29.4	23.9	24.0	18.6	29.3	17.9	16.9	12.5	22.2	35.2	26.9	23.1	25.3
약간 불만족	36.6	36.6	36.4	34.1	32.9	20.6	7.9	31.3	36.7	40.6	36.0	29.0	20.8	36.4	37.3	34.9
매우 불만족	16.8	35.9	13.4	13.7	13.8	5.2	1.5	13.2	38.1	36.0	45.9	33.3	7.0	20.2	21.4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은 현재 한달 수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66.3%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2.7%의 장애인은 ‘보통이다’, 그리고 11.0%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정도에 있어 불만족정도가 매우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한달 수입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14.6%), 안면장애(13.9%), 청각장애(13.3%)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질장애(79.2%), 호흡기장애(76.5%), 심장장애(74.6%)였다.

〈표 5-10-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1.8	2.0	1.8	1.6	1.2	1.0	0.7	2.2	1.1	1.5	1.9	5.0	3.8	2.5	1.4	1.8
약간 만족	8.6	5.7	11.4	11.7	10.6	13.6	11.5	9.7	9.1	7.9	9.0	12.0	10.1	8.1	6.5	9.2
보통이다	21.0	23.6	26.1	24.1	23.7	32.6	41.3	24.3	18.8	16.0	12.6	12.1	17.1	22.5	13.0	22.7
약간 불만족	32.0	29.9	32.6	34.6	32.5	27.2	12.6	30.1	33.3	33.3	31.5	29.8	31.4	29.0	31.7	31.7
매우 불만족	36.7	38.8	28.2	28.0	32.0	25.5	33.9	33.7	37.6	41.3	45.0	41.2	37.6	38.0	47.5	3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4,523	211,976	217,307	203,067	14,024	107,359	4,044	84,553	48,285	13,770	14,393	6,250	2,070	11,281	8,697	2,071,599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41.9%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9.8%의 장애인이 ‘보통이다’, 그리고 18.3%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는 불만족정도가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안면장애(31.9%), 지적장애·자폐성장애(27.6%)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52.4%), 뇌병변장애(52.3%), 신장장애(49.9%)였다.

〈표 5-10-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3.3	3.4	5.7	6.3	4.7	7.3	8.2	3.0	3.2	4.6	1.9	5.5	8.0	6.1	4.9	4.2
약간 만족	13.0	10.7	14.8	16.6	17.7	20.3	19.4	18.0	9.7	18.4	13.0	19.9	23.9	15.1	14.4	14.1
보통이다	41.2	33.6	37.1	42.5	41.4	38.4	38.8	42.2	37.2	35.7	32.6	38.3	34.7	39.5	38.9	39.8
약간 불만족	28.3	27.5	29.6	23.6	23.0	21.5	22.3	21.2	31.8	29.4	30.5	22.1	20.5	24.9	24.6	27.1
매우 불만족	14.1	24.8	12.8	11.0	13.2	12.5	11.3	15.5	18.1	11.9	21.9	14.2	12.9	14.4	17.1	1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현재 직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보통이다’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4.7%로 가장 많았고, 34.2%의 장애인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1.0%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통 내지는 만족하게 느끼는 경우가 불만족하다는 경우보다 약간 더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76.6%), 정신장애(63.1%), 안면장애(44.4%)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39.1%), 호흡기장애(38.5%), 간장애(33.6%)였다.

〈표 5-10-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만족	11.2	14.5	9.0	11.4	7.0	16.0	45.8	22.6	8.5	8.5	13.4	20.5	12.3	6.1	8.3	11.3
약간 만족	19.8	20.6	32.0	28.5	32.2	28.4	30.8	40.5	27.0	27.0	22.5	17.2	32.1	35.3	30.3	22.9
보통이다	36.1	25.7	31.1	35.1	30.5	38.2	13.6	15.2	34.9	30.9	25.6	28.7	26.5	26.0	27.9	34.7
약간 불만족	24.5	25.2	24.4	18.6	25.4	11.5	9.9	14.7	17.8	21.9	21.8	21.6	22.3	22.7	18.5	23.2
매우 불만족	8.4	13.9	3.5	6.4	4.8	5.7	0.0	7.0	11.9	11.6	16.7	12.0	6.8	10.0	15.0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5,629	23,746	89,383	80,777	4,266	24,123	354	8,357	9,332	2,808	2,387	1,870	1,171	3,491	2,362	780,056

현재 유배우인 장애인의 경우, 현재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64.3%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6.9%의 장애인은 ‘보통이다’, 그리고 8.8%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정도는 불만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장애(70.4%), 신장장애(69.6%), 시각장애(68.8%)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100.0%), 정신장애(34.8%), 지적장애(26.6%)였다.

〈표 5-10-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만족	29.3	24.5	30.0	27.9	29.9	14.9	0.0	13.8	33.1	31.3	27.8	45.4	40.4	29.8	27.3	28.5
약간 만족	36.0	31.0	38.8	37.1	38.2	35.9	0.0	32.7	36.5	35.4	40.7	25.0	24.4	36.4	28.2	35.8
보통이다	27.6	32.1	22.5	26.9	22.5	22.6	0.0	18.6	18.0	22.1	24.8	18.9	24.7	26.7	32.5	26.9
약간 불만족	4.5	8.2	6.1	5.0	4.5	16.6	0.0	17.4	9.1	8.3	3.0	7.7	1.9	4.9	6.9	5.6
매우 불만족	2.6	4.2	2.7	3.1	4.9	10.0	100.0	17.4	3.2	2.9	3.8	2.9	8.7	2.2	5.2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07,980	143,803	139,102	134,452	8,594	17,565	82	18,095	33,391	10,018	10,290	5,093	968	8,379	3,312	1,341,124

장애인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46.7%의 장애인인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29.1%의 장애인이 현재의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2%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불만족이 약간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삶의 만족정도에서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35.7%), 안면장애(35.5%), 간장애(27.3%)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45.3%), 정신장애(41.8%), 신장장애(40.1%), 간질장애(40.1%)였다.

〈표 5-10-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3.6	2.3	4.3	3.8	4.1	3.5	8.0	2.3	2.4	3.2	2.3	8.8	8.6	6.1	2.3	3.5
약간 만족	22.0	12.7	22.2	22.6	20.3	22.8	27.7	13.3	20.7	18.8	14.1	18.5	26.9	19.2	14.9	20.7
보통이다	47.9	39.6	49.8	49.0	45.6	47.8	44.1	42.6	36.8	42.8	45.0	43.0	33.6	47.9	42.7	46.7
약간 불만족	20.7	31.9	19.1	19.0	19.7	16.7	14.6	26.0	27.4	27.1	26.2	22.9	20.9	19.2	29.4	21.7
매우 불만족	5.8	13.4	4.6	5.6	10.4	9.3	5.6	15.8	12.7	8.1	12.5	6.8	10.0	7.6	10.7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총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은 생활하면서 장애로 인하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지 물어보았는데, 42.5%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64.3%가 ‘가족’과 상담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다’가 20.4%, ‘친척, 친구, 이웃’과 상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0%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장애인의 60% 이상이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주로 가족과 상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2000년 및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그 외 주 상담자가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직원’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3.0%로 2005년의 0.7%에 비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주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상담자가 ‘행정공무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3%에 불과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주 상담자로 ‘가족’을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자폐성장애(82.0%), 장루·요루장애(79.8)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안면장애(48.1%)와 언어장애(59.1%)는 가장 낮았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기관 직원과

상담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한 장애유형은 정신적 장애유형이었다.

〈표 5-10-10〉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가족	59.5	71.5	63.1	69.3	59.1	73.9	82.0	54.5	70.5	75.4	67.8	75.0	48.1	79.8	61.8	64.3
친척, 친구, 이웃	12.2	4.5	10.5	6.4	12.4	4.7	2.9	6.0	6.3	6.2	9.1	4.9	8.9	4.5	12.6	9.0
장애인 동료	0.6	0.4	1.0	0.9	0.6	0.0	1.1	0.0	1.0	0.4	0.0	0.0	0.0	1.5	1.2	0.6
종교인	1.2	1.8	1.7	0.3	1.5	1.3	0.5	1.3	0.7	0.7	1.2	1.2	0.0	0.0	6.0	1.3
사회복지관련기관직원	0.7	3.4	1.4	2.7	1.7	9.5	7.0	15.3	0.2	0.0	0.9	0.0	0.0	0.0	0.9	3.0
행정공무원	0.4	0.3	0.0	0.0	0.0	0.5	0.2	0.0	0.0	0.0	0.0	0.0	0.0	0.7	0.6	0.3
없다	24.5	16.9	22.1	19.3	23.4	8.3	3.7	19.9	18.0	15.6	17.7	17.8	40.7	12.4	14.1	20.4
기타	1.0	1.2	0.2	1.0	1.3	1.7	2.6	3.0	3.2	1.7	3.3	1.0	2.3	1.1	2.7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6,402	122,478	97,884	91,349	7,207	77,175	8,836	51,870	24,783	7,371	8,054	3,105	913	4,818	5,910	908,155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족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끔 있다’가 7.4%, ‘자주 있다’가 2.3%로 가족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7%로 2005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와 간질장애의 가족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족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내부장애유형이 가장 높았다.

〈표 5-10-11〉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주 있다	1.1	3.1	2.0	2.7	4.0	5.3	2.7	9.8	4.5	1.6	1.8	1.2	1.9	0.8	7.4	2.3
가끔 있다	4.4	11.2	4.6	7.7	6.6	17.3	15.6	28.1	5.9	5.8	4.3	5.2	7.3	4.0	21.9	7.4
없다	94.5	85.6	93.4	89.6	89.4	77.4	81.6	62.1	89.6	92.6	93.9	93.5	90.8	95.2	70.7	9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가족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경우, 그 폭력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받는 가족 내 폭력의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폭력(30.5%)’, ‘방임·유기(15.3%)’, ‘신체적 폭력(9.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가족내 차별유형 중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장애(57.3%)와 지적장애(55.0%)였고, ‘정신적 폭력’은 안면장애(45.0%)가, ‘신체적 폭력’은 지적장애(16.6%)가, ‘방임 및 유기’는 정신장애(35.5%)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12〉 가족내 차별·폭력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언어폭력	42.7	44.0	49.6	53.1	50.4	55.0	57.3	32.4	47.7	42.8	36.9	51.2	38.1	34.4	40.6	45.0
정신적 폭력	42.8	30.6	41.2	27.1	31.1	10.6	16.1	21.3	41.1	40.9	38.5	39.0	45.0	31.1	37.4	30.5
신체적 폭력	6.2	6.8	4.7	12.4	6.9	16.6	15.5	9.8	4.1	1.7	5.1	7.1	9.4	0.0	8.6	9.0
성적학대	0.0	0.0	0.0	0.0	0.0	0.0	0.0	1.0	0.0	3.2	0.0	0.0	0.0	0.0	0.0	0.2
방임 및 유기	8.2	18.7	4.5	7.4	11.5	17.8	11.0	35.5	7.1	11.4	19.5	2.6	7.4	34.4	13.4	15.3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2,070	31,488	14,553	21,526	1,602	31,692	2,267	32,096	5,023	1,082	881	420	202	549	2,599	208,050

가족내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가족이 주로 누구인지를 물어본 결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25.8%)’, ‘형제·자매(21.7%)’의 순이었다. 그 외 ‘자녀’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9.4%나 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61.3%)와 안면장애(55.2%)가 ‘배우자’에 의해 차별·폭력을, 지적장애(52.9%)는 ‘부모’에 의한 차별·폭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 외 자폐성장장애(44.6%)는 ‘형제·자매’에 의한 차별·폭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5-10-13〉 가족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배우자	50.3	46.3	48.4	46.7	37.7	14.9	3.4	23.0	61.3	48.1	54.3	53.2	55.2	47.3	31.2	39.0
부모	21.4	11.0	9.0	11.4	29.6	52.9	44.2	40.3	19.3	19.6	5.1	4.3	3.9	9.7	30.0	25.8
자녀	1.3	22.0	31.3	23.6	10.0	0.0	0.0	3.0	3.8	22.2	18.9	24.5	0.0	33.2	7.9	9.4
형제·자매	22.1	15.5	11.3	14.4	20.0	24.7	44.6	33.6	15.6	10.2	21.7	18.1	40.9	2.2	26.8	21.7
조부모	0.0	1.5	0.0	1.4	0.0	2.9	7.9	0.0	0.0	0.0	0.0	0.0	0.0	0.0	1.5	0.9
손자녀	0.9	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7	0.0	0.6
기타	4.0	1.9	0.0	2.4	2.7	4.7	0.0	0.0	0.0	0.0	0.0	0.0	0.0	0.0	2.6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2,068	31,488	14,553	21,527	1,603	31,693	2,267	32,096	5,023	1,083	880	421	203	548	2,599	208,052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9.0%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성관련 차별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관련 차별이나 폭력 등을 경험한 장애인은 1.0%로 2005년의 0.7%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정신적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정신장애 7.3%, 간질장애 3.6%, 지적장애 2.8%, 자폐성장애 1.7%의 순이었다.

〈표 5-10-14〉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0.7	1.1	0.2	0.4	0.8	2.8	1.7	7.3	0.0	0.6	0.0	0.0	1.7	0.0	3.6	1.0
없다	99.3	98.9	99.8	99.6	99.2	97.2	98.3	92.7	100.0	99.4	100.0	100.0	98.3	100.0	96.4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경험한 경우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38.1%가 청년기(25~39세)가 3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년기(40~64세) 21.8%, 아동기(7~17세) 20.8%, 청소년기(18~24세) 19.4%의 순이었다. 그 외 영·유아기와 노년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 청소년기 이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편인데,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의 경우 아동기에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언어장애인의 경우 아동기에 경험한 비율이 100%였다.

〈표 5-10-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영·유아기(0~6세)	-	-	-	-	-	-	-	-	-	-	-	-	-	-	-	-
아동기(7~17세)	1.9	59.6	23.4	3.1	100.0	50.8	62.5	6.9	-	78.9	-	-	32.4	-	31.5	20.8
청소년기(18~24세)	34.0	19.8	0.0	6.5	0.0	0.0	37.5	16.4	-	0.0	-	-	0.0	-	29.3	19.4
청년기(25~39세)	30.7	2.3	55.0	24.9	0.0	26.9	0.0	71.8	-	21.1	-	-	40.5	-	28.7	38.1
장년기(40~64세)	33.4	18.3	21.6	65.4	0.0	22.3	0.0	5.0	-	0.0	-	-	27.0	-	10.6	21.8
노년기(65세 이상)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7,616	2,515	504	795	117	3,947	216	6,200	-	90	-	-	37	-	321	22,358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 가해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장애인의 40.8%가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28.7%, ‘이웃’ 18.4%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 경험한 경우가 50% 이상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근친(가족)’에 의한 경우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에서만 나타났다.

〈표 5-10-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근친(가족)	0.0	0.0	0.0	0.0	0.0	3.7	0.0	6.6	-	0.0	-	-	0.0	-	0.0	2.5
이웃	1.9	20.6	0.0	15.7	0.0	44.5	0.0	23.4	-	20.0	-	-	0.0	-	32.0	18.4
민친척	0.0	42.9	0.0	0.0	0.0	0.0	0.0	13.8	-	0.0	-	-	0.0	-	9.3	8.8
모르는 사람	64.7	3.0	100.0	31.4	63.8	24.9	49.5	31.9	-	58.9	-	-	67.6	-	46.9	40.8
학교관계자	0.0	0.0	0.0	0.0	0.0	0.0	26.4	1.6	-	0.0	-	-	32.4	-	0.0	0.8
기타	33.4	33.5	0.0	52.8	36.2	26.8	24.1	22.7	-	21.1	-	-	0.0	-	11.8	2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7,616	2,515	504	795	116	3,948	216	6,200	-	90	-	-	37	-	322	22,359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65.5%는 ‘참는다’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2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9.0%, ‘무시한다’ 3.1%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참거나 무시하는 소극적 대응이 68.6%였다.

〈표 5-10-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0.0	5.3	0.0	3.1	31.9	9.0	0.0	1.5	-	0.0	-	-	0.0	-	15.2	3.1
참는다	98.1	66.0	21.6	26.8	31.9	20.0	61.4	64.1	-	80.0	-	-	100.0	-	45.0	65.5
그 자리에서 항의 한다	0.0	28.7	78.4	0.0	36.2	42.6	38.6	32.1	-	20.0	-	-	0.0	-	22.0	2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9	0.0	0.0	70.1	0.0	28.4	0.0	2.3	-	0.0	-	-	0.0	-	17.7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7,616	2,515	504	795	116	3,949	215	6,201	-	90	-	-	37	-	322	22,360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52.3%가 ‘못했음’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가족’(41.2%), ‘친척·친구·이웃’(2.5%) 순이었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이나 ‘행정공무원’등은 각각 0.8%,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장애인들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당하였을 때, 주로 가까이 있는 가족과 상담을 하고 있었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상담한 경우는 아주 미미하였다. 게다가 약 반수 정도의 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상담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표 5-10-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가족	39.9	19.8	0.0	6.0	0.0	51.3	75.9	52.9	-	21.1	-	-	0.0	-	41.9	41.2
친척, 친구, 이웃	0.0	0.0	0.0	26.8	0.0	0.0	0.0	5.0	-	0.0	-	-	0.0	-	7.5	2.5
장애인 동료	-	-	-	-	-	-	-	-	-	-	-	-	-	-	-	-
종교인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	0.0	-	19.6	0.3
사회복지관련기관직원	1.9	0.0	0.0	4.7	0.0	0.0	0.0	0.0	-	0.0	-	-	0.0	-	0.0	0.8
행정공무원	0.0	10.5	0.0	0.0	0.0	0.0	0.0	0.0	-	0.0	-	-	0.0	-	0.0	1.2
못했음	58.3	69.7	100.0	62.5	100.0	38.8	15.7	42.1	-	78.9	-	-	100.0	-	31.1	52.3
기타	0.0	0.0	0.0	0.0	0.0	9.9	8.3	0.0	-	0.0	-	-	0.0	-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7,616	2,515	504	795	117	3,948	216	6,200	-	90	-	-	37	-	322	22,360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상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6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0%)’,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7.0%),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부족(6.3%)’을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인들이 이러한 문제발생시 담당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6.2%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00.0%)와 심장장애(100.0%), 시각장애(78.4%), 안면장애(67.6%)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5-10-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0.0	66.2	21.6	0.0	0.0	23.2	0.0	0.0	-	0.0	-	-	0.0	-	17.0	14.0
시간이 없어서	0.0	0.0	0.0	5.0	0.0	0.0	0.0	0.0	-	0.0	-	-	0.0	-	0.0	0.2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0.0	0.0	0.0	0.0	31.9	0.0	0.0	25.6	-	0.0	-	-	0.0	-	32.0	6.3
몸이 불편	-	-	-	-	-	-	-	-	-	-	-	-	-	-	-	-
경제적 부담때문	0.0	0.0	0.0	84.5	0.0	0.0	0.0	0.0	-	0.0	-	-	0.0	-	0.0	3.6
집근처에 상담기관 부족	-	-	-	-	-	-	-	-	-	-	-	-	-	-	-	-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0.0	0.0	0.0	0.0	0.0	28.4	100.0	12.0	-	0.0	-	-	32.4	-	28.0	7.0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100.0	33.8	78.4	10.5	36.2	25.2	0.0	62.5	-	100.0	-	-	67.6	-	23.0	65.5
기타	0.0	0.0	0.0	0.0	31.9	23.2	0.0	0.0	-	0.0	-	-	0.0	-	0.0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4,438	1,753	504	497	116	1,533	34	2,609	-	71	-	-	37	-	100	11,692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의 폭력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 6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필요(23.5%)’, ‘보통’ (10.1%), ‘매우 불필요’(0.7%), ‘약간 불필요’(0.6%)의 순이었다. 즉, 전체 장애인의 88.6%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폐성장장애와 간질장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6.6%, 91.4%로 가장 많았다.

〈표 5-10-20〉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하다	65.7	62.0	60.7	60.9	63.0	72.2	82.8	70.5	67.1	63.4	62.1	71.0	67.3	61.5	68.8	65.1
약간 필요하다	22.2	26.9	26.9	28.2	27.4	18.0	13.8	19.6	23.6	25.7	25.9	19.8	22.7	27.7	22.6	23.5
보통이다	10.8	9.5	10.7	9.8	8.5	8.7	2.8	9.1	7.6	9.1	10.1	8.0	9.2	10.1	6.7	10.1
약간 불필요하다	0.7	0.6	0.2	0.6	0.7	0.3	0.0	0.4	0.0	1.5	1.5	0.7	0.3	0.3	1.0	0.6
매우 불필요하다	0.5	1.0	1.5	0.6	0.5	0.8	0.6	0.5	1.7	0.3	0.4	0.5	0.5	0.5	0.9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차별의 영역은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

협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의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유치원(보육시설)의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3.1%,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6.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가 100% 수준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21〉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8.8	33.6	0.0	31.5	20.7	29.9	44.3	0.0	0.0	8.3	-	25.6	23.5	0.0	27.2	26.9
안받았다	81.2	66.4	100.0	68.5	79.3	70.1	55.7	100.0	100.0	91.7	-	74.4	76.5	100.0	72.8	7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012	9,768	5,560	6,488	1,612	46,060	10,583	154	221	1,189	-	199	311	181	478	109,816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6.0%는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9.3%)’,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2.9%), ‘기타’(1.7%)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은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6.0%)’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진정·고발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2.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38.40%)와 청각장애(23.3%)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0-2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100.0	100.0	-	75.5	67.5	82.5	77.4	-	-	61.6	-	100.0	100.0	-	84.6	86.0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0.0	0.0	-	23.3	9.0	9.4	19.1	-	-	38.4	-	0.0	0.0	-	15.4	9.3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	0.0	0.0	5.6	1.9	-	-	0.0	-	0.0	0.0	-	0.0	2.9
기타	0.0	0.0	-	1.2	23.6	2.4	1.6	-	-	0.0	-	0.0	0.0	-	0.0	1.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5,070	3,284	-	2,044	335	13,779	4,685	-	-	99	-	51	73	-	130	29,550

장애인이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73.9%,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6.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36.7%)와 언어장애(30.7%)가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표 5-10-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5.5	31.2	10.6	25.7	30.7	28.5	36.7	14.5	0.0	12.2	0.0	4.2	25.5	0.0	16.6	26.1
안받았다	74.5	68.8	89.4	74.3	69.3	71.5	63.3	85.5	100.0	87.8	100.0	95.8	74.5	100.0	83.4	7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6,944	14,601	14,691	26,064	3,369	75,760	10,158	1,787	298	1,396	361	237	593	156	1,740	258,155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9.5%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8.7%),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1.5%), ‘기타’(0.3%)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은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한다’(86.0%)였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20.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이는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과 동일한 결과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59.9%)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0-2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81.3	70.3	40.1	82.0	61.2	82.1	76.9	100.0	-	100.0	-	100.0	68.2	-	91.0	79.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8.7	22.3	59.9	17.6	23.5	15.7	18.2	0.0	-	0.0	-	0.0	31.8	-	9.0	18.7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7.3	0.0	0.0	2.7	2.3	4.2	0.0	-	0.0	-	0.0	0.0	-	0.0	1.5
기타	0.0	0.0	0.0	0.4	12.7	0.0	0.7	0.0	-	0.0	-	0.0	0.0	-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경수	27,278	4,561	1,557	6,704	1,035	21,604	3,723	260	-	170	-	10	151	-	290	67,343

장애인이 중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0.6%,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9.4%였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6.1% 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가 중학교 입학·취학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언어장애(33.8%)와 정신장애(30.2%)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9.0	18.8	6.3	29.5	33.8	19.9	24.0	30.2	0.0	17.8	0.0	0.0	22.5	0.0	20.6	19.4
안받았다	81.0	81.2	93.7	70.5	66.2	80.1	76.0	69.8	100.0	82.2	100.0	100.0	77.5	100.0	79.4	8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경수	85,138	9,826	17,640	16,882	2,325	51,780	4,491	3,784	1,189	966	119	78	701	205	2,241	197,365

중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68.0%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0.1%), ‘기타’(1.3%),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6%)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중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68.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조치를 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0.7%의 장애인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79.3%)와 지체장애(44.3%)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0-2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55.7	75.1	20.7	81.7	54.4	81.6	68.1	100.0	-	46.5	-	-	83.5	-	78.5	68.0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4.3	24.9	79.3	18.3	26.6	13.2	28.7	0.0	-	45.3	-	-	16.5	-	21.5	30.1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2.4	1.8	3.2	0.0	-	0.0	-	-	0.0	-	0.0	0.6
기타	0.0	0.0	0.0	0.0	16.6	3.4	0.0	0.0	-	8.1	-	-	0.0	-	0.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6,151	1,849	1,111	4,973	787	10,306	1,078	1,144	-	172	-	-	158	-	461	38,190

장애인이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3.2%,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8%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의 100.0%가 고등학교 입학·취학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의 경우 47.5%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27〉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3.0	20.2	22.6	25.6	27.7	15.6	17.7	47.5	0.0	16.3	0.0	0.0	22.6	0.0	19.4	16.8
안받았다	87.0	79.8	77.4	74.4	72.3	84.4	82.3	52.5	100.0	83.7	100.0	100.0	77.4	100.0	80.6	8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206	6,230	12,906	12,397	1,913	34,886	2,730	4,264	910	670	119	45	563	77	1,879	161,795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62.0%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7.6%),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와 ‘기타’(0.2%)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62.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7.8%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85.4%)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0-2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55.8	63.4	14.6	71.3	61.5	77.8	74.3	100.0	-	56.4	-	-	79.5	-	72.1	62.0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4.2	36.6	85.4	28.7	17.4	22.2	25.7	0.0	-	43.6	-	-	20.5	-	27.9	37.6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11.1	0.0	0.0	0.0	-	0.0	-	-	0.0	-	0.0	0.2
기타	0.0	0.0	0.0	0.0	10.0	0.0	0.0	0.0	-	0.0	-	-	0.0	-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0,697	1,257	2,922	3,172	530	5,432	482	2,025	-	110	-	-	127	-	365	27,119

장애인이 대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3.1%,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6.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가 각 100.0%로 대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29〉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6.7	2.6	1.7	6.3	8.0	2.8	0.0	56.9	0.0	9.1	0.0	0.0	5.2	0.0	3.5	6.9
안받았다	93.3	97.4	98.3	93.7	92.0	97.2	100.0	43.1	100.0	90.9	100.0	100.0	94.8	100.0	96.5	9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305	2,665	6,171	6,662	701	6,934	570	1,836	630	383	81	24	288	39	636	66,925

대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57.9%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40.6%)’, ‘기타’(1.5%)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대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57.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40.6%의 장애인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만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71.1%가 사용하였다.

〈표 5-10-3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28.9	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57.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1.1	0.0	0.0	0.0	0.0	0.0	-	0.0	-	0.0	-	-	0.0	-	0.0	40.6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0.0	100.0	0.0	0.0	0.0	0.0	-	0.0	-	0.0	-	-	0.0	-	0.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2,621	68	106	423	56	197	-	1,044	-	35	-	-	15	-	22	4,587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교사로부터, 또래학생으로부터,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교사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1.1%,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8.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0%의 장애인이 학교 생활에서 교사로부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자폐성장애(31.6%)가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31〉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4.5	25.3	16.7	20.8	24.3	21.8	31.6	22.6	16.9	12.2	5.6	15.2	18.6	0.0	19.1	18.9
안받았다	85.5	74.7	83.3	79.2	75.7	78.2	68.4	77.4	83.1	87.8	94.4	84.8	81.4	100.0	80.9	8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959	17,758	23,190	32,833	4,159	92,768	11,877	10,370	1,956	2,081	443	309	867	320	3,484	335,374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3.9%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3.5%)’,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1.8%), ‘기타’(0.7%)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교사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3.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5.3%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

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다.

〈표 5-10-3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81.7	92.6	55.4	94.6	85.4	84.9	77.1	100.0	100.0	68.0	100.0	40.4	100.0	-	92.9	83.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4.0	7.4	44.6	5.0	14.6	11.9	19.3	0.0	0.0	32.0	0.0	59.6	0.0	-	7.1	13.5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4.3	0.0	0.0	0.0	0.0	1.4	1.2	0.0	0.0	0.0	0.0	0.0	0.0	-	0.0	1.8
기타	0.0	0.0	0.0	0.4	0.0	1.8	2.3	0.0	0.0	0.0	0.0	0.0	0.0	-	0.0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9,268	4,489	3,861	6,834	1,009	20,227	3,759	2,348	331	253	25	47	161	-	665	63,277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또래학생으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1.1%,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8.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의 경우 100.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안면장애의 62.1%와 언어장애 61.5%는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33〉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46.3	50.3	34.7	45.8	61.5	56.0	54.6	59.4	0.0	29.8	29.0	28.8	62.1	35.3	54.8	48.9
안받았다	53.7	49.7	65.3	54.2	38.5	44.0	45.4	40.6	100.0	70.2	71.0	71.2	37.9	64.7	45.2	5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960	17,758	23,362	32,978	4,159	92,900	11,876	10,370	1,956	2,082	442	309	867	320	3,503	335,842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1.5%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7.0%),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2%, ‘기타’ 0.3%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1.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8.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6.0%로 가장 많았다.

〈표 5-10-3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77.5	89.5	68.0	88.7	74.1	84.8	77.6	91.0	-	80.6	100.0	78.7	74.0	100.0	80.4	81.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22.5	10.5	31.3	11.1	19.8	11.5	20.3	9.0	-	19.4	0.0	21.3	26.0	0.0	15.8	17.0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8	0.0	4.0	3.1	1.2	0.0	-	0.0	0.0	0.0	0.0	0.0	3.7	1.2
기타	0.0	0.0	0.0	0.2	2.1	0.6	1.0	0.0	-	0.0	0.0	0.0	0.0	0.0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1,536	8,933	8,103	15,112	2,557	52,038	6,487	6,163	-	620	128	89	538	113	1,921	164,338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학부모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1.6%,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8.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0%의 장애인이 학부모로부터 차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자폐성장애의 경우 18.6%가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5-10-35〉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5.1	9.9	2.6	5.5	10.3	14.2	18.6	5.9	0.0	3.6	5.6	9.1	17.9	0.0	11.2	8.4
안받았다	94.9	90.1	97.4	94.5	89.7	85.8	81.4	94.1	100.0	96.4	94.4	90.9	82.1	100.0	88.8	9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960	18,048	23,484	33,216	4,159	92,735	11,876	10,668	1,956	2,112	443	309	872	320	3,504	336,662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0.8%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6%),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1.3%), ‘기타’(0.3%)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부모로부터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0.8%)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8.9%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5.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많았다.

〈표 5-10-3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81.7	100.0	89.5	100.0	100.0	93.8	80.9	100.0	-	74.7	100.0	100.0	100.0	-	95.4	90.8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8.3	0.0	0.0	0.0	0.0	3.7	16.6	0.0	-	25.3	0.0	0.0	0.0	-	4.6	7.6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0.0	2.5	1.7	0.0	-	0.0	0.0	0.0	0.0	-	0.0	1.3
기타	0.0	0.0	10.5	0.0	0.0	0.0	0.8	0.0	-	0.0	0.0	0.0	0.0	-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6,780	1,791	612	1,840	427	13,162	2,205	628	-	75	25	28	156	-	393	28,122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3.9%,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94.3%가 결혼을 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자폐성장애가 100%로 가장 많았다.

〈표 5-10-37〉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3.0	17.4	11.0	15.0	25.1	56.8	100.0	65.3	15.2	8.8	9.3	7.7	44.1	5.7	53.6	16.1
안받았다	87.0	82.6	89.0	85.0	74.9	43.2	0.0	34.7	84.8	91.2	90.7	92.3	55.9	94.3	46.4	8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13,377	163,936	170,528	157,718	10,668	40,534	246	40,814	39,445	11,036	11,759	5,424	1,464	9,109	6,008	1,582,066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6.3%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1.5%), ‘기타’(1.6%),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6%)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6.3%)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2.1%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

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다.

〈표 5-10-3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86.5	85.5	92.5	78.3	90.7	90.2	100.0	87.4	75.6	79.1	78.6	78.1	96.0	83.4	90.3	86.3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1.7	10.4	6.5	18.3	9.3	9.8	0.0	8.0	24.4	20.9	16.0	21.9	4.0	16.6	7.8	11.5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9	1.7	0.0	0.0	0.0	3.6	0.0	0.0	5.4	0.0	0.0	0.0	1.0	0.6
기타	1.8	4.1	0.0	1.8	0.0	0.0	0.0	1.1	0.0	0.0	0.0	0.0	0.0	0.0	1.0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8,673	28,551	18,810	23,689	2,678	23,034	246	26,651	6,014	972	1,096	415	645	523	3,218	255,215

장애인이 취업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5.0%,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79.9%), 시각장애(73.1%), 지체장애(68.1%) 등의 장애인들의 취업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안면장애 66.5%, 정신장애 62.4%로 가장 많았다.

〈표 5-10-39〉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31.9	47.7	26.9	37.5	52.1	53.7	52.9	62.4	47.8	32.6	41.5	33.3	66.5	20.1	61.2	35.0
안받았다	68.1	52.3	73.1	62.5	47.9	46.3	47.1	37.6	52.2	67.4	58.5	66.7	33.5	79.9	38.8	6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85,570	42,220	111,098	90,364	6,634	36,788	556	28,686	15,876	4,364	5,233	2,833	1,571	3,661	5,285	940,739

취업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6.1%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8%),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1%)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1%)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9%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7.7%로 가장 많았다.

〈표 5-10-4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5.6	97.9	94.3	97.9	94.1	93.9	100.0	100.0	99.0	92.3	97.9	95.0	100.0	97.8	96.9	96.1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4	2.1	5.7	2.1	5.9	4.6	0.0	0.0	0.5	7.7	2.1	0.0	0.0	2.2	1.8	3.8
잔장·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0.0	1.5	0.0	0.0	0.5	0.0	0.0	5.0	0.0	0.0	1.0	0.1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6,690	20,146	29,925	33,901	3,456	19,755	294	17,886	7,593	1,422	2,171	943	1,045	737	3,235	329,199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임금), 동료와의 관계, 승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득(임금)의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9.2%,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0.8%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득(임금)의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6%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자폐성장애인이 57.0%로 가장 많았다.

〈표 5-10-41〉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8.7	33.1	19.5	18.1	30.4	44.0	57.0	31.0	29.6	20.0	23.6	21.1	26.6	16.4	25.3	20.8
안받았다	81.3	66.9	80.5	81.9	69.6	56.0	43.0	69.0	70.4	80.0	76.4	78.9	73.4	83.6	74.7	7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283	47,298	133,066	116,450	6,612	36,192	416	24,386	17,238	4,839	5,943	3,179	1,532	5,014	4,975	1,109,423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득(임금)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6.7%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2%)’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7%)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적극

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다.

〈표 5-10-4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6.9	97.3	97.7	95.5	92.0	95.9	100.0	95.6	95.4	94.5	100.0	97.2	93.6	100.0	95.9	96.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3.1	2.7	2.3	4.5	8.0	4.1	0.0	4.4	3.8	0.0	0.0	1.3	6.4	0.0	4.1	3.2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0.0	0.0	0.0	0.0	0.7	5.5	0.0	1.5	0.0	0.0	0.0	0.0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1,493	15,633	25,964	21,110	2,009	15,934	237	7,555	5,107	968	1,401	670	406	820	1,259	230,566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6.9%,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3.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5.1%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정신장애인 34.7%로 가장 많았다.

〈표 5-10-4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9.2	16.3	12.5	23.0	31.9	30.9	8.4	34.7	14.4	5.2	5.1	5.5	25.5	4.9	27.9	13.1
안받았다	90.8	83.7	87.5	77.0	68.1	69.1	91.6	65.3	85.6	94.8	94.9	94.5	74.5	95.1	72.1	8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83,068	32,330	83,711	73,018	4,860	30,632	416	21,317	12,052	3,222	3,714	2,227	1,261	2,730	4,222	758,780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2.7%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7.2%),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1%)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2.7%)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7.3%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조치를 한다’는 적극적인 조

치를 사용한 경우가 11.7%로 가장 많았다.

〈표 5-10-4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1.4	91.7	98.3	92.5	93.1	94.9	100.0	8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1.3	92.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8.6	8.3	1.7	7.5	4.4	5.1	0.0	11.7	0.0	0.0	0.0	0.0	0.0	0.0	6.1	7.2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2.6	0.1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4,255	5,261	10,424	16,803	1,547	9,479	35	7,398	1,735	166	191	122	321	134	1,178	99,049

장애인이 직장생활시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0.9%,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9.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 경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4.4%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언어장애 23.5%로 가장 많았다.

〈표 5-10-45〉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8.0	9.7	8.3	10.3	23.5	17.4	8.2	14.2	11.7	5.6	7.8	10.4	13.8	6.1	14.8	9.1
안받았다	92.0	90.3	91.7	89.7	76.5	82.6	91.8	85.8	88.3	94.4	92.2	89.6	86.2	93.9	85.2	9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8,398	27,314	75,242	67,784	4,593	28,428	416	18,702	11,330	2,916	3,198	1,876	1,208	2,653	3,873	687,931

직장생활에서 승진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6.7%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2%),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1%)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7%)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3%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9.8%)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0-4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7.1	100.0	100.0	93.5	96.3	90.2	100.0	100.0	100.0	100.0	100.0	94.9	100.0	100.0	91.2	96.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2.9	0.0	0.0	6.5	3.7	9.8	0.0	0.0	0.0	0.0	0.0	0.0	0.0	0.0	0.0	3.2
진장·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1	0.0	0.0	5.6	0.1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155	2,654	6,218	7,001	1,080	4,957	34	2,664	1,331	162	248	196	167	163	571	62,601

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8.2%,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1.8%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간질장애 46.2%, 정신장애 38.6%로 가장 많았다.

〈표 5-10-4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7.4	14.3	37.9	15.0	2.1	19.7	0.0	38.6	0.2	4.2	0.0	0.0	1.5	0.0	46.2	11.8
안받았다	92.6	85.7	62.1	85.0	97.9	80.3	100.0	61.4	99.8	95.8	100.0	100.0	98.5	100.0	53.8	8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7,057	11,258	29,924	22,382	2,028	4,066	90	4,352	5,366	1,539	1,322	366	839	727	1,463	302,779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0.9%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9.1%)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0.9%)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9.1%의 장애인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다.

〈표 5-10-4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1.3	64.0	100.0	63.7	100.0	100.0	-	100.0	100.0	100.0	-	-	100.0	-	93.8	90.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8.7	36.0	0.0	36.3	0.0	0.0	-	0.0	0.0	0.0	-	-	0.0	-	6.2	9.1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6,038	1,613	11,341	3,354	43	802	-	1,678	10	65	-	-	13	-	677	35,634

장애인이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4.4%,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55.6%로, 여러 영역의 차별 정도 중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언어장애의 경우가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각각 57.5%와 54.9%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신장장애(90.6%), 간장애(87.9%), 심장장애(86.6%) 등 내부장애인들이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받은 경우가 많았다.

〈표 5-10-49〉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51.7	77.4	42.5	46.7	45.1	73.8	72.9	62.9	90.6	86.6	73.9	87.9	36.5	69.2	71.5	55.6
안받았다	48.3	22.6	57.5	53.3	54.9	26.2	27.1	37.1	9.4	13.4	26.1	12.1	63.5	30.8	28.5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52,588	55,688	74,943	59,051	4,761	44,877	5,584	13,296	18,670	5,902	4,571	3,171	1,189	2,950	4,153	751,394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4.9%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4.3%),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8%), ‘기타’(0.1%)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4.9%)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5.1%의 장애인이 사용하여 여러 영역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중 적극적 대처방법의 사용 정도가 비교적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13.4%로 가장 많았다.

〈표 5-10-5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4.1	93.9	95.7	96.0	91.3	97.6	91.9	100.0	97.3	93.2	92.9	96.4	86.6	95.7	96.3	94.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9	4.8	3.0	4.0	8.7	1.5	8.1	0.0	2.7	6.8	7.1	3.6	13.4	4.3	2.7	4.3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9	1.3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8
기타	0.0	0.0	0.0	0.0	0.0	0.9	0.0	0.0	0.0	0.0	0.0	0.0	0.0	0.0	1.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3,831	43,083	31,871	27,588	2,147	33,132	4,071	8,364	16,917	5,112	3,376	2,788	434	2,040	2,972	417,726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6.7%,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3%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98.7%가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폐성장애가 12.4%로 가장 많았다.

〈표 5-10-51〉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4	2.7	2.8	4.9	3.8	6.1	12.4	7.1	5.4	3.1	2.5	4.0	4.8	1.3	6.4	3.3
안받았다	97.6	97.3	97.2	95.1	96.2	93.9	87.6	92.9	94.6	96.9	97.5	96.0	95.2	98.7	93.6	9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9,272	215,799	219,987	205,212	14,918	138,263	12,145	84,586	48,077	14,458	14,341	6,482	2,185	11,355	8,842	2,125,922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1.8%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8.1%),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0.1%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1.8%)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8.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

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다.

〈표 5-10-5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 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8.2	92.1	88.8	95.9	87.9	78.1	79.9	85.4	90.5	79.4	80.0	90.7	92.4	85.6	67.6	91.8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8	7.9	11.2	4.1	12.1	21.9	17.0	14.6	9.5	20.6	20.0	0.0	7.6	14.4	32.4	8.1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0	0.0	0.0	0.0	0.0	0.0	3.0	0.0	0.0	0.0	0.0	9.3	0.0	0.0	0.0	0.1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304	5,847	6,203	9,955	562	8,383	1,509	5,964	2,575	446	355	257	105	146	565	70,176

장애인이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9.6%,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0.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와 안면장애인의 100.0%가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청각장애가 1.8%로 가장 많았다.

〈표 5-10-53〉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0.2	0.2	0.7	1.8	0.3	0.9	0.7	0.1	0.4	0.3	0.9	0.0	0.0	0.4	0.6	0.4
안받았다	99.8	99.8	99.3	98.2	99.7	99.1	99.3	99.9	99.6	99.7	99.1	100.0	100.0	99.6	99.4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28,161	196,993	195,503	184,343	13,573	109,842	10,881	66,742	46,664	13,958	13,703	6,192	2,138	9,948	7,954	1,906,595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7.2%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2.8%)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7.2%)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2.8%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고 100% 응답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하였다.

〈표 5-10-5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100.0	100.0	57.0	100.0	100.0	59.7	100.0	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87.2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0.0	0.0	43.0	0.0	0.0	40.3	0.0	100.0	0.0	0.0	0.0	-	-	0.0	0.0	12.8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05	378	1,435	3,259	43	1,031	81	53	208	45	121	-	-	37	49	8,445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9.4%,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0.6%로 2005년도의 5.4%에 비해 차별받은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94.4%)와 신장장애(93.9%)가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안면장애가 49.8%로 가장 많았다.

〈표 5-10-55〉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6.8	26.3	16.2	20.9	28.8	42.8	53.9	39.9	6.1	8.9	9.2	5.6	49.8	8.6	28.2	20.6
안받았다	83.2	73.7	83.8	79.1	71.2	57.2	46.1	60.1	93.9	91.1	90.8	94.4	50.2	91.4	71.8	7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7,107	211,249	218,011	206,667	14,817	137,851	12,139	83,123	48,008	14,488	14,104	6,420	2,168	11,222	8,836	2,116,210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6.9%가 ‘무시 또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6%)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9%)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0%의 장애인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8.3%)와 자폐성장애(8.0%)의 경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적

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0-5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 또는 참는다	98.7	97.1	91.7	96.3	99.6	96.1	91.3	95.8	90.5	93.8	96.4	100.0	99.1	100.0	92.2	96.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0.5	2.0	8.3	2.8	0.4	3.3	8.0	4.2	9.5	6.2	3.6	0.0	0.9	0.0	6.5	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8	0.9	0.0	0.8	0.0	0.7	0.7	0.0	0.0	0.0	0.0	0.0	0.0	0.0	1.3	0.6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9,099	55,645	35,381	43,208	4,269	59,042	6,538	33,200	2,909	1,284	1,293	358	1,079	965	2,490	436,760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35.0%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53.3%의 장애인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통’은 11.6%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본인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인의 74.2%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 장루·요루장애의 71.9%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았다.

〈표 5-10-57〉 장애란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항상 느낀다	6.5	7.1	4.2	7.6	9.9	22.0	21.3	13.0	3.4	2.7	2.6	4.3	23.2	3.2	17.5	7.7
가끔 느낀다	24.7	31.4	21.3	30.0	37.6	38.0	52.9	42.0	25.5	19.8	19.1	19.8	43.7	13.2	41.2	27.3
보통이다	10.0	15.9	11.9	12.9	15.0	13.3	7.9	15.9	10.4	12.3	13.1	10.3	4.9	11.7	11.6	11.6
별로 느끼지 않는다	34.2	32.8	33.4	27.7	26.5	19.1	13.7	21.3	36.0	36.1	39.5	36.3	23.7	37.3	21.6	31.7
전혀 느끼지 않는다	24.6	12.8	29.2	21.8	11.0	7.5	4.3	7.8	24.7	29.2	25.7	29.3	4.6	34.6	8.0	2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4%, ‘보통이다’가 14.8%,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9.7%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더 많았다. 이는 앞의 장애인 본인

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낮았던 것과 비교할 때, 사회조직에 의한 장애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다’가 41.1%, ‘약간 많다’가 38.6%, ‘보통’ 14.8%, ‘별로 없다’가 5.3%, ‘전혀 없다’는 0.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장애와 장루·요루장애는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각 7%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표 5-10-58〉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전혀 없다	0.1	0.5	0.0	0.3	0.3	0.0	0.2	0.0	0.7	0.0	0.4	0.0	0.0	0.0	0.4	0.1
별로 없다	5.6	5.8	5.3	5.7	5.3	2.9	0.1	3.7	7.0	6.2	6.5	4.5	1.9	7.9	2.9	5.3
보통이다	14.4	17.1	17.6	16.3	12.0	9.8	8.1	12.7	14.8	15.7	13.4	15.6	3.8	16.9	7.9	14.8
약간 많다	38.1	39.4	39.0	42.3	36.4	35.4	33.3	39.1	38.0	39.5	44.5	37.8	33.5	42.3	38.9	38.6
매우 많다	41.8	37.2	38.0	35.5	46.0	51.9	58.2	44.5	39.5	38.6	35.2	42.1	60.9	32.9	50.0	4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제11절 주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52.1%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가장 많았고, 아파트(36.0%), 다세대주택(4.7%), 연립주택(4.2%)의 순으로 많았다. 그외 비거주용 건물이 2.0%, 비닐하우스·옴막·판자집·임시막사·기타가 1.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호흡기장애(55.9%), 정신장애(55.4%), 지체장애(54.2%)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거주용건물의 경우는 신장장애(7.5%)가,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시각장애(1.9%)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1〉 주택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단독주택	54.2	44.2	54.0	53.2	49.0	48.7	25.6	55.4	39.2	46.9	55.9	39.6	49.4	53.5	48.8	52.1
아파트	34.3	42.4	35.4	34.3	34.8	39.6	63.0	33.6	43.1	42.1	31.9	47.8	34.6	34.1	35.4	36.0
연립주택	4.3	4.5	3.7	3.3	5.1	4.5	4.1	2.7	6.8	3.4	4.5	3.1	5.0	4.1	5.7	4.2
다세대주택	3.9	6.3	4.2	6.8	6.4	5.0	5.4	4.8	7.5	3.7	5.0	7.3	5.2	6.3	6.0	4.7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점 포, 여관 등)	2.3	2.0	0.7	1.6	3.3	1.6	1.9	2.0	3.3	3.0	1.8	1.5	5.0	1.2	3.1	2.0
비닐하우스, 움 막, 판자집, 임 시막사, 기타	1.0	0.5	1.9	0.9	1.4	0.5	0.1	1.5	0.2	0.9	1.0	0.7	0.7	1.0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8	211,480	218,673	204,536	15,044	124,836	11,827	68,239	48,284	14,576	14,351	6,505	2,165	11,356	8,681	208,139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지상인 경우가 9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지하층(2.5%), 지하층(0.7%), 옥탑(0.2%)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상에 주거하고 있는 경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가 97%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지하층과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간질장애가 각각 2.5%, 5.4%로 가장 많았다.

〈표 5-11-2〉 주거 위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하층	0.7	1.4	0.4	0.4	0.7	0.8	0.3	0.9	1.3	0.9	0.6	1.3	1.0	1.8	2.5	0.7
지상	96.1	96.2	97.5	97.7	97.6	97.4	96.2	95.5	95.4	97.2	96.2	95.4	94.9	95.5	92.1	96.5
반지하층	2.9	2.0	1.8	1.8	1.4	1.6	3.5	3.3	3.3	1.9	2.9	3.2	4.1	2.6	5.4	2.5
옥탑	0.3	0.3	0.3	0.1	0.3	0.1	0.0	0.2	0.0	0.0	0.3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0	218,673	204,536	15,044	124,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65.3%가 자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13.6%), 전세(12.8%), 무상(5.3%), 보증금없는 월세(2.2%), 사글세(0.8%)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자가의 경우 장루·요루장애가 72.8%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간질장애(25.7%)가, 전세의 경우는 자폐성장애(21.9%)가 가장 많았다. 이외 무상의 경우

는 정신장애가 10.3%로 가장 많았다.

〈표 5-11-3〉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가	66.8	64.9	62.9	70.6	63.6	61.0	59.8	50.6	62.1	58.0	62.9	63.6	53.1	72.8	43.8	65.3
전세	12.4	12.8	15.4	12.0	11.5	13.9	21.9	11.3	10.6	13.4	11.4	14.0	16.6	7.7	14.5	12.8
보증금있는 월세	13.2	13.0	13.4	10.3	13.6	14.1	12.0	24.7	17.8	18.5	14.2	15.8	19.2	11.7	25.7	13.6
보증금없는 월세	1.9	2.9	3.0	0.9	3.6	3.8	1.3	2.7	0.6	3.8	2.2	1.3	3.1	1.3	5.7	2.2
사글세	0.9	1.2	0.5	0.5	0.8	1.1	0.8	0.4	1.3	0.4	1.0	1.2	0.7	0.4	2.1	0.8
무상	4.9	5.1	4.8	5.8	6.9	6.1	4.2	10.3	7.7	5.9	8.4	4.1	7.3	6.0	8.3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8	211,480	218,674	204,537	15,044	124,836	11,827	68,239	48,284	14,576	14,349	6,505	2,163	11,356	8,682	2,081,390

현재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76.8%가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85.2%)가 가장 많았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질장애(34.6%)가 가장 많았다.

〈표 5-11-4〉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75.7	78.4	77.6	80.2	74.2	76.4	85.2	74.4	79.2	78.2	77.5	82.7	76.1	79.7	65.4	76.8
아니오	24.3	21.6	22.4	19.8	25.8	23.6	14.8	25.6	20.8	21.8	22.5	17.3	23.9	20.3	34.6	2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1	218,674	204,537	15,043	124,835	11,827	68,239	48,285	14,576	14,350	6,504	2,164	11,356	8,680	2,081,39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81.4%가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85.0%)가 가장 많았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질장애(30.1%)가 가장 많았다.

〈표 5-11-5〉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0.8	80.4	85.1	83.3	77.6	78.8	83.0	80.3	84.0	82.0	81.2	85.0	84.0	83.0	69.9	81.4
아니오	19.2	19.6	14.9	16.7	22.4	21.2	17.0	19.7	16.0	18.0	18.8	15.0	16.0	17.0	30.1	1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0	218,674	204,536	15,044	124,836	11,828	68,239	48,284	14,576	14,349	6,504	2,164	11,356	8,680	2,081,38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14.2%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21.8%)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경우는 지적장애(87.9%)와 시각장애(87.7%) 및 장루·요루장애(87.7%)가 가장 많았다.

〈표 5-11-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15.0	13.5	12.3	12.4	14.8	12.1	16.1	18.5	13.6	16.5	13.5	15.7	19.5	12.3	21.8	14.2
아니오	85.0	86.5	87.7	87.6	85.2	87.9	83.9	81.5	86.4	83.5	86.5	84.3	80.5	87.7	78.2	8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0	218,674	204,536	15,044	124,836	11,828	68,239	48,284	14,577	14,349	6,504	2,164	11,356	8,680	2,081,39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1%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98.3%)가 가장 많았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3.9%로 장애유형 중 심장장애(5.1%)가 가장 많았다.

〈표 5-11-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5.6	97.1	96.2	97.1	96.8	97.1	98.3	96.3	96.8	94.9	97.3	96.8	95.5	96.7	95.1	96.1
아니오	4.4	2.9	3.8	2.9	3.2	2.9	1.7	3.7	3.2	5.1	2.7	3.2	4.5	3.3	4.9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0	218,674	204,537	15,044	124,836	11,827	68,240	48,284	14,576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90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 사업의 이용경험 및 이용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중복응답하도록 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이용률은 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국민)임대주택 2.2%, 전세자금(융자)지원 0.8%,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0.7%, 저소득층 월세지원 및 기타가 0.2%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간질장애(11.5%),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언어장애(3.3%), 전세자금지원의 경우는 안면장애(2.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경우는 시각장애(0.5%),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경우는 시각장애와 간장애(0.5%),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간질장애(1.0%)가 가장 많았다.

〈표 5-11-8〉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영구임대주택	4.5	5.4	6.2	5.1	5.8	7.0	2.2	13.4	6.6	6.0	6.4	6.5	6.9	4.7	11.5	5.3
공공(국민)임대주택	2.3	2.3	2.7	1.6	3.3	1.2	2.4	1.9	2.2	2.8	1.7	2.7	1.1	1.1	1.9	2.2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0.9	0.4	0.6	0.7	1.4	1.5	2.1	0.8	0.9	0.6	0.3	0.9	2.4	0.0	1.0	0.8
저소득층 월세지원	0.2	0.3	0.5	0.0	0.1	0.1	0.4	0.1	0.1	0.0	0.0	0.3	0.0	0.0	0.3	0.2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1.0	0.4	0.5	0.4	0.3	0.1	0.4	0.0	0.1	1.0	0.3	0.5	0.0	0.0	0.0	0.7
기타	0.3	0.0	0.5	0.0	0.0	0.2	0.0	0.0	0.4	0.0	0.4	0.4	0.0	0.2	1.0	0.2

주거복지관련 사업을 이용한 장애인의 경우 이용만족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만족한다는 응답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언어장애가 82.3%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정신장애(100.0%)가, 전세자금지원의 경우는 뇌병변장애·호흡기장애(100.0%)가,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경우는 시각장애·간장애(100.0%)가,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은 시각장애·신장장애·호흡기장애(100.0%)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지체장애·시각장애·신장장애·간장애·장루·요루장애(100.0%)가 가장 높았다.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자폐성장애(47.5%)가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지체장애(51.0%)가, 전세자금지원의 경우는 안면장애(80.8%)가,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경우는 뇌병변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100.0%)가,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경우는 간장애(100.0%)가 가장 높았다.

〈표 5-11-9〉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단위: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28.6	45.0	20.0	3.0	3.4	25.2	39.3	28.0	7.5	0.0
공공(국민)임대주택	1.0	28.7	19.3	48.6	2.4	27.8	18.6	22.0	29.7	2.0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19.2	8.1	18.0	0.0	54.7	43.8	56.2	0.0	0.0	0.0
저소득층 월세지원	62.4	0.0	0.0	0.0	37.6	0.0	0.0	0.0	39.8	60.2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55.1	25.7	10.1	9.1	-	81.4	0.0	18.6	0.0	-
기타	0.0	100.0	0.0	-	-	-	-	-	-	-

〈표 5-11-9〉 계속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21.3	49.5	24.1	3.3	1.8	34.2	29.7	29.0	7.0	0.0
공공(국민)임대주택	4.7	71.7	23.6	0.0	0.0	13.9	26.6	28.9	30.6	0.0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5.1	85.5	9.4	0.0	0.0	46.3	29.9	0.0	0.0	23.8
저소득층 월세지원	0.0	100.0	0.0	0.0	0.0	-	-	-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100.0	0.0	0.0	0.0	-	74.2	0.0	7.6	18.3	-
기타	0.0	100.0	0.0	-	-	-	-	-	-	-

〈표 5-11-9〉 계속

구분	언어장애					지적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38.7	43.6	17.7	0.0	0.0	22.7	39.1	30.5	7.7	0.0
공공(국민)임대주택	23.3	38.2	22.5	15.9	0.0	11.7	54.5	22.4	11.4	0.0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21.3	23.7	55.0	0.0	0.0	20.3	29.0	25.1	0.0	25.6
저소득층 월세지원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100.0	0.0	0.0	0.0	-	0.0	0.0	100.0	0.0	-
기타	-	-	-	-	-	0.0	0.0	100.0	-	-

〈표 5-11-9〉 계속

[illegible]

〈표 5-11-9〉 계속

구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29.1	35.1	29.4	2.7	3.8	47.9	31.7	10.8	6.3	3.2
공공(국민)임대주택	18.7	56.3	25.0	0.0	0.0	20.8	39.1	0.0	28.5	11.6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5.4	13.4	11.4	64.0	5.8	68.9	0.0	31.1	0.0	0.0
저소득층 월세지원	71.7	0.0	0.0	28.3	0.0	-	-	-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100.0	0.0	0.0	0.0	-	35.6	0.0	33.6	30.9	-
기타	100.0	0.0	0.0	-	-	-	-	-	-	-

〈표 5-11-9〉 계속

구분	호흡기장애					간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43.5	26.8	15.5	0.0	14.3	33.3	36.4	6.1	19.6	4.5
공공(국민)임대주택	47.7	7.1	15.9	29.3	0.0	35.8	35.3	12.7	16.2	0.0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100.0	0.0	0.0	0.0	0.0	51.7	0.0	0.0	48.3	0.0
저소득층 월세지원	-	-	-	-	-	100.0	0.0	0.0	0.0	0.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100.0	0.0	0.0	0.0	-	0.0	0.0	0.0	100.0	-
기타	0.0	0.0	100.0	-	-	0.0	100.0	0.0	-	-

〈표 5-11-9〉 계속

구분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23.3	12.0	19.3	28.0	17.3	54.2	24.0	16.4	5.4	0.0
공공(국민)임대주택	0.0	100.0	0.0	0.0	0.0	43.8	34.6	21.5	0.0	0.0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19.2	0.0	0.0	40.4	40.4	-	-	-	-	-
저소득층 월세지원	-	-	-	-	-	-	-	-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	-	-	-	-	-	-	-	-	-
기타	-	-	-	-	-	0.0	100.0	0.0	-	-

〈표 5-11-9〉 계속

구분	간질장애					전체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영구임대주택	18.3	49.8	19.1	7.5	5.3	27.9	41.2	22.8	5.2	2.9
공공(국민)임대주택	29.1	28.5	0.0	23.6	18.8	7.1	36.6	20.4	34.3	1.7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66.7	0.0	0.0	0.0	33.3	21.8	20.5	17.8	3.1	36.9
저소득층 월세지원	59.3	0.0	40.7	0.0	0.0	36.3	22.1	2.0	10.3	29.3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	-	-	-	-	60.5	19.7	11.1	8.6	-
기타	0.0	83.5	16.5	-	-	4.2	88.2	7.6	-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는 편리한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3.7%가 ‘편리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9.0%였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7.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편리하다는 경우는 장루·요루장애가 67.0%로 가장 높았고, 불만족하다는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8.7%로 가장 높았다.

〈표 5-11-10〉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편리하다	18.0	17.2	18.7	23.4	24.7	23.9	29.9	16.5	25.6	21.8	21.6	31.6	18.6	29.3	15.8	19.3
약간 편리하다	34.7	27.2	36.9	36.0	37.9	34.8	32.3	36.1	35.5	34.1	38.9	32.7	37.8	37.7	32.9	34.4
보통이다	27.0	26.8	30.4	25.4	26.1	29.0	23.2	33.8	23.2	29.0	22.2	25.7	27.0	21.1	30.9	27.4
약간 불편하다	14.9	20.8	10.7	12.3	9.7	10.3	9.8	10.8	13.1	12.8	13.7	7.7	11.3	8.9	15.9	14.2
매우 불편하다	5.4	7.9	3.4	3.0	1.6	1.9	4.7	2.8	2.6	2.3	3.5	2.3	5.3	3.0	4.5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8	211,480	218,673	204,536	15,045	124,836	11,827	68,240	48,284	14,576	14,351	6,505	2,164	11,356	8,680	2,081,39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고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11.9%만이 고칠 의향이 있었고, 85.7%는 개조를 원치 않았으며, 이미 개조한 경우는 2.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집 구조의 개조를 원하는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6.0%로 가장 높았고, 개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간장애와 정신장애가 97%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표 5-11-11〉 주택 개조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반드시 개조 원함	4.1	5.7	1.6	0.4	0.0	1.6	0.6	0.2	0.4	0.7	1.9	0.4	0.0	0.9	2.0	3.1
가급적 개조 원함	9.6	20.3	5.9	3.0	2.1	4.4	6.2	2.0	7.6	6.3	8.5	1.4	3.3	6.6	4.5	8.8
별로 개조원치않음	42.6	40.5	45.7	41.3	44.6	43.0	36.1	42.9	40.4	47.6	40.4	33.9	37.9	39.2	48.7	42.5
전혀 개조원치않음	41.0	31.2	44.3	54.1	51.6	49.6	56.6	54.1	51.4	45.3	47.5	63.4	58.0	50.7	44.3	43.2
이미개조하였음	2.7	2.4	2.5	1.2	1.7	1.4	0.4	0.9	0.3	0.1	1.7	0.9	0.8	2.5	0.5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1	218,675	204,537	15,044	124,836	11,828	68,240	48,285	14,576	14,350	6,505	2,164	11,356	8,680	2,081,396

집안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치고 싶다면 어떤 곳을 우선 고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문턱 낮추기를 전체 장애인의 29.3%가 희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5.0%, 현관(계단)이 12.6%, 부엌 9.5%, 변기 8.8%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문

턱낮추기의 경우 지적장애(31.5%)가, 현관(계단)의 경우는 호흡기장애(34.2%)가, 부엌의 경우는 심장장애(14.6%)가 가장 높았다.

〈표 5-11-12〉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투장애	간질 장애	전체
부엌	13.7	2.9	4.8	0.0	0.0	0.0	0.0	9.6	0.8	14.6	5.3	0.0	0.0	4.6	1.4	9.5
변기	7.8	7.8	13.7	0.0	9.0	26.2	15.4	43.4	1.0	16.7	12.3	21.7	0.0	25.4	11.7	8.8
욕조	6.3	11.9	7.3	9.1	25.2	17.4	16.6	0.0	16.0	11.7	2.8	54.2	31.0	21.1	16.9	8.3
문턱 낮추기	31.0	30.2	30.8	7.7	5.9	31.5	8.9	0.0	13.0	13.4	3.5	0.0	0.0	13.6	12.8	29.3
방문 고치기	3.7	2.1	0.6	0.0	0.0	0.0	5.7	0.0	0.0	0.0	0.0	0.0	0.0	0.0	7.5	2.8
냉·난방	4.5	4.0	10.6	3.6	11.5	0.0	14.3	30.1	24.2	4.7	4.1	0.0	39.4	1.5	13.0	5.1
채광	0.0	1.7	1.5	7.7	11.5	0.0	2.1	0.0	5.1	0.0	4.6	0.0	0.0	4.9	17.9	0.9
아파트출입구(계단)	5.7	6.6	1.9	0.0	0.0	8.8	0.0	16.9	13.9	10.2	1.7	0.0	0.0	0.0	0.0	5.7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0.2	0.0	0.0	6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
현관(계단)	12.1	16.9	7.9	6.2	0.0	4.4	3.2	0.0	19.0	21.0	34.2	8.3	0.0	5.6	5.0	12.6
기타	14.9	15.8	20.9	0.0	36.8	11.8	33.9	0.0	7.1	7.7	31.6	15.8	29.6	23.2	13.9	1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3,834	54,866	16,416	6,870	321	7,512	812	1,446	3,841	1,019	1,502	120	71	861	563	250,054

앞으로 어떤 주거유형에서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7%가 일반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활시설 1.6%, 공동생활가정 1.0%, 기타 0.7%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일반주택의 경우 간장애(99.1%)가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는 자폐성장애(7.5%)가, 생활시설은 정신장애(6.6%)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기타’의 주거형태로는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가 모두 1.6%로 가장 많았다.

〈표 5-11-13〉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투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주택	98.0	94.6	98.3	97.4	97.1	88.0	90.6	89.3	98.2	96.8	94.2	99.1	98.6	97.4	95.8	96.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0.5	1.4	0.2	0.5	1.1	5.9	7.5	2.5	0.6	0.6	1.1	0.0	0.8	0.7	1.0	1.0
생활시설	0.9	2.4	1.1	0.8	1.6	5.8	1.9	6.6	1.1	1.0	3.3	0.9	0.0	1.3	2.7	1.6
기타	0.6	1.6	0.4	1.3	0.2	0.3	0.0	1.6	0.1	1.6	1.4	0.0	0.6	0.6	0.4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839	211,480	218,674	204,536	15,044	124,835	11,828	68,238	48,285	14,576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8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가족과 살고 싶다’는 경우가 전체 장애인의 87.6%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가 11.5%,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가 0.9%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족과 살고 싶다’는 경우 자폐성장아가 99.1%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살고 싶다’와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는 모두 안면장애가 각각 17.6%, 1.8%가 가장 많았다.

〈표 5-11-14〉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살고 싶다	11.7	10.0	15.8	12.8	11.3	2.4	0.7	14.0	9.6	10.7	12.2	5.8	17.6	9.8	12.9	11.5
가족과 살고 싶다	87.3	89.4	83.2	86.5	87.2	97.0	99.1	85.5	89.2	87.9	87.1	94.2	80.6	90.2	85.7	87.6
마음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1.0	0.7	0.9	0.7	1.5	0.7	0.2	0.5	1.2	1.4	0.7	0.0	1.8	0.0	1.4	0.9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98,821	200,012	214,940	199,314	14,608	109,847	10,722	60,949	47,403	14,112	13,519	6,446	2,134	11,058	8,318	2,012,203

제12절 복지서비스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받고 있다’와 ‘약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6.9%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0%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서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장루·요루장애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이 받고 있다	2.5	2.5	1.3	2.3	4.9	6.4	3.4	10.2	9.0	4.0	3.4	4.4	4.3	2.7	4.6	3.1
약간 받고 있다	32.3	37.2	32.9	30.6	31.1	39.5	41.4	37.3	45.1	41.8	42.8	36.8	42.2	27.1	35.9	33.8
보통이다	8.2	10.3	8.3	8.7	10.0	13.2	13.2	10.1	9.6	10.4	11.3	15.8	7.5	8.6	10.0	9.0
별로 받지 못하 고 있다	51.1	44.2	47.8	52.4	49.1	35.8	38.0	40.4	33.3	39.7	38.8	41.2	43.0	52.3	43.5	48.0
전혀 받지 못하 고 있다	6.0	5.8	9.8	6.1	4.9	5.1	4.0	2.0	3.0	4.1	3.7	1.8	3.0	9.2	6.0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총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2.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수혜자가 가장 많은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67.9%로서 타 소득보장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26.1%), 장애아동수당 지급(25.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에 대한 인지도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39.7%),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39.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82.8%의 장애인이 동 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LPG 세금인상분 지원의 경우에도 각각 81.2%, 69.9%의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73.3%의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PG 연료 사용 허용 등의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

는 보편적 수급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사업의 수혜 대상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제도 내적 요소와 아울러 자동차의 보편화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인지도가 92.7%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도 90.2%로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인지율은 67.4%, 세금공제 및 면제의 인지율은 48.4%로서 역시 높은 인지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의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점과 함께 정보화 추세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점차 활성화 되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사업은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및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상대적으로 타 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1.8%,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20.3%,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05년 조사에 비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도는 모든 사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표 5-12-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66.0	67.1	65.5	61.5	71.9	83.5	72.1	87.6	70.9	66.4	69.8	70.3	75.5	62.5	80.7	67.9
장애아동수당지급	23.8	23.7	24.2	19.7	28.7	48.8	54.6	27.4	25.5	25.5	24.0	34.0	33.6	24.7	26.2	25.6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5.5	23.9	22.5	20.8	25.2	43.8	48.0	26.7	32.3	24.2	23.2	32.7	28.0	24.1	27.7	26.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5.6	15.0	13.6	8.9	11.2	18.0	22.9	18.6	18.5	16.2	13.9	24.0	23.3	11.8	11.2	15.0
장애인의료비지원	37.2	40.2	37.8	35.0	37.8	47.5	43.9	54.4	57.1	35.1	43.7	50.5	37.7	33.5	49.4	39.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5.6	21.0	17.6	15.5	20.2	32.9	28.2	39.8	24.2	21.2	22.4	22.3	22.9	19.2	32.3	18.9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	39.5	45.1	38.7	36.6	34.9	37.0	54.0	36.0	49.0	40.6	40.5	43.8	42.7	36.6	30.9	39.7
장애인보조기구 건강 보험(의료급여)실시	38.8	51.6	39.8	55.1	38.0	32.2	43.4	31.3	47.8	39.0	48.2	40.1	46.6	61.4	29.5	41.4

〈표 5-12-2〉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4.8	85.3	82.8	75.9	81.1	76.0	95.8	70.7	90.3	89.0	86.5	95.3	89.5	81.6	75.5	82.8
LPG 연료 사용 허용	84.0	84.4	78.2	71.6	78.3	74.0	94.9	68.8	90.0	87.6	87.5	93.4	90.3	81.8	74.6	81.2
LPG 세급인상분 지원	73.0	72.0	66.1	61.1	64.9	66.1	82.9	53.4	76.2	77.0	78.0	78.1	79.2	65.6	60.3	69.9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75.6	79.7	68.7	63.3	69.6	70.1	92.3	57.6	85.2	84.3	81.4	85.4	83.6	65.8	62.7	73.3
세금공제 및 면제	49.2	54.0	47.0	43.7	49.5	46.3	74.6	35.7	51.3	54.7	46.8	58.1	57.7	48.2	37.0	48.4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91.7	88.7	90.1	86.8	86.5	86.1	94.6	85.1	95.1	95.0	94.9	93.9	97.1	92.0	86.2	90.2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93.7	92.2	92.4	90.8	92.7	90.2	96.3	85.2	97.6	96.6	97.5	96.2	98.3	90.8	91.8	92.7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69.0	65.2	66.5	60.6	65.3	66.2	85.5	61.2	80.1	69.5	70.8	81.9	76.1	66.6	59.5	67.4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9.1	21.8	20.0	16.0	19.7	28.0	36.4	26.0	25.7	18.8	21.1	21.8	29.3	16.4	23.8	20.3
장애인본인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15.5	15.7	15.2	12.7	21.3	57.3	90.0	18.8	13.9	16.0	15.2	15.1	21.4	13.7	18.0	18.5
활동보조서비스	24.1	37.6	33.1	20.7	25.8	38.9	57.2	24.7	27.8	23.6	23.8	31.5	33.5	26.8	22.7	2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0.1	25.3	26.0	16.3	19.2	27.0	35.9	24.9	27.6	18.0	18.7	28.3	25.5	19.1	20.9	21.8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인지도 순위와 마찬가지로 장애수당 수혜 경험 이 전체의 22.9%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2.2%), 장애아동수당 지급(1.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자립대금의 경우 전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용경험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제도의 수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1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사업(8.2%), 장애인 의료비 지원(7.9%),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3.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인지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경험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39.9%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LPG 세급인상분 지원의 경우에도 각각 28.6%, 21.6%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26.3%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경험률이 82.1%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경험률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과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이용경험률은 각각 70.3%, 35.3%로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타 사업 중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전체의 4.3%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의 경우 전체의 3.3%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9%와 0.9%의 수혜율을 나타냈다.

〈표 5-12-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18.8	21.6	20.5	17.0	22.7	41.7	8.1	67.3	29.8	16.4	27.2	20.7	21.5	12.2	49.5	22.9
장애아동수당지급	0.3	0.9	0.1	0.5	3.2	9.8	11.9	1.1	0.1	2.1	0.0	1.9	3.2	0.4	1.0	1.1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2	0.6	1.4	1.9	2.3	5.6	1.2	3.5	3.6	1.4	1.4	3.6	2.6	0.4	5.2	2.2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0.7	0.2	0.5	0.4	0.4	0.8	0.0	0.5	0.7	0.7	0.4	0.2	0.0	0.3	0.0	0.6
장애인의료비지원	7.1	7.1	5.9	5.4	6.8	15.0	7.4	14.9	16.1	5.1	10.7	13.3	10.7	3.1	16.1	7.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5.6	9.0	6.9	5.1	7.5	17.1	6.5	34.8	12.1	6.8	10.1	5.8	7.7	4.6	23.9	8.2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2.8	9.0	4.5	3.7	0.6	1.0	0.3	0.5	3.2	0.7	2.2	1.2	1.8	2.4	0.2	3.4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8.0	19.6	8.6	31.6	5.3	1.4	1.2	0.8	5.1	3.9	9.8	4.3	3.8	8.8	0.1	10.6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43.1	45.6	37.5	30.7	33.5	34.2	63.5	13.8	48.3	54.5	47.2	50.4	41.2	31.4	16.1	39.9
LPG 연료 사용 허용	29.7	32.9	28.2	26.0	24.5	24.9	45.6	10.3	36.1	37.1	30.8	25.4	30.4	22.1	12.3	28.6
LPG 세금인상분 지원	21.1	29.1	19.4	19.1	19.3	23.6	44.2	8.7	32.5	34.1	28.3	18.9	27.1	12.6	9.5	21.6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22.8	42.5	21.3	23.0	26.9	35.7	63.7	15.3	44.7	53.5	47.2	31.3	34.1	12.0	13.5	26.3
세금공제 및 면제	22.7	31.1	19.3	22.2	25.0	21.0	44.2	8.5	26.3	29.9	25.0	27.8	26.6	21.5	9.4	22.8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73.7	63.1	71.2	70.8	68.6	55.9	76.4	55.0	81.1	83.3	72.5	76.8	85.7	72.2	67.2	70.3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84.9	82.5	81.7	81.2	84.2	67.9	84.1	59.3	92.0	91.4	90.9	89.3	95.4	79.3	82.1	82.1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36.3	28.4	37.5	31.9	32.9	41.2	63.6	24.2	44.5	39.2	35.0	41.5	43.2	29.1	26.1	35.3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3.8	2.9	2.4	3.3	3.3	1.7	1.2	2.5	4.3	3.3	2.5	1.2	3.6	1.6	2.8	3.3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0.6	3.3	1.2	3.3	7.7	41.5	72.1	0.0	0.1	3.7	0.0	0.3	2.1	0.5	2.0	4.3
활동보조서비스	1.1	6.4	1.2	0.7	0.1	4.1	10.6	2.1	0.5	0.1	0.7	0.5	0.9	0.1	1.0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9	2.0	0.3	0.2	0.0	1.0	0.7	0.5	0.9	0.2	0.3	0.0	0.8	0.7	0.5	0.9

3.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지, 이용 경험, 만족도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용한 경험은 있는지,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웠는지,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복지기관 인지도와 관련하여, 전체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가장 장애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74.3%가 알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는 69.6%의 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5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서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련 실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이동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50.0%로 나타났으며, 정신의료기관과 직업재활시설이 각각 46.9%와 35.5%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동지원서비스센터는 다른 장애인복지기관에 비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면에서 역사가 오래된 타 기관들을 압도하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운동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보육시설(34.2%), 장애인재활병·의원(30.3%), 수화통역센터(24.4%), 장애인체육관(22.7%), 점자도서관(22.2%) 등의 기관이 비교적 장애인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보건센터(9.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10.8%) 등의 기관은 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2-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35.7	33.4	33.7	24.7	30.5	47.5	66.7	42.8	41.4	33.1	30.1	43.4	47.0	29.4	35.5	35.5
장애인복지관	76.2	70.8	69.0	68.3	73.2	83.1	94.1	70.5	74.9	72.2	71.3	72.9	82.4	72.9	80.3	74.3
장애인 재활병·의원	31.5	31.8	26.8	22.1	31.8	31.0	48.3	30.8	39.8	25.7	28.0	41.1	33.4	26.3	29.7	30.3
주간·단기보호시설	11.4	18.6	13.4	10.7	13.7	30.5	56.9	21.0	12.7	9.8	13.7	15.2	12.5	12.1	13.4	14.2
장애인체육관	23.5	20.2	18.9	19.6	21.7	27.4	41.3	23.6	24.3	21.7	24.9	22.5	25.4	19.4	24.3	22.7
장애인심부름센터	19.5	19.3	24.5	16.3	19.8	24.5	29.6	22.8	19.4	21.0	20.1	19.9	25.2	16.1	22.5	20.2
수화통역센터	23.3	18.2	27.4	28.8	33.0	30.7	37.5	22.3	23.4	20.4	26.1	34.9	30.0	23.2	27.9	24.4
정신의료기관	45.2	42.2	46.0	43.0	45.2	54.1	51.7	77.0	50.1	43.0	49.6	54.7	43.8	44.3	53.0	46.9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13.1	11.5	14.0	9.5	14.1	22.5	24.0	32.8	14.0	13.0	15.3	22.1	16.4	12.3	16.4	14.3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9.6	53.4	55.0	40.6	48.2	51.8	74.5	41.0	60.8	55.5	51.5	63.8	68.7	50.8	49.2	50.0

〈표 5-12-4〉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9.4	18.9	19.2	12.4	15.8	27.3	38.7	24.4	22.9	16.6	13.6	19.8	29.3	14.4	20.7	19.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6	16.2	16.0	12.0	14.9	29.0	45.4	19.6	18.0	14.5	13.9	20.6	23.5	13.5	15.7	17.1
점자도서관	22.0	17.5	28.7	17.8	22.0	26.2	45.3	22.3	21.7	22.3	18.3	30.3	28.2	18.3	20.7	22.2
정신보건센터	8.1	9.5	7.4	7.4	11.2	18.0	25.5	32.2	8.5	7.6	9.6	12.9	12.7	9.8	12.5	9.9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9.6	66.8	68.8	63.4	70.3	83.4	97.0	62.5	75.7	73.5	65.8	82.6	81.6	67.9	75.8	69.6
특수교육지원센터	16.9	13.8	15.2	12.6	18.5	27.3	45.0	18.5	16.5	14.7	15.2	20.5	21.6	14.1	16.5	16.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9.7	11.0	11.6	8.7	12.0	17.6	28.4	16.6	8.1	9.4	7.6	11.5	9.6	7.3	8.2	10.8
장애아동보육시설	34.9	27.6	30.4	29.1	36.4	47.9	74.1	32.2	40.8	31.3	31.6	40.8	42.6	34.3	40.4	34.2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률을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 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앞서의 인지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12.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특수학교(특수학급)와 이동지원서비스센터가 각각 4.4%, 3.5%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이용률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들 두 기관이 전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장애인복지기관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재활병원의 이용율이 각각 2.7%, 2.4%, 1.6%로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재활병원의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는 여러 모로 아쉬움을 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0.1%)과 점자도서관(0.2%) 등은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5-12-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1.7	1.2	1.4	0.5	1.6	10.7	4.2	9.6	1.2	0.3	0.2	0.5	1.6	0.0	1.6	2.4
장애인복지관	10.6	16.1	10.2	9.7	15.4	36.8	59.4	12.4	5.8	8.1	3.7	3.4	12.1	7.3	12.0	12.9
장애인 재활병·의원	1.6	3.6	0.2	0.8	1.3	2.8	5.8	1.3	0.8	0.1	0.7	0.7	0.0	0.4	1.3	1.6
주간·단기보호시설	0.0	1.6	0.2	0.2	0.0	4.7	8.2	1.2	0.0	0.0	0.3	0.0	0.0	0.0	0.3	0.6
장애인체육관	1.0	1.1	0.7	1.4	1.0	3.4	10.1	0.1	0.3	0.7	0.0	0.2	0.3	0.0	1.5	1.2
장애인심부름센터	0.4	0.4	2.5	0.0	0.0	0.6	0.4	0.6	0.1	0.5	0.3	0.0	0.0	0.0	0.5	0.6
수화통역센터	0.1	0.0	0.2	4.6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정신의료기관	0.1	0.5	0.3	0.1	0.9	5.5	2.7	52.8	0.6	0.3	0.1	0.4	1.3	0.0	2.8	2.7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0.1	0.0	0.0	0.0	0.0	0.7	0.0	5.5	0.0	0.0	0.0	0.4	0.0	0.0	0.3	0.3

〈표 5-12-5〉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4	8.4	4.3	0.7	0.8	1.7	5.8	1.6	3.1	1.5	2.2	1.1	1.0	0.4	0.6	3.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6	1.7	0.9	0.7	0.4	2.7	4.7	3.0	1.4	0.5	0.7	1.7	0.9	0.5	2.2	1.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	0.3	0.1	0.2	0.0	1.5	0.9	0.4	0.0	0.0	0.1	0.0	0.0	0.0	0.1	0.3
점자도서관	0.0	0.0	2.1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정신보건센터	0.1	0.0	0.0	0.0	0.0	1.5	0.4	7.8	0.0	0.0	0.0	0.0	0.0	0.0	0.8	0.5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6	3.0	1.6	3.9	5.9	41.8	69.6	1.1	0.1	0.7	0.0	0.0	2.0	0.0	1.3	4.4
특수교육지원센터	0.0	0.6	0.2	0.2	1.1	3.3	13.3	0.0	0.0	0.0	0.0	0.0	0.0	0.0	0.3	0.4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0	0.1	0.3	0.0	0.4	0.3	1.1	0.4	0.4	0.0	0.0	0.0	0.7	0.0	0.0	0.1
장애아동보육시설	0.0	0.7	0.0	0.8	0.8	9.8	25.6	0.0	0.0	0.0	0.0	0.0	0.0	0.0	0.0	1.0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인복지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장애인복지기관에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타 기관에 비해 이용 만족도가 높은 기관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2.0%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아동보육시설(70.5%), 장애인체육관(68.7%), 점자도서관(66.9%), 정신보건센터(66.4%) 등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기관을 살펴보면, 장애인 재활병의원이 38.9%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정신의료기관(39.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39.0%), 장애인자립생활센터(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6〉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단위: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직업재활시설	2.5	39.1	32.9	18.1	7.4	18.2	18.4	18.4	8.1	42.4	15.1	14.3	14.3	56.8	2.1	0.0	41.0	42.5	16.6	0.0
장애인복지관	33.7	35.7	23.0	4.6	3.0	27.4	31.1	23.5	7.4	10.5	17.6	46.9	19.0	8.5	8.1	25.2	28.3	33.9	5.9	6.7
장애인 재활병·의원	19.7	2.0	37.5	29.1	11.8	23.0	37.1	28.3	8.8	2.8	42.0	0.0	58.0	0.0	0.0	0.0	73.0	1.2	25.8	0.0
주간·단기보호시설	100.0	0.0	0.0	0.0	0.0	59.4	27.3	0.0	13.3	0.0	100.0	0.0	0.0	0.0	0.0	0.0	0.0	14.0	0.0	86.0
장애인체육관	72.9	11.3	15.8	0.0	0.0	13.7	30.0	27.8	9.3	19.2	16.5	7.5	58.2	17.7	0.0	2.5	41.0	40.9	15.5	0.0
장애인심부름센터	37.3	0.0	35.7	0.0	27.0	100.0	0.0	0.0	0.0	0.0	31.4	26.2	25.4	12.0	5.0	-	-	-	-	-
수화통역센터	0.0	28.1	71.9	0.0	0.0	-	-	-	-	-	100.0	0.0	0.0	0.0	0.0	46.9	18.1	26.8	4.1	4.1
정신의료기관	0.0	0.0	100.0	0.0	0.0	42.2	0.0	12.8	0.0	45.0	69.1	0.0	11.8	9.6	9.6	0.0	0.0	12.6	0.0	87.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0.0	100.0	0.0	0.0	0.0	-	-	-	-	-	-	-	-	-	-	-	-	-	-	-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1.3	18.3	5.9	10.3	24.3	28.1	21.0	13.1	14.1	23.7	29.0	42.4	21.3	3.9	3.3	60.6	3.9	0.0	35.5	0.0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2.2	44.0	36.9	0.0	6.9	72.4	17.0	10.6	0.0	0.0	23.7	8.1	30.1	24.0	14.1	5.4	9.4	55.3	29.8	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4.5	0.0	75.5	0.0	0.0	5.1	94.9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점자도서관	-	-	-	-	-	-	-	-	-	-	24.5	38.8	12.3	19.6	4.7	13.6	86.4	0.0	0.0	0.0
정신보건센터	47.1	0.0	0.0	0.0	52.9	-	-	-	-	-	-	-	-	-	-	-	-	-	-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10.8	11.7	66.1	11.4	0.0	13.0	10.4	51.7	19.9	5.0	18.2	38.4	25.0	0.0	18.5	33.4	23.4	28.6	6.5	8.0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6.0	94.0	0.0	0.0	0.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	-	-	-	-	0.0	0.0	100.0	0.0	-	14.2	55.2	30.6	0.0	-	-	-	-	-	-
장애아동보육시설	-	-	-	-	-	28.6	20.9	20.0	30.5	0.0	-	-	-	-	-	37.7	52.4	5.9	4.0	0.0

〈표 5-12-6〉 계속

구분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직업재활시설	15.3	30.2	37.2	17.4	0.0	40.9	23.2	24.2	3.0	8.7	5.2	15.1	36.3	0.0	43.4	24.5	12.8	35.1	20.0	7.6
장애인복지관	26.5	30.8	22.2	14.9	5.6	28.7	33.3	25.6	8.9	3.5	25.0	28.8	21.6	15.3	9.4	40.7	24.0	22.7	7.9	4.8
장애인 재활병·의원	7.7	25.8	66.5	0.0	0.0	22.6	31.8	37.2	8.5	0.0	11.2	31.2	44.2	13.4	0.0	30.9	17.9	23.7	27.5	0.0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35.1	26.0	23.1	7.1	8.7	26.7	29.3	8.4	20.4	15.3	0.0	0.0	34.0	60.6	5.4
장애인체육관	73.6	13.2	13.2	0.0	0.0	31.6	45.7	22.7	0.0	0.0	30.3	27.0	17.2	7.2	18.5	0.0	100.0	0.0	0.0	0.0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0.0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수화통역센터	11.7	62.3	26.0	0.0	0.0	-	-	-	-	-	-	-	-	-	-	-	-	-	-	-
정신의료기관	30.8	0.0	40.8	28.5	0.0	0.0	36.1	37.3	5.5	21.1	23.8	10.4	42.6	5.1	18.2	16.1	24.4	29.7	12.6	17.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	-	-	-	46.8	16.1	0.0	0.0	37.0	-	-	-	-	-	23.8	24.3	12.7	20.1	19.1
이동지원서비스센터	58.3	0.0	41.7	0.0	0.0	16.5	45.7	0.0	0.0	37.8	31.7	22.1	8.9	11.1	26.9	40.4	59.6	0.0	0.0	0.0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3.1	0.0	56.9	0.0	0.0	25.9	7.3	66.8	0.0	0.0	25.0	30.0	42.8	2.3	0.0	33.3	28.8	28.5	0.0	9.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	-	-	31.3	7.8	47.9	13.0	0.0	39.7	0.0	0.0	30.2	30.2	0.0	0.0	100.0	0.0	0.0
점자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정신보건센터	-	-	-	-	-	36.8	44.0	11.8	7.4	0.0	100.0	0.0	0.0	0.0	0.0	34.7	29.6	14.3	12.5	8.9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30.1	37.1	10.3	18.8	3.7	31.7	29.1	25.5	7.3	6.5	28.3	31.3	25.7	9.8	4.9	51.1	0.0	48.9	0.0	0.0
특수교육지원센터	100.0	0.0	0.0	0.0	0.0	52.9	9.8	37.2	0.0	0.0	26.3	32.3	17.8	11.8	-	-	-	-	-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0.0	0.0	0.0	0.0	-	0.0	0.0	100.0	0.0	-	0.0	64.9	0.0	35.1	-	0.0	0.0	100.0	0.0	-
장애아동보육시설	0.0	0.0	84.7	15.3	0.0	31.9	42.0	14.2	6.3	5.6	25.1	33.9	26.5	6.1	8.5	-	-	-	-	-

〈표 5-12-6〉 계속

[illegible]

〈표 5-12-6〉 계속

구분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직업재활시설	0.0	0.0	100.0	0.0	0.0	-	-	-	-	-	0.0	50.0	33.3	16.7	0.0	19.1	26.9	29.0	15.2	9.8
장애인복지관	40.2	6.8	29.9	7.2	15.9	10.7	53.8	20.2	14.0	1.4	20.4	22.7	31.1	15.4	10.4	29.9	34.2	24.0	6.8	5.0
장애인 재활병·의원	-	-	-	-	-	0.0	0.0	100.0	0.0	0.0	14.9	10.5	74.6	0.0	0.0	20.7	18.2	33.8	20.6	6.8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	-	-	-	-	0.0	0.0	0.0	100.0	0.0	39.9	22.7	15.5	13.5	8.3
장애인체육관	0.0	0.0	0.0	0.0	0.0	-	-	-	-	-	23.5	9.1	67.4	0.0	0.0	44.2	24.5	24.0	4.4	2.9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	-	-	-	-	22.5	0.0	77.5	0.0	0.0	39.6	18.9	24.7	5.5	11.3
수화통역센터	-	-	-	-	-	-	-	-	-	-	-	-	-	-	-	46.1	18.5	28.2	3.6	3.6
정신의료기관	0.0	0.0	0.0	0.0	100.0	-	-	-	-	-	6.5	27.9	25.5	16.6	23.5	14.6	24.4	31.5	11.0	18.7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	-	-	-	-	-	-	-	-	0.0	0.0	0.0	0.0	100.0	22.2	38.1	8.2	13.0	18.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0.0	0.0	100.0	0.0	0.0	0.0	51.1	0.0	0.0	48.9	36.8	29.8	0.0	33.3	0.0	35.5	23.7	9.4	10.9	20.6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00.0	0.0	0.0	0.0	0.0	28.8	71.2	0.0	0.0	0.0	15.7	11.6	37.4	19.7	15.7	23.5	30.8	36.3	3.9	5.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	-	-	-	-	-	-	-	0.0	100.0	0.0	0.0	0.0	21.6	17.9	52.4	7.5	0.5
점자도서관	-	-	-	-	-	-	-	-	-	-	-	-	-	-	-	23.6	43.3	11.1	17.7	4.3
정신보건센터	-	-	-	-	-	-	-	-	-	-	0.0	57.4	30.9	0.0	11.8	36.4	30.0	12.4	10.0	11.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0	0.0	100.0	0.0	0.0	-	-	-	-	-	27.2	46.5	26.3	0.0	0.0	28.3	26.3	30.8	8.4	6.2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	-	-	-	-	100.0	0.0	0.0	0.0	0.0	36.1	35.9	23.5	2.3	2.3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 육시설	100.0	0.0	0.0	0.0	-	-	-	-	-	-	-	-	-	-	-	17.2	21.8	58.9	2.1	-
장애인동거복지시설	-	-	-	-	-	-	-	-	-	-	-	-	-	-	-	30.8	39.7	16.3	8.0	5.1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를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 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36.3%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병·의원과 이동지원서비스센터가 각각 28.9%와 27.4%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용 희망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장애인체육관(14.8%)과 장애인심부름센터(14.6%)의 이용 희망률도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기관들이 주로 의료재활서비스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볼 때,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와 원활한 이동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용 희망률이 낮은 하위 기관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보육시설(0.7%), 점자도서관(0.8%), 수화통역센터(0.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기관이 주로 특정 연령대(아동기) 및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관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희망이 저조한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표 5-12-7〉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 희망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8.8	6.8	4.5	7.1	15.0	36.2	50.9	17.8	11.0	8.8	4.1	15.8	15.8	6.9	22.1	10.5
장애인복지관	36.8	36.9	30.9	31.0	35.4	50.8	72.0	29.4	34.9	40.3	26.8	28.0	36.0	27.3	41.4	36.3
장애인 재활병·의원	32.8	40.8	18.4	16.5	22.8	30.2	32.1	13.7	17.9	25.3	21.4	10.5	19.9	14.8	24.0	28.9
주간·단기보호시설	5.2	18.8	4.8	7.0	7.2	23.6	34.3	9.3	7.2	9.4	9.6	5.4	3.1	6.6	13.2	8.4
장애인체육관	14.6	12.5	9.3	10.9	15.4	35.2	50.2	13.2	10.0	12.7	6.1	16.9	21.1	9.9	20.3	14.8
장애인심부름센터	12.3	21.2	21.6	13.0	14.8	14.5	25.0	10.6	19.0	15.6	17.1	8.5	8.9	8.9	13.8	14.6
수화통역센터	0.0	0.1	0.3	6.7	6.6	0.4	1.3	0.5	0.1	0.3	0.1	0.0	0.9	0.3	0.0	0.8
정신의료기관	0.3	1.2	0.4	0.0	1.1	10.9	7.0	54.0	0.0	0.0	0.0	0.2	1.3	0.0	2.1	3.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0.0	0.4	0.0	0.4	0.5	6.2	2.6	24.2	0.2	0.0	0.7	0.6	0.0	0.0	1.3	1.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25.6	44.4	27.8	22.3	22.6	25.5	34.6	15.9	38.7	30.3	30.9	21.4	17.9	23.0	24.4	27.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7.7	13.0	13.5	9.7	17.5	28.9	50.7	14.7	16.9	15.8	9.4	16.8	34.6	14.0	23.8	16.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2	6.4	8.8	5.5	9.5	29.8	44.0	13.0	7.3	7.8	3.3	9.5	12.7	5.1	17.4	9.1
점자도서관	0.1	0.2	6.3	0.0	0.0	0.0	0.7	0.5	0.0	0.0	0.0	0.0	0.0	0.0	0.0	0.8
정신보건센터	1.1	0.9	2.0	0.8	1.4	8.7	9.0	23.5	1.8	2.1	0.1	1.8	2.8	1.4	5.3	2.6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2	2.1	0.4	0.4	3.8	28.7	67.3	0.5	0.1	0.7	0.0	0.5	0.0	0.0	1.6	2.7
특수교육지원센터	0.7	1.9	1.1	1.8	4.1	23.5	52.9	0.2	0.0	0.6	0.1	0.7	2.7	0.0	1.9	2.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 육시설	6.2	4.5	6.5	4.4	8.6	29.9	42.6	9.5	6.9	4.5	2.8	5.9	8.8	5.1	14.7	7.8
장애아동보육시설	0.0	1.2	0.1	0.2	2.6	6.7	15.9	0.0	0.0	0.2	0.0	0.5	0.0	0.0	0.0	0.7

4.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장애인들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의료보장으로 전체의 30.1%가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득보장으로 21.9%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2000년 및 2005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다른 복지욕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보장이 소득보장보다 더 높은 욕구를 보인 것은 2008년 조사의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주거보장이 15.4%로서 지난 2005년 조사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주거를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고용보장(8.6%)과 장애인 인권보장(5.7%)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5-12-8〉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주거보장	15.0	16.8	15.1	14.2	16.3	15.3	15.9	16.0	19.6	21.4	16.0	15.0	22.4	13.8	27.9	15.4
장애예방	3.2	3.6	4.1	4.5	4.9	3.4	0.9	6.0	1.8	4.1	6.0	3.5	4.2	4.4	3.8	3.6
보육·교육보장	2.4	2.1	1.9	2.9	6.7	18.3	28.1	1.7	1.7	1.6	1.5	3.5	2.7	1.3	2.4	3.5
의료보장	29.7	36.5	34.0	33.8	23.0	12.2	8.1	24.1	39.7	39.9	39.7	44.6	24.9	39.9	18.3	30.1
이동권보장	3.3	4.5	4.7	1.2	1.4	1.3	0.1	1.0	2.5	1.8	2.2	0.4	0.5	2.1	1.6	3.1
고용보장	9.4	4.1	8.3	7.4	9.6	11.9	8.8	8.0	6.8	7.4	4.2	6.2	12.5	6.8	11.8	8.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4	1.1	0.1	2.5	2.4	1.7	4.3	1.3	0.7	1.0	1.7	0.8	1.1	1.1	0.7	1.4
소득보장	22.9	21.3	21.2	21.7	22.2	17.6	9.9	25.7	16.9	15.5	22.1	15.2	14.9	20.1	18.8	21.9
장애인 인권보장	5.7	4.5	2.5	6.2	5.2	8.7	15.2	10.0	6.0	4.1	2.1	4.7	5.5	3.7	8.6	5.7
장애인 인식개선	4.2	3.0	5.3	3.5	5.1	6.7	8.2	4.4	3.3	1.9	1.8	3.5	8.9	3.7	5.1	4.3
없음	1.8	2.3	1.6	2.0	2.3	2.3	0.0	1.1	0.9	1.0	2.3	1.8	2.5	2.5	0.7	1.8
기타	0.8	0.3	1.2	0.1	1.0	0.5	0.4	0.7	0.1	0.3	0.5	0.8	0.0	0.8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116	219,156	220,062	207,383	15,102	140,080	12,330	84,781	48,284	14,606	14,392	6,513	2,187	11,356	8,881	2,137,229

제13절 경제상태

장애인들의 주관적 소속계층에 대해서는 71.6%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고, 28.1%가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0.4%에 불과하였다.

〈표 5-13-1〉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하층	71.9	68.7	72.7	65.4	75.1	71.8	52.2	86.5	72.1	71.7	77.8	63.0	77.8	67.5	80.4	71.6
중층	27.9	30.8	26.6	34.0	23.2	27.2	47.2	13.5	27.8	27.7	21.0	35.2	20.5	31.5	19.6	28.1
상층	0.1	0.6	0.8	0.6	1.7	0.9	0.6	0.0	0.1	0.6	1.2	1.8	1.7	1.1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0~149만원으로서 16.3%를 차지하고 있다. 50만원 미만이 12.3%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조사되어 2005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157만 2천원보다 24만 7천원 향상된 수치이다.

〈표 5-13-2〉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10.8	12.3	15.1	11.8	12.9	12.9	5.9	29.2	7.0	10.6	14.8	6.2	7.7	10.7	16.5	12.3
50~99만원	24.6	25.4	26.3	25.8	23.5	20.8	4.0	30.5	24.1	24.0	27.5	12.1	24.6	29.3	29.4	24.8
100~149만원	17.4	14.8	13.3	17.2	16.9	15.0	10.9	14.9	15.5	16.6	15.5	14.6	13.6	18.3	20.5	16.3
150~199만원	10.5	10.8	10.2	12.0	14.6	16.5	12.1	9.8	15.8	12.1	12.9	16.5	11.2	12.7	12.1	11.2
200~249만원	11.1	10.4	9.8	10.6	9.5	10.8	10.6	5.3	7.7	9.3	10.5	10.9	10.2	7.2	5.7	10.4
250~299만원	5.8	6.7	6.1	6.8	7.1	6.1	8.9	3.4	5.3	5.6	6.5	3.9	9.7	5.4	4.3	5.9
300~349만원	6.9	6.2	4.9	6.8	6.9	5.5	11.2	1.0	9.2	7.9	5.0	11.3	5.6	4.3	5.3	6.3
350~399만원	5.4	3.2	2.0	2.5	2.2	2.9	5.5	1.1	2.6	5.2	2.9	2.1	7.2	3.1	2.0	4.1
400~499만원	3.8	4.2	6.3	2.8	3.0	5.2	11.1	2.9	6.3	3.3	2.3	8.4	4.8	4.2	2.6	4.1
500만원 이상	3.8	5.9	6.2	3.6	3.6	4.4	19.8	1.8	6.6	5.3	2.3	14.0	5.3	4.7	1.5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9,155	219,666	207,383	15,102	139,820	12,329	84,780	48,273	14,571	14,392	6,515	2,186	11,356	8,881	2,136,526
평균	183.0	194.0	182.2	173.7	177.1	189.2	311.2	112.5	207.1	188.5	155.3	275.3	212.3	172.5	141.8	181.9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 분포는 50~99만원이 2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0~149만원으로서 18.6%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9%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평균 155만 5천원으로 조사되어 2005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지출 134만 5천원보다 21만원 향상된 수치이다.

〈표 5-13-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9.9	10.9	14.4	12.1	12.4	14.1	4.6	30.3	4.8	9.8	12.7	2.0	5.9	7.8	16.0	11.7
50~99만원	25.1	27.0	26.2	26.9	23.8	18.8	4.3	30.6	24.2	22.0	27.0	11.0	25.7	28.3	30.3	25.2
100~149만원	19.8	14.5	16.7	18.4	20.8	17.9	11.1	16.8	19.9	19.3	21.6	15.2	15.6	24.0	21.4	18.6
150~199만원	13.5	13.4	13.8	13.9	17.1	17.7	14.3	10.4	14.3	15.5	15.3	18.7	15.6	13.8	13.5	13.8
200~249만원	11.9	13.2	12.4	12.0	11.8	11.0	15.9	5.8	10.1	11.2	9.5	14.4	14.3	9.3	7.2	11.7
250~299만원	7.5	6.0	5.1	6.8	4.6	7.1	11.0	2.5	8.0	7.8	4.4	6.3	7.6	6.8	4.9	6.8
300~349만원	5.4	6.6	3.6	4.4	4.9	4.1	11.2	1.3	9.6	6.5	5.0	7.4	3.6	4.2	3.7	5.1
350~399만원	2.2	2.8	2.0	2.6	0.9	3.7	7.0	1.2	2.3	2.5	1.8	5.2	3.3	1.4	1.5	2.4
400~499만원	2.9	3.2	2.0	1.6	1.7	3.6	12.4	0.7	4.5	2.9	2.4	10.6	5.4	1.7	0.0	2.7
500만원 이상	1.7	2.2	3.7	1.2	1.9	1.9	8.1	0.3	2.3	2.4	0.3	9.1	3.0	2.7	1.5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8	219,155	219,667	207,384	15,104	140,077	12,328	84,778	48,284	14,607	14,391	6,495	2,185	11,316	8,880	2,137,769
평균	156.3	160.6	158.7	146.7	147.8	166.8	263.8	95.4	179.1	168.4	137.2	248.6	189.0	151.1	125.8	155.5

조사시점 기준 지난 1개월간 장애인 가구 총 소득은 평균 179만 1천원이었고,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 99만 8천원, 사업·부업소득 38만원, 공적이전소득 24만 2천원, 사적이전소득 11만 5천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5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4〉 지난 1개월간 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근로소득	102.7	97.0	101.3	93.3	101.5	110.2	223.7	52.4	99.8	99.3	64.4	143.0	118.6	83.5	78.7	99.8
사업·부업소득	41.1	31.2	40.1	36.7	25.0	38.3	52.9	14.0	42.6	33.8	20.9	59.5	49.5	34.5	21.7	38.0
개인재산·금융·연 금소득	4.4	9.2	7.0	6.2	11.4	2.0	11.2	3.3	9.9	7.6	7.8	20.5	13.9	10.2	5.1	5.5
공적이전소득	22.3	29.9	21.3	20.7	26.6	30.6	11.2	33.8	32.7	23.8	39.5	33.9	20.9	21.9	30.4	24.2
사적이전소득	10.1	21.8	10.0	14.4	8.9	5.0	4.2	7.5	17.4	15.2	18.0	11.0	7.5	18.2	9.3	11.5
평균금액	180.6	189.1	179.8	171.4	173.4	186.0	303.2	110.9	202.4	179.7	150.5	267.9	210.4	168.3	145.2	179.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개월간 조사대상 장애인의 개인 총 소득은 평균 63만원으로 2005년 조사시 58만 2천원보다 4만 8천원 향상되었고,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 26만 9천원, 공적이전소득 15만 2천원, 사업·부업소득 15만원, 사적이전소득 3만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2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5〉 지난 1개월간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근로소득	35.9	7.3	33.0	21.6	20.5	8.0	1.5	2.6	18.7	10.8	8.7	44.4	42.9	14.6	14.0	26.9
사업·부업소득	20.0	3.4	23.0	11.7	6.3	0.7	0.0	0.2	7.5	8.0	5.5	23.3	21.0	12.6	4.2	15.0
개인재산·금융·연 금소득	2.6	4.6	4.6	3.0	1.6	0.0	0.2	0.0	4.1	2.4	6.3	5.8	1.1	3.8	1.4	2.8
공적이전소득	13.6	22.3	15.1	14.5	15.7	14.0	4.2	19.4	18.7	16.0	31.0	23.8	13.0	15.3	14.6	15.2
사적이전소득	2.5	5.2	3.6	4.7	2.5	0.6	0.4	1.7	5.7	3.4	5.0	2.3	5.3	5.0	2.1	3.0
평균금액	74.6	42.8	79.2	55.5	46.5	23.3	6.3	23.9	54.6	40.5	56.5	99.7	83.2	51.4	36.3	63.0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한 연금 종류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1.4%, 보훈연금 0.9%, 군인연금 0.5%, 사립학교교원연금 및 개인연금 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62.1%로써 약 2/3의 장애인이 연금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6〉 가입한 연금 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미가입	56.6	66.5	58.5	67.1	65.0	86.7	94.3	92.4	61.9	65.0	66.6	39.1	49.4	62.1	79.5	62.1
국민연금	40.4	29.1	36.6	27.7	32.1	12.8	3.8	7.5	32.6	30.8	30.7	50.6	50.0	34.3	18.9	34.4
공무원연금	1.3	1.7	2.4	2.0	0.5	0.0	0.0	0.0	2.0	1.6	1.1	5.8	0.0	1.7	0.0	1.4
사립학교 교원연금	0.3	0.0	1.5	0.0	0.0	0.5	0.0	0.0	0.1	0.3	0.0	1.6	0.0	0.4	0.0	0.3
군인연금	0.3	0.8	0.7	1.0	0.6	0.0	0.0	0.0	1.9	0.0	0.0	1.4	0.0	0.0	0.2	0.5
보훈연금	0.8	1.7	0.3	1.4	1.8	0.0	0.0	0.1	1.4	2.0	1.6	0.5	0.0	1.0	0.6	0.9
개인연금	0.3	0.2	0.1	0.8	0.0	0.0	1.8	0.0	0.1	0.4	0.0	1.1	0.6	0.6	0.7	0.3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1,879	210,808	216,091	203,041	13,937	97,464	2,653	84,552	48,131	13,601	14,393	6,232	2,041	11,204	8,501	2,054,528

장애인가구 중 49.3%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2005년 조사의 48.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의 가구가 76.7%로 가구 내 차량 소유율이 가장 높았다.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1,679만 4천대이며, 전체 자동차수의 74.3%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록대수는 1,248만 4천대이고,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1,202만 6천대이고,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72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

〈표 5-13-7〉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53.5	47.8	44.1	45.7	43.4	42.2	76.7	24.6	57.1	54.1	46.0	68.2	52.9	45.1	30.8	49.3
없다	46.5	52.2	55.9	54.3	56.6	57.8	23.3	75.4	42.9	45.9	54.0	31.8	47.1	54.9	69.2	5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5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1	2,137,226

장애인가구내 보유하고 있는 제1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차종은 승용차가 76.2%, 배기량은 1501~2000cc미만의 경·중형차가 56.2%, 연료는 LPG가 49.4%, 자동차 소유현황에서는 장애인 명의가 54.8%, 장애인자동차 표지로는 주차가능이 44.1%, 자동차의 사용 용도는 주로 출·퇴근이 47.3%, 차량운전자는 보호자가 54.9%로 가장 많았다.

〈표 5-13-8〉 차량 소유: 제1차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차종																
승용차	72.4	84.5	78.1	79.6	84.2	79.9	92.0	81.8	86.9	80.5	80.4	85.0	89.1	76.3	79.6	76.2
승합차	12.7	10.0	13.3	9.9	7.2	15.3	5.8	10.4	7.6	14.4	13.0	8.9	3.1	12.6	8.7	12.1
화물차	14.8	5.5	8.6	10.5	8.6	4.8	2.2	7.8	5.6	5.0	6.6	6.1	7.8	11.1	11.6	11.7
배기량																
1000cc미만	3.5	5.0	2.3	5.1	5.9	3.8	3.8	2.3	4.7	4.2	3.0	3.2	8.5	2.3	6.8	3.7
1000~1500cc미만	12.2	13.2	11.1	11.6	13.0	14.5	9.2	15.7	9.6	9.5	14.5	13.1	10.2	17.1	21.0	12.3
1501~2000cc미만	55.0	60.8	55.8	53.9	61.4	57.3	66.9	61.2	62.7	63.6	58.0	46.6	61.3	54.6	48.3	56.2
2001~2500cc미만	11.5	11.7	11.9	13.3	11.2	12.8	10.2	10.4	7.3	13.8	13.0	18.6	9.9	15.5	10.9	11.7
2501~3000cc미만	14.7	8.4	16.3	13.2	7.2	10.6	7.5	10.2	13.0	7.7	7.7	14.3	7.8	8.7	12.1	13.4
3000cc 이상	3.1	1.0	2.6	3.0	1.3	0.9	2.4	0.2	2.7	1.1	3.8	4.2	2.4	1.8	0.9	2.6
연료																
휘발유	21.9	25.8	26.5	27.5	35.1	24.5	29.1	33.9	25.8	25.5	26.5	42.3	28.7	32.3	34.9	24.1
LPG	48.1	52.2	50.7	49.0	49.2	55.5	56.2	42.0	56.6	55.4	52.0	34.2	56.3	42.8	41.4	49.4
디젤	30.0	22.1	22.8	23.4	15.7	20.1	14.7	24.1	17.6	19.1	21.5	23.6	15.1	24.9	23.7	26.5
소유 명의																
장애인명의	63.8	42.1	54.7	47.8	48.9	16.3	8.0	19.2	53.6	56.9	64.9	68.0	74.1	55.3	29.7	54.8
보호자명의	19.0	18.7	21.6	26.0	24.4	20.3	19.0	42.2	18.5	9.7	7.0	16.0	7.5	23.5	40.7	20.3
공동명의	14.7	37.7	23.1	25.1	26.3	62.0	71.6	37.5	25.8	32.6	27.1	12.5	13.7	18.5	28.8	22.9
기타	2.5	1.5	0.6	1.1	0.5	1.4	1.5	1.2	2.1	0.8	1.0	3.4	4.7	2.6	0.8	2.0

〈표 5-13-8〉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표지종류																
주차가능	52.4	67.6	24.1	3.3	4.8	24.3	65.8	20.9	65.1	36.1	41.1	21.1	10.1	4.3	3.8	44.1
주차불가	20.4	11.7	47.6	60.5	62.4	52.6	13.5	33.4	11.3	48.2	40.5	51.4	68.4	57.8	48.0	28.4
표지없음	27.2	20.7	28.3	36.2	32.7	23.1	20.7	45.7	23.6	15.7	18.4	27.5	21.5	37.9	48.1	27.4
용도																
출·퇴근	47.9	41.1	58.8	47.1	47.6	44.8	44.2	47.3	31.5	39.4	32.4	38.0	53.4	43.7	47.8	47.3
통학	0.6	2.0	0.1	2.3	0.8	11.6	17.4	0.0	0.0	2.5	0.0	0.0	0.0	0.0	2.6	1.6
사업용	16.8	8.9	10.1	12.7	10.5	11.1	8.0	11.8	11.1	7.0	10.5	9.4	7.2	11.5	15.1	14.1
외출	34.7	48.0	30.9	37.9	41.1	32.2	30.4	38.9	57.3	51.1	57.1	52.6	39.4	44.8	33.3	36.9
기타	0.0	0.0	0.1	0.0	0.0	0.3	0.0	2.0	0.0	0.0	0.0	0.0	0.0	0.0	1.2	0.1
운전자																
본인	53.1	15.9	38.9	39.2	34.0	2.7	0.6	7.3	48.9	40.8	52.3	62.1	70.2	46.0	10.8	42.3
보호자	44.3	80.0	56.1	57.6	63.3	97.3	98.5	85.5	50.4	57.2	42.8	37.2	29.8	52.2	89.2	54.9
기타	2.6	4.0	5.0	3.2	2.7	0.0	0.9	7.3	0.6	1.9	5.0	0.7	0.0	1.8	0.0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6,237	104,851	97,036	94,727	6,556	59,136	9,460	20,856	27,566	7,904	6,618	4,443	1,156	5,117	2,733	1,054,396

장애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¹⁶⁾는 월 평균 137만 9천 원으로 2005년의 137만 8천원보다 1천원 늘어 비슷한 수준이며,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185만 2천원이고 지출이 155만 5천원인 것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13-9〉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가구, %,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7.7	7.6	11.3	9.7	9.3	11.6	2.8	21.1	2.0	8.3	6.8	2.2	4.3	6.1	12.7	8.9
50~99만원	28.1	28.2	28.1	29.0	26.7	20.6	6.4	34.5	24.8	24.8	32.9	11.7	31.1	34.1	29.5	27.8
100~149만원	24.2	18.3	20.7	21.4	21.6	22.3	11.1	24.3	24.1	19.3	25.2	15.3	17.0	20.6	26.9	22.7
150~199만원	12.5	16.2	14.6	15.8	19.7	18.4	16.3	9.3	15.9	19.1	16.0	24.6	18.1	18.2	14.8	14.0
200~249만원	13.0	14.4	11.9	10.8	13.1	13.9	24.0	6.3	13.4	12.3	7.5	18.7	14.1	10.2	8.2	12.6
250~299만원	7.0	5.3	4.8	6.1	3.1	2.7	7.8	2.0	5.4	8.8	5.4	5.6	2.5	4.3	4.3	5.9
300~349만원	4.2	6.4	5.2	5.6	3.4	8.3	16.1	0.5	9.1	4.5	4.5	10.1	6.6	3.9	2.3	5.0
350~399만원	1.2	1.2	0.5	0.5	0.8	1.0	5.2	1.4	1.9	0.3	0.7	2.9	1.3	0.7	0.6	1.1
400~499만원	1.8	1.0	0.6	0.6	1.1	0.5	5.9	0.4	2.0	1.6	0.7	4.5	2.7	1.7	0.2	1.4
500만원 이상	0.4	1.4	2.3	0.5	1.2	0.6	4.4	0.2	1.4	1.0	0.3	4.4	2.2	0.3	0.6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7	219,666	207,383	151,104	140,079	12,330	84,781	48,285	14,606	14,390	6,515	2,184	11,355	8,881	2,136,832
평균	137.9	144.2	137.0	132.4	135.0	145.0	225.4	98.6	160.0	144.6	125.7	198.2	153.4	130.0	117.2	137.9

16) ‘최소한 생활비’란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한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가구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2008년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으로 가장 많은 박탈을 경험한 항목으로는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것(14.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공과금(사회보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미납(10.5%), 신용불량경험(9.1%),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경험(9.0%)의 순이었다.

〈표 5-13-10〉 박탈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집세 못내 이사	9.2	11.4	6.9	4.5	8.0	8.9	14.8	9.9	10.7	15.8	4.4	16.9	11.0	9.0	16.7	9.0
공과금 미납	12.1	9.6	8.1	6.4	9.4	8.2	13.2	10.2	10.5	12.9	8.1	13.8	13.9	8.8	17.3	10.5
전기, 전화, 수도 단절	2.6	2.7	2.1	1.7	1.6	1.6	3.3	2.2	2.8	2.5	1.7	3.6	2.9	1.6	3.6	2.4
공교육비 미납	6.7	5.4	6.7	3.6	5.3	5.2	2.7	0.8	6.5	6.8	4.4	4.0	1.3	5.7	7.2	6.0
난방 단절	6.3	5.6	7.0	5.3	8.4	6.2	4.0	5.3	6.5	6.7	5.5	7.5	5.2	5.4	9.6	6.2
병원 못감	15.4	15.7	13.4	11.6	13.8	9.7	10.8	8.8	12.4	14.9	13.6	14.5	26.1	11.4	19.5	14.1
신용불량자	9.9	7.0	7.1	6.9	9.6	8.9	10.6	10.8	11.9	12.3	10.2	13.6	10.6	5.1	17.1	9.1
건강보험 급여자격 정지	1.6	0.4	2.0	1.6	1.9	1.0	1.4	1.9	0.7	0.9	0.0	1.0	2.0	1.9	1.7	1.4

주: 중복응답 비율임.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3,300원 정도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다. 특히, 간장애의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약 81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목이었다.

〈표 5-13-1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총 추가비용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158.7
교통비	18.9	19.0	12.0	3.6	14.5	29.2	49.7	8.9	42.5	19.8	24.4	33.7	24.6	11.4	11.4	17.8
의료비	49.2	91.0	20.0	6.2	50.0	29.1	43.2	34.6	258.2	161.4	103.0	807.1	242.2	42.9	57.1	57.3
교육비	0.4	4.1	1.9	5.8	20.9	61.5	129.5	0.0	0.0	0.5	0.1	0.0	1.1	0.2	3.1	6.2
보호·간병인	5.2	33.2	3.3	2.1	12.0	25.0	14.6	9.4	11.7	1.6	3.3	2.1	4.8	0.8	1.7	9.9
재활·편이용료	0.1	2.6	0.0	0.0	4.9	19.2	56.2	0.0	0.0	0.0	0.0	0.0	0.0	0.0	0.2	2.0
통신비	0.2	0.4	5.3	5.6	2.0	0.8	1.1	0.1	0.3	0.2	0.5	0.1	0.8	0.4	0.4	1.4
생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6.4	28.9	11.1	213.2	17.5	0.0	1.7	0.0	11.6	2.9	50.4	12.5	2.3	61.9	0.0	36.8
부모·사후대비용	3.2	7.9	0.9	5.0	12.9	34.6	46.5	6.8	5.5	1.1	0.7	8.8	26.8	2.5	7.7	6.2
기타	33.9	25.7	2.3	1.8	5.0	7.4	11.7	4.7	4.2	1.9	10.2	6.3	3.5	6.1	5.9	21.2

주: 중복응답 비율임.

제6장 정책건의 및 시사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2008년 실태조사는 이전의 조사와는 달리 표본가구 접근이 아니라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로서, 그 결과 과거의 가구접근법에 의한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시계열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한 관계로 법정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향후 장애인실태조사는 이러한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방안과 과거와 같이 가구 접근방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2005년의 자료와 2008년의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2008년과 같이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장애인의 가구에 대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구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으므로 비장애인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향후 장애범주 확대 등의 자료로 이용가능하며, 장애인의 등록이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일반특성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나 장애인 중 남자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남성에게서 산재 등 사고 비율이 높는데 기인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노인 장애인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서 향후에는 성비의 균형이 기대된다. 주요 외국의 경우 장애인의 성비는 남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만 50~64세(32.0%)로 만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점

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의 고령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장애인과 노인의 경계가 줄어들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장애인복지대책과 노인복지대책 사이에 대상자의 구분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장애인 쪽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인 쪽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신체적 특성

장애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높았다. 이러한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계속 10명 중 9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모든 비장애인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의 이환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은 자신이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장애인이 되는 것은 부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를 입은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장애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극도의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장애의 수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애의 극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예방의 노력과 함께 장애 수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50.5%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와 환자의 구분 역시 점차 힘들어 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장애는 의료적인 조치가 끝나 후 더 이상의 의료적인 조치에도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있을 때 이를 장애로 하였으나, 최근의 장애범주의 확대로 내부장애가 장애에 포함하는 등 의료적인 처치가 진행 중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다만,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ADL)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은 높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에 대해 완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이러한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았는데,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수단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장애인의 66.2%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3.8%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93.4%이며, 없는 경우는 6.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족내 자원이 부족한 장애인의 비율이 약 2%정도 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가사지원서비스는 주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등 대상자의 제한이 있고, 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기준은 없으나, 장애의 정도가 기계적으로 1급에 한정됨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소득기준과 장애등급 기준이 완화되어 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고장시 수리문제 등이 아직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고가품은 현재와 같은 일괄 지급방식보다는 임대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리비도 급여에 산정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구의 유지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복급여나 부정수급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의 51.6%는 ‘구입비용 때문에’라고 응답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로 보조기구의 구입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장애인보조기구는 현행의 전달체계 상으로는 이중급여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의 통합을 통해 일괄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사례의 발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은 최근 많이 향상되었다. 휴대폰의 경우 보유율과 사용률이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 보유율에 비해 사용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사회적 특성

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가 51.2%로 가장 높았고, 미혼 39.2%의 순으로 유배우의 비율이 높으나, 장애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장애인의 결혼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나 부부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녀 중 장애가 있는 비율이 3.4%로 나타나 이들 가정의 경우 장애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1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23.7%) 등 의료 및 심리적 문제,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2.8%) 등 경제적 문제, 그리고 ‘본인의 건강악화’(10.5%)와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7.8%),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7.5%)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부터 출산 및 양육까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가사도우미’, ‘출산비용 지원’,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산후조리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등의 서비스가 집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36.2%가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의 확충과 외출시 동반해 줄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확충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외출시 주위사람의 시선이 아직도 장애인의 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므로, 차별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 정당한 편의의 제공, 그리고 차별금지가 적절히 추진될 경우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경제적 특성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최근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연금제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 있다.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장애연금 도입시 이러한 추가비용의 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은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은 장애연금제도도 장애유형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실업률은 8.3%로 2005년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만 6천원으로 2005년 114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에 거쳐 장애인의 고용률은 양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복지서비스

장애인등록제도 도입 초창기보다 최근 등록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향상,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200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등록 후 혜택의 정도에 불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어서 수급자 중심의 복지대책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율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LPG 연료 사용허용’ 등 보편적인 제도의 인지율이 높은 실정으로 이러한 보편적인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이용희망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역시 장애인복지관(36.3%)이었고, 그 외 장애인 재활병·의원(28.9%), 이동지원서비스센터(27.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16.7%)도 높게 나타났는 바, 장애인복지관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1개 자치구당 1개소 이상의 복지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활병·의원에서의 이용희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이용료의 감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의 순이었다. 이는 내부장애인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노인 장애인의 증가 등 의료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해석되며, 이러한 사실은 소득보장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기보다는 의료보장에의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도입, 재활병·의원의 지속적인 신축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김영원 외, 『조사방법의 이해』,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2005.
- 김영원, 류제복, 박진우, 홍기학,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자유아카데미, 2000.
- 김종호 외, 『표본조사 입문』, 자유아카데미, 2003.
- 김태련, 박량규(역),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변용찬 외,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령집』, 2009.
- 이계오, 박진우, 이기재, 표본조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4.
- 정기원 외,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8.
- _____, 『한국통계월보』, 2009.
- _____, 한국통계조사현황(2006), 통계청.
- WHO·보건복지부,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2004.
- Lehtonen, R, Pahkinen, E. Practical Methods for Design and Analysis of Complex Surveys, 2nd Eds. John Wiley & Sons, 2004.
- Samdal, C.E., Lundström S., Estimation in Surveys with Nonresponse, John Wiley & Sons, 2005
- Schalock, R. L., Stark, J. A., Snell, M. E., Coulter, D. L., Polloway, E. A., Luckasson, R., Reiss, S., & Spitalnick, D. M., "The Changing Conception of Mental Retardation for the Field", Mental Retardation, 1994, pp.181~193.
- Thompson, S.K. Sampling, 2nd Eds, John Wiley & Sons, 2002.

부 록

〔부록 1〕	조사지역	357
〔부록 2〕	성·연령·장애정도별 통계표	361
〔부록 3〕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표(2종)	501

〔부록 1〕 조사지역

관리번호	지 역	관리번호	지 역
(서울특별시)			
010101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020711	부산 연제구 거제3동
010202	서울 강동구 명일2동	020812	부산 영도구 영선2동
010303	서울 강북구 미아5동	020913	부산 중구 대청동
010404	서울 강서구 가양3동	021014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010505	서울 관악구 봉천4동	020204	부산 동래구 안락1동*
010606	서울 광진구 구의1동	021115	부산 동구 범일동*
010707	서울 구로구 고척2동	(대구광역시)	
010808	서울 금천구 시흥5동	030101	대구 남구 대명5동
010909	서울 노원구 중계1동	030202	대구 달서구 장기동
011010	서울 도봉구 방학1동	030303	대구 동구 안심1동
011011	서울 도봉구 쌍문1동	030404	대구 북구 복현1동
011012	서울 도봉구 창3동	030405	대구 북구 산격1동
011113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030506	대구 서구 평리1동
011214	서울 동작구 사당2동	030607	대구 중구 남산4동
011215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030708	대구 수성구 만천동*
011316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030809	대구 달성군 다사읍*
01141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030203	대구 달서구 월성동*
011518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인천광역시)	
011619	서울 송파구 마천1동	040101	인천 강화군 송해면
011720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040202	인천 남구 용현4동
011821	서울 용산구 청파1동	040203	인천 남구 주안6동
011922	서울 은평구 신사2동	04030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011423	서울 서초구 염곡동*	040405	인천 부평구 부개3동
010708	서울 구로구 개봉2동*	040406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산광역시)		040507	인천 서구 가정1동
020101	부산 기장군 일광면	040508	인천 서구 김단1동
020202	부산 동래구 사직동	040609	인천 연수구 동춘1동
020203	부산 동래구 안락2동	040610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20304	부산 진구 가야1동	040611	인천 연수구 옥련동*
020305	부산 진구 범천2동	(광주광역시)	
020306	부산 진구 부전2동	050101	광주 광산구 어룡동
020407	부산 북구 구포1동	050202	광주 남구 방림1동
020408	부산 북구 만덕3동	050203	광주 남구 송암동
020509	부산 사하구 다대1동		
020610	부산 수영구 민락동		

* 추가지역임.

관리번호	지 역		관리번호	지 역	
050204	광주 남구	주월1동	080708	경기 동두천시	불현동
050305	광주 동구	계림2동	080809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050306	광주 동구	산수1동	08091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050307	광주 동구	지원2동	0810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050308	광주 동구	하동	0815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050409	광주 북구	동림동	081113	경기 연천군	군남면
050410	광주 북구	운암3동	081114	경기 연천군	장남면
	(대전광역시)		081215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060101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081216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060202	대전 동구	대청동	08121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060203	대전 동구	용운동	081218	경기 의정부시	호원1동
060204	대전 동구	인동	081319	경기 파주시	금촌1동
060305	대전 서구	가수원동	081320	경기 파주시	파평면
060306	대전 서구	괴정동	081421	경기 화성시	송산면
060307	대전 서구	반년동	081219	경기 의정부시	녹야동*
060308	대전 서구	만동	0809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060309	대전 서구	삼천동	081012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60205	대전 동구	파남동*	081622	경기 김포시	양촌면*
060206	대전 동구	대동*		(강원도)	
060410	대전 중구	옥계동*	090101	강원 강릉시	강남동
	(울산광역시)		090102	강원 강릉시	구정면
070101	울산 남구	신정5동	090103	강원 강릉시	내곡동
070202	울산 북구	강동동	090104	강원 강릉시	성산면
070203	울산 북구	농소3동	090105	강원 강릉시	연곡면
070304	울산 울주군	삼동면	090106	강원 강릉시	홍제동
070305	울산 울주군	언양읍	090207	강원 속초시	조양동
070306	울산 울주군	청량면	090308	강원 양구군	방산면
070407	울산 중구	병영1동	090409	강원 원주시	태장2동
070408	울산 중구	성남동	090510	강원 춘천시	동산면
070409	울산 중구	우정동	090611	강원 태백시	삼수동
070102	울산 남구	야음동*	090712	강원 홍천군	북방면
070410	울산 중구	동동*	090713	강원 홍천군	홍천읍
070103	울산 남구	옥동*	090814	강원 횡성군	갑천면
	(경기도)		090107	강원 강릉시	교동*
080101	경기 가평군	하면		(충청북도)	
080202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100101	충북 옥천군	동이면
080303	경기 파천시	별양동	100102	충북 옥천군	청사면
080404	경기 광명시	광명1동	100203	충북 제천시	수산면
080505	경기 구리시	동구동	10030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080606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100405	충북 청주시	살미면
080607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100406	충북 충주시	호암동*
			1005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 추가지역임.

관리번호	지 역				관리번호	지 역			
1005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0507	전남	무안군	삼향면	
	(충청남도)				130608	전남	순천시	풍덕동	
110101	충남	계룡시	두마면		130709	전남	여수시	묘도동	
110102	충남	계룡시	엄사면		130810	전남	영광군	군서면	
110203	충남	공주시	이인면		130811	전남	영광군	불갑면	
110304	충남	논산시	노성면		130912	전남	영암군	군서면	
110405	충남	당진군	송악면		131013	전남	장성군	장성읍	
110406	충남	당진군	우강면		131114	전남	진도군	시산면	
110507	충남	부여군	규암면		131215	전남	함평군	엄다면	
110508	충남	부여군	양화면		131316	전남	해남군	송지면	
110509	충남	부여군	충화면		131417	전남	화순군	능주면	
110610	충남	서산시	부석면		131418	전남	화순군	화순읍	
110611	충남	서산시	석남동		130407	전남	목포시	목원동*	
110712	충남	서천군	종천면		130408	전남	목포시	삼향동*	
110813	충남	아산시	송악면		130409	전남	목포시	만호동*	
110612	충남	서산시	성연면*		130410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10613	충남	서산시	응암면*			(경상북도)			
110614	충남	서산시	예천동*		140101	경북	경산시	압량면	
110615	충남	서산시	석립동*		140202	경북	구미시	지산동	
110204	충남	공주시	반죽동*		140303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라북도)				140304	경북	문경시	산북면	
120101	전북	군산시	경장동		140305	경북	문경시	점촌5동	
120102	전북	군산시	수송동		140406	경북	봉화군	명호면	
120103	전북	군산시	조촌동		140507	경북	상주시	계림동	
120204	전북	김제시	교동월촌동		140508	경북	상주시	화북면	
120205	전북	김제시	요촌동		140609	경북	성주군	수륜면	
120306	전북	부안군	변산면		140610	경북	성주군	초전면	
120307	전북	부안군	진서면		140711	경북	안동시	녹전면	
120408	전북	익산시	함열읍		140712	경북	안동시	옥동	
120509	전북	임실군	강진면		140813	경북	영주시	하망동	
120610	전북	장수군	산서면		140914	경북	영천시	금호읍	
120711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140915	경북	영천시	대창면	
120812	전북	진안군	안천면		140916	경북	영천시	임고면	
120713	전북	정읍시	수성동*		140917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전라남도)				141018	경북	청송군	부남면	
130101	전남	강진군	병영면			(경상남도)			
130202	전남	고흥군	남양면		150101	경남	거창군	가조면	
130203	전남	고흥군	대서면		150202	경남	김해시	대동면	
130304	전남	담양군	고서면		150203	경남	김해시	동상동	
130405	전남	목포시	동명동		150304	경남	남해군	남면	
130406	전남	목포시	유달동		150405	경남	마산시	월영동	
					150406	경남	마산시	중앙동	

* 추가지역임.

관리번호	지 역			관리번호	지 역		
150407	경남	마산시	현동	150711	경남	양산시	북정동*
150508	경남	밀양시	상남면	150712	경남	양산시	신기동*
150609	경남	사천시	곤양면	150713	경남	양산시	동면*
150710	경남	양산시	중앙동	150204	경남	김해시	진영읍*
150811	경남	의령군	봉수면	150915	경남	진주시	상대동*
150912	경남	진주시	사봉면				
150913	경남	진주시	옥봉동		(제주특별자치도)		
150914	경남	진주시	중앙동	160101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151015	경남	진해시	자은동	160102	제주	서귀포시	효돈동
151016	경남	진해시	중앙동	160203	제주	제주시	도두동
151017	경남	진해시	풍호동	160204	제주	제주시	아라동
151118	경남	창원시	중앙동	160205	제주	제주시	용담1동
151219	경남	통영시	무전동	160206	제주	제주시	조천읍
151220	경남	통영시	중앙동	160103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1321	경남	하동군	청암면	160104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151422	경남	함양군	서하면	1602	제주	제주시	일도2동*
151523	경남	합천군	쌍백면				

* 추가지역임.

〔부록 2〕 통계표17)

제1절 장애인의 일반특성

〈부표 2-1-1〉 교육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학	7.8	28.9	20.1	3.3	8.8	31.9	16.3	16.6	16.5
초등학교	29.2	38.4	45.0	9.8	36.9	39.2	30.4	33.9	33.0
중학교	18.8	11.8	23.6	11.8	19.7	12.8	16.7	15.6	15.9
고등학교	30.1	16.4	11.2	52.9	24.0	11.6	26.3	23.7	24.4
대학이상	14.1	4.6	0.0	22.3	10.7	4.4	10.3	10.1	1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795	885,247	82,699	396,683	886,723	770,935	553,750	1,583,292	2,137,042

〈부표 2-1-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학교	재학	0.8	0.6	21.3	0.0	0.0	0.0	0.7	0.7
	중퇴	5.9	13.2	0.5	2.9	7.6	14.	8.2	8.9
	졸업	32.1	54.6	19.8	85.0	83.2	53.7	63.7	70.7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9	0.4	21.5	0.0	0.0	0.0	2.1	0.7
	중퇴	0.0	0.0	0.4	0.1	0.0	0.0	0.1	0.0
	졸업	0.9	0.7	11.6	2.2	0.0	0.0	2.5	0.8
특수학교	재학	0.3	0.2	8.2	0.0	0.0	0.0	0.9	0.3
	중퇴	0.1	0.2	1.1	0.5	0.0	0.0	0.5	0.1
	졸업	1.6	1.5	9.7	5.7	0.3	0.1	5.3	1.6
검정고시	0.1	0.1	0.0	0.2	0.1	0.0	0.3	0.0	0.1
다니다지않음	7.4	28.4	5.9	3.4	8.8	31.9	15.6	16.2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46,121	878,389	70,168	396,683	886,724	770,934	548,966	1,575,546	2,124,510

17) 가중치 적용시 반올림 차이 때문에 합계치에 차이가 생겨 전체 합계치는 성별 기준에 맞춘 것임.

〈부표 2-1-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학교	재학	0.2	0.4	20.2	0.0	0.0	0.0	0.4	0.3	0.3
	중퇴	4.8	2.9	0.1	3.4	4.0	4.6	4.2	4.0	4.0
	졸업	56.7	27.6	18.1	75.4	49.6	24.1	42.6	45.3	44.6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4	0.2	20.4	0.2	0.0	0.0	1.0	0.1	0.3
	중퇴	0.0	0.1	0.0	0.1	0.0	0.0	0.1	0.0	0.0
	졸업	0.5	0.2	4.4	1.8	0.0	0.0	1.2	0.2	0.4
특수학교	재학	0.4	0.3	22.7	0.2	0.0	0.0	1.4	0.0	0.4
	중퇴	0.0	0.0	0.0	0.2	0.0	0.0	0.1	0.0	0.0
	졸업	1.3	1.3	7.6	5.7	0.2	0.1	4.8	0.2	1.3
검정고시		0.3	0.3	0.3	0.1	0.5	0.0	0.6	0.2	0.3
다니다지않음		35.3	66.6	6.1	13.1	45.6	71.2	43.7	49.8	4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8,302	866,731	30,689	396,684	886,724	770,934	525,382	1,559,650	2,085,033

〈부표 2-1-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학교	재학	0.2	0.3	24.7	0.5	0.0	0.0	0.1	0.3	0.2
	중퇴	3.8	2.0	0.2	5.8	2.9	1.8	3.3	3.0	3.0
	졸업	39.5	17.5	0.0	61.5	31.0	14.1	29.6	30.6	30.4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3	0.1	31.4	0.2	0.0	0.0	0.7	0.1	0.2
	중퇴	0.0	0.0	0.0	0.1	0.0	0.0	0.0	0.0	0.0
	졸업	0.3	0.1	0.0	1.0	0.0	0.0	0.6	0.1	0.2
특수학교	재학	0.3	0.1	26.5	0.4	0.0	0.0	0.8	0.0	0.2
	중퇴	0.0	0.1	0.0	0.3	0.0	0.0	0.2	0.0	0.1
	졸업	1.0	1.2	0.0	5.1	0.1	0.1	3.9	0.2	1.1
검정고시		0.5	0.1	0.0	0.4	0.6	0.0	0.6	0.3	0.4
다니다지않음		54.1	78.4	17.2	24.6	65.3	84.0	60.3	65.5	6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5,567	858,710	11,187	395,434	886,724	2,064,279	510,585	1,553,693	2,064,277

〈부표 2-1-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심한 장애로 인해서	4.9	4.7	86.5	24.2	3.9	1.4	14.0	2.0	4.8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4.4	17.1	0.0	3.3	5.1	17.3	9.2	11.1	10.7
다니기 싫어서	5.7	4.1	1.3	14.3	6.5	1.7	4.6	5.0	4.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9.7	70.2	0.9	45.8	82.4	74.2	64.1	78.3	75.0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6	1.2	0.0	1.4	0.9	2.0	2.4	1.1	1.4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0	0.0	0.0	0.1	0.0	0.0	0.0	0.0	0.0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1.0	1.1	6.0	7.0	0.6	0.3	2.3	0.7	1.1
기타	2.7	1.6	5.3	3.8	0.7	3.1	3.4	1.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447	692,540	5,662	122,122	606,059	661,144	328,628	1,066,358	1,394,987

〈부표 2-1-6〉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미혼	16.7	8.6	100.0	47.2	8.1	1.3	29.9	7.9	13.3
유배우	72.1	52.8	0.0	44.2	74.2	63.0	47.9	69.3	64.1
사별	4.3	32.2	0.0	1.3	7.5	33.2	12.7	17.0	15.9
이혼	5.8	5.4	0.0	6.6	8.7	1.6	8.3	4.8	5.6
별거	1.1	1.0	0.0	0.6	1.4	0.9	1.3	1.0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0,970	858,576	5,020	396,683	886,906	770,934	506,101	1,553,445	2,059,546

〈부표 2-1-7〉 경제활동분야(직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5	0.0	-	0.9	1.4	0.6	0.0	1.2	1.1
전문가	2.6	0.2	-	1.4	2.4	1.6	4.3	1.7	2.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0	2.7	-	4.4	3.1	1.0	6.3	2.6	2.9
사무종사자	4.3	4.0	-	11.2	3.1	0.0	9.3	3.7	4.2
서비스종사자	7.5	16.0	-	11.8	10.6	5.3	11.3	9.6	9.8
판매종사자	9.4	18.4	-	16.2	11.8	7.0	10.7	11.9	11.8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24.9	19.5	-	3.7	18.8	58.0	18.3	24.0	23.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2	2.0	-	14.3	8.0	1.5	5.3	8.4	8.1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8.9	2.4	-	10.1	8.2	1.4	2.8	7.7	7.2
단순노무종사자	27.5	34.8	-	26.1	32.8	23.6	31.6	29.2	29.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147	204,475	-	171,977	447,239	159,405	77,728	700,893	778,622

〈부표 2-1-8〉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영업자	40.7	26.8	-	18.8	33.8	65.9	31.9	37.6	37.0
고용주	4.4	0.5	-	4.2	3.8	1.0	1.2	3.6	3.3
상용근로자(전일제)	25.6	16.3	-	43.8	21.3	6.1	25.4	22.9	23.1
상용근로자(시간제)	1.4	2.3	-	2.8	1.7	0.0	4.0	1.3	1.6
임시근로자	8.6	5.9	-	11.7	8.7	1.5	8.3	7.9	7.9
일용근로자	16.2	32.1	-	15.6	24.2	14.8	19.4	20.5	20.4
무급가족종사자	3.2	16.2	-	3.0	6.5	10.7	9.9	6.2	6.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147	204,475	-	171,977	447,240	159,404	77,729	700,891	778,622

〈부표 2-1-9〉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직장건강보험	45.6	44.0	50.2	33.2	44.7	50.7	36.2	47.9	44.9
지역건강보험	34.9	31.0	22.9	35.9	33.9	32.4	25.1	36.2	33.3
의료급여1종	14.2	17.9	13.3	22.0	15.8	12.7	31.5	10.2	15.7
의료급여2종	4.8	6.8	13.5	8.9	5.2	3.6	6.6	5.3	5.6
기타	0.6	0.2	0.0	0.0	0.4	0.7	0.6	0.4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10〉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아니오	82.7	78.4	79.4	71.5	80.5	86.3	64.8	86.5	80.9
일반수급가구	16.6	20.7	17.1	27.7	18.4	13.5	34.0	12.8	18.3
조건부수급가구	0.3	0.6	3.2	0.2	0.6	0.0	0.3	0.5	0.4
의료·교육·자활특례	0.4	0.4	0.3	0.6	0.5	0.2	0.8	0.2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11〉 장애등록년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988년~1992년	5.9	3.3	0.0	8.8	5.2	2.8	7.7	3.8	4.8
1993년~1997년	6.6	3.9	3.8	6.3	6.7	3.8	7.5	4.8	5.5
1998년~2002년	33.0	28.4	23.3	31.9	34.1	28.1	34.7	29.9	31.1
2003년~2008년	54.5	64.4	73.0	53.0	54.0	65.2	50.0	61.6	5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12〉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급	9.0	10.0	29.8	14.8	7.5	6.7	36.4	0.0	9.4
2급	16.9	15.9	30.1	22.9	115.2	13.2	63.6	0.0	16.5
3급	19.3	14.8	23.5	22.5	16.1	15.7	0.0	23.5	17.4
4급	12.5	16.7	2.1	6.5	14.9	18.6	0.0	19.2	14.2
5급	18.5	20.9	4.5	10.7	21.1	23.8	0.0	26.3	19.5
6급	23.8	21.8	10.0	22.5	25.3	21.9	0.0	31.0	2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13〉 장애인가구의 총 가구원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명	11.1	20.0	4.1	8.7	13.0	21.1	17.3	13.9	14.8
2명	31.6	30.9	3.4	14.9	27.9	46.6	25.6	33.3	31.3
3명	20.8	17.9	15.8	26.2	23.8	11.8	21.9	18.8	19.6
4명	22.5	16.0	48.8	33.7	22.1	7.0	21.2	19.3	19.8
5명	8.7	9.5	22.2	11.2	8.5	7.1	9.3	8.9	9.0
6명	4.2	4.2	4.8	3.5	3.6	5.1	3.4	4.5	4.2
7명 이상	1.1	1.5	0.9	1.8	1.1	1.2	1.4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평균 가구원수	3.0	2.8	4.0	3.4	3.0	2.5	3.0	3.0	3.0

〈부표 2-1-14〉 장애인가구의 총 장애인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명	86.2	83.9	82.6	81.3	85.3	87.6	83.9	85.8	85.3
2명	13.0	14.6	12.8	16.5	14.0	12.0	14.3	13.5	13.7
3명	0.6	1.3	4.1	1.8	0.7	0.3	1.4	0.7	0.9
4명	0.1	0.1	0.0	0.4	0.1	0.1	0.3	0.1	0.1
5명	0.0	0.0	0.5	0.0	0.0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평균 장애인수	1.2	1.2	1.2	1.2	1.2	1.1	1.2	1.2	1.2

〈부표 2-1-15〉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부부	26.4	21.3	0.0	3.8	21.6	40.4	16.6	26.9	24.3
기타1세대(형제·자매 등)	0.9	0.2	0.0	1.6	0.6	0.2	1.0	0.5	0.6
부부+미혼자녀	36.0	23.9	69.5	53.5	37.5	7.7	34.5	29.8	31.0
부부+기혼자녀	0.9	0.8	0.2	1.1	0.5	1.2	1.3	0.7	0.9
편부+미혼자녀	2.4	0.3	2.4	3.3	1.5	0.6	1.9	1.4	1.5
편부+기혼자녀	3.1	9.8	8.5	10.7	4.9	4.2	7.9	5.1	5.8
부부+양친	0.4	0.4	0.0	0.4	0.0	0.8	0.2	0.5	0.4
부부+편부모	2.5	1.9	0.0	0.9	2.9	2.4	1.1	2.7	2.3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0.5	0.7	0.1	1.3	0.7	0.1	0.5	0.6	0.6
조부모+손자녀	0.6	2.5	2.1	0.3	0.8	2.5	1.5	1.3	1.4
기타 2세대	1.7	2.2	0.2	2.1	2.6	1.2	2.6	1.7	1.9
부부+자녀(미혼·기혼)+양친	3.7	2.4	2.6	1.6	2.7	4.6	2.5	3.4	3.2
부부+자녀(미혼·기혼)+편부모	5.0	6.8	4.4	4.4	5.4	6.9	5.7	5.8	5.7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4.6	6.8	5.8	6.1	4.9	5.9	5.1	5.7	5.5
1인 가구	11.1	20.0	4.1	8.7	13.0	21.1	17.3	13.9	14.8
비혈연 가구	0.1	0.2	0.0	0.2	0.2	0.1	0.4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16〉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본인	69.6	31.6	4.1	39.8	62.0	57.1	40.1	58.7	53.9
배우자	8.7	40.3	0.0	19.6	26.9	19.3	19.4	22.6	21.8
자녀	6.4	15.3	0.7	0.8	5.7	20.9	10.4	10.0	10.1
자녀의 배우자	0.2	1.7	0.0	0.0	0.6	1.6	1.2	0.7	0.8
아버지	10.7	5.6	79.1	26.7	1.4	0.0	18.5	5.1	8.6
어머니	2.4	2.9	13.3	8.7	1.2	0.0	7.0	1.1	2.6
형제자매	1.6	1.1	0.0	3.6	1.6	0.2	2.3	1.1	1.4
조부모	0.1	0.3	2.3	0.4	0.0	0.0	0.3	0.1	0.2
손자녀	0.0	0.6	0.0	0.0	0.0	0.7	0.2	0.2	0.2
배우자의 부모	0.0	0.3	0.0	0.2	0.2	0.0	0.1	0.1	0.1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2	0.3	0.4	0.2	0.3	0.1	0.5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제3절 보건·의료

〈부표 2-3-1〉 주된 장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지체장애	52.9	53.0	12.4	48.6	59.5	52.1	22.5	63.6	53.0
뇌병변장애	10.4	10.0	10.1	5.2	10.1	13.1	21.8	6.2	10.3
시각장애	10.0	10.7	4.8	6.4	9.6	13.7	7.2	11.4	10.3
청각장애	9.2	10.4	5.3	4.8	7.8	14.9	9.4	9.8	9.7
언어장애	0.9	0.5	1.4	1.0	0.6	0.6	0.3	0.9	0.7
지적장애	6.9	6.0	51.5	18.7	2.2	0.5	17.3	2.8	6.6
자폐성장애	0.8	0.3	11.7	0.6	0.0	0.0	1.8	0.1	0.6
정신장애	3.5	4.6	0.3	9.4	4.6	0.8	9.6	2.0	4.0
산장장애	2.2	2.3	0.2	3.0	2.8	1.5	7.3	0.5	2.3
심장장애	0.7	0.7	1.2	0.4	0.6	0.9	0.9	0.6	0.7
호흡기장애	0.9	0.3	0.0	0.2	0.7	1.0	1.2	0.5	0.7
간장애	0.4	0.2	0.3	0.2	0.5	0.1	0.4	0.3	0.3
안면장애	0.1	0.1	0.2	0.2	0.1	0.0	0.1	0.1	0.1
장루·요루장애	0.6	0.5	0.2	0.2	0.4	0.9	0.0	0.7	0.5
간질장애	0.4	0.5	0.5	1.1	0.4	0.0	0.2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2〉 현재 주된 장애 치료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45.3	58.0	68.1	38.2	50.9	54.5	57.5	48.1	50.5
아니오	54.7	42.0	31.9	61.8	49.1	45.5	42.5	51.9	4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3〉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장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종합병원	39.1	28.5	44.7	31.3	35.5	32.0	45.4	29.3	34.0
재활병·의원	1.0	0.4	2.6	1.2	0.9	0.1	1.3	0.5	0.7
병·의원	50.9	63.4	9.8	59.3	58.9	60.0	41.6	63.2	56.9
보건소	1.6	1.6	0.0	1.8	0.7	2.8	1.0	1.9	1.6
한방병·의원	3.3	4.5	1.3	4.3	3.5	4.4	3.0	4.2	3.9
장애인복지관	1.2	0.5	12.1	0.8	0.1	0.1	2.3	0.2	0.8
기타	3.0	1.1	29.5	1.3	0.5	0.4	5.3	0.7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6,705	513,320	56,326	151,470	451,861	420,374	318,478	761,550	1,080,025

〈부표 2-3-4〉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8	3.3	14.9	5.2	5.7	2.9	5.0	4.9	4.9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6.5	8.9	12.3	6.5	7.5	7.4	1.8	9.0	7.4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31.7	36.9	29.8	32.2	32.7	35.8	32.3	33.9	33.5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52.6	47.5	29.0	49.9	51.3	52.5	55.0	49.6	50.8
치료받기 싫어서	1.4	1.0	5.6	1.2	1.7	0.5	1.8	1.1	1.3
주위의 시선때문에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0.0	0.6	2.1	0.7	0.0	0.0	0.4	0.2	0.2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0.7	0.2	0.4	1.9	0.1	0.1	0.3	0.6	0.5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때문에	0.5	0.7	3.4	0.8	0.6	0.2	1.3	0.4	0.6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0.4	0.8	2.0	0.9	0.3	0.5	2.0	0.1	0.5
기타	0.4	0.1	0.6	0.7	0.1	0.1	0.1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5,273	371,925	26,374	245,216	435,049	350,563	235,271	821,927	1,057,198

〈부표 2-3-5〉 평소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좋다	7.6	2.9	29.7	13.9	3.9	0.8	5.4	5.7	5.7
약간 좋다	19.8	12.4	32.0	26.5	17.9	8.8	17.7	16.4	16.7
보통이다	27.7	22.8	16.5	26.8	26.4	25.3	21.2	27.3	25.7
약간 나쁘다	30.2	41.9	17.0	23.7	35.9	41.9	30.1	36.8	35.1
매우 나쁘다	14.6	20.0	4.8	9.1	15.9	23.2	25.6	13.8	1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6〉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2.9	52.5	49.2	37.1	55.9	57.5	43.6	55.9	52.7
아니오	47.1	47.5	50.8	62.9	44.1	42.5	56.4	44.1	4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7〉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10.8	12.6	14.9	14.7	10.2	11.8	11.9	11.5	11.6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0.6	0.3	0.0	1.0	0.8	0.1	0.2	0.6	0.5
건강보험건강검진	87.6	87.0	78.6	83.9	89.0	87.4	87.4	87.3	87.3
기타	1.0	0.1	6.5	0.5	0.0	0.7	0.5	0.6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2,238	464,450	40,710	147,344	495,612	443,020	241,454	885,233	1,126,688

〈부표 2-3-8〉 최근 2주간 외래치료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41.9	51.2	35.6	35.3	45.1	53.0	43.0	46.7	45.8
아니오	58.1	48.8	64.4	64.7	54.9	47.0	57.0	53.3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9〉 최근 2주간 외래치료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회 이하	83.7	85.6	92.7	79.8	87.3	82.9	80.2	86.0	84.5
6~10회	14.0	13.5	7.2	16.9	11.7	15.2	18.3	12.3	13.7
11~15회	2.1	0.9	0.2	2.1	1.0	1.9	1.4	1.6	1.5
16회 이상	0.3	0.0	0.0	1.1	0.0	0.0	0.1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4,996	452,988	29,448	139,919	399,648	408,968	238,129	739,856	977,984
평균 횟수	2.8	2.6	2.2	2.9	2.5	2.9	2.8	2.7	2.7

〈부표 2-3-10〉 외래치료 이용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국민건강보험	72.3	72.0	66.8	59.3	70.2	78.8	57.3	76.9	72.2
자동차보험	0.0	0.5	0.8	0.0	0.1	0.4	0.1	0.3	0.2
산재보험	2.6	0.7	0.2	1.9	3.0	0.5	1.3	1.8	1.7
의료급여	20.7	25.0	27.0	35.8	22.6	17.9	37.7	17.8	22.7
민간의료보험	0.0	0.1	1.7	0.0	0.0	0.0	0.0	0.1	0.1
전액자비	1.9	0.9	2.3	2.9	2.1	0.3	1.7	1.4	1.4
기타	2.5	0.8	1.1	0.0	2.0	2.1	1.8	1.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4,996	452,988	29,449	139,920	399,649	408,970	238,128	739,855	977,984

〈부표 2-3-11〉 외래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단위: %, 명, 천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0만원 미만	79.4	84.2	76.2	82.6	80.9	82.4	79.0	82.5	81.6
50~99만원	12.0	6.9	12.6	8.3	9.6	9.9	8.3	10.1	9.7
100~149만원	2.6	2.8	6.7	3.0	2.7	2.4	4.0	2.3	2.7
150~199만원	0.9	1.9	1.7	0.5	1.8	1.2	2.2	1.1	1.4
200~249만원	1.9	1.3	1.0	3.3	1.4	1.2	3.1	1.1	1.6
250~299만원	0.4	1.1	0.2	1.2	0.5	0.8	0.7	0.7	0.7
300~349만원	0.7	1.0	0.1	0.1	0.9	1.1	1.0	0.8	0.8
350~399만원	0.1	0.1	0.0	0.0	0.1	0.1	0.2	0.0	0.1
400~499만원	0.6	0.2	1.0	0.3	0.6	0.2	0.6	0.3	0.4
500만원 이상	1.5	0.4	0.4	0.6	1.5	0.7	0.9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4,996	452,986	29,448	139,920	399,649	408,969	238,128	739,855	977,982
평균 금액	53.9	33.2	39.6	34.0	57.3	35.5	41.5	45.2	44.3

〈부표 2-3-12〉 외래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37.3	34.8	25.7	30.2	37.1	38.0	37.3	35.8	36.2
약간 만족한다	39.7	47.0	48.2	42.6	40.7	45.3	40.3	44.0	43.1
보통이다	15.5	15.4	16.8	19.7	17.1	12.2	15.9	15.3	15.4
약간 불만족한다	7.0	2.6	9.1	7.3	4.5	4.3	6.0	4.6	5.0
매우 불만족한다	0.5	0.2	0.2	0.1	0.7	0.1	0.6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4,997	452,987	29,447	139,919	399,648	408,969	238,129	739,856	997,984

〈부표 2-3-13〉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18.9	20.5	11.7	18.6	19.2	21.3	23.4	18.3	19.6
아니오	81.1	79.5	88.3	81.4	80.8	78.7	76.6	81.7	8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14〉 최근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회 이하	98.4	96.9	99.7	97.5	98.4	97.1	97.1	98.0	97.8
6~10회	1.2	2.0	0.3	2.3	1.0	1.8	2.3	1.2	1.5
11~15회	0.3	0.0	0.0	0.0	0.3	0.2	0.4	0.1	0.2
16~20회	0.0	0.1	0.0	0.0	0.2	0.0	0.0	0.1	0.1
21~25회	0.0	0.9	0.0	0.3	0.0	0.9	0.1	0.5	0.4
26회 이상	0.0	0.1	0.0	0.0	0.1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7,108	181,372	9,638	73,954	170,306	164,584	129,327	289,155	418,480
평균 횟수	1.5	1.6	1.3	1.6	1.4	1.7	1.7	1.5	1.6

〈부표 2-3-15〉 최근 1년간 입원 일수

(단위: %, 명, 일)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30일 이하	70.4	73.4	78.0	62.6	70.4	76.7	64.5	74.9	71.7
31~60일	15.5	10.8	11.7	16.3	14.9	10.8	12.9	13.7	13.4
60~100일	6.0	7.8	10.0	9.3	4.5	7.8	8.5	6.0	6.8
101~200일	4.5	4.2	0.4	5.1	5.6	3.0	7.1	3.2	4.4
201일 이상	3.7	3.8	0.0	6.7	4.6	1.7	7.0	2.2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7,108	171,374	9,637	73,955	170,306	164,583	129,327	289,155	418,482
평균 일수	38.4	36.8	21.4	49.8	40.6	30.2	54.2	30.3	37.7

〈부표 2-3-16〉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0만원 미만	45.6	38.4	38.8	52.0	44.9	35.9	43.6	41.9	42.5
50~99만원	16.5	16.6	26.2	19.6	15.2	16.0	15.5	17.0	16.6
100~149만원	11.0	12.8	3.9	9.1	15.0	10.0	11.0	12.1	11.7
150~199만원	3.7	9.1	7.6	5.1	3.8	8.8	5.7	6.2	6.1
200~249만원	4.4	2.0	9.2	0.3	2.9	4.9	4.6	2.8	3.4
250~299만원	2.3	1.1	3.5	0.7	1.8	2.1	1.5	1.9	1.8
300~349만원	5.0	2.3	1.0	3.8	3.7	4.1	3.9	3.8	3.8
350~399만원	1.7	1.9	0.6	0.6	1.3	2.9	1.8	1.8	1.8
400~499만원	1.6	3.9	1.0	3.1	1.1	4.0	1.6	3.0	2.6
500만원 이상	8.2	12.0	8.2	5.7	10.4	11.3	10.7	9.4	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6,341	180,929	9,637	73,891	170,296	163,446	128,745	288,526	417,270
평균 금액	159.1	196.5	156.9	125.2	189.0	184.8	170.8	177.4	175.3

〈부표 2-3-17〉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국민건강보험	56.0	65.9	58.7	49.5	54.4	71.3	49.0	65.3	60.3
자동차보험	8.0	7.5	4.5	8.6	10.7	4.6	3.2	9.8	7.8
산재보험	6.0	0.4	0.5	4.4	3.5	3.4	2.3	4.1	3.6
의료급여	22.7	21.8	25.9	36.4	21.2	16.8	40.4	14.2	22.3
민간의료보험	0.8	1.2	2.4	0.3	1.8	0.4	0.0	1.4	1.0
전액자비	0.9	0.9	0.9	0.8	0.7	1.2	1.5	0.6	0.9
기타	5.6	2.3	7.1	0.1	7.6	2.3	3.5	4.5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7,108	181,373	9,638	73,954	170,307	164,583	129,326	289,154	418,481

〈부표 2-3-18〉 입원진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34.7	37.9	38.2	29.3	37.7	37.3	32.6	37.6	36.1
약간 만족한다	36.1	38.7	41.8	45.4	29.3	41.4	39.9	36.0	37.2
보통이다	16.8	15.9	4.8	16.5	18.4	15.0	16.0	16.6	16.4
약간 불만족한다	7.3	6.7	14.6	7.0	8.0	5.6	9.8	5.8	7.0
매우 불만족한다	5.1	0.8	0.6	1.8	6.5	0.7	1.7	3.9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7,108	181,373	9,637	73,954	170,306	164,582	129,327	289,155	418,481

〈부표 2-3-19〉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70.6	83.4	32.4	52.6	77.3	90.9	76.4	75.7	75.9
아니오	29.4	16.6	67.6	47.4	22.7	9.1	23.6	24.3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20〉 주된 만성질환명(1순위)

(단위: %, 명)

[illegible]

〈부표 2-3-20〉 계속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궁경부암	0.0	0.2	0.0	0.0	0.1	0.2	0.2	0.1	0.1
폐암	0.2	0.0	0.0	0.0	0.0	0.2	0.1	0.1	0.1
기타 암	1.7	1.0	0.0	1.4	1.4	1.4	0.8	1.6	1.4
위십이지장궤양	0.8	0.5	0.0	0.1	0.7	0.8	0.4	0.7	0.6
B형 간염	1.7	0.1	1.4	3.4	1.2	0.1	0.3	1.2	1.0
C형 간염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간경변증	1.3	0.2	0.0	2.2	0.7	0.6	0.5	0.9	0.8
기타	19.2	13.6	46.2	29.1	15.8	12.7	18.0	16.2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83,632	738,099	26,824	208,674	685,320	700,907	423,014	1,198,715	1,621,731

〈부표 2-3-21〉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19.4	25.9	19.3	19.4	23.5	22.1	20.2	22.7	22.1
아니오	80.6	74.1	80.7	80.6	76.5	77.9	79.8	77.3	7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3-22〉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돈이 없어서	55.9	58.8	55.8	38.3	62.2	60.2	50.1	59.6	57.3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1.9	1.8	3.5	2.8	1.1	2.2	0.9	2.2	1.9
교통편이 불편해서	9.3	16.6	7.4	11.2	7.9	20.1	23.1	9.7	12.8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17.0	10.4	12.3	26.7	17.4	3.8	6.3	16.1	13.8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5	1.6	4.7	1.6	1.0	1.8	1.8	1.4	1.5
증상이 가벼워서	9.3	5.2	2.6	13.9	5.7	6.6	2.8	8.7	7.3
기타	5.1	5.6	13.7	5.5	4.8	5.2	15.1	2.3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2,535	229,398	15,970	77,154	208,051	170,758	111,847	360,084	471,933

〈부표 2-3-23〉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3차병원 재활의학과	23.0	19.0	20.3	19.3	24.2	19.3	18.6	22.3	21.4
재활전문병원	32.8	25.3	20.4	30.0	33.6	26.1	22.5	32.2	29.7
요양병원	11.5	13.6	1.4	8.8	10.0	18.0	15.7	11.2	12.3
낮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4.1	3.9	3.2	3.7	4.8	3.3	3.5	4.2	4.0
방문재활치료	11.2	17.1	10.3	10.9	9.5	20.2	18.1	12.1	13.6
장애인 특화서비스	11.3	15.8	41.0	21.7	11.9	7.3	17.0	11.8	13.2
기타	6.0	5.4	3.5	5.7	6.0	5.8	4.5	6.2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49,826	883,411	82,700	395,853	885,796	768,887	552,660	1,580,576	2,133,237

제4절 일상생활 지원

〈부표 2-4-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옷 벗고입기									
완전자립	87.1	87.7	57.3	90.4	91.0	84.7	66.4	94.6	87.3
부분도움	10.4	8.7	33.3	8.0	7.0	11.1	23.9	4.7	9.7
완전도움	2.6	3.6	9.4	1.7	2.0	4.2	9.7	0.7	3.0
세수하기									
완전자립	93.3	91.9	68.3	93.7	95.4	91.7	77.8	97.9	92.7
부분도움	4.5	4.9	21.0	4.5	2.9	5.1	13.9	1.4	4.7
완전도움	2.2	3.2	10.7	1.8	1.7	3.2	8.4	0.6	2.6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92.9	91.8	65.9	92.8	95.4	91.7	76.7	97.9	92.4
부분도움	4.8	5.2	22.5	5.4	2.9	5.2	14.8	1.5	5.0
완전도움	2.3	3.0	11.7	1.8	1.7	3.1	8.5	0.5	2.6
목욕하기									
완전자립	80.9	79.4	36.5	86.2	85.5	75.9	54.8	89.2	80.3
부분도움	13.4	13.8	38.3	9.5	10.4	16.8	26.7	9.0	13.6
완전도움	5.7	6.8	25.2	4.4	4.1	7.3	18.4	1.8	6.1
식사하기									
완전자립	94.2	93.6	77.1	95.6	96.0	92.5	80.8	98.5	94.0
부분도움	4.3	4.2	15.6	3.1	2.7	5.4	13.1	1.2	4.2
완전도움	1.5	2.2	7.3	1.3	1.3	2.0	6.1	0.3	1.8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6.6	95.6	94.9	98.0	96.8	94.7	88.2	99.0	96.2
부분도움	2.0	2.1	1.4	0.7	1.8	3.1	5.8	0.8	2.1
완전도움	1.3	2.3	3.7	1.3	1.4	2.2	6.0	0.2	1.7
일어나앉기									
완전자립	95.8	94.1	94.6	97.5	96.1	92.9	85.2	98.6	95.1
부분도움	2.7	3.2	1.7	1.1	2.2	4.6	8.0	1.1	2.9
완전도움	1.5	2.7	3.6	1.4	1.7	2.5	6.8	0.4	2.0
옮겨앉기									
완전자립	95.8	94.3	95.2	97.8	95.8	93.0	85.4	98.6	95.2
부분도움	2.5	2.2	1.1	0.6	2.2	3.7	6.7	0.9	2.4
완전도움	1.7	3.5	3.6	1.6	2.0	3.2	7.9	0.5	2.4

〈부표 2-4-1〉 계속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방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95.2	93.1	94.0	97.3	95.6	91.3	83.2	98.2	94.3
부분도움	3.1	3.2	2.6	1.4	2.5	4.9	9.2	1.1	3.2
완전도움	1.7	3.7	3.4	1.3	1.9	3.8	7.6	0.7	2.5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93.0	91.7	69.1	94.3	94.9	91.2	77.0	97.9	92.5
부분도움	4.8	4.7	22.8	4.0	3.0	5.1	14.0	1.5	4.7
완전도움	2.3	3.6	8.2	1.7	2.0	3.8	9.0	0.7	2.8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3.4	92.0	77.7	95.5	95.2	90.3	82.1	96.5	92.8
부분도움	4.2	4.1	14.6	2.8	2.7	5.4	9.8	2.2	4.1
완전도움	2.5	3.9	7.7	1.8	2.2	4.2	8.1	1.3	3.1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3.5	90.7	77.3	95.6	94.8	89.5	81.5	96.1	92.4
부분도움	4.1	5.6	15.1	2.3	3.1	6.6	9.4	3.0	4.7
완전도움	2.4	3.7	7.5	2.1	2.1	3.9	9.0	0.8	2.9
머리감기									
완전자립	86.1	84.0	44.8	88.3	90.3	82.0	62.4	93.2	85.2
부분도움	9.3	9.2	31.9	8.4	6.4	10.6	21.1	5.1	9.2
완전도움	4.7	6.9	23.3	3.3	3.3	7.4	16.5	1.7	5.6
휠체어 타기									
완전자립	91.5	88.9	83.1	95.2	92.7	86.1	75.6	95.6	90.4
부분도움	5.8	5.8	9.6	2.9	4.7	8.3	13.0	3.3	5.8
완전도움	2.7	5.3	7.3	1.9	2.6	5.6	11.4	1.1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4-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집안일하기									
완전자립	62.4	61.7	14.8	69.7	69.8	54.4	32.7	72.4	62.1
부분도움	27.3	27.7	33.7	22.4	24.3	33.1	38.4	23.6	27.5
완전도움	10.3	10.6	51.5	7.9	5.9	12.5	28.9	4.0	10.4
식사준비하기									
완전자립	64.7	71.4	11.1	69.7	76.2	62.3	33.0	79.5	67.5
부분도움	24.2	18.0	32.4	21.1	17.3	25.8	36.3	16.5	21.6
완전도움	11.1	10.5	56.5	9.2	6.5	11.9	30.7	3.9	10.9
탈레하기									
완전자립	65.4	66.9	16.8	7.2	74.5	57.9	34.8	76.9	66.0
부분도움	22.9	22.2	22.2	17.	18.9	29.7	32.6	19.1	22.6
완전도움	11.7	10.9	61.0	9.6	6.6	12.4	32.5	3.9	11.3
금전관리									
완전자립	77.2	69.5	7.9	69.4	84.0	72.1	41.2	85.6	74.0
부분도움	12.2	16.9	28.7	15.9	10.1	16.5	25.6	10.2	14.2
완전도움	10.5	13.5	63.4	14.8	5.9	11.4	33.3	4.2	11.8
물건사기									
완전자립	78.7	73.7	21.4	74.2	84.3	75.1	43.2	88.4	76.7
부분도움	13.3	15.0	41.1	16.4	10.3	14.2	29.9	8.5	14.0
완전도움	8.0	11.2	37.5	9.4	5.4	10.7	26.9	3.2	9.3
전화사용하기									
완전자립	82.1	76.6	36.8	78.6	87.8	76.0	51.4	89.8	79.8
부분도움	11.4	14.5	31.5	13.7	8.1	15.3	27.2	7.6	12.6
완전도움	6.5	8.9	31.7	7.7	4.1	8.7	21.4	2.6	7.5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75.6	69.8	22.1	74.3	82.7	67.1	37.4	85.7	73.2
부분도움	16.5	18.9	45.0	16.9	11.1	22.1	35.0	11.3	17.5
완전도움	8.0	11.3	32.9	8.8	6.2	10.8	27.6	3.0	9.4
근거리 외출하기									
완전자립	85.3	80.6	51.0	84.	88.7	80.3	54.5	93.5	83.4
부분도움	9.2	10.5	25.3	10.4	6.9	11.1	24.8	4.5	9.8
완전도움	5.4	8.9	23.6	5.3	4.5	8.6	20.6	2.0	6.9

〈부표 2-4-2〉 계속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품단장하기									
완전자립	80.7	78.5	31.3	81.1	86.1	77.0	50.2	90.1	79.8
부분도움	15.2	15.6	44.5	15.6	10.9	17.2	34.7	8.6	15.3
완전도움	4.2	5.9	24.2	3.3	2.9	5.8	15.1	1.3	4.9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86.8	84.6	26.7	83.7	91.0	87.5	61.1	94.6	85.9
부분도움	9.8	10.4	46.9	12.6	6.9	8.4	26.4	4.3	10.1
완전도움	3.4	5.0	26.4	3.7	2.1	4.1	12.5	1.1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4-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혼자서 스스로	51.8	47.4	5.6	53.8	59.3	41.9	15.7	61.9	49.9
대부분 혼자서	15.3	17.6	11.0	13.7	16.0	18.4	13.5	17.2	16.3
일부도움 필요	19.5	18.8	25.9	18.3	15.1	23.7	29.1	15.8	19.3
대부분 필요	8.9	9.4	35.9	10.0	6.0	9.4	24.4	3.8	9.1
거의 남도움 필요	4.5	6.8	21.7	4.1	3.5	6.6	17.2	1.3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4-4〉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94.7	91.7	99.3	93.9	92.3	93.0	97.3	90.4	93.4
아니오	5.3	8.3	0.7	6.1	7.7	7.0	2.7	9.6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3,930	465,882	78,109	183,315	360,590	447,796	466,715	603,096	1,069,812

〈부표 2-4-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배우자	58.1	33.6	0.1	20.2	61.0	57.2	34.6	58.5	47.6
부모	21.7	16.0	86.5	55.4	8.9	0.0	29.0	11.1	19.2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5.8	30.2	0.0	1.6	12.1	28.6	11.5	20.1	16.2
형제·자매	3.2	2.3	0.1	6.9	3.9	0.7	3.8	2.0	2.8
조부모	0.8	0.6	7.0	1.0	0.0	0.0	1.4	0.1	0.7
손자녀	0.1	1.1	0.0	0.0	0.1	1.2	0.5	0.6	0.5
기타 가족	0.3	0.5	0.3	0.3	0.7	0.1	0.5	0.2	0.4
친척	0.2	1.0	0.2	0.7	0.5	0.6	0.6	0.5	0.6
친구	0.4	0.5	0.0	0.8	0.7	0.1	0.7	0.1	0.4
아웃	0.9	2.8	0.7	0.4	2.5	1.9	1.8	1.7	1.8
활동보조인	0.7	0.5	0.1	2.0	0.8	0.1	1.4	0.0	0.6
가정봉사원	1.4	2.8	0.0	0.8	1.1	3.6	2.3	1.7	2.0
간병인	0.3	0.7	0.0	0.0	0.6	0.6	0.9	0.1	0.4
기타	6.1	7.5	5.0	9.8	7.2	5.4	11.0	3.1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1,804	427,267	77,598	172,211	332,871	416,395	453,885	545,186	999,071

〈부표 2-4-6〉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87.7	78.0	93.0	83.3	84.5	81.1	78.5	87.7	83.5
아니오	12.3	22.0	7.0	16.7	15.5	18.9	21.5	12.3	1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1,806	427,266	77,598	172,210	332,869	416,395	453,884	545,188	999,072

〈부표 2-4-7〉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99.0	97.0	98.9	99.6	99.2	96.6	99.0	97.4	98.1
아니오	1.0	3.0	1.1	0.4	0.8	3.4	1.0	2.6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1,805	427,267	77,599	172,210	332,869	416,396	453,884	545,188	999,072

〈부표 2-4-8〉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충분하다	12.3	7.3	14.1	14.8	11.7	6.2	11.3	9.2	10.1
충분하다	42.9	39.2	32.6	42.7	39.3	44.0	37.1	44.8	41.3
보통이다	24.6	26.3	22.7	21.7	25.5	27.2	24.4	26.2	25.4
부족하다	16.2	24.3	26.7	16.4	19.2	20.1	22.6	17.3	19.7
매우 부족하다	4.0	3.0	3.8	4.4	4.3	2.5	4.7	2.6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1,806	427,268	77,599	172,210	332,869	416,396	453,883	545,188	999,074

〈부표 2-4-9〉 현재 도움 받는 대가로 비용 지불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4.4	6.6	9.8	4.8	3.8	6.1	9.0	2.3	5.4
아니오	95.6	93.4	90.2	95.2	96.2	93.9	91.0	97.7	9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1,806	427,266	77,598	172,209	332,868	416,396	453,884	545,188	999,072

〈부표 2-4-10〉 월 평균 도움 일수

(단위: %, 명, 일)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일 이하	7.9	9.5	14.8	11.9	4.9	7.7	9.1	7.6	8.7
6~10일	20.3	22.9	23.3	10.6	21.9	24.6	19.4	28.9	21.6
11~15일	8.0	8.1	7.0	0.0	17.4	6.3	9.1	4.8	8.1
16~20일	10.0	18.5	21.5	3.9	5.6	20.2	11.2	25.0	14.5
21~25일	11.4	9.3	19.4	10.1	8.8	8.3	13.4	0.3	10.3
26~30일	42.5	31.7	14.1	63.6	41.3	32.7	37.8	33.6	3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322	28,391	7,608	8,214	12,530	25,363	40,945	12,769	53,713
평균 일수	20.3	18.2	16.2	23.5	19.4	18.6	19.5	18.2	19.2

〈부표 2-4-11〉 1일 평균 도움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시간 이하	52.0	58.7	91.1	30.2	46.4	57.5	53.	63.5	55.5
6~10시간	22.4	14.4	0.9	24.5	23.9	18.5	20.4	10.9	18.2
11~15시간	5.7	9.8	0.0	14.9	0.9	11.3	6.1	13.2	7.8
16~20시간	2.5	0.9	0.0	0.3	4.8	1.0	1.5	1.9	1.6
21~24시간	17.5	16.3	8.0	30.0	24.0	11.7	18.8	10.5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323	28,392	7,608	8,212	12,529	25,363	40,944	12,769	53,715
평균 시간	8.8	8.5	4.7	12.6	10.3	7.8	9.1	7.4	8.7

〈부표 2-4-12〉 월 평균 지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0만원 이하	47.6	41.9	69.5	53.8	46.6	33.1	47.0	36.8	44.6
11~30만원	21.4	28.5	4.6	12.5	19.2	38.4	23.3	31.3	25.2
31~60만원	22.1	12.7	19.8	33.7	24.7	7.2	17.8	14.9	17.1
61~100만원	4.1	9.3	5.3	0.0	0.2	12.7	3.7	16.6	6.8
101~150만원	1.7	4.0	0.5	0.0	4.6	3.7	3.6	0.4	2.9
151만원 이상	3.2	3.7	0.2	0.0	4.6	5.0	4.5	0.0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323	28,392	7,608	8,214	12,530	25,363	40,943	12,769	53,715
평균 금액	26.4	33.5	18.9	19.8	28.5	37.6	30.1	30.4	30.1

〈부표 2-4-13〉 도외출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30.1	39.5	39.2	35.0	32.4	34.5	41.5	28.5	34.2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6.7	8.4	15.6	8.8	4.6	7.8	12.2	3.8	7.5
필요없다	63.2	52.1	445.2	56.2	63.1	57.7	46.3	67.7	5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3,931	465,881	78,109	183,316	360,590	447,797	466,715	603,097	1,069,812

제5절 장애인보조기구

〈부표 2-5-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상지의지	2.5	0.8	0.0	2.9	2.4	0.6	2.7	1.6	1.8
하지의지	1.6	0.4	0.0	0.7	1.5	0.7	1.6	1.0	1.1
척추보조기	3.5	9.5	3.3	6.9	3.2	9.1	4.1	6.4	6.0
상지보조기	1.2	0.2	1.7	1.4	0.9	0.3	1.1	0.7	0.8
하지보조기	3.7	3.6	31.5	7.7	3.2	1.6	7.9	2.7	3.7
정형외과용 구두	2.6	4.5	13.1	5.7	3.3	2.2	5.5	2.9	3.4
지팡이	18.3	22.6	0.0	4.9	12.5	36.5	30.7	17.7	20.1
목발	8.0	4.0	0.0	8.3	7.1	4.9	9.5	5.7	6.4
보행기	2.8	10.9	4.5	0.9	2.2	13.3	9.8	5.4	6.2
자세보조기구	1.2	1.8	4.0	2.2	1.3	1.2	2.3	1.3	1.4
전동휠체어	7.9	7.3	8.4	6.7	6.0	10.1	24.6	3.9	7.7
수동휠체어	6.7	9.6	15.0	6.6	5.9	10.7	32.5	2.5	7.9
전동스쿠터	6.1	6.7	0.0	4.1	3.8	10.7	13.1	4.9	6.4
특수키보드/마우스	0.3	0.0	0.0	0.6	0.1	0.0	0.5	0.1	0.2
단어예측장치	-	-	-	-	-	-	-	-	-
음성인식장치	0.1	0.0	0.0	0.0	0.2	0.0	0.4	0.0	0.1
복지차량/관련장치	0.3	0.3	1.8	0.6	0.3	0.1	1.7	0.0	0.3
환경조종장치	0.3	0.9	0.0	0.3	0.8	0.3	1.8	0.2	0.5
기타	1.1	1.6	6.4	1.6	0.5	1.9	3.3	0.8	1.3

〈부표 2-5-2〉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시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경(콘택트렌즈)	63.1	54.3	85.2	52.6	62.2	57.6	35.6	64.5	59.3
저시력보조기	8.0	4.8	11.8	9.3	5.5	6.7	10.2	5.8	6.6
시각장애인용 화면지팡이	9.8	7.6	0.0	7.9	9.9	8.6	38.8	2.2	8.9
의안	9.5	7.7	30.6	8.3	11.4	5.8	5.0	9.6	8.7
스크린리더	2.1	1.3	10.2	5.6	1.7	0.6	7.7	0.5	1.8
화면확대기	5.9	4.9	10.2	6.5	6.2	4.5	8.4	4.8	5.5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2.3	0.8	0.0	5.2	2.2	0.5	9.3	0.0	1.7
음성 손목/탁상시계	6.2	9.0	10.2	6.7	7.1	7.7	27.7	2.9	7.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4	0.5	0.0	3.2	0.2	0.0	2.2	0.1	0.5
점자프린터	0.4	0.4	0.0	0.0	1.0	0.0	2.1	0.0	0.4
기타	3.1	2.0	0.0	3.4	1.5	3.4	5.0	2.1	2.6

〈부표 2-5-3〉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청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보청기	73.2	73.5	77.1	65.6	63.9	80.2	58.6	78.2	73.3
화상전화기	6.2	5.7	4.4	30.5	5.9	2.0	19.3	1.5	6.0
콜드전화기	1.1	0.5	0.0	0.0	0.2	1.4	0.0	1.1	0.8
문자전화기	4.1	3.4	3.8	19.8	3.9	1.0	11.2	1.3	3.8
문자송수신기	2.2	0.8	2.1	9.6	1.2	0.4	5.1	0.4	1.6
음성증폭기	4.2	1.1	0.9	0.0	3.1	3.3	1.8	3.2	2.9
인공와우	2.5	2.8	55.7	0.1	2.4	1.1	5.9	1.5	2.6
TV 자막수신기	12.9	10.8	10.3	39.6	12.6	7.0	25.9	7.3	12.0
기타	1.0	1.5	0.0	2.8	1.4	0.9	2.1	1.0	1.2

〈부표 2-5-4〉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언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인공후두(성대)	7.0	3.7	0.0	2.5	2.2	14.5	3.9	6.4	6.1
의사소통보조기	6.4	2.4	0.0	1.2	4.4	10.6	2.9	5.6	5.3
기타	0.9	0.0	0.0	0.0	1.0	1.0	0.0	0.7	0.7

〈부표 2-5-5〉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지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인텔리키	1.1	0.0	0.0	1.3	0.0	0.0	1.0	0.0	0.7
스위치	0.6	0.0	0.0	0.7	0.0	0.0	0.6	0.0	0.4
터치모니터	2.2	0.9	1.2	2.6	0.0	0.0	2.0	1.1	1.7
기타	0.9	1.4	1.5	1.2	0.0	0.0	1.6	0.0	1.1

〈부표 2-5-6〉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신장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복막투석기구	11.5	13.1	64.1	12.0	10.7	14.8	14.5	0.5	12.2
기타	3.3	2.1	0.0	1.5	3.6	2.3	3.3	0.0	2.8

〈부표 2-5-7〉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호흡기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호흡 산소발생기	36.6	26.5	-	13.3	37.1	35.2	48.2	23.5	34.8
보조기 인공호흡기	9.5	3.0	-	0.0	7.6	10.0	11.1	6.1	8.3
기타	9.3	17.6	-	4.0	12.4	10.2	12.8	9.1	10.8

〈부표 2-5-8〉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안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압력옷	3.1	0.0	0.0	4.7	0.0	0.0	2.9	1.8	2.0
기타	2.0	7.2	24.3	5.2	0.0	0.0	6.2	3.2	3.8

〈부표 2-5-9〉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장루·요루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장루주머니	97.6	96.3	43.1	97.0	97.8	98.0	80.7	97.5	97.1
폐부보호판	87.9	83.1	43.1	85.8	86.4	87.0	66.4	86.6	86.1
기타	7.0	10.1	25.3	4.6	10.1	7.2	0.0	8.4	8.2

〈부표 2-5-10〉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기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호흡 산소발생기	0.1	0.1	0.0	0.0	0.1	0.1	0.2	0.0	0.1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0.1	0.1	0.1	0.1	0.1	0.2	0.0	0.1
욕창방지용매트	1.8	2.5	0.8	1.3	1.5	3.3	6.4	0.6	2.1
욕창방지용방석	1.2	1.5	0.5	1.3	1.3	1.5	4.5	0.2	1.3
기저귀매트	1.0	2.8	1.1	0.6	1.0	3.1	5.1	0.5	1.7
목욕용 의자	1.4	2.6	1.8	1.2	1.5	2.6	6.0	0.4	1.9
기타	0.7	0.7	0.5	0.5	0.7	0.9	1.3	0.5	0.7

〈부표 2-5-11〉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상지의지	1.6	0.4	0.0	1.7	1.6	0.3	2.6	0.8	1.1
하지의지	1.6	0.4	0.0	1.4	1.4	0.6	1.7	0.9	1.1
척추보조기	3.4	10.4	0.0	8.4	3.9	8.5	3.6	6.9	6.3
상지보조기	1.3	0.2	1.7	2.2	1.0	0.1	0.8	0.8	0.8
하지보조기	3.3	2.5	31.7	7.6	2.4	0.5	7.6	1.9	2.9
정형외과용 구두	1.8	2.8	12.8	3.2	2.1	1.5	3.8	1.9	2.2
지팡이	18.2	21.0	0.0	4.7	12.8	34.4	30.1	17.0	19.4
목발	11.0	6.3	0.0	11.6	9.4	8.0	11.9	8.5	9.1
보행기	2.4	9.8	4.5	1.3	2.0	11.5	9.3	4.6	5.5
자세보조기구	1.0	0.1	1.8	0.6	0.9	0.2	0.9	0.5	0.6
전동휠체어	3.7	2.6	6.9	3.4	2.8	3.6	12.9	1.1	3.2
수동휠체어	6.1	8.6	13.9	6.3	5.0	10.0	29.3	2.2	7.2
전동스쿠터	3.3	2.6	0.0	2.1	1.6	5.3	8.4	1.8	3.0
특수키보드/마우스	0.1	0.0	0.0	0.2	0.0	0.0	0.2	0.0	0.0
단어예측장치	-	-	-	-	-	-	-	-	-
음성인식장치	-	-	-	-	-	-	-	-	-
복지차량/관련장치	0.2	0.0	1.8	0.5	0.1	0.0	0.7	0.0	0.1
환경조종장치	0.0	0.3	0.0	0.3	0.0	0.2	0.7	0.0	0.2
기타	1.1	2.0	5.1	1.6	0.7	2.3	2.5	1.3	1.5

〈부표 2-5-1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시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경(콘택트렌즈)	60.6	53.4	85.2	52.3	58.2	57.1	37.4	61.9	57.5
저시력보조기	2.2	2.2	7.1	1.8	1.6	2.6	5.8	1.4	2.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6	5.3	0.0	7.9	8.1	4.1	30.8	0.6	6.0
의안	8.3	6.0	0.0	8.3	10.5	4.8	3.7	8.1	7.3
스크린리더	0.9	0.7	5.4	2.6	0.6	0.5	4.3	0.1	0.8
화면확대기	2.4	1.2	5.8	2.4	1.0	2.4	2.3	1.8	1.9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2	0.4	0.0	0.8	1.5	0.5	4.9	0.0	0.9
음성 손목/탁상시계	3.3	5.0	4.7	2.7	4.1	4.1	16.9	1.2	4.0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	-	-	-	-	-	-	-	-
점자프린터	-	-	-	-	-	-	-	-	-
기타	2.7	1.5	0.0	2.0	1.3	3.0	2.8	2.1	2.2

〈부표 2-5-13〉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청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보청기	65.1	66.3	74.8	56.7	58.0	71.4	54.9	69.2	65.6
화상전화기	2.6	4.1	2.0	23.6	3.1	0.0	13.1	0.0	3.3
골도전화기	-	-	-	-	-	-	-	-	-
문자전화기	1.8	1.9	0.0	15.3	1.2	0.0	7.3	0.0	1.8
문자송수신기	1.2	0.6	0.0	5.9	1.2	0.0	3.8	0.0	0.9
음성증폭기	0.4	0.0	0.0	0.0	0.0	0.4	0.0	0.3	0.2
인공와우	1.2	2.8	53.1	0.1	1.1	0.7	5.7	0.6	1.9
TV 자막수신기	5.6	5.7	4.2	30.5	6.1	1.2	17.3	1.7	5.6
기타	0.9	1.1	0.0	2.8	1.4	0.4	2.1	0.6	1.0

〈부표 2-5-14〉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언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인공후두(성대)	6.2	3.7	0.0	2.5	2.2	12.7	3.9	5.7	5.5
의사소통보조기	3.4	1.2	0.0	0.0	1.7	6.8	0.0	3.1	2.8
기타	-	-	-	-	-	-	-	-	-

〈부표 2-5-15〉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지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인텔리키	-	-	-	-	-	-	-	-	-
스위치	-	-	-	-	-	-	-	-	-
터치모니터	-	-	-	-	-	-	-	-	-
기타	0.0	0.5	0.6	0.0	0.0	0.0	0.3	0.0	0.2

〈부표 2-5-16〉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심장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복막투석기	11.5	13.1	64.1	12.0	10.7	14.8	14.5	0.5	12.2
기타	3.3	2.1	0.0	1.5	3.6	2.3	3.3	0.0	2.8

〈부표 2-5-17〉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호흡기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호흡 산소발생기	22.1	19.4	-	6.8	19.2	25.2	33.4	11.6	21.6
보조기 인공호흡기	5.4	3.0	-	0.0	4.0	6.4	8.0	2.5	5.0
기타	8.5	14.6	-	4.0	9.4	10.4	10.1	9.1	9.6

〈부표 2-5-18〉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안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압력옷	3.6	0.0	0.0	5.5	0.0	0.0	2.9	2.2	2.3
기타	2.0	7.2	24.3	5.2	0.0	0.0	6.2	3.2	3.8

〈부표 2-5-19〉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장루·요루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장루주머니	96.1	95.6	43.1	97.0	96.6	96.6	80.7	96.3	95.9
폐부보호판	82.1	80.2	43.1	80.3	83.8	81.1	66.4	81.7	81.4
기타	6.5	11.4	25.3	4.6	10.4	7.2	0.0	8.5	8.3

〈부표 2-5-20〉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기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호흡 산소발생기	0.0	0.0	0.0	0.0	0.0	0.0	0.1	0.0	0.0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0.0	0.1	0.1	0.0	0.0	0.1	0.0	0.0
욕창방지용매트	1.1	1.5	0.1	1.1	0.6	2.2	3.6	0.4	1.2
욕창방지용방석	0.6	0.6	0.2	0.9	0.6	0.5	2.1	0.1	0.6
기저귀매트	0.6	2.2	0.8	0.5	0.8	2.3	3.8	0.4	1.3
목욕용 의자	0.4	0.6	0.4	0.4	0.5	0.5	1.6	0.1	0.5
기타	0.5	0.6	0.4	0.3	0.6	0.6	0.8	0.4	0.5

〈부표 2-5-2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상지의지	1.4	0.0	0.0	1.3	1.2	0.2	2.3	0.5	0.8
하지의지	1.2	0.4	0.0	0.7	1.3	0.5	1.1	0.8	0.9
척추보조기	2.0	6.2	0.0	4.8	2.4	5.1	1.8	4.2	3.8
상지보조기	1.0	0.2	1.7	1.1	0.9	0.1	0.6	0.6	0.6
하지보조기	2.1	2.2	25.6	4.0	2.1	0.5	5.9	1.3	2.1
정형외과용 구두	1.3	1.4	10.3	1.4	1.5	0.8	2.9	1.0	1.4
지팡이	14.3	16.6	0.0	3.9	9.5	27.7	25.4	13.0	15.2
목발	6.7	3.1	0.0	6.8	5.2	4.7	8.1	4.5	5.2
보행기	2.1	5.3	4.5	0.7	1.1	7.4	6.4	2.8	3.4
자세보조기구	0.7	0.1	1.8	0.4	0.6	0.2	0.8	0.3	0.4
전동휠체어	3.3	2.0	8.4	3.5	2.3	2.8	11.8	0.8	2.8
수동휠체어	5.6	7.9	13.9	5.4	5.0	8.7	28.3	1.7	6.5
전동스쿠터	2.9	2.4	0.0	1.8	1.4	4.8	7.3	1.7	2.7
특수키보드/마우스	0.1	0.0	0.0	0.2	0.0	0.0	0.2	0.0	0.0
단어예측장치	-	-	-	-	-	-	-	-	-
음성인식장치	-	-	-	-	-	-	-	-	-
복지자랑/관련장치	0.2	0.1	1.8	0.5	0.1	0.0	0.9	0.0	0.2
환경조종장치	0.0	0.3	0.0	0.3	0.0	0.2	0.7	0.0	0.2
기타	0.9	1.1	4.5	1.6	0.2	1.6	2.4	0.7	1.0

〈부표 2-5-22〉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시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경(콘택트렌즈)	57.6	49.5	54.6	49.3	54.9	54.7	29.6	59.6	54.1
저시력보조기	1.8	1.6	7.1	0.7	1.1	2.2	3.1	1.4	1.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2	4.6	0.0	7.7	7.2	3.8	28.3	0.5	5.5
의안	8.3	6.0	0.0	8.3	10.5	4.8	3.7	8.1	7.3
스크린리더	0.9	0.7	5.4	2.6	0.6	0.5	4.3	0.1	0.8
화면확대기	2.3	1.3	0.0	2.4	1.0	2.5	2.4	1.7	1.8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2	0.4	0.0	0.8	1.5	0.5	4.9	0.0	0.9
음성 손목/탁상시계	3.0	4.3	4.7	2.7	3.1	4.1	14.4	1.2	3.6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	-	-	-	-	-	-	-	-
점자프린터	-	-	-	-	-	-	-	-	-
기타	2.7	1.4	0.0	1.7	1.3	3.0	2.8	2.0	2.2

〈부표 2-5-2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청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보청기	56.3	54.5	70.9	41.1	49.3	61.1	48.3	57.9	55.5
화상전화기	2.3	3.6	2.0	22.6	2.2	0.0	11.5	0.0	2.9
골도전화기	-	-	-	-	-	-	-	-	-
문자전화기	1.8	1.9	0.0	15.2	1.2	0.0	7.3	0.0	1.8
문자송수신기	1.2	0.6	0.0	5.9	1.2	0.0	3.8	0.0	0.9
음성증폭기	0.4	0.0	0.0	0.0	0.0	0.4	0.0	0.3	0.2
인공와우	1.2	2.0	53.1	0.1	0.0	0.7	5.1	0.3	1.5
TV 자막수신기	4.2	4.6	3.2	29.6	3.2	0.9	14.0	1.2	4.4
기타	0.9	1.1	0.0	2.8	1.4	0.1	2.1	0.6	1.0

〈부표 2-5-24〉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언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인공후두(성대)	4.7	3.7	0.0	2.5	1.4	10.0	3.9	4.5	4.4
의사소통보조기	3.1	1.2	0.0	0.0	1.7	6.1	0.0	2.9	2.6
기타	-	-	-	-	-	-	-	-	-

〈부표 2-5-2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지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인텔리키	-	-	-	-	-	-	-	-	-
스위치	-	-	-	-	-	-	-	-	-
터치모니터	-	-	-	-	-	-	-	-	-
기타	0.0	0.5	0.6	0.0	0.0	0.0	0.3	0.0	0.2

〈부표 2-5-26〉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신장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복막투석기구	10.5	13.1	64.1	12.0	10.7	12.5	13.8	0.5	11.6
기타	3.3	3.4	0.0	1.5	4.7	2.3	4.0	0.0	3.3

〈부표 2-5-27〉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호흡기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호흡 산소발생기	19.8	18.4	-	6.8	17.7	22.6	31.9	9.2	19.6
보조기 인공호흡기	4.0	1.2	-	0.0	3.3	4.0	4.6	2.5	3.5
기타	7.1	14.6	-	4.0	7.9	9.4	9.8	7.3	8.5

〈부표 2-5-28〉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안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압력옷	2.1	0.0	0.0	3.2	0.0	0.0	2.9	1.0	1.4
기타	2.0	7.2	24.3	5.2	0.0	0.0	6.2	3.2	3.8

〈부표 2-5-29〉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장루·요루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장루주머니	95.7	94.3	43.1	97.0	96.6	95.4	80.7	95.5	95.2
폐부보호판	82.1	80.2	43.1	80.3	83.8	81.1	66.4	81.7	81.4
기타	6.5	9.1	25.3	4.6	8.9	6.5	0.0	7.6	7.4

〈부표 2-5-30〉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여부: 기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호흡 산소발생기	0.1	0.0	0.0	0.0	0.0	0.1	0.1	0.0	0.0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0.0	0.1	0.1	0.0	0.1	0.1	0.1	0.1
욕창방지용매트	0.9	1.6	0.1	0.9	0.6	0.2	3.5	0.4	1.2
욕창방지용방석	0.7	0.8	0.2	0.9	0.7	0.8	2.6	0.1	0.8
기저귀매트	0.6	2.4	0.8	0.6	0.8	2.5	4.0	0.4	1.3
목욕용 의자	0.4	0.8	0.4	0.4	0.5	0.8	2.1	0.1	0.6
기타	0.5	0.6	0.4	0.2	0.7	0.6	1.0	0.4	0.5

〈부표 2-5-31〉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적합한 재활보조 기구가 없어서	15.0	10.8	24.3	21.0	12.0	11.2	15.7	11.4	12.9
별 효과가 없어서	2.2	3.2	5.1	3.1	1.8	3.2	3.9	2.1	2.7
사용이 불편	6.0	3.7	7.6	7.1	6.1	3.4	3.6	5.6	4.9
미관상 흉해서	2.4	7.6	5.1	4.0	4.2	5.7	3.9	5.6	5.0
구입비용 때문에	48.9	54.4	44.0	49.9	47.3	55.2	47.3	54.0	51.6
구입처를 몰라서	5.9	7.9	10.4	8.4	6.5	6.6	9.7	5.3	6.8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9	2.9	0.0	0.5	5.5	0.9	3.3	1.9	2.4
기타	17.7	9.4	3.6	6.0	16.6	13.8	12.6	14.1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0,836	183,167	7,770	45,000	127,126	194,106	133,351	240,653	374,003

〈부표 2-5-32〉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사용이 번거로워	21.2	33.8	52.5	27.3	15.5	35.1	29.1	26.9	27.5
미관상 흉해서	6.1	3.6	0.0	6.6	7.8	2.5	1.0	6.4	4.8
별 효과가 없어	17.3	22.2	15.9	24.7	18.9	19.1	29.9	15.6	19.7
사용할 필요가 없어	47.7	37.7	17.6	39.3	49.9	39.4	31.6	47.2	42.7
고장이 나서	4.1	1.7	7.8	0.8	4.5	2.2	6.1	1.6	2.9
수리를 못해서	2.6	0.4	0.0	1.3	2.2	1.1	1.0	1.7	1.5
기타	1.1	0.6	6.1	0.0	1.2	0.6	1.3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4,656	127,366	4,296	35,264	86,800	125,664	73,633	178,392	252,022

〈부표 2-5-3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39.2	41.0	71.3	41.3	41.2	37.6	59.2	32.0	40.0
아니오	60.8	59.0	28.7	58.7	58.8	62.4	40.8	68.0	6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3,173	404,110	18,871	108,946	315,183	464,281	267,784	639,498	907,283

〈부표 2-5-3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63.5	68.2	84.1	64.6	64.5	65.4	62.1	68.4	65.7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기구 교부사업	10.9	9.3	2.5	11.2	9.9	10.8	13.6	7.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장구지원	7.0	0.0	0.0	9.4	5.0	1.8	4.0	3.7	3.8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1.1	0.0	0.0	0.0	0.2	1.1	0.3	0.8	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기구 지원	0.5	1.6	0.0	0.7	1.1	1.1	1.7	0.5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0.2	0.5	0.4	0.5	0.3	0.3	0.4	0.2	0.3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보급사업	7.0	6.4	4.8	8.8	6.3	6.7	9.5	4.6	6.8
보조기구 관련 전문서비스기관 등의 지원	0.5	0.3	0.7	0.4	0.6	0.2	1.0	0.0	0.4
친지, 친구, 이웃 또는 종교 및 친목단체의 지원	6.3	9.6	2.5	4.4	7.2	9.5	5.8	9.4	7.8
기타	2.9	3.9	4.9	0.0	4.9	3.0	1.5	4.8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377	165,735	13,458	44,970	129,888	174,795	158,569	204,546	363,112

〈부표 2-5-3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비용 전액 지원	39.8	36.9	16.4	40.4	40.4	38.2	44.3	33.9	38.5
비용 일부 지원	57.7	57.8	82.2	58.2	55.8	57.2	52.0	62.2	57.8
무상임대	2.4	5.2	1.4	1.4	3.7	4.5	3.6	3.8	3.7
유상임대	0.1	0.0	0.0	0.0	0.1	0.1	0.1	0.1	0.1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377	165,735	13,458	44,971	129,888	174,796	158,567	204,545	363,112

〈부표 2-5-3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그렇다	33.7	33.8	20.7	37.8	32.4	34.7	40.0	28.9	33.8
약간 그렇다	31.6	34.0	43.6	20.0	33.9	34.2	31.6	33.5	32.7
보통이다	15.1	15.2	0.4	23.9	11.3	16.9	12.7	17.0	15.1
별로 그렇지 않다	14.6	13.8	23.4	12.8	15.7	12.8	11.7	16.2	14.2
전혀 그렇지 않다	5.0	3.2	11.9	5.5	6.6	1.4	3.9	4.3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377	165,735	13,459	44,969	129,888	174,795	158,568	204,545	363,112

〈부표 2-5-37〉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로 구입	31.0	34.7	68.1	35.1	31.7	31.3	26.6	35.2	32.7
장애인보조기구 업체매장에서 구입	44.2	38.7	12.1	40.0	44.6	41.4	42.8	41.3	41.7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	0.5	0.9	1.4	2.0	0.4	0.5	1.0	0.5	0.7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구입	6.4	6.7	3.7	9.1	6.1	6.3	12.9	3.9	6.5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	5.2	6.5	4.8	3.7	4.4	7.1	6.1	5.6	5.7
기타	12.8	12.5	9.9	10.1	12.8	13.3	10.6	13.5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3,174	404,111	18,871	108,946	315,183	464,282	267,784	639,498	907,285

〈부표 2-5-38〉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24.5	27.0	56.3	24.9	28.5	22.6	27.1	25.0	25.6
없다	75.5	73.0	43.7	75.1	71.5	77.4	72.9	75.0	7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3,173	404,109	18,871	108,946	315,184	464,281	267,784	639,498	907,282

〈부표 2-5-3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67.4	68.2	88.3	77.5	68.4	64.3	72.4	65.9	67.8
없다	32.6	31.8	11.7	22.5	31.6	35.7	27.6	34.1	3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3,173	404,109	18,871	108,946	315,184	464,281	267,783	639,498	907,282

〈부표 2-5-40〉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16.6	17.3	20.7	19.2	17.2	16.1	21.5	14.9	16.9
약간 만족한다	40.9	37.1	42.0	38.5	35.7	41.6	38.2	39.6	39.2
보통이다	22.1	24.4	18.2	21.7	23.8	23.2	22.4	23.4	23.1
약간 불만족한다	15.7	17.6	8.4	18.5	18.8	14.8	13.7	17.7	16.5
매우 불만족한다	4.7	3.7	10.7	2.1	4.5	4.4	4.2	4.3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44,825	354,638	16,161	89,637	281,248	412,414	245,136	554,326	799,463

〈부표 2-5-4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	28.2	27.2	19.2	31.1	30.2	25.8	27.3	28.0	27.8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5.5	13.6	21.5	10.6	12.2	17.0	13.1	15.3	14.7
지원품목의 확대	17.0	21.0	31.6	22.7	18.3	17.6	21.5	17.6	18.8
신청 및 보급절차의 간소화	9.5	10.4	6.4	8.5	8.2	11.5	10.4	9.7	9.9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6.3	5.2	0.0	4.8	5.8	6.3	5.7	5.8	5.8
급여비용의 인상	23.0	22.4	21.2	21.4	25.0	21.7	21.5	23.3	22.8
기타	0.4	0.2	0.0	0.8	0.3	0.1	0.6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3,174	404,110	18,871	108,946	315,183	464,281	267,782	639,497	907,284

〈부표 2-5-42〉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74.2	57.0	15.2	75.5	80.5	53.0	46.4	74.4	67.1
아니오	25.8	43.0	84.8	24.5	19.5	47.0	53.6	25.6	3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43〉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4.7	8.9	3.5	3.4	9.1	7.6	3.3	9.6	7.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8.1	21.0	12.7	19.6	21.8	20.0	12.1	25.2	19.7
복잡하고 어려워서	3.6	3.9	6.3	5.8	2.9	3.2	5.1	2.8	3.8
필요성이 없어서	69.2	63.4	67.1	62.6	63.3	68.1	72.6	61.3	66.1
배우기 싫어서	0.0	0.0	0.0	0.1	0.0	0.0	0.0	0.0	0.0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3.4	2.5	8.1	6.9	2.7	1.0	5.8	0.8	2.9
기타	1.0	0.3	2.4	1.6	0.3	0.1	1.0	0.3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2,471	380,417	70,092	97,328	172,936	362,531	297,067	405,821	702,888

〈부표 2-5-44〉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꼭 구입하겠다	1.3	0.9	6.6	1.1	0.2	0.4	1.9	0.5	1.1
여건이 되면 구입	23.8	21.7	51.8	21.9	27.8	14.8	19.9	24.7	22.7
구입 계획 없음	74.9	77.4	41.6	77.0	72.0	84.8	78.2	74.8	7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2,472	380,415	70,092	97,328	172,936	362,531	297,065	405,822	702,887

〈부표 2-5-45〉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6.1	48.6	82.0	76.0	61.2	28.7	54.0	52.7	53.0
아니오	43.9	51.4	18.0	24.0	38.8	71.3	46.0	47.3	4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46〉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16.1	9.7	36.0	30.6	18.8	6.0	12.1	13.5	13.2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6	1.8	6.3	2.5	2.6	1.9	2.0	2.3	2.2
복잡하고 어려워	12.8	5.9	8.2	6.7	12.3	8.6	8.2	10.2	9.7
필요성이 없어서	58.7	70.2	36.3	46.5	58.2	71.2	65.6	63.3	63.9
배우기 싫어서	2.2	2.1	0.0	3.8	3.3	1.2	0.9	2.6	2.1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6.9	10.3	11.1	7.8	4.7	10.8	10.4	7.7	8.4
기타	0.7	0.1	2.1	1.9	0.1	0.3	0.8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49,361	454,642	14,925	95,185	343,925	549,967	254,588	749,413	1,004,003

〈부표 2-5-47〉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꼭 구입하겠다	0.5	0.4	14.0	1.4	0.2	0.0	1.3	0.1	0.4
여건이 되면 구입	18.4	10.4	46.9	34.9	22.6	5.6	13.8	15.1	14.8
구입 계획 없음	81.1	89.2	39.1	63.7	77.2	94.4	84.9	84.7	8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49,360	454,642	14,925	95,185	343,926	549,966	254,589	749,413	1,004,002

〈부표 2-5-48〉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4.2	47.4	81.3	73.5	59.2	27.9	52.0	51.2	51.4
아니오	45.8	52.6	18.7	26.5	40.8	72.1	48.0	48.8	4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49〉 정보통신기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6.0	3.8	27.1	11.4	6.0	2.5	3.8	5.4	5.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2.7	7.7	17.1	23.6	14.0	5.5	10.3	10.6	10.5
복잡하고 어려워서	13.4	5.8	7.9	6.6	13.5	8.4	8.5	10.5	10.0
필요성이 없어서	57.3	68.5	35.1	45.7	57.0	69.7	65.1	61.3	62.3
배우기 싫어서	2.2	2.3	0.0	3.5	3.3	1.4	0.8	2.7	2.2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7.6	11.8	10.7	7.5	6.1	12.0	10.5	9.1	9.5
기타	0.8	0.1	2.0	1.8	0.1	0.4	0.9	0.3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2,853	465,788	15,449	105,271	361,698	556,220	265,680	772,962	1,038,641

〈부표 2-5-50〉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 계획: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꼭 구입하겠다	0.4	0.6	13.5	2.3	0.2	0.0	1.6	0.1	0.5
여건이 되면 구입	19.5	10.9	45.7	37.1	23.0	5.9	14.5	16.0	15.6
구입 계획 없음	80.1	88.5	40.8	60.7	76.8	94.0	83.9	83.9	8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2,852	465,787	15,449	105,271	361,698	556,221	265,679	772,960	1,038,639

〈부표 2-5-51〉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73.9	56.6	15.7	74.9	80.1	52.6	45.7	74.1	66.7
아니오	26.1	43.4	84.3	25.1	19.9	47.4	54.3	25.9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52〉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1.3	3.0	1.7	1.6	5.5	1.0	1.5	2.9	2.3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0.9	25.6	17.6	20.0	23.7	25.4	13.9	30.5	23.5
복잡하고 어려워서	4.7	5.2	8.6	9.1	3.9	3.6	6.9	3.5	5.0
필요성이 없어서	68.9	63.5	64.6	61.5	64.2	68.3	71.1	62.2	66.0
배우기 싫어서	0.0	0.0	0.0	0.1	0.0	0.0	0.0	0.0	0.0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3.4	2.5	6.7	6.5	2.5	1.4	6.1	0.6	2.9
기타	0.7	0.1	0.7	1.1	0.2	0.3	0.5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6,772	384,483	69,752	99,466	176,354	365,684	300,772	410,483	711,255

〈부표 2-5-53〉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꼭 구입하겠다	73.9	56.9	21.8	75.1	80.1	52.4	46.3	74.1	66.9
여건이 되면 구입	7.0	10.7	49.4	6.3	6.0	8.4	12.3	7.3	8.6
구입 계획 없음	19.0	32.3	28.7	18.6	13.9	39.3	41.4	18.6	2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54〉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33.2	17.5	64.5	64.4	25.8	4.2	26.1	26.9	26.7
아니오	66.8	82.5	35.5	35.6	74.2	95.8	73.9	73.1	7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55〉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4.0	2.1	3.2	9.2	3.9	1.2	2.6	3.3	3.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0	1.6	9.6	2.5	1.9	1.4	1.5	1.9	1.8
복잡하고 어려워서	26.5	22.4	42.0	22.7	33.7	16.1	20.7	25.9	24.6
필요성이 없어서	54.5	58.2	25.0	44.0	50.2	65.2	59.8	55.0	56.2
배우기 싫어서	5.5	3.5	0.2	7.4	5.7	3.2	2.4	5.4	4.6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6.5	11.0	18.4	11.1	3.3	12.5	11.9	7.4	8.6
기타	1.1	1.1	1.6	3.3	1.3	0.5	1.1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36,664	730,565	29,351	141,327	658,042	738,510	409,166	1,158,063	1,567,229

〈부표 2-5-56〉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꼭 구입하겠다	33.0	18.1	67.6	64.5	25.8	4.2	26.6	26.9	26.8
여건이 되면 구입	15.6	11.4	18.9	12.9	20.5	6.1	11.9	14.5	13.8
구입 계획 없음	51.5	70.5	13.6	22.6	53.6	89.8	61.5	58.6	5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80	885,247	82,700	396,683	886,908	770,934	553,750	1,583,477	2,137,227

〈부표 2-5-57〉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31.9	17.0	55.4	62.7	25.6	3.6	24.5	26.1	25.7
아니오	68.1	83.0	44.6	37.3	74.4	96.4	75.5	73.9	7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5-58〉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1.2	0.8	2.5	3.0	1.2	0.4	0.9	1.1	1.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5.0	2.9	8.9	10.1	4.5	2.3	3.1	4.4	4.1
복잡하고 어려워서	27.3	22.6	53.1	23.9	34.5	15.6	22.4	26.1	25.1
필요성이 없어서	52.6	56.5	19.7	42.0	47.9	64.4	58.0	53.2	54.4
배우기 싫어서	5.4	3.6	0.1	7.1	5.8	3.3	2.4	5.4	4.6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7.3	12.4	15.0	10.7	4.8	13.5	12.1	8.8	9.7
기타	1.1	1.1	0.7	3.2	1.3	0.5	1.1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52,968	734,899	36,865	147,771	659,770	743,459	418,239	1,169,629	1,587,867

〈부표 2-5-59〉 정보통신기기 향후 사용 계획: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꼭 구입하겠다	32.1	17.7	60.9	63.3	26.0	3.5	25.3	26.5	26.2
여건이 되면 구입	16.1	11.6	25.4	13.8	20.2	6.5	12.7	14.8	14.3
구입 계획 없음	51.7	70.7	13.7	22.9	53.8	90.0	62.0	58.7	5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8	885,247	82,700	396,683	886,908	770,933	553,750	1,583,477	2,137,225

제6절 보육·교육(장애 아동·청소년)

〈부표 2-6-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보육시설	11.5	17.2	14.0	-	-	-	16.1	12.2	14.0
일반보육시설내특수학급	3.0	0.6	1.9	-	-	-	3.2	0.9	1.9
장애전담보육시설	12.3	6.0	9.6	-	-	-	11.3	8.1	9.6
다니지 않음	73.2	76.2	74.5	-	-	-	69.4	78.8	74.5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118	13,837	31,955	-	-	-	14,666	17,288	31,955

〈부표 2-6-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보육시설	5.6	6.0	5.8	-	-	-	4.6	6.9	5.8
일반보육시설내특수학급	5.2	6.2	5.3	-	-	-	5.4	5.0	5.3
장애전담보육시설	6.1	5.1	5.8	-	-	-	5.7	6.0	5.8

〈부표 2-6-3〉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보육시설	4.5	3.3	3.8	-	-	-	3.1	4.7	3.8
일반보육시설내특수학급	2.1	0.3	1.9	-	-	-	2.5	0.2	1.9
장애전담보육시설	2.8	0.7	2.3	-	-	-	1.9	2.7	2.7

〈부표 2-6-4〉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44.1	37.8	41.5	-	-	-	18.2	70.2	41.5
대체로 만족한다	46.1	9.4	31.3	-	-	-	41.7	18.4	31.3
보통이다	6.0	21.7	12.3	-	-	-	13.0	11.4	12.3
약간 불만족한다	3.9	31.2	14.9	-	-	-	27.1	0.0	14.9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857	3,297	8,155	-	-	-	4,490	3,665	8,154

〈부표 2-6-5〉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몰라서	-	-	-	-	-	-	-	-	-
시설이 없어서	0.0	1.4	0.6	-	-	-	1.0	0.4	0.6
믿지 못해서	0.3	0.0	0.2	-	-	-	0.4	0.0	0.2
다른 방법이 있어서	2.9	0.0	1.6	-	-	-	3.7	0.0	1.6
비용부담 때문에	0.4	1.6	0.9	-	-	-	0.5	1.3	0.9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21.8	31.7	26.2	-	-	-	13.9	35.4	26.2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74.6	65.0	70.4	-	-	-	80.5	62.8	70.4
기타	0.0	0.2	0.1	-	-	-	0.0	0.2	0.1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60	10,540	23,800	-	-	-	10,175	13,625	23,800

〈부표 2-6-6〉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유치원	12.1	24.2	17.3	-	-	-	5.0	27.8	17.3
일반유치원내특수학급	0.7	0.0	0.4	-	-	-	0.8	0.1	0.4
특수학교 유치원(부)	3.2	0.0	1.8	-	-	-	3.9	0.0	1.8
다니지 않음	84.0	75.8	80.5	-	-	-	90.3	72.1	80.5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119	13,837	31,955	-	-	-	14,666	17,289	31,956

〈부표 2-6-7〉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유치원	6.6	6.1	6.3	-	-	-	8.0	6.0	6.3
일반유치원내특수학급	4.0	-	4.0	-	-	-	4.0	4.0	4.0
특수학교 유치원(부)	6.0	-	6.0	-	-	-	6.0	-	6.0

〈부표 2-6-8〉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유치원	3.4	13.1	9.3	-	-	-	5.8	9.8	9.3
일반유치원내특수학급	0.0	-	0.0	-	-	-	0.0	0.0	0.0
특수학교 유치원(부)	0.1	-	0.1	-	-	-	0.1	-	0.1

〈부표 2-6-9〉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48.0	9.3	27.3	-	-	-	51.6	20.1	27.3
대체로 만족한다	6.4	89.5	50.9	-	-	-	9.5	63.1	50.9
보통이다	16.8	0.0	7.8	-	-	-	0.0	10.1	7.8
약간 불만족한다	10.6	0.0	4.9	-	-	-	1.9	5.8	4.9
매우 불만족한다	18.1	1.2	9.0	-	-	-	37.0	0.8	9.0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97	3,343	6,239	-	-	-	1,420	4,820	6,240

〈부표 2-6-10〉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몰라서	-	-	-	-	-	-	-	-	-
시설이 없어서	0.0	3.2	1.3	-	-	-	0.7	1.9	1.3
믿지 못해서	0.3	0.0	0.2	-	-	-	0.3	0.0	0.2
다른 방법이 있어서	2.5	0.0	1.5	-	-	-	2.9	0.0	1.5
비용부담 때문에	0.4	1.6	0.9	-	-	-	0.5	1.4	0.9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서	30.7	31.4	31.0	-	-	-	32.6	29.4	31.0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65.8	63.5	64.8	-	-	-	62.7	67.1	64.8
기타	0.3	0.2	0.3	-	-	-	0.3	0.2	0.3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22	10,493	25,716	-	-	-	13,247	12,468	25,715

〈부표 2-6-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음악치료	22.0	15.8	19.6	-	-	-	26.0	10.1	19.6
미술치료	27.4	14.7	22.6	-	-	-	26.0	17.5	22.6
언어치료	35.2	28.1	32.5	-	-	-	36.2	27.0	32.5
물리치료	12.6	8.9	11.2	-	-	-	16.1	3.9	11.2
작업치료	19.3	19.0	19.2	-	-	-	23.6	12.7	19.2
놀이치료	20.8	13.8	18.1	-	-	-	20.4	14.7	18.1
심리·행동 치료	16.5	5.0	12.1	-	-	-	9.2	16.4	12.1
기타	28.3	18.3	24.4	-	-	-	27.9	19.2	24.4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009	31,691	82,700	-	-	-	49,521	33,179	82,700

〈부표 2-6-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음악치료	1.5	1.7	1.6	-	-	-	1.6	1.5	1.6
미술치료	1.7	2.1	1.8	-	-	-	1.9	1.7	1.8
언어치료	1.8	2.4	2.0	-	-	-	1.9	2.3	2.0
물리치료	3.2	2.5	3.0	-	-	-	3.2	1.3	3.0
작업치료	2.0	1.5	1.8	-	-	-	1.9	1.5	1.8
놀이치료	1.7	1.6	1.7	-	-	-	1.8	1.5	1.7
심리·행동 치료	2.3	1.2	2.1	-	-	-	1.8	2.4	2.1
기타	2.9	2.9	2.9	-	-	-	3.1	2.4	2.9

〈부표 2-6-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음악치료	1.6	4.2	2.4	-	-	-	2.4	2.6	2.4
미술치료	5.9	7.5	6.3	-	-	-	4.0	11.2	6.3
언어치료	9.9	12.3	10.7	-	-	-	11.2	9.6	10.7
물리치료	1.0	-	1.0	-	-	-	1.0	-	1.0
작업치료	2.2	0.9	1.7	-	-	-	1.6	2.1	1.7
놀이치료	3.5	2.5	3.2	-	-	-	2.0	5.7	3.2
심리·행동 치료	13.1	0.7	11.1	-	-	-	3.1	17.8	11.1
기타	13.2	12.1	12.9	-	-	-	11.6	15.7	12.9

〈부표 2-6-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음악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15.2	13.6	14.7	-	-	-	17.8	2.7	14.7
대체로 만족한다	53.8	62.8	56.6	-	-	-	53.0	70.2	56.6
보통이다	26.3	23.0	25.3	-	-	-	24.8	27.1	25.3
약간 불만족한다	4.7	0.5	3.4	-	-	-	4.3	0.0	3.4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0	5,007	16,208	-	-	-	12,860	3,347	16,207

〈부표 2-6-1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미술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10.2	17.1	12.0	-	-	-	15.4	4.5	12.0
대체로 만족한다	57.9	60.7	58.6	-	-	-	50.7	76.2	58.6
보통이다	22.4	22.2	22.4	-	-	-	23.9	18.9	22.4
약간 불만족한다	6.6	0.0	5.0	-	-	-	7.0	0.4	5.0
매우 불만족한다	2.8	0.0	2.1	-	-	-	3.0	0.0	2.1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998	4,669	18,667	-	-	-	12,853	5,814	18,667

〈부표 2-6-1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언어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21.3	25.7	22.8	-	-	-	18.6	31.1	22.8
대체로 만족한다	46.0	36.2	42.8	-	-	-	40.0	48.3	42.8
보통이다	23.2	23.9	23.4	-	-	-	27.5	15.2	23.4
약간 불만족한다	7.2	14.1	9.5	-	-	-	13.8	0.9	9.5
매우 불만족한다	2.2	0.0	1.5	-	-	-	0.0	4.5	1.5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971	8,909	26,881	-	-	-	17,934	8,946	26,880

〈부표 2-6-1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물리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11.8	0.0	8.2	-	-	-	9.4	0.7	8.2
대체로 만족한다	49.8	37.1	45.9	-	-	-	43.1	63.4	45.9
보통이다	37.9	32.2	36.2	-	-	-	36.2	35.9	36.2
약간 불만족한다	0.5	30.7	9.7	-	-	-	11.3	0.0	9.7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449	2,824	9,273	-	-	-	7,979	1,293	9,273

〈부표 2-6-1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작업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3.1	15.2	7.7	-	-	-	5.7	13.4	7.7
대체로 만족한다	59.1	53.9	57.1	-	-	-	54.9	63.3	57.1
보통이다	32.3	16.5	26.3	-	-	-	27.6	22.6	26.3
약간 불만족한다	1.6	14.4	6.4	-	-	-	8.5	0.6	6.4
매우 불만족한다	3.9	0.0	2.4	-	-	-	3.3	0.0	2.4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861	6,036	15,897	-	-	-	11,689	4,207	15,897

〈부표 2-6-1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놀이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9.1	19.5	12.1	-	-	-	17.2	1.6	12.1
대체로 만족한다	64.5	57.1	62.3	-	-	-	52.2	83.3	62.3
보통이다	23.9	23.4	23.8	-	-	-	28.5	13.9	23.8
약간 불만족한다	2.5	0.0	1.8	-	-	-	2.0	1.2	1.2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621	4,389	15,010	-	-	-	10,120	4,889	15,010

〈부표 2-6-2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심리·행동 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18.6	64.3	25.8	-	-	-	24.7	26.6	25.8
대체로 만족한다	68.4	20.7	60.9	-	-	-	56.7	64.4	60.9
보통이다	11.8	13.3	12.1	-	-	-	17.3	7.7	12.1
약간 불만족한다	0.8	1.7	0.9	-	-	-	1.3	0.6	0.9
매우 불만족한다	0.4	0.0	0.4	-	-	-	0.0	0.6	0.4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424	1,572	9,996	-	-	-	4,548	5,448	9,996

〈부표 2-6-2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기타 재활치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22.1	10.8	18.9	-	-	-	20.7	14.9	18.9
대체로 만족한다	51.9	64.2	55.5	-	-	-	53.7	59.4	55.5
보통이다	25.6	24.2	25.2	-	-	-	25.2	25.2	25.2
약간 불만족한다	0.3	0.8	0.5	-	-	-	0.4	0.2	0.5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423	5,794	20,218	-	-	-	13,836	6,380	20,217

〈부표 2-6-22〉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몰라서	3.1	4.2	3.5	-	-	-	4.6	2.0	3.5
시설이 없어서	8.3	6.5	7.6	-	-	-	10.2	3.6	7.6
믿지 못해서	1.3	3.1	2.0	-	-	-	3.3	0.0	2.0
다른 방법이 있어서	1.9	1.5	1.8	-	-	-	2.8	0.1	1.8
비용부담 때문에	47.3	22.8	37.8	-	-	-	42.9	30.0	37.8
대기중이어서	2.9	0.4	2.0	-	-	-	1.3	2.9	2.0
다닐 필요가 없어서	29.8	56.3	40.0	-	-	-	30.5	54.6	40.0
기타	5.4	5.2	5.3	-	-	-	4.4	6.8	5.3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013	31,652	81,665	-	-	-	49,333	32,331	81,665

〈부표 2-6-23〉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의 적응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전혀 적응하지 못함	1.3	1.8	1.5	0.0	-	-	2.3	0.1	1.4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19.9	15.6	18.3	19.0	-	-	18.8	17.5	18.3
잘 적응하고 있는 편	67.0	73.7	69.6	63.7	-	-	66.9	73.2	69.5
매우 잘 적응	11.9	9.0	10.6	17.3	-	-	11.9	9.2	10.8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7	29,905	78,530	2,232	-	-	47,794	32,968	80,762

〈부표 2-6-24〉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의 문제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15.0	30.2	21.2	0.0	-	-	18.0	24.4	20.6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3.8	11.9	7.0	0.0	-	-	5.5	8.7	6.8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	-	-	-	-	-	-	-
수업내용의 이해 (진도 따라가기)	41.1	23.4	34.3	42.6	-	-	33.5	36.1	34.6
교육도구나 기자재 사용시 불편	2.1	1.7	2.0	0.0	-	-	2.6	1.0	1.9
교육내용의 부적합	3.4	1.7	2.9	0.0	-	-	2.9	2.6	2.8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2.1	2.5	1.8	16.0	-	-	2.4	1.9	2.2
전문교사의 부족	9.0	6.7	8.1	12.4	-	-	10.4	4.9	8.2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3.2	4.3	3.7	0.0	-	-	6.0	0.1	3.6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1.5	1.1	1.4	0.0	-	-	0.6	2.4	1.4
등·하교 불편(교통수단 이용)	2.2	3.0	2.3	11.8	-	-	3.3	1.5	2.5
문제가 없음	16.3	13.4	15.2	17.3	-	-	14.5	16.3	15.2
기타	0.2	0.1	0.2	0.0	-	-	0.2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7	29,906	78,529	2,231	-	-	47,793	32,968	80,763

〈부표 2-6-25〉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버스	7.6	8.0	7.5	15.9	-	-	9.2	5.7	7.8
일반택시	0.1	0.5	0.3	0.0	-	-	0.1	0.4	0.3
지하철·전철	0.0	8.1	3.1	0.0	-	-	0.1	7.2	3.0
통학버스	26.8	37.4	30.3	45.2	-	-	29.4	32.6	30.7
장애인콜택시	0.1	0.0	0.0	0.0	-	-	0.1	0.0	0.0
복지관버스	-	-	-	-	-	-	-	-	-
자가용(보호자 운전)	14.8	13.7	14.4	14.7	-	-	18.9	7.8	14.4
서틀형 복지버스	0.1	0.0	0.1	0.0	-	-	0.1	0.0	0.1
전동휠체어	0.3	0.0	0.2	0.0	-	-	0.4	0.0	0.2
전동스쿠터	-	-	-	-	-	-	-	-	-
도보	45.4	30.0	40.1	24.1	-	-	36.9	43.7	39.7
기타	4.8	2.4	4.0	0.0	-	-	4.9	2.6	3.9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7	29,907	78,529	2,233	-	-	47,793	32,969	80,764

〈부표 2-6-26〉 낮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집에서 혼자 지냄	8.9	5.1	6.9	28.3	-	-	8.7	5.8	7.5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64.6	63.4	64.4	57.9	-	-	67.7	59.0	64.2
장애부모들이 운영	-	-	-	-	-	-	-	-	-
하는 공동육아시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0.4	0.0	0.3	0.0	-	-	0.4	0.0	0.2
일반보육시설	0.4	1.3	0.7	0.0	-	-	0.3	1.2	0.7
가정에서 방문교사 지도	1.2	0.0	0.8	0.0	-	-	1.3	0.0	0.8
복지시설	8.6	10.4	9.5	2.1	-	-	10.7	7.3	9.3
학원	12.1	3.3	9.1	0.0	-	-	4.8	14.7	8.8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활동참여	1.4	3.5	1.9	11.8	-	-	2.5	1.7	2.2
기타	2.3	13.0	6.4	0.0	-	-	3.5	10.2	6.3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6	29,906	78,531	2,232	-	-	47,794	32,969	80,762

〈부표 2-6-27〉 향후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유료라도 이용	23.7	27.8	25.6	11.6	-	-	22.8	28.7	25.2
무료라면 이용	58.8	49.7	56.4	21.6	-	-	63.9	43.2	55.4
이용하지 않겠다	17.5	22.5	18.0	66.8	-	-	13.3	28.1	19.4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6	29,906	78,530	2,232	-	-	47,794	32,968	80,762

〈부표 2-6-28〉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의료비용 경감	4.7	9.9	6.8	0.0	-	-	4.9	9.1	6.6
장애아 전용보육시설의 확대	9.7	3.6	6.9	25.9	-	-	9.5	4.5	7.5
특수교육 무상 확대	29.9	16.9	25.8	0.0	-	-	23.7	27.1	25.1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15.8	31.4	21.9	11.6	-	-	16.9	28.3	21.6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5.5	3.0	4.7	2.1	-	-	6.8	1.4	4.6
고등교육 지원 강화	11.0	18.6	14.2	0.0	-	-	11.0	17.8	13.8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	23.3	16.7	19.7	60.5	-	-	27.1	11.8	20.9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5	29,906	78,530	2,232	-	-	47,794	32,967	80,761

〈부표 2-6-29〉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78.8	66.9	74.0	87.6	-	-	81.7	63.7	74.4
없다	21.2	33.1	26.0	12.4	-	-	18.3	36.3	25.6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856	29,906	78,530	2,231	-	-	47,793	32,968	80,762

제7절 취업 및 직업생활

〈부표 2-7-1〉 지난 1주일간의 활동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하였음	46.9	23.0	-	41.1	49.2	20.6	14.6	44.4	36.9
일시휴직	0.6	0.6	-	0.5	1.0	0.1	0.5	0.6	0.6
구직활동	2.5	0.5	-	1.6	2.8	0.3	0.8	1.9	1.6
발령대기	0.0	0.0	-	0.1	0.0	0.0	0.0	0.0	0.0
육아	0.1	0.4	-	0.7	0.0	0.2	0.0	0.3	0.2
가사	0.5	31.7	-	9.6	14.3	14.6	9.3	14.8	13.5
정규교육기관 통학	1.4	1.0	-	5.9	0.1	0.0	3.0	0.6	1.2
입시학원 통학	-	-	-	-	-	-	-	-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0.4	0.4	-	1.9	0.0	0.0	0.6	0.3	0.4
취업준비	0.3	0.1	-	1.0	0.0	0.1	0.4	0.2	0.2
진학준비	0.0	0.0	-	0.1	0.0	0.0	0.0	0.0	0.0
연로	7.4	12.5	-	0.1	0.3	25.3	5.7	10.8	9.6
심신장애	10.8	11.1	-	12.2	9.3	12.1	35.8	2.7	10.9
군입대 대기	-	-	-	-	-	-	-	-	-
결혼준비	-	-	-	-	-	-	-	-	-
쉬었음	28.6	18.2	-	24.3	22.4	26.4	28.2	22.9	24.2
기타	0.6	0.5	-	1.0	0.5	0.4	1.0	0.4	0.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9,705	861,891	-	413,756	886,907	770,935	515,293	1,556,303	2,071,596

〈부표 2-7-2〉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의 근로 또는 무급 근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었음	0.2	0.0	-	0.6	0.0	0.0	0.0	0.2	0.1
무급가족종사자	1.2	1.4	-	1.3	1.9	0.9	0.5	1.8	1.3
없었음	98.5	98.6	-	98.1	98.1	99.1	99.5	98.1	98.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42,671	663,495	-	243,835	450,323	612,007	440,306	865,860	1,306,166

〈부표 2-7-3〉 지난 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의 존재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시적 병·사고	1.0	0.5	-	0.8	1.7	0.0	0.5	0.9	0.7
조업중단	0.1	0.4	-	0.0	0.7	0.1	0.1	0.4	0.3
없었음	98.9	99.1	-	99.1	97.6	99.9	99.4	98.8	99.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3,272	653,893	-	239,213	441,717	606,236	438,029	849,136	1,287,165

〈부표 2-7-4〉 지난 주 구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해 보았음	7.3	1.9	-	8.2	8.0	0.7	2.2	5.8	4.6
구해 보지 않았음	92.7	98.1	-	91.8	92.0	99.3	97.8	94.2	95.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4,127	657,417	-	240,345	439,669	611,529	437,564	853,978	1,291,544

〈부표 2-7-5〉 지난 4주내 구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구해 보았음	1.6	0.8	-	2.6	1.7	0.3	0.6	1.5	1.2
구해 보지 않았음	98.4	99.2	-	97.4	98.3	99.7	99.4	98.5	98.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87,621	645,023	-	220,641	404,633	607,370	428,030	804,613	1,232,644

〈부표 2-7-6〉 취업자의 지난 주 근무시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8시간 미만 무급 가족봉사자	1.4	4.5	-	1.8	1.9	3.5	2.8	2.1	2.2
1~35시간	36.7	45.5	-	23.1	38.8	56.8	46.6	38.2	39.1
36시간 이상	61.9	50.0	-	75.1	59.3	39.7	50.5	59.7	58.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83,545	214,076	-	176,598	455,847	165,176	80,005	717,616	797,621

〈부표 2-7-7〉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영업	48.3	43.4	-	26.4	44.1	77.5	42.9	47.5	47.0
일반사업체	42.5	36.6	-	59.5	43.3	14.3	34.1	41.7	41.0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4.3	4.6	-	4.3	5.6	0.9	4.8	4.3	4.3
장애인 보호작업장	1.0	2.2	-	3.7	0.9	0.0	9.6	0.4	1.3
장애인근로사업장	0.4	0.1	-	1.3	0.0	0.0	1.8	0.1	0.3
장애인관련기관	0.5	3.0	-	0.8	1.7	0.0	3.3	0.9	1.2
기타	3.0	10.1	-	3.9	4.4	7.2	3.5	5.0	4.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5,579	204,474	-	173,411	447,240	159,405	77,729	702,325	780,053

〈부표 2-7-8〉 취업장애인의 현 직장 근무 기간, 일수,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

(단위: 개월, 일, 시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평균 근무기간	202.3	143.5	-	71.6	170.2	359.2	160.1	189.9	186.9
평균 근무일수	5.0	4.9	-	5.2	5.0	4.7	4.9	5.0	5.0
평균 근무시간	8.3	7.0	-	8.4	8.1	7.0	7.1	8.0	7.9
월평균 수입	135.6	59.3	-	157.1	121.7	53.1	90.5	118.3	115.6

〈부표 2-7-9〉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임금									
상용근로자	26.9	18.5	-	46.3	22.9	6.1	29.4	24.2	24.7
근로자									
임시근로자	8.6	5.9	-	11.6	8.7	1.5	8.3	7.8	7.9
일용근로자	16.2	32.1	-	15.6	24.2	14.8	19.4	20.5	20.4
고용주	4.4	0.5	-	4.2	3.8	1.0	1.2	3.6	3.3
비임금근로자									
자영자(노점제외)	38.1	24.4	-	18.2	30.7	62.9	28.0	35.2	34.5
자영자2(노점)	2.7	2.3	-	1.0	3.1	2.9	3.8	2.5	2.6
무급가족봉사자	3.2	16.2	-	3.0	6.5	10.7	9.9	6.2	6.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5,580	204,475	-	173,410	447,239	159,404	77,729	702,324	780,055

〈부표 2-7-10〉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낮은 수입	45.1	46.6	-	37.8	45.0	55.5	41.0	46.0	45.5
직장 내의 대인관계	2.3	0.8	-	3.9	1.6	0.5	4.5	1.6	1.9
승진문제	0.1	0.0	-	0.0	0.1	0.0	0.7	0.0	0.1
업무과다	15.8	18.6	-	15.5	16.4	17.9	11.0	17.1	16.5
직무관련기능 부족	2.6	1.5	-	4.2	2.0	1.4	5.3	2.0	2.3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0.6	0.5	-	0.3	0.7	0.3	1.7	0.4	0.5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1.4	0.2	-	2.8	0.7	0.4	3.2	0.9	1.1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3.4	2.1	-	5.9	2.4	1.9	6.7	2.7	3.1
출퇴근 불편	1.1	3.0	-	3.2	0.5	2.8	2.2	1.5	1.6
성차별	0.0	0.0	-	0.0	0.0	0.0	0.0	0.0	0.0
성희롱	-	-	-	-	-	-	-	-	-
어려움 없음	27.4	26.6	-	26.6	30.2	19.1	22.3	27.7	27.2
기타	0.2	0.1	-	0.0	0.3	0.1	1.5	0.1	0.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5,582	204,474	-	173,409	447,238	159,405	77,729	702,326	780,056

〈부표 2-7-11〉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한다	13.7	8.6	-	21.0	11.4	5.6	16.6	11.9	12.3
약간 만족한다	21.7	24.5	-	25.2	20.6	24.4	23.1	22.4	22.4
보통이다	35.2	37.2	-	36.4	34.6	38.1	31.1	36.3	35.7
약간 불만족한다	20.7	25.3	-	14.2	23.4	26.2	21.3	22.0	21.9
매우 불만족한다	8.7	4.4	-	3.2	10.0	5.6	8.0	7.5	7.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5,580	204,475	-	173,409	447,241	159,404	77,728	702,325	780,055

〈부표 2-7-12〉 실업자의 경우 지난주에 일이 있었을 시 근무 가능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었음	99.4	87.2	-	99.7	94.0	100.0	99.6	95.9	96.5
없었음	0.6	12.8	-	0.3	6.0	0.0	0.4	4.1	3.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963	17,398	-	25,527	41,809	6,026	12,217	61,145	73,361

〈부표 2-7-13〉 실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	8.9	11.9	-	14.1	7.7	2.4	29.6	5.4	9.5
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3.5	20.7	-	1.9	8.3	21.9	4.7	7.7	7.2
취직시험 응시	3.1	0.0	-	6.7	0.0	0.0	0.0	2.9	2.4
신문, 잡지 등을 보고 (오프라인을 통해 응모)	35.7	24.9	-	21.7	41.8	28.1	17.7	36.7	33.4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구직등록 또는 응모	16.6	28.1	-	39.4	8.8	0.0	17.2	19.4	19.0
학교 학원 추천	0.0	3.0	-	1.8	0.0	0.0	3.7	0.0	0.6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4.2	0.8	-	0.4	3.1	18.7	0.9	4.0	3.5
친구, 친지 소개	26.5	10.4	-	13.8	29.4	20.4	25.9	22.4	23.0
자영업 준비	1.3	0.0	-	0.2	0.6	7.5	0.3	1.2	1.0
기타	0.3	0.2	-	0.0	0.4	0.9	0.0	0.4	0.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617	15,168	-	25,455	39,303	6,025	12,164	58,620	70,785

〈부표 2-7-14〉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경우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등	33.8	28.6	-	37.9	27.5	0.0	37.0	27.2	32.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록	42.2	5.6	-	24.3	43.6	0.0	44.4	18.7	32.4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8	0.0	-	23.1	1.7	0.0	0.0	27.9	13.0
기타	6.2	65.8	-	14.8	27.2	100.0	18.5	26.3	22.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950	1,809	-	3,599	3,015	144	3,596	3,161	6,759

〈부표 2-7-15〉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전공·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7	0.1	-	1.8	2.5	0.4	0.7	1.7	1.4
임금수준·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7.6	9.2	-	16.4	21.0	6.9	10.4	14.7	13.2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4	2.6	-	3.2	5.0	2.5	2.7	3.9	3.5
교육, 기술, 경력이 부족해서	2.9	0.7	-	5.1	2.3	0.3	2.4	1.4	1.8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1.9	1.1	-	0.1	0.5	2.7	0.5	2.0	1.5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6.6	3.4	-	6.6	8.4	1.9	5.3	4.7	4.9
육아	0.3	1.5	-	3.9	0.1	0.3	0.0	1.4	0.9
가사	0.8	27.7	-	10.9	22.5	11.4	5.8	19.8	14.9
통학	2.7	1.7	-	10.5	0.3	0.4	3.6	1.4	2.2
심신장애	29.7	21.0	-	32.2	31.1	18.7	54.1	9.6	25.1
고령	23.4	26.4	-	0.0	0.3	50.0	11.6	32.1	24.9
기타	7.1	4.6	-	9.2	5.9	4.5	2.9	7.4	5.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8,164	640,016	-	214,817	397,859	605,503	425,347	792,834	1,218,180

〈부표 2-7-16〉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4.2	1.0	-	6.6	2.9	0.7	3.2	2.3	2.6
임금이 너무 낮아서	1.3	0.2	-	0.8	1.0	0.5	0.4	0.9	0.8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6.3	13.9	-	24.3	31.9	9.7	14.4	22.8	20.0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1.2	0.3	-	1.1	1.2	0.2	0.3	0.9	0.7
출퇴근이 힘들어서	0.3	0.5	-	0.3	0.6	0.3	0.4	0.4	0.4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서	25.8	20.0	-	28.4	27.9	17.1	51.1	8.4	22.9
다른 질병 때문에	7.1	6.6	-	4.9	7.6	7.1	4.2	8.2	6.8
나이가 많아서	19.9	27.0	-	0.0	1.0	48.9	11.6	29.6	23.5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0.9	19.6	-	11.1	13.9	7.7	3.6	14.0	10.5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0.8	0.7	-	0.6	1.7	0.1	0.5	0.9	0.8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2.2	1.3	-	4.8	2.3	0.2	2.0	1.6	1.8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6.5	6.5	-	4.4	7.0	7.0	3.9	7.9	6.5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	0.1	0.0	-	0.2	0.0	0.0	0.0	0.0	0.0
재학중이기 때문에	2.4	1.3	-	9.4	0.2	0.0	3.5	1.0	1.8
기타	1.0	1.1	-	3.1	0.8	0.5	0.7	1.2	1.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3,548	657,377	-	239,766	439,667	611,489	436,987	853,938	1,290,925

〈부표 2-7-17〉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3	1.8	-	12.5	3.1	0.2	5.4	3.4	3.9
훈련중	0.4	0.1	-	1.4	0.0	0.0	0.7	0.2	0.3
아니오	94.2	98.0	-	86.1	96.8	99.8	93.9	96.4	95.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9,706	861,890	-	413,755	886,908	770,933	515,293	1,556,304	2,071,596

〈부표 2-7-18〉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5.6	28.7	-	23.2	28.5	27.0	23.6	28.0	26.9
등록절차를 몰라서	2.2	1.6	-	1.5	3.2	0.8	0.6	2.4	1.9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9.2	9.5	-	17.2	9.6	5.3	28.9	3.0	9.3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0.8	0.2	-	1.0	0.5	0.4	0.3	0.6	0.5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	2.0	0.5	-	4.8	1.2	0.0	1.0	1.5	1.4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6.5	3.0	-	7.3	6.4	2.4	4.0	5.3	5.0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51.0	53.9	-	40.4	48.1	62.3	38.0	56.8	52.2
접근처에 훈련기관이 없어서	2.4	2.2	-	4.5	2.0	1.6	3.2	2.0	2.3
기타	0.3	0.4	-	0.3	0.5	0.2	0.3	0.3	0.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9,787	844,795	-	356,174	858,951	769,452	483,783	1,500,795	1,984,582

〈부표 2-7-19〉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기계분야	12.6	0.0	-	5.9	10.7	4.4	5.2	9.0	8.2
금속분야	0.7	0.0	-	0.8	0.2	0.5	1.4	0.2	0.5
화학·요업분야	0.7	0.1	-	0.1	0.9	0.0	0.2	0.6	0.5
전기·전자분야	6.1	0.5	-	6.7	2.6	0.4	6.2	3.6	4.2
통신분야	1.6	0.0	-	2.3	0.2	0.1	0.5	1.2	1.1
조선·항공분야	1.1	0.0	-	0.4	1.2	0.0	0.9	0.7	0.8
토목·건축분야	12.4	0.6	-	4.7	11.0	9.8	3.6	9.5	8.3
섬유분야	2.3	5.5	-	2.6	3.3	8.8	2.8	3.6	3.4
광업분야	-	-	-	-	-	-	-	-	-
컴퓨터·정보처리분야	30.0	20.8	-	32.5	20.9	34.0	31.2	25.6	26.8
공예분야	2.6	12.2	-	6.3	5.2	9.0	10.8	4.6	6.0
산업응용분야	0.7	0.1	-	1.0	0.1	0.0	0.0	0.6	0.5
침술·안마분야	5.1	2.6	-	1.5	6.5	3.7	3.1	4.5	4.2
사무분야	5.6	10.2	-	9.3	6.4	1.3	6.8	7.3	7.2
이·미용분야	1.3	9.5	-	1.8	5.9	6.3	3.5	4.4	4.2
제과·제빵분야	3.3	12.7	-	8.9	5.3	2.1	7.7	6.3	6.6
기타서비스분야	9.4	10.5	-	7.4	11.5	11.3	8.3	10.2	9.8
기타	4.3	14.6	-	7.7	8.0	8.4	7.8	7.9	7.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4,026	146,782	-	176,319	211,509	32,978	90,342	330,464	420,808

〈부표 2-7-20〉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16.1	14.0	-	21.7	15.9	11.0	20.6	13.5	15.2
취업정보 제공	14.1	15.2	-	10.4	14.4	16.9	10.1	16.0	14.5
직업능력 개발	17.0	14.6	-	21.2	15.4	13.9	21.6	14.2	16.0
취업상담·평가·알선	17.9	20.8	-	17.3	18.6	20.7	14.6	20.6	19.1
사후지도	1.8	2.5	-	2.1	1.7	2.5	3.4	1.6	2.1
임금보조	16.5	22.6	-	1.7	18.1	24.1	15.5	20.2	19.0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8	3.7	-	3.7	2.8	3.2	3.4	3.1	3.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12.1	5.3	-	10.3	11.1	6.6	8.8	9.5	9.3
업무보조서비스·근로지원서비스	1.6	1.3	-	1.4	1.9	1.0	1.8	1.4	1.5
기타	0.0	0.1	-	0.1	0.1	0.0	0.1	0.0	0.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8,253	854,041	-	413,165	885,373	763,754	513,649	1,548,643	2,062,294

제8절 사회 및 여가활동

〈부표 2-8-1〉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85.8	80.5	50.5	83.8	89.5	80.9	55.8	93.3	83.6
아니오	14.2	19.5	49.5	16.2	10.5	19.7	44.2	6.7	1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8-2〉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거의 매일	73.3	57.2	94.3	69.2	71.0	57.4	48.6	72.9	66.6
주 1~3회	17.3	26.4	2.1	19.9	20.2	24.7	24.7	19.8	21.1
월 1~3회	5.5	9.4	1.8	5.8	5.5	10.3	12.7	5.2	7.1
년 10회 이내	3.1	5.2	1.4	4.0	2.8	5.6	10.9	1.5	3.9
전혀 외출 않음	0.9	1.7	0.4	1.1	0.6	2.1	3.1	0.5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8-3〉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통근·통학	48.9	25.3	95.4	47.0	46.7	19.9	23.8	44.0	39.3
병원 진료	7.6	16.1	0.8	5.9	9.4	17.1	20.1	8.3	11.1
쇼핑(물건사기)	1.6	8.9	0.2	7.6	4.5	3.6	5.0	4.5	4.6
산책	24.2	21.8	1.4	16.4	22.1	30.7	27.8	21.8	23.2
친척,친구,이웃방문	8.1	13.1	0.1	9.2	8.8	13.3	7.2	11.0	10.1
여행	0.0	0.0	0.0	0.0	0.1	0.0	0.1	0.0	0.0
지역시설 이용/행사 참여	7.4	13.6	1.8	10.4	6.7	14.5	15.0	8.4	9.9
일자리 구하기	1.1	0.0	0.0	1.5	0.7	0.2	0.2	0.8	0.7
기타	1.0	1.2	0.4	2.0	1.2	0.7	1.0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2,845	824,284	81,187	376,465	857,322	712,155	476,264	1,550,868	2,027,129

〈부표 2-8-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교통이 불편해서	1.1	0.4	0.0	0.0	0.7	0.9	1.0	0.0	0.7
주차시설 등 편의 시설 부족	2.1	0.0	0.0	0.0	3.3	0.1	0.1	3.0	0.9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61.9	65.3	82.5	50.7	59.9	69.8	65.2	60.4	63.8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	19.7	22.9	17.5	29.4	19.3	19.9	21.9	20.5	21.5
시간이 없어서	0.1	0.8	0.0	0.3	1.6	0.0	0.1	1.4	0.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12.1	8.8	0.0	18.0	14.9	5.6	9.5	12.1	10.3
주위의 시선 때문에	2.0	0.6	0.0	1.6	0.2	1.6	1.7	0.1	1.2
기타	1.1	1.2	0.0	0.0	0.1	2.1	0.6	2.5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9,134	60,963	1,514	20,219	29,586	58,778	77,486	32,609	110,097

〈부표 2-8-5〉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불편하다	11.5	15.9	23.0	10.6	10.6	17.0	31.6	7.7	13.3
약간 불편하다	20.5	26.5	39.0	22.1	21.1	23.7	30.4	20.7	22.9
보통이다	22.3	25.4	7.7	16.7	22.8	30.0	17.0	25.6	23.6
거의 불편하지 않다	29.1	22.5	16.8	30.9	28.9	22.2	15.5	29.8	26.4
전혀 불편하지 않다	16.5	9.6	13.5	19.7	16.6	7.1	5.5	16.2	1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2,845	824,283	81,186	376,465	857,323	712,156	476,262	1,550,868	2,027,128

〈부표 2-8-6〉 집박 활동시 불편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	48.5	46.4	4.4	39.6	53.8	52.5	30.8	58.7	47.5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35.5	41.1	73.7	34.3	29.9	41.4	55.5	26.5	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5.1	12.2	21.8	25.3	15.4	5.8	13.2	14.1	13.7
기타	0.9	0.2	0.1	0.8	0.9	0.3	0.5	0.7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5,112	349,707	50,284	123,169	271,485	289,881	294,966	439,853	734,819

〈부표 2-8-7〉 주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버스	29.4	45.0	22.0	29.3	34.3	42.5	26.3	38.7	35.8
일반택시	6.2	8.0	1.8	5.5	5.0	10.6	9.8	6.1	6.9
지하철·전철	11.2	9.2	6.4	9.4	12.2	9.2	8.5	11.0	10.4
장애인 콜택시	0.3	0.4	0.5	0.3	0.3	0.3	1.2	0.0	0.3
복지관버스	0.3	0.6	0.9	0.5	0.2	0.7	0.9	0.3	0.4
자가용	36.5	25.8	37.4	41.7	35.3	22.8	31.9	32.3	32.2
셔틀형 복지버스	0.4	0.3	2.9	0.5	0.1	0.2	1.1	0.1	0.3
전동휠체어	1.1	0.5	0.0	0.5	0.7	1.3	2.5	0.4	0.9
전동스쿠터	0.9	0.7	0.0	0.7	0.4	1.4	1.9	0.5	0.8
도보	4.2	5.2	11.1	5.0	3.9	4.6	5.1	4.5	4.6
기타	9.4	4.4	17.0	6.7	7.6	6.4	10.9	6.3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2,846	824,283	81,186	376,464	857,323	712,157	476,262	1,550,867	2,027,129

〈부표 2-8-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어렵다	9.7	14.0	9.8	6.3	9.8	16.3	22.4	8.1	11.4
약간 어렵다	14.5	23.2	10.9	12.0	15.3	25.4	18.8	17.8	18.0
보통이다	17.8	22.3	21.2	14.5	20.4	21.3	20.6	19.3	19.6
거의 어렵지 않다	32.8	25.8	32.2	34.5	30.9	26.2	24.7	31.6	30.0
전혀 어렵지 않다	25.2	14.6	25.9	32.7	23.6	10.9	13.4	23.2	2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2,846	824,284	81,186	376,465	857,323	712,154	476,261	1,550,868	2,027,130

〈부표 2-8-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60.0	69.6	54.0	58.6	55.2	74.0	55.7	69.5	64.9
편의시설 부족	20.8	17.9	6.4	18.1	25.7	15.7	15.4	21.3	19.3
전용 교통수단 부족	11.6	8.8	22.1	11.7	11.0	8.5	19.6	5.5	10.1
장애인용 자가용 보급 및 운전면허증 확보가 어려워서	1.4	1.0	0.0	3.4	2.2	0.0	2.8	0.4	1.2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0.8	0.3	0.0	0.6	0.5	0.6	1.2	0.2	0.5
기타	5.4	2.4	17.5	7.6	5.4	1.1	5.3	3.2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90,804	307,043	16,826	68,943	215,087	296,991	196,605	401,245	597,847

〈부표 2-8-10〉 현재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	39.0	32.0	31.0	32.1	33.6	41.6	41.3	34.3	36.1
여행	2.3	0.9	3.2	3.4	1.9	0.6	1.4	1.9	1.7
문화예술 관람	0.9	0.4	2.1	1.7	0.7	0.0	0.4	0.9	0.7
스포츠 관람	0.1	0.0	0.1	0.0	0.0	0.1	0.1	0.0	0.0
스포츠 활동	5.2	1.3	6.4	4.3	4.8	1.5	2.3	4.1	3.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5.5	1.8	20.9	11.0	2.5	0.2	5.8	3.3	3.9
창작적 취미	2.9	1.3	5.5	2.9	2.0	1.8	3.1	1.9	2.2
자기계발	0.4	0.2	0.9	0.6	0.4	0.0	0.7	0.2	0.3
봉사활동	0.5	0.3	0.0	0.4	0.8	0.1	0.6	0.4	0.4
종교활동	8.2	17.3	14.3	11.5	12.5	11.4	11.2	12.2	12.0
가사	1.8	16.3	0.1	9.3	8.7	6.9	3.4	9.4	7.8
휴식	20.1	19.3	8.7	14.8	21.2	21.9	21.9	19.0	19.8
사교관련일	7.7	5.8	3.4	4.5	6.8	8.6	2.7	8.4	6.9
기타	5.3	3.2	3.6	3.5	4.1	5.3	5.2	4.1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8-11〉 향후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	9.7	8.7	7.5	5.2	7.2	14.0	14.2	7.6	9.3
여행	40.3	35.5	26.0	34.2	43.8	35.4	27.2	42.2	38.3
문화예술 관람	3.2	3.4	12.0	7.2	3.0	0.6	5.1	2.6	3.3
스포츠 관람	1.4	0.1	0.2	1.4	1.3	0.2	1.0	0.8	0.9
스포츠 활동	10.6	3.4	16.8	14.4	8.5	2.1	6.7	7.9	7.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1	1.4	7.2	4.6	1.1	0.6	2.5	1.6	1.8
창작적 취미	3.0	4.4	10.8	6.0	3.4	1.8	5.2	3.0	3.6
자기계발	3.7	4.8	12.3	7.6	4.6	1.0	4.3	4.1	4.2
봉사활동	5.2	5.1	0.4	5.7	6.0	4.4	3.1	5.9	5.2
종교활동	4.5	10.5	2.9	3.8	6.4	9.6	7.1	6.9	7.0
가사	0.2	2.7	0.0	1.6	1.0	1.5	1.7	1.1	1.2
휴식	7.5	9.6	2.1	5.0	6.1	13.4	13.3	6.6	8.4
사교관련일	7.4	8.6	0.9	2.2	6.4	13.4	6.1	8.5	7.9
기타	1.2	1.8	1.0	1.2	1.1	2.0	2.6	1.0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8-12〉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5.3	3.0	7.0	5.1	4.6	3.5	3.8	4.6	4.4
약간 만족	16.1	13.1	22.4	19.3	13.2	13.6	14.5	14.9	14.8
보통	40.0	38.4	34.6	34.4	38.1	43.8	33.1	41.5	39.3
약간 불만	25.0	29.6	24.6	29.6	28.1	24.4	23.6	28.1	26.9
매우 불만	13.7	15.8	11.4	11.6	15.9	14.8	25.0	10.9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8-13〉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경제적 부담	37.5	34.0	46.0	42.7	38.5	27.9	21.0	42.4	35.9
시간이 부족	10.3	8.4	2.2	18.1	13.0	0.9	1.7	12.9	9.5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이 불편	0.4	1.0	1.6	0.7	0.5	0.8	1.4	0.3	0.7
도우미가 없어서	2.9	3.5	10.3	5.7	1.8	2.8	7.8	1.2	3.2
여가시설 부족	1.5	1.4	3.2	1.7	1.3	1.4	2.4	1.1	1.5
여가시설내 편의시설 부족	2.9	1.5	6.9	0.9	2.8	1.9	1.9	2.4	2.3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2.7	2.0	9.8	3.2	3.1	0.3	3.7	1.8	2.4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9.1	6.7	5.5	7.1	8.4	8.3	6.7	8.6	8.0
건강이나 체력 부족	32.6	41.0	14.6	20.0	29.9	55.7	53.4	29.0	36.4
기타	0.0	0.5	0.0	0.0	0.5	0.0	0.0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83,819	401,903	29,704	163,485	390,597	301,931	268,907	616,814	885,722

〈부표 2-8-14〉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77.1	69.7	0.0	59.3	82.6	79.7	53.8	81.1	74.0
아니오	18.4	26.6	0.0	39.1	17.4	20.3	36.4	16.7	21.8
비해당(투표권 없었음)	4.5	3.7	100.0	1.6	0.0	0.0	9.8	2.2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8-15〉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교통이 불편	2.5	4.1	-	0.9	4.7	4.4	2.2	4.2	3.3
편의시설 부족	0.4	0.2	-	0.0	0.6	0.3	0.7	0.0	0.3
몸이 불편	34.7	53.4	-	22.2	38.0	71.9	57.5	33.9	44.1
도우미가 없어서	2.7	2.5	-	3.4	2.6	1.7	4.9	0.8	2.6
정보 부족	2.3	3.0	-	4.6	1.7	1.7	2.9	2.5	2.7
시간이 없어서	10.0	3.0	-	13.6	5.1	0.7	1.4	10.3	6.5
본인이 하고 싶지않 아서	45.5	30.9	-	51.1	44.9	18.7	26.9	46.7	38.2
주위의 시선때문에	1.4	1.3	-	2.3	1.2	0.4	2.3	0.6	1.3
기타	0.5	1.5	-	1.8	1.1	0.2	1.2	0.9	1.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0,885	235,069	-	155,164	153,933	156,858	201,457	264,496	465,954

제9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부표 2-9-1〉 결혼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4.5	72.2	8.1	54.6	78.5	36.4	73.9	60.8
아니오	45.0	27.4	91.8	45.3	20.8	63.4	25.6	38.8
기타(미혼모/ 미혼부등)	0.4	0.4	0.0	0.1	0.7	0.2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5,320	195,403	84,913	158,265	307,545	192,275	358,448	550,723

〈부표 2-9-2〉 결혼시 연령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0~19세	0.0	4.0	0.4	2.2	1.6	4.7	0.9	1.7
20~29세	63.5	78.7	99.6	75.1	67.2	61.7	72.1	69.9
30~39세	32.8	14.7	-	22.7	26.8	29.2	24.2	25.2
40~49세	3.6	2.6	-	-	4.4	4.4	2.9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3,685	141,081	6,911	86,369	241,487	69,996	264,771	334,766

〈부표 2-9-3〉 결혼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0.1	48.6	50.7	59.7	45.7	52.6	48.6	49.4
아니오	49.9	51.4	49.3	40.3	54.3	47.4	51.4	5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3,685	141,081	6,911	86,369	241,487	69,996	264,771	334,766

〈부표 2-9-4〉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7.6	15.2	12.4	14.9	9.3	26.5	6.7	10.8
아니오	92.4	84.8	87.6	85.1	90.7	73.5	93.3	8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3,685	141,081	6,911	86,369	241,487	69,996	264,771	334,766

〈부표 2-9-5〉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지체장애	44.8	37.8	54.5	34.2	43.7	25.0	56.9	40.6
뇌병변장애	6.6	5.1	-	10.3	3.3	9.1	2.1	5.7
시각장애	2.8	5.5	-	6.8	3.2	2.2	6.6	4.4
청각장애	27.7	18.9	-	16.7	26.7	36.3	8.0	22.5
언어장애	3.6	3.6	-	8.8	0.8	2.4	4.9	3.6
지적장애	5.1	22.0	42.9	13.7	14.9	16.2	14.0	15.1
자폐성장애	-	-	-	-	-	-	-	-
정신장애	8.5	4.4	-	6.3	6.2	8.3	3.8	6.1
신장장애	0.9	0.1	2.6	0.1	0.5	0.4	0.4	0.4
심장장애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간장애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간질장애	-	2.6	-	3.0	0.7	-	3.1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73	21,455	857	12,844	22,527	18,523	17,704	36,228

〈부표 2-9-6〉 배우자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급	19.0	26.8	-	28.8	21.6	36.7	10.4	23.6
2급	36.9	25.2	2.6	20.1	36.5	38.5	21.6	30.0
3급	19.5	30.2	95.2	25.3	23.3	9.4	42.3	25.8
4급	5.1	11.3	-	20.9	2.4	11.2	6.3	8.7
5급	19.4	3.6	-	2.1	14.9	4.3	16.0	10.1
6급	0.1	2.9	2.1	2.8	1.2	-	3.5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84	20,765	857	12,197	22,295	17,738	17,611	35,348

〈부표 2-9-7〉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0.7	5.0	9.4	12.8	5.0	5.8	13.8	9.2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9.7	10.6	11.0	6.4	12.5	7.8	12.7	9.9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1.4	2.8	1.1	1.8	2.5	2.6	0.6	1.8
건강문제와 장애때문에	47.1	63.7	29.4	62.9	64.7	63.7	34.7	51.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8.6	1.0	2.2	14.1	3.9	3.3	11.3	6.7
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어려워서	0.1	-	-	0.2	-	0.1	-	0.1
결혼 적령기를 놓쳐서	3.1	4.9	-	0.5	11.3	0.7	7.4	3.6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러서	19.1	11.9	46.8	0.5	-	15.9	19.0	17.3
기타	0.3	-	-	0.7	-	-	0.5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0,051	53,516	77,976	71,742	63,850	121,807	91,761	213,568

〈부표 2-9-8〉 자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88.2	88.5	90.2	84.6	89.6	79.4	90.7	88.3
아니오	11.8	11.5	9.8	15.4	10.4	20.6	9.3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5,268	141,886	6,937	86,523	243,695	70,468	266,687	337,155

〈부표 2-9-9〉 자녀의 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명	28.3	29.1	59.2	33.2	26.2	36.3	26.8	28.6
2명	55.4	55.1	40.8	54.4	56.0	50.9	56.3	55.3
3명	16.1	13.8	-	12.0	16.6	11.9	15.9	15.1
4명	0.2	1.8	-	0.4	1.1	0.8	0.9	0.9
5~9명	0.0	0.2	-	0.1	0.1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2,289	125,585	6,255	73,196	218,424	55,943	241,931	297,875

〈부표 2-9-10〉 장애자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2.7	4.5	-	3.8	3.4	7.2	2.6	3.4
아니오	97.3	95.5	100.0	96.2	96.6	92.8	97.4	9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2,289	125,585	6,255	73,196	218,424	55,943	241,931	297,875

〈부표 2-9-11〉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지체장애	2.2	14.7	-	27.0	2.2	16.7	4.0	9.0
뇌병변장애	-	0.6	-	-	0.5	-	0.6	0.4
시각장애	-	2.5	-	-	1.9	-	2.3	1.4
청각장애	3.5	15.8	-	3.8	12.6	21.5	2.9	10.2
언어장애	10.7	0.4	-	0.8	6.7	3.4	6.2	5.1
지적장애	42.9	38.8	-	68.4	30.2	14.0	57.9	40.6
자폐성장애	12.4	0.5	-	-	8.1	13.0	1.3	5.9
정신장애	0.3	12.0	-	-	9.2	11.0	3.9	6.7
신장장애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간장애	26.8	-	-	-	16.7	-	20.0	12.1
안면장애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간질장애	1.4	14.6	-	-	11.8	20.4	1.0	8.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648	5,600	-	2,800	7,449	4,022	6,227	10,249

〈부표 2-9-12〉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급	12.6	10.2	-	7.2	12.8	23.5	3.4	11.3
2급	23.4	56.4	-	25.6	47.4	60.8	28.9	41.5
3급	35.0	32.2	-	67.2	20.8	15.7	45.0	33.5
4급	-	-	-	-	-	-	-	-
5급	26.8	1.2	-	-	17.6	-	21.0	12.8
6급	2.2	-	-	-	1.4	-	1.6	1.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648	5,600	-	2,800	7,449	4,022	6,227	10,249

〈부표 2-9-13〉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남자	62.2	38.3	-	71.3	40.8	30.0	61.4	49.1
여자	37.8	61.7	-	28.7	59.2	70.0	38.6	50.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648	5,600	-	2,800	7,449	4,022	6,227	10,249

〈부표 2-9-14〉 제1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0-9세	52.9	9.1	-	71.8	12.9	19.1	35.3	29.0
10-19세	35.5	51.5	-	28.2	50.2	56.3	36.5	44.2
20세 이상	11.6	39.4	-	-	36.9	24.6	28.2	26.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648	5,600	-	2,800	7,449	4,022	6,227	10,249

〈부표 2-9-15〉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지체장애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청각장애	-	6.0	-	-	1.9	4.7	-	1.8
언어장애	46.9	6.8	-	36.6	34.8	-	56.7	34.9
지적장애	2.0	7.3	-	63.4	-	-	5.8	3.6
자폐성장애	4.4	-	-	-	3.2	-	5.0	3.1
정신장애	-	66.5	-	-	21.2	-	32.5	20.0
신장장애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간장애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간질장애	46.7	13.4	-	-	38.9	95.3	-	36.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71	332	-	62	1,041	425	679	1,103

〈부표 2-9-16〉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급	-	-	-	-	-	-	-	-
2급	51.1	26.7	-	39.0	44.0	100.0	8.6	43.8
3급	48.9	73.3	-	61.0	56.0	-	91.4	56.2
4급	-	-	-	-	-	-	-	-
5급	-	-	-	-	-	-	-	-
6급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71	332	-	62	1,041	425	679	1,103

〈부표 2-9-17〉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남자	53.3	6.8	-	61.0	38.0	-	63.9	39.3
여자	46.7	93.2	-	39.0	62.0	100.0	36.1	60.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71	332	-	62	1,041	425	679	1,103

〈부표 2-9-18〉 제2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0~9세	48.9	20.1	-	100.0	36.7	4.7	62.5	40.2
10~19세	51.1	79.9	-	-	63.3	95.3	37.5	59.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71	332	-	62	1,041	425	679	1,103

〈부표 2-9-19〉 자녀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46.8	20.4	-	48.6	30.1	27.7	40.6	35.9
학업, 직장, 경제적 이유로 임신 연기	16.7	0.8	-	4.7	13.2	4.5	13.4	10.1
건강·장애문제	11.3	35.5	9.9	26.7	18.8	30.4	16.1	21.4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	7.7	6.4	53.9	5.7	6.7	6.0	7.9	7.2
자녀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2.4	2.4	-	-	3.7	1.9	2.6	2.4
배우자가 원치 않아	8.3	11.0	-	3.3	12.9	4.7	12.2	9.4
친정, 시댁식구들이 원치 않아서	0.5	0.4	-	0.2	0.6	1.0	0.2	0.5
기타	6.2	23.2	36.2	10.6	14.0	23.8	7.0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2,979	16,301	682	13,327	25,271	14,524	24,756	39,280

〈부표 2-9-2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전혀 없다	37.0	32.7	43.9	36.2	34.6	18.2	39.2	35.2
별로 없다	23.0	26.5	2.1	36.7	20.8	15.9	26.5	24.5
보통이다	10.9	8.0	7.7	4.8	11.5	10.5	9.5	9.7
약간 많다	22.0	21.4	11.0	16.3	24.0	25.9	20.8	21.8
매우 많다	7.1	11.3	35.2	5.9	9.1	29.6	4.0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5,833	119,002	6,255	72,807	205,773	53,882	230,952	284,835

〈부표 2-9-21〉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없음	40.2	42.5	47.9	39.4	41.5	16.2	46.6	41.0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43.2	21.2	40.2	34.5	34.9	39.7	33.9	34.9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3.9	0.9	-	0.9	3.7	2.6	2.8	2.8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부족	2.5	8.9	-	7.3	4.1	4.9	4.9	4.9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0.9	0.5	-	0.4	0.9	0.6	0.7	0.7
양육과 관련된 정보부족	0.4	5.1	0.4	4.1	1.4	4.7	1.6	2.2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1.4	4.7	3.0	1.4	3.1	7.8	1.5	2.6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4.8	7.1	7.2	8.0	4.5	11.9	4.2	5.6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6	9.2	1.3	3.7	5.8	11.6	3.6	5.1
기타	0.2	-	-	0.4	0.0	-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3,507	92,440	6,255	72,203	167,490	45,003	200,945	245,948

〈부표 2-9-22〉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없음	37.8	42.5	97.3	29.8	42.6	16.9	44.8	39.6
학습지도	3.4	6.7	2.7	6.6	3.8	4.5	4.6	4.6
학교 갈 때 통행지도	0.0	0.1	-	0.2	0.0	-	0.1	0.1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0.0	2.9	-	2.0	0.8	4.5	0.3	1.1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51.7	27.4	-	42.9	43.0	47.7	41.4	42.6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6	7.2	-	2.8	4.1	12.6	1.7	3.7
자녀의 부모차별	0.1	0.5	-	0.1	0.3	0.9	0.1	0.3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	2.2	7.5	-	8.3	2.6	3.9	4.2	4.2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3.2	5.1	-	7.4	2.6	9.0	2.8	3.9
기타	-	0.1	-	0.1	-	0.1	-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8,150	82,830	1,942	60,981	158,057	41,114	179,866	220,980

〈부표 2-9-23〉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주요 분인이 함	7.5	81.5	18.5	39.4	39.0	31.6	40.5	38.7
가끔 도와줌	68.2	10.9	34.1	42.9	44.8	37.2	45.9	44.1
전혀 하지 않음	24.3	7.6	47.3	17.8	16.2	31.1	13.6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5,268	141,886	6,937	86,523	243,695	70,468	266,687	337,155

〈부표 2-9-24〉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인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36.6	72.6	8.4	25.3	53.1	82.5	19.5	43.3
아니오	63.4	27.4	91.6	74.7	46.9	17.5	80.5	5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460	10,754	3,282	15,371	39,560	21,945	36,269	58,214

〈부표 2-9-25〉 이혼경험시 이혼 사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배우자의 외도	4.5	13.3	-	3.6	11.8	7.5	10.9	9.7
학대 또는 폭력	0.5	27.5	-	10.8	18.5	15.2	17.2	16.5
성격차이	20.5	7.1	-	21.2	9.7	16.4	10.4	12.5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0.2	6.6	28.6	2.7	4.3	4.6	3.7	4.0
가족간 불화	15.1	6.1	-	11.0	9.4	5.6	12.0	9.7
경제적 문제	38.9	16.0	-	25.8	25.4	12.0	32.5	25.3
건강상 이유	20.3	21.8	71.4	21.0	20.9	36.2	13.0	21.2
기타	-	1.6	-	3.8	-	2.4	0.2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331	31,074	283	13,081	39,041	18,444	33,961	52,405

〈부표 2-9-26〉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녀의 부(남편)	71.6	39.7	-	76.2	46.7	36.9	61.1	53.7
자녀의 모(부인)	27.9	48.1	100.0	23.8	44.0	42.4	37.8	39.2
자녀의 조부모	0.5	10.9	-	-	8.3	18.3	1.1	6.3
기타	-	1.3	-	-	1.0	2.4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466	18,372	81	8,008	24,749	9,967	22,871	32,837

〈부표 2-9-27〉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100.0	67.0	53.8	50.4	60.2	57.8
아니오	-	33.0	46.2	49.6	39.8	4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58	34,160	88,626	30,128	93,616	123,744

〈부표 2-9-28〉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	2.4	18.0	5.6	14.7	12.8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	1.8	0.7	2.2	0.7	1.0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워서	-	1.4	7.5	5.0	5.6	5.5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72.0	18.6	25.1	44.4	18.1	23.7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25.3	5.4	8.1	21.4	3.7	7.5
본인의 건강악화	-	17.9	7.2	9.6	10.7	10.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2.7	8.6	7.5	1.2	9.5	7.8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	1.9	0.7	2.1	0.8	1.1
주위의 시선때문에	-	0.1	0.1	-	0.1	0.1
임신 출산 관련 정보 부족	-	1.7	0.6	2.7	0.4	0.9
어려움 없음	-	40.2	24.6	5.8	35.6	29.3
기타	-	-	0.1	-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58	22,890	47,677	15,176	56,349	71,525

〈부표 2-9-29〉 유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	42.1	53.0	41.8	50.6	48.7
아니오	100.0	57.9	47.0	58.2	49.4	5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58	23,436	47,696	15,176	56,914	72,090

〈부표 2-9-30〉 유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녀 원치 않음	-	0.6	14.6	28.5	6.8	10.7
남편가족의 반대로	-	4.8	8.7	14.0	6.2	7.6
태울조절	-	31.9	1.5	-	12.3	10.1
자궁외 임신	-	21.0	16.4	13.2	18.7	17.7
태아 이상	-	6.5	12.4	15.8	9.6	10.8
혼전 임신	-	1.9	1.3	-	1.8	1.5
본인의 장애때문에	-	1.7	2.9	5.8	1.9	2.6
경제적 어려움	-	0.4	15.9	-	14.1	11.6
기타	-	31.2	26.2	22.7	28.7	27.6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9,868	25,265	6,348	28,785	35,133

〈부표 2-9-31〉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97.7	91.9	90.9	83.4	93.5	91.3
아니오	2.3	8.1	9.1	16.6	6.5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58	23,590	47,714	15,330	56,932	72,262

〈부표 2-9-32〉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15~20세	2.8	-	1.3	1.4	0.8	0.9
21~25세	56.6	31.5	13.6	43.5	14.5	20.1
26~30세	40.6	44.4	45.9	18.2	51.8	45.3
31~35세	-	12.9	20.6	30.7	14.6	17.8
36~40세	-	11.1	12.5	5.1	13.5	11.8
41세 이상	-	-	6.2	1.1	4.8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5	21,677	43,384	12,790	53,207	65,997

〈부표 2-9-33〉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연분만	100.0	49.4	58.6	52.9	56.9	56.2
제왕절개	-	50.6	41.4	47.1	43.1	4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5	21,677	43,384	12,790	53,207	65,997

〈부표 2-9-34〉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현재 임신 중	100.0	-	-	-	0.6	0.4
자연 유산	-	16.4	13.9	33.8	1.5	14.6
인공 유산	-	83.6	86.1	66.2	97.8	8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	1,913	4,330	2,540	3,725	6,265

〈부표 2-9-35〉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본인의사	-	96.3	68.8	67.8	81.4	77.1
주위의 권유	-	3.7	31.2	32.2	18.6	22.9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600	3,726	1,681	3,645	5,326

〈부표 2-9-36〉 출산 전·후 산후조리 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남편	-	0.4	8.6	4.4	6.2	5.8
친정식구	100.0	67.2	50.8	49.8	58.6	56.9
시댁식구	-	16.7	17.3	26.9	14.5	16.9
복지기관	-	10.9	0.2	0.8	4.5	3.7
산후 조리원	-	0.2	0.9	2.4	0.3	0.7
산후 도우미	-	0.4	5.2	4.1	3.4	3.6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 했음)	-	3.6	16.1	11.6	11.8	11.8
기타	-	0.5	0.8	-	0.8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5	21,677	43,384	12,790	53,207	65,997

〈부표 2-9-37〉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충분하다	80.0	8.6	8.1	14.8	8.0	9.3
충분하다	-	47.1	30.0	34.6	35.3	35.2
보통이다	-	14.8	17.1	24.7	14.0	16.1
부족하다	20.0	28.0	25.2	14.1	28.9	26.0
매우 부족하다	-	1.5	19.6	11.8	13.8	1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5	21,677	43,384	12,790	53,207	65,997

〈부표 2-9-38〉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7.6	7.1	6.5	8.7	5.7	6.8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0.5	1.3	2.2	1.8	1.8	1.8
출산비용 지원	4.6	15.3	16.1	8.0	18.6	14.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11.9	13.3	5.2	9.6	7.2	8.1
산후조리 서비스	0.1	13.4	7.6	4.7	10.6	8.5
육아용품 대여	-	0.1	-	0.0	0.0	0.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1.1	15.6	13.1	12.3	14.3	13.6
자녀교육도우미	4.2	7.6	9.9	8.0	9.1	8.7
가사도우미	4.9	12.9	21.5	16.4	18.2	17.6
활동보조도우미	18.8	3.4	4.8	11.2	2.8	5.8
건강관리프로그램	5.8	4.4	8.8	6.6	7.7	7.3
상담서비스심리정서)	16.4	4.1	2.8	6.3	3.5	4.5
자조집단(멘토)	10.9	1.4	1.4	5.6	0.5	2.3
기타	3.1	-	-	0.8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191	48,579	111,509	63,996	113,283	177,279

〈부표 2-9-39〉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성장과정 중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	3.6	4.6	1.5	3.5	2.0	2.5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	-	7.9	7.9	6.8	7.3	7.1
교육기회 부족	9.1	6.9	12.6	13.7	9.1	10.7
사회화 기회의 부족	7.8	5.9	6.4	8.3	5.3	6.4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	6.8	6.3	5.3	7.8	4.5	5.7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39.1	3.9	11.5	21.8	6.6	12.1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18.2	38.3	35.2	23.9	40.3	34.4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	4.2	4.5	0.6	3.2	1.3	2.0
임신·출산의 어려움	1.1	8.1	2.5	3.9	3.9	3.9
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	9.5	13.0	9.2	5.6	12.9	10.3
기타	0.5	0.6	7.3	1.5	6.7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191	48,579	111,509	63,996	113,283	177,279

제10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부표 2-10-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6.0	29.1	38.9	41.6	36.3	24.5	27.0	35.3	33.1
약간 만족	33.3	35.2	36.4	31.8	32.7	36.6	33.0	34.5	34.1
보통	19.6	21.4	15.8	15.4	18.9	25.0	21.9	19.8	20.3
약간 불만족	7.5	10.6	7.9	7.1	8.2	10.5	11.3	7.9	8.8
매우 불만족	3.6	3.8	1.0	4.0	3.9	3.4	6.8	2.6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3.1	14.7	14.7	26.3	22.3	13.6	12.0	22.2	19.6
약간 만족	27.9	28.1	21.9	24.1	29.4	28.9	18.9	31.2	28.0
보통	21.1	25.5	25.0	19.2	22.4	25.1	23.2	22.8	22.9
약간 불만족	17.4	18.1	22.5	14.4	15.6	21.4	21.8	16.3	17.1
매우 불만족	10.6	13.6	15.9	16.0	10.3	11.0	24.1	7.6	1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2.9	15.9	23.6	25.3	19.9	17.0	18.2	20.7	20.0
약간 만족	33.1	36.0	40.7	33.3	33.9	34.4	32.1	35.0	34.3
보통	26.8	25.7	20.6	23.6	25.5	29.3	27.8	25.8	26.3
약간 불만족	13.2	18.0	11.3	13.1	16.3	15.3	16.2	14.8	15.2
매우 불만족	4.1	4.4	3.8	4.6	4.3	4.0	5.7	3.7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4〉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8.1	2.6	28.0	13.7	4.5	0.9	6.0	5.8	5.8
약간 만족	18.9	12.1	34.0	26.0	16.6	8.4	16.2	16.0	16.1
보통	27.8	21.6	16.2	26.3	27.4	23.1	20.9	26.8	25.3
약간 불만족	29.3	42.8	16.3	24.1	35.2	42.1	30.3	36.5	34.9
매우 불만족	15.9	20.9	5.4	9.8	16.3	25.4	26.6	15.0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1	1.3	0.2	2.3	1.9	1.4	1.4	1.9	1.8
약간 만족	9.3	9.1	11.4	11.0	8.6	9.0	9.3	9.2	9.2
보통	21.5	24.3	55.3	21.7	20.4	25.0	24.2	22.2	22.7
약간 불만족	32.4	30.8	18.9	36.1	30.5	31.1	27.7	33.0	31.7
매우 불만족	34.7	34.5	14.2	28.9	38.5	33.5	37.4	33.7	3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9,705	861,891	17,071	396,683	886,909	770,934	515,292	1,556,304	2,071,596

〈부표 2-10-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5.2	2.7	7.8	5.3	4.3	3.0	4.2	4.2	4.2
약간 만족	14.9	12.9	23.3	18.5	11.6	13.6	13.9	14.1	14.1
보통	40.6	38.6	33.7	35.0	38.1	44.8	33.6	41.9	39.8
약간 불만족	25.4	29.7	24.1	28.7	29.7	23.7	24.1	28.2	27.1
매우 불만족	13.9	16.1	11.1	12.4	16.2	14.9	24.2	11.5	1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12.5	8.0	-	20.5	9.3	6.9	15.0	10.9	11.3
약간 만족	21.5	27.0	-	27.5	21.3	22.4	25.7	22.6	22.9
보통	35.3	33.2	-	34.9	33.6	37.8	27.9	35.5	34.7
약간 불만족	21.9	27.1	-	14.1	25.0	28.4	22.0	23.4	23.2
매우 불만족	8.9	4.7	-	3.0	10.8	4.5	9.3	7.6	7.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5,579	204,474	-	173,410	447,240	159,403	77,729	702,325	780,053

〈부표 2-10-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2.3	21.3	-	41.2	30.6	21.0	26.5	28.9	28.5
약간 만족	36.9	33.7	-	38.3	32.8	39.1	32.7	36.5	35.8
보통	23.7	33.0	-	14.8	27.3	30.8	27.5	26.8	26.9
약간 불만족	4.4	7.7	-	4.4	5.3	6.4	8.3	4.9	5.6
매우 불만족	2.6	4.3	-	1.3	4.0	2.8	5.0	2.8	3.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79,098	462,027	-	177,845	670,610	492,670	248,572	1,092,554	1,341,125

〈부표 2-10-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4.1	2.7	4.8	4.6	4.3	1.9	2.8	3.8	3.5
약간 만족	21.2	20.0	33.3	27.5	19.9	16.8	16.3	22.2	20.7
보통	46.1	47.6	43.4	40.7	45.6	51.5	40.9	48.8	46.7
약간 불만족	22.1	21.2	13.5	19.8	22.3	22.9	26.0	20.2	21.7
매우 불만족	6.5	8.6	5.1	7.3	7.9	7.0	14.1	5.0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10〉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41.3	44.1	65.8	42.3	43.3	39.2	58.2	37.0	42.5
아니오	58.7	55.9	34.2	57.7	56.7	60.8	41.8	63.0	5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11〉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가족	63.2	65.8	84.6	58.0	58.6	71.4	67.5	62.6	64.3
친척, 친구, 이웃	9.4	8.5	3.6	11.4	9.4	8.2	6.6	10.4	9.0
장애인 동료	0.8	0.3	0.2	0.3	1.2	0.0	0.9	0.4	0.6
종교인	0.4	2.4	0.0	0.8	1.9	0.8	1.8	1.0	1.3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3.0	3.0	2.2	6.0	2.7	1.8	6.4	1.1	3.0
행정공무원	0.3	0.2	0.0	0.2	0.5	0.0	0.3	0.3	0.3
없음	21.6	18.8	7.4	22.6	24.0	16.9	15.0	23.4	20.4
기타	1.3	1.1	2.0	0.7	1.7	0.8	1.6	1.0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7,358	390,793	54,392	167,910	383,717	302,134	322,066	586,086	908,151

〈부표 2-10-12〉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주 있다	2.0	2.8	3.4	4.5	2.2	1.2	4.1	1.7	2.3
가끔 있다	6.6	8.6	11.5	10.0	8.4	4.5	13.5	5.3	7.4
없다	91.4	88.6	85.1	85.6	89.3	94.3	82.4	93.0	9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13〉 가족내 차별·폭력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언어 폭력	45.8	44.1	60.4	42.3	39.9	55.2	42.2	47.5	45.0
정신적 폭력	32.9	27.8	19.5	34.4	33.3	22.1	26.5	34.0	30.5
신체적 폭력	5.9	12.3	13.0	8.3	9.8	7.0	10.5	7.7	9.0
성적 학대	0.0	0.3	0.0	0.5	0.0	0.0	0.0	0.3	0.2
방임 및 유기	15.3	15.4	7.1	14.4	16.8	15.7	20.8	10.6	15.3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7,513	100,541	12,320	57,305	94,582	43,845	97,222	110,831	208,054

〈부표 2-10-14〉 가족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배우자	41.4	36.4	0.2	14.7	50.7	56.4	26.8	49.7	39.0
부모	26.1	25.6	60.2	49.9	16.9	3.9	28.6	23.4	25.8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6.4	12.7	0.0	1.8	8.4	24.1	9.5	9.3	9.4
형제·자매	25.1	18.1	32.8	28.6	22.6	7.9	29.7	14.7	21.7
조부모	0.5	1.4	6.8	1.3	0.3	0.0	1.6	0.3	0.9
손자녀	0.0	1.2	0.0	0.0	0.4	2.0	1.2	0.0	0.6
기타	0.5	4.6	0.0	3.6	0.7	5.6	2.5	2.5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7,513	100,539	12,319	57,306	94,584	43,845	97,221	110,832	208,052

〈부표 2-10-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3	2.1	1.8	3.1	0.9	0.0	2.1	0.7	1.0
없다	99.7	97.9	98.2	96.9	99.1	100.0	97.9	99.3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영·유아기(0~6세)	-	-	-	-	-	-	-	-	-
아동기(7~17세)	28.7	19.1	100.0	24.4	0.0	70.4	30.3	10.9	20.8
청소년기(18~24세)	0.9	23.4	0.0	29.2	8.6	0.0	16.7	22.2	19.4
청년기(25~39세)	70.2	31.1	0.0	39.3	43.8	0.0	44.4	31.4	38.1
장년기(40~64세)	0.2	26.5	0.0	7.1	47.6	29.6	8.6	35.5	21.8
노년기(65세 이상)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91	18,369	1,500	12,424	8,272	162	11,402	10,958	22,360

〈부표 2-10-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기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근친(가족)	0.0	3.0	9.9	2.5	1.1	0.0	0.8	4.2	2.5
이웃	11.8	19.8	27.6	18.6	16.2	29.6	26.2	10.3	18.4
먼친척	0.0	10.7	2.0	15.6	0.0	0.0	17.0	0.3	8.8
모르는 사람	61.4	36.3	43.6	44.9	35.0	0.0	34.2	47.7	40.8
학교관계자	1.7	0.6	1.3	1.2	0.0	0.0	0.9	0.6	0.8
기타	25.0	29.5	15.7	17.1	47.7	70.4	20.9	36.9	2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92	18,369	1,501	12,424	8,272	162	11,402	10,958	22,361

〈부표 2-10-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한다	1.6	3.4	3.7	5.1	0.0	0.0	4.3	1.8	3.1
참는다	87.4	60.7	13.3	62.8	79.0	70.4	58.0	73.3	65.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7	25.6	17.3	28.2	15.0	0.0	27.0	17.6	2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10.2	65.8	3.9	6.0	29.6	10.7	7.2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90	18,369	1,500	12,424	8,271	162	11,402	10,957	22,359

〈부표 2-10-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가족	22.3	45.3	59.1	37.3	44.0	29.6	46.8	35.4	41.2
친척, 친구, 이웃	0.0	3.0	0.0	0.2	6.4	0.0	1.3	3.7	2.5
장애인 동료	-	-	-	-	-	-	-	-	-
종교인	0.0	0.3	0.0	0.2	0.5	0.0	0.2	0.4	0.3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0.0	1.0	0.0	1.4	0.0	0.0	1.6	0.0	0.8
행정공무원	0.0	1.4	0.0	2.1	0.0	0.0	2.3	0.0	1.2
못했음	77.3	46.9	13.8	58.8	49.1	70.4	44.4	60.5	52.3
기타	0.5	2.1	27.1	0.0	0.0	0.0	3.6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91	18,369	1,501	12,424	8,272	162	11,402	10,958	22,360

〈부표 2-10-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8.8	12.3	0.0	20.7	3.1	0.0	30.0	1.9	14.0
시간이 없어서	0.8	0.0	12.1	0.0	0.0	0.0	0.5	0.0	0.2
정보 부족	1.2	8.1	0.0	8.6	2.7	0.0	7.0	5.8	6.3
몸이 불편해서	-	-	-	-	-	-	-	-	-
경제적 부담	0.0	4.9	0.0	0.0	10.3	0.0	0.0	6.3	3.6
집 근처 상담기관이 없음	-	-	-	-	-	-	-	-	-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	1.5	9.0	87.9	8.8	0.0	0.0	6.8	7.2	7.0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77.7	61.1	0.0	56.6	83.9	100.0	48.7	78.3	65.5
기타	0.0	4.6	0.0	5.4	0.0	0.0	7.0	0.6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085	8,608	207	7,308	4,063	114	5,058	6,636	11,693

〈부표 2-10-2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필요	65.8	64.1	74.5	71.9	69.2	55.8	67.3	64.3	65.1
약간 필요	22.4	24.9	18.8	17.6	21.3	29.4	23.4	23.5	23.5
보통	10.8	9.3	5.4	9.9	8.1	13.2	7.9	10.9	10.1
약간 불필요	0.5	0.7	0.1	0.3	0.6	0.9	0.4	0.7	0.6
매우 불필요	0.5	1.0	1.2	0.4	0.8	0.8	0.9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22〉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27.0	26.7	28.8	27.6	6.0	-	32.7	20.6	26.9
안받았다	73.0	73.3	71.2	72.4	94.0	-	67.3	79.4	7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1,648	38,166	64,563	38,231	7,019	-	57,300	52,515	109,814

〈부표 2-10-2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82.1	93.4	79.6	96.8	100.0	-	89.7	79.5	86.0
그 자리에서 항의	10.8	6.6	13.8	1.8	0.0	-	7.1	13.3	9.3
진정·고발 조치	4.5	0.0	4.7	0.0	0.0	-	0.5	7.2	2.9
기타	2.6	0.0	1.9	1.4	0.0	-	2.7	0.0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373	10,176	18,567	10,559	423	-	18,757	10,792	29,549

〈부표 2-10-24〉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27.8	23.4	21.4	27.2	31.0	11.7	28.3	24.2	26.1
안받았다	72.2	76.6	78.6	72.8	69.0	88.3	71.7	75.8	7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9,519	98,635	61,812	111,710	71,942	12,692	119,435	138,719	258,154

〈부표 2-10-2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81.5	75.6	75.3	81.3	78.6	92.2	85.6	73.3	79.5
그 자리에서 항의	16.7	22.7	19.6	16.9	21.4	7.8	12.6	24.9	18.7
진정·고발 조치	1.5	1.4	4.8	1.2	0.0	0.0	1.3	1.6	1.5
기타	0.3	0.2	0.2	0.5	0.0	0.0	0.4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4,267	23,077	13,233	30,363	22,268	1,481	33,754	33,590	67,344

〈부표 2-10-26〉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22.0	13.9	14.8	20.5	19.1	22.2	19.9	18.9	19.3
안받았다	78.0	86.1	85.2	79.5	80.9	77.8	80.1	81.1	8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563	63,799	28,114	107,408	54,705	7,136	86,910	110,451	197,362

〈부표 2-10-2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71.4	56.7	76.1	70.9	53.9	100.0	86.0	53.1	68.0
그 자리에서 항의	28.1	36.6	19.5	26.5	46.1	0.0	11.4	45.5	30.1
진정·고발 조치	0.2	2.1	4.4	0.2	0.0	0.0	0.0	1.1	0.6
기타	0.3	4.6	0.0	2.3	0.0	0.0	2.6	0.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9,326	8,862	4,169	21,965	10,472	1,583	17,291	20,898	38,188

〈부표 2-10-28〉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18.7	11.8	19.2	17.1	18.2	0.0	17.3	16.4	16.8
안받았다	81.3	88.2	80.8	82.9	81.8	100.0	82.7	83.6	8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6,343	45,453	9,428	101,039	44,311	7,019	62,574	99,224	161,796

〈부표 2-10-29〉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62.0	62.1	68.8	64.2	55.7	-	84.0	47.4	62.0
그 자리에서 항의	37.7	36.9	31.2	35.1	44.3	-	16.0	51.9	37.6
진정·고발 조치	0.3	0.0	0.0	0.3	0.0	-	0.0	0.4	0.2
기타	0.0	1.0	0.0	0.3	0.0	-	0.0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735	5,385	1,808	17,257	8,055	-	10,837	16,283	27,120

〈부표 2-10-30〉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6.6	9.1	0.0	4.4	3.8	81.0	9.7	5.6	6.9
안받았다	93.4	90.9	100.0	95.6	96.2	19.0	90.3	94.4	9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199	7,726	1,368	39,332	23,838	2,385	20,618	46,307	66,925

〈부표 2-10-31〉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50.3	100.0	-	100.0	100.0	0.0	100.0	25.4	57.9
그 자리에서 항의	48.0	0.0	-	0.0	0.0	96.5	0.0	72.0	40.6
진정·고발 조치	-	-	-	-	-	-	-	-	-
기타	1.7	0.0	-	0.0	0.0	3.5	0.0	2.6	1.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87	700	-	1,749	905	1,932	1,997	2,590	4,587

〈부표 2-10-32〉 사회적 차별 경험: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17.9	20.6	20.9	19.4	16.7	16.7	22.1	16.3	18.9
안받았다	82.1	79.4	79.1	80.6	83.3	83.3	77.9	83.7	8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8,337	117,035	80,051	146,804	89,351	19,168	148,909	186,463	335,372

〈부표 2-10-3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80.4	89.6	83.2	82.1	95.9	47.9	87.1	80.5	83.9
그 자리에서 항의	16.3	8.9	14.5	13.5	4.1	52.1	11.3	15.8	13.5
진정·고발 조치	3.0	0.0	2.0	2.9	0.0	0.0	0.1	3.7	1.8
기타	0.3	1.5	0.2	1.5	0.0	0.0	1.4	0.0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118	24,157	16,704	28,485	14,893	3,193	32,882	30,394	63,275

〈부표 2-10-34〉 사회적 차별 경험: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46.6	53.3	54.7	47.1	49.8	34.8	49.4	48.1	48.9
안받았다	53.4	46.7	45.3	52.9	50.2	65.2	50.1	51.9	5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8,530	117,313	80,183	146,823	89,495	19,341	149,054	186,787	335,843

〈부표 2-10-3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79.0	85.7	77.1	81.5	89.4	58.8	88.0	76.2	81.5
그 자리에서 항의	19.7	12.6	19.0	17.4	10.6	41.2	10.7	22.2	17.0
진정·고발 조치	1.2	1.2	3.8	0.4	0.0	0.0	0.7	1.6	1.2
기타	0.1	0.6	0.1	0.6	0.0	0.0	0.5	0.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1,855	62,482	43,881	69,114	44,604	6,737	74,410	89,925	164,337

〈부표 2-10-36〉 사회적 차별 경험: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9.4	6.3	11.4	7.9	6.3	9.1	11.2	6.1	8.4
안받았다	90.6	93.7	88.6	92.1	93.7	90.9	88.8	93.9	9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9,020	117,641	79,631	147,214	90,409	19,406	148,596	188,064	336,661

〈부표 2-10-3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6.0	76.6	90.6	95.8	78.1	100.0	95.6	83.9	90.8
그 자리에서 항의	3.8	18.1	8.5	1.0	21.9	0.0	2.3	15.2	7.6
진정·고발 조치	0.2	4.4	0.0	3.2	0.0	0.0	2.0	0.3	1.3
기타	0.1	0.9	0.9	0.0	0.0	0.0	0.1	0.6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664	7,457	9,094	11,604	5,661	1,763	16,676	11,445	28,121

〈부표 2-10-38〉 사회적 차별 경험: 결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15.4	17.4	0.0	27.5	17.6	9.3	27.1	13.2	16.1
안받았다	84.6	82.6	100.0	72.5	82.4	90.7	72.9	86.8	8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76,501	605,564	514	242,702	769,898	568,953	334,684	1,247,382	1,582,065

〈부표 2-10-39〉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83.8	89.8	-	86.8	84.9	89.3	85.6	86.6	86.3
그 자리에서 항의	12.8	9.6	-	12.0	11.5	10.7	12.7	10.8	11.5
진정·고발 조치	0.6	0.6	-	0.7	0.8	0.0	0.7	0.6	0.6
기타	2.7	0.0	-	0.5	2.8	0.0	0.9	2.0	1.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9,901	105,314	-	66,702	135,526	52,988	90,747	164,469	255,215

〈부표 2-10-40〉 사회적 차별 경험: 취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36.6	30.9	-	46.5	33.9	21.8	54.4	31.1	35.0
안받았다	63.4	69.1	-	53.5	66.1	78.2	45.5	68.9	65.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77,832	262,905	-	256,941	502,195	181,602	157,506	783,232	940,737

〈부표 2-10-41〉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6.3	95.4	-	94.7	96.4	98.6	96.7	95.9	96.1
그 자리에서 항의	3.5	4.6	-	5.0	3.5	1.4	3.2	4.0	3.8
진정·고발 조치	0.2	0.0	-	0.2	0.1	0.0	0.1	0.1	0.1
기타	0.0	0.0	-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7,983	81,214	-	119,499	170,105	39,593	85,872	243,326	329,197

〈부표 2-10-42〉 사회적 차별 경험: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22.0	17.4	-	29.2	19.1	16.7	35.5	18.3	20.8
안받았다	78.0	82.6	-	70.8	80.9	83.3	64.5	81.7	79.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09,826	299,598	-	247,335	585,919	276,169	157,768	951,656	1,109,424

〈부표 2-10-4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6.1	98.8	-	96.6	96.0	98.9	94.4	97.5	96.7
그 자리에서 항의	3.8	1.1	-	3.3	4.0	1.1	5.4	2.5	3.2
진정·고발 조치	0.0	0.1	-	0.1	0.0	0.0	0.2	0.0	0.0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8,415	52,153	-	72,338	112,017	46,213	56,077	174,490	230,568

〈부표 2-10-44〉 사회적 차별 경험: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12.7	14.0	0.0	17.4	11.9	9.2	24.0	11.1	13.1
안받았다	87.3	86.0	100.0	82.6	88.1	90.8	76.0	88.9	8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46,920	211,857	580	221,498	410,056	126,643	112,428	646,349	758,777

〈부표 2-10-4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1.1	96.4	-	94.3	90.1	98.0	96.0	91.5	92.7
그 자리에서 항의	8.8	3.6	-	5.6	9.8	2.0	4.0	8.4	7.2
진정·고발 조치	0.1	0.0	-	0.1	0.1	0.0	0.0	0.1	0.1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9,459	29,589	-	38,577	48,774	11,697	27,022	72,025	99,048

〈부표 2-10-46〉 사회적 차별 경험: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9.8	7.3	-	12.0	8.7	4.9	16.8	7.8	9.1
안받았다	90.2	92.7	-	88.0	91.3	95.1	83.2	92.2	90.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98,880	189,050	-	207,295	371,348	109,287	99,584	588,346	687,930

〈부표 2-10-4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5.7	100.0	-	100.0	95.0	91.3	100.0	95.5	96.7
그 자리에서 항의	4.1	0.0	-	0.0	4.8	8.5	0.0	4.4	3.2
진정·고발 조치	0.1	0.0	-	0.0	0.1	0.2	0.0	0.1	0.1
기타	0.0	0.0	-	0.0	0.1	0.0	0.0	0.0	0.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8,748	13,855	-	24,841	32,404	5,357	16,701	45,902	62,603

〈부표 2-10-48〉 사회적 차별 경험: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12.4	8.1	-	14.1	9.3	15.4	26.0	9.1	11.8
안받았다	87.6	91.9	-	85.9	90.7	84.6	74.0	90.9	88.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5,312	47,468	-	115,460	155,724	31,596	47,885	254,895	302,780

〈부표 2-10-49〉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2.0	82.2	-	84.9	94.6	100.0	74.3	99.8	90.9
그 자리에서 항의	8.0	17.8	-	15.1	5.4	0.0	25.7	0.2	9.1
진정·고발 조치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1,770	3,862	-	16,250	14,516	4,866	12,440	23,192	35,632

〈부표 2-10-50〉 사회적 차별 경험: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54.7	57.4	76.3	62.3	52.3	45.2	74.7	49.6	55.6
안받았다	45.3	42.6	23.7	37.7	47.7	54.8	25.3	50.4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0,576	250,818	33,822	228,366	398,761	90,444	178,890	572,503	751,394

〈부표 2-10-51〉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4.9	94.7	94.8	98.2	92.6	94.9	95.3	94.6	94.9
그 자리에서 항의	4.6	3.8	5.2	1.6	5.9	5.0	4.0	4.5	4.3
진정·고발 조치	0.4	1.5	0.0	0.0	1.5	0.0	0.7	0.8	0.8
기타	0.1	0.0	0.0	0.2	0.0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3,792	143,936	25,802	142,342	208,711	40,873	133,610	284,118	417,728

〈부표 2-10-52〉 사회적 차별 경험: 의료기관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3.4	3.2	6.5	4.9	3.4	2.1	6.1	2.3	3.3
안받았다	96.6	96.8	93.5	95.1	96.6	97.9	93.9	97.7	9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46,057	879,867	81,565	395,094	883,387	765,878	546,706	1,579,217	2,125,924

〈부표 2-10-53〉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1.7	92.0	76.8	86.8	96.1	94.7	87.0	96.1	91.8
그 자리에서 항의	8.3	7.9	22.3	13.2	3.8	5.3	12.9	3.8	8.1
진정·고발 조치	0.1	0.2	0.9	0.0	0.1	0.0	0.1	0.1	0.1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2,008	28,169	5,269	19,287	29,615	16,006	33,233	36,944	70,177

〈부표 2-10-54〉 사회적 차별 경험: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0.4	0.5	1.5	1.0	0.2	0.3	1.0	0.3	0.4
안받았다	99.6	99.5	98.5	99.0	99.8	99.7	99.0	99.7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44,813	761,783	67,250	369,076	820,093	650,176	486,270	1,420,324	1,906,596

〈부표 2-10-55〉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86.4	88.0	57.9	100.0	65.8	100.0	77.6	100.0	87.2
그 자리에서 항의	13.6	12.0	42.1	0.0	34.2	0.0	22.4	0.0	12.8
진정·고발 조치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546	3,899	986	3,797	1,960	1,702	4,835	3,610	8,445

〈부표 2-10-56〉 사회적 차별 경험: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받았다	20.6	20.7	44.6	27.2	19.9	15.5	35.5	15.5	20.6
안받았다	79.4	79.3	55.4	72.8	80.1	84.5	64.5	84.5	7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41,172	875,038	81,824	392,833	881,660	759,892	542,107	1,574,103	2,116,210

〈부표 2-10-5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범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무시 또는 참기	96.5	97.5	95.4	96.8	96.5	98.1	95.0	98.4	96.9
그 자리에서 항의	2.4	2.5	3.6	3.2	2.4	1.6	4.5	0.8	2.4
진정·고발 조치	1.1	0.0	1.1	0.0	1.1	0.3	0.5	0.8	0.6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5,286	181,474	36,531	106,725	175,451	118,054	192,661	244,099	436,760

〈부표 2-10-58〉 장애인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항상 느낀다	8.3	6.9	19.6	13.0	7.5	3.9	14.2	5.5	7.7
가끔 느낀다	27.3	27.3	40.8	39.4	28.4	18.4	37.7	23.7	27.3
보통	11.2	12.2	8.5	8.8	12.1	13.0	14.4	10.7	11.6
별로 느끼지 않음	32.0	31.3	20.7	23.2	31.2	37.8	23.0	34.8	31.7
전혀 느끼지 않음	21.1	22.3	10.4	15.6	20.8	26.9	10.6	25.5	2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0-59〉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전혀 없다	0.1	0.1	0.0	0.0	0.1	0.2	0.2	0.1	0.1
별로 없다	4.5	6.4	3.8	2.1	4.5	8.1	4.3	5.7	5.3
보통이다	15.3	14.1	7.7	9.4	12.7	20.7	12.1	15.7	14.8
약간 많다	37.9	39.7	37.4	37.4	36.2	42.1	36.7	39.3	38.6
매우 많다	42.2	39.6	51.0	51.1	46.4	28.9	46.6	39.2	4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제11절 주거

〈부표 2-11-1〉 주택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단독주택	51.9	52.4	33.1	40.3	49.4	63.2	47.7	53.6	52.1
아파트	36.4	35.5	54.8	45.1	38.5	26.6	39.6	34.8	36.0
연립주택	4.4	3.9	5.3	5.7	4.0	3.4	4.6	4.0	4.2
다세대주택	4.3	5.4	5.2	5.4	4.7	4.3	5.7	4.4	4.7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9	2.2	1.6	1.9	2.6	1.5	1.7	2.1	2.0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기타	1.1	0.8	0.0	1.7	0.8	1.0	0.7	1.1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7	382,423	866,013	753,628	510,885	1,570,505	2,081,390

〈부표 2-11-2〉 주거 위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지하층	0.9	0.6	1.1	1.2	0.5	0.8	1.0	0.7	0.7
지상	96.0	97.1	95.0	95.7	96.4	97.0	95.7	96.7	96.5
반지하층	2.8	2.1	3.8	2.8	2.7	2.1	3.1	2.4	2.5
옥탑	0.3	0.1	0.0	0.3	0.4	0.1	0.3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4	79,325	382,424	866,012	753,626	510,884	1,570,505	2,081,389

〈부표 2-11-3〉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가	65.7	64.8	53.9	55.4	62.7	74.6	59.8	67.1	65.3
전세	12.7	12.9	20.7	16.1	13.0	10.0	13.8	12.4	12.8
보증금 있는 월세	12.9	14.5	17.3	19.4	16.3	7.0	16.3	12.7	13.6
보증금 없는 월세	2.5	1.7	2.5	3.2	2.3	1.4	2.5	2.1	2.2
사글세	0.8	0.8	1.2	0.6	1.0	0.7	0.8	0.8	0.8
무상	5.4	5.3	4.3	5.3	4.7	6.3	6.8	4.9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3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부표 2-11-4〉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76.6	77.1	80.0	81.5	76.5	74.4	77.9	76.4	76.8
아니오	23.4	22.9	20.0	18.5	23.5	25.6	22.1	23.6	2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4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부표 2-11-5〉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81.7	80.9	79.2	85.9	79.9	81.0	81.9	81.2	81.4
아니오	18.3	19.1	20.8	14.1	20.1	19.0	18.1	18.8	1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4	858,785	79,326	382,425	866,013	753,627	510,885	1,570,504	2,081,389

〈부표 2-11-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14.6	13.7	13.5	13.9	14.8	13.9	14.0	14.3	14.2
아니오	85.4	86.3	86.5	86.1	85.2	86.1	86.0	85.7	8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7	382,424	866,012	753,627	510,885	1,570,505	2,081,390

〈부표 2-11-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96.5	95.6	98.6	96.7	96.7	95.0	96.8	95.9	96.1
아니오	3.5	4.4	1.4	3.3	3.3	5.0	3.2	4.1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5	866,012	753,627	510,885	1,570,505	2,081,390

〈부표 2-11-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영구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4.7	6.3	6.3	7.1	6.6	3.0	7.5	4.7	5.3
없다	95.3	93.7	93.7	92.9	93.4	97.0	92.5	95.3	9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7	382,424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부표 2-11-9〉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영구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1.8	23.7	3.8	18.7	33.8	29.2	32.6	25.4	27.9
약간 만족	38.3	44.2	61.2	45.6	33.6	50.6	29.3	47.3	41.2
보통	21.2	24.6	17.4	22.5	25.7	17.2	24.6	21.9	22.8
약간 불만족	7.7	2.6	16.5	5.7	5.3	2.0	10.3	2.6	5.2
매우 불만족	1.0	4.9	1.1	7.4	1.7	1.0	3.1	2.8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45	53,887	4,966	27,040	56,859	22,470	38,179	73,156	111,332

〈부표 2-11-10〉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공공(국민)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2.6	1.7	2.0	2.7	3.1	0.9	2.2	2.2	2.2
없다	97.4	98.3	98.0	97.3	96.9	99.1	97.8	97.8	9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4	858,785	79,326	382,424	866,012	753,627	510,885	1,570,504	2,081,389

〈부표 2-11-11〉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공공(국민)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5.5	10.4	13.6	6.8	4.7	15.3	15.8	4.2	7.1
약간 만족	34.6	40.9	28.8	53.2	29.5	41.3	24.7	40.4	36.6
보통	24.5	11.5	49.9	13.3	21.8	18.4	18.2	21.1	20.4
약간 불만족	35.3	32.0	1.7	25.9	41.6	25.0	35.7	33.8	34.3
매우 불만족	0.1	5.2	6.0	0.8	2.3	0.0	5.5	0.5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1,263	14,553	1,599	10,329	27,153	6,731	11,142	34,672	45,816

〈부표 2-11-12〉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전세자금(융자)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0	0.5	1.7	0.7	1.2	0.3	1.0	0.7	0.8
없다	99.0	99.5	98.3	99.3	98.8	99.7	99.0	99.3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5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부표 2-11-13〉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전세자금(융자)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2.1	20.8	9.7	21.1	20.4	37.7	40.1	13.2	21.8
약간 만족	23.4	12.5	9.8	55.8	7.4	45.8	26.5	17.7	20.5
보통	4.6	54.4	41.8	19.7	14.6	15.6	9.2	21.8	17.8
약간 불만족	4.0	0.5	2.5	1.1	4.1	0.9	5.6	1.9	3.1
매우 불만족	45.9	11.8	36.2	2.4	53.4	0.0	18.7	45.3	3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311	4,423	1,348	2,849	10,507	2,029	5,318	11,417	16,734

〈부표 2-11-14〉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저소득층 월세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4	0.0	0.1	1.0	0.0	0.1	0.1	0.3	0.2
없다	99.6	100.0	99.9	99.0	100.0	99.9	99.9	99.7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4	866,013	753,627	510,885	1,570,505	2,081,390

〈부표 2-11-15〉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저소득층 월세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7.9	15.9	0.0	43.8	0.0	3.0	5.1	42.2	36.4
약간 만족	23.8	0.0	0.0	26.8	0.0	0.0	0.0	26.2	22.1
보통	0.3	24.1	0.0	0.0	3.8	16.5	11.1	0.3	2.0
약간 불만족	6.4	60.0	100.0	4.1	96.2	0.0	29.6	6.7	10.3
매우 불만족	31.6	0.0	0.0	25.3	0.0	80.5	54.2	24.7	2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67	340	46	3,874	290	498	740	3,969	4,707

〈부표 2-11-16〉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7	0.7	0.1	1.6	0.9	0.1	0.4	0.8	0.7
없다	99.3	99.3	99.9	98.4	99.1	99.9	99.6	99.2	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4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부표 2-11-17〉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51.7	74.1	47.3	49.7	68.6	68.5	83.5	57.1	60.5
약간 만족	32.5	0.0	0.0	47.1	0.0	0.0	0.0	22.6	19.7
보통	3.8	22.4	52.7	2.7	17.5	9.2	14.7	10.6	11.1
약간 불만족	12.0	3.5	0.0	0.4	14.0	22.2	1.8	9.7	8.6
매우 불만족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889	5,810	91	6,137	7,759	715	1,916	12,785	14,699

〈부표 2-11-1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기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3	0.1	0.0	1.1	0.1	0.0	0.0	0.3	0.2
없다	99.7	99.9	100.0	98.9	99.9	100.0	100.0	99.7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6	382,425	866,012	753,627	510,885	1,570,505	2,081,390

〈부표 2-11-19〉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0.0	35.5	-	0.0	38.8	0.0	92.8	0.0	4.2
약간 만족	98.2	12.9	-	99.6	4.8	50.8	0.0	92.3	88.2
보통	1.8	51.7	-	0.4	56.4	49.2	7.2	7.7	7.6
약간 불만족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97	544	-	4,024	498	120	208	4,433	4,641

〈부표 2-11-20〉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편리	21.1	16.6	23.3	23.7	20.1	15.6	18.1	19.7	19.3
약간 편리	34.0	35.0	42.1	33.5	33.5	35.0	31.6	35.3	34.4
보통	27.4	27.4	20.5	27.0	27.5	28.1	27.4	27.4	27.4
약간 불편	12.8	16.1	11.5	12.3	14.2	15.4	16.5	13.5	14.2
매우 불편	4.7	4.9	2.6	3.5	4.6	5.8	6.4	4.2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6	858,784	79,326	382,424	866,013	753,626	510,885	1,570,505	2,081,390

〈부표 2-11-21〉 주택 개조 의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반드시 고치고 싶음	2.2	4.5	3.6	1.6	2.7	4.4	4.3	2.8	3.1
가급적 고치고 싶음	6.7	11.9	6.1	7.4	8.8	9.9	15.0	6.8	8.8
별로 고치고 싶지 않음	41.5	44.0	43.6	41.8	41.0	44.6	41.2	43.0	42.5
전혀 고치고 싶지 않음	47.5	37.2	46.1	47.5	45.3	38.4	37.0	45.3	43.2
이미 개조	2.1	2.4	0.6	1.7	2.2	2.7	2.5	2.1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3	858,785	79,325	382,425	866,012	753,627	510,885	1,570,506	2,081,388

〈부표 2-11-22〉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부엌	0.6	16.4	0.0	14.3	5.4	12.5	4.9	12.6	9.5
변기	10.0	7.9	24.6	11.3	6.3	9.2	7.3	9.8	8.8
욕조	8.5	8.1	21.7	17.9	6.7	5.7	12.0	5.8	8.3
문턱 낮추기	34.7	25.2	30.1	27.1	32.9	26.6	36.2	24.8	29.3
방문고치기	3.5	2.3	0.6	0.1	4.9	1.9	1.2	3.9	2.8
냉·난방	7.0	3.7	0.7	4.0	7.0	4.0	2.8	6.7	5.1
채광	0.4	1.2	0.2	1.7	1.3	0.2	1.3	0.6	0.9
아파트 출입구(계단)	7.6	4.3	0.0	5.5	4.2	7.6	6.5	5.2	5.7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1.3	2.4	0.6	2.2	0.9	2.9	2.5	1.6	1.9
현관(계단)	14.6	11.1	0.3	4.9	15.0	13.7	12.1	12.9	12.6
기타	11.7	17.4	21.1	10.9	15.2	15.6	13.1	16.2	1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838	141,214	7,709	34,417	100,049	107,876	99,255	150,798	250,052

〈부표 2-11-24〉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일반주택	97.3	95.8	93.5	94.1	97.5	97.3	92.6	98.0	96.7
공동생활가정	1.1	0.8	47	2.4	0.6	0.4	2.6	0.5	1.0
생활시설	1.2	2.1	1.9	2.9	1.2	1.3	3.8	0.9	1.6
기타	0.4	1.3	0.0	0.6	0.6	1.1	1.1	0.6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2,605	858,785	79,327	382,423	866,013	753,627	510,884	1,570,504	2,081,390

〈부표 2-11-25〉 일반주택에서 원하는 삶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혼자 살고 싶다	7.4	17.3	0.1	5.4	10.4	16.8	9.7	12.0	11.5
가족과 함께(결혼 포함)	92.0	81.3	98.3	94.2	89.3	81.4	89.3	87.1	87.6
친구나 동료	0.5	1.4	1.7	0.5	0.3	1.7	1.0	0.8	0.9
기타	0.0	0.0	0.0	0.0	0.0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89,613	822,586	74,146	359,861	844,637	733,555	472,861	1,539,338	2,012,199

제12절 복지서비스

〈부표 2-12-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많이 받음	2.8	3.5	3.2	3.5	3.5	2.5	6.5	1.9	3.1
약간 받음	34.2	33.4	50.6	40.2	34.4	28.1	43.2	30.6	33.8
보통	10.2	7.3	10.2	11.5	9.9	6.6	12.7	7.7	9.0
별로 받지 못함	46.7	49.9	32.0	41.4	47.8	53.4	34.1	52.9	48.0
전혀 받지 못함	6.1	6.0	3.9	3.4	4.4	9.5	3.6	6.9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장애수당 지급	67.2	32.8	69.0	31.0	75.1	24.9	76.0	24.0	68.2	31.8	62.7	37.3	79.4	20.6	63.9	36.1	67.9	32.1
장애아동수당 지급	27.2	72.8	23.3	76.7	70.3	29.7	37.0	63.0	26.4	73.6	14.0	86.0	34.2	65.8	22.5	77.5	25.6	74.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7.6	72.4	24.0	76.0	51.3	48.7	34.1	65.9	29.6	70.4	15.2	84.8	33.5	66.5	23.5	76.5	26.1	73.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7.4	82.6	11.6	88.4	16.1	83.9	21.6	78.4	19.5	80.5	6.4	93.6	20.6	79.4	13.1	86.9	15.0	85.0
장애인 의료비 지원	38.8	61.2	39.9	60.1	42.1	57.9	48.5	51.5	40.6	59.4	32.7	67.3	50.0	50.0	35.5	64.5	39.3	60.7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9.1	80.9	18.7	81.3	25.9	74.1	26.7	73.3	18.3	81.7	14.9	85.1	28.2	71.8	15.7	84.3	18.9	81.1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41.2	58.8	37.4	62.6	43.2	56.8	46.1	53.9	40.0	60.0	35.5	64.5	48.6	51.4	36.5	63.5	39.7	60.3
장애인보조기구 간접보험 실시	43.3	56.7	38.8	61.2	43.5	56.5	44.5	55.5	43.2	56.8	37.6	62.4	52.1	47.9	37.7	62.3	41.4	58.6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8.3	11.7	75.1	24.9	89.1	10.9	90.0	10.0	88.4	11.6	72.0	28.0	82.9	17.1	82.8	17.2	82.8	17.2
LPG연료 사용 허용	87.8	12.2	71.8	28.2	89.2	10.8	88.0	12.0	88.4	11.6	68.6	31.4	82.2	17.8	80.8	19.2	81.2	18.2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76.9	23.1	60.0	40.0	79.6	20.4	78.7	21.3	77.2	22.8	55.9	44.1	72.6	27.4	69.0	31.0	69.9	30.1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79.4	20.6	64.7	35.3	84.1	15.9	21.3	15.7	80.2	19.8	58.6	41.4	77.7	22.3	71.8	28.2	73.3	26.7
세금 공제 및 면제	51.5	48.5	44.0	56.0	67.1	32.9	53.7	46.3	51.4	48.6	40.2	59.8	50.8	49.2	47.5	52.5	48.4	51.6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92.8	7.2	86.6	13.4	94.2	5.8	92.8	7.2	93.3	6.7	84.8	15.2	90.0	10.0	90.3	9.7	90.2	9.8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94.1	5.9	90.6	9.4	93.5	6.5	94.9	5.1	95.6	4.4	88.1	11.9	93.9	6.1	92.3	7.7	92.7	7.3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73.8	26.2	58.3	41.7	81.1	18.9	75.6	24.4	73.8	26.2	54.3	45.7	70.3	29.7	66.4	33.6	67.4	32.6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23.0	77.0	16.5	83.5	31.2	68.8	32.1	67.9	23.1	76.9	9.8	90.2	27.2	72.8	17.9	82.1	20.3	79.7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 무교육 실시	21.5	78.5	14.4	85.6	86.8	13.2	31.3	68.7	16.4	83.6	7.2	92.8	30.1	69.9	14.5	85.5	18.5	81.5
활동보조서비스	26.7	73.3	28.4	71.6	43.7	56.3	34.0	66.0	29.2	70.8	20.3	79.7	39.0	61.0	23.4	76.6	27.4	72.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0.0	80.0	24.3	75.7	28.2	71.8	27.8	72.2	22.4	77.6	17.3	82.7	28.5	71.5	19.4	80.6	21.8	78.2

〈부표 2-12-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장애수당 지급	20.5	79.5	26.3	73.7	6.4	93.6	32.0	68.0	24.0	76.0	18.6	81.4	39.4	60.6	17.1	82.9	22.9	77.1
장애아동수당 지급	1.0	99.0	1.3	98.7	23.5	76.5	1.2	98.8	0.0	100.0	0.0	100.0	2.5	97.5	0.6	99.4	1.1	98.9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2	97.8	2.2	97.8	5.4	94.6	3.9	96.1	3.0	97.0	0.2	99.8	3.6	96.4	1.8	98.2	2.2	97.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8	99.2	0.1	99.9	0.6	99.4	1.2	98.8	0.7	99.3	0.1	99.9	1.0	99.0	0.4	99.6	0.6	99.4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	93.5	10.0	90.0	12.4	87.6	11.0	89.0	7.7	92.3	6.1	93.9	11.2	88.8	6.8	93.2	7.9	92.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7.4	92.6	9.3	90.7	8.4	91.6	11.2	88.8	8.7	91.3	6.2	93.8	15.7	84.3	5.6	94.4	8.2	91.8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3.1	96.9	3.9	96.1	2.8	97.2	2.7	97.3	3.0	97.0	4.5	95.5	8.4	91.6	1.7	98.3	3.4	96.6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실시	9.6	90.4	12.1	87.9	15.1	84.9	7.8	92.2	9.3	90.7	13.2	86.8	18.8	81.2	7.8	92.2	10.6	89.4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44.6	55.4	33.3	66.7	50.8	49.2	46.6	53.4	45.3	54.7	29.1	70.9	43.2	56.8	38.8	61.2	39.9	60.1
LPG연료 사용 허용	30.4	69.6	26.0	74.0	31.4	68.6	35.4	64.6	30.8	69.2	22.2	77.8	32.8	67.2	27.1	72.9	28.6	71.4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22.5	77.5	20.4	79.6	27.6	72.4	27.0	73.0	22.2	77.8	17.6	82.4	31.5	68.5	18.2	81.8	21.6	78.4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8.6	71.4	23.0	77.0	52.5	47.5	31.2	68.8	26.9	73.1	20.2	79.8	44.8	55.2	19.8	80.2	26.3	73.7
세금 공제 및 면제	23.7	76.3	21.5	78.5	35.7	64.3	23.6	76.4	23.1	76.9	20.6	79.4	25.5	74.5	21.8	78.2	22.8	77.2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5.1	24.9	63.7	36.3	60.9	39.1	73.4	26.6	75.4	24.6	64.0	36.0	65.3	34.7	72.1	27.9	70.3	29.7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5.6	14.4	77.1	22.9	72.8	27.2	85.0	15.0	88.5	11.5	74.1	25.9	81.1	18.9	82.4	17.6	82.1	17.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40.6	59.4	27.8	72.2	53.6	46.4	47.8	52.2	38.7	61.3	23.0	77.0	37.5	62.5	34.6	65.4	35.3	64.7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3.4	96.6	3.1	96.9	1.1	98.9	5.2	94.8	4.0	96.0	1.8	98.2	3.6	96.4	3.2	96.8	3.3	96.7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4.5	95.5	4.0	96.0	68.1	31.9	8.6	91.4	0.2	99.8	0.0	100.0	12.5	87.5	1.5	98.5	4.3	95.7
활동보조서비스	1.8	98.2	2.0	98.0	6.9	93.1	3.2	96.8	1.6	98.4	1.0	99.0	6.2	93.8	0.3	99.7	1.9	98.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2	99.8	1.7	98.3	0.7	99.3	1.0	99.0	0.5	99.5	1.2	98.8	1.4	98.6	0.7	99.3	0.9	99.1

〈부표 2-12-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직업재활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42.3	25.8	49.9	51.3	40.9	19.5	42.6	33.0	35.5
모른다	57.7	74.2	50.1	48.7	59.1	80.5	57.4	67.0	6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직업재활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3.0	1.5	0.6	8.8	1.7	0.1	4.6	1.6	2.4
없다	97.0	98.5	99.4	91.2	98.3	99.9	95.4	98.4	9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직업재활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16.4	26.6	0.0	24.1	8.9	0.0	24.9	13.4	19.1
약간 만족	21.7	40.8	0.0	23.7	33.1	66.3	22.2	31.5	26.9
보통	31.9	21.3	100.0	33.8	15.0	33.7	28.3	29.7	29.0
약간 불만족	17.6	8.8	0.0	9.1	31.0	0.0	11.3	19.2	15.2
매우 불만족	12.5	2.5	0.0	9.2	12.0	0.0	13.3	6.2	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7,147	13,701	488	34,852	14,708	799	25,452	25,397	50,848

〈부표 2-12-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직업재활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11.3	9.4	40.3	24.4	9.3	1.5	17.5	8.1	10.5
희망안함	88.7	90.6	59.7	75.6	90.7	98.5	82.5	91.9	8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복지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77.5	69.9	87.4	83.1	80.5	61.3	78.8	72.8	74.3
모른다	22.5	30.1	12.6	16.9	19.5	38.7	21.2	27.2	2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복지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2.1	14.1	41.6	19.6	8.9	11.0	22.8	9.5	12.9
없다	87.9	85.9	58.4	80.4	91.1	89.0	77.2	90.5	8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1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복지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0.1	29.7	23.2	27.4	30.1	34.8	28.8	30.9	29.9
약간 만족	32.5	36.3	35.9	32.4	33.0	36.4	30.0	37.8	34.2
보통	24.1	23.8	26.3	24.5	21.7	24.8	24.9	23.2	24.0
약간 불만족	7.8	5.6	10.3	9.7	7.0	2.6	9.8	4.3	6.8
매우 불만족	5.4	4.6	4.3	6.0	8.2	1.5	6.6	3.7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345	125,061	34,420	77,778	79,361	84,849	126,414	149,992	276,406

〈부표 2-12-1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복지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35.9	36.9	63.3	37.7	37.3	31.6	42.2	34.3	36.3
희망안함	64.1	63.1	36.7	62.3	62.7	68.4	57.8	65.7	6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1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 재활병·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34.7	24.1	35.1	36.7	33.8	22.4	35.0	28.7	30.3
모른다	65.3	75.9	64.9	63.3	66.2	77.6	65.0	71.3	6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1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 재활병·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6	1.6	5.7	1.8	2.0	0.6	2.8	1.2	1.6
없다	98.4	98.4	94.3	98.2	98.0	99.4	97.2	98.8	9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1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 재활병·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6.7	12.3	19.2	31.7	22.0	0.0	26.5	15.7	20.7
약간 만족	14.9	22.8	28.4	31.2	8.3	26.5	34.7	4.2	18.2
보통	40.3	24.7	36.3	19.6	28.9	72.2	21.6	44.1	33.8
약간 불만족	18.1	24.0	16.2	14.4	29.2	1.3	15.9	24.6	20.6
매우 불만족	0.0	16.1	0.0	3.1	11.7	0.0	1.4	11.4	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89	14,407	4,754	7,034	17,865	4,544	15,718	18,479	34,196

〈부표 2-12-1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 재활병·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28.2	29.8	36.3	26.8	31.5	26.1	32.7	27.5	28.9
희망안함	71.8	70.2	63.7	73.2	68.5	73.9	67.3	72.5	7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1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주간·단기보호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14.6	13.7	33.8	21.6	12.7	10.2	22.7	11.3	14.2
모른다	85.4	86.3	66.2	78.4	87.3	89.8	77.3	88.7	8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주간·단기보호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8	0.4	4.0	1.5	0.2	0.3	1.9	0.2	0.6
없다	99.2	99.6	96.0	98.5	99.8	99.7	98.1	99.8	9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주간·단기보호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42.3	32.7	30.0	33.8	56.3	57.7	37.2	51.4	39.9
약간 만족	24.9	16.3	5.5	31.9	19.9	26.9	28.1	0.5	22.7
보통	14.0	19.8	31.5	10.0	20.7	2.2	13.3	24.5	15.5
약간 불만족	12.3	17.3	31.1	12.7	0.0	0.0	11.1	23.6	13.5
매우 불만족	6.4	14.0	1.8	11.7	3.2	13.3	10.3	0.0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731	3,303	3,323	5,760	1,678	2,271	10,506	2,527	13,034

〈부표 2-12-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주간·단기보호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8.4	8.5	26.4	7.8	6.4	9.2	17.0	5.4	8.4
희망안함	91.6	91.5	73.6	92.2	93.6	90.8	83.0	94.6	9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체육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4.4	20.2	25.8	31.6	25.6	14.3	26.7	21.3	22.7
모른다	75.6	79.8	74.2	68.4	74.4	85.7	73.3	78.7	7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체육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1	1.2	4.3	2.6	0.9	0.4	2.5	0.7	1.2
없다	98.9	98.8	95.7	97.4	99.1	99.6	97.5	99.3	9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체육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7.5	53.3	41.8	20.6	59.3	88.8	21.5	73.7	44.2
약간 만족	28.6	19.1	22.8	36.7	14.6	11.2	31.9	15.0	24.5
보통	25.2	22.4	29.4	32.1	19.9	0.0	37.6	6.4	24.0
약간 불만족	3.8	5.2	2.5	9.3	0.4	0.0	7.5	0.2	4.4
매우 불만족	5.0	0.1	3.4	1.3	5.7	0.0	1.4	4.8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296	10,499	3,576	10,265	8,103	2,851	14,015	10,779	24,795

〈부표 2-12-2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체육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18.0	10.4	48.6	26.4	14.9	5.1	19.3	13.2	14.8
희망안함	82.0	89.6	51.4	73.6	85.1	94.9	80.7	86.8	8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심부름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2.6	16.8	31.1	27.3	21.6	13.8	24.6	18.7	20.2
모른다	77.4	83.2	68.9	72.7	78.4	86.2	75.4	81.3	7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심부름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5	0.7	0.1	0.9	0.5	0.5	1.8	0.1	0.6
없다	99.5	99.3	99.9	99.1	99.5	99.5	98.2	99.9	9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심부름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3.9	45.1	16.4	27.0	52.3	35.7	33.6	71.6	39.6
약간 만족	21.0	16.8	0.0	23.1	13.7	21.8	17.8	24.5	18.9
보통	38.4	11.4	83.6	34.4	33.5	3.1	28.6	3.9	24.7
약간 불만족	6.7	4.4	0.0	0.0	0.5	17.4	6.6	0.0	5.5
매우 불만족	0.0	22.2	0.0	15.5	0.0	22.2	13.5	0.0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17	6,135	55	3,523	4,778	3,694	10,137	1,915	12,052

〈부표 2-12-2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심부름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13.3	16.4	16.2	13.9	12.9	16.8	21.8	12.1	14.6
희망안함	86.7	83.6	83.8	86.1	87.1	83.2	78.2	87.9	8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수화통역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6.4	21.6	29.8	38.2	25.9	15.0	28.3	23.0	24.4
모른다	73.6	78.4	70.2	61.8	74.1	85.0	71.7	77.0	7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2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수화통역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5	0.6	0.2	1.4	0.4	0.2	1.8	0.0	0.5
없다	99.5	99.4	99.8	98.6	99.6	99.8	98.2	100.0	9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수화통역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46.7	45.4	0.0	47.4	40.8	60.2	47.8	22.5	46.1
약간 만족	23.8	12.1	100.0	15.2	27.0	0.0	18.8	13.4	18.5
보통	24.4	32.7	0.0	36.6	12.3	39.8	25.6	64.2	28.2
약간 불만족	0.0	7.9	0.0	0.0	10.5	0.0	3.8	0.0	3.6
매우 불만족	5.1	1.9	0.0	0.8	9.5	0.0	3.9	0.0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31	4,945	154	5,585	3,733	1,404	10,160	717	10,876

〈부표 2-12-3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수화통역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0.9	0.7	0.9	1.9	0.7	0.4	2.3	0.3	0.8
희망안함	99.1	99.3	99.1	98.1	99.3	99.6	97.7	99.7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정신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49.4	43.2	47.6	54.6	49.4	39.9	51.1	45.4	46.9
모른다	50.6	56.8	52.4	45.4	50.6	60.1	48.9	54.6	5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정신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2.6	2.7	1.3	6.2	3.0	0.6	6.6	1.3	2.7
없다	97.4	97.3	98.7	93.8	97.0	99.4	93.4	98.7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정신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15.3	13.6	3.2	13.9	13.7	26.7	16.8	10.7	14.6
약간 만족	20.2	30.1	49.8	27.1	24.3	2.4	24.1	24.9	24.4
보통	32.1	30.5	42.1	32.8	28.9	37.0	30.3	33.4	31.5
약간 불만족	13.2	7.9	2.5	10.4	11.9	10.5	10.6	11.6	11.0
매우 불만족	19.3	17.8	2.4	15.9	21.1	23.5	18.2	19.5	1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792	23,996	1,100	24,706	26,724	4,257	36,285	20,504	56,788

〈부표 2-12-3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정신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3.2	3.4	7.8	7.3	3.1	0.9	8.1	1.5	3.2
희망안함	96.8	96.6	92.2	92.7	96.9	99.1	91.9	98.5	9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요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15.2	13.0	18.1	21.8	17.0	6.8	18.0	12.9	14.3
모른다	84.8	87.0	81.9	78.2	83.0	93.2	82.0	87.1	8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3	0.4	0.8	0.7	0.4	0.0	0.6	0.2	0.3
없다	99.7	99.6	99.2	99.3	99.6	100.0	99.4	99.8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3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1.4	22.9	74.4	12.3	19.5	100.0	24.9	19.8	22.2
약간 만족	18.1	57.9	25.6	32.5	44.9	0.0	24.2	50.4	38.1
보통	16.6	0.0	0.0	21.3	0.0	0.0	0.0	15.5	8.2
약간 불만족	26.1	0.0	0.0	20.1	10.1	0.0	12.5	13.5	13.0
매우 불만족	17.8	19.2	0.0	13.8	25.5	0.0	38.5	0.8	1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00	3,636	656	2,803	3,734	42	3,400	3,835	7,236

〈부표 2-12-3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1.5	1.5	4.5	4.3	1.1	0.1	4.0	0.6	1.5
희망안함	98.5	98.5	95.5	95.7	98.9	99.9	96.0	99.4	9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이동지원서비스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55.5	42.2	61.0	60.4	56.9	35.5	57.3	47.4	50.0
모른다	44.5	57.8	39.0	39.6	43.1	64.5	42.7	52.6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이동지원서비스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2.9	4.4	4.0	3.7	3.9	2.8	10.0	1.2	3.5
없다	97.1	95.6	96.0	96.3	96.1	97.2	90.0	98.8	9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이동지원서비스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7.9	33.3	8.0	20.4	38.4	45.3	31.6	46.7	35.5
약간 만족	30.2	17.5	23.8	27.0	29.4	12.3	28.9	8.7	23.7
보통	14.3	4.7	23.2	16.8	6.7	6.4	12.0	1.6	9.4
약간 불만족	6.9	14.6	17.7	17.5	8.3	9.4	10.2	12.7	10.9
매우 불만족	10.7	29.8	27.2	18.3	17.2	26.6	17.2	30.3	2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791	38,593	3,293	14,744	34,509	21,833	55,221	19,162	74,384

〈부표 2-12-4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이동지원서비스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24.0	32.2	28.9	20.7	25.9	32.3	38.5	23.5	27.4
희망안함	76.0	67.8	71.1	79.3	74.1	67.7	61.5	76.5	7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2.1	15.7	28.8	33.0	21.9	8.6	26.4	17.0	19.5
모른다	77.9	84.3	71.2	67.0	78.1	91.4	73.6	83.0	8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7	1.4	4.1	4.5	1.3	0.1	3.3	1.0	1.6
없다	98.3	98.6	95.9	95.5	98.7	99.9	96.7	99.0	9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7.4	16.6	38.4	19.0	25.0	39.6	34.3	10.7	23.5
약간 만족	27.9	36.0	5.2	38.0	27.8	22.7	24.1	38.7	30.8
보통	32.3	43.4	56.0	33.2	37.7	4.4	26.1	48.3	36.3
약간 불만족	4.0	3.7	0.4	2.7	6.9	0.0	6.7	0.5	3.9
매우 불만족	8.4	0.4	0.0	7.1	2.7	33.3	8.7	1.7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33	12,193	3,361	17,886	11,640	838	18,231	15,494	33,726

〈부표 2-12-4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18.3	14.6	49.2	29.1	19.0	4.3	18.3	16.1	16.7
희망안함	81.7	85.4	50.8	70.9	81.0	95.7	81.7	83.8	8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0.5	12.5	31.4	27.7	19.8	7.1	22.9	15.1	17.1
모른다	79.5	87.5	68.6	72.3	80.2	92.9	77.1	84.9	8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4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5	0.1	0.5	0.8	0.3	0.1	0.5	0.2	0.3
없다	99.5	99.9	99.5	99.2	99.7	99.9	99.5	99.8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19.0	34.5	0.0	39.3	6.5	0.0	17.6	24.8	21.6
약간 만족	17.5	20.2	0.0	19.6	5.9	100.0	41.2	0.0	17.9
보통	53.9	45.2	100.0	24.6	87.5	0.0	32.4	67.8	52.4
약간 불만족	9.0	0.0	0.0	15.5	0.0	0.0	8.8	6.5	7.5
매우 불만족	0.6	0.0	0.0	1.0	0.0	0.0	0.0	0.9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30	1,161	448	3,347	2,673	421	3,001	3,890	6,891

〈부표 2-12-5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10.0	7.7	38.8	18.2	7.7	2.7	15.1	7.0	9.1
희망안함	90.0	92.3	61.2	81.8	92.3	97.3	84.9	93.0	9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점자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5.2	17.9	32.8	31.2	25.4	12.8	27.0	20.5	22.2
모른다	74.8	82.1	67.2	68.8	74.6	87.2	73.0	79.5	7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점자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3	0.2	0.0	0.4	0.3	0.1	0.9	0.0	0.2
없다	99.7	99.8	100.0	99.6	99.7	99.9	99.1	100.0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점자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18.8	35.8	-	8.2	22.7	51.2	24.0	0.0	23.7
약간 만족	43.5	42.8	-	41.2	60.4	0.0	42.6	100.0	43.3
보통	12.9	6.4	-	24.7	0.0	19.4	11.2	0.0	11.1
약간 불만족	24.7	0.0	-	25.9	8.6	29.4	17.9	0.0	17.7
매우 불만족	0.0	15.0	-	0.0	8.3	0.0	4.3	0.0	4.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17	1,440	-	1,523	2,588	948	4,993	64	5,057

〈부표 2-12-5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점자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0.7	0.9	0.9	0.6	0.7	0.9	1.7	0.5	0.8
희망안함	99.3	99.1	99.1	99.4	99.3	99.1	98.3	99.5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정신보건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11.0	8.3	17.3	19.0	10.1	4.1	15.1	8.0	9.9
모른다	89.0	91.7	82.7	81.0	89.9	95.9	84.9	92.0	9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정신보건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5	0.4	0.6	1.8	0.2	0.1	1.0	0.3	0.5
없다	99.5	99.6	99.4	98.2	99.8	99.9	99.0	99.7	9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5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정신보건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6.6	36.2	100.0	27.6	47.8	67.1	35.4	37.9	36.4
약간 만족	27.3	34.1	0.0	36.5	8.4	32.9	35.1	23.1	30.0
보통	17.0	5.6	0.0	14.3	11.7	0.0	5.2	22.3	12.4
약간 불만족	13.8	4.3	0.0	6.8	32.1	0.0	7.2	13.8	10.0
매우 불만족	5.3	19.8	0.0	14.9	0.0	0.0	17.1	2.9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868	3,912	534	7,298	1,503	444	5,649	4,131	9,780

〈부표 2-12-5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정신보건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2.9	2.2	8.3	5.3	2.9	0.4	5.2	1.7	2.6
희망안함	97.1	97.8	91.7	94.7	97.1	99.6	94.8	98.3	9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74.7	62.4	94.0	84.6	76.4	51.4	72.6	68.5	69.6
모른다	25.3	37.6	6.0	15.4	23.6	48.6	27.4	31.5	3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5.1	3.5	50.2	12.1	0.4	0.2	13.5	1.2	4.4
없다	94.9	96.5	49.8	87.9	99.6	99.8	86.5	98.8	9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27.1	30.6	28.0	29.4	10.8	48.0	30.0	20.6	28.3
약간 만족	25.0	28.8	32.8	18.9	48.7	27.6	26.9	24.0	26.3
보통	33.1	26.1	29.6	32.2	27.9	24.4	27.1	45.0	30.8
약간 불만족	7.1	11.1	7.2	10.3	1.0	0.0	9.0	6.4	8.4
매우 불만족	7.6	3.5	2.4	9.2	11.6	0.0	6.8	4.0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430	31,229	41,477	48,108	3,772	1,303	74,956	19,704	94,659

〈부표 2-12-6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3.3	2.0	62.4	1.4	0.0	0.1	7.7	1.0	2.7
희망안함	96.7	98.0	37.6	98.6	100.0	99.9	92.3	99.0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20.6	11.6	37.2	25.5	18.9	8.0	21.0	15.4	16.9
모른다	79.4	88.4	62.8	74.5	81.1	92.0	79.0	84.6	8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5	0.2	7.7	0.4	0.0	0.0	1.4	0.1	0.4
없다	99.5	99.8	92.3	99.6	100.0	100.0	98.6	99.9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6〉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45.6	6.8	45.5	10.1	0.0	-	31.8	74.1	36.1
약간 만족	21.2	81.1	35.6	22.6	100.0	-	38.5	13.1	35.9
보통	28.6	7.6	12.8	67.3	0.0	-	25.9	2.3	23.5
약간 불만족	2.3	2.3	3.0	0.0	0.0	-	1.8	6.3	2.3
매우 불만족	2.3	2.2	3.0	0.0	0.0	-	2.1	4.2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443	2,087	6,375	1,760	395	-	7,653	878	8,530

〈부표 2-12-67〉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3.4	1.8	48.3	2.7	0.8	0.1	7.0	1.2	2.7
희망안함	96.6	98.2	51.7	97.3	99.2	99.9	93.0	98.8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8〉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요부: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11.9	9.3	19.8	17.2	11.3	6.0	14.9	9.4	10.8
모른다	88.1	90.7	80.2	82.8	88.7	94.0	85.1	90.6	8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6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0.1	0.1	0.0	0.4	0.1	0.0	0.3	0.0	0.1
없다	99.9	99.9	100.0	99.6	99.9	100.0	99.7	100.0	9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70〉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4.6	41.7	-	3.6	45.1	-	19.2	11.5	17.2
약간 만족	3.2	58.3	-	5.8	54.9	-	29.8	0.0	21.9
보통	89.0	0.0	-	87.5	0.0	-	48.2	88.5	58.9
약간 불만족	3.2	0.0	-	3.1	0.0	-	2.9	0.0	2.1
매우 불만족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2	744	-	1,477	720	-	1,613	584	2,196

〈부표 2-12-7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8.2	7.3	32.9	16.6	7.4	1.1	12.7	6.1	7.8
희망안함	91.8	92.7	67.1	83.4	92.6	98.9	87.3	93.9	9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72〉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장애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안다	35.8	32.1	64.2	40.8	38.3	22.9	37.8	33.0	34.2
모른다	64.2	67.9	35.8	59.2	61.7	77.1	62.2	67.0	6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73〉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 장애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2	0.6	19.9	1.0	0.0	0.0	2.9	0.3	1.0
없다	98.8	99.4	80.1	99.0	100.0	100.0	97.1	99.7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74〉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장애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만족	34.8	19.2	33.0	21.4	-	-	27.7	42.7	30.9
약간 만족	36.4	49.3	37.7	48.3	-	-	38.9	42.5	39.7
보통	18.7	9.3	16.2	16.6	-	-	16.7	14.7	16.3
약간 불만족	3.3	22.2	6.7	13.7	-	-	10.2	0.0	8.0
매우 불만족	6.9	0.0	6.3	0.0	-	-	6.5	0.0	5.1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66	5,140	16,480	3,826	-	-	16,068	4,239	20,306

〈부표 2-12-75〉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향후 이용희망: 장애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희망함	0.8	0.6	16.9	0.3	0.0	0.0	2.0	0.3	0.7
희망안함	99.2	99.4	83.1	99.7	100.0	100.0	98.0	99.7	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부표 2-12-76〉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주거보장	15.1	15.9	10.5	18.7	15.8	13.8	16.5	15.0	15.4
장애예방	3.8	3.4	2.5	3.9	3.9	3.3	4.4	3.3	3.6
보육·교육 보장	3.7	3.3	41.5	3.6	2.2	0.9	5.6	2.8	3.5
의료보장	27.3	34.0	13.9	20.2	28.4	38.8	26.1	31.5	30.1
이동권 보장	2.3	4.1	0.6	2.3	2.4	4.5	3.3	3.0	3.1
고용보장	10.4	6.0	6.7	13.9	11.7	2.3	6.8	9.2	8.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1	1.3	2.0	1.3	1.1	1.3	1.4	1.4
소득보장	21.6	22.3	8.5	17.5	21.0	26.7	21.7	22.0	21.9
장애인 인권보장	6.8	4.1	8.1	8.7	6.7	2.7	7.4	5.1	5.7
장애인 인식개선	4.9	3.4	5.6	6.7	4.8	2.3	4.5	4.2	4.3
없음	1.7	2.0	0.0	1.0	1.2	3.1	1.9	1.8	1.8
기타	1.0	0.3	0.8	1.5	0.6	0.3	0.3	0.8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제13절 경제상태

〈부표 2-13-1〉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하층	69.2	74.9	57.0	68.3	70.5	76.1	73.1	71.0	71.6
중층	30.2	25.0	41.1	31.7	29.0	23.7	26.5	28.6	28.1
상층	0.6	0.1	2.0	0.0	0.5	0.2	0.4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2〉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0만원 미만	8.9	17.1	4.4	6.5	9.1	19.7	13.9	11.7	12.3
50~99만원	24.8	24.9	5.5	16.6	21.5	34.9	26.5	24.3	24.8
100~149만원	16.9	15.6	19.1	18.1	16.1	15.4	15.6	16.6	16.3
150~199만원	11.2	11.3	16.6	14.0	11.4	9.0	13.3	10.5	11.2
200~249만원	12.0	8.2	10.2	13.8	13.3	5.5	8.3	11.2	10.4
250~299만원	6.4	5.2	8.7	8.7	6.7	3.4	5.5	6.1	5.9
300~349만원	6.7	5.7	10.4	7.7	7.8	3.4	5.6	6.6	6.3
350~399만원	3.9	4.3	6.3	4.1	4.4	3.5	2.8	4.5	4.1
400~499만원	4.1	4.2	7.3	4.9	4.7	2.8	3.8	4.3	4.1
500만원 이상	5.0	3.5	11.6	5.5	4.9	2.3	4.7	4.3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538	884,988	82,701	396,426	886,862	770,540	553,086	1,583,441	2,136,526
평균금액	192.0	167.7	284.2	209.5	199.3	136.8	174.9	184.4	181.9

〈부표 2-13-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0만원 미만	8.3	16.5	4.2	5.4	7.5	20.4	13.8	10.9	11.7
50~99만원	25.2	25.2	6.7	17.4	21.8	35.1	25.9	25.0	25.2
100~149만원	19.0	18.0	21.4	21.1	18.8	16.7	17.2	19.0	18.6
150~199만원	13.9	13.7	17.2	17.6	15.9	9.1	15.1	13.4	13.8
200~249만원	13.6	9.1	14.7	16.2	13.9	6.6	9.7	12.5	11.7
250~299만원	8.1	5.0	8.4	9.4	8.5	3.3	5.7	7.2	6.8
300~349만원	4.9	5.5	8.6	4.5	6.1	3.9	5.6	5.0	5.1
350~399만원	2.3	2.4	5.3	2.6	2.8	1.4	2.6	2.3	2.4
400~499만원	2.7	2.8	6.6	2.8	2.7	2.4	2.7	2.8	2.7
500만원 이상	2.1	1.8	6.9	2.9	2.0	0.9	1.6	2.1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526	885,247	82,659	396,684	886,890	770,539	553,355	1,583,418	2,136,773
평균금액	163.3	144.5	237.9	178.1	169.6	118.8	148.9	157.8	155.5

〈부표 2-13-4〉 가구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근로소득	102.6	95.9	196.5	126.7	116.0	57.0	90.0	103.3	99.8
사업·부업소득	42.9	31.1	60.6	46.2	43.6	25.0	27.7	41.6	38.0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6.5	4.0	4.7	1.8	5.3	7.8	7.0	5.0	5.5
공적이전소득	25.9	21.9	17.0	25.2	24.3	24.4	33.5	21.0	24.2
사적이전소득	10.1	13.5	3.6	5.2	7.3	20.5	12.7	11.1	11.5
월 평균 총 가구소득	188.1	166.4	282.5	205.0	196.5	134.7	171.0	181.9	179.1

〈부표 2-13-5〉 개인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근로소득	38.6	10.3	2.7	54.7	37.1	3.5	8.5	33.3	26.9
사업·부업소득	22.7	4.1	0.0	14.5	22.8	7.9	3.7	19.0	15.0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4.2	0.9	0.0	0.1	2.6	4.9	3.0	2.8	2.8
공적이전소득	18.7	10.2	6.6	12.1	15.7	17.2	21.5	13.0	15.2
사적이전소득	2.0	4.5	0.5	0.6	1.7	6.1	2.8	3.1	3.0
월 평균 총 개인소득	86.3	30.1	9.8	82.0	79.9	39.4	39.5	71.2	63.0

〈부표 2-13-6〉 가입한 연금 종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미가입	48.7	81.1	-	58.4	49.3	78.8	74.0	58.3	62.1
국민연금	46.9	16.9	-	39.9	47.2	16.9	23.8	37.9	34.4
공무원연금	1.8	0.9	-	1.3	1.4	1.5	1.0	1.6	1.4
사립학교교원연금	0.4	0.2	-	0.1	0.7	0.0	0.1	0.4	0.3
군인연금	0.6	0.3	-	0.0	0.3	1.0	0.4	0.5	0.5
보훈연금	1.5	0.0	-	0.0	0.9	1.3	0.6	1.0	0.9
개인연금	0.1	0.5	-	0.2	0.1	0.5	0.2	0.3	0.3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0,969	853,556	-	396,684	886,907	770,934	504,229	1,550,297	2,054,525

〈부표 2-13-7〉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미납경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26.7	28.6	-	40.8	28.4	4.3	22.6	27.9	27.0
아니오	73.3	71.4	-	59.2	71.6	95.7	77.4	72.1	73.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3,191	122,426	-	157,700	408,100	119,816	118,400	567,216	685,617

〈부표 2-13-8〉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예	53.3	43.7	66.6	60.9	57.2	32.5	44.2	51.1	49.3
아니오	46.7	56.3	33.4	39.1	42.8	67.5	55.8	48.9	5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9〉 차량 소유 : 제1차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차종									
승용차	75.7	77.3	78.1	85.7	70.5	78.3	83.8	74.0	76.2
승합차	11.5	13.1	14.7	8.8	13.3	12.3	11.0	12.4	12.1
화물차	12.8	9.6	7.2	5.5	16.2	9.4	5.2	13.6	11.7
배기량									
1000cc 미만	3.7	3.8	4.2	3.2	4.4	2.8	4.0	3.7	3.7
1000~1500cc 미만	11.2	14.2	11.6	14.5	9.6	15.7	13.8	11.8	12.3
1501~2000cc 미만	56.5	55.7	51.4	60.5	55.6	54.4	62.8	54.2	56.2
2001~2500cc 미만	12.3	10.7	11.4	7.8	13.8	11.5	8.3	12.7	11.7
2501~3000cc 미만	14.4	11.8	13.5	12.8	13.7	13.4	9.4	14.7	13.4
3000cc 이상	1.9	3.9	7.8	1.2	2.9	2.2	1.7	2.9	2.6
연료									
휘발유	21.1	29.3	31.8	23.1	21.0	29.6	22.0	24.7	24.1
LPG	50.6	47.3	43.7	57.0	48.8	44.4	60.8	46.0	49.4
디젤	28.3	23.4	24.5	19.8	30.2	25.9	17.3	29.3	26.5
소유 명의									
장애인 명의	68.7	30.8	5.3	58.2	67.1	37.5	39.9	59.3	54.8
보호자 명의	11.1	36.2	19.9	19.0	16.6	29.2	15.9	21.6	20.3
공동 명의	18.1	31.1	73.0	21.6	14.0	31.2	43.4	16.7	22.9
기타	2.0	1.9	1.8	1.2	2.3	2.1	0.8	2.3	2.0
표지종류									
주차가능	44.0	44.3	33.1	45.7	45.5	42.2	62.9	38.5	44.1
주차불가	32.5	21.5	37.3	28.8	28.9	25.2	19.0	31.3	28.4
표지없음	23.5	34.3	29.6	25.5	25.6	32.6	18.1	30.3	27.4
용도									
출·퇴근	46.6	48.6	47.0	58.4	4.0	43.2	40.6	49.3	47.3
통학	1.4	1.9	17.3	1.1	0.8	0.1	4.5	0.7	1.6
사업용	13.7	14.9	12.7	11.6	16.2	12.6	9.6	15.5	14.1
외출(문화생활, 병원 등)	38.3	34.5	23.0	28.6	38.9	44.0	45.0	34.4	36.9
기타	0.0	0.1	0.0	0.3	0.0	0.0	0.3	0.0	0.1
운전자									
본인	60.0	11.6	1.1	51.7	51.9	22.6	20.1	48.9	42.3
보호자	36.5	86.6	96.6	47.6	45.1	72.5	76.8	48.2	54.9
기타	3.5	1.8	2.3	0.6	3.0	4.8	3.1	2.8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7,206	387,192	55,060	241,382	507,681	250,274	244,500	809,899	1,054,398

〈부표 2-13-10〉 차량 소유 : 제2차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차종									
승용차	53.5	48.9	89.6	26.6	60.3	46.2	58.5	49.5	51.7
승합차	8.5	12.2	4.0	10.6	8.4	16.6	7.9	10.5	9.9
화물차	38.0	38.9	6.4	62.8	31.3	37.2	33.5	39.9	38.4
배기량									
1000cc 미만	7.3	3.0	11.0	2.4	7.0	3.8	5.8	5.5	5.6
1000~1500cc 미만	16.7	7.4	12.8	3.8	16.6	16.3	14.2	12.7	13.1
1501~2000cc 미만	27.5	30.9	45.0	17.9	29.1	38.6	27.1	29.3	28.8
2001~2500cc 미만	27.8	35.2	2.4	37.5	36.4	12.5	23.2	33.1	30.7
2501~3000cc 미만	18.3	20.2	10.4	34.6	10.0	28.6	21.9	18.1	19.0
3000cc 이상	2.4	3.4	18.4	3.8	1.1	0.2	7.8	1.2	2.8
연료									
휘발유	32.1	18.0	55.1	10.3	30.2	28.1	35.2	23.8	26.6
LPG	21.3	18.9	23.9	31.3	17.0	12.3	18.7	20.9	20.3
디젤	46.7	63.1	21.0	58.4	52.8	59.6	46.1	55.3	53.1
소유 명의									
장애인 명의	55.3	10.4	6.9	33.1	47.9	24.7	10.8	46.6	37.8
보호자 명의	35.9	68.4	59.3	50.8	45.7	49.6	63.5	43.7	48.5
공동 명의	8.6	17.4	28.3	16.1	4.7	23.4	19.8	9.5	12.0
기타	0.2	3.9	5.6	0.0	1.7	2.3	5.9	0.2	1.6
표지종류									
주차가능	15.5	16.1	21.3	28.0	9.5	14.8	15.8	15.7	15.7
주차불가	5.6	11.4	14.0	3.2	7.7	13.2	7.1	8.1	7.9
표지없음	79.0	72.4	64.6	68.8	82.8	72.0	77.0	76.2	76.4
용도									
출·퇴근	35.3	46.7	31.7	44.8	40.5	32.5	37.7	40.4	39.7
통학	1.3	1.2	18.5	0.1	0.0	0.0	5.2	0.0	1.3
사업용	37.5	32.4	8.9	49.0	30.7	42.1	31.5	36.8	35.5
외출(문화생활, 병원 등)	25.9	19.6	40.8	6.2	28.8	25.4	25.5	22.8	23.4
기타	0.0	0.0	0.0	0.0	0.0	0.0	0.1	0.0	0.0
운전자									
본인	33.3	4.5	0.0	25.2	24.3	19.5	4.1	28.0	22.1
보호자	66.0	92.1	95.0	72.0	74.8	79.3	90.8	71.4	76.2
기타	0.6	3.3	5.0	2.7	0.9	1.2	5.0	0.6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4,798	41,181	7,253	26,549	56,043	16,134	25,920	80,058	105,979

〈부표 2-13-11〉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명,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50만원 미만	6.0	13.0	3.4	3.6	5.7	15.9	10.1	8.5	8.9
50~99만원	26.5	29.5	7.4	18.7	24.0	39.0	27.4	27.9	27.8
100~149만원	23.6	21.4	24.4	26.4	23.4	19.7	21.2	23.2	22.7
150~199만원	14.6	13.1	19.7	17.7	16.2	8.8	15.8	13.3	14.0
200~249만원	14.4	10.2	16.7	17.3	14.2	8.0	11.7	13.0	12.6
250~299만원	6.6	4.9	6.6	6.6	7.4	3.8	4.8	6.3	5.9
300~349만원	5.0	5.0	15.4	5.4	5.5	3.0	6.3	4.5	5.0
350~399만원	0.9	1.2	1.4	1.1	1.4	0.6	1.0	1.1	1.1
400~499만원	1.6	1.0	1.9	2.0	1.5	0.8	0.9	1.5	1.4
500만원 이상	0.9	0.7	3.2	1.2	0.8	0.3	0.9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584	885,248	82,700	396,684	886,908	770,539	553,356	1,583,476	2,136,832
평균금액	144.7	128.2	197.8	159.3	148.8	107.8	137.4	138.0	137.9

〈부표 2-13-12〉 박탈경험: 집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8.4	9.8	13.6	9.1	10.5	4.8	8.5	9.1	9.0
없다	91.6	90.2	86.4	90.9	89.5	95.2	91.5	90.9	9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7,456	261,522	33,699	151,459	285,442	148,378	175,047	448,432	618,978

〈부표 2-13-13〉 박탈경험: 공과금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2.1	8.3	13.5	16.3	12.7	4.7	8.6	11.1	10.5
없다	87.9	91.7	86.5	83.7	87.3	95.3	91.4	88.9	8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14〉 박탈경험: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2.8	1.8	2.2	4.5	2.8	0.8	2.1	2.5	2.4
없다	97.2	98.2	97.8	95.5	97.2	99.2	97.9	97.5	9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15〉 박탈경험: 공교육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6.7	4.8	2.9	4.0	7.0	8.8	4.3	6.5	6.0
없다	93.3	95.2	97.1	96.0	93.0	91.2	95.7	93.5	9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8,061	244,982	74,811	182,690	262,694	112,847	160,202	472,841	633,043

〈부표 2-13-16〉 박탈경험: 난방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6.2	6.0	4.4	4.6	7.0	6.2	9.9	8.0	6.2
없다	93.8	94.0	95.6	95.4	93.0	93.8	90.1	92.0	9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17〉 박탈경험: 병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2.4	16.5	13.8	13.0	15.0	13.6	12.6	14.6	14.1
없다	87.6	83.5	86.2	87.0	85.0	86.4	87.4	85.4	8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18〉 박탈경험: 신용불량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9.9	8.0	12.8	13.6	10.4	4.9	8.3	9.3	9.1
없다	90.1	92.0	87.2	86.4	89.6	95.1	91.7	90.7	9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19〉 박탈경험: 보험 급여자격 정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1.8	0.9	2.2	0.6	2.0	1.1	1.0	1.6	1.4
없다	98.2	99.1	97.8	99.4	98.0	98.9	99.0	98.4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61,373	711,366	66,264	308,544	733,705	664,225	390,683	1,382,056	1,772,739

〈부표 2-13-20〉 추가 비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있다	63.7	75.2	87.6	61.2	67.0	71.8	79.0	64.8	68.5
없다	36.3	24.8	12.4	38.8	33.0	28.2	21.0	35.2	3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부표 2-13-2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교통비	20.7	14.3	45.6	22.7	17.7	12.1	26.0	14.3	17.8
의료비	50.3	65.7	68.8	47.5	59.2	58.0	79.4	47.9	57.3
교육비	8.7	3.2	116.7	1.6	0.2	0.2	1.1	3.3	6.2
보호·간병비	7.5	12.7	20.2	6.6	5.9	14.2	23.7	4.0	9.9
재활기관이용료	2.6	1.2	22.9	3.7	0.2	0.3	5.9	0.3	2.0
통신비	1.5	1.2	1.0	2.2	1.5	0.9	3.8	0.3	1.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32.1	42.3	10.4	24.4	26.5	56.7	32.7	38.5	36.8
부모사후대비비	6.9	5.4	37.2	15.0	3.8	0.9	10.3	4.5	6.2
기타	33.0	7.1	17.4	92.4	7.3	5.4	13.4	24.6	21.2
월평균 총 추가비용	163.3	153.1	340.2	216.1	122.3	148.7	208.2	137.5	158.7

〈부표 2-13-22〉 향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교통비	1.9	2.4	1.0	1.7	3.0	1.5	2.5	2.0	2.1
의료비	66.3	24.8	25.9	96.4	60.6	14.5	51.1	45.8	47.4
교육비	8.2	3.6	119.5	1.2	0.0	0.0	15.9	2.0	6.1
보호·간병비	11.0	14.8	10.7	13.5	11.3	14.2	31.3	4.8	12.7
재활기관이용료	1.6	1.6	8.0	3.5	0.6	1.0	3.3	0.9	1.6
통신비	0.1	0.1	0.0	0.2	0.0	0.0	0.1	0.0	0.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7.2	19.2	5.1	13.2	16.0	24.2	25.8	14.9	18.1
부모사후대비비	27.5	23.1	144.3	50.9	17.1	7.9	45.5	17.0	25.5
기타	9.1	23.3	3.8	9.3	13.2	22.3	17.7	14.6	15.5
월평균 총 추가비용	142.9	112.7	318.3	190.1	121.8	85.6	193.0	101.9	129.2